(改稿 新版)

國 語 音 韻 學

허 웅 지음

正 音 社

改稿 新版을 내면서

舊版「國語 音韻論」은, 1956년에 탈고하여, 1958년 초에 간행되었으니, 탈고로부터는 거의 9년의 세월이 흘렀다.

간행되던 때부터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 책이어서, 그 머리말에 "要는 이와 같은 서투른 著書가 不必要하게 될 날이 하루 바삐 오기를 바랄 뿐이다" 라 한 일이 있었으니, 더구나 독자에게 불만족감을 주었으리란 것은 더 말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런대로 꽤 많이 읽혀진듯 하고, 그런대로 9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이런것이나마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생각하매, 좀더 나은 저서를 내어야 하겠다는 의무를 느끼게 된다.

그 동안, 나 자신이 이 책으로 강의를 해보기도 하였거니와, 많은 비판의 소리도 듣고 하여, 구판의 잘못된 데를 바로잡기를 힘쓰고, 새로 얻은 지식을 다시 정리하여 더 기워넣어서 원고를 완전히 다시 쓴 것은 지난 겨울 방학이었는데, 조판이 까다로운 데다가 출판의 사정이 얽혀서 이제 겨우 마지막 교정의 붓을 놓게 되었다.

'완성'이란 학문에서는 영원히 바랄 수 없는 일이매, 우선은 이 정도로써 여러 선배·동학들의 비판을 받아 보는 수 밖에 없게 되었으나, 나로서는 한번 더 고치고 더 보탤 기회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선다. 현대어에 대해서는, 카이모그래프나 음향음성학적 실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며, 역사적 '변천'이나 '변화'의 방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조사·연구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난관의 극복은 우리 국어학계의 뭉쳐진 힘으로만이 가능하다.

이번 고친 새판을 간행함에 있어서는, 출판사와 인쇄소에 많은 폐를 끼쳤다. 새판을 내기를 승락한 정음사의 최 사장님에게나, 많은 자모를 새로 새겨 가면서까지, 이 책의 조판을 마쳐주신, 정 재표 님을 비롯한 서울 대학교 출판부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한다.

1964. 12. 10.

낙산 기슭 연구실에서

저 자 적음

── 舊版 「國語音韻論」의 ──

머 리 말

우리말이 現代 言語科學의 照明을 받기 始作한지 이미 數十年이 지나, 그 동안 各 部門에 長足의 進步를 거듭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共認하는 바이다. 그러나 先進 國家의 自國語 硏究에 比하면 아직 멀리 미치지 못함을 스스로 부끄러이 여기지 않을 수 없는 形便임도 또한 다 認定하는 터이다.

文法으로 말하면, 崔 鉉培 先生님의 '우리 말본'이 나온지 벌써 二十年이 지났으나, 아직 우리는, 言語 事實의 該博한 蒐集과 組織的인 體系에 있어서, 이에 追從할만한 著述을 가지지 못했다. 二十世紀에 들어오면서 西歐의 言語科學은, 特히 共時 言語學의 面에 있어서, 長足의 進步를 遂行하고 있으며, 近年 特히 第二次 大戰 以來 美國의 言語學은 言語 分析의 技術에 있어서 刮目할 만한 成果를 거두고 있음도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이다. 이러한 周圍의 억센 흐름 속에 處해 있으면서 우리의 業跡이 볼만한 進展을 遂行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무리 辯明할 條件은 있다 하더라도 自責을 免하지는 못할 것이다.

音韻論 硏究는, 그 科學的인 方法이 機械的인 正確性을 期할 程度로 發達해 왔으며, 지금도 發達되고 있다. 우리말에 對해서도 內外의 여러 學者의 힘으로 이 方面에 相當한 業跡을 쌓은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音聲學과 音韻論의 硏究 方法이 確立되어 있지 않은 듯한 論文을 許多히 볼 수 있으며, 音聲學의 基本 土臺도 '우리말본' 以後 더 굳어진것 같지도 않다.

數年來 國語 音韻論 講義를 맡으매, 參考할 만한 論文은 相當히 많았으나, 音韻論 全般에 걸친 記述의 體系는 筆者 自身이 서투르게나마 세워 보는 수 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몇年 동안 講義한 노트를 整理한 것이 이 冊이다. 筆者 獨特한 學說도 없으면서 著述을 한다는 것이 良心에 거리끼는 바 없지도 않으나, 이러한 書籍이 거의 없는 現狀으로는 이 方面 初學者에게 多少

의 도움이 되지 않을가 自慰를 삼는 바이다.

言語 硏究에 있어서는, 살아있는 言語 事實을 對象으로 하는 것이 第一次的인 重要性을 가진다는 것은 더 말할 必要도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 冊에서는 現代國語의 共時的 記述이 量이나 質에 있어서 滿足을 주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의 이 方面의 硏究가 아직 모자람을 말하는 것이다.

筆者는 一年半 前에 이 原稿를 脫稿하였다. 이제 校正을 보매, 내 自身으로도 不滿한 點이 많아, 多少 이것을 補充하노라고 卷末에 補遺를 붙이기는 하였으나, 이것으로 自身의 不滿을 充足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要는 이와 같은 서투른 著書가 不必要하게 될 날이 하루 바삐 오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나라 出版界는 해마다 困難이 거듭되어서, 今年은 未曾有의 難關에 逢着해 있다 한다. 이런 중에서도 이와 같은 冊의 出版을 맡아주신 正音社 社長 崔暎海님에게는 感謝하다기보다 未安한 感을 禁할 수 없다. 符號와 古字가 매우 까다로운 이 冊의 組版을 맡은 鮮美印刷所 여러분에게는 이 자리를 빌어 感謝의 뜻을 表한다.

1958. 1. 30

著者 지음

차　　례

Ⅰ 말소리의 一般的 性格……13

1. 말소리의 내는 법과 적는 법……13

1) 發動部……15
2) 發聲部……17
3) 發音部……21
(1) 發音部의 作用하는 方法……21
(2) 發音部의 作用하는 자리 : 말소리의 綜合的 記述……28

2. 音　素……46

1) 音聲들의 相互 關係는 반드시 均等한 것은 아니다……46
2) 音素의 定義……51

3. 音素 體系……73

1) 對立(聯合) 關係……76
(1) 音素의 對立……76
(2) 中和 作用과 原音素……82
(3) 相關과 相關束……85
(4) 機能 負擔量과 間接的 對立……89
2) 音素의 組織……89
(1) 母音의 組織……90
(2) 子音의 組織……94
3) 統合 關係……98
(1) 音　節……99
(2) 音素 結合의 制約性……107
(3) 連　接……108

4 韻律的 資質……109

1) 非辨別的 資質로서……109
2) 纖細한 語感의 表現으로서……111

3) 統辭的 對立으로서……112
4) 語彙的 對立으로서……113
(1) 소리의 길이……113
(2) 소리의 높이……117
(3) 소리의 세기……120
(4) 音素와 韻素, 音素論과 韻素論……121

5. 音韻學과 音聲學……123

Ⅱ. 現代 國語의 音韻學……129

1. 音素 分析……129

1) 뜻을 分化하지 않는 소리의 交替……131
2) 서로 비슷하면서 交替될 수 없는 소리……140
3) 複式 相補 配置와, [ʔ]의 처리 문제……153
(1) 內破音……154
(2) [ʔ]의 처리……160
4) 複音素的 價値와 單音素的 價値……160
(1) 複音素的 價値……160
(2) 單音素的 價値……167
5) 無聲 母音의 문제……169
6) 辨別的으로 對立하는 소리……172

2. 音素 體系……190

1) 各 音素의 辨別的 資質……191
2) 音素의 對立 關係……195
(1) 音素의 對立……195
(2) 相關과 相關束……201
3) 音素의 組織……202
(1) 母音 組織……203
(2) 子音 組織……205
4) 音素의 結合 關係……207
(1) 音 節……207

(2) 音素 結合의 制約性……213
(3) 連　接……225

3. 韻素論……226

1) 抑　揚……226
2) 語彙的 對立에 利用되는 韻素……229

4. 音韻의 變動……234

1) 變動의 意義……234
(1) 形態素와 變異 形態……234
(2) 基本 形態……236
(3) 變異 形態 相互間의 關係……240
(4) 變　動……241
2) 音韻의 變動……242
(1) 歸　着……243
(2) 同　化……247
(3) 縮　約……260
(4) 省略(脫落)……262
(5) 添　加……267
(6) 異　化……269
3) 變動과 變格 活用……271
4) 母音 調和……273
<붙임> 現行 綴字法의 基本 原則……277

Ⅲ. 西紀 15세기 國語의 音韻學……281

1. 文字와 그 音價……281

1) 表記法(訓民正音)의 組織……281
2) 音價 推定……286
(1) 失音字……286
(2) 變音字……342
3) 各文字의 音價……358

2. 音素 體系……361

1) 音素의 數 ……………………………………………………………361
(1) 子 音……………………………………………………………361
(2) 母 音……………………………………………………………369
2) 音素의 對立 關係 ……………………………………………………371
(1) 音素의 對立 ……………………………………………………371
(2) 相關과 相關束 …………………………………………………372
3) 音素의 組織……………………………………………………………373
(1) 母音의 組織 ……………………………………………………373
(2) 子音의 組織 ……………………………………………………377
4) 音 節 ……………………………………………………………379

3. 音素 變動……………………………………………………………382

1) 歸 着 ……………………………………………………………382
2) 同 化 ……………………………………………………………384
3) 縮 約 ……………………………………………………………384
4) 省 略(脫落) ……………………………………………………386
5) 添 加 ……………………………………………………………392
6) 사잇소리 ……………………………………………………………392
7) 母音 調和……………………………………………………………394

4. 韻 素 論……………………………………………………………398

1) 旁 點 ……………………………………………………………398
2) 聲調 組織……………………………………………………………406
3) 聲調型 ……………………………………………………………406

Ⅳ. 國語 音韻史 ……………………………………………………414

1. 音韻의 變遷……………………………………………………………416

1) 15세기와 현대와의 音韻 體系의 差異點……………………………416
2) 變遷의 時期……………………………………………………………418
(1) 子音 體系의 變遷……………………………………………418
(2) 母音 體系의 變遷……………………………………………430
(3) 音素 連結 方式의 變遷………………………………………439

(4) 聲調의 消滅과 音長의 發生……448
3) 變遷史 ……449
(1) /β/(ㅸ)의 消滅……450
(2) /h'/(ㆅ)의 消滅 ……451
(3) 緊張 (半)母音의 消滅……452
(4) ㅅ系 子音群의 된소리化……453
(5) /s/ 終聲의 消滅……453
(6) /z/(ㅿ)의 消滅……454
(7) 聲調와 長短의 交替……454
(8) 語頭 子音群의 消滅……455
(9) 兩唇音 다음의 /ï/ : /u/……456
(10) 口蓋音化의 傾向 ……457
(11) 母音 組織의 大 變遷……457

2. 音韻의 變化……461

1) 結合的 條件으로 일어나는 變化……461
(1) 努力 經濟에서 일어나는 變化……462
(2) 表現을 명료하게 하려는 데서 일어나는 變化……491
(3) 無意識的인 過誤로 일어나는 變化……511
2) 낱말의 互相 關係로 일어나는 變化……515

붙임. 音聲 象徵……527

<索 引>……539
<INDEX> ……548

<일 러 두 기>

1. 章 '節', '項'의 표시는, 數字의 종류와 괄호로써 한다.

<章>…… Ⅰ, Ⅱ, Ⅲ,……

<節>…… 1. 2. 3. ……

<項>…… 1), 2), 3) ……

<目>…… (1), (2), (3)……

따라서 「Ⅰ, 2, 3), (5)」는 「제 1 장, 제 2 절, 제 3 항, 제 5 목」을 표시함.

2. '음성'이나 '음소' 표기에서는 주로 I.P.A.를 사용하였는데, 그것은, 한글로 해서는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ㅐ]로써는 [ɛ]인지 [aj]인지 구별이 안되며, 한 음소의 '변이음'은 한글로 표기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3. 자음의 음성부호 다음에는 [으] 모음을 붙여 읽도록 한다.

<예> [p]……[pï]로 읽을 것.

4. 술어는 되도록이면 쉬운 우리말을 가려 쓰기에 힘썼다. 서투른 외국말을 되도록이면 피하고, 번역을 하되 그 내용을 암시할 수 있는 말을 가리고, 직역은 피하였다.

5. 형태소를 표기함에 있어서 받침을 분리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

<예> 낢-(木) → 남ㄱ- 따위

6. 술어에 외국말의 이름 표시가 없는 것은 영어이다.

7. 합성어로 된 술어 중,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에는, '하이픈'을 넣는다.

<예> 여린-입천장 따위

8. [→] 표는 共時的 變動을 표시하고, [>, <] 표는 通時的 變化나 變遷을 표시한다.

9. [:] 표는 '對'로 읽을 것.

I. 말소리의 一般的 性格

國語 音韻學의 說明에 들어가기 前에, 우리는 말소리에 대한 一般的인 理論을 簡單히 說明해둘 必要를 느끼게 된다. 個別 言語의 特殊的 現象은, 言語의 一般的 理論에 비추어 볼 때, 그 性格이 더 한층 明白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는, 말소리의 存在하는 모습을 파악하는 그 첫 걸음으로서, 말소리의 具體的인 모습을 이모 저모 살펴보기로 하자.

1. 말소리의 내는 법과 적는 법

「소리」란 어떠한 物體(音源)의 振動으로 空氣의 波動(音波)을 일으키게 되고, 이것이 귀의 鼓膜을 떨어울리는 現象을 말함인데, 이러한 「소리」가 사람의 입 안에서 일어나서, 사람의 意思 通達의 資料로 使用되는 것이 具體的인 「말소리」이다.

具體的인 말소리는, 呼吸의 空氣의 흐름을 利用하여, 肺에서 입에 이르는 사이의 여러 器官을 作用시켜 낸 소리가 空氣를 媒介로 하여 귀에 傳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具體的인 말소리(앞으로는 「具體的인 말소리」를 單純히 「말소리」라고 부르기로 한다)의 考察은 세 方向으로 할 수 있다.

첫째로, 말할이(speaker)의 소리 내는 器官의 움직임을 硏究하는 發生的 方面과, 둘째는, 傳播의 媒介 作用을 하는 空氣의 音波의 性質을 硏究하는 音響的 方面과, 세째는, 귀로 感知하는 청취的 方面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세 方面의 硏究는 다 같은 效能이 있는 것이 아니다. 청취的

方面의 硏究는 아직 잘 開拓되지 않았다. 그것은 청각 印象이란 것은 客觀的으로 分類하고 記述하기가 매우 어려울뿐 아니라, 言語學者로서는 이러한 方面을 硏究할 만한 能力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音波의 性質을 究明하는 音響的 方面의 硏究는, 最近에 현저한 發達을 보이고 있는 것은 事實이며, 앞으로 이 方面에서 말소리의 本質이 續續 究明될 것이 期待되나, 그러나 이에는 物理學, 數學의 專門的 知識이 必要한 것이며, 巨創한 實驗 裝置를 必要로 하는 것이므로, 普通 言語學者로서는 좀처럼 接近하기 힘들게 되어 있다. 이에 比해서, 소리 내는 기관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發生 方面의 硏究는, 普通 言語學者라도, 조금만 訓練을 쌓을 것 같으면, 能히 接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소리의 硏究는 主로 이 方面에 置重하게 되는 것이 普通이다.

이러한 말소리를 硏究하는 學問을 「音聲學」(phonetics)이라 하는데, 發生的 方面의 硏究를 「生理 音聲學」(physiological phonetics), 空氣의 音波의 性質을 硏究하는 것을 「音響 音聲學」(acoustic ph.), 청취 方面의 硏究를 「청취 音聲學」(auditory ph.)이라 하ᄂ 區別하는 일이 있다.(1)

말소리를 내는 데 관여하는 人體의 모든 器官을 「音聲 器官」(organs of speech)이라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떠한 기관이 어떻게 作用하ᄂ 어떠한 소리가 나게 되는지를 說明하기로 한다.

말소리를 說明하는 데는, 그것을 表記하는 符號가 必要하다. 이러한 符號를 「音聲符號」(phonetic symbol)라 하는데, 音聲符號의 體系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國際 音聲學會」(International phonetic association, Association phonétique internationale)에서 制定한 「國際 音聲符號」(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I. P. A.)를 使用하기로 하고, 必要에 따라서는——그렇게 하는 것이 便利하다고 생각될 때는——若干의 修正을 加하여 使用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

(1) Bernard Bloch and George L. Trager: Outline of Linguistic Analysis. Baltimore, 1942. p. 11.

말소리 내기에 관여하는 音聲 器官은 便宜上 세 部分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공기를 움직이게 하는 部分=發動部 (initiator)
2. 소리를 내는 데=發聲部
3. 소리를 고루는 데=發音部

1) 發 動 部

오르갠이나 또는 모든 吹奏 樂器는 공기를 불어 보내지 않고서는 소리가 나지 않는데, 사람의 말소리도 그와 같이 공기를 불어 보내지 않고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공기를 불어 보내기 위해서는 공기를 처음으로 움직이게 하는 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發動部」라 한다.

發動部는 셋인데, 하나는 肺이고, 다음은 喉頭이고, 다음은 後部 口腔이다. 그러나 이 세군데의 發動部는 모두 다 같은 重要性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中에 肺가 가장 重要한 作用을 하게 된다. 그것은, 肺에서 불어 보내는 空氣를 利用하는 말소리가 가장 으뜸가는 것이요, 다른 데를 作用시켜서 내는 소리는 거의 다가 말소리의 周邊的인 價値를 가진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肺를 發動部로 하여 내는 소리를 「부아 소리」라 하고, 喉頭를 發動部로 하는 소리를 「목 소리」라 하고, 後部 口腔을 發動部로 하는 소리를 「입안 소리」라 한다.(2)

空氣의 方向도 반드시 一定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다. 發動部에서 人體의 外部로 空氣를 불어 내는 일도 있고, 그 反對로, 人體의 밖에서 안으로 空氣를 들이키는 일도 있다. 밖으로 불어 내는 空氣를 利用해서 내는 소리를 「날

---

(2) Trager·Bloch 은, 停止音에 있어서의 부아소리를 "pulmonic", 목소리를 "glottalic", 입안소리를 "velaric"라 한다. 그리고 停止音에 있어서는 閉鎖가 內部와 外部의 두군데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內部 閉鎖를 "inner closure"라 하고, 外部 閉鎖를 "outer closure"라 한다. <Outline of Linguistic Analysis. p. 31>

숨 소리」(呼氣音)라 하고, 들이키는 空氣로 내는 소리를 「들숨 소리」(吸氣音)라 한다.(3)

날숨 소리와 들숨 소리도 다 같은 重要性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말소리의 거의 大部分은 날숨 소리이며, 들숨 소리는 그 周邊的 價値를 가짐에 不過하다. 국어에서는, 들숨 소리는 正常的인 말소리로서 쓰이는 것은 없다.

이리하여 發動部의 움직임으로 보면, 말소리는 여섯가지로 區分되는 셈이다.

空氣方向 / 發動部位	날 숨 소 리	들 숨 소 리
부 아 소 리	날숨 부아 소리	들숨 부아 소리
목 소 리	날숨 목 소리	들숨 목 소리
입 안 소 리	날숨 입안 소리	들숨 입안 소리

「날숨 부아 소리」는 肺에서 人體의 밖으로 나오는 空氣로 내는 소리인데, 大部分의 말소리가 이에 속한다. 나머지 다섯가지 소리는 거의 重要性을 가지지 않는다.

「들숨 부아 소리」는, 肺로 들이키는 空氣를 利用하여 내는 소리인데, 正常的인 말소리로서는 잘 쓰이지 않고, 매운 것을 먹었을 때나, 매우 아플 때에, 숨을 빨아들이면서 입술을 둥글게 하고 혀끝을 갈아내는 소리가 이에 속한다.

「날숨 목 소리」는 두 목청(聲帶)을 꼭 붙여 聲門을 꼭 닫고, 喉頭 全體를 위로 치켜올려서 空氣를 밖으로 불어 내면서 내는 소리인데, 英語의 'up, get, look' 따위 말의 끝 p, t, k는, 佛蘭西 사람이 發音할 때는 흔히 이러한 方法으로 내는 일이 있다고 한다.(4)

(3) 英語로는, 「날숨 소리」는 "pressure" <Trager · Bloch: Outline. p. 31>, 또는 "egressive (or compressive)" <Kenneth L. Pike: Phonetics. Ann Arbor, 1943. p. 88>라 하고, 「들숨 소리」는 "suction" (Trager·Bloch) 또는 "ingressive (or rarefactive)" (Pike)라 한다.

(4) Daniel Jones: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Cambridge, 1957(8版). p. 154. 그는 이러한 소리를 "ejective consonant"라 하였다.

「들숨 목소리」는, 위의 경우처럼, 聲門을 닫고서, 喉頭를 反對로 밑으로 내려서 공기를 빨아 들여 내는 소리이다.

「날숨 입안 소리」는, 혀의 뒤쪽을 목젖 가까이 軟口蓋에 꼭 붙여 完全히 막고 軟口蓋와 혀를 앞으로 내밀어 공기를 밖으로 불면서 내는 소리인데, 남을 嘲弄할 때에 침 뱉는 형용을 하면서 내는 소리(입술을 터뜨려)가 그것이다

「들숨 입안 소리」는, 위와 같이, 혀뿌리와 軟口蓋를 꼭 붙여 막고, 여기를 뒤로 물리면서 공기를 빨아 들여 내는 소리이다 두 입술을 터뜨리는 소리는 키쓰할 때 나오는 소리이고, 귀찮아서 혀차는 소리는 혀끝을 터뜨리는 소리이며, 말을 몰 때에 혀를 차는 소리는 혀옆(舌側)을 터뜨리는 소리이다. (이러한 혀차는 소리는 「쯧 쯧」과 같이 表記되는 일이 있다.) 또 못마땅함을 表示할 때는 혓바닥을 입천장에 대고 터뜨리는 일도 있다.

2) 發 聲 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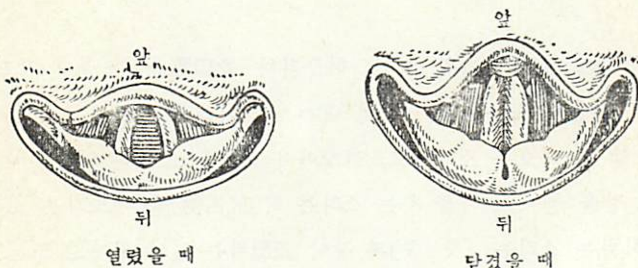
肺에서 나오는 날숨은 氣管을 通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氣管의 위쪽에 喉頭가 있다. 喉頭는 그 속에 「가락지 여린뼈」(輪狀軟骨, cricoid cartilage)와 「헤침 여린뼈」(披裂軟骨, arytenoid c.)와 「방패 여린뼈」(甲狀軟骨, thyroid c.)가 있고, 헤침 여린뼈에 「목청」(聲帶, vocal chords)의 뒤쪽이 붙어 있다. 목청은 水平으로 前後에 連結된 左右 두쪽의 筋肉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헤침 여린뼈의 운동과 自身의 伸縮에 依해서 그 形狀을 바꾸게 되어 있다.

두 목청의 사이를 「聲帶 聲門」(chord glottis)이라 하고, 헤침 여린뼈 사이의 部分을 「軟骨 聲門」(cartilage glottis)이라 하며, 이 두 部分을 合해서 「聲門」(glottis)이라 한다.

이 聲帶의 作用으로, 여기에서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이므로, 이 部分을 「發聲部」라 한다. 그것은, 聲帶가 振動하여 나는 소리를 「聲」이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에서 나는 소리를 대강 說明하기로 하겠는데, 聲帶는 두쪽의 筋肉이므로, 그 움직임은 두 입술의 움직임과 견주어서 생각하면 잘 理解될 것이다.

[聲門의 여닫음](5)



열렸을 때 닫겼을 때

두 입술을 꼭 닫고 공기를 내뿜으면, 입술이 터지면서 소리가 나게 되는데, 이와 비슷한 方法으로 목청을 터뜨리는 소리가 「목청 터짐·소리」(聲帶 破裂音 glottal explosive)이다. IPA로는 [ʔ]로 표시한다.(6) 매우 놀랐을 때에 發音하는 "악"하는 소리는, 그 첫머리에 목청 터짐-소리로 始作하고, 다시 끄트머리에서는 목청을 꼭 닫는다. 이와 같이 목청은 그것을 터뜨릴 때만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열렸던 목청을 닫을 때도 特別한 소리의 效果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두 입술로써 나오는 공기를 막을 때에도 特別한 소리가 들리는 것과 한가지다. 국어의 「밥」이란 말은, 그것을 單獨으로 發音할 때는, 첫 「ㅂ」소리는 입술을 터뜨릴 때 들리는 것이나, 끝의 「ㅂ」 소리는 입술을 닫을 때에 나는 소리이다. 이러한 두가지의 소리를 다 같이 「ㅂ」으로 表記하듯이, 목청에서 나는 이러한 두가지의 소리도 같은 符號를 使用한다. [ʔaʔ]

국어의 된소리는 一般的으로는 音聲 器官의 筋肉——特히 喉頭 筋肉——을 緊張시키면서 내는 소리인데, 破裂音의 된소리 「ㄲ, ㄸ, ㅃ, ㅉ」 따위는 입

(5) 이 그림은, D. Jones: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p. 19에서 따왔음.
(6) 具體的인 말소리를 音聲 符號로 表記할 때는 반드시 [ ]안에 넣기로 한다.

안의 破裂과 同時에 聲帶 破裂을 수반하는 일이 있다.(7) 이 경우에는 [ʔp, ʔk] 또는 [pʔ, kʔ] 처럼 表記한다.

두 입술을 가볍게 닫고서 숨을 내뿜으면 입술은 떨어울게 되는데, 이와 비슷한 要領으로 목청을 떨어울려서 내는 소리가 「聲」(voice)이다. 말소리들 中에는 聲을 수반하여 내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소리가 「有聲音」(voiced sound)이다. 「아, 어, 오, 우」 따위 母音은 모두 聲을 수반한 소리이며, 「ㄴ, ㅁ, ㆁ, ㄹ」 따위 子音도 모두 聲을 수반하는 有聲音이다. 그리고 국어의 「ㄱ, ㄷ, ㅂ, ㅈ」의 네 소리는 말의 첫머리에서는 聲을 수반하지 않으나, 有聲音과 有聲音의 사이에서 날 때는——「감기, 만두, 곰보, 반지」 따위 말의 第二 音節의 경우——聲을 수반하게 된다.

목청을 벌려 聲門을 열어 놓고(앞 그림 참조), 공기를 通過시켜서 소리를 내면, 聲을 수반하지 않는 소리가 되는데, 이러한 소리가 「無聲音」(voiceless sound)이다. 앞에 말한 국어의 말 첫머리의 「ㄱ, ㄷ, ㅂ, ㅈ」이나, 「사람, 씨름, 흐름, 칼, 탈, 팔, 춤」 따위 말의 첫머리에서 나는 소리들은 모두 聲을 수반하지 않는 無聲音이다. 방패 여린뼈(甲狀軟骨)의 앞쪽(Adam's apple)에다가 손가락을 대어보면, 목청의 振動을 感觸할 수 있다.

목청이 若干 열려서, 공기의 흐름이 여기에서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 국어의 「하루, 허리, 홀로」 따위 말의 첫소리가 되는데, 이것이 [h]이다. 그런데 이 [h] 音은 그 摩擦이 그리 현저하지 않고, 그리고 꼭 목청에서만 나는 것 같지 않다. 오히려 相當히 넓은 口腔 通路를 空氣가 지날 때에, 咽頭나 口腔 通路의 全體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마찰을 「空洞 마찰」(cavity friction)(8)이라 한다.

목청이 이보다 좀더 接近하여 聲帶가 떨어울기는 하되, 그러나 彈力性이 없고 弛緩하여, 披裂軟骨 사이의 聲帶의 가장자리가 若干 열려서 聲帶의 振

(7) 그러나 우리말 된소리의 正常的인 發音은 喉頭 筋肉의 緊張을 수반하는 데에 그 特色이 있다. 이러한 소리는 [p', k']로써 표기한다.

(8) Kenneth L. Pike: Phonemics, A Technique for reducing Languages to Writing. Ann Arbor, 1947. p. 26.

動이 不完全하게 일어나는 소리를 「중얼거림」(vocal murmur, half voice)이라 한다. 중얼거리는 말에 있어서의 有聲音들은 목청의 振動이 完全하지 못하여서 半 마찰이 들리게 되고, 또 「여행, 영향」 따위 말의 「ㅎ」 소리는, 普通 말에 있어서는, [h] 音이 完全히 나지 않게 되는데, 그렇다고 完全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두 母音 사이에는 짧기는 하나마 聲帶 振動이 一時 弱化된다. 普通 速度의 말에 있어서 「영향」(影響)과 「영양」(營養)을 區別하는 것은 이러한 音聲的 特質에 있다. 이것이 [h]의 有聲音으로서 [ɦ]로 표기된다.

聲帶 聲門 쪽의 聲帶를 붙여서 닫고, 軟骨 聲門 쪽에 틈이 생겨서 여기에서 가벼운 갈이-소리가 들리게 되거나, 또는 聲門을 좁히고, 聲帶를 緊縮시켜 떨어울지 못하게 하고서 공기를 내뿜게 되면, 여기에서 가벼운 갈이-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이것이 「소곤소곤」(whisper)이다. 소곤거리는 말에 있어서는, 無聲音은 普通 말의 경우처럼 聲門이 열려서 나게 되나, 有聲音은 聲帶振動을 수반하지 않고, 이러한 소곤소곤이 이에 代置된다.[9] [asa]와 [aza]를 소곤거려서 發音하더라도 區別이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와 같이 聲帶의 作用으로 나게 되는 소리들을 分類하면 다음과 같다.

- 聲帶 振動 있음
  - 振動이 完全함……有聲音
  - 振動이 不完全함……중얼거림
- 聲帶 振動 없음
  - 聲門 完全 開放……無聲音
  - 聲門 若干 開放……[h]
  - 聲門을 좁히고 緊張시키거나, 軟骨 聲門만 열림……소곤소곤
  - 聲門 破裂……………[ʔ]

喉頭와 咽頭 사이에 「울대마개」(會厭, 喉頭蓋, epiglottis)가 있는데, 이것은 發音 作用에 관여하지 않고, 다만 飮食物이 喉頭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마

(9) L. Bloomfield: Language. New York, 1933, p. 95. Trager・Bloch: Outline of Linguistic Analysis. p. 17 참조.

개 노릇을 한다. 그러나 울대마개가 움직여서 喉頭를 막는 것이 아니라, 喉頭 全體가 위로 치올라서 울대마개에 가 닿는 것이다.

3) 發 音 部

울대마개를 넘어서면 공기는 喉頭에 다다르게 되고 다시 위로 올라서 코나 입을 通하여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部分들을 「發音部」라 한다.

發動部의 作用은 말소리를 分化하는 데는 그리 重要하지 않다. 이 作用으로 여섯가지의 소리가 나게 되기는 하나, 그 中의 한가지(날숨 부아 소리)만이 重要하고, 나머지 다섯가지는 別로 重要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 部分은 말소리를 내는 데는 그리 重要하지 않은 것이다.

發聲部는, 이에 比하면, 正常的인 말소리를 여러가지로 分化하는 구실을 하기 때문에, 좀 더 重要한 位置를 차지한다. 그러나 發聲部의 作用도, 發音部에 比하면, 그 重要性이 덜하다. 허구많은 소리는 大部分이 發音部에서 分化되기 때문이다.

(1) 發音部의 作用하는 方法(manner of articulation, mode d'articulation)

喉頭의 위쪽에 있는 音聲 器官은 能動的으로 움직이는 部分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가지 소리가 分化되기에 이르는 것인데, 能動的으로 잘 움직일 수 있는 部分은, 혀와 軟口蓋의 끄트머리와 입술이다. 特히 이 中에 혀는 가장 銳敏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말소리를 내는 데는 가장 으뜸가는 重要性을 차지하게 된다.

말소리를 낼 때는, 能動的으로 잘 움직일 수 있는 部分이 그와 맞서어 있는 部分을 向하여 作用을 하게 되는데, 그 作用하는 方法으로 다음 몇가지 소리가 分化된다.

<터짐-소리> 空氣의 流通을 어떠한 자리에서 一旦 完全히 막아 버리는

일이 있다. 「ㄱ, ㄷ, ㅂ, ㅈ」과 같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혓바닥이나 혀끝이 입천장이나 웃잇몸에 가 닿아서 공기를 一旦 完全히 막거나 또는 두 입술이 完全히 閉鎖되어서 공기의 流通을 一旦 完全히 막거나 해야 하는데, 이러한 소리를 「터짐-소리」(破裂音 또는 停止音, plosive or stop)라 한다.

典型的인 터짐-소리는 一旦 막았던 자리를 공기의 壓力으로 터뜨려야 한다. 그러므로 典型的인(完全한) 터짐-소리에는 그 내는 동안을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卽 먼저 通路를 막기 위해서는 發音部의 能動的으로 잘 움직일 수 있는 部分을 맞은편 자리에 갖다 붙여야 하는데, 이것을 「閉鎖」(implosion, occlusion)라 한다. 다음으로 이 閉鎖를 어느 瞬間 계속해야 하는데, 이것을 「持續」(retention), 마지막으로 이 閉鎖를 터뜨리는 瞬間을 「開放」 또는 「破裂」(explosion)(10)이라 한다.

完全한 터짐-소리에 있어서는, 위에서 말한 바 세 단계가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나, 때로는 이러한 세 단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터짐-소리도 있다.

「아빠」의 「ㅃ」은, 첫 「아」에서 열렸던 입술을 「ㅃ」을 내기 위해서 다물어서(閉鎖) 어느 瞬間 持續했다가 다시 뒤의 「아」를 내기 위하여 입술을 터뜨리면서 열어야 한다(開放). 그러므로 이러한 터짐-소리는 完全한 터짐-소리다. 그러나 「곰보」의 第二 音節의 「ㅂ」은, 「ㅁ」에서 입술은 이미 닫겨졌기 때문에 「ㅂ」을 내기 위한 閉鎖는 不必要하다. 卽 이 「ㅂ」은 持續과 開放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입(口), 잎(葉)」을 單獨으로 發音하거나, 또는 「입도, 잎과」 처럼, 뒤에 子音으로 始作되는 助詞가 붙거나 하면, 이 「ㅂ, ㅍ」은 開放되지 않고 만다.

이와 같이, 터짐-소리에는, 完全히 세 단계를 다 갖춘 소리와, 閉鎖나 開放이 없는 不完全한 것이 있는데, 不完全한 소리 中에 開放이 없는 것을 特히 「內破音」(implosive)이라 하여, 開放이 있는 「外破音」(explosive)과 區別하는

---

(10) 이 세 단계를, 英語로는 "contact, hold, release" <Heffner: General Phonetics. p. 119> 라기도 하고, 佛語로는 "implosion, tenue, explosion" <Vendryes: Le Langage. p. 27>, 또는 "catastase, tenue, métastase" <Grammont: Traité de Phonétique>라기도 한다.

일이 있다. 特히 必要할 때는 內破音은 [p', t', k']로 표기한다. 국어의 「밥, 국」은 各各 [pap'], [kuk']으로 표기된다.

터짐-소리는 또 그 開放하는 方法에 몇가지 다름이 생겨난다.

국어의 「바보, 붐비다」 따위 말의 「ㅂ」 소리들은, 音聲 器官의 筋肉이 正常 狀態를 유지하면서 破裂이 일어난다. 「돌, 단도, 감기, 공기」 따위의 「ㄷ, ㄱ」도 한가지인데, 이러한 方法으로 내는 소리를 「軟音」(lenis)이라 한다.

그러나 국어의 된소리의 「ㅃ, ㄲ, ㄸ, ㅉ, ㅆ」 따위는 그렇지 않다. 이 소리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聲帶 破裂을 同時에 수반하는 일도 있으나,(11) 正常的인 發音으로는, 閉鎖와 同時에 音聲 기관의 모든 筋肉——特히 喉頭筋肉——이 緊張되고 이 緊張을 破裂과 同時에 풀어주게 된다. 그리하여 뒤따르는 母音의 聲帶 振動은 破裂에 곧 이어 始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音聲 器官의 筋肉의 緊張을 수반하는 소리를 「硬音(된소리)」(fortis)이라 한다.

터짐-소리의 開放이 있은 뒤에, 다음에 이어나는 母音의 聲이 좀 뒤늦어서 일어나게 되면, 開放과, 母音의 聲帶 振動과의 사이에 無聲의 過渡(glide)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 無聲의 過渡를 「氣」(aspiration)라 하고, 氣를 수반한 터짐-소리를 「有氣音」(aspirate)이라 한다. 국어의 「ㅋ, ㅌ, ㅍ」 따위 소리는 그 氣가 相當히 긴 것으로서, [k^h, t^h, p^h]로 표기된다.

開放이 明白하게 안되는 일도 있다. 開放을 鮮明하게 하고 나면, 開放에 아무런 다른 소리가 이어나지 않으나, 開放을 할 무렵에, 막았던 자리를 떼면서 그 速度를 若干 느리게 하면, 거기에서 瞬間的인 摩擦이 들리게 된다. 국어의 「ㅈ」이 그것인데, 이 소리는 앞-혓바닥을 硬口蓋에 붙였다가 떼면서, 그 瞬間 거기에서 摩擦音이 들리게 된다. 이러한 소리를 「破擦音」(affricate)이라 한다. 破擦音은 破裂音을 표시하는 記號에 마찰을 표시하는

(11)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은, 말을 强調하는 경우이다. 이를테면 「오빠」를 特히 힘 주어서 發音하면 [ˀopˀa]가 된다([pˀ]는 同時 調音이다). 그리고 「절대로」(絕對)를 强調하게 되면, 第二 音節의 「ㄷ」(發音은 된소리)은 길어지면서, 舌端 破裂과 同時에 聲帶 破裂이 수반된다. [čəltːˀero]

記號를 덧붙여 표기한다. 「ㅈ」=[tʃ] 또는 [tš].[12] 「ㅊ」은 摩擦과 氣가 아울러 수반된 소리다.

<갈이-소리> 發音部의 어떠한 자리를 아주 좁혀서, 공기가 이 작은 틈을 通過할 때에 마찰이 생겨나는 소리를 「갈이-소리」(摩擦音, spirant or fricative)라 한다.

「하루, 허리」 따위의 「ㅎ」소리는 그 마찰이 그리 分明하지 않아서, 꼭 管을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므로, 어떤 사람은 이것을 摩擦音으로 보지 않는 일도 있다.[13] 그러나 「향토, 형제, 효자, 휴식, 힘」 따위와 같이, [i]나 [j] 소리가 이어나는 「ㅎ」 소리는, 혓바닥과 센-입천장 사이에서 꽤 현저한 마찰이 들리게 된다. 이 소리는 [ç]로 표기되나, 그러나 獨語의 'ich'의 ch처럼 그 마찰은 強하지 않다.

「회의, 이후(以後), 휘파람」 따위 말의 「ㅎ」도 空洞 마찰로 發音하기도 하나, 조금만 「ㅎ」을 똑똑히 내려하면, 두 입술 사이에서 마찰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ɸ]로 表記된다

「사람, 셋, 실」 따위 첫소리는 分明한 갈이가 들리는 소리들이며, 국어에서는 이 갈이-소리는 軟音과 硬音의 두 種類로 난다. 「사람」의 「ㅅ」은 [s]로, 「싸움」의 「ㅆ」은 [s']로 표기한다

---

(12) 이밖에도 터짐-소리의 開放方法은 몇가지를 더 들 수 있다.
英語의 "topmost, button, madness"에서와 같이, [p,t,d]에 同位置的 鼻音이 이어나게 되면, 입안의 막았던 자리는 그대로 두고, 코의 通路를 開放하게 된다. 이러한 開放 方法을 「鼻腔 開放」(nasal release)이라 한다.
또 英語의 "atlas, oddly"에서와 같이, [t,d]에 [l]이 이어나면, 이번에는 혀의 中央線의 끄트머리 部分은 터뜨리지 않고, 혀옆만을 터뜨려서 發音한다. 이것을 「舌側 開放」(lateral release)이라 한다.
이러한 開放 方式은 국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13) F. de Saussure는 이 소리를 母音의 無聲으로 보았고<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그리고 앞의 <註8>에서 말한 바 있는 Pike은, 이것을 "cavity friction" 또는 "frictionless"라 하고 있다. 이에 對해서 一定한 자리에서 나는 마찰은 "local friction"이라 한다.

<코-소리> 입 안의 어떤 자리를 막고, 코로 내는 숨으로 發音하는 소리가 「코-소리」(鼻音, nasal)이다. 국어의 「ㄴ, ㅁ, ㆁ」 소리가 모두 코-소리인데, 코-소리는 모두 有聲音이다. 그것은 코로 공기를 통하면서 목청을 떨어울리지 않으면, 그 소리로서의 청취 효과가 거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숨쉬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 말에서든지 코-소리는, 正常的인 경우는 모두 有聲音이다. 그런데 코-소리가 無聲音([s] 같은 소리)과 接觸하게 되면 無聲化하는 일도 있으나,(14) 국어에서는 이러한 일은 없다. 無聲化한 鼻音은 有聲 鼻音을 表記하는 記號 밑이나 위에 [̥]를 두어 표시한다. [m̥], [n̥], [ŋ̊].

<혀옆-소리> 혀의 中央線을 입천장에 갖다 대고, 혀의 옆쪽을 터놓고 空氣를 通하게 하여 내는 소리는 「혀옆-소리」(舌側音, lateral)이다. 국어의 「달, 돌, 물」과 같은 말을 單獨으로 發音했을 때의 語末의 「ㄹ」이나, 또는 「물과, 달도, 돌다리」 따위 말의 子音 앞의 「ㄹ」, 또는 「흘러, 달리, 달력」 따위 말의 母音 사이의 「ㄹㄹ」 따위는 모두 혀옆-소리이다.

이 소리도 코-소리와 같이 대개는 모두 有聲音이다. 그것은 혀옆에서 分明한 마찰이 나지 않고서는, 無聲音의 혀옆-소리는 청취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소리가 無聲音과 接觸하게 되면 無聲化하는 일이 있으나,(15) 국어에서는 그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無聲音의 표기법은 코-소리의 경우와 같다. [l̥]

<떨음-소리> 공기의 흐름이, 音聲 器官의 彈力性 있는 어떠한 部分을 떨어울려서 내는 소리를 「떨음-소리」(顫音, trill or rolled)라 한다. 떨음-소리가 날 수 있는 자리는, 혀끝과 목젖의 두군데가 있으나, 국어에서는 혀끝의 떨음

---

(14) 英語의 'small'의 [m]는 無聲化하여 [m̥]가 되고, 佛語의 'prisme'의 끝 [m]도 完全히 無聲化한다.

(15) 佛語의 'peuple'의 語末의 l은 完全히 無聲化한다. 英語의 'place'의 l도 無聲音이다.

소리가 있을 뿐이다. 「노래, 우리, 다리, 보리」와 같은 말의 母音 사이의 「ㄹ」은, 普通말에 있어서는, 뒤에 말할 터인 두들김-소리로 나게 되나, 노래 부를 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혀끝을 떨어울려서 내는 일이 있다. [r]

이 소리도 대개는 有聲이나, 特殊한 자리에서는 無聲音으로 나타나는 일도 있다.[16] 그러나 국어에서는 無聲의 떨음-소리는 나타나지 않는다. 無聲音은 [r̥]로 표기한다. 그리고 「聲」도 목청을 떨어울리는 소리이기는 하나, 이것은 떨음-소리에 넣지 않는다.

<두들김-소리> 떨음-소리의 떨음을 여러번 하지 않고, 오직 한번만 하여서 내는 소리를 「두들김-소리」(彈舌音, flapped)라 한다. 국어의 母音 사이의 「ㄹ」, 이를테면 「우리, 다리, 보리」는 모두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한번 두들겨서 낸다. [ɾ]

以上에서 말한, 터짐-소리, 갈이-소리, 코-소리, 혀옆-소리, 떨음-소리, 두들김-소리 들은 모두 공기의 흐름이 입안의 어떤 자리에서 막음(障碍)을 입는 소리로서, 이러한 소리들을 「子音」(consonant)이라 한다.

그리고, 혀옆-소리, 떨음-소리, 두들김-소리는 서로 비슷한 性質이 있기 때문에, 모두 合쳐서 「흐름-소리」(流音, liquid)라 하고, 흐름-소리와 코-소리는, 입안에서 그리 큰 막음을 입지 않고 공기가 比較的 順坦하게 通過할 수 있는 點, 그리고 모두 有聲音으로서 입안이나 코안의 共鳴을 얻는 點, 터짐-소리, 갈이-소리와는 다르다. 그러므로 흐름-소리, 코-소리를 「響音」(sonorant, f. sonante)이라 하고, 터짐-소리, 갈이-소리를 「障碍音」(obstruent, f. bryante)이라 한다. 그리고 터짐-소리는, 그 터짐이 한 瞬間에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이것을 또한 「瞬間音」(f. momentanée)이라 하는데 대해서, 다른 모든 소리들은, 숨이 계속되는 限 그 소리를 계속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合쳐서 「持續音」(continuant, f. durative)이라 한다.

(16) 英語의 'cream'의 r은 無聲化한다.

<母音> 마지막으로; 공기가 그 흐르는 通路에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막음을 입지 않고 自由로이 通過될 수 있으나, 다만 입술이나 혀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그 通路의 꼴만이 若干 變異를 입게 되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方法으로 내는 소리를 「母音」(vowel)이라 한다.

국어의 「이, 아, 어, 오」와 같은 소리를 내어 보면, 子音에서 일어나는 바와 같은, 입안에 있어서의 막음은 全혀 없으나, 입술이나 혀의 모양이 달라짐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母音은 主로 혀와 입술의 모양의 다름으로 말미암아 여러가지로 分化되는 것이다.

母音은 입안 自體內에서는 아무런 막음을 입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다. 다만 입안은 共鳴器의 役割을 함에 그치고, 정작 소리는 聲帶를 振動시키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母音도, 子音의 響音과 같이, 有聲音이 되지 않고서는 그 청취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그러나 無聲의 母音도 全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하하……」를 계속해서 발음해 보면, 그 혀나 입술의 모양은 처음에서 끝까지 바꾸어지지 않는다. 이로써 보면, 이 경우의 「ㅎ」은 그 혀나 입술의 모양은 「아」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다만 이 두 소리의 다름은 聲의 수반 有無에 달려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의, local friction 을 수반하지 않고, 空洞 마찰을 가진 「ㅎ」소리는, 그와 接續되어 있는 母音의 無聲音이라고도 볼 수 있다. 卽 「하」=[ḁa].(17) 따라서 「허」는 [ə̥ə], 「호」는 [o̥o]로 볼 수 있다.

<間隙> 以上에서 설명한 子音과 母音은, 空氣 通路의 넓이가 各各 다른데, 口腔 通路의 크기를 「間隙」(aperture)이라 한다.(18) F. de Saussure는 子音들의 間隙을 다음과 같이 決定하고 있다.

---

(17) <註 13> 참조. 그리고 [ḁ]는 [a]의 無聲音을 표기함.
또 母音이 그 앞뒤 소리의 영향으로 無聲化하는 일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後說, 「Ⅱ, 1, 5) 無聲 母音의 문제」(p. 169 이하) 참조.

(18) Saussure: Cours 참조.

0 度 : 터짐-소리

1 度 : 갈이-소리

2 度 : 코-소리

3 度 : 흐름-소리

그리고 이 度數가 4度 以上을 넘는 것은, 입 안에서 막음을 입지 않는 母音이 되는데, 母音도 혀가 입천장에 接近하는 程度에 따라 네가지 度數로 나눈다.

4 度 : 「이」[i], 「우」[u]와 같이, 母音 中에서는 혀가 입천장에 가장 가까이 接近한 소리. 이것을 「閉母音」(close vowel)이라 한다.

5 度 : 이 보다 若干 열려지는 소리로서, 「에」[e], 「오」[o] 따위. 이것을 「半閉 母音」(half-close v.)이라 한다.

6 度 : 「에」보다 더 열린 「애」[ɛ], 그리고 [ɔ] 따위 소리. 이것을 「半開 母音」(half-open v.)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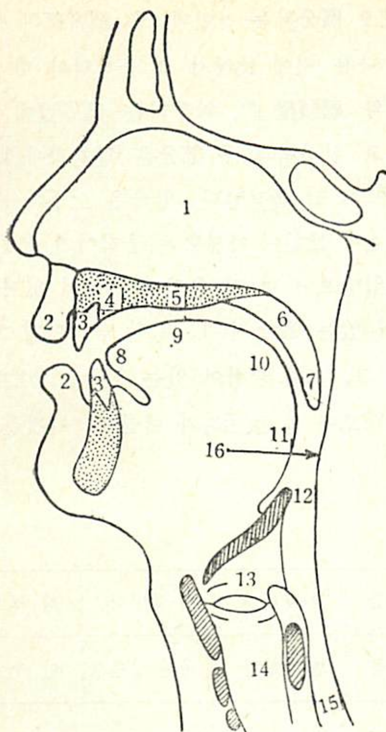
7 度 : 아주 열린 소리로서, 혀의 입천장에서의 거리는 가장 멀다. 「아」[a] 따위로서 이것을 「開母音」(open v.)이라 한다.

(2) 發音部의 作用하는 자리(position of articulation, point d'articulation); 말소리의 綜合的 記述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發音部는 能動的으로 잘 움직이는 部分이 그와 맞서 있는 자리에 가서 作用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리는 咽頭에서 입술에 이르기까지 여러군데가 있다. 말소리는 發音部의 作用하는 方法에 依해서 여러가지 소리로 分化될뿐 아니라, 作用하는 자리에 依해서도 亦是 여러가지 소리로 分化된다. 이리하여 말소리는 發音部의 作用하는 方法과 자리의 相乘으로 分化되는 것이다.

發音部의 作用하는 자리를 「調音部」(position of articulation)라 하는데, 咽頭에서 입술에 이르는 사이에 여러 調音部를 便宜上 區分한다.

[音聲 器官 斷面圖]



1. 코 안
2. 입 술
3. 이
4. 웃잇몸
5. 센-입천장
6. 여린-입천장
7. 목 젖
8. 혀 끝
9. 앞-혓바닥
10. 뒤-혓바닥
11. 혀뿌리
12. 울대마개
13. 목 청
14. 기관(숨통)
15. 식도(밥줄)
16. 인두벽

調音部는 크게 세군데로 區分되는데, 하나는 혀뿌리(舌根)와 咽頭壁 사이이요, 둘은 혓바닥과 입천장 사이, 셋은 두 입술 사이이다.

혓바닥과 입천장 사이는 다시 세군데로 細分된다.

입천장은, 「웃잇몸」(齒槽)과 「센-입천장」(硬口蓋)과 「여린-입천장」(軟口蓋)으로 나뉘는데, 혓바닥도 이에 따라 세 部分으로 나뉜다. 입을 自然的으로 다물었을 때에, 잇몸에 닿는 혀의 部分을 「혀끝」(舌端), 센-입천장에 닿는 部分을 「앞-혓바닥」(前舌), 여린-입천장에 닿는 部分을 「뒤-혓바닥」(後舌)이라 한다.

그리고 必要에 따라서는 혀끝도 또 두 部分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혀끝의

아주 앞쪽 부리를 「舌尖」이라 한다.

이와 같이 發音部는 다섯 調音部로 區分되는 것인데, 各 調音部의 서로 맞서어 있는 部分 中, 어느 한편은 다른 편에 比해서 그 움직임이 더 敏活하고 能動的이다. 이를테면, 혀뿌리와 咽頭壁 中, 혀뿌리는 咽頭壁에 比하여 더 잘 能動的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혓바닥의 두 部分은 입천장에 比히여, 그리고 혀끝은 잇몸에 比하여 모두 더 잘 움직인다. 입술은 上下가 다 같이 잘 움직이나, 웃턱은 움직이지 않는데 比하여 아랫턱은 움직이기 때문에, 아랫입술도 그에 따라 움직여서, 웃입술보다 더 잘 움직이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여러 調音部의 맞서어 있는 部分 中에, 더 잘 움직이게 되어 있는 쪽을 「能動部」(articulator)라 하고, 그와 맞서어 있는 部分은, 대개는 움직이지 않거나 움직이더라도 能動部보다 덜 敏活하기 때문에, 이것을 「固定部」(point of articulation)라 한다.

<다섯 調音部>

能動部	아랫입술	혀 끝	앞-혓바닥	뒤-혓바닥	혀 뿌 리
固定部	웃 입술	잇 몸	센-입천장	여린-입천장	인 두 벽

以上과 같은 調音部들이 여러가지 方法으로 作用을 하게 되는데, 앞에서도 說明한 바와 같이, 그 作用하는 方法으로 보면, 母音과 子音 사이에는 현저한 差異가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 소리는 區別하여 說明하는 것이 便利하다.

<子 音>

子音을 내는 데 있어서는, 한 能動部가 作用하는 固定部는 반드시 한군데에 限하는 것은 아니다.

아랫입술은 웃입술에 作用함이 普通이나, 웃이의 끄트머리에 가서 作用할 수도 있고, 또 혀끝은 그 固定部로서 웃이의 끄트머리와 웃이의 뒤쪽과, 웃

잇몸과 센-입천장에 作用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子音은 能動部와 그것이 가서 作用하는 固定部에 따라 다음과 같이 分類된다.

能動部	固定部	名	稱
아랫입술	윗입술	두입술-소리 (兩唇音, bilabial)	입술-소리 (唇音, labial)
	윗이끝	이-입술-소리 (唇齒音, labiodental)	
혀끝	윗이끝	잇사이-소리 (齒間音, interdental)	혀끝-소리 (舌端音, apical)
	윗이뒤쪽	잇소리 (齒裏音, dental)	
	잇몸	잇몸-소리 (齒槽音, alveolar)	
	센-입천장	권설-소리 (卷舌音, retroflex)	
앞혓바닥	센-입천장	센-입천장-소리 (硬口蓋音, palatal)	
뒤-혓바닥	여린-입천장	여린-입천장-소리 (軟口蓋音, velar)	
혀뿌리	인두벽	인두-소리 (咽頭音, pharyngal)	인후-소리 (咽喉音, faucal)
목	청	목청-소리 (聲門音, glottal)	

그리고, 앞-혓바닥~센-입천장, 뒤-혓바닥~여린-입천장은 다 그 區域이 꽤 넓기 때문에, 說明의 便宜를 따라서는 各各 둘 또는 세 部分으로 區分하기도 한다.

센-입천장은, 앞(prepalatal), 가운데(mediopalatal), 뒤(postpalatal)로, 또는 앞과 뒤로 나뉘고, 여린-입천장도 그와 같이, 앞(prevelar)과 가운데(mediovelar)와 뒤(postvelar or uvular)로 나뉜다.

그리고 잇소리와 잇몸-소리의 中間에 "gingival"을 하나 더 두어 細分하는 일도 있다.[19]

<두입술-소리> 아랫입술이 웃입술에 作用하는 소리로서, 이에는 그 作用하는 方法에 따라, 다음 소리들이 있다.

터짐-소리 : 無聲은 [p], 有聲은 [b]. 국어의 「불, 비, 볼」 따위 말 첫머리의 「ㅂ」은 [p], 「곰보, 남비, 군밤」 따위 有聲音 사이의 「ㅂ」은 [b]이다. 그리고 「굽, 입」 따위 말에 있어서의 끄트머리의 「ㅂ」은 內破音의 [p'], 또 「풀, 파리, 피리」의 「ㅍ」은 強한 氣를 수반한 소리로서 [pʰ]. 「뿔, 뽕」의 「ㅃ」은 硬音의 [p'].

갈이-소리 : 無聲은 [ɸ], 有聲은 [β]. 국어의 「회의, 이후」의 發音을 明白히 하기 위해서는 「ㅎ」을 [ɸ]로 내는 일이 있다. 그리고 「부부, 우비, 갈비」와 같은 말의 第二 音節의 「ㅂ」은 [b]로 내기도 하나, 오히려 [β]로 내는 것이 正常的이다.

위의 두 소리는 입술을 둥글게 하지 않으나, 입술을 둥글게 하여 앞으로 내밀면서 이러한 갈이-소리를 낼 수도 있다. 英語의 'wool'의 첫소리는 有聲의 입술 둥근 갈이-소리로서 [w], 'when'의 wh는 그 無聲音의 [ʍ]이다. 국어의 「회의, 이후」의 ㅎ은 엄격하게 말하면 [ʍ]에 가깝다.

코-소리 : 「마을, 물」의 첫 소리나, 「감, 김」의 끝 소리나, 「이마, 엄마」의 가운데 소리로서 [m]. 그 無聲音은 [m̥]로 표기한다.

<이-입술-소리> 아랫입술이 웃이 끄트머리에 作用하는 소리로서, 이에는 터짐-소리가 없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는 공기의 흐름을 꼭 막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갈이-소리 : 無聲에 [f], 有聲에 [v], 국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코-소리 : 英語의 'triumph'와 같은 [f] 앞의 m은 이-입술-소리가 되는데,

(19) R-M. S. Heffner: General Phonetics. Madison, 1952. p. 129.

이 소리는 [ɱ]로 표기한다.

<잇사이-소리> 혀끝이 웃이 끄트머리에 作用하는 소리로서, 이에는 다음 한가지 뿐이다.

갈이-소리 : 英語의 think, three 의 th 는 無聲의 [θ], they, though 의 th 는 有聲의 [ð].

<잇소리 · 잇몸-소리> 혀끝이 웃이 뒤쪽과 웃잇몸에 作用하는 소리로서 이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터짐-소리 : 無聲 [t], 有聲 [d]. 佛語의 tout, doux 의 t, d 는 잇소리이요, 英語의 two, do 의 t, d 는 잇몸-소리이다. 잇소리를 特히 表示할 必要가 있을 때는 [t̪], [d̪]로 한다. 국어의 「달, 돌, 들」의 첫소리는 無聲이요, 「온도, 감도」의 「ㄷ」은 有聲인데, 이것은 잇소리와 잇몸-소리의 가운데서 나는 gingival 이다. 그리고 「옷, 낫, 낮, 낯, 낱」 따위를 單獨으로 냈을 때의 「ㅅ, ㅈ, ㅊ, ㅌ」이나, 또는 이것들이 子音으로 始作되는 助詞 위에서 날 때는 모두 內破音 [t˺]로 난다.

「투구, 타다, 버티다」의 「ㅌ」은 強한 氣를 수반한 [tʰ]. 「딸, 또」의 「ㄸ」은 硬音의 [t'].

국어의 「ㅈ」은 [ts, dz]로, 「ㅊ」은 [tsʰ], [ㅉ]은 [ts']로 내는 일이 있다.

갈이-소리 : 無聲 [s], 有聲 [z]. 이 소리들은 흔히 쓰이는 소리로서 국어의 「사람, 소」의 첫소리는 [s], 英語의 has, was 의 s 는 [z]. 李朝 初期 國語의 「ㅿ」은 [z] 音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英語의 she, fresh 의 sh 는 無聲의 [ʃ], measure 의 s 는 有聲의 [ʒ]. 국어의 「쉽다」의 「ㅅ」은 [ʃ]에 가깝다. 그리고 「실, 신」의 「ㅅ」은 [ʃ]로 표기되기도 하나, 오히려 다음에 나올 [ɕ]에 더 가깝다.

「쌀, 쏘다」의 ㅆ은 硬音의 [s'].

코-소리 : 「나, 노, 너」의 첫 소리, 「간다, 마늘」의 가운데 소리, 「문, 눈」

의 끝 소리의 「ㄴ」은 gingival의 [n]. 佛語의 'nous'의 n은 잇소리로서 [n̪], 英語의 'no'의 n은 잇몸-소리이다.

혀옆-소리 : 국어의 「물, 불」을 單獨으로 發音하거나, 子音으로 始作되는 助詞 위에서 發音할 때의 「ㄹ」은 [l]. 그리고 「흘러, 달라」의 「ㄹ」은 [l]의 긴 소리.

떨음-소리 : 「노래, 보리」와 같이, 母音 사이의 「ㄹ」은 혀끝을 굴려서 낼 수 있다. (노래 부를 때는 이러한 경향이 있다.) [r]

두들김-소리 : 위에 말한 母音 사이의 「ㄹ」은 正常的인 發音으로는 두들김-소리로서 [ɾ]이다.

<권설-소리> 혀끝을 센-입천장으로 向하여 말아올려서 내는 소리인데, 국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터짐-소리 : 無聲 [ʈ], 有聲 [ɖ]. 梵語, 印度語에 쓰이는 소리다.

갈이-소리 : 無聲 [ʂ], 有聲 [ʐ]. 이 소리는 中國語에도 쓰이는 것인데, 北京語의 尸 [ʂ], 山 [ʂan], 日 [ʐ], 人 [ʐən].

코-소리 : [ɳ], 梵語, 印度語에 쓰임.

혀옆-소리 : [ɭ], 印度의 Marathi 語에 쓰인다고 한다.

<센-입천장-소리> 앞-혓바닥이 센-입천장에 作用하여 나는 소리인데, 必要에 따라, 둘이나 세가지로 細分할 수 있다.

터짐-소리 : 여기에서는 純粹한 터짐-소리가 나기 어려우나, [c] (無聲), [ɟ] (有聲)는 postpalatal의 터짐-소리를 표기한다. 여기의 터짐-소리는 대개는 摩擦을 수반하는 破擦音이 되는데, 국어의 「ㅈ」은 prepalatal의 파찰음이다.[20] 「줄, 자기」 따위 첫머리의 「ㅈ」은 無聲의 [tʃ]이요, 「감자, 던지다, 가자」 따위 말의 語中의 「ㅈ」은 有聲의 [dʒ]이다. 그리고 국어의 「춤, 치마」의 첫소

(20) 국어의 「ㅈ」을 잇몸-소리의 破擦音 [ts]로 내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사람은 그 有聲音도 [dz]로 내고, 또 氣音의 「ㅊ」도 [tsh]로 發音한다.

리는 強한 氣를 수반한 [tʃh]이고, 「짬, 씸, 가짜」의 「ㅉ」은 硬音의 破擦音 [tʃ']이다.

갈이-소리 : prepalatal의 無聲 [ɕ], 有聲 [ʑ]. 국어의 「실, 시름」의 「ㅅ」이나, 北京語의 '希' [ɕi]가 이에 해당된다.[21] 그리고 「씨」의 ㅆ은 그 硬音 [ɕ']. 「ㅈ」이 母音 사이에서 [z]나 [ʒ]로 發音되는 일도 있다.

postpalatal의 갈이-소리로서는, 無聲에 [ç], 有聲에 [j]. 英語의 'year, yield'의 y는 [j], 국어의 「현상, 효도, 향토, 휴식」의 「ㅎ」이나, 「힘」의 「ㅎ」은 空洞 마찰(cavity friction)로 發音되기도 하고, [ç]로 發音되기도 한다

코-소리 : [ɲ]. 국어의 「돈냥, 남녀, 공룡(공뇽), 갑류(감뉴)」의 第二 音節의 「ㄴ」은 모두 prepalatal로서, 이러한 소리를 「口蓋音化한 ㄴ」이라 한다.

혀옆-소리 : [ʎ]. 「흘러」의 「ㄹㄹ」은 혀끝을 잇몸에 갖다 붙이는 잇몸-소리의 혀옆-소리 [l]인데, 「흘러, 달력, 개잘량, 달려라」 따위 말의 「ㄹㄹ」은 앞-혓바닥을 센-입천장에 붙이고 혀옆을 터서 공기를 통해 내는 소리이다. [ɲ]를 「口蓋音化한 ㄴ」이라 하듯이, [ʎ] 소리는 「口蓋音化한 혀옆-소리 ㄹ」이라 한다. 그런데 국어에서는 이 소리는 반드시 母音 사이에서만 나타나며, 그것도 반드시 긴 소리나 두 소리의 連結로서만 나타나게 된다.

<여린-입천장-소리>

터짐-소리 : 無聲에 [k], 有聲에 [g]는 여린-입천장-소리로서, 국어의 「강, 공」의 「ㄱ」은 가운데의 無聲音, 「김, 김치」의 「ㄱ」은 앞쪽의 無聲音, 그리고 「인가, 공고」의 第二 音節의 「ㄱ」은 가운데의 有聲音, 「감기, 공기」의 第二 音節의 「ㄱ」은 앞쪽의 有聲音이다. 「관광」의 發音을 좀 과장해서 發音하면, 그 「ㄱ」소리는, 뒤-혓바닥이 거의 목젖에 닿게 되는데, 이러한 소리는 [q](無聲), [G](有聲)로 표기한다 이것이 뒤-여린-입천장-소리인데, 과장된 발음의 「관광」의 첫 「ㄱ」은 無聲音, 둘째 「ㄱ」은 有聲音이다.

以上은 모두 外破音이나, 「부엌, 목」이 單獨으로 나거나, 뒤에 子音으로

(21) 「ㅈ」을 잇몸-소리로 내는 사람은 「시」의 「ㅅ」도 [s]로 내는 傾向이 있는듯.

始作되는 助詞가 連結되면, 받침의 「ㅋ, ㄱ」은 內破音의 [k']로 나게 된다.

「끼니, 깔보다」, 그리고 과장된 發音의 「꽝」의 「ㄲ」들은 各各 앞쪽 가운데 뒤쪽의 硬音이요, 「키우다, 칼」, 그리고 과장된 발음의 「쾅」의 「ㅋ」들은 各各 그 자리에 해당되는 有氣音이다.

갈이-소리 : 여린-입천장의 無聲은 [x], 有聲은 [ɣ]. 뒤-여린-입천장의 無聲은 [χ], 有聲은 [R]. 국어의 「먹이, 먹어」와 같이, 母音 사이에서 나는 「ㄱ」은 [g]로 나기보다 오히려 [ɣ]로 나는 것이 普通이다.

코-소리 : 여린-입천장의 코-소리는 [ŋ]. 국어의 「강, 콩, 잉어」의 「ㅇ」. 뒤-여린-입천장의 코-소리는 [N]로 표시되는데, 「관광」을 과장해서 발음하면 [qwaNGwaN]에 가깝게 난다.

떨음-소리 : [R]. 이것은 뒤-혓바닥이 떨어 우는 소리가 아니라, 목젖이 떨어 우는 소리인데, 국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인두-소리>

혀뿌리를 인두벽으로 향하여 물려서 그 사이를 좁히고, 여기서 갈이-소리를 내는 일이 있어 [ħ](無聲), [ʕ](有聲)으로 表記하나, 국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목청-소리>

목청에서 調音되는 소리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說明하였다.

以上 우리는, 子音의 發音하는 方法과 그 位置를 관철해 왔는데, 국어에서 쓰이는 子音들의 一覽表를 보이면 다음과 같이 된다.

※ 여린-입천장-소리는 세가지(앞쪽, 가운데, 뒤)로 細分될 수 있으나, 이 일람표에서는 두가지로만 나누었다. 即「깁」의 앞쪽의「ㄱ」과 「갑」의 가운데의 「ㄱ」은 區別하지 않고 모두 [k]로 표기하고, 「갑기」「인가」의 第二 音節의 「ㄱ」은 各各 그 자리에서 나는 有聲音인데, 여기에서는 區別하지 않고 [g]로 표기했다. 이러한 事情은 [k', kh, ɣ, ŋ]의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

자리 / 방법			입술	혀끝	센-입천장		여린-입천장		목청
					앞	뒤	앞	뒤	
터	軟音	無聲	p, p'	t, t', ts	tʃ		k, k'	q	
		有聲	b	d, dz	dʒ		g	G	
짐	硬音		p'	t', ts'	tʃ'		k'	q'	ʔ
	氣音		ph	th, ts_h	tʃh		kh	qh	
갈	軟音	無聲	ɸ	s, ʃ	ɕ	ç			h
		有聲	β	z	ʑ		ɣ		ɦ
이	硬音			s'	ɕ'				
코			m	n	ɲ		ŋ	N	
혀옆				l	ʎ				
떨음				r					
두들김				ɾ					

<同時 調音> 위에서 보아온 바는, 調音部를 한군데로만 보고 說明한 것이다. 대개의 子音은 한군데의 調音部에서 나게 되는 것이 普通이나, 어떠한 種類의 子音은 두 能動部가 두 固定部에 同時에 作用하는 일이 있다. 국어의 「ㄱ」은, 위의 表로 보인 바와 같이, 여린-입천장~뒤-혓바닥에서 調音되는 것이나, 「광」의 發音에 있어서는, 「ㄱ」을 낼 때부터 입술이 둥글어진다. 그러나 「ㄱ」의 音價의 基本的인 特色은 그 뒤-혓바닥 調音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뒤-혓바닥 調音을 「으뜸(第一次) 調音」(primary articulation)이라 하고, 입술 調音을 「버금(第二次) 調音」(secondary articulation) 또는 「同時 調音」(coarticulation)이라 한다.[22]

입술-소리 以外의 다른 소리들은, 대개는 입술은 消極的으로 밖에 움직이

(22) Trager・Bloch: Outline. p. 29.
이러한 調音 方法을 「二重 調音」(double articulation)이라기도 한다. <H.A Gleason: An Introduction to Descriptive Linguistics. New York, 1955. p. 199>

지 않으나, 때로는 이것을 能動的으로 움직어 둥글게 하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作用을 「脣音化」(labialization)라 하고, 이러한 버금 調音을 수반한 소리를 「脣音化한 소리」(labialized sound)라 한다. 「광」의 「ㄱ」은 脣音化한 子音이다.(23)

혀끝-소리 以外의 다른 소리들은, 대개는 혀끝은 被動的으로 밖에 움직이지 않으나, 이것을 能動的으로, 센-입천장으로 向해 말아올릴 수도 있다. 이것을 「卷舌音化」(retroflexion)라 한다. 英語의 'cry'의 c는 「卷舌音化한 소리」이다.(24)

센-입천장-소리 아닌 다른 소리들은, 모두 앞-혀바닥은 消極的이나, 이것을 能動的으로 [i]의 位置로 가지고 가면서, 다른 소리들을 調音할 수도 있으니' 이것을 「硬口蓋音化」(palatalization) 또는 單純히 「口蓋音化」라 한다. 국어의 「갸, 겨, 뱌, 벼, 먀, 며」 따위 音節에 있어서는 「ㄱ, ㅂ, ㅁ」을 調音할 때부터 혓바닥은 미리 [i]의 자리를 取해 있다. 그러한 소리를 「(硬)口蓋音化한 子音」(palatalized consonant)이라 한다.(25)

여린-입천장-소리 아닌 다른 소리는, 뒤-혓바닥은 消極的이나, 이것을 [u]의 位置로 올리면서 發音할 수도 있다. 이런 作用을 「軟口蓋音化」(velarization)라 하고, 이러한 버금 調音을 수반한 소리를 「軟口蓋音化한 소리」(velarized sound)라 한다.(26) 英語의 所謂 dark l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입술 둥글음과 뒤-혓바닥 上昇을 同時에 수반하게 되는 일도 있는데, 이러한 調音法을 「脣·軟口蓋音化」(labiovelarization)라 하고, 이러한 버금 調音을 수반한 소리를

(23) 「脣音」(입술-소리)은 그 으뜸 調音이 입술에서 되는 소리이고, 「脣音化한 소리」는, 그 으뜸 調音은 다른 데 있는데, 버금 調音이 입술에서 되는 소리이니, 이 두 가지는 區別해야 한다. 그리고 脣音化한 소리를 表記하기 위해서는 작은 [w] 字를 그 符號 어깨에 붙인다. [kʷ]

(24) 卷舌音化한 소리는 [kʳ]와 같이 표기한다.

(25) 「센-입천장-소리」(硬口蓋音, palatal)와 「硬口蓋音化한 소리」(palatalized)는 區別할 것. 그리고 이 소리를 表記할 때는, 點을 붙이거나 작은 j를 붙인다. [k̇] 또는 [kʲ]. 그러므로 [ṡ]=[ʃ] 또는 [ɕ].

(26) 亦是 「여린-입천장-소리」(軟口蓋音, velar)와 「軟口蓋音化한 소리」(velarized)는 區別할 것. 그리고 그 表記는 [ɫ]와 같이 한다.

「唇·軟口蓋音化한 소리」(labiovelarized sound)라 한다.

그 밖에, 咽頭 筋肉의 收縮을 수반하는 「咽頭音化」(pharyngalization), 喉頭 筋肉의 收縮을 수반하는 「喉頭音化」(laryngalization)가 있고, 聲帶 破裂이 同時에 수반되는 소리들이 있다.[27]

<母　音>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입안에 있어서의 막음을 입지 않고 나오는 소리가 母音인데, 母音의 音色을 決定하는 것은; 첫째, 입술의 모양(둥글고 안둥글음), 둘째, 혀의 높낮이 (間隙), 세째, 調音部, 即 입천장으로 向해 作用하는 能動部이다.

<입술> 그 모양에 依해서 母音은 대체로 두가지가 區別된다. 「오, 우」처럼 입술을 둥글게 하여 내는 소리를 「圓唇 母音」(rounded vowel)이라 하고, 「이, 에」 처럼 입술을 펴서 내는 소리를 「平唇 母音」(unrounded vowel)이라 한다.

<間隙> 혓바닥이 입천장에 接近하는 程度에 따라서 閉, 半閉, 半開, 開 母音이 區別되는 것임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說明한 바이다.(p. 28 참조).

<能動部> 能動部의 運動이 가장 두드러지게 표나는 兩極端은 「이」와 「우」이다. 혓바닥의 앞쪽이, 「이」 보다 더 앞에서 調音되는 母音은 없고, 혓바닥의 뒤쪽이, 「우」보다 더 뒤쪽에서 調音되는 母音은 없다.

「이」와 같이 앞-혓바닥(前舌)이 센-입천장으로 向해 作用하는 母音을 「前舌 母音」(front vowel)이라 하고, 「우」와 같이, 뒤-혓바닥(後舌)이 여린-입천장으로 向해 作用하는 母音을 「後舌 母音」(back vowel)이라 한다.

「이—에—애」를 發音해 보면, 앞-혓바닥의 높이가 점점 낮아감을 알 수 있는데,[28] 이 系列의 母音들은 모두 前舌 母音에 속한다.

---

(27) 이 끝의 두 種類는, 국어의 된소리가 이에 속한다. 咽頭音化의 표기법은 軟口蓋音化와 같은데, 그것은 이 두가지 소리의 청각 인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喉頭音化의 표기는 [p', t'], 聲帶 파열은 [pˀ, tˀ] 또는 [ˀp, ˀt].

(28) 혓바닥의 높이가 낮아감은, 間隙이 커가는 것이요, 能動部와 固定部의 距離가 멀어가는 것이다.

「위」는, 입술을 움직여서 [ɥi]로 내는 수도 있으나, 입술과 혀를 움직이지 않는 單母音 [y]로 내는 일도 있다. 그리고 「외」도, 입술과 혀를 움직여서 [we]로 내는 수도 있으나, 입술과 혀를 움직이지 않는 單母音 [ø]로 내는 일도 있다. 이 두 소리는, 그 혀의 位置는 各各 「이」와 「에」에 가깝고 다만 입술의 둥글음이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위, 외」도, 單母音으로 發音될 경우는, 前舌 母音 系列에 속하게 된다. (圓唇 前舌 母音)

「우—오」를 發音해 보면, 뒤-혓바닥의 높이가 점점 낮아감을 알 수 있는데, 이 系列의 母音들을 「後舌 母音」이라 한다.

국어의 「업다(負), 먹어(食)」의 「어」는 혀의 뒤쪽이 「오」 보다도 더 낮아지는 소리이므로, 이 亦是 後舌 母音에 속한다. 다만 「오, 우」는 圓唇 母音이요, 「어」는 平唇 母音이다.

국어의 「으」의 能動部는 「이」 보다 뒤쪽이고, 「우」 보다는 앞쪽이다. 이러한 소리를 「中舌 母音」(central vowel)이라 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업다, 먹어」의 「어」는 後舌 母音이나, 「없다(無), 멀다(遠)」의 「어」는 「으」 보다 조금 낮은 中舌 母音이다. 그리고 「아」도 大體로 中舌 母音으로 發音되는 것이 普通이다.

<基本 母音> 子音의 調音에 있어서는, 能動部가 固定部에 가 붙거나, 거의 붙을 程度로 接近하기 때문에, 그 調音部의 位置를 比較的 的確하게 決定할 수 있다. 그러나 母音에 있어서는 혀의 表面(能動部)과 입천장(固定部)과의 거리가 꽤 멀기 때문에, 그 能動部와 固定部와의 거리를, 空間의 어느 點에서 指摘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母音을 記述함에 있어서는, 혀의 位置가 比較的 固定될 수 있는 소리를 미리 決定하여, 實地의 말소리를 이와 相互 對照하여, 記述하는 方法을 取하게 된다. 이러한 母音 記述 方法을 위하여 考案된 것이, D. Jones의 「基本 母音」(cardinal vowel)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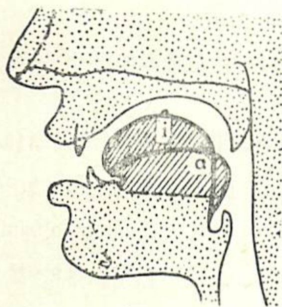
基本 母音에는 「으뜸(第一次) 基本 母音」 (primary cardinal vowel) 여덟과,

「버금(第二次) 基本 母音」 (secondary c. v.) 일곱이 있다.[29]

으뜸 基本 母音의 No. 1은, 母音의 性質을 잃지 않을 정도로(마찰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앞-혓바닥을 센-입천장으로 向해 되도록 가까이 하고, 되도록이면 앞으로 내밀어서, 입술을 둥글지 않게 하여 내는 소리다. 이 소리는 [i]로 표기되는데, 佛語의 si[si], 獨語의 Biene[biːnə]가 이에 가깝다.

다음 No. 5 [ɑ]는, 뒤-혓바닥을 되도록이면 뒤로 물리고, 낮출대로 낮추어서, 입술은 둥글지 않게 하여 내는 소리이다. 조금만 더 물리고 낮추면, 뒤-혓바닥이 목젖에 接近하여 목젖 갈이-소리(後軟口蓋 摩擦音, uvular fricative)의 [ʁ]가 된다. 佛語의 pas[pɑ], pâle[pɑːl]이 이에 가깝다.

[i, ɑ 의 혀의 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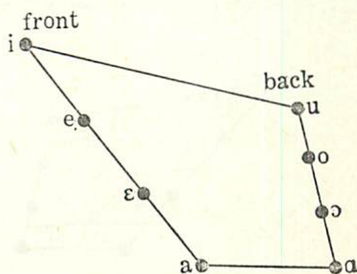


(D. Jones: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p. 31 에 依함)

No. 2 [e], No. 3 [ɛ], No. 4 [a]의 세 母音은 前舌 母音으로서, No. 1과 No. 5의 사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의 位置는, 各音 사이의 청각上의 距離가 같아지도록 定한다. [e]는 佛語의 thé[te], [ɛ]는 佛語의 même[mɛːm], [a]는 佛語의 la[la], patte [pat]의 母音과 各各 가깝다.

No. 6 [ɔ], No. 7 [o], No. 8 [u]는 圓脣後舌 母音으로서, No. 1에서 No. 5까지와 같은 청각上의 거리가 유지되도록 決定된 것인데, [ɔ]는 佛語의 porte[pɔrt], fort[fɔr], 獨語의 Sonne[zɔnə], [o]는 佛語의 beau [bo], [u]는 佛語의 tout[tu], 獨語의 gut[guːt]의 母音에 各各 가깝다.

[母 音 四 角 圖]



[i], [a], [ɑ], [u]에 있어서의 혀의 最高點의 位置를 定하고, [i]—[a] 線을

(29) Daniel Jones: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pp. 31~36.

三等分하여 [e], [ɛ]를 定位시키고, [u]—[ɑ] 線을 亦是 三等分하여, [o], [ɔ]를 定位시킨다. 이 그림이 「母音 四角圖」이다.

이와 같은 혀의 位置를 유지하면서, No. 1에서 No. 5까지의 平唇音은 圓唇으로 하고, (但 No. 4는 除外), No. 6에서 No. 8까지의 圓唇 母音은 平唇으로하여 내는 소리가 「버금 基本 母音」이다.

[i]의 圓唇音은 [y]: f. lune[lyn], D. über[yːbər]

[e]의 圓唇音은 [ϕ]: f. peu[pϕ], D. schön[ʃϕːn]

[ɛ]의 圓唇音은 [œ]: f. œuf[œf], D. zwölf[tsvœlf]

[ɑ]의 圓唇音은 [ɒ]: 南部 英語의 hot[hɒ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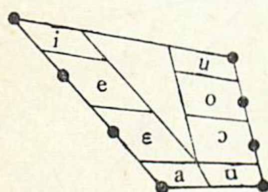
[ɔ]의 平唇音은 [ʌ]: E. cup[kʌp]가 이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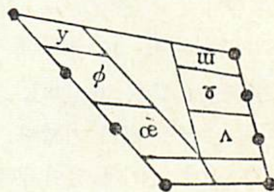
[o]의 平唇音은 [ɤ]: 中國語의 個 [kɤ]가 이에 가깝다.

[u]의 平唇音은 [ɯ]: 국어의 「으」의 혀를 조금 입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이 소리가 된다.

또 [i]와 [u]의 中間에 位置하는 中舌 閉母音에는, 平唇에 [ï] (또는 [ɨ])가 있는데, 국어의 「으」가 이에 해당된다. 그 圓唇으로 [ü] (또는 [ʉ])가 있다. 非圓唇(平唇) 中舌 半開(半閉)母音에는 schwa의 [ə]가 있다. E. about[ə'baut]

以上은 母音의 基準이 될만한 것을 풀이하였는데, 모든 母音의 혀의 最高點(能動部의 中心點의 位置)은 이 母音 四角圖 안에 들게 된다. 그러므로 이 基本 母音을 中心으로 하여, 大體로 이에 가까운 것은 같은 記號를 使用하여 表記하게 되는데, 이제 그 區域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30]





(30) Jones: Outline. p. 52에 依함.

<국어 모음 표기> 따라서 국어의 各 單母音은 다음과 같이 表記된다.

「일, 이렇다」의 「이」는 [i],

「네, 데」의 「에」는 [e],

「내, 대」의 「애」는 [ɛ],

「강, 아래」의 「아」는 [a] 또는 [ɑ],

「먹어, 업다(負)」의 「어」는 [ʌ],

「오리, 오이」의 「오」는 [o],

「우리, 운다」의 「우」는 [u],

「그, 흐르다」의 「으」는 [ï],

「없다, 멀다」의 「어」는 [ə],

「뒤, 쉬, 쥐」(31)의 「위」는 [y],

「쇠, 되」(32)의 「외」는 [ø].

지금까지의 說明은, 혀의 能動部와 ― 間隙, 그리고 입술의 圓平만으로 母音을 規定하려 했는데, 母音의 音色은 이 세가지 條件만으로 完全히 決定되는 것은 아니고,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條件이 있어, 母音을 特徵 지우게 된다.

<鼻音化> 空氣를 입과 코로 同時에 通하게 하여, 입뿐 아니라, 코안도 共鳴에 關與하게 되는 것을 「鼻音化」 (nasalization)라 하는데, 佛語의 vin[vɛ̃], cent[sɑ̃], pont[pɔ̃], un[œ̃]는 모두 鼻母音이다.

<卷舌化> 一般的인 母音을 낼 때에는 혀끝은 能動的이 아니어서, 아랫이 뒤쪽에 가볍게 붙어 있게 된다. 그러나 혀끝을 웃잇몸 또는 센-입천장 쪽으로 말아올리면서, 母音을 發音할 수도 있으니, 이러한 調音法을 「卷舌化」 (retroflexion)라 한다.

---

(31) 이 소리들을 單母音으로 내는 데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李熙昇 : 國語學槪說 p. 90.

(32) 이 소리들을 單母音으로 發音하는 데 대해서는 다음 참조.
김윤영 : 나라말본 p. 24.

<緊張度> 英語의 do의 母音과 佛語의 doux의 母音은 다 같이 [u]로 표기될 수 있으나, 이 兩 國語의 母音의 發音 方法은, 相當히 다른 點이 있다. 卽 英語의 母音에 比하면 佛語의 母音은, 音聲 器官, 特히 혀의 筋肉이 더 緊張되는 것이다. 이러한 緊張된 母音을 「緊張 母音」 (tense vowel)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緩弛 母音」(lax vowel)이라 한다.

緊張과 緩弛는 相對的인 述語로서, 英語는 佛語에 比하면 一般的으로 緩弛를 使用하는 편이나, 英語 中에도 긴장과 완이가 區別된다. 卽 feel, fool의 母音은, fill, full의 母音에 比해서, 혀가 若干 높아질뿐 아니라, 훨씬 緊張된 筋肉으로 發音된다.

<單母音> 以上 說明한 母音들은 모두 그 내는 동안에 音聲 器官이 一定한 位置에 머물어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소리를 「單母音」이라 한다.

<重母音> 국어의 「야, 여, 요, 유」나 「와, 워, 왜, 웨, 의」와 같은 소리는, 그 소리가 나는 동안에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는 것이나, 입안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막음을 입지는 안는다. 그러므로 앞에 規定한 바를 따른다면, 이 소리들도 母音에 속하게 되겠는데, 「아, 어, 오, 우」 따위가 그 나는 동안에 혀나 입술이 움직이지 않는 單母音임에 比하면, 이 소리들은 적이 다른 點이 있다. 즉 이 소리들은 그 나는 동안에 음성 기관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리를 「重母音」 이라 한다.

<과도음> 重母音에 있어서는, 혀나 입술이 移動을 하게 되는데, 그 移動하는 모습을 보면, 첫째, 혀는 대개는 間隙이 작은 데서 큰 데로 移動하든지, 그 反對로 큰 데서 작은 데로 移動하게 되고, 둘째, 입술은 둥근 데서 둥굴지 않게 되든지, 둥굴지 않은 데서 둥굴게 된다.

입술에는 相關함이 없이, 혀가 [i] 가까운 位置에서 다른 母音의 位置로 옮아가는 過渡에서 나는 「過渡音」 (gliding sound)을 [j][33]로 표기한다. 따

(33) 마찰을 수반하게 되는 子音의 表記와 같은 符號를 쓴다.

라서 국어의 「야, 여, 요, 유」 따위는 各各 [ja, jə, jo, ju]로 표기된다.

그리고 그 反對로, 혀가 다른 母音의 位置에서 [i]의 位置로 向해 가는 過渡에서 나는 過渡音도 [j]로 표기한다. 국어의 「의」는 [ïj]로 표기된다.

혀가 [j]와 같이 움직이면서 입술도 圓→平으로 움직이게 되는 過渡音은 [ɥ]로 표기된다. 佛語의 tuer[tɥe]. 또 혀는 [i]의 位置에 固定되어 있으면서, 입술만 圓→平으로 움직이는 過渡音도 [ɥ]로 표기한다. 국어의 「위」를 重母音으로 낼 때는, 혀는 [i]의 위치에 머물어 있으면서, 입술만 圓→平으로 움직이게 된다. [ɥi]. 그리고 [j]의 경우에서처럼, 그 反對 方向에로의 移動에서 나는 過渡音도 [ɥ]로 표기된다.

입술과 혀가 [u]의 位置에서 다른 母音의 位置로 移動해 가는 過渡音은 [w][34]로 표기된다. 국어의 「와, 왜, 워, 웨」는 各各 [wa, wɛ, wə, we]로 표기된다. 그리고 그 反對 方向으로 움직이는 過渡音도 같은 符號로써 표기한다. 英語의 how[haw], boat[bowt].

<半母音> 以上 說明한 過渡音의 [j, ɥ, w]는, 그 앞이나 뒤의, 그보다 間隙이 큰 소리들에 딸려있는 소리들로서, 이러한 소리를 「半母音」(semi-vowel)이라 한다.

그런데 국어의 「의」는, 앞의 表記法 [ïj]와 같이, [j]가 [ï]에 딸려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것 같으나, 이 두 소리는 그 間隙이 거의 같기 때문에, 그 主從이 잘 決定되지 않는다. 萬一 [ï]가 그 뒷소리에 딸려있는 것으로 본다면, 이번에는 [ï]가 半母音의 구실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ï̯i]로

「過渡音」이란, 音聲 器官이 一定한 位置를 取함이 없이, 그것이 움직이는 途中에서 나는 소리를 말함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 말소리로서의 價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音聲 器官이 移動하는 途中에서 나는 소리로서, 한 말소리로서의 資格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單純히 「過渡」(glide)라 하여 이와 區別함이 좋다.

그리고 한 소리를 中心으로 해서 그 앞에서 나는 過渡를, 그 소리의 "on glide"라 하고, 그 뒤의 過渡는 "off glide"라 한다.

「요, 유」에 있어서는 입술은 圓의 位置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므로, [j]는 입술의 圓平에는 相關하지 않는다.

(34) [j]와 같이, 子音의 같이-소리를 표기하는 符號와 同一하다.

표기해야 하겠으나, 筆者의 생각으로는 앞의 解釋 方法을 取하고 싶다. 그것은 「의미」(意味)나 「의의」(意義)의 第一 音節을 重母音으로 發音함에 있어서는, 「으」에 힘을 주어서 發音하는 것이 一般的인 傾向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音聲> 以上 우리는 具體的인 말소리를, 그 내는 법을 中心으로 하여 낱낱이 살피고, 그리고 그 적는 법을 說明하였는데, 여기에 들어 說明한 바와 같은, 낱낱의 具體的인 말소리를 「音聲」(phone, sound)이라 한다.

「사람」이란 말도, 甲이 發音할 때와 乙이 發音할 때는 若干의 差異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甲이 發音하더라도, 어제의 발음은 오늘의 발음과 다를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면, 具體的인 말소리란, 엄격하게 따지면, 「사람」의 첫머리의 「ㅅ」일지라도 모든 具體的인 發音에서는 同一性이라곤 찾아보지 못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언제 누가 發音하나, 同一한 方言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發音法은, 그 音聲 器官의 姿勢나, 청취 효과에 있어서나 同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앞에서 具體的인 말소리라 했을 때는, 이러한 程度의 些少한 差異를 無視한, 어느 程度의 抽象性을 拒否할 수는 없는 것임을 여기 附言하여 둔다.

2. 音 素

1) 音聲들의 相互 關係는 반드시 均等한 것은 아니다

<客觀的 差異와 主觀的 把握>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말소리의 낱낱의 單位를 音聲이라 하는데, 이 音聲을 說明할 때에, 어떠한 讀者는 이러한 事

實을 느꼈을는지 모른다. (아마 音聲學이나 音韻學을 배워보지 못한 讀者라면, 누구나 느꼈을 것이다.)

音聲을 표기하는 方法으로 본다면, 「감기」의 두 「ㄱ」 소리는 달라서, 앞의 것은 無聲의 [k]이고, 뒤의 것은 有聲의 [g]이라 하였는데, 果然 이 두 소리가 그렇게 다른 것일까?

「부부」의 두 「ㅂ」도 달라서, 하나는 無聲의 [p]이고, 하나는 有聲의 [b] 또는 [β]라 하였는데, 果然 이 두 「ㅂ」 소리는 다른 것일까?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를 莫論하고, 「불」[pul](火)의 「ㅂ」과, 「뿔」[p'ul](角)의 「ㅃ」이 다른 소리란 데는 의심을 품어 보지 않는다. 이 두 소리는 누가 들어도 分明히 다른 소리로 들리는 것이다.

한편 우리가 앞 節(1)에서 說明한 바에 依해 보면, [p]와, [b] 또는 [β]와의 다름은, [p]와 [p']의 다름에 못지 않은 것이다. 卽 前者는 聲帶 振動의 수반 有無로 달라져 있고, (또는 그에 다시 입술의 터짐과 같이의 差도 딸려 있다), 後者의 경우에 있어서는, 喉頭 筋肉의 緊縮 有無에 依해서 달라져 있다. 聲帶 振動과 喉頭 筋肉의 緊縮의 어느 편이 두 音聲을 달리하는 데 더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客觀的으로 決定하기 어려우리만큼, 그 音聲的 資質은 서로 비슷하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喉頭 筋肉 緊縮이 있는 소리는, 그것이 없는 소리와 아주 쉽사리 分別을 해내는 것이나, 聲帶 振動(聲)을 수반한 소리는, 그것을 가지지 않은 소리와 區別하기가 무척 힘드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音聲 相互間의 關係에 對한, 客觀的인 性質과 말하는 사람의 主觀的인 把握 方法은 반드시 並行하는 것이 아님을 느끼게 된다.

어떠한 外國人이라면, 이러한 세 소리——[p], [b], [p']——에 대한 主觀的 把握 方法이 우리와 正反對일 수도 있을 것이다. 萬一 英語를 母國語로 하는 사람이라면, [p]와 [b]의 差는 쉽사리 알아 들을 수 있을 것이나, [p]와 [p']의 다름은 認識하기가 힘들 것이다.

(1) 「I, 1, 말소리의 내는법과 적는법」(p. 13 以下).

이러한 點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p]와 [b]와의 거리와, [p]와 [p']와의 거리가, 서로 어느편이 멀고 가까움을 客觀的으로 決定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音聲 相互間의 關係에 대한 主觀的인 把握 方法은, 반드시 客觀的인 關係에 並行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配置> 그런데 한국어에 있어서의, [p]－[b]와, [p]－[p']의 두 소리들 사이의 關係의 다름은, 이러한 主觀的인 把握 方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선 [p]와 [b] 두 音聲을 두고 그 나는 자리(配置, 分布)를 한번 검토해 보자. 그러기 爲해서는 이 두 소리를 포함한 많은 말들을 검토해 봐야 한다.

[p] : 불 [pul], 보리 [pori], 밥 [pap'], 비 [pi], 바다 [pada], 바람 [param], 떡보 [t'ək'po], 속병 [soːk'pjəŋ], 호박벌 [hobak'pəːl]…

[b] : 곰보 [koːmbo], 선비 [sənbi], 안부 [anbu], 인부 [inbu], 일부 [ilbu], 부부 [pubu, puβu], 우비 [ubi, uβi]…

이러한 말들은 아직 얼마든지 있을 것이나, 이 정도로써, 그 나는 자리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현저한 差異點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p]는 말의 첫머리에 나타날 수 있는데, [b]는 그러한 일이 없다.

둘째, 두 소리가 다 같이 말의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으나, 그러나 仔細히 따져보면, 여기에서도 亦是 그 앞뒤의 소리가 다른 點이 있음을 發見하게 된다. 卽 [p]는 그 앞에 無聲音이 와 있으나, [b]는 앞과 뒤에 다 有聲音으로 둘러 싸여 있다. (이 경우의 [p]는 [p']로 나는 경향이 있다.)

卽 이 두 소리는 그 나는 자리가 서로 달라서, [b]가 有聲音 사이에서만 나타나는데 대해서, [p]는 有聲音으로 둘러싸이지 않은 자리에서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두 소리의 나타나는 자리의 다름을 가리켜 「서로 排他的인 分布」, 또는 「相補的 配置」(complementary distribution)라 한다.

<辨別的 關係와 非辨別的 關係> 한편 [p]와 [p']의 관계로 보면, 그 나타나는 자리(配置)가 위의 경우와는 全혀 다름이 있음을 알게 된다.

[p']: 뿔 [p'ul], 뿌리 [p'uri], 뽕 [p'oŋ], 빨래 [p'allɛ]…

이러한 말들의 [p']와, 앞에 들어 보인 [p], [b]의 配置와를 比較해 보면, [b]는 語頭에 나타나지 못하는 데 對해서, [p']는 [p]와 같이 말 첫머리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뿐아니라, '불' [pul]과 '뿔' [p'ul]로 보면, 이 두 낱말은, 다른 音聲的 條件은 같으나, 다만 그 첫소리가 喉頭 緊張을 띠느냐 띠지 않느냐 하는, 오직 한가지의 音聲的 資質의 有無에 따라, 말의 뜻이 分化되어 있다. 이러한 音聲的 差異를 「最少 差異」(minimal distinction)(2)라 하고, 最少 差異로 뜻이 달라진 두 낱말을 「最少(差異) 對立語」(minimal pair), 또는 「準同音語」(f. quasi-homonyme)라 한다.

[p]와 [p']는 準同音語를 形成한다. 바꾸어 말하면, 이 두 소리가 꼭 같은 音聲的 환경에서 서로 交替될 수 있어서,(3) 이 두 소리의 交替는 말의 뜻을 分化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말의 뜻을 分化할 수 있는 두 音聲의 關係를 「對立的」(contrastive), 또는 「辨別的」(distinctive)이라 한다.

[p]와 [b]의 관계는 이와는 달라서, 그 나는 자리가 全혀 다르기 (排他的이기) 때문에, 같은 환경에서 서로 交替될 수도 없고,(4) 따라서 말의 뜻을 分化할래야 할 道理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두 소리의 관계를 「非辨別的」(non-distinctive)이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째서 [p]와 [p']의 다름은 直覺的으로 把握하면서, [p]와 [b]의 差異는 그리 잘 識別하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를 解決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된다. 卽 [p]와 [p']는 말의 뜻을 分化할 수 있는 힘(機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差異를 分明히 認知하지 못할

---

(2) Daniel Jones: The Phoneme, its Nature and Use. Cambridge, 1950. p. 15.
"When a distinction between two sequences occurring in a language is such that any lesser degree of distinction would be inadequate for clearly differentiating words in that language, the distinction is termed a minimal one."

(3) 이러한 音聲을 「交替될 수 있는 音聲」 (sons permutables)이라 한다.

(4) 이러한 두 소리를 「交替될 수 없는 音聲」 (sons impermutables)이라 한다.

것 같으면, [pul]과 [p'ul]의 뜻의 다름을 알아 듣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p]와 [b]는 그러한 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름을 그리 똑똑히 알지 못하더라도, 말을 알아 듣는 데는 別 支障이 없다. 바꾸어 말하면, [p]와 [p']의 混同은 말을 알아 듣는 데 重大한 結果를 가져 오는 것이나, [p]와 [b]의 混同은 그러한 重大한 結果를 招來하는 일은 없는 것이다. [pul]을 [p'ul]로 發音했다가는, '火'가 '角'이 되어 버리지마는, [pul]을 [bul]로 잘못 發音했다 해도, '火' 以外의 다른 事物로 誤解될 염려는 별반 생겨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p]와 [p']의 다름에 對해서는 매우 敏感하나, [p]와 [b]의 差異를 識別하는 데는 그리 敏感하지 못한 것이다.

<말의 뜻을 나타내는 機能> 以上의 說明으로써 보면, 客觀的으로는 비슷한 音聲的 資質에 依해서 달라져 있는 여러 소리 사이의 관계가, 그것이 말의 뜻을 나타내는 데 利用되는 그 機能으로 보면, 반드시 均等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卽 순수히 말소리를 내는 방법만으로 본다면, [p]와 [p']의 관계는, [p]와 [b]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나, 말의 뜻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의 그 구실로 본다면, 이 두가지 관계는 현저히 다른 것이다.

[b]
[p] } 말의 뜻을 分化하지 못하고, 잘 識別되지 않음.
[p]
[p'] } 말의 뜻을 分化할 수 있고, 잘 識別됨.

[p]와 [b]는 그 나타나는 자리가 局限되어 있다. 이것을 같은 입술-소리인 「ㅁ」의 나타나는 자리와 比較해 보면, 「ㅁ」은 [p]와 같이 말 첫머리에 나타날 수 있고,[5] [b]와 같이 有聲音 사이에도 나타날 수 있다.

말, 마을, 머리——앞문, 뒷문, 눈물, 가문……

그러므로 그 나타나는 자리로 본다면, [p]와 [b]는 서로 뭉쳐야만 [m] 한 소리의 나는 자리와 서로 맞설 수 있게 된다.[6]

---

(5) 다만, 無聲 子音 뒤에서는 앞의 子音이 「ㅁ」에 同化되어 鼻音化하기 때문에, 無聲 子音 다음에 「ㅁ」이 나타날 수는 없다. ([p]는 이 자리에 나타난다.)

(6) 그러기에 이 두 소리([p] 와 [b])의 나타나는 자리를 가리켜 「相補的 配置」라 한다.

音聲이란, 말의 뜻을 表現하는 것이 그 구실이다. 그런데도 [p]와 [b] 두 音聲은 그러한 구실을 하지 못한다. 뿐아니라, 이 두 소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대로 識別도 못하고, 또한 그 나는 자리도 둘이 뭉쳐져야만 다른 한 소리에 맞설 만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모로 보아서, [p]와 [b]는 두 소리의 값어치를 제대로 가지지 못했음을 우리는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두 (또는 둘 以上의) 音聲은, 말의 뜻을 表現한다는 구실로 보아서는, 하나의 소리로 뭉쳐버려도 괜찮을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便利한 일이 많다.

<音素와 變異音> [p]와 [b]처럼, 둘 以上의 音聲이, 말의 뜻을 表現하는 觀點으로, 하나의 소리로 뭉쳐질 때에, 그 뭉쳐진 하나의 소리를 「音素」(phoneme)라 하고, 한 音素로 뭉쳐진 두 (또는 둘 이상의) 音聲은, 그 音素의 「變異音」(allophone)이라 한다. 하나의 音素가 그 나타나는 자리에 따라서 自動的(無意識的)으로 變異되었다는 뜻에서다.

"phoneme"이란 말은, Baudouin de Courtenay의 弟子인 Kruszewski가 1879年에 처음으로 "phone"과 다른 뜻으로 使用하였고, 佛語의 "phonème"은 L. Havet가 1876年에 "Speech-sound"란 뜻으로 썼다고 한다. <Daniel Jones: The Phoneme, its Nature and Use. 序文과 p. 213 참조> Grammont도 "phonème"과 "son du langage"를 같은 뜻으로 使用하고 있다. <Traité de Phonétique. p. 1>

2) 音素의 定義

우리는 위에서, 音素란 무엇인가를 대충 說明해 보았다. 그러나 音素의 正體는 일로써 解明된 것은 아니다.

音素의 正體를 把握하는 方法의 하나로서,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 音韻學者들의, 音素에 對한 定義를 紹介해 둘 必要를 느낀다.

<Courtenay> 音素 定義의 가장 古典的인 例로서, 무엇보다 먼저 J.

Baudouin de Courtenay(7)를 들 수 있다.

그에 依하면, 音素는 "言語 音聲의 心理的 對等"(l'équivalent psychique du son du langage)(8)이라 定義된다. 卽 앞에서 들어 說明한 바 있는, 국어의 [p]와 [b]는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識別할 수 없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리 속으로는 이것들을 하나의 소리로 意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말소리가 머리 속에 反影된 것이 곧 音素란 것이다. 具體的인 '言語 音聲'과 그것이 머리 속에 反影된 것과는 같지 않은데, 이 後者가 곧 音素란 것이다.

<Wijk> 이와 비슷한 定義는 N. van Wijk에서도 볼 수 있다. 그에 依하면, "한 言語의 音素는, 한 言語 社會의 모든 構成員의 精神에 存在하는 言語 要素의 한 範疇를 形成하는"것이며 (les phonèmes d'une langue forment une catégorie d'éléments linguistiques qui existent dans l'esprit de tous les membres d'une communauté linguistique)(9), 音素란 "言語 意識이 不可分離한 것으로 感知하는 最小의 單位"(les plus petites unités que la conscience linguistique sent comme indivisibles)(10)란 것이다.

말의 소리란 것은, 發音 作用을 通해서 音波로서 傳達되고 귀로 청취되는, 말하자면 生理·物理的인 現象으로만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속에 저장되어 있는 소리도 存在하는 것이다. 卽 生理·物理的인 現象이 아닌, 心理的인 소리란 것도 存在하는 것이다.(11) 이것은 우리가 默讀할 때에 경험하는 일인데, 默讀이란 입을 움직이지 않고서도, 머리 속에서 소리를 내고 읽는 현상이다.

---

(7) 1845~1929 A.D. 波蘭人. 生涯의 大部分을 露國에서 보냈다.
(8) N.S. Trubetzkoy: Principes de Phonologie. (Grundzüge der Phonologie의, J. Cantineau에 依한 佛譯本) Paris, 1957. p. 41에 依함.
(9) Trubetzkoy: Principes. p. 42에 依함.
(10) Trubetzkoy: 같은 책. p. 42에 依함.
(11) 許雄: 言語學槪論. p. 89 참조.

이러한 머리 속에 存在하는 소리의 不可分離의 한 最小 單位가 곧 音素란 것이다.

그리하여 Courtenay 는, '言語 音聲'을 研究하는 部門을 「生理 音聲學」(physiophonétique)이라 한데 대해서, 그 心理的 對等인 音素를 研究하는 部門을 「心理 音聲學」(psychophonétique)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12)

<Sapir> 美國의 言語學者 E. Sapir 도, 일찍 말 소리가 存在하는 世界가 둘이 있음을 指摘하였는데, 그 한가지는 心理的인 存在인 것으로 把握하고 있다.

卽 그는 英語의 ts가 語末에만 나타나는 子音 結合임에 對해서, 獨語에 나타나는 같은 소리는 한 소리(single sound)의 "心理的 對等"(psychological equivalent)으로서, 自由롭게 (位置의 制限 없이) 쓰임을 注意하였다. 또 그는 英語의 time의 t와 sting의 t는 현저히 다르기는 하나, 그 다름은 英語 使用 國民 (English speaking person)의 "意識"(consciousness)에는 相關 없는 (irrelevant) 것이라 하였다. Haida 語(Indian 言語)에서는 이러한 두 소리가 分明히 區別되나——Sting(two)의 t는 無氣, Sta(from)의 t는 有氣——無聲과 有聲은 全혀 區別되지 않음을 指摘하면서, 그는, "英語에 있어서 相關 없는 客觀的인 差異가 Haida 語에서는 機能的인 價値를 가졌다. 그 自身의 心理的 見地로 보면, sting의 t는, 英語 使用 國民의 心理的 見地로는 time의 t가 divine의 d와 다르듯이, sta의 t와 다른 것이다"(an objective difference that is irrelevant in English is of functional value in Haida; from its own psychological standpoint the t of *sting* is as different from that of *sta* as, from our standpoint, is the t of *time* from the d of *divine*.)(13)라 하고, 이 두 世界가 次元을 달리하는 體系임을 다음과 같이 表明하고 있다. "한 言語에 獨特한, 그

(12) Trubetzkoy: 같은 책. p. 10 참조.
(13) Edward Sapir: Language,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Speech. New York, 1921. pp. 56—7.

리고, 힘드는 音聲的 分析으로만이 도달되는, 純客觀的 言聲 體系의 背後에, 더 限定된 '內的인' 或은 '觀念的인' 體系가 存在하는데, 이 體系는, 素朴한 言衆에게는 아마 다 같이 한 體系로서는 意識되지 않겠지만, 完成된 模型으로서, 心理的인 機構로서, 客觀的인 體系보다는 훨씬 容易하게 意識에 올릴 수 있는 것이다."(Back of the purely objective system of sounds that is peculiar to a language and which can be arrived at only by a painstaking phonetic analysis, there is a more restricted "inner" or "ideal" system which, while perhaps equally unconscious as a system to the naïve speaker, can far more readily than the other be brought to his consciousness as a finished pattern, a psychological mechanism.)(14)

<有坂> 이러한 心理的 定義 方法과 비슷한 것으로, 日本의 言語學者 有坂秀世의 定義를 들 수 있다.

그는, 말의 뜻을 分化하는 힘만이 音素를 가려내는 基準이 됨을 主張한 Trubetzkoy에 反對하여, 말의 뜻을 分化한다는 것은 音素의 理想이며, 現實에 있어서는, 말의 뜻을 分化하는 데 利用되지 못하는 音素의 對立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곧, 現代 日本 東京語에 있어서는, [g]와 [ŋ]는 서로 그 配置가 排他的이어서, 이 두 소리의 다름은 말의 뜻을 分化하는 데 利用되지 않는다. 이런 點으로 보면, [dz]와 [z]도 한가지로서, 그 配置는 排他的이고, 따라서 말의 뜻의 分化에 利用되지 않는다. 그러나 [dz]:[z]의 관계와 [g]:[ŋ]의 관계는 서로 다른 點이 있다. 卽 [dz]와 [z]의 다름은 偶然的이요 無意識的임에 比하여, [g]와 [ŋ]의 差別은, 그들의 意識으로는, 完全히 意圖的으로 되는 것이라 하고, 그러므로 [dz]와 [z]는 한 音素로 뭉쳐진 變異音이나, [g]와 [ŋ]는 둘의 別個 音素라고 主張한다. 그리하여 그에 있어서는 音素는 "發音 運動의 理想" 卽 "말하는 사람이 發音하려고 하는 그 目的(意圖)"

(14) Sapir: 같은 책. p. 57.

이란 것이다.[15] 實地의 發音이야 어떻게 되었든, 말하는 사람의 意識으로 發音하려고 目的한 바가 바로 音素가 된다는 것이다.

單純한 "心理的 對等"으로 보지 않고, 여기 말할이의 意圖를 介入시켜 본 點, Courtenay 와의 差異가 있다.

<心理的 方法의 難點> 具體的인 言語 音聲과는 다른, 그것이 머리 속에 反影된 抽象的인 소리가 存在한다고 볼 수 있음은 事實이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국어의 [b]－[p]－[p']의 세 소리의 관계로써 說明한 바로써도 能히 짐작할 수 있다. 그리하여, 具體的으로 實現된 것으로서는 비록 다른 소리일지라도, 그 言語를 使用하는 토박이(native speaker)들이 하나의 같은 소리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때는, 그 소리들은 하나의 音素가 된다고 規定하는 것은 全혀 不可能한 일은 아닐상 싶다.

그러나 이러한 한가지 定義 方法에만 依支해서 音素를 가려내려고 할 때는, 때로는 明確히 규정할 수 없는 難關에 봉착하게 되는 일도 있을 것임은 能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한 소리로 생각한다는 것은 多分히 主觀的인 判斷이다. 이것은 대단히 모호한 判斷이다. 국어의 [p]와 [b]가 한 같은 소리로 생각되고, 두개의 다른 소리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은 果然 나만의 主觀的인 判斷이 아닌, 모든 사람에 共通된 현상일까? 그리고 이 두 소리가 두개의 다른 소리로 생각되지 않고, 하나의 같은 소리로 생각된다는 나의 判斷은 과연 틀림 없는 事實일까?

이러한 회의를 품을 때, 이에 대한, 疑心할 餘地 없이 分明한 回答을 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닐상 싶다.

앞의 定義에서 보는 바와 같은, "言語 意識"이라든지, "精神"이라든지, "感知한다"든지 하는 말은, 그 自體가 說明을 要하는 用語이며, 이러한 用語는 言語學的으로는 說明이 되지 않는 것이다. 音素란 言語學的 觀念(notion lin-

(15) 有坂秀世：音韻論. 日本 東京, 1940. 特히 pp. 47, 48, 58, 59 보라.

guistique)이지 心理學的인 것은 아니다.[16]

心理的인 定義 方法에 대한, Trubetzkoy의 이와 같은 批判은 首肯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그의 "發音의 意圖"(intention phonique)에 對한 反駁의 論理는 그 自身 心理的인 方法을 援用하고 있다. 卽 그는 獨語의 'gib'를 發音하려는 사람은 palatal의 g를 發音하려는 意圖를 가지는데, 이것은 'gab'의 vélaire의 g를 發音하려는 意圖와는 같지 않다 하였는데,[17] 이 두가지 g의 發音 意圖의 다름은 무엇으로 (客觀的으로) 證明될까?

그리고 한 소리로 생각하느냐, 두개의 다른 소리로 分別하느냐, 하는 主觀的인 判斷은, 그 사람의 敎育의 程度나, 音聲學的 訓練 如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Trubetzkoy의 意識으로는 'gib'와 'gab'의 두 g를 다른 意圖로써 發音하는지 모르나, 다른 사람은 같은 意圖로써 發音할는지 모를 일이다. 이러한 문제는 좀처럼 分明히 疑心할 餘地없는 方法으로 解明될 것 같지 않다.

音素의 定義는, 그로써 音素를 가려낼 수 있는 方便이 提供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心理的 性格은 音素의 重要한 一面이기는 하나, 이러한 一面만으로는 音素를 가려내는 데(分析해 내는 데) 많은 難關이 있음을 우리는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Jones> 이러한 心理的인 把握 方法과 正反對되는 觀點에서 音素를 規定하려는 方法이 있다. 앞에서, 국어의 [p]:[b]의 관계로써 說明한 바와 같이, 이 두 소리는, 그 配置가 排他的이다. 이러한 點에 着眼하면, 配置가 排他的인 소리는 한 音素로 뭉쳐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소리이든지 配置가 排他的이기만 하면 한 音素로 묶이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고, 이에는 다시, 두 소리는 서로 비슷해야 한다는 條件이 하나 더 붙게 된다. 왜냐하면, 音聲的인 性格이 아주 다르게 되면, 그것은 같은 소리로 생각될

(16) Trubetzkoy: 같은 책. pp. 42—3 참조.
(17) 같은 책. p. 42.

可能性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定義 方法의 代表的인 例로서, D. Jones의 說明을 들 수 있다.

"한 音素란, 어떤 言語에 있어서의 音聲들의 家族인데, 그 音聲들은 性格上 서로 關係가 있고, 그리고 그 中의 어떤 한 音聲도, 單語에 있어서, 다른 音聲과 同一한 音聲的 환경에 쓰일 수는 없는 것이다." (a phoneme is a family of sounds in a given language which are related in character and are used in such a way that no one member ever occurs in a word in the same phonetic context as any other member.)(18)

이 定義는 결국, 우리가 국어의 [p]와 [b]로써 說明한 바와 같이, 두 音聲이 서로 비슷하고, 그리고 그 配置가 排他的일 때는 한 音素로 뭉쳐진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 "related in character"란, 서로 비슷함을 말함인데, 그 類似性은 調音上으로뿐 아니라, 청각上으로 서로 비슷한 것도 아울러 包含시키고 있다. 卽 [l]와 [l̥]는 調音上으로 비슷한 것이나, 청각上으로는 꽤 다름이 있으며, [t]와 [ʔ]는 調音上으로는 꾀 다르나, 청각上으로는 매우 類似하다. 調音 方法이 비슷하면 대개는 청각上으로도 비슷한 것이나, 위의 두가지 경우는 調音上의 類似性과 청각上의 類似性이 서로 어긋남이 생겨나는 것인데, 이러한 모든 경우를, 그는 "related in character"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in a word"란 制約은 注目을 끌게 된다. 配置上의 排他性이란 것은, 單語를 各各 따로따로 생각할 때는, 單語의 連結을 아울러 생각할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을 띠는 일이 있다. 이를테면 Parisian speech의 佛語에 있어서는, [ɥ]는,

a) 母音앞, 語頭에 : [ɥit]huit

b) [i]가 달아날 때는, 어떠한 子音이나 子音群 다음에도 : [nɥi] nuit, [plɥi] pluie, [brɥi] bruit, [kɔ̃strɥiːr] construire

c) 다른 母音이 이어날 때는 單子音뒤에 : [tɥɛ] tuait, [nɥaːʒ] nuage,

---

(18) Jones: The Phoneme. p. 10.

[nɥɑ̃ːs] nuance, [kwatɥɔːr] quatuor

쓰인다. 그러나 [y]는 이러한 位置에서는 나타나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單語를 單獨으로 생각할 때는, 이 두 소리는 한 音素의 變異音이 될 수 있는 것이나, 單語의 連結도 이와 同時에 考慮한다면, 이 두 소리는 同一한 位置에 나타날 수 있게 되어서, 한 音素로 뭉쳐질 수는 없게 된다. [tɥa] tua : [tya] tu as.(19)

그러므로 그는 單語의 連結은, 音素를 定義함에 있어서는——따라서 音素를 가려내는 데 있어서는——고려하지 않는 것인데, 그 理由는 : 單語의 경계에 있어서의 소리의 變異(variations of sound)는 매우 많은 꼴(form)을 取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語群이나 文章에까지 視野를 넓힌다는 것은, 문제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音素의 一貫된 理論의 成立을 不可能하게 하기 때문이라 하였다.(20)

<그 難點> 이러한 定義 方法은, 앞의 心理的인 定義에 比하면, 主觀的 判斷이 介在될 餘地가 적어서, 音素를 가려내는 데 이러한 定義를 적용시키면, 문제를 客觀的으로 處理할 수 있게 되는 利點을 가진다. 그러므로 音素 分析에 있어서, 이러한 方法은 널리 쓰이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도 몇가지 完全히 解決되지 못한 點을 남기고 있음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첫째, 두 音聲이 한 "家族"으로 뭉쳐지기 위해서는, 서로 비슷해야(related in character)하는데, 서로 비슷하고 비슷하지 않은 限界는 明白하게 決定될 수 있는 문제일까?

서로 비슷하다는 것은 相對的인 槪念이다. 가정 [p]와 [t]는, [p]와 [s]보다는 더 가까우나, [p]와 [b]보다는 덜 가깝다. 그런데 [p]와 [s]는, [p]와 [l]보다는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비슷한 소리의 限界는 分明히 決定되기는 어렵다.

---

(19) Jones: 같은 책. pp. 85—6.
(20) 같은 책. p. 10.

둘째, 音素를 가려내는 作業에, 이러한 定義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所謂 音聲(sounds)이란 것이 미리 決定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 類似性과 配置上의 排他性(相補性)으로, 한 "家族"으로 뭉쳐질 것인지가 決定된다.

그러나 具體的인 談話 行爲(l'acte de parole)에 있어서, 單音을 뽑아낸다는 것은 容易한 일이 아니다. 實驗 音聲學에 依하면, 한 音素의 變異音은, 우리가 普通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그 數가 훨씬 많으며, 變異音들 사이의 共通性이 거의 없고, 때로는 한 音素의 變異音들은, 서로가 가깝기보다, 그 中의 어떤 變異音은 다른 音素의 變異音과 오히려 더 가까운 일이 있으며, 때로는 한 音素의 特色이 아직 끝나기도 前에 다음 音素의 特色이 이미 始作되어서, 그 두가지 特色이 서로 겹쳐지는 일도 있다는 것이다.[21]

事實上 우리의 눈 앞에 놓여 있는 것은, 談話 行爲의 連續된, 具體的인 一連의 소리(courant sonore continu et concret)일 뿐이며, 우리가 이러한 소리의 連續體에서 여러개의 소리를 뽑아내는 것은, 그 한 部分이 그 한 音素를 包含한 한 單語에 해당되기 때문일는지 모른다.[22] 「보리」를 「ㅂ」과 「오리」로 分析할 수 있는 것은 「오리」라는 單語가 있기 때문이요, 「우리」를 「우」와 「리」로 分析할 수 있는 것은 「우」(上)라는 單語가 있기 때문이요, 「리」를 「ㄹ」과 「이」로 가려낼 수 있는 것은 「이」(齒)란 單語가 있기 때문에 可能한 일일는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音聲의 抽出은 音素의 存在가 先行해야 되는 셈이 된다. 그러므로 音聲에서 出發해서 音素를 가려낸다는 것은 本末이 거꾸로 된 일이 되는 셈이다.

<難點의 克服> 이 두 가지 문제는 좀처럼 解決되기 어려울 것 같이 보이나, 첫째 문제에 대해서; 音韻學者들은 그들의 많은 경험에 依해서, 대체로 비슷한 소리에 속할 수 있는 소리의 限界를 決定하는 데 어느 程度 成功

(21) Charles F. Hockett: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New York, 1958. pp. 116—7.
(22) Trubetzkoy: Principes. p. 41. 참조.

하고 있다.[23] 경험이란, 어떠한 言語에서든지 한개의 音素로 뭉쳐진 音聲들이라면, 그 소리들은 서로 비슷한 소리로 보아지는 것이다.

다음으로 둘째 문제에 대해서; 말의 소리는, 그것이 言語에 있어서 遂行해야 하는 그 機能으로 본다면 抽象的인 存在일 것은 事實이나, 소리는 音聲器官의 作用으로 產出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를 音聲 기관의 作用으로 還元시켜 具體的으로 把握할 수 있을 것임도 또한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單獨으로 發音될 수 있는 單語가 한번의 調音 運動만으로 이루어질 때는, 우리는 쉽사리 그 하나의 調音 運動에 대응하는 하나의 單音을 認知할 수 있게 된다.

소리의 連結體에 있어서도, 能動部의 固定部에 對한 運動은 連續體(continuum)로서, 그 사이에 單音의 도막(segment)을 잘라내기가 어려울 것 같으나, 그러나 그 運動에는 屈曲이 있어서, 固定部에 對한 거리가 가장 가깝게 된 순간과, 그 거리가 가장 멀어진 순간이 있기 마련인데, 이러한 兩極으로의 움직임은 그 사이에 어떠한 分節이 可能함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하나의 소리란, "同質的인 어떠한 印象"(l'impression de quelque chose d'homogène)[24]을 주는 것이므로, 이러한 面으로 하나의 소리를 잘라내기란 全혀 不可能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Jones의 定義는 매우 價値 있는 것임을 認定하게 되는데, 이러한 定義는 문제를 客觀的으로 解決할 수 있는 科學的인 方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in a word"란 保留 條件은 좀 再考해 볼 餘地가 있다.

앞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Jones는, 單語의 경계(word junction)에서는 소리가 多樣的으로 變異되기 때문에, 單語群이나 월은 考慮에 넣지 않는다

(23) 그 一例로,
Kenneth L. Pike: Phonemics. p. 70.
의 도표를 참조할 것.
(24) Saussure: Cours. p. 64.

하였는데, 그러나 소리가 多樣性을 띠면 띨수록 그 현상을 音韻學的으로 處理해야만 하는 것이다. 現象이 복잡하다고 해서 도피할 것이 아니라, 복잡하면 할수록 그를 克服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連接(juncture)과 같은 重要한 一面도 utterance를 두고 관찰되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單語는 그 自體가 그리 잘 決定된 單位가 되지 못한다. 국어의 單語의 규정 方法은 文法學者에 따라서 많은 差異를 가지는 것이다.

<또 다른 缺點> Jones의 定義는, 若干의 修正만 加한다면, 音素를 가려내기에 매우 좋은 基準을 提供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定義는, 한 音素로 뭉쳐지는 方法은 잘 고려되어 있으나, 音素의, 말의 뜻을 分化하는 데 利用되는 그 辨別的 性格은 잘 表現되어 있지 않다. 바꾸어 말하면, 국어의 [p]-[b]가 한 音素로 뭉치게 되는 方法은 提供해 주나, [p]-[p'] 두 소리가 말의 뜻을 分化하는 데 利用되어서, 辨別的으로 서로 맞서어 있는 關係에 대해서는, 이 定義에 言及이 되어 있지 않다. 音素가 여러 音聲들의 떼(家族)로 形成된다는 事實은 그 重要한 一面이기는 하나, 그것들이 말의 뜻을 分化하는 데 利用되는 그 機能이 오히려 이보다 더 重要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Trubetzkoy> 이러한 面으로 音素의 性格을 把握하려한 것이, Trubetzkoy의 定義이다.

Trubetzkoy는, "音素는 그 心理的 性格(nature psychologique)으로나, 그 音聲的 變異(variantes phonétiques)와의 관계에 依해서는 滿足스럽게 정의될 수 없고, 오직 言語에 있어서의 그 機能(fonction)에 依해서만 정의될 수 있다"(25)라고 하였다.

그는, 어떤 言語에서 知的인 意義(significations intellectuelles)를 分化할 수 있는 모든 音的 對立(toute opposition phonique)을 「音素(韻)的 對立」(opposition

(25) Trubetzkoy: Principes. p. 44.

phonologique)이라 하고, 이러한 對立에 있어서의 各項(chaque terme)을 「辨別的 音素(韻)的 單位」(unité phonologique distinctive)라 한다.

그런데 이 音素的 對立은, 그 差異 部分의 範圍에 一定한 限界가 없어서, 獨語의 bahne[baːnə]와 banne[banə]의 두 말은 그 第一 音節의 母音의 長과 短만의 다름이요, tausend 와 Tischler 에 있어서는, 그 첫 部分이 같을뿐 나머지 部分은 죄다 다르며, Mann 과 Weib 에 있어서는 같은 部分이라곤 全혀 없다. 여기에 있어서의 서로 差異되는 各部分이 辨別的 音素的 單位인데, 어떠한 辨別的 音素的 單位는 더 작은 辨別的 音素的 單位로 分析될 수 있는 것도 있다. 이를테면 獨語 Mähne 와 Bühne 에 있어서의 音素的 單位는 [mɛː] 와 [byː]인데, 이 兩者는 다시 더 작은 單位로 쪼개어진다. 卽 Mähne 와 gähne 에 있어서의 音素的 單位는 [m]와 [g]이고, Mähne 와 mahne 에 있어서는 [ɛː]와 [aː]이다. 따라서 [mɛː]는 [m]과 [ɛː]로 分析된다. 또 Bühne 와 Sühne, Bühne 와 Bohne 의 對比에 依해서 [byː]도 [b]와 [yː]로 쪼개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分析해 나가서, 그 以上 더 分析해지지 않는 最小의 音素的 單位가 곧 音素라는 것이다.[26]

<그 難點> 그런데 이러한 分析을 推進시켜 나가 보면, 다음과 같은 不合理한 點이 있음을 發見하게 된다. 卽 英語의 'pad'와 'bad'의 對立에 있

---

(26) 같은 책. pp. 36—7.
이에 관해서는 <Projet de terminologie phonologique standardisée> (TCLP IV)의 다음과 같은 說明을 참조할 것.
「音素的 對立」(opposition phonologique): 어떤 言語에 있어서 知的 意義를 分化하는 데 所用될 수 있는 音的 差異. (Différence phonique susceptible de servir, dans une langue donnée, à la différenciation des significations intellectuelles.)
「音素的 單位」(unité phonologique): 어떠한 音素的 對立이든지, 그 項. (Terme d'une opposition phonologique quelconque.)
「音素」(phonème): 그보다 더 작고 더 單純한 音素的 單位로는 分析될 수 없는 音素的 單位. (Unité phonologique non susceptible d'être dissociée en unités phonologiques plus petites et plus simples.)

어서의 音的 差異는, 最少한 것이 되기 爲해서는, [p] : [b]가 아니라, 聲의 有無이다. 이 두 말은 [p]와 [b]의 交替로 分化되어 있으나, [p]와 [b]는 窮極的으로는 聲의 有無에 依해서 分化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窮極的으로 分析해 나가면, 결국 '聲' 自體가 하나의 音素가 되게 되는데, 이것을 한 音素로 볼 수는 없다. 여기에서 'Projet'에 對한 Josef Vachek의 修正論이 나오게 된다.[27]

<Vachek> 이러한 矛盾을 克服하기 위해서, 그는 音素的 對立을 두가지로 나누게 된다. blow : grow에 있어서의 bl : gr와 같이, 그 以上 더 작은 音素的 對立으로 쪼갤 수 있는 것을, 그는 「複合 音素的 對立」 (opposition phonologique complexe)이라 하고, 意味를 分化할 수 있는 最少의 音的 差異를 「單純 音素的 對立」 (opp. phon. simple)이라 한다. 앞에서 말한 pad : ba에 있어서의 'zero : 聲'의 差異가 單純 音素的 對立인데, 여기의 各項(이를테면 '聲')을 「音素的 單位」(unité phonologique)라 한다.

音素的 單位에 대한 定義를 이와 같이 修正하고, 그는 音素를 다음과 같이 定義한다.── "때로는 同時的 音素的 單位로는 分析될 수 있되, 繼起的 音素的 單位로는 分析될 수 없는 複合 音素的 對立의 一項의 一部" (Part d'un terme d'une opposition phonologique complexe, découpable parfois en unités phonologiques simultanées, mais jamais en unités phonologiques successives.)

[b]는 同時的 音素的 單位인 '[p]+聲'으로 分析되되, 繼起的 單位로는 分析되지 않기 때문에, 한 音素가 되는 것이다.

<Twaddell> Trubetzkoy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辨別的 關係에 重點을 두고 音素를 定義하였다. 여기에 있어서는, 소리 自體의 實質的인 性格보다, 말의 뜻을 分化함에 作用하는 相互 對立의 關係가 重視되어 있는 것이다.

---

(27) "Phonemes and phonological units" <TCLP VI>

이와 같은 傾向을 한걸음 더 내디뎌서, 音素를 音素的 關係를 便宜하게 記述하기 爲한 하나의 單位로서 定義하려 한 사람이 W. Freeman Twaddell 이다(28).

그는, 英語의 beet[bit], bit[bɪt], bait[bet], bet[bɛt], bat[bæt] 처럼, 最少的 音素的 差異를 가진 諸形式의 한 그룹을, 「序列的 類」(ordered class)(29) 라 하고, 이 形式 사이의 最少한 音素的 差異의 項(term)인 [i, ɪ, e, ɛ, æ]를 「小音素」(micro-phoneme)라 한다.(30) 그런데 이 小音素 [i]는, bit의 [ɪ]와의 比較에 있어서만이 小音素인 것이다. 卽 이렇게 규정된 小音素란 것은, [b-t] 類의 諸形式의 抽象的인 音素的 差異의 項인 것이다.(31)

그런데 pill, till, kill, bill의 한 序列的 類의 첫머리의 音素的 差異는, nap, gnat, knack, nab의 序列的 類의 끄트머리의 音素的 差異와 相似的이다. 그러므로 pill의 첫 머리의 斷片과 nap의 끝 斷片은 同一한 것은 아니나, 그러나 pill의 첫 斷片과 till의 첫 斷片은, nap의 끝 斷片과 gnat의 끝 斷片이 다르듯,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pill의 첫 斷片과 nap의 끝 斷片은, 그런 의미로 서로 關聯되는 것이다. 이러한 相似的이요 一對一의 差異의 項으로서의 小音素는 諸類에 있어서 相似的으로 序列지어져 있다. 諸形式 間의 相似的이요, 最少한 音素的 差異의, 相似的으로 序列지어져 있는 諸項(小音素)의 總體를, 그는 「大音素」(macro-phoneme)라 한다.(32)

---

(28) "On defining the phoneme" (Language Monograph No. 16—1935). 이 論文은 "Readings in Linguistics" (New York. 1963)에 실려 있는데, 뒤의 引用은 모두 이 冊에서 하기로 한다.

(29) "A group of forms which are minimally phonologically different constitutes an ordered class of forms. <Readings in Linguistics. p. 71.>

(30) "The term of any minimum phonological difference is called a micro-phoneme." <같은 책. p. 72>

(31) "The micro-phonemes we has so far determined are the terms of the abstracted phonological differences of the forms of the class [b-t]. <같은 책. p. 72>

(32) "The micro-phonemes, as terms of these similar and one-to-one differences, are similarly ordered in the classes. The sum of all similarly ordered terms(micro-phonemes) of similar minimum phonological differences among forms is called a macro-phoneme." <같은 책. p. 73>

따라서 그의 'p 音素'란, 齒莖 또는 硬口蓋 軟口蓋 調音에 對立하는 兩脣 調音, 有聲 調音에 對立하는 無聲 調音, 摩擦的 調音에 對立하는 閉鎖的 調音에 해당하는 一切의 音素的 差異點의 總和(the sum of all those phonological differentiae)인 것이다.[33]

그의 「大音素」란, Trubetzkoy 들의 「音素」와 같은 것인데,[34] 그것은, 抽象的인 虛構(an abstractional fiction)이요, 되푸리되어서 나타나는 諸關係의 一項 (a term of recurrent relations)이며, 諸形式으로부터의 抽象(an abstraction from forms)인 것이다.[35]

여기의 大音素란, 어떠한 言語의 諸要素 사이의 相似的인 音素的 差異가 되푸리되는 것을 記述하기 위한 述語上의 한 方便으로서 하나의 抽象觀念을 使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定義된 音素는 消極的·關係的·差異的 抽象觀念이다. 그것은 F. de Saussure 가, "랑그에 있어서는 積極的 辭項이 없는 差異뿐이다" (Dans la langue il n'y a que des différences sans termes positifs.)라고 한 그러한 種類의 關係의 單位이다.[36] 이것은 흡사, a 의 兄 b, c 의 兄 d, e 의 兄 f 가 있는데, b, d, f 가 하나의 類로 보아질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a, c, e 의 兄이란 關係에 依해서만인 것과 같다. 大音素란, 兄이란 抽象的 關係에 해당되는 名稱이다.

이에 대해서 Trubetzkoy 는, 이것은 결국 自己들의 音素와 同一한 것임을 말하고, "複雜하게 迂回하여, Twaddell 은, 우리가 더 짧은 길로 到達한 結果에 이른 것이다. 그 위에 이 複雜한 迂回는 아무런 利點을 提供하지도 못한다" 하였다.[37]

그러면서도 Trubetzkoy 는, "Twaddell 의 큰 功績은, 音素 概念의 周邊에 形成된 心理的인·自然科學的인 偏見을 根本的으로 除去한 데에 있다"[38]라

(33) 같은 책 p. 74.
(34) Trubetzkoy: Principes. p. 45 참조.
(35) Twaddell: 앞든 論文 (앞든 책. p. 75.)
(36) 같은 論文 (같은 책. p. 74)
(37) Trubetzkoy: Principes. p. 45.
(38) 같은 책. p. 46.

한 것으로 보면, Courtenay 들의 心理的 方法이나, Jones 의 自然科學的 (音聲學的) 定義와 같은, 音素에 某種의 實質性을 부여하려는 學說에 反對하려는 데 그들의 一致點을 發見할 수 있다.

<形式論者와 實在論者> 여기에서 우리는, 言語學에 있어서의 「形式論者」(formaliste)와 「實在論者」(réaliste)와의 對立을 볼 수 있다.

形式論者는 모든 言語 單位에 있어서 關係의 묶음(un faisceau de relations)만을 보게 된다. 그들에 있어서는, 音素 /p/나 또는 papier 와 같은 單位는, 그것이 말의 連鎖(chaîne)에서 取할 수 있는 結合과, 그리고 그 連鎖에서의 隣接 要素와의 關係에 關한 自律性의 程度에 依해서만이 規定된다. 音的인 實在性은 그들에게는 흥미가 없는 것이다.

그에 대해서, 누구든지, 音素에 대해서 心理的인 存在를 생각하는 사람은, 音素에 神經·筋肉的 實在性(une réalité neuromusculaire)을 부여하려 하는 사람과 같이, 實在論者인 것이다.[39]

<Bloomfield> Trubetzkoy 나 特히 Twaddell 은, 音素의 音聲的 資質은 極히 소홀히 하는 傾向이 있고, Jones 의 定義는 音素와 및 그의 實現인 變異音과의 關係는 매우 알뜰히 把握하려 했으나, 그것이 말의 뜻을 分化하는 데 어떻게 作用하는가 하는 데는 그리 큰 關心을 두지 않았다.

音素의, 말의 뜻을 分化할 수 있는 機能을, 音素 自體의 內在的인 音聲的 資質에서 찾으려고 한 學者는 Leonard Bloomfield 이다.

Bloomfield 는, "한 言語의 音素는, 소리가 아니라, 말할이가 實地 말소리의 흐름 속에 産出하고 認知하도록 訓練된, 소리의 單純한 資質에 지나지 않는다" (The phonemes o. a language are not sounds, but merely features of sound which the speakers have been trained to produce and recognize in

(39) André Martinet: Économie des changements phonétiques, Traité de phonologie diachronique. Berne, 195. P. 31. 脚註.

the current of actual speech-sound.)[40]라 하였다.

그는, 音聲 實驗室에서 記錄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소리의 總體的인 資質을「總體的 音響 資質」(gross acoustic feature)이라 하는데, 總體的 資質의 어떤 部分은 말의 뜻을 알아 듣는 데 相關 없는(indifferent)것, 非辨別的(non-distinctive)인 것이며, 그 中의 어떤 一部分만이 뜻과 相關되어, 말의 通達에 本質的인 것, 辨別的(distinctive)인 것이라 한다.[41] 이를테면 英語의 'man'은, 누가 어떤 때에 發音하거나 어떠한 높이(pitch)를 가지지 않을 수 없으나, 이 소리의 높이는, 英語의 單語의 뜻을 分化하는 데는 相關함이 없는 非辨別的 資質이다. 왜냐 하면, 'man'을 높게 發音하거나, 또는 그 周圍의 소리 보다 낮게 發音하거나, 그 單語의 뜻에는 다름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man'의 첫 斷片을 코로 낸다든지, 입술을 닫고 낸다든지 하는 資質은 말의 뜻과 相關 있는 辨別的 資質이다. 왜냐하면 만일 입술만 막고 코로 공기를 通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코로 通하되, 입술에서 막지 않고 다른 데를 막는다든지 하면, 'pan'이 되거나 'ban'이 되거나 'Nan'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音聲의 資質을 두가지로 크게 나누고서, 그 中의 辨別的 音聲資質의 最小한 單位(a minimum unit of distinctive sound feature)[42]를 音素라 한다.

이러한 辨別的 資質에 대해서, W. Freeman Twaddell은, 音波 中에 이러한 辨別的 資質이 存在한다는 것을 證明할 수 없기——또 없을 것이기——때문에,[43] 이러한 定義는 效果가 없는 것이라 보는 것 같다.

(40) Bloomfield: Language. New York, 1954. p. 80.
(41) Bloomfield: 같은 책. p. 77.
(42) 같은 책. p. 79.
(43) "The only legitimate conclusion at present appears to be that the presence of 'phoneme-features' as positive, additive entities in the sound-waves is not demonstrable, and there is no reason to believe that it will be." <On defining the phoneme (Readings in Linguistics. p. 63)>

그러나 이 辨別的 資質이란 매우 重要한 事實인 것 같다. 調音的인 方面으로 考察한다면, 辨別的 資質을 抽出해 내기란 반드시 不可能한 일은 아닐상 싶다.

<Martinet> André Martinet는, "音素란 同時的으로 나타나는 辨別的 資質의 全體로 생각할 수 있다." (Un phonème peut être considéré comme un ensemble de traits pertinents qui se realisent simultanément.)(44)라 하고, 佛語의 /p/ 音素의 辨別的 資質의 全體를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兩唇性 : pour — four, tour, sourd, cour

無聲性 : pelle — belle

非鼻性 : crispe — chrisme(45)

그리하여 그는, 各 音素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特徵짓는 모든 辨別的 資質을 列擧함이 좋다고 하고, 辨別的 資質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가까운 音素끼리를 比較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46)

그러나 音素를 分析해 내는 方法은, Trubetzkoy 들의 方法과 비슷하다. 卽 한 單語와, 그 音相이 一部 비슷한 다른 單語를 對比시킴으로 해서, 한 單語의 音素를 가려내는 方法을 取한다. 一例로 佛語 chameau [šamo]를 coteau [kɔto]와 對比시켜 보면, [šam]과 [kɔt]가 分明히 다른 소리임이 드러난다. 또 [šamo]와 ormeau [ormo]를 對比하면, [ša]와 [or]의 差異가 드라나고, 나아가서는 [šamo]와 rameau [ramo]를 接近시키면, [š]와 [r]의 差異가 드러난다. 그런데, 이러한 接近 方法으로써 [š]를 다시 斷片으로 쪼개어 볼 수도 있다. 卽 champ : gens를 對比하면 [š]에서 無聲性이 가려 내어

(44) A. Martinet: La Description Phonologique avec application au parler franco-provençal d'Hauteville (Savoie). Genève, Paris. 1956. p. 40.
그리고 그의 <A Functional View of Language. Oxford, 1962. p. 39>에서는 바로 Bloomfield의 表現을 그대로 써서, "the minimal distinctive unit"라 하고 있다.

(45) Description Phonologique. p. 40.

(46) 같은 책. p. 80. 참조.

지고, champ : cent 를 對比하면, [š]에서 「슈音」 (chuintement)을 가려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가지 辨別的 資質은 同時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 두 辨別的 資質은 두 音素로 分析되지는 못한다.(47)

<兩分 對立說> 이와 같은 傾向으로서 最近 注目을 끌고 있는 것은, Roman Jakobson, C. Gunnar M. Fant, Morris Halle 이다.

그들은 音素를 "한 同時的 묶음으로 結合된 諸 辨別的 資質" (The distinctive features combined into one simultaneous or, as Twaddell aptly suggests, concurrent bundle form a phoneme.)(48)이라 정의하고, 音素의 實現으로 나타나는 모든 變異를 通한 辨別的 資質의 同一性은 客觀的으로 論證될 수 있다고 하였다.(49)

이 客觀的 論證이란, 그들의 所謂 「兩分 對立」 (binary opposition)의 說인데, 그들은, 여러 雙의 서로 極端的으로 對立되는 두가지씩의 辨別的 資質로써 音素를 規定하려 한다. 比喩해서 말한다면, 方位를 決定함에 있어서, 항상 둘씩의 方向을 對立시켜 놓고, 그 둘씩의 對立을 여러 번 되푸리해서 그 方向을 定位시킴과 같은 方法이다. 卽 東北方을 定位하는 方法으로서, 南과 北, 東과 西의 兩極 方向을 對立시켜 놓고, 그것은 東方이요 北方의 묶음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方法이다. 圓의 上左半部 를 규정하는데, 圓의 極的인 兩半部인, 上半部와 下半部, 左半部와 右半部를 나누어 가지고, 上左半部는 上半部와 左半部의 묶음이라고 함과 같은 方法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世界의 모든 言語에 나타나는 辨別的 資質의 兩極的인

---

(47) 같은 책. p. 40. 그는 交替될 수 있는 두 音素의 關係를 「對立」(opposition)이라 한다. (같은 책. p. 41.)

그리고, 同時的으로 나타나는 두 辨別的 資資은, 두 音素가 아니라 한 音素가 되는 것이나, 그렇다고 繼起的으로 나타나는 두 資質은 반드시 두 音素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님을 注意할 것이다.

(48) Jakobson, Fant, Halle: Preliminaries to Speech Analysis, The distinctive features and their correlates. Technical Report No. 13, Acoustic Laboratory, M.I.T., 1955. p. 3.

(49) Jakobson, Halle: Fundamentals of Language. The Hague, 1956. p. 14.

對立을 열두가지로 보고, 모두 스물 네가지의 資質로써 모든 音素의 辨別的 資質을 決定하려는 것이다. 勿論 이 열두 對立은 모든 言語에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各 言語는 이 열두 對立 中에서 몇가지만 가리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 資質을 決定하는 데는, 調音的 方面도 어느 程度 考慮되기는 하나, 主로 音響 音聲學的 方法에 依해 있다.[50]

vocalic/nonvocalic : 音響的으로는, 明白하게 나타나는 포르만트(formant)의 있고 없음으로 分別되고, 調音上으로 보면, 口腔 通路(vocal tract)의 自由로운 空氣의 流通과 더불어, 聲門의 刺戟이 (主로 또는 반드시) 있는 것은 vocalic, 그렇지 않은 것은 non-vocalic.

consonantal/non-consonantal : 全體 에너지(total energy)의 낮음과 높음. 調音上으로는 口腔 通路의 막음의 있고 없음.

이로써 보면, 母音은 vocalic이고 non-consonantal, 子音은 consonantal이고 nonvocalic, 流音(liquid)은 vocalic이고 consonantal.

compact/diffuse : 에너지가 spectrum의 比較的 좁은 中央部에 集中하고 그에 따라 에너지의 全體的 增加를 가지고 오는 것은 compact, 그 反對는 diffuse. 調音上으로는, 口腔의 最狹部(narrowest stricture)의 前後腔의 關係에 依함. 前腔의 後腔에 對한 比率이 높으면 compact (開母音, 硬·軟口蓋, 後齒槽 子音), 그 反對는 diffuse. (閉母音, 唇·齒·齒槽 子音)

tense/lax : 에너지의 全體量이 크고, 또한 긴 것은 tense, lax는 그 反對. 調音上으로는, 普通 休息 狀態보다 口腔 通路의 變形(deformation)이 甚한 것은 tense, 그 보다 덜한 것은 lax.

voiced/voiceless : (說明 不必要)

nasal/oral (nasalized/non-nasalized) : (說明 省略)

discontinuous (interrupted)/continuant : (說明 省略)

---

(50) 여기 열두 對立에 대한 說明은, 그들의, 앞에 든 책, Preliminaries와 Fundamentals에 依함.

strident/mellow : 前者가 後者보다 噪音의 세기가 強하다.

checked/unchecked : 聲門의 壓縮·閉鎖(glottalised)의 有無.

grave/acute : spectrum 의 周波數가 적은 데 에너지가 集中되는 것은 grave, 그 反對는 acute. 調音點이 周邊的 位置(앞 또는 뒤, 입술 또는 軟口蓋)에서 나는 것은 grave, 中間 位置(硬口蓋, 齒槽)에서 나는 것은 acute. 母音으로는 後舌이 grave, 前舌이 acute.

flat/plain : 圓唇과 平唇의 對立.

sharp/plain : 혀를 입천장에 向해 올려서 sharp 의 효과를 얻는다. (palatalization)

世界의 모든 言語의 辨別的 資質이 果然 이 열두 兩分 對立으로 죄다 說明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좀더 檢討가 必要할 줄로 생각되나, 辨別的 資質에 音響學的 基盤을 提供하려는 데 크게 注目을 끌게 된다.

<총괄> 以上의 定義들은, 모두 音素의 性格의 重要한 面들에 터취한 것으로서, 모두 버리기 어려운 것들이다.

心理的 정의 方法은 이미 낡아빠진 것이라고 흔히들 말하나, 客觀的인 音聲의 世界와 다른, 音素의 世界가 있다는 데 對한 最初의 着眼은 말소리에 對한 心理的인 把握 態度에서였다. 확실히 본토박이(native speaker)들의 音素에 對한 反應 方式은 音素를 把握하는 데 重要한 端緖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音素의 性格의 重要한 一面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心理的인 性格은, 한 音素의 變異音들의 配置上의 排他性과도 密接한 關係가 있다. 본토박이들이 하나의 同一한 소리로 생각하는 여러 音聲들은, 대개는 그 配置가 排他的이요, 그러기 때문에 辨別的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는 것이다. 辨別的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는 音的 差異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은 그 差異에 대해서 敏感하지 않아도 좋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辨別的 機能을 發揮한다는 것과, 본토박이들이 識別한다는 것과의

사이에도 密接한 關聯性이 있다. 국어의 [p]와 [p']가 分明히 識別되는 것은, 이것이 말의 뜻을 分化하는 音素的 對立을 形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소리를 直覺的으로 識別하지 못하면, 국어의 '火'와 '角'이 混同된다는 重大한 結果를 招來하게 된다. 따라서 말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 差別을 똑똑하게 할 수 있도록 訓練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소리가 이러한 구실(機能)을 하지 못하는 言語를 母國語로 하는 사람들은, 이 소리들을 區別하는 데 그렇게 訓練되지 못하고 자란다.

말을 배우고 音素를 習得한다는 것은, 實地의 生理·物理的인 현상인 빠롤(parole)을 通해서다. 이러한 實質的인 現象으로서의 소리가 存在하지 않는다면 머리 속에 랑그(langue)가 저장될 수도 없을 것이며, 따라서 音素의 存在도 생각할 수 없다. 發生的으로는 빠롤은 랑그에 앞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배울 때에, 여러가지 다른 소리 中의 어떤 것들은 하나의 同一한 소리로 듣도록 訓練되고, 어떤 것들은 分明히 다른 소리로서 識別하도록 訓練되는데, 그 物質的인 要因은 무엇일까? 몇가지의 다른 소리를 하나의 소리로 생각하는 데는, 그들에 共通된 不變한 資質이 있어서, 들을 때는 그 資質에만 着眼하고 다른 資質은 無視해 버리기 때문이요, 두 소리를 다른 소리로 듣는다는 것은, 그 두 소리 사이에는 完全히 差別되는 資質이 있어서, 듣는 사람은 그 資質을 辨別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ᅵ 생각해 보면, 위에 들어 보인 定義들은, 音素의 一連의 性格 中에서 제 各其 그 重點을 두는 자리를 달리한 것들이라고 하여 잘못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定義를 取하는 사람이건, 音素를 가려내는 데는 다른 方法을 援用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모든 定義에 나타나는 音素 性格의 把握은, 音素 分析에는 다 같이 利用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利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定義들은, 音素의 一連의 性格中에서 그 重點을 두는 자리를 달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3. 音素 體系

以上에서 우리는, 音素의 性格을, 여러 音韻學者들의 音素 定義에서 檢討해 보았다. 이것은 곧 個個의 音素를 認知하는 方法에 관한 문제에 터취한 셈이 된다.

<音素의 관련성> 그런데 音素는 個別的으로 存在하는 것은 아니다. 一見 各個 音素는 서로 따로 떨어져서 個別的으로 獨自的으로 存在하는 듯이 보이나, 이들은 서로 눈에 안 보이는 줄로 얽어 매여 있는 것이다. 이것은 흡사, 個個人이 各其 獨自的으로 存在하는 것 같으나, 그 서로 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줄로 얽혀 있어서, 서로 密接하게 連繫되어 있는 것과 한가지다. 個人들 사이의 親疎 關係가 各其 달라서 여기 社會的 組織이 形成됨과 같이, 音素들 相互間의 疎密의 關係도 서로 달라서, 이러한 關係로 말미암아 音素들은 서로 얽혀서 하나의 組織體를 形成하고 있다. '모든 言語에 있어서 音素들은 서로 緊密히 結束되어 있다. 그들은 聯絡 있고 緊密하게 結合된 組織을 構成하고 있으며, 이 組織 안에 있어서는 모든 部分이 相通되어 있다. 이것이 音韻學의 第一 原理이다. 이것은, 言語는 孤立된 音素로 成立된 것이 아니라, 音素의 組織體로써 成立되어 있는 것임을 確認하는 것이므로, 매우 重要하다."[1]

<聯合(對立) 關係> 무릇 言語 單位의 相互 關係는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고구마의 줄기처럼 된 관계다. 한 고구마를 끌어 올리면 다른 고구마도 따라 끌려 올라 오듯이, 한 單位를 머리 속에 떠올리면, 다른 單位가

(1) J. Vendryes: Le Langage, Introduction Linguistique à l'histoire. Paris, 1950. p. 40.

그에 따라 記憶 속에서 聯想되어 떠오르는, 그러한 關係이다. 이것은 Saussure의 「聯合 關係」(rapports associatifs)이며,[2] 때로는 「對立 關係」(paradigmatic relation)라기도 한다. 우리가 '學生'이란 말을 머리 속에 떠올리게 되면, 이와 여러가지 모로 關聯性이 있는 다른 말들이 머리 속에 聯想된다. 類似語(synonym)인 '學徒', '生徒', '兒童', 그리고 그와 의미上으로 亦是 관련이 있는 '學校', '學問', '공부' 等等, 그리고 또 그와 對語(antonym)를 形成하는 '敎授', '敎師' 等이 머리 속에 떠오르고, 或은 一部分의 音이 類似한 '學事', '學說', '學習', '學識', '學業', '學藝' (이것들은 그 뜻으로도 어느 정도 關聯이 있다) 따위 말들도 떠오르게 될는지 모른다.

音素로 보더라도, /ㄱ/[3]音素를 머리 속에 떠올리면, 이와 나는 자리로 관련이 있는 /ㄲ/, /ㅋ/ 等이 떠오르게 될 것이고, 또 /ㄱ/이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아니란 點으로, /ㄷ/, /ㅂ/, /ㅈ/, /ㅅ/ 따위들도 이와 관련되어 머리 속에 떠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 모퉁이를 잡아 끌면, 머리 속에서, 그에 따라 끌려 올라오는 모든 다른 單位들과의 相互 關係가 「聯合(對立) 關係」이다.

이 關係는 머리 속에서 聯想 作用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Henri Frei는 「記憶上의 關係」(rapports mémoriels)라 한다. <La Grammaire des Fautes. p. 33. 참조>

<統合(連結) 關係> 이에 대해서, 言語의 線條上에서 連結되어 나타나는 言語 單位들의 관계는 「統合 關係」(rapports syntagmatiques,[4] syntagmatic relation)이다.

"나는 간다"란 월에 있어서, 形態素 「나」와 「-는」의 連結, 「가-」와 「-ㄴ다」의 連結, 또는 語節 「나는」과 「간다」의 連結에서 나타나는 關係가 統合關係이다.

---

(2) F. de Saussur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 170 以下.
(3) 音素을 表記할 때는, 그 記號를 / / 안에 넣어 표시한다.
(4) Saussure: Cours. p. 170 以下.

音素에 있어서도, 「나는」에 있어서의 /n-a-n-ï-n/과 같이 다섯의 소리가 말의 線條上에서 前後에 連結되는 關係가 統合 關係이다.

H. Frei는 이것을 「線條上의 關係」 (rapports discursifs)라 한다. <La Grammaire des fautes 참조.>

<音素 體系> 이와 같이, 한 言語의 여러 音素는, 서로 密接하게 關聯되어 있는 것인데, 이러한 音素의 서로 關聯되어 있는 모습이 「音素 體系」이다.

音素 體系는, 言語 體系 自體가 그러하듯이, 그 性格은 特定 共時的(idiosynchronique)이다. 卽 이 體系는 一定한 言語 안에서만 成立되며, 言語를 달리하면, 따라서 體系도 달라지는 것이다. 또 이 體系는 一定한 時期에 있어서만 成立된다. 體系는 一定한 時期 以上으로 存續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 時期의 길이는 미리 決定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는 數百年 동안이나 한 音素 體系가 存續되어 내려 오는 일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不過 數十年 동안에 달라지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言語란 한 體系이며, 그 體系 안에 있어서 모든 辭項은 서로 連帶的이고, 그 한 辭項의 價値(valeur)는, 다른 辭項의 同時的 存在로써만 규정되는 것이다.[5] 한 部分의 價値가, 그와 同一 體系에 속하는 다른 部分과의 관계, 그리고 그것과 全體와의 관계에 依해서 決定되는 경우, 이러한 組織을 「構造」(structure)라 하는데,[6] 言語는, 그 語彙에 있어서나, 文法에 있어서나, 音素에 있어서나, 各 部分의 價値는 모두 이러한 關係에 依해서 규정되는 構造인 것이다.

한 言語의 音素들은 그 言語의 音素 組織에 있어서 서로 對立되어 있는 要素이며, 一定한 言語의 한 音素는 同一 言語의 다른 音素들과의 差異에 依해서만이 규정되는 것이기[7] 때문에, 音素 體系의 變遷이란 반드시 그 中의 모든 要素의 同時的 變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中의 한 要素만의 變異

(5) Saussure: 같은 책. p. 159.
(6) 許雄 : 言語學槪論. p. 155 참조.
(7) Charles F. Hockett: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New York, 1958. p. 26.

는 能히 體系 全體에 影響을 주어, 能히 全 體系의 變遷을 招來할 수 있는 것이다.

1) 對立(聯合) 關係

(1) 音素의 對立

한 言語에 속하는 다른 音素는 適切한 條件下에서는 서로 交替될 수 있고, 그 交替는 말의 뜻을 分化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서로 「對立」되어 있다고 하는데,[(8)] 이 音素의 對立은 그 性質이 等質的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各 音聲의 相互 關係가 等質的이 아님과 같은 것인데,[(9)] 音素의 對立은 다음과 같은 種類로 나누어 볼 수 있다.[(10)]

(가) 문제의 두 音素의 對立의 性質과, 그 言語의 모든 다른 音素의 對立의 全 組織과의 關係로 해서;

兩面 對立과 多面 對立,

比例 對立과 孤立 對立

으로 나뉜다.

兩面 對立과 多面 對立: 어떤 言語에, 兩唇音으로서 /p/ : /b/ : /m/의 세 音素만이 對立되어 있다면, 兩唇音으로서 입소리(非鼻音)는 /p/와 /b/ 둘뿐이다. 卽 /p/와 /b/의 共通 資質인 兩唇性, 通口性(非鼻性)은 이 두 音素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이 두 音素의 關係를 「排他的(獨占的) 關係」(rapport exclusif)[(11)]라 하고, 이 두 音素의 對立을 「兩面 對立」(opposition

(8) D. Jones: The Phoneme. p. 15 참조.
(9) 「I, 2, 1) 音聲들의 相互 關係는 반드시 均等한 것은 아니다」 보라.
(10) 여기의 記述은, 特記한것 以外에는 모두 <Trubetzkoy 의 Principes. pp. 68—87>에 依함.
(11) A. Martinet: Économie des changements phonétiques, Traité de Phonologie Diachronique. Berne, 1955. p. 72.

bilatérale)이라 한다. 그리고 이 두 音素는 뭉쳐져서 하나의 單位(une seule unité)로 보아지는데, 이 單位는 다시 /m/ 音素와 兩面的으로 對立하고 있다고도 보는 일이 있다.[12] 그것은, /m/와 /p,b/는 兩唇性의 辨別的 資質을 排他的으로(獨占的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前者와 後者는 次元을 달리하고 있음을 留意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두 音素의 共通 資質[13](말하자면 最大公約數)이, 同一 言語의 다른 音素에도 나타날 때는, 이 두 音素의 對立은 「多面 對立」(opposition multilatérale)이라 불리운다. 이를테면 국어의 /ㅂ/과 /ㄷ/의 共通 資質은 停止·軟音이란데 있는데, /ㄱ/도 停止·軟音에 屬하기 때문에, /ㅂ/과 /ㄷ/은 多面 對立이다. 또 /ㄱ/과 /ㅁ/을 比較해 보면, 이 共通 資質은 子音的(consonantic)이란 데 있을 뿐이고, 子音的인 音素는 이 以外에도 얼마든지 있으므로, 이 두 音素도 多面 對立이다.

兩面 對立과 多面 對立의 差異를 比喩로써 說明하면, Alphabet의 大文字에 있어서, E와 F의 關係는 兩面的이다. 왜그러냐 하면, 이 두字에 共通되어 있는 部分은 F인데, F를 包含한 다른 字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P와 R의 관계는 多面的이다. 왜그러냐 하면, 이 두字에 共通되어 있는 部分인 P는 또 B에도 있기 때문이다.

多面 對立은 다시 두가지로 나뉜다. 獨語의 /u/와 /e/의 對立은 多面的이다. 이 共通 資質은 母音性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u/와 /o/는 다 같이 後

그리고 그의 <La Description Phonologique, avec application au parler franco-provençal d'Hauteville. Genève와 Paris, 1956. pp. 41—2>에도 이러한 說明이 있는데, 나아가서 그는 "rapport exclusif"의 개념이 有用한 것은 두 音素의 경우이나, 英語의 /m/, /n/, /ŋ/ 세 音素도 그 共通 資質이 이 세 音素에만 있고, 그리고 彼此 오직 한가지의 音聲的 資質로 分化되어 있으므로 그 關係가 「排他的」이라고 못할 理由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12) Martinet: Économie. p. 72.

(13) 이것을 Trubetzkoy는 「比較의 土臺」(base de comparaison)이라 한다. 比較에 있어서는 差異點과 아울러 共通點도 생각해야 한다는 뜻에서다. (Principes. pp. 67—70)

舌·圓唇音으로 兩面的이요, 다시 /o/와 /ö/는 半閉·圓唇音으로 亦是 兩面的, 또 다시 /ö/와 /e/는 半閉·前舌音이란 點으로 兩面的이다. 그러므로 /u/와 /e/는 多面的이나, 그 사이에는 /u/ : /o/−/o/ : /ö/−/ö/ : /e/의 兩面 對立의 連鎖(chaîne)가 다리를 놓아줄 수 있다. 이러한 多面 對立을 「同質的 多面 對立」(opposition multilatérale homogène)이라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異質的 多面 對立」(opp. mult. hétérogène)이라 한다. 국어의 /ㄷ/과 /ㅂ/ 사이에는 連鎖의 다리가 成立되지 않으므로 異質的 多面 對立이다.

兩面 對立인지 多面 對立인지를 分別하기 위해서는 共通의 資質을 규정해야 되는데, 이 共通 資質(比較의 土臺)을 규정하는 데는 若干의 注意가 必要하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共通 資質 가운데는 否定的 資質은 넣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어의 /ㄱ/과 /ㅋ/의 共通 資質은 通口·軟口蓋·停止性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資質은 /ㄲ/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ㄱ/과 /ㅋ/은 多面 對立이다.

그러나 여기 否定的 資質을 加味하여, /ㄱ/ : /ㅋ/의 共通 資質을, '通口·軟口蓋·停止性+非硬性'으로 보게 되면, 이 두 소리는 /ㄲ/을 排除하므로, 兩面 對立이 된다.

만일 이러한 否定的 資質을 여기 加味한다면, 국어의 /ㅎ/과 /ㅅ/도 兩面 對立이 될 수 있을 것이다. /ㅎ/과 /ㅅ/의 共通 資質은 摩擦性에 있다. 그런데 /ㅆ/도 摩擦性의 音素이므로, /ㅎ/ : /ㅅ/은 多面 對立이다 만일 여기 '非硬性'이란 否定的 資質을 加味함이 許容된다면, /ㅎ/과 /ㅅ/도 兩面 對立이 될 수 있다. 그것은 '摩擦·非硬性'의 音素는 국어에서는 /ㅎ/과 /ㅅ/ 뿐이기 때문이다.

否定的 資質의 加味가 許容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한가지만을 許容해야 한다는 아무런 理由가 없다. 그렇게 되면, 국어의 /ㅂ/과 /ㅁ/도 兩面 對立이 될 수 있다. 왜그러냐 하면, '兩唇·非硬·無氣'는 이 두 音素에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消極的(否定的) 資質은, 共通의 資質을 세는 데는 關與시키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無氣'라든지 '無聲'이라든지 하는 特質도, 여기에는 關與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音素는 다 兩面 對立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比例 對立과 孤立 對立 : 두 音素 사이의 對立과 同一한 性質의 關係가, 同一 言語의 다른 두 音素들 사이에도 成立될 때에, 그 두 音素의 對立을 「比例 對立」(opp. proportionnelle)이라 하고, 그러한 關係와 같은 性質의 對立이 다른 音素들 사이에는 成立되지 않을 때에는, 「孤立 對立」(opp. isolée)이라 한다. 英語의 /p/ : /b/는 聲의 有無만에 依해서 分化된 두 音素인데, 그러한 點 /t/ : /d/나, /k/ : /g/도 한가지다. 그러므로 /p/ : /b/나 /t/ : /d/나, /k/ : /g/의 對立은 모두 比例的이다. 이에 對해서 /p/와 /g/의 관계는, 그와 같은 性質로 分化된 두 音素가 다른 데에 없기 때문에 그 對立은 孤立的이다.

위에서 말한, 兩面 對立~多面 對立과 比例 對立~孤立 對立과의 사이에는 並行的 關係가 成立되는 것은 아니다. 即 兩面 對立은 반드시 比例 對立이고, 多面 對立은 반드시 孤立 對立이라든지, 또는 그 反對의 경우가 成立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 兩面 對立으로서 比例 對立인 경우도 있고, 兩面 對立으로서 孤立 對立인 경우도 있다. 그리고 多面 對立의 경우에도 한가지다.

앞에 들어 보인, 英語의 /p/ : /b/는, 兩面 對立이면서 比例的이요, /r/ : /l/은 亦是 兩面 對立이면서 孤立的이다. 그리고 /p/ : /t/는 多面 對立이면서, /b/ : /d/, /m/ : /n/의 같은 性質의 對立이 있기 때문에, 比例的이요, /p/ : /ʃ/는 多面 對立이면서 孤立的이다. 國語의 例로 보면 :

	比 例	孤 立
兩 面	/ㅅ/ : /ㅆ/	/ㄴ/ : /ㄹ/
多 面	/ㅂ/ : /ㄷ/	/ㅂ/ : /ㅆ/

/ㅅ/ : /ㅆ/——이 두 音素는 舌端・摩擦音으로서, 舌端・摩擦은 이 두 音素 以外에는 없는 資質이다.(兩面 對立). 또 軟音과 硬音의 對立은 /ㅂ/ : /ㅃ/, /ㄷ/ : /ㄸ/, /ㅈ/ : /ㅉ/에도 나타난다.(比例 對立).

/ㄴ/ : /ㄹ/——이 두 音素는 舌端・響音인데, 이 部類에 속하는 音素는 이 두 音素뿐이라.(兩面). 그리고 鼻音과 流音의 對立은 이 자리 以外에서 나타나는 일은 없다.(孤立).

/ㅂ/ : /ㄷ/——이 音素의 比較의 土臺는 停止・軟音이란 데 있다. 그러나 停止・軟音에는 /ㄱ/도 있다.(多面 對立). /ㅂ/과 /ㄷ/이 差別되는 것과 같은 性質로 差別되는 音素의 雙에는, /ㅃ/ : /ㄸ/, /ㅍ/ : /ㅌ/, /ㅁ/ : /ㄴ/들이 있다.(比例 對立).

/ㅂ/ : /ㅆ/——比較의 土臺는 장애子音이란 데만. /ㄷ/, /ㅈ/ 따위 모두 장애子音이다.(多面). 이 差別과 같은 性質을 띤 音素의 雙은 다른 데 없다. (孤立).

(나) 두 音素 사이의 관계에 依해서;

有無 對立, 階段 對立, 等値 對立

이 나뉘게 된다.

有無 對立: 對立되어 있는 두 音素의 한편에 있는 音聲的 資質이 다른 한 편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함이다. 英語의 /p/ : /b/의 對立에 있어서는, /b/에 있는 聲의 資質이 /p/에는 없다. 이 對立은 어떠한 音聲的 資質의 有와 無의 差異로 辨別되는 것이기 때문에 「有無 對立」(opp. privative)이라 하는데, 그 音聲的 資質을 「標識」(marque)라 하고, 標識를 가진 편을 「有標項」(terme marqué), 그것을 가지지 않은 편을 「無標項」(terme non marqué)이라 한다. 이 種類의 對立은 音素論에서는 매우 重要하다.

階段 對立: 두 雙의 音素 對立이 同一한 特質의 程度의 差異로 分化되어 있는 對立을 「階段 對立」(opp. graduelle)이라 한다.

국어의 /이/ : /에/의 對立은 혀의 높이에 依해서 辨別되어 있는데, 같은 系列(前舌母音)의 /에/ : /애/도 亦是 혀의 높이의 階段的 差異로 分化되어 있다. 이 경우 /이/와 /애/는 前舌 系列로서는 兩極이므로 「兩端項」(termeextrême)이라 하고, 그 中間에 있는 /에/는 「中間項」(terme moyen)이라 한다.

等値 對立: 對立의 양편이, 論理的으로 同等한 價値를 가지는 것을 「等値對立」(opp. équipollente)이라 한다. 이것은 두 項 사이에, 어떠한 音聲的 特質의 程度의 差異도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資質의 有無의 區別도 있음이 아닌 對立이다. 即 국어의 /ㅂ/ : /ㄷ/의 두 音素는 程度의 差나, 有無의 差로 分化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對立은 數的으로 매우 優勢하다.

(다) 辨別的 機能을 發揮하는 그 範圍에 따라서;

不變 對立과 中和 對立

으로 나뉜다.

不變 對立: 국어의 /ㅁ/과 /ㄴ/ 두 音素는, 모든 位置에 다 같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러한 여러 位置에서 辨別的으로 機能할 수 있다. 이를테면 語頭에서——문(門) : 눈(眼); 語末에서——감(柿) : 간(肝); 語中 母音 사이에서——하마(旣) : 하나(一); 語中 子音 앞에서——감식 (減食) : 간식(間食); 語中 子音 뒤에서——망명(亡命) : 망녕(妄靈). 이러한 것을 「不變 對立」(opp. constante)이라 한다.

中和 對立: 佛語에서는 /e/와 /ɛ/의 對立은 액슨트 있는 開音節에서는 辨別的으로 機能한다. dé[de] : dais[dɛ], fée[fe] : fait[fɛ]. 그러나 그 밖의 位置에서는, 閉音節에는 /ɛ/, 開音節에는 /e/만이 나타나서, 그 配置가 排他的이다. 이런 경우 /ɛ/와 /e/가 辨別的 機能을 發揮하는 位置를 「辨別 位置」(position de pertinence)라 하고, 辨別的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는 位置를 「中和 位置」(position de neutralisation)라 하며, 두개의 音素가 一定한 位置에

서 辨別的 機能을 喪失할 때에, 이 두 音素의 關係를 「中和 對立」(opp. neutralisable)이라 한다.

(2) 中和 作用과 原音素

辨別 位置에서는 辨別的으로 機能하는 두개의 音素가, 中和 位置에서 辨別的 機能을 喪失하는 現象을 「中和 作用」(neutralisation)이라 한다.

中和 作用이 일어나게 되면, 그 두 音素는 매우 親近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를테면, 순수히 音聲學的 立場으로 본다면, 佛語의 /e/와 /ε/ 사이는, /e/와 /i/ 사이와 다를 바 없으나, /e/와 /ε/는 中和 對立이기 때문에, /e/와 /i/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진다고 한다.(14) 그리하여 Trubetzkoy는 오직 兩面 對立만이――兩面 對立의 두 音素는, 그 共通된 辨別的 資質이 이 두 音素에만 있기 때문에, 매우 가깝게 느껴지므로――中和될 수 있다고 하고, 이 경우에, 이 두 音素에 共通된 辨別的 資質의 總體를 「原音素」(archiphonème)라 한다. 그리고 이 中和된 位置에서 나타나는 소리는, 이 「原音素의 實現」(représentant de l'archiphonème)이라 하게 된다.(15)

---

(14) Trubetzkoy: Principes. p. 81.
A. Martinet: La Description Phonologique. p. 43.

(15) 原音素의 說明을 보면:
"두 音素에 共通된 辨別的 特性의 總體"(l'ensemble des particularités distinctives qui sont communes aux deux phonèmes.) <Trubetzkoy: Principes. p. 81>
"排他的 關係에 있는 音素들에 共通된 辨別的 資質의 總體" (l'ensemble de traits pertinents communs à des phonèmes qui sont dans un rapport exclusif.) <Martinet: Description Phonologique. p. 42.>
그리고 Trubetzkoy는 "兩面 對立만이 中和될 수 있다" (seules les oppositions bilatérales peuvent être neutralisées)<Principes. p. 81. 또 같은 책 p. 262에도 같은 뜻의 말이 보인다>라고 하고, 또
"모든 兩面 對立이 죄다 事實上 中和的이란 것은 아니다. 거의 大部分의 言語에는 不變·兩面 對立이 있다. 그러나 한 言語가 中和 對立을 가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兩面的이다"(il n'en résulte pas que toutes les oppositions bilatérales soient effectivement neutralisables: il y a dans presque chaque langue des oppositions bilatérales constantes. Mais si une langue possède une opposition neutralisable, celle-ci est toujours bilatérale.)<같은 책, p. 82>라고도 하여, 中和 對立은 항상 兩面的임을 强調하고 있다.

이를테면 앞에서 말한 佛語의, 액슨트 없는 音節(中和 位置)에 있어서의 /e/와 /ɛ/는, 辨別 位置에서 나타나는 /e/, /ɛ/와 같은 音素가 아니라, 이 두 音素의 原音素의 實現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英語의 /t/ : /d/, /p/ : /b/, /k/ : /g/는 勿論 辨別的으로 機能하는 別個 音素이다. 그러나 spill, still, skill과 같이, /s/ 다음 位置에서는, 이 두 音素는 辨別的 機能을 喪失하게 된다. 卽 이 경우의 p, t, k는 無氣·無聲으로서, pill, till, kill의 有氣, 無聲의 p, t, k와도 서로 相補的(complementary)이며, 또 bill, dill, gill의 無氣·有聲의 b, d, g와도 相補的이다. 그러므로, 音聲의 配置的 條件에 依해서 音素로 뭉쳐주는 Jones流의 音素 定義를 따르면, 無氣·無聲의 p, t, k는 有氣·無聲의 p, t, k와도 한 音素로 뭉쳐질 수 있을 것이고, 또 같은 理由로, 無氣·有聲의 b, d, g와도 한 音素로 뭉쳐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Jones流의 定義를 따라 音素 分析을 하는 美國의 大部分의 記述 言語學者들은, 이러한 현상을 「複式 相補 配置」(multiple complementation)(16)라 하여, 이러한 中和 位置에서 나타나는 소리는, 그와 가장 가까운 音素와 한데 뭉쳐 버린다. 卽 中和 位置에서 나타나는 소리가, 中和 對立의 어느 한 音素와 그 音聲的 性質이 同一할 때는, 그 音素의 한 變異音으로 보고, 그것이 中和 對立의 두 音素의 어느쪽과도 같지 않을 때는, 그 中의 더 가까운 쪽에 붙이고, 그것이 잘 決定되지 않을 程度로 兩 音素와의 거리가 서로 비슷할 때는, 音聲外的인 條件(이를테면, 綴字法 따위)으로 適當하게 處理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音素의 性格을, 그 對立的 性格으로 把握하려는 Trubetzkoy流의 學者에 있어서는, 辨別的 機能을 喪失한 中和 位置에 나타나는 소리는, 中和 對立의 두 音素의 어느 쪽과도 同一視하지 않고, 이 두 音素의 原音素란 것을 생각하고, 그 原音素의 實現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原音素란,

(1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Charles F. Hockett: A Manual of Phonology. (Memoir 11 of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merican Linguistics) Baltimore, 1955. pp. 159, 164.

一般 音素보다는 한층 抽象的인 槪念인데, 音素 그 自體가 音聲보다는 抽象的인, 여러 音聲을 包含한 것이듯이, 原音素는 音素보다 더 抽象的인, 여러 音素를 包含한 存在인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Trubetzkoy는 兩面 對立만이 中和될 수 있음을 말하였는데,[17] A. Martinet가 말한 「排他的 關係」(rapport exclusif)가 세 音素의 경우에 적용되어서는 안될 理由가 없듯이,[18] 中和 作用도 반드시 兩面 對立의 경우에만 局限시킬 必要는 없을상 싶다.

이를테면, 국어의 /ㄱ/, /ㄲ/, /ㅋ/ 따위 세 音素가 辨別力을 發揮하는 것은 音節의 첫머리(辨別 位置)에 있어서이고, 音節의 끝(中和 位置)에 있어서는 이 소리들은 辨別的으로 機能하지 못하여, 오직 內破音의 [k']만이 나타나게 된다. /ㄱ/, /ㄲ/, /ㅋ/은 兩面 對立이 아니다. 卽 /ㄱ/:/ㄲ/에 共通된 辨別的 資質인 通口·軟口蓋·停止性은 /ㅋ/에도 存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Trubetzkoy의 "seules les oppositions bilatérales peuvent être neutralisées"란 말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국어의 이 현상은, 中和 作用으로 못볼는지 모르나, /ㄱ/, /ㄲ/, /ㅋ/의 세 音素는 排他的 關係에 있고, 그 音節 末 位置에서 辨別力을 發揮 못함은, 앞에서 들어보인 典型的인 中和 作用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19] 그러므로 국어의 이 현상도 中和 作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音節末(中和 位置)의 內破音 [k']를 原音素 /ㄱ, ㄲ, ㅋ/의 實現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17) <註 15> 참조.
(18) <註 11> 참조.
(19) 事實上, Trubetzkoy도, 한국어의 軟音(douce), 硬音(forte), 氣音(aspirée)이 三項的 相關束을 形成하고, 이 相關束은 音節末에서 中和된다는것, 그리고 이 경우의 原音素의 實現은 內破音임을 설명하고, 또 그는, 한국어의 「갸, 겨, 교, 규」의 口蓋音化한 [kʲ]와 「과, 궈」 따위의 脣音化한 [kʷ]를 다 같이 獨立된 音素로 보고서, 普通의 ㄱ, ㄲ, ㅋ과 口蓋音化한(palatalisé) 것과, 脣音化한(labialisé) 것의 아홉 音素가 音節末에서는 中和되어, [k']가 原音素의 實現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Principes. pp. 92—3>

둘 以上의 音素가 一定한 位置에서는 辨別力을 發揮하지 못하는 일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국어의 /ㅂ/, /ㅃ/, /ㅍ/은 鼻子音 위에 나타날 수 없다. 그리하여 이 位置에서는 이 세 音素와 /ㅁ/은 辨別的 機能을 發揮하지 못한다.[20]

Martinet의 方法대로 생각한다면, /ㅂ/, /ㅃ/, /ㅍ/ 세 音素는 排他的(獨占的) 關係에 있고, 따라서 그 共通된 辨別的 資質의 總體는 하나의 原音素를 形成하고, 이 原音素는 다시 /ㅁ/ 音素와 兩唇性을 共通 辨別的 資質로 하는 排他的 關係에 있다.[21] 그러므로 이 /ㅂ, ㅃ, ㅍ/의 原音素와 /ㅁ/과도 鼻子音 앞에서는 中和되며, 따라서 이 中和 位置에서 나타나는 /ㅁ/은, 바로 原音素 /ㅂ, ㅃ, ㅍ/과 音素 /ㅁ/과의 또 한층 高次的인 原音素의 實現(représentant)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音素 分析은, 문제를 必要 以上으로 복잡하게 하는데 지나지 않을뿐, 音素 記述에 있어서 何等의 利得을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原音素를 音素 分析에 導入시키더라도, 그것은 音素(原音素 아닌)와 音素 사이에만 적용시킬 것이요, 原音素와 音素, 또는 原音素와 原音素와의 사이에는 적용시키지 말아야 할 것임을 強調하는 바이다.

그리고 排他的 關係에 있는 音素라 해서 반드시 中和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국어의 /ㅁ/, /ㄴ/, /ㆁ/은 通鼻性을 共通된 辨別的 資質로 하여, 排他的(獨占的) 關係에 있으나, 이들의 對立은 不變的(constante)이다. 卽 中和되지 않는다.

(3) 相關과 相關束

同一한 調音 方法으로 내는 몇개의 子音 音素의 한동아리를 「系列」(série)이라 하고, 同一한 位置에서 다른 調音 方法으로 내는 한동아리의 子音 音

(20) /ㄷ, ㄸ, ㅌ/과 /ㄴ/, /ㄱ, ㄲ, ㅋ/과 /ㆁ/도 모두 鼻子音 위에서는 辨別的 機能을 喪失한다.

(21) A. Martinet: La Description Phonologique. p. 42. 참조.

素의 떼를 「序列」(ordre)이라 한다. 국어의 /ㅂ/, /ㄷ/, /ㄱ/은 한 系列이고, /ㅂ/, /ㅃ/, /ㅍ/, /ㅁ/은 한 序列이다.

母音에 있어서는 同一한 口腔 共鳴型으로 내는 音素들의 떼, 이를테면 前舌母音, 後舌母音을 各各 系列이라 하고, 同一한 程度의 開口度로써 發音되는 한동아리의 母音, 이를테면 開母音, 半開母音, 半閉母音, 閉母音을 各各 序列이라 한다.(22)

두 音素의 關係가 有無 對立(opposition privative)이며, 同時에 比例 對立(opp. proportionnelle)인 경우, 이 두 音素를 「相關雙」(paire corrélative)이라 한다.(23) 이를테면 국어의 /ㄱ/과 /ㅋ/은 氣의 有無에 依해서 分化된 有無 對立이며, 또 /ㅂ/ : /ㅍ/, /ㄷ/ : /ㅌ/, /ㅈ/ : /ㅊ/과 같은, 여러 雙의 同一한 性質의 有無 對立이 存在하기 때문에, 이것은 比例 對立이다. 그러므로 /ㄱ/과 /ㅋ/은 相關雙이 된다.

有無 對立에 있어서의, 두 音素를 分化하게 하는 音聲的 資質을 「標識」(marque)라 했는데, 相關雙에 있어서의 標識는 「相關 標識」(marque de corrélation)라 불리운다.(24)

한가지의 相關 標識에 依해서 分化된 모든 相關雙의 總體(25)를 「相關」(corrélation)이라 한다. 그러므로 相關은, 並行的인 두 系列과, 몇 雙의 同一 序列에 속하는 짝지어 있는 音素를 包含하게 된다.(26)

국어의 /ㅂ/ : /ㅍ/, /ㄷ/ : /ㅌ/, /ㄱ/ : /ㅋ/, /ㅈ/ : /ㅊ/의 네 相關雙의

---

(22) série와 ordre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A. Martinet: Économie des changements phonétiques. pp. 69—70.

(23) Trubetzkoy: Principes. p. 89에 依하면, 이 두 音素는 다시 兩面 對立(opp. bilatérale)이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반드시 兩面 對立일 必要는 없다. 이를테면 국어의 /ㄱ/ : /ㅋ/은 兩面 對立은 아니나(/ㄲ/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두 音素는 相關雙이 된다.

(24) Trubetzkoy: 같은 책. p. 89.

(25) "l'ensemble de toutes les paires corrélatives qui sont caractérisées par la même marque de corrélation." <Trubetzkoy: Principes. p. 89>

(26) Martinet: Économie. p. 70.

全體는 「氣의 相關」[27]이며, 이 相關은, /ㅂ/, /ㄷ/, /ㄱ/, /ㅈ/ 系列과 그와 並行하는 /ㅍ/, /ㅌ/, /ㅋ/, /ㅊ/ 系列을 包含하며, 그리고 同時에 同一序列에 속하는 네 雙의 짝지어 있는 音素, /ㅂ/과 /ㅍ/, /ㄷ/과 /ㅌ/, /ㄱ/과 /ㅋ/, /ㅈ/과 /ㅊ/을 包含하게 된다. 相關 標識가 없는 /ㅂ/, /ㄷ/, /ㄱ/, /ㅈ/을 「無標 系列」(série non-marquée)이라 하고, 標識가 있는 /ㅍ/, /ㅌ/, /ㅋ/, /ㅊ/을 「有標 系列」(série marquée)이라 한다. 그리고 相關雙의 한쪽 音素는 各各 「짝 있는 音素」(phonème apparié)라 하고, 어떠한 相關雙에도 關與하지 못하는 音素를 「짝 없는 音素」(phonème non-apparié)라 한다.[28] 국어의 /ㄱ/이나 /ㅋ/이나 /ㅂ/이나 /ㅍ/ 따위는 모두 짝 있는 音素이고, /ㄹ/이나 /ㅎ/과 같은 音素는, 어떠한 音素와도 相關雙을 形成할 수 없기 때문에, 짝 없는 音素이다.

이제 하나의 無標 系列을 A, B, C, D로 표기하고, 相關 標識를 N으로 표기하면, 有標 系列은 AN, BN, CN, DN이 되는데, 이 두 系列

A　B　C　D

AN　BN　CN　DN

이 相關이 된다. 그러므로 相關은, 辨別的 資質의 數를 하나 增加시킴으로써 몇개의 音素를 增加시키는 매우 經濟的인 方法이다.

다시 A, B, C, D와 잘 結合될 수 있는 音聲的 資質 N′가 있다면, 여기 또 하나의 有標系列 AN′, BN′, CN′, DN′가 成立되고, 이 系列과 A, B, C, D 系列과는 또 다른 하나의 相關이 形成된다. 그리하여 앞의 N 相關과 N′相關은 無標 系列을 共通으로 가지게 된다.

A　B　C　D

AN　BN　CN　DN

AN′　BN′　CN′　DN′

(27) 相關 標識로써 相關의 名稱을 붙인다.
(28) Trubetzkoy: 같은 책. p. 89.

이것이 「相關束」(faisceau de corrélations)[29]이라 불리우는 것인데, 위의 相關束은 세 系列로 되었기 때문에, 「三系列 相關束」(faisceau à trois séries) 또는 「三項的 相關束」(faisceau à trois termes)이라 한다.

N과 N'가 아울러 A, B, C, D와 잘 結合될 性質의 것이라면, 第四의 系列 ANN', BNN', CNN', DNN'가 形成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A	B	C	D
AN	BN	CN	DN
AN'	BN'	CN'	DN'
ANN'	BNN'	CNN'	DNN'

의 四 系列은 亦是 相關束을 形成하게 된다. 이것이 「四系列 相關束」(faisceau à quatre séries), 또는 「四項的 相關束」(f. à quatre termes)이다.

국어에 있어서는 /ㅂ/, /ㄷ/, /ㅈ/, /ㄱ/이 無標 系列이 되고, 「N=喉頭緊張」, 「N'=氣」의 두 相關 標識가 있어서,

ㅂ	ㄷ	ㅈ	ㄱ
ㅃ	ㄸ	ㅉ	ㄲ
ㅍ	ㅌ	ㅊ	ㅋ

의 三系列 相關束이 形成되어 있다.

梵語에 있어서는, 「N=聲」, 「N'=氣」로써 相關束을 形成하는데, N과 N'는 다시 結合되어서 四系列 相關束이 形成된다.

p	t	k
b	d	g
ph	th	kh
bh	dh	gh

한 言語의 音素 組織은, 相關과 相關束이 많으면, 安定된 均衡이 잡히게 되고, 그 反面, 짝 없는 音素가 많으면, 그 組織은 散慢하고 不安定하게 된다.

---

(29) 相關束에 대해서는 :
Trubetzkoy: Principes. p. 90. 以下.
Martinet: Économie. pp. 72, 101. 참조.

(4) 機能 負擔量과 間接的 對立

音素란, 말의 뜻을 分化하는 機能을 가졌다. 그런데 모든 音素의 關係는 그러한 面에서 同一한 價値를 發揮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A와 B의 對立은, 말의 뜻을 分化하는 데는 A와 C의 對立이나, B와 C의 對立과는 그 利用度가 높은 경우도 있고, 낮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어떤 音素의 對立은 그 말의 뜻을 分化하는 데 있어서의 利用度가 零인 경우도 있다. 이 利用度의 測定은 最少 對立語[30](minimal pair)의 수효로써 하는데, 어떠한 두 音素가 最少 對立語를 形成함이 많으면, 그「機能 負擔量」(functional load, f. rendement fonctionnel)이 높다고 하고, 그것이 적으면 機能 負擔量이 낮다고 한다.

英語의 /p/와 /b/의 對立은 꽤 많은 準同音語를 形成할 수 있어서——pad:bad, pet:bet, pit:bit, push:bush, rip:rib, cap:cab, repel:rebel——負擔量이 높은데, /θ/와 /ð/의 對立은 負擔量이 낮다. ——thigh:thy, sooth:soothe.

그리고 한 音素의 變異音은 絕對로 準同音語를 形成하지 못하므로, 한 音素의 變異音은 機能 負擔量이 零임은 勿論인데, 別個의 두 音素의 對立으로서 負擔量이 零인 경우도 있다 英語의 /h/와 /ŋ/는 別個의 두 音素이나, 그 負擔量은 零이다. 이러한 두 音素의 對立을「間接的 對立」(opposition indirectement distinctive)[31]이라 한다.

2) 音素의 組織

音素는, 以上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그 記憶上의 關係로 해서, 서로 緊密

---

(30) 오직 한 音素의 交替로써만 말의 뜻이 分化되는 두 單語를 이름인데, 이것은 同音語에 매우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準同音語」(quasi-homonyme)라기도 한다.

(31) Trubetzkoy: 같은 책. p. 36. "opposition indirectement phonologique" 이라기도 한다.

히 關聯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個個의 人間이 一見 서로 홀로 서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實은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줄로 얽혀서 社會를 形成함과 같은 것이다. 人間 社會에 組織이 있듯이, 音素에도 組織이 成立되는 것인데, 이 組織은 한 言語의 內部에서 成立되며, 言語에 따라 그 組織을 달리하는 것이다.

音素는, 그 調音上으로 보나, 音素의 結合에 있어서의 그 對照的 性格으로 보나, 母音과 子音으로 크게 나뉜다. 그러므로 音素의 組織을 考察하는 데도, 이 두 種類의 音素를 따로 다루는 것이 便利하다.

(1) 母音의 組織

母音의 辨別的 資質은 대체로 다음 네가지 條件으로 규정된다.

(가) 혀의 높이, 卽 間隙(aperture).

(나) 能動部, 卽 혀의 最高點의 位置.

(다) 입술의 모양, 卽 입술의 圓平.

(라) 코울림, 卽 코안이 共鳴에 關與하는 與否.

코울림을 辨別的 資質로 가지고 있는 言語(佛語 따위)는 드물며, 「가, 나, 다」의 分類만 되면 「라」는 쉽사리 組織化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앞의 세가지 條件에 依해서 母音의 組織을 說明하기로 한다.

그런데 「가」의 間隙은, 어떤 言語에 있어서나 辨別的 資質로서 作用하는 것이나, 「나」와 「다」는 辨別的 資質로서 作用하지 않는 言語도 있고, 그리고 이 두가지 特質은 서로 얽히고 겹쳐지는 性格이 있다. ――이를테면, 혀의 앞자리(前舌) 母音은 대개는 平脣이 많고, 뒷자리(後舌) 母音은 대개는 圓脣이 많음을 생각할 것―― 그러므로 「나」와 「다」는 뭉뚱그려 「位置」(localisation)라 하는 일이 있다. 그리하여 母音의 辨別的 資質로 作用하는 條件은 크게 「間隙」과 「位置」의 두가지로 나뉜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같은 度數의 間隙을 가진 母音들은 序列(ordre)을 形成하고, 같은 位置의 母音들은 系列(série)을 形成한다.

<間隙 度數> 한 言語의 母音을 辨別하는 間隙의 數를 「間隙 度數」(degrés d'aperture)라 하는데, 間隙 度數는 即 母音의 序列의 數이다. 母音의 組織은, 間隙 度數에 依해서, 二序列, 三序列, 四序列 等으로 나뉜다.

母音의 序列 즉 間隙 度數가 한가지만 있는——即 間隙 度數가 辨別的 資質로서 利用되지 못하는——言語는 없다.

辨別的 資質로 利用되는 間隙 度數가 둘인 것을 「二序列 組織」(système vocalique à deux degrés)이라 하는데, 이 組織에 있어서는 高母音과 低母音만이 對立된다. Tagalog 語의 母音은 /i, u, a/의 셋인데, /i, u/는 高母音이요, /a/는 低母音이다.[32]

間隙 度數가 셋인 組織을 「三序列 組織」(système vocalique à trois degrés)이라 하는데, 이에 있어서는, 高母音, 中母音, 低母音이 對立된다. 西班牙語나 露語의 五母音 組織이 그것인데, /i, u/는 高, /e, o/는 中, /a/는 低母音이다.[33]

「四序列 組織」(s. v. à quatre degrés): 高母音과 高中母音과 低中母音과 低母音이 對立된다. 伊太利語의 일곱 母音 中, /i, u/는 高, /e, o/는 高中, /ɛ, ɔ/는 低中, /a/는 低母音이다.[34]

五序列, 六序列의 組織도 있기는 하나 드물다.

<位置> 位置에 依한 母音의 部類를 「類」(classe) 또는 「系列」(série)이라 하는데, 母音의 組織은, 位置에 依해서 다음과 같이 나뉜다.

系列이 한나뿐인 組織은 「單系列 組織」[35]이라 하나, 이 조직은 드물다.

位置는 크게 前:後의 두 系列로 나뉘는데, 여기 圓:平의 系列이 겹치게 된다.

---

(32) Bloomfield: Language. p. 105.
(33) 같은 책. p. 105.
(34) 같은 책. p. 104.
(35) 또는 「一類 組織」(système vocalique à une classe), 「一次元 組織」(one-dimensional system)이라기도 한다.

圓과 平의 입술 作用이 辨別的 資質로서 作用하지 못하면, 母音은 前과 後의 두 系列만의 對立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二系列 組織」[36]이라 한다. 이 경우에는 後舌은 대개는 圓唇을 수반하게 되나, 이것은 辨別的으로 作用하지 못하고 後舌 母音의 한 「剩餘的 資質」[37](redundant feature)로 나타나게 된다.

「三系列 組織」(s.v. à trois classes): 前舌 系列과 後舌 系列의 對立에, 그 어느 한 系列이 다시 圓唇 系列과 平唇 系列로 對立하게 된 組織이다.

「四系列 組織」(s.v. à quatre classes): 前舌 系列과 後舌 系列의 對立에, 다시 各 系列이 圓唇 系列과 平唇 系列로 對立되는 組織이다.

<間隙과 位置> 間隙과 位置를 아울러 보면;

「四角 組織」(système vocalique quatrangulaire): 한 言語의 全 序列이 같은 數의 系列로 對立되어 있는 組織을 「四角 組織」이라 한다.

「三角 組織」(s.v. triangulaire): 低母音 序列은 高母音 序列보다 적은 數의 系列로 分化되는 例가 많은데, 이러한 組織이 「三角 組織」이다.

Tagalog 語의,

i u
a

의 母音 組織은 「二序(列) 二系(列) 三角組織」(système vocalique triangulaire à deux degrés et à deux classes)이라 불리운다.

西班牙語나 露語의,

i u
e o
a

의 組織은, 「三序 二系 三角組織」이며,

(36) 또는 「二類 組織」(s.v. à deux classes)이라기도 한다.
(37) 「剩餘的 資質」이란, 辨別的 資質 아닌, 總體的 資質의 一部分이다.

伊太利語의,

i			u
e			o
ɛ			ɔ
		a	

는 「四序 二系 三角組織」이다.

獨語의,

i	y	u
e	ϕ	o
	a	

는 「三序 三系 三角組織」,

佛語의,

i	y	u
e	ϕ	o
ɛ	œ	ɔ
a		ɑ

는 「四序 三系 四角組織」(s. v. quatrangulaire à quatre degrés et à trois clas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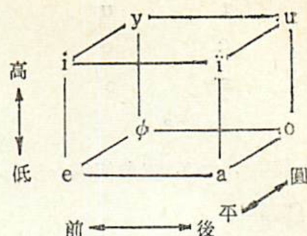
土耳其語의,

i	y	ï	u
e	ϕ	a	o

는 「二序 四系 四角組織」이다.

單系列 組織을 「一次元 組織」(one-dimensional system)이라 하는데 對해서, 前 : 後의 二系列 組織은 「二次元 組織」(two-dimensional system)이라 하고, 여기 다시 圓 : 平의 系列이 겹쳐지는 것을 「三次元組織」(three-dimensional system)이라기도 한다.

三次元 組織은 立體에 定位된다. (다음 페지의 그림 참조)



<相關> 母音의 相關의 典型的인 土耳其語의 /i/:/y/, /e/:/φ/, /ï/:/u/, /a/:/o/는 모두 有無·比例·兩面 對立으로서, 이 全 母音은 相關을 形成한다. 그 相關 標識는 圓唇性으로서, 이것은 圓唇 相關이다.

코울림이 辨別的 資質로 作用하는 言語에 있어서는, 코울림은 그 어느 一部의 母音에만 수반된다. 佛語의 鼻母音은 /ɛ, œ, ɔ, ɑ/에만 나타나서, /ɛ/:/ɛ̃/, /œ/:/œ̃/, /ɔ/:/ɔ̃/, /ɑ/:/ɑ̃/의 對立은 各各 有無·比例·兩面 對立으로서, 이 相關雙의 全體는「코울림 相關」을 形成한다.

相關에 關與하는 音素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母音들은「組織的」이 된다.

(2) 子音의 組織

子音의 組織은,

(가) 發音部의 作用하는 자리

(나) 發音部의 作用하는 方法

(다) 發聲部의 作用

의 세가지 條件을 主로 하여 記述된다.

<發音部의 作用하는 자리> 調音部(能動部와 固定部)에 依해서 音聲은 다음과 같이 分類된다.[38]

입술-소리 ⎧두-입술-소리
　　　　　⎩이-입술-소리

---

(38) p. 31. 참조.

혀끝-소리 {잇사이-소리 / 잇소리 / 잇몸-소리 / 권설-소리}

센-입천장-소리 {앞-센-입천장-소리 / 가운데-센-입천장-소리 / 뒤-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앞-여린-입천장-소리 / 가운데-여린-입천장-소리 / 뒤-여린-입천장-소리}

인후-소리 {인두-소리 / 목청-소리}

그러나 이러한 分類는 音聲學的 記述 方法이고, 音素論的 記述 方法에 있어서는 어떠한 位置의 差異가 辨別的으로 對立되는가를 考慮에 넣지 않으면 안된다. 國語에는 이-입술, 잇사이, 권설, 인두의 여러 소리들은 나타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分類는 無意味함은 勿論이며, 센-입천장-소리나 여린-입천장-소리의 여러 갈래도, 그것이 辨別的 資質로서 對立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細分은 全혀 必要 없게 된다. 要는 音素의 記述에 있어서는, 한 言語의 音素의 對立的 性格에 基準을 두어야 할 것이며, 音聲學的인 方法에 依한 分類法은 必要하지 않은 것이다.

英語의 障碍音(obstruents)의 位置는:

		두-입술	이-입술	잇사이	잇몸	센-입천장	여린-입천장
터짐	無聲	p			t	č	k
	有聲	b			d	ǰ	g
갈이	無聲		f	θ	s	š	
	有聲		v	ð	z	ž	

이와 같은데, 이것은 音聲學的 分類이다. 音素論的으로 보면, 같은 터짐-소리나 갈이-소리 안에서는 두-입술과 이-입술의 對立이 없으므로, 두-입술과

이·입술의 位置的 差異는 辨別的 資質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두 序列을 한 序列로 보고, 두-입술과 이-입술의 差異는 그 障碍의 方法의 差異에 따르는 非辨別的 剩餘的 資質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터짐-소리의 세 序列과 갈이-소리의 세 序列을 並行시켜, 이 全 子音을 四序列로 整然하게 組織化할 수 있다.[39]

1	2	3	4
p	t	č	k
b	d	ǰ	g
f	θ	s	š
v	ð	z	ž

그러나 그 나는 位置의 音聲學的 差異는 亦是 重要視되어야 할 것이며, 組織의 均衡(symmetry)을 爲한 지나친 均化는 삼가해야 할 것이다.

<發音部의 作用하는 方法> 子音을 發音할 때의 口腔 通路의 間隙에 依해서, 子音은 크게 세 種類로 나뉘는데, 間隙은 發音部의 作用하는 方法과 直接的인 관련이 있다. 間隙이 가장 작은 것이 「瞬間音」(터짐-소리)이고, 그 다음이 「摩擦音」(갈이-소리), 그 다음이 母音에 가까운 「響音」인데, 響音에 대해서 터짐-소리와 갈이-소리를 「障碍音」이라 하고, 또 터짐-소리(瞬間音)에 對해서 摩擦音과 響音을 「持續音」이라기도 한다.[40]

障碍音 {터짐-소리 — 瞬間音, 갈이-소리}
響　音 {흐름-소리, 코 - 소리}
(갈이-소리, 흐름-소리, 코 - 소리) 持續音

이러한 分類法도, 앞의 경우와 같이, 모든 言語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對象 言語의 音素의 對立的 性格에 맞추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테면 터짐-소리(停止音)와 갈이-소리가 辨別的으로 對立하지 못하

(39) 太田朗 : 米語音素論, 構造言語學序說. 東京, 1959. pp. 112—3. 참조.
(40) p. 26. 참조.

는 言語에 있어서는 터짐-소리와 갈이-소리는 그 記述의 基準이 되지 못하고, 오직 障碍音만이 記述의 基準으로 登場된다. 다물(tamoul)語에 있어서는 [pʰ, p, b, β], [tʰ, t, d, ð]는 各各 한 音素의 變異音이다.(41) 그러므로 이러한 言語의 音素 記述에 있어서는 障碍音은 다시 터짐-소리와 갈이-소리로 分類할 必要가 없게 된다.

〈相關과 빈간〉 同一한 間隙의 音素들이 몇가지 다른 序列(位置的 差異에 依한 分類)로 形成되는 것임은 앞에서 說明한 바인데, 聲帶나 그 밖의 기관의 作用으로, 同一 間隙에 다시 몇가지 系列이 形成되는 일이 흔히 있다. 앞에서 들어 보인바, 英語의 여덟 터짐-소리는 四序列 二系列로 組織되어 있는데, /p/:/b/, /t/:/d/, /č/:/ǰ/, /k/:/g/의 各 對立은 모두 有無·比例·兩面 對立으로서, 이 相關雙의 全體는 聲의 相關을 形成하여 整然히 組織化되어 있다. 英語의 터짐-소리는 「四序列 二系列·聲의 相關」組織이다. 이 點 갈이-소리도 亦是 同一한 樣式으로 組織化되어 있다.

이와같이, 同一 間隙의 여러 系列의 音素들은 서로 緊密히 組織化되어 相關을 形成하는 것인데, 서로 다른 間隙 사이의 音素들이 相關雙이 되어서 相關을 形成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英語의 /č/:/š/, /ǰ/:/ž/나, 獨語의 /k/:/x/, /t/:/s/는 比例·兩面 對立으로서 相關雙이 되어 相關을 形成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對立은 그 相關的 性格이 그리 分明하지 못하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對立들이 有無的(privative)이 아니기 때문이다.

相關雙은, 두 音素가 有無·比例·兩面 對立일 때에 가장 分明하고, 다음은 有無·比例 對立일 때요, 다음이 比例·兩面 對立일 경우인데, 比例 對立은 相關에 不可缺의 條件이다. 兩面 對立과 有無 對立은 반드시 相關에 必要한 것은 아니나, 兩面 對立보다는 有無 對立이 相關雙을 만드는 데는 더 重要한 구실을 하게 된다.

---

(41) Trubetzkoy: Principes. pp. 159—160. 참조.

子音 組織이나 母音 組織이나, 相關에 關與하는 音素의 數가 많으면 많을수록 잘 組織化되며, 짝 없는 音素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組織은 緊密하지 못하게 된다.

국어의 /ㅎ/ 音素는 갈이-소리로서 /ㅅ/과 같은 類에 속하게 되나, /ㅅ/이 /ㅆ/과 짝을 지어 相關雙을 形成하는데 대해서, /ㅎ/은 그러한 짝을 지을 音素가 存在하지 않아서 짝 없는 音素이다. 바꾸어 말하면 목청 갈이-소리의 된소리의 자리는 비어 있는 셈이 된다. 그리하여 이 빈 자리를 「빈간」 또는 「빈자리」(hole in the pattern, f. case vide)라 한다.[42]

3) 統合 關係

以上에서 우리는, 音素의 對立(記憶的) 關係와, 그러한 關係에서 나타나게 되는 音素의 組織을 說明해 왔다.

音素 相互間에는 記憶的 關係 以外에, 다시 그것이 말의 線條上에 排列되는 前後 關係가 맺어지는 것이니, 이것이 곧 統合 關係이다.

音素의 統合으로 나타나게 되는 音素論的 單位에는, 抑揚(intonation)의 屈曲으로 본 單位(intonation group)가 있고, 또 말의 中間에 숨을 쉬거나, 或은 숨을 쉬지 않더라도 若干의 休息(pause)을 둘 수 있는 도막(breath group)이 있고, 또 쏘노리티(sonority)의 屈曲으로 생겨나는 單位(音節) 따위가 있는데, 이 中에도 音節은, 音素의 結合으로 되는 單位 中에서 가장 重要한 位置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音節의 特質과, 音素가 音節을 形成함에 있어서나, 또

(42) 이에 대해서는 :
Pike: Phonemics. p. 117.
Hockett: Manual of Phonology. p. 141.
Martinet: Économie. pp. 80—81. 참조.

는 音節과 音節이 結合되는 데 있어서의 音素의 結合 方式을 說明하려 한다.

(1) 音 節

<쏘노리티에 依한 音節 說明> 音聲은 各其 들을이(hearer)의 귀에 到達하는 그 에너지의 量이 다른데, 이것을 「쏘노리티」(sonority)(43)라 한다. 卽 [a] 소리는 [l]나 [k]보다 크게 들리며, [s]는 [z]보다 작게 들린다.

쏘노리티는 各 音聲의 音質(quality) 自體에 依해서 決定되는 것이며, 그 소리의 길이나 強勢에서 오는 소리의 크기와는 區別해야 한다. 이를테면, [i]는, 같은 힘, 같은 길이로 發音되는 [a]보다는 작게 들리나, [a]를 짧게 弱하게 發音하고, [i]를 길게 強하게 發音하면, [i]는 [a]보다 더 크게 들릴 수도 있다. 이러한 소리의 크기는 "prominence"이다.(44)

쏘노리티는 大體로 聲門 狀態와 間隙에 依해 決定되는 것인데, 有聲音은 그에 해당되는 無聲音보다 크며, 間隙이 크면 쏘노리티도 따라서 커진다.

이제 Jespersen이 測定한 客觀的 쏘노리티의 度數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45)

1. 無聲 {a. 터짐-소리 [p, t, k]
   b. 갈이-소리 [f, s, ç, x]
2. 有聲의 터짐-소리 [b, d, g]
3. 〃 갈이-소리 [v, z, γ]
4. 有聲 {a. 코소리 [m, n, ŋ]
   b. 혀옆-소리 [l]
5. 有聲의 r 소리
6. 〃 閉母音 [y, u, i]
7. 〃 半開·半閉 母音 [ϕ, o, 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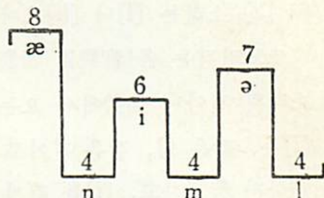
(43) "relative sonority" 또는 "carrying power"라기도 한다. <D. Jones: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Cambridge, 1957. p. 23. 참조>

(44) Jones: 같은 책. p. 24.

(45) Otto Jespersen: Lehrbuch der Phonetik (fünfte Auflage). Leipzig und Berlin, 1932. S. 191.

8. 有聲 開母音　　[ɔ, æ, ɑ]

音素가 말의 線條上에 排列됨에 있어서는, 音聲 器官의 開閉 作用에 따라, 쏘노리티의 크고 작은 소리가 交替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를테면 英語 animal[ænimǝl]에 있어서의 쏘노리티의 度數를 보면 〔8—4—6—4—7—4〕로서, 이를 알기 쉽게 그래프로 그려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여기에 있어서, [æ]와 [i]와 [ǝ]는, 그 크기가 若干 다르기는 하나, 그 周圍에 그보다 더 작은 소리들이 에워싸고 있어서, 그 쏘노리티는 두드러지게 크게 들리게 된다. 말하자면 쏘노리티의 한 「꼭대기」(peak)를 形成하고 있다. 이에 比해서 [n], [m], [l] 따위는 「골짜기」를 形成해 있다고 할만하다.

여기 하나의 꼭대기를 中心으로 하여, 그 앞이나 뒤나 또는 앞뒤에 골짜기가 이를 에워싸고 있는데, 한 꼭대기는 單獨으로, 또는 若干의 골짜기를 더불어서, 한 音節을 形成하게 된다. 한 音節은 꼭대기 하나, 또는 꼭대기 하나에 골짜기가 붙어서 形成된다. 꼭대기는 音節을 만드는 中心되는 소리이며, 하나의 꼭대기가 있으면, 여기 하나의 音節이 形成되기 때문에, 꼭대기를 「成節音」(syllabic sound)이라 부르고, 이에 대해서 골짜기를 「非成節音」(non-syllabic sound)이라 부른다.

위의 animal의 例로 보면, 母音은 成節音이 되고, 子音은 非成節音이 되어, 子音과 母音이 線條上에 서로 交替되어 對照的으로 連結되어 있다. 事實上 母音과 子音은, 그 調音 方法이 서로 對照的으로 다를뿐 아니라, 말의 線條上에 있어서도 서로 對照的인 特質을 發揮함을 여기에 볼 수 있다.

그러나 母音과 成節音, 子音과 非成節音은 반드시 合致되는 것은 아니다. 子音이 成節音이 되는 일도 있고, 母音과 같은 調音 方法으로 되는 소리가 非成節音이 되는 일도 있는데, 이것은, 成節 非成節音은 그 소리 自體의 調音 方式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連結에서 나타나는 相對的인

쏘노리티의 大小에 依해서 決定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animal에 있어서의 n, m, l은, 그 周圍에 그보다 더 큰 소리가 連接되어 있어서, 非成節音이지마는, 英語의 button[bʌtn], bottle[bɔtl], rhythm[riðm]에 있어서의 語末의 [n, l, m]는, 그 앞에 그보다 작은 쏘노리티의 소리가 있어서, 連接된 소리보다 두드러지게 크게 들리는 成節音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리를 「成節 子音」(syllabic consonant)이라 한다.

英語의 high, how, hay, go, boy의 重母音들이나, 국어의 「야, 여, 와, 워」 따위 重母音에 있어서의 [j, w]와 같은 半母音들은, 音聲 기관의 움직임으로 보면, 입안에서 막음을 입지 않아서, 母音의 [i, u]와 거의 같은 소리이나, 그 앞이나 뒤에 그보다 쏘노리티가 큰 母音이 連接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成節音이 되지 못한다. 卽 이것은 「非成節 母音」(non-syllabic vowel)이라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그 連接되는 周圍 환경에 따라 成節音이 되었다가 非成節音이 되었다가 하는 소리는, 母音으로서는 그 間隙이 가장 작고, 子音으로서는 그 間隙이 가장 큰 것에 속한다.

以上의 說明은, 音節을 形成하는 方法에 對한 音聲學的 說明으로서, 매우 簡明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說明 方法에는 몇가지의 難點이 發見된다. 첫째, 이 說明으로써는 音節의 境界가 明示되지 않고, 둘째, 따라서 英語의 重母音 [ej, aw]와 비슷한 소리인 佛語의 [pei] pays, [Raul] Raoul의 母音은 어째서 둘 다가 成節音이 되는지가 이로써는 說明되지 않으며, 세째, 또 英語의 [hiə]here의 [ə]는 [i]보다 客觀的 쏘노리티가 클텐데, 어째서 [i]가 成節音이 되고, [ə]는 非成節音이 되는지가 說明되지 않는다.

<Saussure와 Grammont> Saussure는 內破音(implosif)과 外破音(explosif)으로써 音節을 說明하려 했다. 卽, appa에 있어서의 두 pp는 서로 다른데, 첫 p는 閉鎖(fermeture)에 通해 있고, 둘째 p는 開放(ouverture)에

通해 있다. 이와 같이 閉鎖에 通한 소리를 「內破音」이라 하고, 開放에 通한 소리를 「外破音」이라 한다.[46] 이러한 理論의 土臺 위에서 그는 音節의 形成法을 說明하려 했는데, 여기 實驗的 方法으로 內破 外破에 좀더 合理的인 基礎를 提供한 사람은 M. Grammont 이다.

그는 實驗 裝置(enregistreur)에 依해서, ATTA(UPPU, AKKA 도 이와 비슷함)의 發音에 있어서의 喉頭曲線을 그림과 같이 記錄했다.[47] 이 屈曲은 音聲 器官의 筋肉의 緊張의 張緩을 表示하는 것인데, 筋肉의 緊張은 音聲 器官의 힘(勢)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Saussure 의 內破音이란, 그 調音의 前半部에 있어서 發音의 힘이 最高度에 達하고, 거기에서 다시 힘이 弱해가는 소리인데, Grammont 은 이러한 소리를 「漸弱音」(phonème décroissant)이라 한다. 그리고 Saussure 의 外破音이란, 發音의 힘이 그 全長을 通해서 漸漸 強해가는 소리이므로, Grammont 은 이것을 「漸強音」 (phonème croissant)이라 한다.[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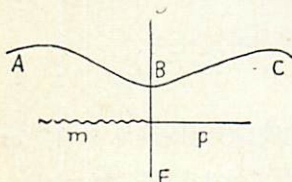
그 表記法:

Saussure		Grammont	
內破	>	漸弱	＼
外破	<	漸強	／

이러한 土臺 위에서 音節과 成節音과 音節의 경계가 說明되는데, 그 方法은 Grammont 도 Saussure 와 同一하다.

---

(46) Saussure: Cours. p. 79. 以下.



(47) Grammont: Traité de Phonétique. p. 52.
Fouché 의 Kymograph 에 依한 um/pu 의 記錄도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A-B-C 는 喉頭筋의 緊張度를 표시함.
D-E 는 音節의 경계.
<Bertil Malmberg: La phonétique. (Que sais-je? 文庫) p. 83 에 依함>

(48) Grammont: Traité. pp. 45, 52, 6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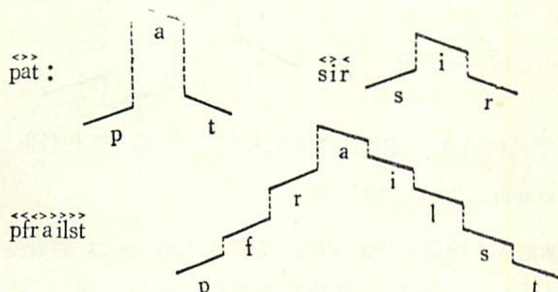
卽 한 音節이란, 첫 漸強音에서 다음 漸弱音 사이의 소리의 結合體이다.

[bɔtl] (／＼／＼), [grow] (／／＼＼)

音節의 경계는 漸弱音과 漸強音 사이에 있다. (><, ＼／)

成節音(母音點, point vocalique)은, 休息 또는 漸強音 다음의 漸弱音이다. (#>, <>; #＼, ／＼)

漸強, 漸弱에 다시 間隙을 고려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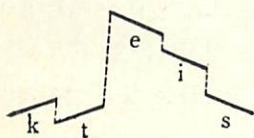


와 같이 圖示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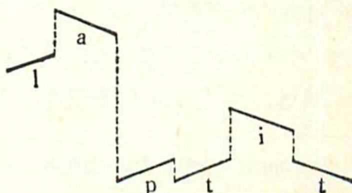
이러한 音節型의 特色은, 漸強의 連續인 前半部에 있어서는, 間隙이 漸次 커가는 소리가 連結되며, 그 後半部의 漸弱音은 間隙이 漸次 작아가는 소리가 連結된다. 이와 같은 音節型은, 그 發音에 無理가 없고 順調로우며, 따라서 여러 言語에 많이 나타난다. 이 音節型은 典型的이요 理想的인 것으로서 Grammont 은 이것을 "syllabe phonologique"이라 한다.

그러나 實際 言語에서 볼 수 있는 音節型은, 반드시 이러한 正常的이요, 理想的인 것만이 아니다. 漸強部나 漸弱部에서 間隙이 同一한 소리가 連結될 수도 있고,

희랍어, kteí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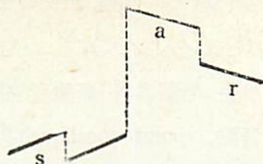


佛語, la pet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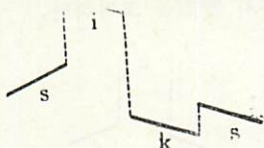
때로는, 漸強部에서 間隙이 큰 소리가 間隙 작은 소리에 앞서는 일도 있으며,

佛語, st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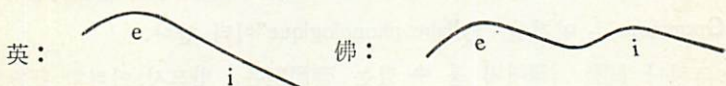
때로는, 漸弱部에서 間隙 큰 소리가 間隙작은 소리 뒤에 連結되는 일도 있다.

英語, six:



이러한 不規則的이요, 生理的으로도 非正常的인 音節型을, Grammont 은 "syllabe phonétique"이라 한다.(49)

<成節 強勢> 佛語의 'pays'와, 英語의 'pay'는 그 發音이 비슷하나, 佛語의 'pays'가 두 音節임에 比해서 英語의 'pay'는 한 音節이 되는 것은, 'pay'(英)의 發音에 있어서는, 音聲 기관의 緊張(tension)이 [e]에서 最高點에 達하고 바로 弱해지는데, 이 弱해지는 힘(勢)으로 [i]를 發音하게 된다. 그러나 'pays'(佛)에 있어서는, [i]에서 새로운 緊張을 加하게 되기 때문에, [i]가 꼭대기가 되어 成節音이 되는 것이다.



英語의 here도 客觀的인 쏘노리티로 보면 [ə]가 클 것이나, 緊張을 [i]에 加해서 漸弱해가는 힘으로 [ə]를 發音하게 되기 때문에, [i]가 成節音이 되는 것이다.

佛語의 'pays'와 英語의 'pay'에서와 같이, 같은 소리가 같은 환경에서 그 힘주는 데 따라서 成節音도 되고 非成節音도 되는 현상이, 한 言語 안에서 나타나게 되면, 그 힘주기의 資質은, 말의 뜻을 分化하는 힘을 가지게 되기

(49) Grammont 의 音節에 對한 說明은, 그의 Traité. pp. 97—104 에 依함.

때문에, 辨別的 資質의 구실을 하게 된다. 中西部 美國 英語에 있어서는, stirring과 string은 音素의 排列이 同一하다.[50] /striŋ/. 그러나 stirring에 있어서의 /r/는 成節音인데, string에 있어서의 /r/는 非成節音이다. 이것은 stirring의 /r/는 若干의 힘줌(slight increase of stress)을 가지기 때문이니, 이 경우의 /r/의 힘줌은 stirring을 string과 區別하게 하는 辨別的 機能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힘줌을 「成節 強勢」(syllabic stress)라 한다.[51]

<音聲的 音節과 音素的 音節> 以上에서 說明한 바와 같은 音節은 生理的(物理的)으로 규정한 것인데, 이러한 客觀的인 音節과는 區別되는 또 한가지의 音節型을 세우는 일이 있다.

Kenneth L. Pike은, 生理的·物理的으로 규정되는 音節을 「音聲的 音節」(phonetic syllable)이라 하고, 이에 對해서 各 言語의 特質에 따라 규정되는 主觀的 音節을 「音素的 音節」(phonemic syllable)이라 하여 區別한다.

音聲的 音節이란, "하나 또는 하나 더되는 소리의 도막을 포함하는 소리의 單位로서, 그것을 내는 동안에는 하나의 胸廓 脈動과, 쏘노리티나 prominence의 꼭대기가 오직 하나 있는 것"[52]을 이름이다. 여기에 이른 chest pulse란 앞에서 말한 音聲 기관의 tension에 依한 一種의 힘을 가리킴이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앞에서 말한 音節의 說明과 같다.

그러나, 同一한 또는 거의 비슷한 音의 連結일지라도, 그것이 쓰이는 言語에 따라서 音節의 分節을 달리하는 일이 있다. 이를테면 [sampo](散步)는 日本語에 있어서는 세 音節이나, 그보다 더 길게 發音되는 한국어의 [saːnp'o] 또는 [saːmp'o](散步)는 두 音節이다. 이것은 日本語와 한국어의 言語上 特質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 差異란: 첫째, 국어에서는 CVC(子音+母音+子音)

---

(50) 但 [ɚ]와 [r]를 같은 音素로 보고.

(51) Bloomfield: Language. p. 122.

(52) "A unit of sound comprising one or more segments during which there is a single chest pulse and a single peak of sonority or prominence." <Phonemics. pp. 60, 246>

의 音素 連結로 되는 音節이 많이 있는데, 日本語에는 그러한 音節型이 없다. 둘째, 한국어의 音節은 그 長短에는 그리 큰 拘碍를 받지 않는다. 이에 比해서 日本語에서는 모든 音節은 거의 같은 길이로 發音된다. 日語에서는 /nippon/(日本)은 네 音節로 세어지는데, 그것은 이 말이 /sajonara/와 같은 길이이기 때문이다.(53) 세째, 한국어의 /n, m/ 따위 響音(sonorant)은 그 自體로서 高低를 둘 수 있는 한 單位가 되지 못한다. 이를테면 慶尙道 方言은 高低를 가진 말이나, /ㄴ/이나 /ㅁ/ 따위 子音이 高低를 가져, 그 앞이나 뒤의 母音과 獨立된 한 單位는 되지 못한다. 이에 比해서 日語의 /n, m/는 그 自體로서 高低를 두는 한 單位가 될 수 있다. 이를테면 [sampo]는 세 音節이 다 낮은 平等한 높이인데, [sam̀bóo](三方)의 [m]는 그 앞의 母音보다 높게 發音되는 獨立된 한 單位를 形成한다.

이와 같이, 各 言語의 特質——高低, 強勢의 놓이는 자리에 관한 特質, 또는 形態素의 구조에 관한 特質 따위——에 依해서 규정되는 音節을 「音素的 音節」이라 한다.(54)

音素的 音節도, 그 一般的 基本 性格은, 앞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生理·物理的으로 규정되기는 하나, 特定 言語의 各異한 構造의 制約을 받게 되는 것이 그 特色이다. 英語의 [lei]lay는 항상 한 音節인데, 西班牙語의 [léi]ley (=law)가 두 音節이 되는 것은, 英語의 [lei]의 [i]는 stress를 둘 수 없으나, 西班牙語의 [lei]의 [i]에는 stress를 둘 수 있기 때문이다. [leí] leí (=I read).

〈音節核〉 한 音節은 꼭 成節音 非成節音으로 나누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

(53) Hockett: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p. 100.

(54) Pike 의 "phonemic syllable"의 定義 :
"A unit of sound for a particular language such that one syllable represents a single unit of stress placement, or of tone placement,............or of morpheme structure(in general, a phonemic syllable will be constituted of a single phonetic syllable with some rearrangement of the grouping in accordance with structural pressures.)" 〈Phonemics. pp. 60 246〉

다. 非成節音 中의, 響音(流音, 鼻音) 또는 非成節的 母音(半母音과 英語의 here의 [ə] 따위)이, 어떤 言語에서는 成節音과 緊密하게 結束되어 있어서, 그 言語의 構造上으로는 꼭 한 音素처럼 생각되고, 強勢나 高低를 띨 때도 한 單位로서 取扱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音節核」(syllable nucleus, f. centre de syllabe)이라 한다. 英語의 重母音이나, 국어의 「ㅑ, ㅕ, ㅛ, ㅠ」 따위 모두 各 하나의 音節核이다.

音節核은, (1) 한 母音으로 된 것, (2) 母音과 半母音으로 된 것, (3) 子音으로 된 것, (4) 母音과 響音(流音, 鼻音)으로 된 것이 있다. 이 中의 「1」, 「2」, 「3」의 音節核은 그 例가 흔한 것이고, 「4」의 경우는 中國語를 들 수 있을 것이다.[55]

<音節의 認知> 우리의 귀는 소리의 連鎖 中에서 音節의 區分을 直覺的으로 知覺한다. 音節은 그것을 形成하고 있는 單音보다 直接的으로 意識되는 것이다. 文字의 發達 過程에 있어서 單音 文字보다 音節 文字가 앞서고 있는 것은, 音節 意識이 單音 意識에 앞서 있기 때문이다. 音節로 나누기는 單語로 나누기보다 앞선다.

(2) 音素 結合의 制約性

아무 音素이든지, 自由롭게, 아무런 位置에서나 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말의 첫머리에 설 수 있는 音素가 制約되는 일이 있다. 국어의 /ㆁ/나 /ㄹ/ 따위는 말의 첫머리에 설 수 없는 것이다.

---

(55) 中國語의 音節은, 第一次的으로는, 聲母와 韻母로 나뉘는데, 聲母는 初頭 子音이요, 韻母는 나머지 部分이다. 韻母는 四聲을 짊어진 部分이어서, 韻母는 그것을 形成해 있는 音素와 그 四聲에 依해서 分類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韻母는 音節核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1) 韻腹(單母音)만으로 된것 : lu(路), tɕi(基), (2) 韻頭(半母音)와 韻腹으로 된것 : tsie(借), kuo(過), hua(話), (3) 韻腹과 韻尾로 된것 : kau(高), tung(東), ken(根), (4) 韻頭+韻腹+韻尾로 된것 : liang(良), kiang(姜), p'iau(飄)의 네가지가 있는데, 이 中의 韻尾가 n, ng 따위 響音으로 된 것은, 母音과 響音이 한 音節核을 形成한 例로 볼 수 있다.

音節核에 앞설 수 있는, 말 첫머리의 子音이 制約되는 일이 있다. 하나의 子音 音素가 올 때도, 子音의 모든 것이 죄다 이 位置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 位置에 나타나는 子音 音素의 數에 制約을 주는 일도 있다. 하나의 子音만이 여기 올 수 있는 言語도 있으며, 둘 또는 셋의 子音 結合이 許容되는 言語도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子音의 結合은 一定한 制約을 받게 된다.

子音과 母音의 連結에도 一定한 制約이 있어서, 모든 子音은 모든 母音에 自由로이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語中에서 子音과 子音이 母音 사이에서 連結될 때에 許容되는 最大限의 子音의 數, 連結될 수 있는 子音의 種類는 言語에 따라 各異한 制約이 있다.

말의 끄트머리에 올 수 있는 音素의 種類도 制約을 받는 일이 있다.

이와 같이, 말의 線條上의 一定한 位置에 설 수 있는 音素의 種類는, 言語에 따라 各各 다른 一定한 制約이 있는데, 이러한, 位置에 따르는 制約性으로 말미암아 音素가 類別될 수도 있다.

(3) 連 接

국어의 "예수가마귀를쫓는다"는 두가지 뜻으로 取해진다. 하나는 "예수가 마귀를 쫓는다"이요, 하나는 "예수 가마귀를 쫓는다"이다.

이 두가지 말은, 글로 쓸 때만 위와 같이 區別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할 때에도 亦是 區別된다. 卽 「예수가 마귀를……」에 있어서는 「가」와 「마」 사이를 띄어서 發音하고, 「예수 가마귀를……」에 있어서는 「수」와 「가」 사이를 띄어서 發音한다. 그 밖의 다른 자리, 이를테면 「예」와 「수」, 또는 「마」와 「귀」와 「를」의 사이는 조금도 띄지 않고 잇달아 發音한다. 말을 띈다는 것은, 具體的으로 說明하면, 그 앞소리를 若干 길게 끌게 됨을 의미한다. 「예수가 마귀를……」에 있어서는 「가」의 「a」를, 말의 끄트머리에서처럼, 若干 길게 끌어서 發音하며, 「예수 가마귀를………」에 있어서는 「수」의

[u]를 若干 길게 끌게 된다.

이와 같이 한 말도막에 있어서의 여러 音素들은 어떤 데는 緊密히 連結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若干 길게 끌어서 말을 띄는 데가 있게 되어서, 그 連結의 緊密度가 同一하지 않은데, 이와 같은 音素의 連結되는 모습을 「連接」(juncture)이라 한다.

連接에는 두가지가 있어서, 「예수가」에서처럼 各 音素가 사이를 띄지 않고 連結되어 있는 것을 「緊密 連接」(close juncture)이라 하고, 「예수 가마귀……」에 있어서의 「수—가」의 사이처럼, 사이가 띄어진 連結을 「開放 連接」(open juncture)이라 한다.

말의 線條上에서 開放 連接을 두는 자리는, 때로는 말의 뜻을 分化하는 重要한 구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音素와 同等한 資格을 주어 다루는 일도 있다.

4. 韻律的 資質

소리의 長短, 高低, 強弱을 「韻律的 資質」(prosodic ..ature)이라 하는데, 長短은 한 소리를 내는 동안을 이름이요, 高低는 振動體의 振動 速度에 따르는 소리의 높낮이이며, 強弱은 振動體의 振幅의 大小에 依한 소리의 세기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母音 子音과 같은 소리를 發音하는 方法과, 그 적는 方法, 그리고 그것들이 말의 뜻을 表現하는 데 關與하는 모습을 여러가지 모로 관찰하였는데, 여기에서는 韻律的 資質이 말의 뜻을 表現하는 데 어떻게 關與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1) 非辨別的 資質로서

국어의 「밭」(田)과 「밤」(夜)의 母音의 길이는 差異가 있어서, 「밭」의 [a]

는 「밤」의 [a]에 比해서 짧고, 「잣」(海松)의 母音 [aː]의 길이는 「밤」(栗)의 [aː]보다 亦是 짧다. 이것은 그 다음에 오는 子音의 無聲임과 有聲임에 따라, 自動的·無意識的으로 달라진 것으로서, 그 길이의 差異는 말의 뜻을 辨別하는 데 所用되지 못하는 剩餘的 資質(redundant feature)이다.

有聲音을 發音할 때는, 必然的으로 聲帶의 振動을 수반하게 되고, 聲을 수반하게 되면, 그 振動의 遲速(即 一定 時間 內에 있어서의 그 振動數의 多少)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有聲音을 包含한 말들은 모두 어떠한 높이를 가지고 發音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높이가 낱말의 뜻을 分化하는 데는 全혀 關與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即 英語의 man이나, 서울말의 「사람」이란 낱말은, 그 높이를 어떻게 바꾸든지, '人'이란 概念을 表現하는 데는 變異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러한 言語에 있어서는, 낱말의 뜻에 관한 限, 소리의 높낮이는 한갓 剩餘的 資質인 것이다.

또 말을 할 때는, 強弱 없이 均等한 힘으로 發音하기는 오히려 힘이 드는 일이고, 말 가운데 어떠한 소리는 다른 소리보다 強하게 내는 일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리의 強弱도, 낱말의 뜻에 關한 限에 있어서는, 아무런 辨別力을 發揮하지 못하는 言語가 많다. 국어의 「사람, 바람, 구름다리」 따위는 어느 한 音節을 特히 強하게 發音하는 것이 社會 習慣的으로 決定되어 있는듯 싶지도 않고, 그 強勢의 두는 자리를 바꾼다고 해서, 다른 뜻을 가진 낱말이 생겨나는 일도 없다. 이러한 言語에 있어서는 強弱도 剩餘的 資質이다.

이와 같이, 韻律的 資質도 말의 뜻의 表現에는 關與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非辨別的·剩餘的 資質로서는, 音韻學의 테두리 안에 들어서지 못하게 된다. 音韻學은 辨別的 資質을 中心으로 研究하는 學問이기 때문이다.

2) 纖細한 語感의 表現으로서

소리의 長短 高低 強弱이, 때로는 感情的 色彩를 隨伴하는 일이 있다. 국어의 「절대로」(絕對)의 /ㄸ/의 密閉를 길게 發音하게 되면, 그 뜻을 強調하는 效果를 나타낸다. 이러한 效果는 子音을 길게 하여 얻을 수 있을뿐 아니라, 母音을 길게 하여서도 얻을 수 있다. 「먼 나라」의 「먼」의 /어/ 母音을 普通말보다 더 길게 내면, 그 먼 程度가 더함을 表現하게 되고, 「온 終日」을 [oːn —]으로 내게 되면, 하루 해가 길고 지루했음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效果는, 個人的이요 一時的인 現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通할 수 있는 事實이다. 따라서 이것은 langue에 속하는 事實이며,(1) 길이의 變異가 signifié에도 어느 程度 反影되기 때문에, 말의 뜻과 어느 程度 關聯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事實은 音韻學의 關與하는 바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佛語에 있어서는 한 單語의 뜻을 強調하기 위해서, 第一 音節이나 第二 音節을 特히 強하게 發音한다.

"particulièrement, "misérable,

c'est é"pouvantable

"absolument 또는 ab"solument

또 子音을 特히 길게 하는 일도 있다.

["mːizerabl] misérable

獨語의 [ʃːɸːn] schön은 子音과 母音을 다 같이 길게 하여 이런 效果를 얻고 있다.

이러한 韻律的 資質은 感情의 纖細한 表現을 爲한 것이다.

Trubetzkoy는 知的 意義(signification intellectuelle)를 分化하는 音的 對立

---

(1) Trubetzkoy는 "랑그의 소리에 對한 學問"(la science des sons de la langue)을 "音韻學"(phonologie)이라고 하였다. <Principes. p. 3>

을 音素(韻)的 對立이라 하였는데, 여기의 '知的'이란 '感情的'인 것에 對立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Trubetzkoy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感情的 色彩를 表現하는 소리의 韻律的 資質은, 비록 그것이 langue에 속하는 事實일지라도, 固有한 의미의 音韻學에는 內包시키지 않고, 이러한 현상을 硏究하는 分野로서 "phonostylistique"을 세우고 있다. 여기서 말한 소리의 길이나 세기는 고유한 音韻學에보다 phonostylistique에 속한다.

3) 統辭的 對立으로서

知的 意義란 單語의 語彙的 意義(lexical meaning)만이 아니라, 文章의 文法的 意義(grammatical meaning)도 包含되는 것임은 勿論이다. 따라서 音韻的 對立(opposition phonologique)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單語를 分化하는 「語彙的 對立」(opp. lexicale)이요, 또 하나는 월을 分化하는 「統辭的 對立」(opp. syntactique)이다.(2)

韻律的 資質이 統辭的 對立에 利用될 때는, 이것은 音韻學의 所管事가 되는 것인데, 그 좋은 例가 intonation이다. intonation은 다른 音韻的 현상과는 달라서 여러 言語에 共通된 點이 많다.

국어의 「가오↑」와 「가오↓」는, 句節 끄트머리의 高低 屈曲의 變異로써 그 文法的 意義가 分化되어 있다. 이러한 句末의 高低의 屈曲을 「句末 高低」(terminal contour)라 한다. 대개 句末 高低는 셋으로 分化된다. /↑↓→/. 「네가 가니→」는 말의 계속을 암시하는 것이요, 「네가 가니↑」는 疑問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나머지 部分에는 대개 셋 또는 넷의 辨別的인 「高低의 水平」(pitch level)이 있다. (1은 低, 3은 高를 표시)

²My name is ³Bill¹↓

²What's your ³name¹↓

(2) 같은책. p. 94.

²Is your name ³Bill³ ↑

²His name is ³Bill³ ↑

이 高低의 水平은 모든 言語가 다 同一한 것은 勿論 아니다.

소리의 길이도 文法的 意義를 分化하는 機能을 가지는 일이 있다. D. Jones에 依하면, Tswana語에 있어서는 文章의 次末 音節(penultimate)을 짧게 함으로 해서 叙述을 疑問으로 바꾸게 된다.

"ō batla nama"

는 次末 音節인 'na'를 길게 하면 叙述로서, "He is looking for some meat." 가 되고, 'na'를 짧게 하면 疑問으로서, "Is he looking for some meat?"가 된다고 한다.(3) 그러나 이러한 例는 매우 드물고, 대개 여기 關與하게 되는 것은 소리의 高低이다.

4) 語彙的 對立으로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音韻的 對立은 統辭的 對立과 語彙的 對立으로 나뉘게 되는데, 語彙的 對立에 利用되는 韻律的 資質은 各 言語에 따라 그 모습이 多岐的이기 때문에, 韻律的 資質 中 語彙的 對立에 利用되는 것이 가장 重要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1) 소리의 길이(length, duration)

소리의 길이의, 單語의 뜻을 分化함에 利用되는 辨別的 機能을 論議함에 앞서, 우리는 먼저 긴 소리(長音)와, 그와 區別하기 힘드는 「重複音」(gemination)과의 다름을 說明해 두어야 하겠다.

子音이 普通의 경우보다 길게 發音되는 일이 있다. 國語의 [toːlːo], [hïlːə], 英語의 ['bukːeis], ['penːaif], 佛語의 [dϕzjɛmːɑ̃] deuxièmement, [ɔnɛtːɛ]

(3) D. Jones: The Phoneme, its Nature and Use. p. 113.

honnêteté. 그러나 이 소리들은 單純한 긴 소리가 아니다. 이 긴 소리의 中間에는 形態素(morpheme)의 경계가 있고 音節의 경계가 있다. 音聲學的으로 말하면, 이 子音들의 긴 持續은 單調한 調音의 持續이 아니라, 그 사이에는 喉頭 緊張의 變化가 있어서, 그 全長을 通해 보면, 喉頭의 緊張(tension)은 漸強해 가다가 弱해지고, 다시 強해지는 것이다. 卽 앞 部分은 漸弱音이고 뒷 部分은 漸強音으로서,(4) 이것은 두 音素의 連結이다. 이러한 같은 두 子音 音素가 漸弱 漸強으로 連結된 것을 「重複 子音」 (f. consonnes géminées ou doubles)이라 한다.

이와는 달리, 그 子音의 全長을 通해서 喉頭 緊張의 下落點이 없는 소리, 喉頭 緊張이 그 中間에서 一旦 弱化되는 일이 없는 긴 子音이 있다. 佛語의 'imb̄écile!', 'éḡoïste'의 b, g가 그것인데, 이 소리의 喉頭 曲線은, 그림과 같이 나타난다. 이것은 처음에서 끝까지 漸強의 連續인데, 다만 그 漸強의 過程이 오래 계속될 뿐이다. 국어의 強調한 發音 「절대로」의 /ㄸ/ 音도 이러한 方法으로 發音된다. 이것이 「長子音」(consonnes longues)이다.(5)

長子音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개 感情的 價値를 가지는 것으로서, 이에 관한 문제는 phonostylistique에서 取扱될 것이다. 子音이 길게 發音되는 것의 大部分은 대개 重複 子音인데, 이것은 單純한 子音의 反覆(連結)으로 지나지 않으므로, 이것 亦是 여기에서 取扱될 문제가 아니다. (韻律的 資質이 아니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려는 소리의 길이는, 母音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다.

母音도, 子音의 경우와 같이, 「重複 母音」과 「長母音」이 區別된다. 重複 母音은 單純한 긴 소리가 아니라, 그 사이에 tension의 下落點을 두어(卽 音節의 경계를 두어서) 二音節로 分離하여 發音되는 同一한 두 母音의 連結이다.

---

(4) 「I, 3, 3), (1) 音節」에 가보라. (p. 102)
(5) Grammont: Traité de Phonétique. p. 54.

英 : emptying['emptiiŋ], babyish['beibiiʃ]

佛 : réélire[reeliːr], coopérer[kɔɔpere]

國語 : 투우사[tuusa], 보온[poon]

이러한 重複音과는 달리, 長母音은 같은 tension의 單純한 持續에 지나지 않는다. 이 두가지 소리는, 그것을 들어서는 좀처럼 分別하기 어려우나, 말하는 사람의 感覺으로는, 長音은 두 소리의 反復으로는 느껴지지 않는다.(6) 重複 母音은 單純한 두 母音의 連結이므로, 여기 關與되지 않고, 오직 長母音만이, 여기 論議의 對象이 되는 것이다.

표준 국어에서는 一音節 單語가 母音의 長短으로 말미암아 準同音語를 形成하는 일이 있다.

[mal]馬 : [maːl]語, [pal]足 : [paːl]簾

[nun]眼 : [nuːn]雪, [sol]松 : [soːl]刷子

[čul]綱 : [čuːl]鑢 [kul]蠣 : [kuːl]窟

여기에서는 母音의 길이가 語彙를 分化하는 語彙的 對立으로 利用되고 있다. 따라서 母音의 길이는 여기에서는 辨別的 資質(distinctive feature)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母音의 길이가 辨別的으로(語彙的 對立으로) 機能하는 言語를 「音長 言語」(chrone language)(7)라 한다.

所謂 長音이란 것은, 어떠한 短音보다도 긴 것은 아니다. 표준 英語에 있어서는, see, seed, seen, seat, seat(ing)의 母音은 길고, lid, sin, sit, sit(ting)의 母音은 짧다고 하나, 實驗 音聲學의 音長 測定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8)

長 母 音　　　　短 母 音

1. see[siː] 0.317 sec.

(6) Jones : Phoneme. p. 115. 참조.
(7) Jones : 같은 책. p. 121.
(8) 같은 책. p. 128.

2. seed[siːd] 0.252　lid[lid] 0.135 sec.

3. seen[siːn] 0.199　sin[sin] 0.077

4. seat[siːt] 0.124　sit[sit] 0.085

5. seat(ing)[siːt(iŋ)] 0.087　sit(ting)[sit(iŋ)] 0.052

이로써 보면, 「5」의 長母音은 「4」의 短母音과 거의 비슷하고, 「4」와 「5」의 長母音은 「2」의 短母音보다 오히려 짧다. 그러나 母音의 長短은 이러한 方法으로 對比해서는 안된다. 同一한(또는 비슷한) 환경에서는 長母音은 항상 短母音의 거의 두 倍의 길이를 가지고 있음에 着眼해야 한다. 卽 一定한 환경에서는 어떤 母音은 거의 두 倍의 길이를 가진 母音과 對立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同一한 환경에서 對立되는 모든 긴 소리를 우리는 長母音이라 하고, 모든 짧은 소리를 短母音이라 한다. 따라서 「1~5」의 長音은 그 길이가 各各 꽤 다르고, 「2~5」의 短音도 亦是 그 길이가 各各 相當히 差異를 가졌으나, 우리는 그 同一한 환경에서의 對立的 性格으로 보아서, 「1~5」의 長音을 同類로 보고, 「2~5」의 短音을 同類로 보게 된다. 이것은 音素가 그 환경에 따라 여러가지 變異音으로 實現되는 現象과 같기 때문에, 各 환경에서 具體的으로 나타나는 길이를 「크론」(chrone)이라 하고, 「1~5」의 다섯가지 긴 크론의 그룹을 긴 「크로님」(chroneme)이라 하고, 네가지 짧은 크론의 그룹을 짧은 「크로님」이라 하는 일이 있다.[9] 그리고 한 크로님의 여러 크론은 「變異 크론」(allochrone)이라 불리운다.[10] 「크론」, 「變異 크론」, 「크로님」의 關係는, 音聲(phone), 變異音(allophone), 音素(phoneme)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音長 言語에 있어서는 대개 두 크로님이 對立되어 辨別的으로 機能하는 것이 보통이나, 때로는 셋의 크로님이 對立되는 일도 드물게나마 있다.[11]

---

(9) Jones : 같은 책. p. 124 以下 참조.
그의 「크로님」은, 母音에만 적용되는 述語가 아니라, 子音에도 적용된다.

(10) Jones :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p. 233.

(11) Jones : Phoneme. p. 132. 참조.

(2) 소리의 높이(pitch)

單語의 뜻을 分化하는 辨別的 機能을 가진 소리의 높이, 이것이 여기에서 論議의 對象이 되는 現象인데, 이러한 辨別的 高低를 「聲調」라 하고, 聲調를 가진 言語를 「聲調 言語」(tone language)라 한다.

소리의 길이에 관해서 크론과 크로님이 區別됨과 같이, 소리의 높이에 관해서도 「톤」(tone)과 「토님」(toneme)이 區別된다.[12] 各 音節의 높이는, 그 월에 있어서의 位置에 따라 여러가지로 變異되나, 辨別的으로 對立되는 높이는 그 數가 一定하다. 辨別的으로 對立되는 소리의 높이가 토님(toneme)이요, 그 變異된 높이가 톤(tone)이다.

「토님」은, 한 토님 안의, 時間에 따르는 變動 與否에 따라 두가지로 나뉜다. 한 토님의 높이가 平坦한 것을 「水平 토님」(level toneme)이라 하고, 한 音節核에 놓여지는 한 토님이 高低의 變異를 입는──높아가는, 낮아지는, 높아가다가 낮아지는──것을 「屈曲 토님」(gliding toneme)이라 한다.

慶尙道 方言의 「말」은, 높게 發音하면 '馬', 가운데 높이로 發音하면 '斗', 낮게 내면 '語'의 뜻이 된다. 「발」은 낮음으로는 '簾', 가운데로는 '足'이 된다. 「사람」은 低中으로 「바람」은 中高로, 「하늘」은 高中으로 내어서 各 音節의 高低가 一定해 있다. 이 方言에서는 세 토님이 있는 셈인데, 各 토님은 平坦하여 變異되지 않는다. 이러한 聲調를 「水平 組織」(level-pitch register system)[13]이라 한다.

慶尙道 方言에도 高低의 屈曲이 全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잡다」(捕), 「낚다」(釣)의 被動形 「잽힌다」, 「낶인다」의 第二 音節은 高中의 下降調로 길게 發音된다. 이것은 屈曲의 톤이다. 그러나 이 方言에서는 母音의 길이는 辨別的 機能을 가지지 안했으며, 이러한 경우를 除外하면, 긴 母音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構造上의 特性은, 위의 屈曲調를 音韻學的으로 解

(12) 같은 책. p. 152 以下 참조.
(13) Kenneth L. Pike: Tone Languages. Ann Arbor, 1956³ pp. 5, 8.

釋하는 데 一種의 壓力[14]을 加하게 된다. 그리하여 [iː]는 重複 母音으로 分析되며, 下降調는 高中의 두 토님으로 해석된다. 卽 이 下降調는 水平 토님의 合成이다. 그러므로 [iː↓]는 音韻學的으로는 /i³i²/ (3은 高調 2는 中調)로 分析된다. 이와 같이 그 構造的인 壓力으로 屈曲調가 水平調의 複合으로 환원될 수 있을 때는, 비록 屈曲調가 나타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 言語의 聲調는 「水平 組織」이라 할 수 있다.

屈曲調를 水平調로 환원할 수 있는 條件은, 下降이나 上昇의 첫머리와 끄트머리가 水平調의 어느 하나와 一致해야 하며, 그리고 그 言語에 있어서는 水平調가 屈曲調보다 越等한 優勢를 차지하여, 構造的 壓力이 作用될 수 있을 程度라야 한다.

對立的인 높이의 水平(level)을 「高低 段階」(register)라 하는데, 한 言語에 利用되는 高低 段階의 數는 둘 乃至 넷이며, 이 以上의 段階를 가진 言語는 있는것 같지 않다.[15] 慶尙道 方言의 高低 段階는 셋이며,[16] 日本語는 둘이다.

屈曲調만이 나타나거나, 屈曲調가 優勢한 聲調를 「屈曲 組織」(gliding-pitch contour system)[17]이라 한다. 그러나 순수히 屈曲調(gliding toneme)만이 나타나는 言語는 드물고, 여기 水平調가 混在되는 것이 普通인데, 이 경우의 屈曲調는 水平調보다 優勢하고, 水平調로 환원되지도 않는 것이다.

中國 北京 官活의 四聲은,[18]



(14) 이것을 「構造的 壓力」 (structural pressure)이라 한다. <Pike: Phonemics. p. 250>

(15) Pike: Tone Languages. p. 5.

(16) 慶尙北道 方言은 둘의 高低 段階를 가진다.
文孝根: 大邱方言의 高低長短 (延世大學 文科大學 發行: 人文科學 第7集) 볼것

(17) Pike: 같은 책. pp. 5, 8.

(18) Yuen Ren Chao: Mandarin Primer, An Intensive Course in Spoken Chinese. Cambridge, 1961. p. 85에 依함.

와 같은 것으로서, 이 네가지 toneme은 辨別的으로 機能한다. 卽,

	1	2	3	4
/i/	一	胰	椅	意
/ma/	媽	痲	馬	罵

위와 같이 네가지 toneme에 依해서 分化되는 準同音語가 있다. 여기 屈曲調는 도저히 水平調로 환원될 性質이 못되며, 屈曲調는 水平調보다 優勢한 것이다. 이러한 言語는 「水平調를 가진 屈曲 組織 言語」(Contour-tone Language with register system)[19]라 할 수 있다.

屈曲調의 重要한 特質은, 그 絕對的인 높이가 아니고, 屈曲의 方向이다. 卽 中國語 聲調의 特徵은, 그 絕對的 높이나 相對的 높이라기보다도 그 下降上昇의 狀態에 있는 것이다.[20] 이에 比해서 水平 組織의 特色은 高低의 相對的 높이에 있다.

李朝 初期의 한국어는 聲調 言語이었다. 各 音節은 平, 上, 去의 三聲 中의 어느 한 토님을 가지는데, 平聲은 가장 낮은 소리, 去聲은 가장 높은 소리, 上聲은 낮은 데서 높아가는 소리였다. 그런데 上聲의 처음이 平聲과 같은 높이이고, 그 끄트머리가 去聲과 같은 높이였더라면, 上聲은 平去의 複合으로 환원될 수 있을 것이나, 上聲의 始終과 平去와의 높이의 一致 與否는 아직 完全히 證明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言語는 「屈曲調를 가진 水平 組織 言語」(Register-tone Language with contour overlap)[21]이라 할 수 있다.

水平 組織에 있어서는, 各 高低 段階는 相對的인 높이로 決定되기 때문에, 單語——特히 單音節 ——가 單獨으로 發音될 때는 그 高低 段階가 分明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慶尙道 方言의 「말」이 單獨으로 發音되면, 그것이 어느 段階인지 알아듣기 힘든다. 그러나 그 뒤나 앞에 一定한 段階

(19) Pike: Tone Languages. p. 12.
(20) 王力—金坂博・猪俣庄八 共譯: 支那言語學概論. p. 18.
(21) Pike: 앞든 책. p. 12.

로써 發音되는 말을 連結시켜 보면, 그 段階가 分明해진다. 卽「말-이, -을, -과」가 高中調로 發音되면 '馬', 中中이면 '斗', 低中이면 '語'의 뜻이 된다.

이와 같이 一定한 音調로 發音되어서, 그 앞뒤에 連結되는 다른 말의 段階를 確認하는 도움이 되는 말을「테두리」(substitution frame)라 하고, 한 테두리 안에서 그 toneme이 確認되는 한동아리의 말들은「代置 目錄」(substitution list), 이 目錄 內의 各語는「代置項」(substitution item)이라 불리운다.[22]

위에서 說明한 言語들은 各單語의 各音節이 모두 一定한 토님을 가지는 것인데, 어떤 言語에 있어서는 單語의 特別한 音節에만 聲調가 나타나는 것이 있다.[23] 노르웨이語는 stress를 가진 言語인데, stress 있는 音節은 上昇調나 下降調를 수반하여, 이 音調는 辨別的으로 機能한다. [bóner]peasants : [bòner]beans, [áksel]shoulder : [àksel]axle (´은 stress+rising tone, `은 stress+falling tone).

(3) 소리의 세기(強弱, stress)

소리의 세기는 振動體의 振幅의 大小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은 發音時에 全 音聲 器官의 힘을 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기는, 發音하는 사람의 立場으로 볼 것 같으면 分明히 意識되는 것이나, 듣는 사람으로 보면, 순수한 세기만으로는 그리 두드러지게 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리의 強弱을 辨別的 資質로서 利用하는 言語에 있어서는, 單純한 強弱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다른 音聲的 資質, 特히 高低가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高低를 수반한 強弱을 單純이「強弱」(stress)이라 부르게 된다.

---

(22) Pike: 같은 책. p. 50.

(23) Kenneth L. Pike은, 이러한 言語는 "nontonal Language"에 넣고서 "word-pitch system"이라 하고 있다. <Tone Languages. pp. 13-4>

強弱이 單語의 뜻을 分化하는 데 利用되는 言語를 「強弱 言語」(stress language)라 하고, 辨別的으로 作用하는 強弱을 'stroneme'이라 하는데,[24] 強弱은 그 自體가 두가지 種類로 나뉜다. 하나는 單語에 있어서의 그 位置가 辨別的으로 作用하는 것이요, 하나는 強弱 그 自體의 性格이 辨別的으로 機能하는 것인데, 後者는 그 例가 매우 드물다.

單語에 있어서의 強弱의 位置가 辨別的으로 機能하는 言語는, 英語, 獨語, 露語, 西班牙語 따위 그 例가 매우 많다.

英語 : /'inkriːs/increase(n.) : /in'kriːs/(v.)

/'impoːt/import(n.) : /im'poːt/(v.)

獨語 : /'viːderˌhoːlen/wiederholen(fetch back) : /ˌviːder'hoːlen/(repeat)

西班牙語 : /'aʎa/halla(he finds) : /a'ʎa/allá(there)

/'termino/(end) : /ter'mino/(I finish) : /termi'no/(he finished)

이 強勢는 대개 高低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표준 英語의 例로 보면, import는 보통[＼.] /'impoːt/, [˙＼] /im'poːt/와 같은 高低를 가지고 發音된다고 한다.[25]

以上은 強弱의 位置가 辨別的인 言語의 例들인데, 強勢의 漸強, 漸弱이 辨別的인 例로서 Jones는 Serbo-Croat 語를 들고 있는데,[26] 이러한 例는 매우 드물다.

(4) 音素와 韻素, 音素論과 韻素論

"사람은 먹어야 산다"란 말은 여러개의 音素의 連結로 形成된 것인데, 各 音素는 모두 辨別的 資質(distinctive feature)로 形成되었고, 이러한 音素에, (辨別的으로 機能하는) 韻律的 資質(prosodic feature)——「사람」과 「산다」의 第一 音節의 긴 chroneme——이 겹쳐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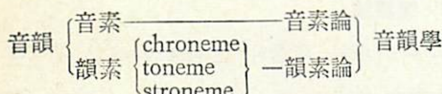
(24) D. Jones : The Phoneme. pp. 151-2.
(25) 같은 책. p. 146.
(26) 같은 책. pp. 150-151

이렇게 보면 辨別的 資質도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音素의 辨別的 資質이요 하나는 韻律的 資質이다. 이 두가지 辨別的 資質을 區別하기 위해서, 前者를 「固有한 辨別的 資質」(inherent distinctive feature), 後者를 「韻律的 辨別的 資質」(prosodic d. f.)이라 하는 일이 있다.[27]

韻律的 資質도, 그것이 辨別的으로 機能하는 限, 音素와 그 性格이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에서 說明한 chroneme, toneme, stroneme을 모두 phoneme으로 보는 일도 있어서, 音素를 「分節 音素」(segmental phoneme)라 하고, chroneme, toneme, stroneme을 아울러서 「겹친 音素」(suprasegmental phoneme) 또는 「韻律 音素」(prosodic phoneme)라 하는 일이 있다.

그러나 이 두가지 資質은 相當히 다른 點이 있기 때문에, 音素란 말은 固有한 辨別的 資質에만 적용하고, 韻律的 資質에 관해서는 音素란 用語를 쓰지 않는 것이 普通이다. 그리하여 韻律的 辨別的 資質에 對해서는 세가지를 뭉뚱그려 「韻素」(prosodeme, 佛語 prosodème)라 부르고, 音素와 韻素을 아울러 부를 때는 「音韻」이란 말을 쓰는 것이 便利하다.

따라서 音韻學도, 音素를 對象으로 하는 部門과, 韻素를 對象으로 하는 部門으로 나뉘게 되는데 前者를 「音素論」(佛, phonématique. 英, phonematics)이라 하고, 後者는 「韻素論」(佛, prosodie. 英, prosody)이라 하는데,[28] 音素論과 韻素論은 「音韻學」(佛, phonologie. 英, phonology)을 形成한다.



(27) R. Jakobson and M. Halle: Fundamentals of Language. s'-Gravenhage, 1956. 참조.

(28) A. Martinet: Économie des Changements Phonétiques. p. 153. 참조.

5. 音韻學과 音聲學

한 말로 말한다면, 音聲을 硏究 對象으로 하는 것이 「音聲學」이요, 音韻을 硏究 對象으로 하는 것이 「音韻學」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여기에 音聲學과 音韻學의 差異點이 생겨나게 된다.

말소리의 生理的 硏究는 이미 古代 印度에서 시작되었다. 인도의 音聲學은 19세기에 구라파에 수입되고 1856年에 간행된, 獨逸의 生理學者 E.W. Brücke(1819—1892)의 "Grundzüge der Physiologie und Systematik der Sprachlaute"에서부터 近代 音聲學으로 成長되기 始作하였다. G.E. Sievers(1850—1932)의 "Grundzüge der Phonetik"은 生理學的 音聲 硏究의 集大成한 것이며, L'abbé Rousselot의 "Principes de phonétique expérimentale"(1897~1924)은 實驗 音聲學의 基礎를 세웠다. 그 뒤 H. Sweet, P. Passy, O. Jespersen, D. Jones와 같은 卓越한 音聲學者가 輩出되기에 이르렀다.

音韻學이 音聲學과 區別된 獨自的인 學科로서 出發한 것은, 極히 最近의 일이다. 그것은 1920年代에 Prague 學派를 中心으로 하여 일어났는데, Trubetzkoy의 "Grundzüge der Phonologie" (Prague, 1939)는 그 集大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美國의 記述 言語學的 Phonemics도 눈부신 發展을 하고 있다.

音聲學이나 音韻學이나 다 같이 말의 소리를 硏究 對象으로 하는 學問이다. 그러나 다 같이 말의 소리를 硏究한다 하더라도 그 보는 角度가 다르기 때문에, 그 硏究 方法도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音聲은 生理的으로 產出되고, 物理的으로 傳播되고, 다시 生理的으로 청

취되는 實質的인 作用이다. 그러므로 그 本質을 파악하기 위해서, 音聲學은 세가지 方面으로 音聲을 관찰하게 된다. 產出의 面과, 傳播의 面과, 청취의 面이 그것이다. 音聲學은 이러한 세가지 方面으로 音聲을 관찰하여, 音聲의 모든 資質을 남김 없이 파악하기를 힘쓰게 된다.

音聲의 모든 資質의 파악을 위해서는, 우리의 音聲 器官의 훈련과 관찰, 청취의 훈련 따위만으로는 充分히 그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다. 우리는 아무리 努力하더라도 自己 自身이나 남의 音聲 器官의 움직임을 完全히 남김없이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다. 母音을 낼 때의 혀의 모양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거의 不可能한 일이며, 목청의 움직임 같은 것도 거의 잘 알 수 없을 것이다. 귀를 아무리 훈련하더라도 音聲의 物質的인 모든 資質을 죄다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며, 더구나 傳播 作用에 이르러서는 그 本質을 파악하기란 전혀 不可能한 것이다.

그러므로 音聲學은 두가지 方法을 쓰게 된다. 하나는 우리의 音聲 器官의 훈련과 관찰, 그리고 청취의 훈련을 통해서 音聲의 諸 資質을 究明하려는 方法인데, 이것을 「主觀的 方法」(subjective method)이라 한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러한 方法으로 到達할 수 있는 관찰 범위는 限界가 있다. 그러므로 音聲學에서는, 人工口蓋(artificial palate), 喉頭鏡(laryngoscope), 旋回鏡(stroboscope), 렌뜨겐, 카이모그래프(kymograph), 오실로그래프(oscillograph), 音響 스펙트로그래프(sound spectrograph) 따위 器具의 도움을 얻어 音聲의 모든 資質을 파악하려고 努力하는 것이다. 이러한 音聲學의 方法을 「客觀的 方法」(objective method)이라 하고, 이러한 方法을 취하는 音聲學을 「實驗 音聲學」(experimental phonetics)이라 한다.

音聲學에서는 音聲의 모든 資質이 同等하게 重要視되며, 그 資質들 사이의 어떠한 差別도 存在할 수 없다.

그러나 音韻學에 있어서는, 音聲의 모든 資質이 죄다 同等한 價値를 가지고 登場되는 것은 아니다. 音韻學의 對象은 音韻이며, 音韻은 辨別的 資質의

묶음으로 보아지기 때문이다.[1]

그러므로 音韻學에 있어서는 音聲의 諸 資質中 辨別的 資質——固有한 資質이거나, 韻律的 資質이거나를 莫論하고——에 가장 重點을 두고 관찰하게 된다.

그러면 音韻學에서는 辨別的 資質만이 重要하고, 다른 資質은 一切 考慮되지 않아도 좋으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다. 앞에서 말한 바, 語感의 纖細한 表現을 위하여 利用되는 소리의 길이라든지 強勢와 같은 것은 知的 意義의 分化와는 相關 없는 資質이지마는, 말할이(speaker)의 어떠한 精神 狀態를 들을이(hearer)에게 傳達해 준다는 의미에서 보면, 音韻學에서 全혀 無視되어도 좋을 性質은 아니다. 事實上 이러한 문제는 넓은 의미로서의 音韻學에서는 正常的으로 考察되어야 할 資質이며,[2] 이러한 感情的인 表現에 쓰이는 音聲的 資質은 「表現的 資質」(expressive feature)이라 불리운다.[3]

소리의 特質中에는, 말의 뜻을 分化한다거나, 感情的 表現을 爲한다거나 하는 구실을 하지 않으면서, 말의 連鎖上에서 文法的 單位의 경계를 表示하는 資質이 있다. 이를테면 強勢가 모든 單語의 第一 音節에 놓이는 言語에 있어서는, 強勢는 辨別的으로 機能하지는 못하나, 單語의 경계를 表示하는 役割은 하게 된다. 이러한, 文法的 單位의 경계를 表示해 주는 音聲的 資質을 「形狀的 資質」(configurational feature)[4] 이라 한다.

---

(1) 「I, 2, 2) 音素의 定義」 보라. (特히 p. 66 以下)
(2) 「I, 4, 2) 纖細한 語感의 表現으로서」 (p. 111 以下) 참조.
(3) R. Jakobson, C.G.M. Fant, M. Halle: Preliminaries to Speech Analysis. p. 15.
R. Jakobson, M. Halle: Fundamentals of Language. p. 9. 에서는 expressive feature는 "emphatics"라기로 하였다.
(4) Jakobson 等: Preliminaries. p. 14.
Fundamentals. p. 9. 에서는 "Configurative feature"라기도 했다.

위에서 說明한 바와 같은 구실을 全혀 가지지 않은 資質이 所謂「剩餘的 資質」(redundant feature)인데, 剩餘的 資質도 때로는 音韻을 認知하는 데 關與하는 일이 있다.

D. Jones에 依하면,[5] 英語의 pence와 pens는, 語末 有聲音의 無聲化로 말미암아 語末의 /z/가 [z̥]로 實現되기 때문에, 이 두 말의 語末은 거의 分別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이 /s/ 音素의 實現이고, 한편은 /z/ 音素의 實現임을 認知하게 되는 것은, 그 앞의 /n/의 剩餘的 資質인, 짧은 [n̆] 와 긴 [nː]의 差異에 因함이라 한다. 卽 pence는 [pen̆s]로 實現되고, pens는 [penːz̥]로 實現되는데, [s]와 [z̥]의 두 音素로서의 分別은, 그 앞의 /n/의 變異音에 依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것으로 볼 때는, 한 音素의 剩餘的 資質이 그와 隣接해 있는 音素의 認知를 돕는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變異音의 이웃돕기」라 한다.[6]

이와 같이 音韻學에서도, 辨別的 資質 以外에 여러가지 資質이 考慮되는 것이다. 그러나, 音聲學에서와는 달리, 이러한 資質은 類別되고, 階層的으로 把握되어야 한다. 辨別的 資質이 第一次的인 重要性을 띠고 登場되며, 다음으로는 形狀的 資質이 特別한 言語에서만 考慮되며(그러한 資質을 가지지 못한 言語도 많다), 表現的 資質은 視野를 넓혔을 때에, 音韻學에 들어오게 되며, 剩餘的 資質은 特別한 경우에만 考慮된다.

音聲的 資質에 대한 이러한 類別과 階層的 파악은 音聲學에서는 必要하지 않은 것이다.

音聲學에서는 音聲의 物質的 資質의 把握만이 重要한 課業이며, 뜻을 表現하는 일은 그리 잘 考慮되지 않는다. 따라서 音聲學에서는 말의 뜻은 고

---

(5) The Phoneme. p. 53.

(6) Trubetzkoy는 이러한 구실을 "associative auxiliaire" (auxiliär-soziative)라 한다. <Principes. p. 53>

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音韻은 뜻을 나타내는 機能으로 把握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의 뜻과의 接觸이 없을 수 없게 된다. 勿論 뜻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말의 뜻 그 自體에 對한 組織的인 硏究는 必要하지 않으나, 적어도 국어에 있어서는 [kaːmgi]와 [gaːmgi]는 다른 뜻을 가진 말로는 들리지 않는다든지, [pul]과 [p'ul]은 分明히 다른 뜻을 가진 말이라든지 하는 정도의 뜻에 대한 고려는 不可缺한 것이다.

音聲學에서는 個個의 音聲의 總體的 資質의 把握이 中心點이요, 音聲의 相互 關係는 그리 문제시되지 않는다. 勿論 音聲이 連結될 때 어떠한 現象이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는 音聲學에서도 重要한 일이기는 하나, 音聲 自體의 相互 關聯性에는 눈을 돌리지 않는다.

이에 對해서 音韻學에 있어서는, 音素 自體의 서로 關聯되는 모습, 卽 音素의 組織이 그 中心 課題가 되는 것이다. 各 音素의 價値는, 모든 言語 要素의 價値와 같이, 다른 音素와의 關聯性에 依해서 규정되는 것이며, 音素의 組織은 하나의 構造(structure)이기 때문이다.(7)

音聲學과 音韻學은, 그 對象이나 그 硏究法이 이처럼 다르기 때문에, Trubetzkoy는 音聲學은 言語學의 테두리 밖에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한 일도 있다.(8)

그러나 音聲學과 音韻學은, 다 같이, 사람의 말의 소리를 硏究하는 것인 以上, 言語學의 한 部門으로서 獨自的인 位置를 차지할 수 있을뿐 아니라, 다 같이 말의 소리를 硏究한다는 데 있어서, 서로 緊密히 連繫되는 性格을 지니는 것이다.

---

(7)「I, 3. 音素 體系」참조. (p. 75)

(8)N. Trubetzkoy: Anleitung zu phonologischen Beschreibungen (Édition du Cercle Linguistique de Prague, 1935). 泉井久之助 日譯 "「音韻」は如何に記述すべきか"에 依함.

音聲的 諸 資質의 分類나 階層的 把握에는 音聲學的 硏究가 必須 不可缺이며, 音素의 對立의 把握도 音聲學的 硏究를 기다리지 않고서는 안되는 일이다.

音聲學이 그 自體로서도 獨自的인 學問이 됨은 勿論이지만, 音韻學의 立場으로 본다면, 그 豫備的 學科로 볼 수 있는 것이다. 音聲學은 自然 科學的 性格이 濃厚하지만, 이것이 言語學의 테두리 안에 들게 되는 것은, 音聲學의 이러한 性格에 依함이다.

Ⅱ. 現代 國語의 音韻學

앞 章에서 우리는 音韻學의 一般的 理論의 大綱을 說明하였는데, 그러한 理論의 土臺 위에서, 現代 國語의 音韻學을 記述하기로 한다. 여기 現代 國語란, 우리들이 표준어로 잡고 있는 現代 서울의 말씨를 말함이다. 따라서 本章은, 現代 서울말의 音韻 體系에 대한 共時的 記述이다.

1. 音素 分析

먼저, 現代 서울말의 音素는 몇이나 되는 것일까?

音素를 分析하기 위해서는 국어에 쓰이는 모든 音聲을 認知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미 앞에서(1) 현대 국어의 子音과 母音에 대해서 說明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 다시 한번, 현대 국어에 쓰이는 모든 音聲을 죄다 망라해 보기로 하자.

<子 音>

p	p'	t	t'	ts	tʃ		k	k'	q	
b		d		dz	dʒ		g		G	
p’		t’		ts’	tʃ’		k’		q’	ʔ
p^h		t^h		ts^h	$tʃ^h$		k^h		q^h	
ɸ		s		ʃ	ɕ	ç				h
β		z			ʑ		ɣ			ɦ
		s’			ɕ’					

(1) 「Ⅰ, 1. 말소리의 내는 법과 적는 법」(p. 13 以下) 참조.

m	n	ɲ	ŋ	N
	l	ʎ		
	r			
	ɾ			

<母 音> (單母音)

i(이)	y(위)	ï(으)	u(우)
e(에)	ø(외)	ə(어)	o(오)
ɛ(애)		a(아)	ʌ(어)

<重母音>

重母音은 「半母音+單母音」으로 된 것이 거의 大部分이나, 때로는 「單母音+半母音」으로 된 것도 나타나는 일이 있다.

[半母音+單母音]

이것은, 母音點(成節音)이 뒤에 있기 때문에, 「上昇的 二重母音」(rising diphthong)이라 한다.

[j] :			ju(유)
	je(예)	jə(여)	jo(요)
	jɛ(얘)	ja(야)	jʌ(여)
[w] :	wi(위)		
	we(웨)	wə(워)	
	wɛ(왜)	wa(와)	wʌ(워)
[ɥ] :	ɥi(위)		
[ï] :	ïi(의)		

[單母音+半母音]

이러한 것은, 母音點이 앞에 있으므로, 「下降的 二重母音」(falling diphthong)이라 하는데 이에는 不安定한 二重母音 [ïj] 하나뿐이다.

이러한 소리들이 어떻게 音素로 뭉치게 되느냐? 이 作業이 「音素 分析」이다.

우리는 音素 分析의 몇가지 原則을 앞세우면서, 위의 들어 보인 音聲들을 하나 하나 處理해 나갈 것이다.

1) 뜻을 分化하지 않는 소리의 交替

어떠한 둘의 音聲은, 同一한 환경에서 交替될 수 있는 일도 있고, 全혀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 이를테면 국어의 [p]와 [p']는 同一한 환경 [-ul]에서 交替될 수 있어서 [pul]을 형성할 수도 있고, [p'ul]을 形成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同一한 환경에서 交替될 수 있는 소리를 「交替 可能한 音聲」(sons permutables)이라 한다.

이에 對해서, 국어의 [p]와 [b]는 同一한 환경에서 交替될 수 없다. 그것은, [b]는 有聲音 사이에서만 나타나는데, 이러한 位置에서는 [p]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同一한 환경에서 交替될 수 없는 音聲을 「交替 不可能한 音聲」(sons impermutables)이라 한다.

交替 可能한 音聲은, 그 交替로 말미암아 말의 뜻을 分化하는 것이 普通이다. 국어의 [p]와 [p']는 [-ul] 환경에서 交替되어서 [pul](火)과 [p'ul](角)의, 뜻이 다른 두 單語를 分化하고 있다. 이러할 때에는 이 두 소리는 音素的 對立이 되는 것이다.[2]

그러나 두 音聲이 同一한 환경에서 交替되면서, 全혀 말의 뜻을 分化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국어의 [kalbi]와 [kalβi]는, 아무리 發音해 보아야 다른 뜻을 가진 두 單語인것 같지는 않다. 이 두 소리 [b]와 [β]는 音聲으로 다른 것이며, 이것이 [kal-i]와 같은 환경에서 交替될 수 있으나, 그 交替는 全혀 말의 뜻을 分化하는 데는 利用되지 못한다. 뿐아니라 [b]와 [β]는 다른 어떠한 환경에서도 말의 뜻을 分化하기 爲하여 交替되는 일은 없다.

이러한 現象을 「隨意(任意) 變異」(free variation or fluctuation)라 한다. 任

---

(2) 音素的 對立에 대해서는, pp.61—2 참조.

意로 變異되는 두 音聲은 말의 뜻을 分化하는 機能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設或 같은 환경에서 交替되더라도 音素的 對立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이 두 音聲은 한 音素로 뭉치게 되는데, 이러한 變異音을 「任意 變異音」(佛語, variantes facultatives, ou variantes libres)(3)이라 한다. 뜻을 分化하지 못하고, 그 選擇은 말할이의 自由에 맡겨져 있다는 뜻이다. 任意 變異音은, 그 말을 母國語로 하는 사람에게는 잘 識別되지 않음이 普通이다.

이제 국어의 여러 音聲들 中, 任意로 變異될 수 있는 것들을 들어 보면:

[b]와 [β]:

[β]는 대체로 母音과 母音 사이에서나, [l]와 母音 사이에서 나타나게 된다.

[puβu] 夫婦, [uːβi] 雨備, [koβi] 고비, [kalβi] 갈비,
[maːlβon] 말본, [uːlβo] 울보

그러나 이 소리는 매우 不安定하며, 이것은 곧 [b]로 代置되어서 發音될 수도 있는데, 어떠한 位置에서의 交替도 말의 뜻을 分化하는 일은 없다. 卽

[pubu], [uːbi], [kobi], [kalbi], [maːlbon], [uːlbo]

가 위에서 表示한 뜻과 다른 뜻을 가진 말로 分化되는 일은 없다. 卽 [β]가 쓰일 수 있는 자리는 極히 局限되어 있는데, 이 모든 자리에서 [b]와, 뜻의 分化 없이, 交替될 수 있다.

[b]와 [β]는 任意 變異音이며, 한 音素로 뭉쳐진다.

[g]와 [γ]:

[γ]는 母音과 母音 사이나, 또는 [l]와 母音 사이, 바꾸어 말하면 間隙 3度 以上의 소리 사이에서만 나타난다.

[mʌγʌ] 먹어, [paγadʒi] 바가지, [maγɛ] 마개, [uːlγo] 울고,
[talγudʒi] 달구지

그러나 이 소리는, 그 모든 位置에 있어서, [g]와 交替될 수 있고, 이 소리의 交替는 말의 뜻을 分化하는 일이 없다. 卽

(3) D. Jones는 이러한 경우에, "variphone"이란 말을 쓰기도 한다. <The Phoneme, its Nature and Use. p. 205. 以下)

[mʌgʌ], [pagadʒi], [magɛ], [uːlgo], [talgudʒi]

는 [ɣ]로써 發音했을 때와 뜻의 다름이 생겨나는 일은 全혀 없다.

따라서 이 두 音聲은 任意 變異音이며 한 音素로 뭉쳐진다.

[g]와 [G]. [k]와 [q], [k']와 [q'], [kʰ]와 [qʰ], [ŋ]와 [N]:

[G], [q], [N]는 極히 局限된 位置, 그리고 좀 과장된 發音에서만 나타난다. 卽 [wa]와 接觸되어 있는 「ㄱ」, [ㆁ] 소리는, 發音을 조금만 과장하게 되면, [q], [G], [N]로 發音된다. [qwaNGwaN] 관광

그러나 이 소리들은 [k], [g], [ŋ]와 언제든지, 말의 뜻을 分化함이 없이, 交替될 수 있다. [kwaŋgwaŋ」 또는 [kwangwaŋ].

따라서, [k]와 [q], [g]와 [G], [ŋ]와 [N]는 各各 한 音素의 任意 變異音이 된다. [k']와 [q'], [kʰ]와 [qʰ]의 관계도 한가지다.

[tʃ]와 [ts], [dʒ]와 [dz] [tʃ']와 [ts'], [tʃʰ]와 [tsʰ]:

「ㅈ, ㅉ, ㅊ」은 센-입천장-소리로 내는 것이 普通이다.

[tʃiːndʒi] 진지, [padʒi] 바지 [tʃadʒu] 자주, [tʃ'im] 찜, [tʃ'ak'] 짝, [tʃ'ok'] 쪽, [tʃʰa] 차, [tʃʰoŋ] 총 [tʃʰuntʃʰu] 춘추

그런데, 이 센-입천장-소리 들은, 혀끝의 破擦音으로 바뀌는 일도 있는데 勿論 뜻의 分化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 差異를 가지는듯 하다.(4)

[tsiːndzi], [padzi], [tsadzu], [ts'im], [ts'ak'], [ts'ok'], [tsʰa], [tsʰoŋ], [tsʰuntsʰu]

들은 입천장-소리로 내는 경우의 뜻과 다름이 생겨나지 않는다. 따라서 [tʃ]와 [ts], [dʒ]와 [dz], [tʃ']와 [ts'], [tʃʰ]와 [tsʰ]는 各各 한 音素의 任意 變異音이다.

[dʒ](5)와 [ʑ], [dz]와 [z]:

[ʑ]는 母音 사이에서만 나타난다.

---

(4) 대체로 平安道 出身 사람들의 發音은 혀끝-소리로 기울어지는듯이 보이며, 男子의 發音에서보다 女子의 發音에서 혀끝-소리로 내는 傾向이 더 뚜렷한듯 하다.

(5) [ʑ]와 같은 자리에서 나는 破擦音은, 엄격하게 따지면, [dʑ]로 표기되어야 할 것이나, 여기에서는 [dʒ]를 그대로 두었다

[kaʑa] 가자, [kaʑi] 가지, [pagaʑi] 바가지, [tʃaʑa] 자자

그러나 [ʑ]는 언제든지 [dʒ]와 交替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서나 뜻의 分化를 일으키지 않는다. 따라서 [dʒ]와 [ʑ]는 한 音素의 任意 變異音이다.

그리고 [tʃ]를 [ts]로 내는 사람에 있어서는 [ʑ]를 [z]로 내게 되고, [z]는 [dz]와 任意로 變異된다.

[kadza]–[kaza], [kadzi]–[kazi], [pagadzi]–[pagazi]

그러므로, [dʒ]–[dz]–[ʑ]–[z]는 모두 한 音素의 任意 變異音이다.

[h]와 [ç], [ɸ], [ɦ] :

[ç]는 /i, j/ 앞에서 나타난다.

[çim] 힘, [çjuga] 휴가, [çjo:do] 효도, [çjaŋga] 향가, [çjəltʰoŋ] 혈통

그러나 이 소리는 [h]로 交替될 수 있고, 뜻의 分化도 일으키지 않는다.

[him], [hjuga], [hjo:do], [hjaŋga], [hjəltʰoŋ]

따위 發音은, [ç]를 가진 發音과 任意로 變異될 수 있다.

[ɸ]는 [u], [ø]와 같은 圓脣 母音이나, 半母音 [w], [ɥ] 앞에 나타난다.

[ɸøïj] 회의, [iɸue] 이후에, [ɸɥipʰaram] 휘파람

그러나 이 發音들도 [h]와 任意로 變異될 수 있다.

[høïj], [ihue], [hɥipʰaram]

따위는 [ɸ]를 가진 말과 뜻의 分化를 일으키는 일은 全혀 없다.

[ɦ]는 有聲音 사이에서 나타나는 일이 있다.

[jəŋɦjaŋ] 영향, [paŋɦja:ŋ] 방향

그러나 이것도 完全한 無聲音인 [h]와 交替될 수 있고, 뜻의 分化는 일어나지 않는다.

[jəŋhjaŋ] 또는 [jəŋçjaŋ], [paŋhjaŋ] 또는 [paŋçjaŋ]

따라서 [h]와 [ɸ], [h]와 [ç], [h]와 [ɦ]는 任意 變異音들이다.

[r]와 [ɾ]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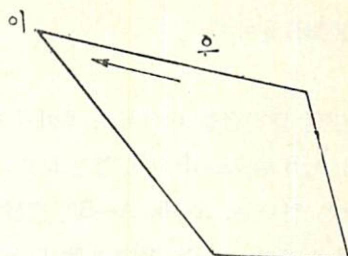
[ɾ]는 母音 사이에서 單獨으로만 나타난다.

[uɾi] 우리, [taɾi] 다리, [mʌɾi] 머리, [kaɾu] 가루

그런데 特別히 強勢를 둘 때, 또는 노래 부를 때에 있어서는 [ɾ]는 [r]로 發音되는 일이 있어서, 이 두 소리는 任意로 變異된다.

[uri], [tari], [mʌri], [karu]

[ïj]와 [ïi]:



「의」의 發音은 매우 不安定하다. 「의정부」, 「의사」의 첫 音節은 [으]에 母音點을 두어서 [ïj]로 發音되기도 하고, 또는 [이]에 母音點을 두어 [ïi]로 發音되기도 하는데, 어느 편이든, 그 過渡(glide)의 距離가 매우 짧기 때문에 過渡가 잘 두드러지지 않아서, [ïj]는 [ï]로, [ïi]는 [i]로 내어버리는 傾向이 있다.

重母音으로 내는 경우에 있어서의 [ïj]와 [ïi]는 任意로 變異될 수 있다. (音素的 對立을 이루지 못한다.)

[wi]와 [ɥi]:

「위」를 重母音으로 낼 때는 [ɥi]로 내는 것이 普通이다. 그런데, 좀 과장해서 發音하면 [wi]로 發音될 수도 있다. [ɥihɛsə] 위해서—[wihɛsə]
그러나 [ɥi]와 [wi]의 交替는 任意的이어서 音素的으로 對立되는 일은 없다.

以上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b] 와 [β]
[g] 와 [ɣ], [G]
[k] 와 [q] ([k']~[q'], [kʰ]~[qʰ])
[ŋ] 와 [N]
[tʃ] 와 [ts]
[tʃ'] 와 [ts']
[tʃʰ] 와 [tsʰ]
[dʒ] 와 [dz], [ʑ], [z]
[h] 와 [ç], [ɸ], [ɦ]
[ɾ] 와 [r]

[ïj] 와 [ïi]

[ɥi] 와 [wi]

는 모두 같은 자리에서 任意로 交替될 수 있으면서 뜻을 分化하는 일이 없는 任意 變異音들이다.

이 任意 變異音들 中에서도 두가지 種類가 類別될 수 있는데, 하나는, 둘의 변이음 A,B 中, A→B의 交替는 可能하나, A←B의 交替는 不可能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A→B, A←B의 交替가 다 可能한 경우이다. 卽 [b]와 [β]의 경우로 보면, [β]는 間隙 3度 以上의 소리 사이에서만 나타나는데, 이 경우의 [β]는 죄다 [b]로 交替될 수 있다. 그러나 [b]가 나타날 수 있으면서 [β]는 나타날 수 없는 자리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b]는 [β]로 交替될 수 없다.

[β]→[b]의 交替는 항상 可能하나,

[koːmbo] 곰보, [nambi] 남비

에 있어서의 [b]는 [β]로 交替될 수 없다.

이에 比해서, [tʃ]－[ts], [dʒ]－[dz] 따위 交替는 兩方向이 다 可能하다. 모든 [tʃ]는 [ts]로 交替될 수 있고, 그 反對로 모든 [ts]는 [tʃ]로 交替될 수 있다. [dʒ]와 [dz]도 한가지다.

이렇게 보면, 위의 一覽表는 다음과 같이 表示하는 것이 더 正確하다.

[b]←[β] : [kalβi]→[kalbi]는 可能하나,
[koːmbo]→*[koːmβo]는 不可能하다.

[g]←[γ] : [mʌγʌ]→[mʌgʌ]는 可能하나,
[kaːmgi]→*[kaːmγi]는 不可能하다.

[g]←[G], [k]←[q], [ŋ]←[N] : [qwaNGwaN]→[kwaŋgwaŋ]은 可能하나,
[kaːŋgi](감기)→* [qaːNGi]의 交替는 不可能하다.

[tʃ]⇆[ts] 어떠한 [tʃ]도 모두 [ts]로 交替될 수 있고, 그 反對로, 어떠한

[ts]도 [tʃ]로 交替될 수 있다.

[tʃ']⇆[ts'] : 위와 같음.

[tʃʰ]⇆[tsʰ] : 위와 같음.

[dʒ]⇆[dz] : 위와 같음.

[dʒ]←[ʑ] : [kaʑa]→[kadʒa]는 可能하나,
[kandʒaŋ]→*[kanʑaŋ]은 不可能.

[dz]←[z] : [kaza]→[kadza]는 可能하나,
[kandzaŋ]→*[kanzaŋ]은 不可能.

[h]←[ç] : [çim]→[him]은 可能하나, [haɾu]→*[çaɾu]는 不可能.

[h]←[ɸ] : [ɸøïj]→[høïj]는 可能하나, [hollo]→*[ɸollo]는 不可能.

[h]←[ɦ] : [jəŋɦjaŋ]→[jəŋhjaŋ]은 可能하나,
[həga](허 가)→*[ɦəga]는 不可能하다.

[ɾ]⇆[r] : 特別한 말씨에서는 모든 [ɾ]는 죄다 [r]로 交替될 수 있으며,
또 그 反對로 모든 [r]은 죄다 [ɾ]로 환원 可能하다.

[ïj]⇆[ɪ̯i] : [ïj]로 發音되는 말에 있어서는, 그것은 [ɪ̯i]로 바꿀 수 있고,
그 反對도 可能하다.

[ɥi]⇆[wi] : 위와 같음.

모든 경우에 두 소리가 交替될 수 있을 때는, 그 두가지 소리를 一一히 表記할 必要는 없다. 그것은 그 中의 하나만 表記해 놓으면 自動的으로 다른 한 소리도 여기 包含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뒤로는 이러한 경우에 한 소리만을 表記하도록 한다. 卽

[tʃ], [ts]⟶[tʃ]
[tʃ'], [ts']⟶[tʃ']
[tʃʰ], [tsʰ]⟶[tʃʰ]
[dʒ], [dz]⟶[dʒ]
[ɾ], [r]⟶[r]
[ïj], [ɪ̯i]⟶[ïj]

[ɥi], [wi]——→[ɥi]

表記法에 있어서의 選擇은, 두 發音中 더 普遍的인 것을 擇했는데, 다만 [r]는 [ɾ]가 더 正常的인 發音이나, 表記의 便宜上 [r]를 擇했다. 다른 경우에는 모두 表記法上 選擇된 편이 普遍的이다.

完全 交替가 不可能한 경우에 있어서도, 表記法의 便宜上 어느 한편을 省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만 交替가 可能한지 記憶해 두어야 한다 表記法으로는, A←B 만이 可能할 경우이면, A를 표기하는 記號로써 A, B를 包含시키는 것이 좋다. 萬一 B를 擇하면, B가 나지 않는 데까지 B로 써야 하는 不合理가 있기 때문이다.

[b], [β]——→[b]: 다만 間隙 3度 以上의 소리 사이에서는 [β]와 任意로 交替될 수 있다.

[g], [ɣ]——→[g]: 다만 間隙 3度 以上의 소리 사이에서는 [ɣ]와 任意로 交替될 수 있다.

[g], [G]——→[g]: 다만 [wa] 앞의 과장된 發音에 있어서는 [G]와 任意로 交替될 수 있다.

[k], [q]——→[k]: 위와 같음. ([k'], [kʰ]의 경우도 같음)

[ŋ], [N]——→[ŋ]: 위와 같음.

[dʒ], [ʑ]——→[dʒ]: 다만 母音 사이에서는 [ʑ]와 任意로 交替될 수 있다.

[dz], [z]——→[dz]: 위와 같음.

[h], [ç]——→[h]: 다만 [i,j] 앞에서는 [ç]와 任意로 交替될 수 있음.

[h], [ɸ]——→[h]: 다만 [ɸ,u,w,ɥ] 앞에서는 [ɸ]와 任意로 交替 可能.

[h], [ɦ]——→[h]: 다만 有聲音 사이에서는 [ɦ]와 任意로 交替 可能.

따라서 앞으로의 音聲 表記에 있어서의 다음 記號는, 그 任意로 變異될 수 있는 모든 소리를 包含하게 된다.

표 기	포 함 된 소 리
[tʃ]	[tʃ], [ts]
[tʃ']	[tʃ'], [ts']
[tʃh]	[tʃʰ], [tsh]

[dʒ]	[dʒ], [dz]. [ʑ], [z]
[r]	[r], [ɾ]
[ïj]	[ïj], [ï̯i]
[ɥi]	[ɥi], [wi]
[b]	[b], [β] (다만 包含되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記憶할것. 以下 모두 그러하며, 앞의 [ʑ], [z]가 [dʒ]에 포함되는 경우도 그러함.)
[g]	[g], [ɣ], [G]
[k]	[k], [q]
[ŋ]	[ŋ], [N]
[h]	[h], [ç], [ɸ], [ɦ]

이렇게 보면, 앞에서 提示한(6) 音聲表는 많이 簡素化된다. 다시 간추려 一覽表로 보이면 :

<子 音>

p	p'	t	t'	tʃ	k	k'	
b		d		dʒ	g		
p’		t’		tʃ’	k’		ʔ
p^h		t^h		$tʃ^h$	k^h		
		s	ʃ	ɕ			h
		s’		ɕ’			
m		n		ɲ	ŋ		
		l		ʎ			
		r					

<母 音>

(單母音은 그대로.)

<重母音>

[上昇的]

[j] :

(6) pp. 129~30 참조.

	je	jə	jo
	jɛ	ja	jʌ
[w]:	we	wə	
	wɛ	wa	wʌ
[ɥ]:	ɥi		
[下降的]	ïj		

2) 서로 비슷하면서 交替될 수 없는 소리

D. Jones의 音素 定義에 依하면,[7] 서로 비슷하면서 交替될 수 없는——그 환경(配置)이 排他的인——몇개의 音聲은 한 音素의 家族이 된다——한 音素로 뭉쳐진다——는 것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相補的(排他的) 配置」(complementary distribution)의 몇개의 비슷한 音聲은 한 音素의 變異音(allophone, 佛. variante)이 된다는 것이다. 이 變異音은, 앞의 任意 變異音과는 달리, 서로 「交替 不可能한 音聲」(sons impermutables)이며, 各 變異音의 나타나는 條件은 그 앞뒤의 소리들에 依해서 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結合 變異音」(variantes combinatoires)이라 한다. 앞뒤 소리들과의 結合的 條件에 依해 變異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서로 비슷하다는 말은, 그 뜻이 매우 모호한데, 우리들은 그 內容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무슨 事物이든지, 많은 가운데에서, 局限된 數量의 少數 事物에만 나타나는 共通된 特質이 다른 事物에는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들 少數 事物은 서로 緊密한 關聯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音聲에 있어서도 이와 한가지로서, 어떤 局限된 少數 音聲에 共通된 資質이, 같은 言語의 다른 大多數 音聲들에는 發見되지 않을 때는, 이 少數 音聲들은 特別히 緊密한 關係에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卽 이러한 音聲들은 一

(7) 「Ⅰ, 2, 2) 音素의 定義」 (p.56 以下) 참조.

種의 「獨占的(排他的) 關係」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音聲들은 하나의 音素로 뭉쳐질 수 있을 程度로 類似하다고 보아 틀림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몇개의 少數 音聲들이, 서로 排他的(相補的)으로 配置되어 있으면서, 그들 少數 音聲들에 共通된 音聲的 資質이, 그 言語의 다른 音聲들에는 發見되지 않을 때, 이 少數 音聲들은 한 音素의 結合 變異音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音聲들은, 그 配置가 排他的이기 때문에, 辨別的으로 機能할 수 없으며 ——準同音語를 形成할 수 없으며——또한 이러한 音聲들은 대개는, 그 言語를 母國語로 使用하면서 자란 사람들——이것을 그 言語의 「본토박이」라 부르기로 한다——에게는, 잘 識別되지 않음이 普通이다.[8]

앞에서 보인 국어의 音聲 一覽表에서 이러한 音聲들을 찾아 보면:

[p]와 [b][9]:

[b]는 有聲音 사이에서만 나타난다.

[koːmbo]곰보, [uːlbo]울보, [pubu]부부, [uːbi]우비, [nambi]남비

한편 [p]는 이러한 자리에서는 쓰이지 않고, 오직 말의 첫머리에 나타난다.

[pul]불, [pap']밥, [padʒi]바지, [pal]발 [pagadʒi]바가지

無聲 子音 다음에서, 音節의 初頭音으로 나타나는 일이 있으나, 이 경우에는 된소리가 되는 것이 一般的 傾向이다.

[kuk'p'ap']국밥, [ot'p'ap']옷밥, [k'ot'p'at']꽃밭, [mak'p'adʒi]막바지

이에 比해서 [b]는 이 자리에는 나타나는 일은 없다. 卽 이 두 音聲은 그 配置가 排他的이다.

한편 [p]와 [b]는, 국어에서는, 다 같이 軟音이면서 通口 漸強 兩唇音[10]

(8) 이 點, 任意 變異音의 경우도 한가지다.

(9) [b]는, [b]와 [β]를 포함하고 있다.

(10) [p]와 [b]의 共通 資質 中에, 「停止性」(破裂性)을 세지 않은 것은, [b]에 停止音 아닌 [β]가 包含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소리들은 音節 初頭音으로 나기 때문에, 모두 漸强音이며, 따라서 音節 末音으로만 나는 漸弱音인 [p'] (內破音)은 여기 排除된다.

인데, 이러한 資質을 同時에 가지고 있는 音聲은, 국어에서는, 이 두 音聲 以外에는 發見되지 않는다.

[ɸɸïj](회의), [iɸue](이후에)의 [ɸ]도 通口 兩唇音이기 때문에, [p]와 [b]의 관계가 獨占的이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ㅎ」이 이런 말에서 [ɸ]로 發音되는 것은, 이 소리를 明白하게 發音하기 爲해서이며, 따라서 이 경우의 [ɸ]소리는 强勢를 띠고 硬音(fortis)的 性格을 띠게 된다. 따라서 [p]와 [b]의 관계는 如前히 獨占的이다.

그러므로 [p]와 [b]는 한 音素의 結合 變異音으로 뭉치게 된다.

[t]와 [d]:

이 두 音聲의 관계도 위의 경우와 같은 것으로서, [d]는 有聲音 사이에서만 나타나고, 다른 位置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kwado]과도, [poːdap']보답, [toːdək']도덕, [sɛŋdo]생도

한편 [t]는 말 첫머리에 나타나고, 有聲音사이에 나타나는 일은 없다.

[toːl]돌, [twɛːdʒi]돼지, [tal]달, [tuːl]둘 [tïːl]들

無聲 子音과 母音 사이(無聲 子音 다음 音節의 初頭音)에서도 나타나는 일이 있으나 이 경우에는 된소리로 내는 것이 普遍的인 발음이다.

[ap't'ïl]앞들, [kup't'ori]굽도리, [sap't'o]삽도, [suk't'al]숙달

卽 이 두 音聲의 配置는 排他的이다.

한편, 이 두 音聲에 共通된 軟性·通口·舌端·漸強·停止性(破裂性)은 국어의 다른 音聲에는 發見되지 않는다.

「停止性(破裂性)」으로써 摩擦音과 響音이 排除되고, 舌端으로써 [p]系 [k]系 따위를 排除하고, 通口로써 [n]를 排除하고, 軟性으로써 [t'], [tʰ]를 排除하고, 漸强으로써 [t']를 排除한다.

따라서 [t]와 [d]는 한 音素의 結合 變異音이 된다.

[tʃ]와 [dʒ][11]:

이 두 音聲의 配置도, 위의 두 경우와 同一하다.

[dʒ]는 有聲音 사이에서만 나타나고, 다른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11) [tʃ]에는 [ts]가, [dʒ]에는 [dz], [ʑ], [z]가 포함된다.

[padʒi]바지, [kadʒi]가지, [kadʒa]가자, [odʒo]오조, [kamdʒa]감자

[tʃ]는 말 첫머리에서 나타나고, 有聲音 사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tʃadʒu]자주, [tʃaju]자유, [tʃɛsan]재산, [tʃo]조, [tʃim]짐

無聲 子音 다음 音節의 初頭音으로(無聲 子音과 母音과의 사이에서) 쓰이게 되는 일이 있으나, 이 경우에는 된소리가 되는 것이 普遍的 發音이다.

[kak'tʃ'a]각자, [kjək'tʃ'ən]격전, [k'ot'tʃ'ulgi]꽃줄기, [sap'tʃ'u]삽주

한편 [tʃ]와 [dʒ]에 共通된, 軟性·舌端-前舌·漸強·破擦性은 국어의 다른 音聲에는 잘 發見되지 않는다.

破擦性으로 破裂音, 摩擦音, 響音이 죄다 排除된다. 그러나 [dʒ]에 [ʑ], [z]가 包含되어 있기 때문에 破擦性을 여기 드는 것은 不適當하나, 專門的인 마찰음인 [s,ɕ] 따위를 排除하기 위해서 取한 不得已한 方法이다.

位置的·硬軟的 규정만으로는 [s,ɕ]를 排除하기가 困難하다.

[k]와 [g]:

이 두 音聲의 관계도 위의 모든 경우와 同一하다.

[g]는 有聲音 사이에서만 나타나고, 다른 位置에서는 나타나는 일이 없다.

[kaːmgi]감기, [kogi]고기, [agi]아기, [tʃogi]조기, [tʃaːŋga]장가

[k]는 有聲音 사이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말 첫머리에 나타난다.

[kal]갈, [kul]굴, [kil]길, [kiːm]김, [kult'uk']굴뚝

無聲 子音 다음 音節의 初頭音으로(無聲 子音과 母音 사이에) 나타나는 일이 있으나, 이 경우에는 된소리가 되는 것이 普遍的이다.

[nap'k'ʌmi]납거미, [tat'k'op']닷곱, [sap'k'weŋi]삽괭이

따라서 [k]와 [g]의 配置는 排他的이고, 이 두 소리에 共通된 音聲的 資質인, 軟口蓋性·障碍性·軟性·漸強性은 국어의 어느 音聲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k]와 [g]는 한 音素의 結合 變異音이다.

[s]와 [ʃ], [ɕ]:

[ʃ]는 [ɥi]나 [y] 앞에 나타나고,

[ʃyːp't'a]쉽다, [ʃɥiː]쉬 (쉽게)

[ɕ]는 [i]앞에 나타나고,

[ɕiːl]실, [ɕilpʰɛ]실패

[s]는 그 밖의 母音 앞에 나타난다.

[saːram]사람, [sʌri]서리, [nuns'ʌp']눈썹, [so]소, [sup']숲

그리고 이 音聲들의 共通 資質은, 舌端-前舌·摩擦·漸強·軟性으로서, 이 音聲들에 獨占的이다. 따라서 이 세 音聲은, 한 音素의 結合 變異音이다.

[s']와 [ɕ'] :

[ɕ']는 [i]앞에 나타나고,

[ɕ'irïm]씨름, [ɕi]씨

[s']는 다른 母音 앞에 나타난다.

[s'aum]싸움, [s'wɛːgi]쐐기, [s'uk']쑥, [s'ïlgɛ]쓸개

그리고 이 소리들의 共通 資質인, 舌端-前舌·摩擦·漸強·硬性은 이 두 音聲에만 獨占的이다. 따라서 이 두 音聲은 한 音素의 結合 變異音이다.

[n]와 [ɲ] :

[ɲ]는 [i]나 [j] 앞에서만 나타나고,

[moːɲjən]모년, [maːɲim]마님, [t'aɲim]따님, [muɲjʌri]무녀리

다른 位置에서는 [n]가 나타난다.

[na]나, [nʌ]너, [no]노, [nugu]누구, [nïːl]늘, [nïk't'ɛ]늑대,

[tʃiːndʒi]진지, [kaːn]간

그리고 이 두 소리의 共通 資質인, 舌端-前舌·通鼻性은 국어의 다른 音聲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n]와 [ɲ] 두 音聲은, 한 音素의 結合 變異音이다.

[l]와 [ʎ]와 [r] :

[r]는 母音 사이에서 單獨으로만 나타나고,

[uri]우리, [tari]다리, [mʌru]머루, [paro]바로, [karu]가루

[l]는, 母音과, [i,j] 아닌 다른 母音들과의 사이에서, 반드시 重複되어 나타나거나,

[hïllʌ]흘러, [talla]달라, [moːlla]몰라, [kullʌ]굴러, [kulle]굴레

또는 語末이나 다른 子音 앞에 나타난다.

[tal]달, [taldo]달도, [malgïn]맑은, [kalt'ɛ]갈대, [nalgɛ]날개

[ʎ]는 母音과 [i], [j] 사이에서, 반드시 重複되어서만 나타난다.

[hïʎʎida]흘리다, [taʎʎida]달리다, [taʎʎjək']달력, [pʰaʎʎjoŋ]팔룡

그리고 이 세 소리의 共通 資質은, 舌端-前舌·流性으로서, 다른 音聲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세 音聲은, 한 音素의 結合 變異音이다.

[붙임] [l], [ʎ]가 母音 사이에서는 반드시 重複되는 點을 留意해야 할 것이니, 이것을 重複音으로 보지 않으면, [r]와 서로 같은 位置에 나타나며 말의 뜻을 分化할수 있어서 이것들은 다른 두 音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kərəra] : [kəlləra]

그러나 [talla]의 [ll]는 [toːllo]의 [ll]와 같은데, 後者의 [ll]는 그 사이에 音節의 경계가 놓이고, 또 形態素의 경계가 놓이기 때문에, 分明히 두 音素의 連結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또 [talla]의 [ll]의 길이는 分明히 두 音素의 連結인 [čamnïnda], [kaːmmul], [čaːnnamu]의 [mn], [nd], [mm], [nn]의 길이와 같다.

이러한 點으로 보아서 母音 사이의 [ll]와 [ʎʎ]는 重複音으로 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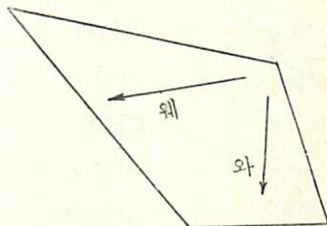
[w]와 [ɥ] :

[ɥ]는 [i]에 앞서고, [w]는 그 밖의 單母音에 앞선다.

[ɥi]위, [ɥigïp']위급, [ɥimun]위문, [ɥisɛŋ]위생, [ɥihʌm]위험.(12)

[wango]완고, [wɛgari]왜가리, [wϕːga]외가, [wenmanhada]웬만하다

그리고 이 두 音聲의 共通 資質인, 圓唇·過渡性(半母音性)은 국어의 다른 音聲에는 없다. 따라서 이 두 音聲은 한 音素의 結合 變異音이다.



그리고 엄격하게 따져보면, 「웨, 왜, 워, 와」의 [w] 음은 꼭 같은 소

(12) 과장된 發音에서는 [wi]로 發音될 수도 있으나, [ɥi]가 普遍的이고 正常的인 發音이다.

리는 아니다. 혀와 입술이 [u] 가까운 데서 出發한다는 點은 모두 같으나, 그 經過하는 過渡가 꼭 같지 않다. 卽 「웨」는 [u]에서 [e]의 位置로 옮아 가는데, 「와」는 [u]에서 [a]로 옮아 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差異는 뒤의 母音에 따라 自動的으로 규정된 것이며 [w^{e}]는 [a] 앞에 나타날 수 없고, [w^{a}]는 [e] 앞에 나타날 수 없다. 卽 두 소리의 配置는 排他的이다.

그러므로 혀의 移動過程이 若干 다른 몇가지의 [w] 音은 모두 한 音素의 結合 變異音이 된다.

[ə]와 [ʌ],(13) [jə]와 [jʌ], [wə]와 [wʌ]:

국어의 「어」는 꽤 다른 두가지 소리로 發音되는 것이 普通이다.

서울말에서도 젊은 世代의 發音으로는 一般的으로 길이의 韻素(chroneme)가 잘 分化되지 않아서, 긴 소리와 짧은 소리의 分別이 分明하지 않게 되어 가는 傾向이 있는듯 하나, 4-50代의 사람들의 發音으로는 길이가 分明히 辨別되는 것이 普通이다.

이러한, 길이의 韻素가 分明히 辨別되는 發音으로는, 「어」의 發音이 꽤 分明히 두가지로 分化되어서, 긴 소리인 경우에는 [ə](中舌 半閉 母音)로 내고, 짧은 소리인 경우에는 [ʌ](後舌 半開母音)로 낸다.

[ʌ]	[əː]	[ʌ]	[əː]
거리(街)	거ː리(距離)	거품(泡)	거ː지(乞人)
거미(蛛)	거ː물(巨物)	너울	넉ː섬(四石)
거북(龜)	거ː짓(僞)	너덧(四五)	널ː (棺)
더하다	더ː럽다	어깨	얼ː마
머리(頭)	멀ː다(遠)	어디	어ː른
던지다	넘ː다(越)	어미(母)	어ː미(語尾)
엉터리	어ː감(語感)	업다(負)	없ː다(無)

(13) 「어」의 音價에 대한 論文으로는 다음것을 참조할것
金永松. : 中性母音 「어」의 音價——國語母音의 X線 實驗報告(油印)

[jʌ]	[jəː]	[jʌ]	[jə]
견디다	견ː문(見聞)	결방	경ː상도
결혼	경ː계(警戒)	며느리	면ː담(面談)
경비(經費)	경ː마(競馬)	명관(名官)	명ː령(命令)
여객	연ː애(戀)	여왕	연ː구(研究)
여류작가	열ː다(開)	서울역	연ː극(演劇)
여우	여ː당(與黨)	연기(煙)	연ː기(演技)
[wʌ]	[wəː]	[wʌ]	[wəː]
권리(權利)	권ː농(勸農)	원기(元氣)	원ː근(遠近)
권세	권ː유	원산(元山)	원ː대(遠大)
권위	권ː주(勸酒)	원인	원ː망(怨望)
권가	권ː총	월급	원ː하다(願)

結合 變異란 앞에서도 說明한 바와 같이, 한 音素가 다른 音素와 統合 關係를 맺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變異를 말함인데, 이 變異는 반드시 音素(segmental phoneme)와의 統合 關係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韻素(suprasegmental phoneme)와의 統合에서 나타나는 일도 있다.

위의 [ʌ]와 [əː]의 變異는 바로 그렇게 解釋되는 것으로서, 짧은 韻素와 結合될 때는 [ʌ]가 나타나고, 긴 韻素와 結合될 때는 [ə]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소리의 配置는 排他的인 것으로 규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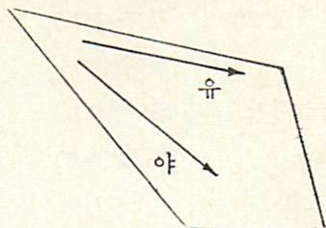
[ʌ]와 [ə], [jʌ]와 [jə], [wʌ]와 [wə]는 한 音素의 結合 變異音이다.

[j]의 變異音：

「야, 여, 요, 유, 예, 얘」의 첫머리의 半母音을 [j]로 표기하고, 또 「의」의 끝의 半母音도 亦是 [j]로 표기하기로 하였는데, 이렇게 보면 [j]도 單一한 音聲이 아님이 짐작된다.

「야, 여」 따위에 있어서의 혀의 移動 過程은, [i] 가까운 자리에서 [a]나 [ə]의 位置로 옮아가는 것인데, 「의」 [ïj]에 있어서는 그 反對로 혀가 다른 位置에서 [i]의 位置로 移動하게 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소리는 그 成節

母音과의 前後 關係에 依해서 규정된다. 卽 成節 母音의 앞에 있을 때는 [i]에서 出發하게 되고, 그 뒤에 있을 때는 [i]로 歸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이 두 [j]소리는 그 配置가 排他的이므로, 한 音素의 結合 變異音이다.



또 「유, 요」와 「야, 여」의 경우의 [j]도 若干 다른 點이 있다. 勿論 혀가 [i]의 位置에서 出發하는 點은 同一하나, 移動하는 過程이 다르다.

그뿐 아니라 出發點에 있어서의 입술의 모양도 다르다. 「야, 여, 예, 얘」에 있어서는 혀가 [i]에서 出發하면서 입술은 둥글지 않으나, 「요, 유」에 있어서는, 혀가 [i]에서 出發하면서 입술이 둥글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혀의 移動 過程이나 입술의 모양은 뒤에 이어나는 母音에 따라 自動的으로 決定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j] 소리는 한 音素의 結合 變異音이 된다.

[k, k', kʰ, γ, ŋ]의 변이음 :

이 記號들은 prevelar와 mediovelar를 分別함이 없이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이미 둘씩의, 位置가 다른 變異音이 포함되어 있는 셈인데, 그 結合的 變異 條件은 明白하다. 卽 前舌의 /j,i,e/에 접촉될 때는 이 소리들은 prevelar로 實現되고, 그 밖의 母音에 접촉될 때는 mediovelar로 實現된다.(다만 uvular로 날 경우를 除外). 그리고 內破音 [k']의 경우도 한가지다.

以上에서 論한 바, 한 音素로 뭉치게 되는 結合 變異音들을 一覽하면 (任意變異音도 아울러) :

[p]와 [b] (β)

[t]와 [d]

[tʃ](ts)와 [dʒ] (dz, ʑ, z)

[k](q)와 [g] (γ, G)

[s]와 [ʃ]와 [ɕ]

[s']와 [ɕ']

[n]와 [ɲ]

[l]와 [ʎ]와 [r](ɾ)

[w]와 [ɥ]

[ə]와 [ʌ], [jə]와 [jʌ], [wə]와 [wʌ]

任意 變異音들 中에서, 그 한가지를 表記하고, 다른것을 이에 包含시켰듯이, 結合 變異音들도, 그 한가지만을 表記하고, 다른것을 이에 包含시키는 것이, 表記上으로 보나, 이것들이 한 音素임을 表示하게 되는 點으로 보아 合理的이다. 그러기 위해서 結合 變異音들 中에서, 代表 變異音을 하나 選出할 必要가 있는데, 이 代表 變異音을 「主 變異音」(principal member, or norm)이라 하고, 다른것을 「副 變異音」(subsidiary member)이라 한다.

主 變異音을 選擇하는 基準은 반드시 一定한 것이 있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基準을 세워 두는 것이 便利하다.(14)

1) 配置의 制限을 되도록이면 적게 받은 소리일 것 : 變異音들 中에는 그 配置가 極히 局限된 것과, 比較的 自由롭게 여러 位置에 많이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두 變異音 사이에 이러한 相對的 差異가 있을 때는, 配置의 局限을 덜 받은 편을 主 變異音으로 뽑는 것이 좋다. 配置가 ㄷ 局限되면, 결국 그 쓰이는 頻度數가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2) 音聲的 환경의 영향을 안 받거나, 되도록이면 적게 받은 편을 정할 것 : 變異音들 中에는 환경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것과, 分明히 그 환경의 영향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이 경우에는, 영향을 안 받은 것은,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다른 變異音으로부터 變異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의 영형을 안 받았거나 比較的 덜 받은 편을 代表로 뽑는 것이 좋다.

3) 이러한 基準이 적용되기 어려울 때는 任意로 어느 한 편을 代表로

(14) Kenneth L. Pike: Phonemics. p. 62. 참조.

뽑아 두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觀點으로 위의 變異音들을 보면 :

[p]와 [b] : [b]는 有聲音으로서 有聲音사이에만 나타난다는 것은, 無聲의 [p]가 그 환경의 영향으로 [b]로 有聲化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p]가 主 變異音이 된다.

[p], [b]──→/p, b/──→/p/

(音素 表記에 있어서는 主 變異音을 //안에 넣는다. 따라서 //안의 p는 [p]와 [b]를 포함하는 價値를 가진다.)

[t]와 [d] : 위와 같은 理由로, [t]가 代表로 뽑힌다.

[t], [d]──→/t, d/──→/t/

[tʃ]와 [dʒ] : 亦是 같은 理由로, [tʃ]가 代表로 뽑힌다.

[tʃ], [dʒ]──→/tʃ, dʒ/──→/tʃ/

[k]와 [g] : 亦是 같은 理由로, [k]가 代表이다.

[k], [g]──→/k, g/──→/k/

[s]와 [ʃ]와 [ɕ] : [ʃ]는 [ɥi, y] 앞에서만, [ɕ]는 [i, j] 앞에서만 나타나는데 比해서, [s]는 그 밖의 다른 母音 앞에 나타난다. [s]의 配置가 가장 넓다. 그러고 [ʃ]와 [ɕ]는 뒤의 母音을 若干 닮았다. [s]보다는, [ʃ]가 [y,ɥi]에 더 가깝고, [ɕ]가 [i,j]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卽 [ɕ], [ʃ]가 [s]보다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s]가 代表가 된다.

[s], [ʃ], [ɕ]──→/s. ʃ, ɕ/──→/s/

[s']와 [ɕ'] : 위와 같은 理由로 [s']가 代表로 뽑힌다.

[s'], [ɕ']──→/s', ɕ'/──→/s'/

[n]와 [ɲ] : [ɲ]는 [i, j] 앞에서만 나타나고, 그리고 分明히 [ɲ]가 [n]보다 [i, j]에 더 가깝다. 卽 [ɲ]가 [n]보다 그 配置가 더 局限되고 환경의 영향을 입었다. 따라서 [n]가 代表로 뽑힌다.

[n], [ɲ]──→/n, ɲ/──→/n/

[l]와 [ʎ]와 [r]: [l]과 [r]는 그 환경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ʎ]는 [i,j] 앞, 母音 사이에서 반드시 重複되어서만 나타난다. 그리고 [r]는 母音 사이에만 單獨으로 나타나고, 이에 比해서 [l]는, 語末, 子音 앞에서는 單獨으로, 母音 사이에서는 重複되어서 나타나게 된다. [l]의 配置가 가장 自由롭다. 따라서 [l]가 代表가 된다.

[l], [ʎ], [r]——→/l, ʎ, r/——→/l/

[w]와 [ɥ]: [ɥ]는 [i] 앞에서만 나타나는데 比해서, [w]는 여러 母音 앞에 나타난다. 그리고 [ɥ]는 [w]보다 [i]에 더 가깝다. 卽 [w]가 [i]의 영향으로 [ɥ]로 變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w]가 代表이다.

[w], [ɥ]——→/w, ɥ/——→/w/

[ə]와 [ʌ]: [ə]는 긴 韻素와 結合되고, [ʌ]는 짧는 韻素와 結合된다. 그런데 이 두 韻素의 빈도는 서로 같아서, [ə]와 [ʌ]의 어느 편이 配置上으로 더 局限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ə]가 짧은 소리의 영향을 입어 [ʌ]가 되었다거나, 또는 그 反對로, [ʌ]가 긴 소리의 영향으로 [ə]로 變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두 소리 中에서 어느편을 代表로 해도 좋겠으나, 여기에서는 [ə]를 代表로 定한다.

[ə], [ʌ]——→/ə, ʌ/——→/ə/
[jə], [jʌ]——→/jə, jʌ/——→/jə/
[wə], [wʌ]——→/wə, wʌ/——→/wə/

이와 같이 結合 變異音으로 뭉쳐진 結果로써, 앞의 音聲 一覽表(任意 變異音으로 一旦 調整된 것, pp. 139—40)를 다시 調整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子音>

p p'	t t'	tʃ	k k'	
p'	t'	tʃ'	k'	ʔ
pʰ	tʰ	tʃʰ	kʰ	
	s			h

	s'	
m	n	ŋ
	l	

<母音> (單母音)

i	y	ɨ	u
e	ϕ	ə	o
ɛ		a	

(重母音)

〔上昇的〕 〔下降的〕

/j/:			ju	ɨj
	je	jə	jo	
	jɛ	ja		
/w/:	wi			
	we	wə		
	wɛ	wa		

<붙임> 「외」, 「위」의 發音

言語 記述의 範圍를, 아무리 한 地方의 一定한 階級에다가 두고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等質的인 것만은 아니어서, 一定한 言語 體系를 세우기가 무척 힘드는 일이 많으므로, 결국은 一個人의 言語(idiolect)를 記述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音韻 體系에 있어서도 亦是 그러한데, 그 中에도 「외」와 「위」로 表記된 말의 소리는 매우 不安定하다.

「외」 音은 최현배 님은 單母音의 [ϕ]로 내는 것으로 記述하고 있는데,[15] 李崇寧 님은, 서울에서는 [ϕ]音은 全혀 쓰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16] 그

(15) 우리말본 : 「소리갈」 참조.
(16) 國語學概說 上 (進文社, 1954) p. 153.

러나 서울말에서도 [ø]는 꽤 많이 들을 수 있어서, 金允經 님에 의하면, 「쇠」(鐵), 「되」(升)는 單母音으로 發音하고, 「외」(瓜), 「뫼」(山)는 重母音으로 發音한다고 하였다.[17]

「외가, 외롭다, 외국, 외무장관, 외딸, 외아들, 외삼촌」 따위 말의 「외」는 「we」로 發音하는 것이 普遍的인듯 하나, 「꾀, 쇠꼬리, 쇠고기, 회의(會議), 최가(崔)」 따위의 「외」는 [ø]로 發音하는 것이 오히려 普遍化된 것이 아닐까 보아진다.

「외」는 重母音에서 차츰 單母音의 [ø]로 發音되어 가는 경향이 있는것 같이 보여서, 여기에서는 이 單母音을 하나의 確立된 音素로 세워 두었다.

이러한 事情은 「위」의 경우도 한가지로서, 이 소리는 重母音의 [ɥi]로 내는 일도 많으나, 李熙昇 님에 依하면, 「뉘」(쌀에 섞인 벼), 「뒤」(後), 「쉬」(파리알), 「쥐」(鼠), 「취」(산나물의 한가지)의 「위」는 單母音의 [y]로 發音된다고 하였다.[18] 「위」도 亦是 單母音으로 내는 傾向이 차츰 普遍化되어 가는듯 하므로, 여기에서는 [ø]와 더불어 [y]를 單母音의 한가지로 세워 두었다. 그러나 重母音의 [ɥi]도 그 發音이 아직 꽤 많이 쓰여서, 「위하다, 위기, 위반」 따위 말은 [ɥi]로 發音되므로, 이 重母音도 音素의 하나로 두었다.

3) 複式 相補 配置와, [ʔ]의 처리 문제

以上의 說明으로, 우리는 국어의 音素 分析의 거의 마지막 段階에 到達한 셈이나, 아직 未解決로 남은 문제는 內破音의 [p', t', k']와 [ʔ]의 처리 문제이다.

---

(17) 나라말본.(동명사, 1948) p. 24.
(18) 國語學概說.(民衆書館, 1955) p. 90.

(1) 內破音

內破音 [p', t', k']의 나타나는 경우를 보면:

[p']: [ip' #][19] 입, 잎, [ap' #] 앞, [ap't'ïl] 앞틀, [pap'k'ïrït' #] 밥그릇, [kop'tʃhaŋ] 곱창.

[t']: [ot' #] 옷, [kot' #] 곳, [k'ot'tʃ'ip' #] 꽃집, [mit'p'adak' #] 밑바닥.

[k']: [pak' #] 박, [hobak'p'əːl] 호박벌, [sʌk'than] 석탄, [sok't'am] 속담.

이 內破音들이 나타나는 位置는 모두 같아서, 語末 位置나, 鼻子音 以外의 다른 子音 앞에서 나타나고, 그 밖의 位置, 이를테면 語頭나 母音 앞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더 簡單하게 말하면, 音節의 끝소리(終聲)로만 나타나고, 音節의 첫소리(初聲)[20]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이러한 位置(終聲)에 나타날 수 없는 소리들은, /p/, /p'/, /ph/; /t/, /t'/, /th/; /tʃ/, /tʃ'/, /tʃh/; /s/, /s'/, /h/; /k/, /k'/, /kh/들 所謂 障碍音의 全部이다. 그러므로 障碍音은 모두 音節末 位置(終聲)에 있어서는 그 辨別的 機能을 喪失하는 것이다. 여기 들어 보인 障碍音은 音節의 첫소리(初聲)에 있어서만 서로 辨別的으로 機能할 수 있지, 音節 末音(終聲)으로는 全혀 쓰이는 일이 없다. 그 反面 內破音의 [p', t', k']는 初聲으로는 나타나는 일은 全혀 없고, 終聲으로만 쓰이게 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소리들은 그 配置가 서로 排他的이다.[21]

우리는 모든 內破音과 모든 外破 障碍音을[22]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할 수 없다. 세 가지의 內破音에는, 各各 세 種類의 同位置的 外破 障碍音이 對應

---

(19) /#/표는, 다음에 다른 音素가 달아나지 않음을 보임. 即 여기 休息(pause)이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20) 「初聲」과 「終聲」을, 여기에서는 이러한 뜻으로 使用하기로 한다. 即 發音에 관한 用語로 쓰고, 文字에 관한 것으로는 쓰지 않는다.

(21) 다만 /s/만은 終聲으로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그 다음 子音이 /s/系 音素일 때에 限하며, /s/ 音素 앞에서는 [t'] 內破音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s/와 [t']는 如前히 그 配置가 排他的이다.

(22) 여기 「外破」란 말은 Saussure의 "explosif"의 뜻으로 使用된다. 따라서 반드시 破裂音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pp. 101-2 참조)

되어 있다. (但 /h/는 對應됨이 없음). 即

[p˺]——/p/, /p'/, /pʰ/

[t˺]——/t/, /t'/, /tʰ/

/tʃ/, /tʃ'/, /tʃʰ/

/s/, /s'/

[k˺]——/k/, /k'/, /kʰ/

앞에서 우리는, 서로 排他的 關係에 있는 極少數(둘이나 셋)의 音素가 一定한 位置에서는 그 辨別的 機能을 喪失하는 현상을 中和 作用이라[23] 하고, 그 音素의 對立을 中和 對立[24]이라 하였는데, 바로 여기의 /p/, /p'/, /pʰ/ 따위 序列의 音素들은 모두 終聲 位置에서는 中和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Prague 學派의 學說을 좇는다면, 內破音 [p˺, t˺, k˺] 들은 各各 外破音 /p/, /p'/, /pʰ/; /t/, /t'/, /tʰ/; /k/, /k'/, /kʰ/ 따위 序列의 原音素의 實現 (représentant de l'archiphonème)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即 /p/, /p'/, /pʰ/ 세 音素에 共通된 辨別的 資質의 總體를 세 音素의 原音素로 보고,[25] 中和 位置에 나타나는 [p˺]를 이 原音素의 實現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k/, /k'/ /kʰ/의 세 音素의 경우에도 해당되는데, /t/, /t'/, /tʰ/; /tʃ/, /tʃ'/, /tʃʰ/; /s/, /s'/ 여덟 音素의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다.

이 여덟 音素의 共通 辨別的 資質의 總體(舌端-前舌的 障碍性, 그리고 이 共通 資質은 국어의 다른 音素에는 發見되지 않는다)를 하나의 原音素로 보고, [t˺]를 그 實現으로 본다는 것도 全혀 不可能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한 音素로 묶일 수 있는 變異音이란 一般的으로 그렇게 많고 異質的인 音聲일 수는 없듯이, 한 原音素로 묶일 수 있는 音素의 數도 그렇게 많고 異質的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여덟개나 되는, 相當히 異質的인 音素를 한 原音素로 묶는다는 것은 無理한 일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t˺]와 가장 가까운 /t/,

(23)「Ⅰ, 3, 1), (2) 中和作用과 原音素」(p. 82 以下) 참조.
(24)「Ⅰ, 3, 1), (1) 音素의 對立」(p. 81) 참조.
(25)「Ⅰ, 3, 1), (2)」(p. 82 以下) 참조.

/t'/, /tʰ/ 셋만을 한 原音素로 뭉치고, [t˺]를 그 實現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나머지 /tʃ/, /tʃ'/, /tʃʰ/, /s/, /s'/, /h/ 따위 音素는 그것이 中和를 일으키기는 하되, 한 原音素를 形成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될 줄로 생각한다.

Prague 學派의 學說을 따른다면, 국어의 [p˺, t˺, k˺]는 이렇게 原音素의 實現으로 解釋된다.

그러나 原音素를 音素 分析에 導入하는 것은 音素 自體의 對立的 性格을 파악하는 데는 어느정도 도움이 되고 有益한 일인것 같으나, 音素 對立에 관한 모든 문제는 原音素를 세움으로써 반드시 簡明하게 解決되는 일은 아니다.

조금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對立的 性格만을 고려한다면, /t, t', tʰ, tʃ, tʃ', tʃʰ, s, s'/ 여덟 音素의 原音素를 세워서 안될 理由는 좀 박약하다. 그리고 /p/, /p'/, /pʰ/ 세 音素의 原音素는 다시 鼻子音 앞에서는 /m/와의 對立이 喪失되므로, 여기에도 原音素를 세워서 안될 必然的인 理由는 있을상 싶지 않다. 原音素 /p, p', pʰ/와 音素 /m/는 兩唇性을 獨占的으로 가져서 獨占的(排他的) 關係에 있고, 鼻子音 앞에서는 이 두 (原)音素의 對立은 辨別的 機能을 喪失하여, 이 자리에는 /m/만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 /m/를 原音素 /p, p', pʰ/와 音素 /m/와의 더 한층 高次的인 原音素의 實現으로 보아서 안될 必然的인 理由는 發見하기 困難하다. 이 點에 있어서는 /k, k', kʰ/와 /ŋ/, /t, t', tʰ/와 /n/의 관계도 한가지다.

또 국어의 瞬間音의 軟音 /k/, /t/, /p/와 硬音의 /k'/, /t'/, /p'/의 對立은, 內破音 [p˺, t˺, k˺]의 다음 位置에서는 辨別的으로 機能할 수 없어서, 이 位置에서는 硬音 系列이 나타나는 것이 普遍的 傾向인듯 하다. (그러나 軟音으로 내더라도 異常한 發音은 되지 않으며, 이것이 軟音인지 硬音인지는 얼핏 잘 識別이 어려울 정도이다).

앞들 [ap˺t'ïl] (ap˺tïl)

납거미 [nap'k'ʌmi] (nap'kʌmi)

국밥 [kuk'p'ap'] (kuk'pap')

그러므로 이들 內破音 다음의 /p'/, /t'/, /k'/도, 各各 原音素 /p, p'/, /t, t'/, /k, k'/의 實現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kuk'p'ap']의 語末의 [p']는 原音素 /p, p', pʰ/의 實現이고, 語中의 [p']는 原音素 /p, p'/의 實現이 되는 셈이다.

그리고 국어의 /ï/ 音素와 /u/音素는, /m/, /p/, /p'/, /pʰ/ 다음 位置에서는 그 辨別的 機能을 喪失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原音素를 세워야 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tʃ/, /tʃ'/, /tʃʰ/, /s/, /s'/ 다음 位置에서 辨別的으로 對立되지 못하는 /a/ : /ja/, /ə/ : /jə/ 따위 音節核에 대해서도 原音素를 세워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原音素의 樹立은 音素 自體의 分析이란 點으로 보면, 문제解決을 爲한 有益한 方法은 아닐상 싶다.

元來 原音素란, 獨占的(排他的) 關係에 있는 中和 對立의 두 音素에 적용되는 것이 原則인듯 하다. 그러나 獨占的 關係가 꼭 두 音素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必然性이 없음을 생각할 때, 그리고 中和 對立이 반드시 두 音素 사이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님을 생각할 때, 이 原音素의 개념과 범위는 必然的으로 擴大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擴大된 의미의 原音素란 것은, 音素 分析을 不必要하게 복잡하게 할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어의 [p', t', k']의 音素 分析에, 原音素를 여기 導入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우리는 [k'], [t'], [p']의 音素 分析에 있어서, 配置上의 排他性과 그 音聲의 類似性을 考慮하여 문제를 處理하려는 것인데, 그 配置로 보면, 이 세 內破音은 모든 外破 障碍音과 排他的이다. 그러나 우리는 [p']와 [p]를 제처놓고, [p']를 [t]와 뭉칠 수는 없다. 그리고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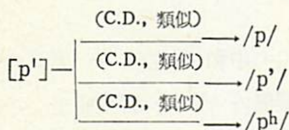
[p']는 다른 音素와보다 /p/, /p'/, /pʰ/와 관련되며,

[k']는 다른 音素와보다 /k/, /k'/, /k^h/와 관련되며,

[t']는 다른 音素와보다 /t/, /t'/, /t^h/, /tʃ/, /tʃ'/, /$tʃ^h$/, /s/, /s'/ 와의 관련이 더 깊다. 그러나 [t']는 /s/, /s'/와 한 音素로 뭉칠 수 없으며, /t/, /t'/, /t^h/를 제쳐놓고, /tʃ/, /tʃ'/, /$tʃ^h$/와 한데 뭉칠 수도 없다. 그러므로 [t']는 /t/, /t'/, /t^h/와 관련된다.

이 세 序列의 音聲들은 서로 그 關係가 同一하기 때문에, 우리는 [p'] 한 音聲의 處理 方法을 提示함으로써, 다른 序列의 경우를 다 같은 方法으로 處理하려 한다.

[p']는, 配置上의 排他性으로 보나, 그 音聲的 類似性으로 보나, /p/에 속할 可能性도 있고, 同時에 /p'/나 /p^h/에 속할 可能性도 있다. 卽 [p']는 /p/, /p'/, /p^h/세 音素와 複式 相補 配置(multiple complementation)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p']는 이 세 音素의 어느쪽과도 한데 뭉쳐질 可能性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解決로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方法을 생각할 수 있다.

1) 문제의 소리가, 그와 複式 相補 配置에 있는 어느 한 소리와 同一할 때는 그와 한 音素로 뭉칠 것.

2) 그렇지 못할 때는, 그 中의 가장 가까운 소리와 한데 뭉칠것.

3) 그 親近性의 程度의 差를 決定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中의 어느 한 소리와 적당히 한데 뭉치되, 되도록이면 거기에는 音聲 外的인 條件을 고려할 것.

4) 全혀 獨立된 다른 音素로 볼 것.

위의 [p']는 「1」에는 해당되지 않고, 「2, 3, 4」에 해당된다. 어느 한편과 한 音素로 뭉치든지, 아니면 第四의 새로운 音素로 볼 수 있다. 그러나 [p']

는 /p/, /p'/, /ph/의 어느 한편과 한 音素로 뭉쳐질 수 있는데, 그 한 音素로 뭉쳐질 可能性을 가진 候補音이 複數라 해서, 그 아무 데도 뭉치지 않고, 따로 獨立 音素로 본다는 것은 그 合理性을 發見하기 어렵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p'']는 軟音이다. 그 다음에 오는 /p/, /t/, /k/가 硬音이 되는 傾向이 있음을 보면, [p'']도 fortis인 것으로 보아질는지 모르나, 그러나 [pap'k'ïrït']에 있어서의 [k']의 硬性은 [p'']에서 始作되는 것은 아니다. [p'']에서는 喉頭 緊張을 느낄 수는 없고, 特히 [ip'#](입, 잎)에 있어서의 內破音은 全혀 喉頭 緊張을 수반하는것 같지는 않다.[26] 따라서 音聲的 性格으로 보아서 [p'']는 [p]에 더 가까운 것이다.

또 心理的 方面으로 보면, 우리들은 [p'']를 /p/로 생각함이 普通이다. 그러므로 特別한 語源 意識이 作用되지 않는 限, [p'']소리는, 옛날에 있어서는, /p/ 音素를 表記하는 文字「ㅂ」으로써 表記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p'']는 /p/의 한 變異音으로 보는 것이 마땅할 줄로 생각하는 바이다. 따라서 [t'']는 [t]의, [k'']는 /k/의 한 變異音이다.

여기 x, y, z 세 音聲이 있어서, x는 y, z와 서로 비슷하면서 複式 相補 配置에 있고, 그 辨別的 資質로서는, y는 abc, z는 abd를 가졌고, x는 ab만을 가졌다고 가정하면, x는 y, z의 어느편으로 묶여도 상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音素를 辨別的 資質의 總體로 보기는 어렵게 된다. 왜그러냐 하면, 만일 x를 y와 한 音素로 뭉친다면, x, y의 辨別的 資質의 總體는 ab가 되고, 따라서 z와의 辨別이 되지 않는 셈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ab를 가진 x를 獨立된 音素로 보거나, 또는 여기 原音素를 새로 하나 세우는 것이 合理的인 解決이 될는지 모른다.

그러나 국어의 [p'']는 軟音이지 硬音이나 氣音은 分明 아니다. [p'']는 /p/, /p'/, /ph/의 非辨別的 資質인 外破를 가지지 않았을뿐, 이 세 音素의 辨別的 資質인 軟性, 硬性, 氣性 中의 軟性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p'']는 /p/의 한 變異音으로 봄이 마땅한 것이다.

---

(26) 「갑」의 「ㅂ」을 發音할 때의 兩唇을 閉鎖하는 힘은, 「감」의 「ㅁ」을 發音할 때의 兩唇 閉鎖의 힘보다 더 强한것 같지는 않다.

(2) [ʔ]의 처리

매우 놀랐을 때에 내는 「악」하는 소리는 [ʔaʔ]으로서, 母音 [a]의 앞에 外破의 聲帶 破裂이 나고, 다시 그 뒤에 內破의 聲帶 閉鎖가 따르게 된다. 국어에서는 [ʔ]는 이러한 特別한 경우에만 使用되고, 그 外의 경우에는 使用되는 일은 없는듯 하며, 普通 말의 뜻을 分化하는 機能을 發揮하는 일은 全혀 없다.

이와 같이 普通의 말에서 辨別的으로 機能하지 못하면서, 特別한 말——特種의 感嘆詞 따위——에만 쓰이는 소리를 「組織外的 音素」(extrasystematic phoneme)[27]라 하며, 이것은 普通의 音素와 同列로 다루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 表記에 있어서도 普通의 音素는 / /로 表示되는데, 組織外的 音素는 特別한 方法으로 表示함이 좋다. ——/ʔ/[28]

4) 複音素的 價値와 單音素的 價値

한번의 調音 運動으로 나는 하나의 소리도막(segment)이 두 音素의 連結로 보아지는 일이 있는 反面, 여러 소리도막이 한 音素로 보아지는 일도 있다.

前者의 경우, 卽 하나의 소리도막이 두 音素의 連結로 보아지는 경우를, 「複音素的 價値」(valeur polyphonématique)[29]라 하고, 後者의 경우, 卽 여러 소리도막이 하나의 音素로 보아지는 경우를 「單音素的 價値」(valeur monophonématique)[30]라 한다.

(1) 複音素的 價値

우리는 앞에서 「샤, 셔, 쇼 슈」를 [ɕja, ɕjə, ɕjo, ɕju]로 表記하고, [ɕ]

(27) Pike: Phonemics. p. 143. 참조.
(28) 이 表示法도 Pike의 方法을 좇는다.
(29) Trubetzkoy: Principes. p. 63. 以下.
(30) 같은 책. p. 57. 以下.

를, /s/의 /j/ 앞에서의 結合 變異音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解釋 方法은 반드시 그대로 無條件 首肯되는 일은 아니다. 왜그러냐 하면, [ɕja]는 半母音을 介在시키지 않더라도, [ɕ]의 調音 方法으로 말미암아 [ɕ]와 [a]사이에는 절로 /j/가 경과하는 過渡를 경과하기 마련인데, 그것은 [ɕ]와 /j/의 혀의 位置가 매우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샤, 셔, 쇼, 슈」는 바로 [ɕa, ɕə, ɕo, ɕu]로 表記해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ɕ]는 [s]와 같은 位置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며,

[ɕa, ɕə, ɕo, ɕu] : [sa, sə, so, su]

따라서 [ɕ]와 [s]는 音素的으로 對立될 可能性이 있게 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는 「샤」를 [ɕja]로 表記하여, [s]와 [ɕ]의 환경을 排他的으로 본 理由는 무엇이었던가?

이러한 事情은 「혀」를 [çjə]로 표기하는 경우에도 일어나게 된다. 「혀」는 [çə]로 표기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되면 [ç]는 [hə](허)의 [h]와 같은 환경에 나타나게 되므로, [h]와 [ç]는 音素的으로 對立될 可能性이 있게 된다.

이와 비슷한 일은 「ㄴ」의 경우에도 일어난다. 우리는 「냐, 녀, 뇨, 뉴」를 [ɲja, ɲjə, ɲjo, ɲju]로 표기하고, [ɲ]를 [j]앞에 나타나는 /n/의 한 結合 變異音으로 보았다. 그러나 「냐」 따위는 [ɲa]等으로 表記해도 無妨하다. [ɲ]와 [j]는 혀의 位置가 매우 가까우며——둘 다가 앞-혓바닥을 硬口蓋에 作用시키는 소리다—— 따라서 [ɲ]와 다음에 오는 母音 사이에는 [j]와 같은 過渡音이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냐」따위를 [ɲa]로 表記하면, [ɲ]는 [n]와 같은 환경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ɲ]와 [n]는 音素的으로 對立될 可能性이 있게 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냐」를 [ɲja]로 表記하여, [n]와의 환경을 排他的으로 만든 理由는 무엇인가?

萬一 우리가 「샤, 셔, 쇼, 슈」를 [ɕa, ɕə, ɕo, ɕu]로, 「햐, 혀, 효, 휴」를 [ça, çə, ço, çu]로, 그리고 「냐, 녀, 뇨, 뉴」를 [ɲa, ɲə, ɲo, ɲu]로 표기한다면, 국어의 子音과 母音의 連結表에는, 다음과 같이 「빈간」(case vide)이 여러군데 생기게 된다.

子音＼母音	a	ja	ɔ	jə	o	jo	u	ju
k	ka	kja	kjə	kə	ko	kjo	ku	kju
n	na	—	nə	—	no	—	nu	—
ɲ	ɲa	—	ɲə	—	ɲo	—	ɲu	—
t	ta	tja	tə	tjə	to	tjo	tu	tju
m	ma	mja	mə	mjə	mo	mjo	mu	mju
p	pa	pja	pə	pjə	po	pjo	pu	pju
s	sa	—	sə	—	so	—	su	—
ɕ	ɕa	—	ɕə	—	ɕo	—	ɕu	—

卽 /k, t, m, p/와 같은 子音은, 單母音이나 重母音에 골고루 붙게 되는데, /n, s/나 [ɲ, ɕ]는 「j」 重母音에는 一切 붙지 못하여, 音節表에 많은 빈간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子音과 母音의 連結에 있어서, 子音 사이에 一種의 不調和가 存在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萬一 [ɲ]를 [n]와 別箇의 音素로 본다면, [kja]에 있어서의 口蓋音化된 [kʲ][31]도 [k]와 別箇의 音素로 보아야 할 것이다. 卽 [kja, kjə] 따위를 [kʲa, kʲə]로 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여기 빈간은 죄다 메워져서, 모든 子音은, 그 母音과의 連結에서 一種의 調和(均衡)를 얻게 된다.

子音＼母音	a	ə	o	u
k	ka	kə	ko	ku
kʲ	kʲa	kʲə	kʲo	kʲu
n	na	nə	no	nu
ɲ	ɲa	ɲə	ɲo	ɲu
t	ta	tə	to	tu
tʲ	tʲa	tʲə	tʲo	tʲu
m	ma	mə	mo	mu
mʲ	mʲa	mʲə	mʲo	mʲu
p	pa	pə	po	pu
pʲ	pʲa	pʲə	pʲo	pʲu
s	sa	sə	so	su
ɕ	ɕa	ɕə	ɕo	ɕu

(31) [kʲ]는 [k]+[j]의 두소리의 連結이 아니라, 하나의 硬口蓋音化된 [k] 소리임을 表記하는 記號이다. [kʷ]도 한가지.

이렇게 되면, 많은 빈간이 없어져서, 여기에서만 調和된 均衡을 얻을 수 있을뿐 아니라, /ㅈ, ㅊ/에 있어서의 빈간도 없어진다. 卽 /ㅈ, ㅊ/은 /a, ə, o, u/에만 연결될 수 있고, /ja, jə, jo, ju/에는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는 빈간으로 남게 되는데, 위와 같이 處理하고 나면 이 빈간은 自然히 메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硬口蓋音化한 子音을 非硬口蓋音과 別個의 音素로 보게 되면,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矛盾點이 있음을 發見하게 된다.

첫째, 非硬口蓋音과 硬口蓋音化된 子音을 別個의 音素로 보게 되면, 子音 音素의 數는 당장 두 倍로 增加하게 된다. 音素 分析에 있어서, 두 가지 解釋이 可能할 경우에는, 우리는 音素의 數가 적어지는 편의 解釋法을 取하는 것이 좋다. 音素의 數는 적은 편이 表記에 便利하고 經濟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子音 音素의 數가 거의 倍加하는 이러한 解釋 方法은 되도록이면 取하지 않음이 좋다.

둘째, 硬口蓋音化된 子音을 非硬口蓋音과 區別하여 別個의 音素로 본다면, 「과, 궈, 괘」에 있어서의 脣・軟口蓋音化한(labio-velarized) 「ㄱ」 소리도 別個의 音素로 보아야 할 것이다.

卽 [n], [s]의 硬口蓋音化한 [ɲ], [ɕ]를 /n/, /s/와 別個의 音素로 보게 되면, [k]의 硬口蓋音化한 소리 [kʲ]도 따로 한 音素로 보아야 할 것이요, 그렇다면 脣・軟口蓋音化한 [kʷ]도 別個의 音素로 보아야, 論理上 矛盾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다가는 子音 音素의 數는 세 倍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세째, 硬口蓋音化한 소리를 한 獨立된 音素로 본다고 해서, 모든 不調和가 죄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不調和가 생겨나게 된다. 卽 「야, 여, 요, 유」 따위 重母音은 重母音대로 存在하면서——硬口蓋音化된 소리를 別個 音素로 본다고 해서 이러한 重母音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卽 [kja]를 /kʲa/로 보더라도 /ja/는 如前히 存在하게 된다 ——이러한

重母音은 子音에는 一切 連結되지 못한다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卽 [kja], [kwa]를 /kia/, /kwa/로 해석하면, 重母音의 /ja/, /wa/는 子音에는 連結될 수 없다는 결과가 된다. 이것은 또한 하나의 不調和가 아닐 수 없다.

要는 硬口蓋音化된 소리를 한 音素로 보게 되면, 子音 母音 連結에 있어서의 不調和는 如前 남으면서, 子音 音素의 數만 거의 세 倍로 늘어나는 結果를 招來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를 母國語로 使用하는 우리들의, 이 소리에 대한 反應으로 보더라도, 우리들은 「가」의 「ㄱ」과, 「갸」의 첫소리와 「과」의 첫소리를 다른 소리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러한 不調和와 複雜性을 避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方法을 取하는 것이 가장 좋은 方法이냐 하면, 「갸, 겨」 따위를 /kja/, /kjə/……로 解釋하고, 硬口蓋音化한 音聲들은 모두 이렇게 非硬口蓋 子音과 /j/ 半母音과의 連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唇·軟口蓋音化한 [kʷ] 따위도 /kw/의 連結로 해석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앞의 音節表에 있어서의 많은 빈간이 메워지는 것이나.

	a	ja	ə	jə……
/k/—[k] [kʲ]	ka	kja	kə	kjə……
/n/—[n] [ɲ]	na	nja	nə	njə……
/s/—[s] [ɕ]	sa	sja	sə	sjə……
⋮ ⋮ ⋮	⋮	⋮	⋮	⋮

卽 [ɲa, ɲə, ɲo, ɲu]는 音素論的으로는 /nja, njə, njo, nju/로 해석하고, [ɕa, ɕə, ɕo, ɕu]는 /sja, sjə, sjo, sju/로 해석하는 것이, 문제를 가장 簡潔하고 合理的으로 解決하는 方便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音聲的으로는 單 하나의 소리도막으로 볼 수 있는 硬口蓋子音 [ɲ], [ɕ]는 各各 그와 가장 가까운 非硬口蓋 子音 /n/, /s/와 半母音 /j/와의 두 音素의 連結로 보아지는 것이다. 單一 音聲인 [ɲ], [ɕ]는 複音素的 價値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놓고 보면, 많은 빈간이 메워지고, 大部分의 子音 音素는 單母音이나 重母音을 가리지 않고 連結될 수 있다는 調和 잡힌 現象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이, 音素의 全體 組織(여기에서는 子音, 母音의 全體的 結合表)이 어떠한 소리의 音素的 解釋에 影響을 미치게 되는 현상을, 「틀-맞추기」(pattern congruity)(32)라 한다. [ɲ], [ɕ]는 국어 子音 母音 連結表의 調和的(均衡的) 「틀」(pattern)에 맞추기 위해서, 두 音素의 連結로 解釋하는 方法이 取해진 것이다.

[ɲ]=/nj/, [ɕ]=/sj/로 해석함에 있어서는, 한 子音을 子音과 半母音의 連結로 본 셈이 되는데, 이것은, 半母音이 間隙이 좁아서 子音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可能한 일이다. 卽 하나의 音聲을 둘의 音素로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두개의 音素의 間隙의 差가 너무 커서는 안된다. 間隙 0度의 한 音聲을 間隙 0度와 7度의 두 音素의 連結로 解釋할 수는 없는 것이다.

[ɲa]를 /nja/로 해석하고, [ɕa]를 /sja/로 해석해 놓고 보면, /n/ /s/의 變異音 [ɲ], [ɕ]가 그 이웃 소리인 [j]의 存在를 두드러지게 해준 셈이 된다. 卽 /j/는 그 自體의 音聲的 性格으로보다 이웃 音素의 變異音에 依해서 그 存在가 確認해진 셈이다. 이것이 곧 「變異音의 이웃돕기」이다. (「I, 5, 音韻學과 音聲學」 p. 126 참조)

[ɲ]는 [ɕ],[ç]에는 없는 또한가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卽 「보늬, 무늬, 늬큼, 늴늬리야」의 「늬」로 표기된 發音은, 事實은 口蓋音化되지 않은 [n]에 /i/가 直結된 것이지 이 사이에 /ï/가 介在된 發音은 아니다. 그러므로

[poɲi] (보니, 「보다」의 活用)

(32) Charles F. Hockett: A Manual of Phonolog: Baltimore, 1955. pp. 158—9. 참조.

[poni] (보늬)

에 있어서는 [n]와 [ɲ]는 辨別的인 機能을 가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몇가지 單語로 해서 [ɲ]를 [n]와 對立되는 別個 音素로 보게 되면, 앞에서 누누히 지적한 바와 같은 不調和와 複雜性을 招來하게 된다.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口蓋音과 非口蓋音도 모두 對立되는 別個 音素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a, ə, o, u/에 連結된 [ɲ]를 /nj/로 보듯이, [ɲi]를 /nji/로 볼 수도 없다. /ji/란 重母音은 국어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ni]를 달리 解釋하는 方法을 取한다. /n/는 /i, j/ 以外의 母音 앞에서는 口蓋音化하지 않기 때문에, [ni]는 두 音素 사이에 /i, j/ 以外의 다른 母音이 介在된 것으로 보면 되겠는데, 그러면 무슨 音을 여기에 넣어야 할까? 그것은 勿論 /i/와 가장 가까운 소리로서, 全體가 두 音節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發音에 너무 큰 差異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i/와 가까운 소리로서는 /e/를 생각할 수도 있으나, /e/와 /i/가 連結되면 반드시 두 音節이 形成된다.([ej]란 重母音은 없기 때문). 따라서 [ni](한 音節)와 [nei](두 音節)는 그 發音의 差異가 너무 크다. 다음으로 /i/와 가까운 소리는 /ï/인데, /ï/는 /i/와 重母音 /ïj/를 形成할 수 있고, 그리고 이 重母音은 아주 不安定하여 /i/에 가깝게 發音되는 일도 많다. 實際 發音에 있어서도 [ni]와 [nïj]는 그리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ni] 音節을 音素論的으로는 /nïj/로 解釋하는 것이 가장 妥當한 解決 方法인 줄로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꾸민 국어학자들의 音素 分析이 아주 妥當함을 새삼 감탄하게 된다.

그런데, 以上과 같이, [ɲ], [ʎ]를 두 音素로 解釋하고 나면, 국어의 子音 母音 連結의 틀은 完全히 調和가 잡히느냐 하면 그런것은 아니다. 「ㅈ, ㅊ」에는 如前히 「야, 여, 요, 유」가 連結되지 못하니, 여기 빈간이 또한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 「댜, 뎌, 됴, 듀」와 「탸, 텨, 툐, 튜」도 국어에는 잘 쓰이지 않는다.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ㄷ	다	—	더	—	도	—	두	—
ㅈ	자	—	저	—	조	—	주	—
ㅌ	타	—	터	—	토	—	투	—
ㅊ	차	—	처	—	초	—	추	—

여기에서도 「ㅈ, ㅊ」을 「ㄷ, ㅌ」의 硬口蓋音化한 소리로 보아서, [tʃ] [tʃʰ]를 各各 /tj/, /tʰj/로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 틀은 完全히 다른 子音.母音 連結表와 맞추어지는 셈이 될 것이다.

	a	ja	ə	jə……
t	ta(다)	tja(자)	tə(더)	tjə(저)……
th	tha(타)	thja(차)	thə(터)	thjə(처)……

그러나 이렇게 解釋 못할 理由가 있다. 왜냐 하면, 국어의 「댜, 뎌」 따위 音節은 잘 쓰이지는 않으나, 完全한 빈간으로 남아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卽 「견디다(忍), 디디다(踏), 드디다(遲)」 따위 말의 副詞形「견뎌, 디뎌, 드뎌」에 있어서는 「뎌」 音節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자리는 「저」로써 메워질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위와 같은 틀 맞추기는 不可能하게 된다. 그러므로 「ㅈ, ㅊ」에 있어서는 빈간을 그대로 남겨 두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붙임〕 「ㄴ」 音素의 分析은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우리는 또 한가지 事實을 여기 附言하여 두어야 하겠다.

지금까지 說明한 事實은, /j, i/ 앞에서는 /n/가 규칙적으로 硬口蓋音化하여 [ɲ]로 變異하는 發音을 표준한 것이었다. 그런데, 요즘의 發音으로는, /n/ 音素가 /i,j/ 앞에서도 口蓋音化하지 않는 일이 많다. 卽 「가니, 가느냐」 따위를 [—ni], [—nja]로 發音하는 것이다. 이러한 事實로 본다면, [n]와 [ɲ]는 排他的 配置가 되지 않고, [i, j/ 앞에서는 任意로 變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ɲ]의 音素論的 解釋에 관한 문제는 아주 簡單하게 處理된다.

(2) 單音素的 價値

音聲學的 見地로 하면 둘 以上의 소리도막으로 된 것일지라도, 音素論的

으로는 하나의 音素로 보아야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單音素的 價値라 한다.

국어의 「ㅈ」은 破裂에 뒤이어 摩擦이 들리는 소리로서, 엄격하게 따지면 두개의 소리도막으로 成立되어 있다. 卽 '破裂+摩擦' [tʃ]로.

또 「ㅋ, ㅌ, ㅍ」 따위 有氣音은, 모두 [k, t, p]의 破裂이 있고 난 뒤에, 꽤 強한 氣(aspiration)가 있어서, 이것도 둘의 소리도막 '破裂+氣' [kh, th, ph]로 보아진다.

이렇게 보면, 「ㅊ」은 [tʃh]와 같은 셋의 소리도막으로 된 소리다.

그러면 이러한 소리들은 둘 乃至 셋의 音素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여기에도 틀-맞추기가 作用한다. 여기의 '틀'의 노릇을 하는 것은, 국어의 語頭에 있어서의 子音 母音의 連結 方式이다.

위와 같은 몇개의 소리를 除外하고 나면, 語頭에 있어서는 母音 앞에 子音이 하나 밖에 올 수 없는 것이 通則이다. 그러므로 萬一 「ㅈ, ㅋ, ㅌ」따위를 두 音素로 본다면, 「젖, 콩, 통」따위 말은, 語頭에 둘의 子音 音素가 連結되어 있는 셈이 될 것이며, 「총」은 세 子音 音素가 連結되어 있는 셈이 되는데, 이것은 현대 국어의, 語頭 子音群을 許容하지 않는다는 通則에 어긋나는 結果를 招來하게 된다.

현대 국어의, 語頭 子音群을 許容하지 않는다는 「틀」에 맞추어지기 위해서는, 「ㅈ」이나 「ㅌ, ㅋ, ㅍ, ㅊ」이 모두 한 音素로 解釋되어짐을 要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이러한 소리들을 한 音素로 解釋하는 것이다.

勿論 여기에는 反對 意見이 있을 수 있다. 「틀-맞추기」는 絕對的인 現象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어의, 語頭 子音群을 許容하지 않는다는 通則은 絕對的인 것이 될 수 없다. 「ㅋ, ㅌ」 따위를 두 音素의 連結로 보면 국어에도 語頭 子音群이 許容되는 셈이며, 또 그래서 안된다는 絕對的인 理由가 있을 수 없다. 또 이렇게 보면 音素의 數가 훨씬 줄어져서 오히려 經濟的이 된다. 卽

1. 音素 分析

ㄱ ㄷ ㅂ ㅈ

ㅋ ㅌ ㅍ ㅊ

에서 有氣音을 하나의 音素로 보면 여기에는 여덟 音素가 있게 되나, 이것을 둘의 音素로 보아서

k t p tʃ

kh th ph tʃh

로 해놓고 보면, 여기에는 다섯 音素만 있게 된다. k, t, p, tʃ, h/.

이와 같은 主張도 설 수 있고, 거기에는 充分한 理由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有氣音들을, 국어의 語頭의 子音 母音 連結의 틀에 맞추어서, 한 音素로 보는 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들 토박이들의 이 소리에 對한 反應에 맞기 때문이다. 即 우리들로서는 「콩, 통, 총」의 첫소리들을 「공, 동내, 종」의 첫소리와 같이 한 소리로 생각하지, 두 소리로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音素 分析에 있어서는 본토막이들의 素朴한 생각을 無視할 것은 아니다.

된소리의 「ㄲ, ㄸ, ㅃ, ㅉ」도 두 音素로 보는 일이 있으나, 이 소리들은 元來 두 도막이 아니며, 이 한 소리도막을 두 音素로 볼 理由는 매우 薄弱하다.

우리는, 音素의 定義에서, 同時에 나타나는 辨別的 資質들은 두 音素로 볼 수 없음을 말한 바 있거니와, 된소리의 喉頭 緊張은 口腔 破裂이나 摩擦과 同時에 나타나는 辨別的 資質이다. 따라서 이 두 資質(破裂+緊張, 또는 摩擦+緊張)은 두 音素로 分離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5) 無聲 母音의 문제

一般的인 發音에 있어서는, 「축축하다」의 第一 音節의 母音은 發音되지 않는다. 이 말의 發音은, 대개는 [tʃʰʷktʃʰuːkhada]로 내는 것이다. 即 첫머리의 [tʃʰ]는 無聲의 唇·軟口蓋音化된 破擦音으로서 그와 [k] 사이에는 強한 氣만 들릴뿐, 有聲의 母音이라곤 찾아 볼 수 없다.(33) 그러면 이러한 소리를 音素

(33) 이 말의 第一 音節의 母音이 無聲化한다는 것을 音聲學的으로 實驗한 분은 韓甲洙 님이다. 氏는 이 事實을 1962年 12月 한글학회 研究 發表會 席上에서 發表한 일이 있고, 李崇寧님도 이에 言及한 일이 있다. <國語學概說. pp. 161—2 참조>

論的으로는 어떻게 分析할 것인가?

이 말의 첫머리의 子音 連結은 매우 複雜하여서 CCCV-의 形式이 되어 있다. 勿論 이러한 語頭 子音群은 國語의 正常的인 틀로서는 許容되지 않는다. 이러한 音素 連結을 국어의 틀에 맞춘다면, 세 子音 사이에 母音을 어디에다 집어넣어야 될 것인데, 어디에다가 넣어야 할 것인가?

CCvCV-와 같이 母音을 넣을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語頭 子音群이 如前히 存在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CvCvCV-와 같이 母音을 둘이나 집어넣을 必要는 없다. CvCCV- 처럼 第一 第二 子音 사이에 한 母音만 집어넣으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語頭 子音群도 사라지고, 母音과 母音 사이에 連結 可能한 두 子音 音素가 介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 介在되는 母音을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두 子音이 連結되어 있는 사이이니까, 그 間隙이 子音에 가장 가까운 母音이어야 한다. 卽 /i/나 /u/나 /ï/ 程度의, 母音 中에서도 間隙이 가장 작은 소리임을 要한다. 그런데 첫 [tʃʰ]는 脣·軟口蓋音化된 소리다. 子音이 脣·軟口蓋音化되기 위해서는 그 뒤의 母音은 /u/임을 要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tʃʰʷktʃʰuːkhada]를 音素論的으로는 /tʃʰuk—/로 解釋하는 것이다. /u/는 [tʃʰ]와 [k] 사이에서 無聲化하여 [u̥]로 實現되고, 無聲의 [u̥]는 [tʃʰ]와 [k] 사이에서는 잘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다. 卽 /u/는 그 自體의 音聲的인 性格으로는 그 存在가 分明하지 못하고, 그 앞에 있는 [tʃʰ]의 非辨別的 資質인 脣·軟口蓋性에 依해서 겨우 그 存在가 認定되는 程度에 지나지 않는다. 한 音素의 非辨別的(剩餘的) 資質이 그와 隣接해 있는 音素의 存在를 드러내어 주는 구실을 하는 일이 있음은 앞에서 지적한 바이다(「변이음의 이웃돕기」)[34]. 音韻學에서는 主로 辨別的 資質에만 關心을 集中하게 되는 것이나, 非辨別的 資質이라 해서 죄다 돌보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님은 이로써 알 수 있을 것이다.

「칙칙하다」는 [tʃʰiktʃʰikhada] 또는 [tʃʰʲiktʃʰʲikhada]로 發音된다. 卽 第一 音

(34) pp. 126, 165 참조.

節의 [tʃ^{h}]는 硬口蓋音化되면서 強한 氣를 수반하여 바로 [k]에 連結되고, 第二音節은, 때로는 第一 音節과 같이 發音되거나, 또는 그 사이에 [i] 母音을 넣어서 發音하거나 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리도 音素論的으로는 /tʃ^{h}iktʃ^{h}ik—/으로 解釋되는 것이니, 이 경우에 /i/가 선택된 것은, [tʃ^{h}]의 非辨別的 資質인 硬口蓋性에 말미암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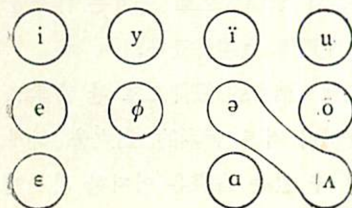
一般的으로, 有氣音과 無聲 子音 사이의 間隙 작은 母音은 無聲化하여, 그 存在는 오직 그 앞 소리의 非辨別的 資質에 依賴하고 마는 傾向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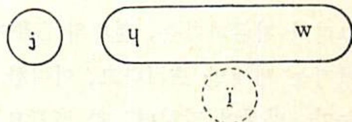
「휘파람」도 [ɸ$^{\text{ɥ}}$p^{h}aram]으로 내는 일이 많다. 即 [ɸ]는 唇·硬口蓋音化하여, 圓唇化와 硬口蓋化가 同時에 作用하는 소리로 내며, [p^{h}]와의 사이에는 有聲의 母音은 存在하지 않는다. 그런데 /h/에 唇·硬口蓋의 非辨別的 資質을 賦與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의 母音 [y]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y/ 母音을 介在시켜, 音素論的으로는 /hyp^{h}alam/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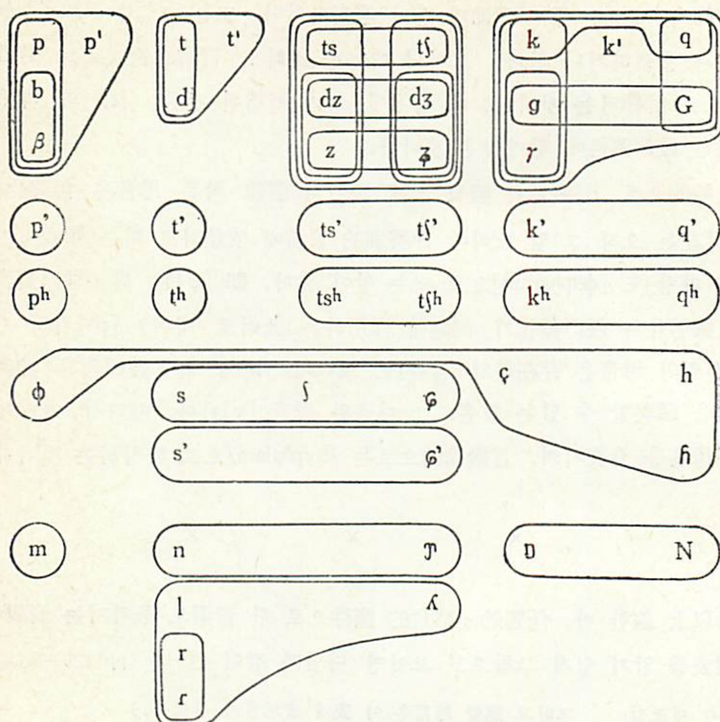
以上 論한 바, 任意的·結合的 條件으로 한 音素로 뭉쳐지는 音聲의 一覽表를 알기 쉽게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이 된다. (pp. 129—30의 音聲表와 대조할 그리고 無聲 母音은 이 表에 表示되지 않았다.)

<母 音> <半母音>





<子 音>



6) 辨別的으로 對立하는 소리

以上에서 우리는, 몇개의 音聲을 한 音素의 變異音으로 뭉치는 作業을 通하여, 국어의 音素 分析의 거의 마지막 段階에 到達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몇개의 音聲이 그 任意·結合的 條件으로 한 音素로 뭉쳐지는 데에만 注目하고, 어떠한 소리들끼리 서로 音素的 對立을 하게 되는가, 바꾸어 말하면, 한 音素로 뭉쳐질 수 없는 音聲은 어떠한 것들인가 하는 문제는 論議하지 않았다.

[k]와 [g]가 한 音素로 뭉쳐지는 문제는 論議해 왔으나, [k]와 [k']가

한 音素로 뭉쳐지느냐 않느냐 하는 따위의 문제는 論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어떠한 소리끼리 서로 音素的 對立을 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說明하기로 한다.

서로 音聲的으로 距離가 먼 소리들은 한 音素로 묶어질 可能性이 없다. 이를테면 [i]와 [a]는 도저히 한 音素의 變異音이 될 可能性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소리를 「의심 없는 짝」(nonsuspicious pair of sounds)[35]이라 한다. 의심 없이 音素的으로 對立한다는 뜻이다. 의심 없는 짝은 두개의 別個 音素로 分離될 것임은 勿論이다.

그러나 서로 비슷한 音聲들은 한 音素의 變異音이 될 可能性을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i]와 [e]는, 서로 까가운 자리에서 나기 때문에, 한 音素의 變異音이 될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리를 「의심스런 짝」(suspicious pair)[36]이라 한다. 한 音素의 變異音이 될까 의심해 볼만한 소리란 뜻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의심스런 짝을 檢討하여, 그것들이 任意·結合的 條件으로 한 音素로 뭉쳐지는 일을 說明해 왔으나, 아직 모든 의심스런 짝을 죄다 檢討한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는, 한 音素로 뭉쳐지지 않고, 音素的(辨別的)으로 對立하는 의심스런 짝을 檢討하는 것인데, 辨別的 對立의 가장 明白한 證據는 準同音語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卽 [i]와 [e]가 한 音素의 變異音이 아니고, 別個의 音素로서 辨別的으로 對立하는 것은, 바로 이 두 소리의 差異만에 依해서 뜻이 달라지는, 所謂 「最少的 差異」(minimal distiction)[37]의 準同音語 [pe](베)와 [pi](비)의 存在로 말미암아서이다.

---

(35) Pike: Phonemics. p. 243.
(36) 같은 책. pp. 69, 251.
(37) D. Jones: The Phoneme. p. 15 以下.

그러나, 辨別的 對立은 꼭 準同音語가 發見되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말한 바, 의심 없는 짝의 경우는 準同音語가 發見되지 않더라도 音素的으로 對立되는 것이며, 또 의심스런 짝에 있어서도, 完全한 準同音語가 아닐지라도, 그 音聲的 환경이 아주 서로 비슷해서, 한 音素가 그 환경에 依해서 變異되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말하자면 「準準同音語」가 發見되더라도 辨別的 對立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 音素가 몇개의 變異音으로 나타나는 것은, 환경의 支配를 받아서 無意識·自動的으로 다르게 實現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환경이 두개의 다른 變異音으로 實現시킬 程度로 다르지 않을 때는, 비록 準同音語가 發見되지 않더라도, 두 소리는 辨別的으로 對立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tal]과 [tʰaːl]은 「二重的 差異」(duple distinction)[38]로서 準同音語는 아니다. 그러나 한 音素가 [-al] 환경에서는 [t]로 實現되고, [-aːl] 환경에서는 [tʰ]로 實現되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이것은 말하자면 準準同音語이며, 이 두 말로 하여, [t]와 [tʰ]가 辨別的 對立이란데 對한 證據는 얻어지는 것이다.

卽, 꼭 같은 환경에서 交替될 수 있어서 그 交替로 말미암아 말의 뜻이 分化될 때는, 그 交替되는 소리는 辨別的으로 對立되는 것이나, 그렇지 않더라도, 두 소리가 아주 비슷한 환경에서 交替될 수 있어서, 그 交替는, 한 音素가 환경의 支配를 받아 變異되었다고 생각될 수 없을 때는, 이 두 소리는 亦是 辨別的으로 對立되는 것이다. 卽 別個의 音素로 分離되는 것이다.

以下, 지금까지 分析해 온 모든 音素에 대해서, 그 變異音과, 그리고 모든 다른 音素와 差別되는 모습을 說明해 나가는데, 모든 다른 音素와의 差別은, 다른 모든 音素를 죄다 對比시킬 必要는 없이, 그와 가까운 音素와의 對比만으로 足한 것이다. 音聲的 性格이 아주 다른 소리들은 의심할 餘地없이 別個 音素로 分離되기 때문이다.

---

(38) 같은 책. P 17.

<子 音>

/p/

變異音 :

[p] : 語頭에 나타남이 原則이고, 語中의 無聲 子音 다음에도 쓰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대체로 된소리가 되는 것이 普遍的인 경향인듯 하다. (된소리인지 아닌지 잘 구별되지 않는다.)

[b] : 有聲音 사이에 나타난다.

[β] : 間隙 3度 以上의 소리 사이에서 [b]와 任意로 變異된다.

以上의 세 소리는 모두 音節 初聲으로 쓰인다.

[p˺] : 音節의 끄트머리(終聲)에서만 나타난다.

다른 音素와의 對立 : /p/ 音素와 비슷한 音素는 /p'/와 /pʰ/, 그리고 /h/와도 가까운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p/의 變異音 [β]와 /h/의 變異音 [ɸ]가 가깝기 때문이다.[39]

/p/ : /p'/——/pul/(火) : /p'ul/(角), /kopi/(고비) : /kop'i/(고삐)의 準同音語로, 이 두 소리는 辨別的(音素的)으로 對立된다.

/p/ : /pʰ/——/pul/(火) : /pʰul/(草), /kalpi/(갈비) : /kalpʰi/(갈피)의 準同音語로, 이 두 소리의 對立은 音素的이다.

/p/ : /h/——/iːpu/[iːβu](二部) : /iːhu/[iːɸu](以後)의 準同音語로 이 두 소리의 對立은 辨別的이다.

/p'/

變異音 : 이 音素의 變異音은 하나뿐인듯 하나, 母音 사이나, 또는 有聲子音과 母音 사이에 介在될 때는, 앞의 有聲音의 聲을 빨리 끊어버리고, 따라서 /p'/의 持續이 꽤 길게 繼續되어서, 母音 사이에서는 重複 子音 乃至 長子音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일이 있다. 따라서 /kop'i/(고삐)의 /ko/ 音節은 거의 閉音節에 가까운 느낌을 주게 된다.

---

(39) /p/와 /t/는 가까운 位置에서 調音되어서 비슷한 소리로 볼 수도 있으나, 이 두 音素의 거리는 相當히 멀게 느껴지므로, 對比의 對象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 音素는 音節 初聲으로만 나타나고 終聲으로는 나타나지 않으나, 母音 사이에서는 앞 音節의 終聲을 兼한듯 한 印象을 주게 된다.

다른 音素와의 對立 : /p'/와 비슷한 音素는 /p/, /pʰ/ 程度인데,[40]

/p'/ : /p/는 앞에 이미 說明되었고,

/p'/ : /pʰ/——/p'ul/(뿔) : /pʰul/(풀)의 準同音語로, 이 두 音素는 辨別的으로 對立된다.

/pʰ/

變異音 : 이 音素도 /p'/와 같이, 현저히 다른 여러 變異音이 나타나지 않으나,[41] 有聲音 다음에서는, 앞의 有聲音의 聲을 빨리 끊어버리고, /pʰ/는 꽤 길게 持續되어서, 重複 子音 乃至는 長子音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일이 있다. 따라서 /apʰïta/(아프다)의 /a/ 音節은 閉音節에 가깝게 된다.

그리고 이 音素도 音節의 初聲으로만 쓰이나, 母音 사이에서는 앞 音節의 終聲을 兼한듯 한 印象을 준다.

다른 音素와의 對立 : 이와 가까운 소리는 /p/, /p'/ 程度인데, 이들 音素와의 對比는 앞에 이미 끝냈다.

/t/

變異音 :

[t] : 語頭에 나타남이 正常的이고, 無聲 子音 다음에도 나타나는듯 하나, 이 경우에는 一般的으로 된소리로 내는 것이 普通이다.

[d] : 有聲音 사이에 나타난다.

以上의 두 變異音은 모두 音節 初聲으로만 나타난다.

[t˺] : 音節 終聲으로만 나타난다.

다른 音素와의 對立 :

/t/ : /t'/——/tal/(달) : /t'al/(딸)의 準同音語로, 이 두 音素는 辨別的 對立

---

(40) /p'/ : /t'/의 對比도 위와 같은 理由로 不必要하다.

(41) 「피」와 「포」에 있어서의 입술의 모습은 현저히 다르나, 이 정도의 다름은 여기에서는 變異音으로 考慮하지 않았다.

이다.

/t/ : /tʰ/——/tal/(달) : /tʰaːl/(탈)과, /toːk'i/(도끼) : /tʰok'i/(토끼)와 같이 매우 비슷한 位置에서 交替될 수 있는 點으로 보면, 이 두 소리의 對立은 音素的이다. 그것은 이 두 소리가 그 다음 母音의 길이에 依해서 自動的·無意識的으로 變異되었다고 생각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t/ : /č/[42]—— /tali/(다리) : /čali/(자리)로 두 音素는 辨別的.

/t/ : /l/——/čatu/(자두) : /čalu/(자루)로 亦是 두 소리의 對立은 音素的이다.

/t'/

變異音 : 이 音素는 현저히 다른 變異音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有聲音에 이어날 때는 앞의 소리의 聲을 빨리 끊게 하고, 그 代身 /t'/ 音素 自體가 꽤 길어진다. 그러므로 母音 사이에 끼이게 되면, 앞 音節은 閉音節과 같은 印象을 주게 된다. 卽 /tʰok'i/(토끼)의 /tʰo/ 音節은 閉音節의 印象을 준다. 音節의 初聲으로만 나타나나, 母音 사이에서는 앞 音節의 終聲을 兼한 듯한 印象을 준다.

다른 音素와의 對立 : 이와 가까운 音素는 /t/, /tʰ/, /č'/ 程度이다.

/t'/ : /t/——앞에 이미 說明되었음.

/t'/ : /tʰ/——/t'akʰata/(딱하다) : /tʰakʰata/(탁하다)의 準同音語로, 이 두 소리는 音素的으로 對立한다.

/t'/ : /č'/——/t'ata/(따다) : /č'ata/(짜다)의 準同音語로, 이 두 소리도 音素的으로 對立된다.

/tʰ/

變異音 : 이 音素도 현저히 다른 變異音은 가지지 않았으나, /pʰ/나 /t'/의 경우처럼, 有聲音 사이에 介在될 때는 앞의 有聲音을 빨리 끊게 하고, 이 音素 自體는 그 代身 若干 길어진다. 따라서 앞에 開音節이 올 때는, 이것

(42) /tʃ/는 한 音素이기 때문에, 그것을 表示할 兼, 또한 便宜를 위하여 앞으로는 /č/로 表記하기로 한다. 따라서 「ㅊ」은 /čʰ/로 表記된다.

은 閉音節의 印象을 주게 된다. 即 /katʰɛk/(家宅)의 /ka/ 音節은 閉音節의 印象을 주게 된다.

이 音素도 音節의 初聲으로만 나타나나, 母音 사이에서는 앞 音節의 終聲을 兼한듯 한 印象을 준다.

다른 音素와의 對立: 이 音素와 가까운 소리들은, /t/ /t'/, /čʰ/ 程度인데, /t/, /t'/와의 對立이 音素的이란 點은 앞에 이미 說明하였다.

/tʰ/ : /čʰ/——/tʰata/(타다) : /čʰata/(차다)의 準同音語로 이 두 소리의 對立은 音素的이다.

/č/

變異音:

[tʃ]: 語頭에 나타남이 原則이고, 語中에서는 無聲 子音 다음에 나타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된소리로 되는 것이 普遍的인 현상이다.

[ts]: 앞의 [tʃ]와 任意로 變異되는데, 出身 地方을 어느 程度 暗示해 주기도 하나,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dʒ]: 有聲音 사이에서 나타난다.

[dz]: 위의 소리와 任意로 變異되는데 이 두 소리의 관계는 [tʃ]와 [ts]의 관계와 同一하다.

[ʑ]: 母音 사이에서 [dʒ]와 任意로 變異되는데, [dʒ]보다 [ʑ]가 오히려 一般的인 發音이다.

[z]: 母音 사이에서 [dz]와 任意로 變異되는데, [dz]보다 [z]가 오히려 一般的이다.

이 音素도 音節의 初聲으로만 쓰이고 終聲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른 音素와의 對立: 이와 가까운 소리는 /č'/, /čʰ/, /t/, /k/ 程度이다.

/č/ : /č'/——/čata/(자다) : /č'ata/(짜다)로, 이 두 소리의 對立은 音素的이다

/č/ : /čʰ/——/čata/(자다) : /čʰata/(차다)의 準同音語로, 이 두 소리의 對立은 音素的이다.

/č/ : /t/——/čali/(자리) : /tali/(다리)로 音素的 對立.

/č/ : /k/——/čuːl/(줄) : /kuːl/(굴)로 音素的 對立.

/č'/

變異音 :

[tʃ'] : 一般的인 發音으로서, 有聲音 사이에서는 앞의 有聲音을 짧게 하고 이 音素는 若干 길어진다. 따라서 /kaːč'a/(가짜)의 /kaː/ 音節은 普通의 長音節보다 현저히 짧아져서, 閉音節의 印象을 주게 된다.

[ts'] : 앞의 소리와 任意로 變異되는데, /č/를 [ts]로 發音하는 사람은 이 音素를 [ts']로 發音한다.

이 音素도 音節의 初聲으로만 쓰이는데, 母音 사이에서는 앞 音節의 終聲을 兼한듯 한 印象을 준다.

다른 音素와의 對立 : 이 音素와 가까운 소리는, /č/, /čʰ/, /t'/, /k'/인데 다음과 같은 準同音語로서, 모두 音素的으로 對立된다.

/č'/ : /č/——/č'ata/(짜다) : /čata/(자다)

/č'/ : /čʰ/——/č'ata/(짜다) : /čʰata/(차다)

/č'/ : /t'/——/č'ata/(짜다) : /t'ata/(따다)

/č'/ : /k'/——/č'ata/(짜다) : /k'ata/(까다)

/čʰ/

變異

[tʃʰ] : 一般的인 發音으로서, 有聲音 사이에서는 앞의 有聲音의 聲을 빨리 끊게 하여, 이 소리는 꽤 길게 된다. 따라서 開音節에 이어날 때는, 이 開音節은 閉音節인듯 한 印象을 주게 된다. 即 /tɛːčʰu/(대추)의 /tɛː/ 音節은 普通의 긴 音節보다 꽤 짧게 發音되면서 閉音節의 印象을 받게 된다.

[tsʰ] : 위의 소리와 任意로 變異되는데, /č/를 [ts]로, /č'/를 [ts']로 發音하는 것과 같은 경향이다.

이 音素는 音節 初聲으로만 나타나나, 母音 사이에서 날 때는 앞 音節의 終聲을 兼한듯 한 印象을 주게 된다.

다른 音素와의 對立 : 이 音素와 가까운 소리는 /č/, /č'/, /tʰ/, /kʰ/ 들인데, 다음 準同音語로, 그 對立은 모두 音素的이다.

/čʰ/ : /č/——/čʰata/(차다) : /čata/(자다)

/čʰ/ : /č'/——/čʰata/(차다) : /č'ata/(짜다)

/čʰ/ : /tʰ/——/čʰoŋ/(총) : /tʰoŋ/(통)

/čʰ/ : /kʰ/——/čʰo/(초) : /kʰo/(코)

/k/

變異音 :

[k] : 語頭에 나타남이 原則이며, 語中의 無聲 子音 다음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된소리로 되는 것이 一般的 傾向이다. 그리고 /i/나 /e/와 같은 前舌 母音 앞에서는 앞-여린-입천장-소리로 나고, 다른 母音 앞에서는 가운데-여린-입천장-소리가 된다.

[g] : 有聲音 사이에 나타난다. 그리고 앞의 [k]의 경우와 같이, /i/, /e/와 같은 前舌 母音 앞에서는 앞-여린-입천장-소리로 나고, 다른 母音 앞에서는 가운데-여린-입천장-소리로 난다.

[ɤ] : 間隔 3度以上의 有聲音 사이에서 위의 [g]와 任意로 變異된다. 但 이 경우에는 [g]보다 [ɤ]가 더 普遍的이다.

[q] : [w]나 [u], [o] 앞에서, [k]와 任意로 變異된다. 다만 [q]는 좀 과장된 發音이다.

[G] : 위의 [q]와 같은 환경에서 [g]와 任意로 變異되는데, [G]는 좀 과장된 發音이다.

위의 다섯 變異音은 모두 音節 初聲으로만 나타난다.

[k˺] : 音節 終聲으로만 나타난다. 그리고 그 앞 母音에 따라 앞-여린-입천장-소리와 가운데-여린-입천장-소리로 나게 된다.

다른 音素와의 對立 : 이 音素와 가까운 소리로서는, /k'/ /kʰ/, /č/를 들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準同音語의 存在로, 그 對立은 모두 音素的이다.

/k/ : /k'/——/kata/(가다) : /k'ata/(까다)

/k/ : /kʰ/——/kal/(갈) : / kʰal/(칼)

/k/ : /č/——/kata/(가다) : /čata/(자다)

/k'/

變異音 :

[k'] : [k]나 [g]의 경우처럼, /i/, /e/와 같은 前舌 母音 앞에서는, 앞-여린-입천장-소리로 나고, 그 밖의 母音 앞에서는, 가운데-여린-입천장-소리로 나게 된다. 그리고 有聲音 사이에서는, 앞의 有聲音을 짧게 끊고, 그 自體는 꽤 길어진다. 그 결과 앞의 소리가 母音인 경우에는, 그 開音節은 閉音節인 것 같은 印象을 주게 된다. 卽 /tʰok'i/(토끼)의 /tʰo/ 音節은 閉音節과 같은 印象을 받는다.

[q'] : [w]나 [u], [o] 앞에서, 위의 [k']와 任意로 變異된다.

이 音素는 모두 音節 初聲으로만 나고, 終聲으로 나는 일은 없으나, 다만 母音 사이에 介在될 때는, 뒤의 音節의 初聲이 되는 同時에 앞 音節의 終聲을 兼한듯 한 印象을 주게 된다.

다른 音素와의 對立 : 이 音素와 가까운 소리는, /k/, /kʰ/, /č'/들인데, 다음의 準同音語로 그 對立은 모두 音素的이다.

/k'/ : /k/——/k'ata/(까다) : /kata/(가다)

/k'/ : /kʰ/——/k'ɛta/(깨다) : /kʰɛta/(캐다)

/k'/ : /č'/——/k'ata/(까다) : /č'ata/(짜다)

/kʰ/

變異音 :

[kʰ] : /i/나 /e/와 같은 前舌 母音 앞에서는, 앞-여린-입천장-소리로 나고, 그 밖의 母音 앞에서는, 가운데-여린-입천장-소리로 난다. 그리고 有聲音 사이에 있을 때는, 앞 有聲音의 聲은 빨리 끊어지고, [kʰ]는 꽤 길게 發音된다. 따라서 母音 뒤에 날 때는 앞의 開音節은 閉音節에 가까운 印象을 주게 된다. 卽 /čokʰa/(조카)의 /čo/ 音節은 閉音節에 가까운 印象을 받는다.

[qʰ] : [w]나 [u], [o] 앞에서, 위의 [kʰ]와 任意로 變異된다. 다만 [qʰ]는 좀 과장된 發音에 나타난다.

이 音素는 音節 初聲으로만 나타나고, 終聲으로는 나타나지 않으나, 다만 母音 사이에 있을 때는, 앞 音節의 終聲을 兼한듯 한 印象을 주게 된다.

다른 音素와의 對立：이 音素와 가까운 소리는 /k/, /k'/, /čʰ/인데, 다음 準同音語의 存在로, 그 對立은 모두 音素的이다.

/kʰ/ : /k/——/kʰal/(칼) : /kal/(갈)

/kʰ/ : /k'/——/kʰɛta/(캐다) : /k'ɛta/(깨다)

/kʰ/ : /čʰ/——/kʰoŋ/(콩) : /čʰoŋ/(총)

/s/

變異音：

[s]： 母音 /a, ə, o, u, e, ɛ, ï, ϕ/ 앞이나 半母音 [w] 앞에 나타난다.

[ʃ]： 母音 /y/와 半母音 [ɥ] 앞에 나타난다.

[ɕ]： 母音 /i/나 半母音 /j/ 앞에 나타난다.

이 音素는 音節의 初聲으로만 나타나고 終聲으로는 나타나지 않음이 原則이나, 다만 母音과 /s/ 사이에서만은 [s] 音이 나타난다. 即 「잣새, 잣송이」의 發音은 [čaːssɛ], [čaːssoŋi]이다. 그리고 /s/ 위에서는 內破音 [t˺]는 나타나지 않고 [s]만이 나타나게 된다. 「듣소, 믿습니다」의 「ㄷ」 받침은 모두 摩擦音 [s]로 發音된다.

다른 音素와의 對立： 이 音素와 비슷한 소리는 /s'/ 程度이나, 그 變異音 [ɕ]가 있음으로 해서 /h/와도 가깝다. (/h/의 [ç] 變異音과 가깝다).

/s/ : /s'/——/sal/(살) : /s'al/(쌀)의 準同音語로, 이 두 소리의 對立은 音素的이다.

/s/ : /h/——이 두 音素가 가까워지는 것은, /i, j/ 앞에서인데 /silčʰɛk/(失策)과 /hilčʰɛk/(詰責)의 準同音語로 이 두 소리는 音素的으로 對立된다.

/s'/

變異音：

[s']： /i, j/ 以外의 다른 母音 앞에 나타난다.

[ɕ']： /i, j/ 앞에 나타난다.

이 音素는 音節의 終聲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初聲으로 쓰이나, 母音 사이에 들어가게 될 때는, 앞 音節의 母音을 빨리 끊게 하여, 이 音節이 閉音節 같은 印象을 주게 된다. 卽 /pis'ata/(비싸다)의 /pi/ 音節은 閉音節에 가까운 印象을 준다.

다른 音素와의 對立 : 이 音素와 가까운 소리는 /s/ 程度인데, 그것이 音素的 對立임은 앞에서 이미 밝혀졌다.

/h/

變異音 :

[h] : 一般的으로 /h/ 音素는 空洞 마찰(cavity friction)의 [h]로 實現되나, 그 位置에 따라, 다음 여러 소리와 任意로 變異되는 일이 있다.

[ɸ] : /u/, /ϕ/, /y/ 따위 圓唇 母音 앞에서 [h]와 任意로 變異되는데, [ɸ]는 /h/를 多少 強調하려는 데서 나타나게 된다.

[ç] : /i, j/ 앞에서 /h/와 任意로 變異된다. [ç]는 /h/를 多少 強調하려는 데서 나타나게 된다.

[ɦ] : 有聲音 사이에서 [h]와 任意로 變異되나, 이 경우에는 [h] 편이 強調되는 發音이 된다.

이 音素는 音節의 終聲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初聲으로만 쓰이는데, 有聲音 사이에서는 [ɦ]로 變異되는 것이 普遍的인 現象이므로, 聽覺上으로는 이 變異音은 잘 청취되지 않아서, 完全히 脫落하고 마는 일이 많다.

다른 音素와의 對立 : 이 音素와 가까운 소리는, 그 變異音의 관계로 해서, /p/와 /s/이다.

/h/ : /p/——/h/의 變異音 [ɸ]와 /p/의 變異音 [β]가 가까운데, 이 두 소리가 音素的 對立임에 대해서는 이미 說明하였음.

/h/ : /s/——/h/의 變異音 [ç]와 /s/의 變異音 [ɕ]가 가까운데, 이 두 소리의 音素的 對立임에 대해서도 이미 說明한 바이다.

/m/

이 音素는 變異音이 나타남이 없으며, 그 나타나는 位置도 매우 自由롭고

다른 音素와의 對立도 매우 明白하여, 다른 音素와의 對比가 不必要하다.

/n/

變異音:

[n]: /i, j/ 以外의 母音 앞에 나타난다.

[ɲ]: /i, j/ 앞에 나타난다.(이 位置에서는 [n]와 任意로 변이되는 일도 있다)

이 音素도 그 位置가 매우 自由로워서, 語頭, 語中, 語末에 自由로이 나타날 수 있다.

다른 音素와의 對立: 이와 비슷한 소리는 /ŋ/, /l/이다.

/n/ : /ŋ/——/pjəːni/(變異) : /pjəːŋi/(병이)의 準同音語로, 그 對立은 音素的이다.

/n/ : /l/——/pjəːni/ : /pjəːli/(별이)의 準同音語로, 이 對立은 音素的이다.

/ŋ/

變異音:

[ŋ] : 一般的인 發音인데, /i,e/ 따위 前舌 母音과 접촉될 때는 앞-여린-입천장-소리로, 그리고 그 밖의 母音과 접촉될 때는 가운데-여린-입천장-소리로 나타난다.

[N] : /u/나 /w/ 앞에서 과장된 發音으로 나타나는데, [ŋ]와 任意로 變異된다.

이 音素는 語頭에는 나타나지 않고, 語中이나 語末에만 나타나는데, 母音 사이에 介在되어 있을 때는 뒤 音節의 初聲인지 앞 音節의 終聲인지를 分明히 하기 어렵다.

다른 音素와의 對立 : 이에 가까운 소리는 /n/ 程度인데, 그 音素的 對立임에 대해서는 이미 밝힌 바이다.

/l/

變異音:

[l]: 語末이나 子音 앞에(모두 音節의 終聲으로), 또는 母音 사이에서는, 뒤의 소리가 /i, j/ 아닐때, 重複音으로 나타난다.

[ɾ]: 母音 사이에서 單獨으로 나타난다.

〔ɾ〕: 特別한 發音에서 [r]와 任意로 變異된다.

〔ʌ〕: 母音 사이에서, 뒤의 소리가 /i, j/인 경우 重複되어서 나타난다.

이 音素는 語頭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른 音素와의 對立: 이 音素와 가까운 소리는 /t/, /n/ 程度인데, /l/: /t/, /l/:/n/의 對立이 다 音素的임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하였음.

<母 音>

/i/

이 音素는 그 환경에 依해서 變異되는 일이 별로 있는것 같지 않으나, 다만 有氣音과 無聲 子音 사이에서는 無聲化하는 일이 있다.(칙칙하다).

다른 音素와의 對立: 이 音素와 가까운 소리는 /e/ ,/y/, /ï/이다.

/i/ : /e/——/čhi/(치, 寸) : /čhe/(체, 篩)의 準同音語로, 이 두 소리의 對立은 音素的이다.

/i/ : /y/——/čhi/(치) : /čhy/(취, 산나물)의 準同音語로, 이 두 소리의 관계는 音素的 對立이다.

/i/ : /ï/——/kil/(길) : /kïl/(글)의 準同音語로, 두 소리는 音素的 對立.

/e/

이 音素도 환경에 따르는 變異가 별로 나타나는 것 같지 않다.

다른 音素와의 對立: 이 音素와 가까운 소리는 /i/, /ɛ/, /ϕ/, /ə/인데, 다음과 같은 準同音語로 그 對立은 모두 音素的이다.

/e/ : /i/——앞에 이미 說明하였음.

/e/ : /ɛ/——/te/(데, 處) : /tɛ/(대, 竹)

/e/ : /ϕ/——/te/ : /tϕ/(되, 升)

/e/ : /ə/——/ne/(네) : /nə/(너)

/ɛ/

이 音素도 환경에 따라 變異되는 일이 별로 있는 것 같지 않다.

다른 音素와의 對立: 이 音素와 가까운 소리로서는 /e/, /a/를 들 수 있

을 정도인데, 다음 準同音語로, 그 對立은 모두 音素的이다.

/ɛ/ : /e/——앞에서 說明하였음.

/ɛ/ : /a/——/k'ɛta/(깨다) : /k'ata/(까다)

/y/

[ɥi] 重母音 代身에 [y] 單母音을 쓰는 경향이 차츰 勝해가는듯 한데, 그렇다고 [ɥi]가 完全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wi/[ɥi] 重母音과 /y/ 單母音을 다 같이 두어두기로 하였다.

환경에 따르는 變異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다른 音素와의 對立 : 이 音素와 가까운 소리는 /i/, /ï/, /ϕ/, /u/인데, 다음 準同音語로 이 對立들은 모두 音素的이다.

/y/ : /i/——이미 說明하였음.

/y/ : /ï/——/ky/(귀) : /kï/(그)

/y/ : /ϕ/——/ty/(뒤) : /tϕ/(되)

/y/ : /u/——/ty/(뒤) : /tu/(두, 二)

/ϕ/

이 音素도 환경에 따르는 變異가 별로 나타나는 것 같지 않다.

다른 音素와의 對立 : 이 音素와 가까운 소리로서는 /e/, /y/, /ə/, /o/를 들 수 있는데, 다음 準同音語로, 그 對立은 音素的이다.

/ϕ/ : /e/——앞에 說明하였음.

/ϕ/ : /y/——亦是 앞에 說明하였음.

/ϕ/ : /ə/——/tϕːni/(되니, 「되다」의 活用) : /təːni/(더니, 「덜다」의 活用)

/ϕ/ : /o/——/tϕːni/ : /toːni/(도니, 「돌다」의 活用)

/ï/

이 音素도 환경에 따르는 變異가 별로 나타나는 것 같지 않다.

다른 音素와의 對立 : 이 音素와 가까운 소리는 /i/, /y/, /u/, /ə/인데, 다음 準同音語로, 그 관계는 모두 音素的 對立이다.

/ï/ : /i/——앞에 說明하였음.

/ï/ : /y/——亦是 앞에 說明하였음.

/ï/ : /u/——/kïl/(글) : /kul/(굴)

/ï/ : /ə/——/kïli/(그리) : /kəli/(거리)

/ə/

變異音 :

[ə] : 長音일 경우에 [ʌ]와 排他的으로 나타난다.

[ʌ] : 短音일 경우에 [ə]와 排他的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變異音의 區別 使用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사람에 따라서는 長短의 對立이 韻素的으로 機能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 變異音도 그리 잘 區別되어 쓰이지 않는다. 여기의 記述은 40~50세 이상의 서울 태생의 發音을 基準한 것이다. (長短의 韻素 對立을 가진 말을 사용하는 사람도, 이 두 변이음의 구별을 하지 않는 일이 많이 있다.)

다른 音素와의 對立 : 이 音素와 가까운 소리는 /ï/, /ϕ/, /e/, /o/, /a/인데, 다음 準同音語로 이 對立은 모두 音素的이다.

/ə/ : /ï/——앞에 說明하였음.

/ə/ : /ϕ/——앞에 說明하였음.

/ə/ : /e/——앞에 說明하였음.

/ə/ : /o/——/təːlta/(덜다) : /toːlta/(돌다).

/ə/ : /a/——/məkta/(먹다) : /makta/(막다).

/a/

이 音素는 그 환경에 依한 變異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或은 /aːnnïnta/(안는다, 抱)의 /a/는 後舌 低母音이고, /annïnta/ (앉는다)의 /a/는 前舌 低母音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一般 發音으로는 /a/는 그러한 變異音을 가지는 것 같지 않다.

다른 音素와의 對立 : 이와 가까운 소리는 /ɛ/와 /ə/ 程度인데, 모두 音

素的으로 對立한다.

/a/ : /ɛ/, /a/ : /ə/——앞에 說明하였음.

/u/

이 音素도 환경에 依한 변이가 별로 나타나는 것 같지 않으나, 다만 有氣音과 無聲 子音 사이에서는 無聲化하는 일이 있다. (축축하다)

다른 音素와의 對立 : 이와 가까운 소리는 /ï/, /y/, /o/인데, 그 對立은 모두 音素的이다.

/u/ : /ï/——앞에 說明하였음.

/u/ : /y/——앞에 說明하였음.

/u/ : /o/——/uli/(우리) : /oli/(오리).

/o/

이 音素도 환경에 依한 變異가 별로 나타나는 것 같지 않다.

다른 音素와의 對立 : 이와 가까운 소리는 /u/, /ϕ/, /ə/ 程度인데, 앞에 說明한 바와 같이, 모두 音素的으로 對立한다.

<半母音>

/j/

變異音 :

[j↓] : [i] 가까운 位置에서 다른 母音의 位置로 下降·後退하는 소리로서, 母音 앞에 나타나는 變異音인데, 後續하는 母音의 位置에 따라 下降·後退의 經路가 여러가지로 달라진다. 또 /jo/, /ju/에 있어서는 입술도 둥글어지는데, 圓唇性은 이 半母音의 辨別的 資質이 아니다.

[j↑] : 다른 母音의 位置에서 [i]의 位置에로의 上昇·前進하는 變異音인데 母音 뒤에서 [j↓]와 排他的으로 나타난다. 이 變異音은 「의」를 [ïj]로 發音할 때만 나타나고, 다른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有氣音 다음에서는 거의 無聲化하여 나타나게 된다. (「폐, 켜」 따위의 /j/는 그 前半部는 거의 完全히 無聲化한다).

이 音素의 辨別的 資質은, 혀가 [i] 位置에서 下降・後退, 또는 [i]에로 上昇・前進하는 데에 있고, 입술의 움직임은 剩餘的 資質에 속한다.

다른 音素와의 對立 : 이 音素와 가장 가까운 소리는 單母音의 /i/인데, 그 對立은 音素的이다.

다른 母音 앞에 位置할 경우 : ——

/iəla/(이어라) : /jəla/(여라, 戴), /iaŋ/(移秧) : /jaŋ/(羊)

/iut/(이웃) : /jut/(윷), /kiul/(기울) : /kjul/(귤)

/jukio/[(43)](六・二五) : /jukjo/(儒敎)

다른 母音 뒤에 位置할 경우 : ——이 경우에는 完全한 準同音語는 찾기 어려우나,

/ïjmi/(의미) : /kïika/(그이가)

에 있어서는 이 두 소리는 비슷한 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다.

/w/

變異音 :

[ɥ] : /i/ 母音 앞의 變異音.

[w] : 다른 母音 앞에 나타나는데, 그 後續 母音의 位置에 따라 下降・前進의 經路는 꽤 현저히 달라진다.

그리고 有氣音 다음에서는 거의 無聲化한다.(「쾌」의 [w]는 거의 無聲音이다).

이 音素의 辨別的 資質은, 입술의 圓→平 作用에 있고, 혀의 下降・前進은 剩餘的 資質이다. 따라서 입술만 圓→平으로 움직이고 혀는 固定되어 있는 [ɥi]의 [ɥ]가 이 音素의 變異音이 될 수 있다. (이에 對해서 /j/ 音素는 혀의 作用이 辨別的으로 機能하고, 입술의 움직임은 剩餘的이다.)

다른 音素와의 對立 : 이 音素와 가장 가까운 소리는 成節 母音의 /o/, /u/인데, 다음 準同音語로 그 對立은 모두 音素的이다.

/koan/(考案) : /kwan/(棺), /koawən/(孤兒院) : /kwawən/(果園)

---

(43) /juŋnio/로 發音하는 일도 있으나, /jukio/란 發音도 相當히 널리 쓰이고 있다.

/kui/(구이, 「굽다」의 派生 名詞) : /kwi/(貴)

/uitoŋ/(牛耳洞) : /wihata/(위하다)

/i̯/

「의」를 /i̯i/로 發音할 경우에 나타나는 半母音인데, 이 경우에는 /ï/와 音素的으로 對立한다.

/i̯imi/(의미) : /kïika/(그이가)

그러나 여기의 分析으로는, [ïj] 發音을 取하고 [i̯i]는 그 任意的 變異音으로 보았다.

以上으로 우리는 國語의 音素 分析을 完全히 마친 셈인데,(44) 다음으로는 이러한 音素들이 어떻게 서로 關聯되어 있느냐를 考察하기로 한다.

2. 音素 體系

앞 章에서 論한 바를 總括하면, 국어 音素는 모두 子音 19, 半母音 2, 單母音 10, 重母音 12가 된다.

<子音>

/p	t	č	k/
/p'	t'	č'	k'/
/pʰ	tʰ	čʰ	kʰ/
	/s		h/
	/s'/		
/m	n		ŋ/
	/l/		

(44) 組織外的 音素는 正常的인 音素와 같이 세지 않았다.

<半母音>

/j　w/

<單母音>

/i　y　ï　u/
/e　ø　ə　o/
/ɛ　　a/

<重母音>

上昇的: /je　jə　ju/
/jɛ　ja　jo/
/wi/
/we　wə/
/wɛ　wa/
下降的: /ïj/

1) 各 音素의 辨別的 資質

말의 뜻을 分化하는 데 관여할 수 있는 音聲的 資質을 辨別的 資質이라 하는데, 위에 들어 보인 音素들은 모두 適切한 位置에서는 말의 뜻을 分化할 수 있기 때문에, 이 音素들의 差異는 모두 말의 뜻을 分化하는 데 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音素들의 相互 差異되는 關係에서 그 辨別的 資質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이다.

<子　音>

位置의 資質: 子音을 辨別할 수 있는 位置는 네 部位로 나눌 수 있다. 卽 兩唇과 舌端·前舌과 後舌과 喉頭의 네 部位인데, 舌端과 前舌 部位의 差異는 辨別的으로 機能하지 못한다. 그것은 /č/, /č'/, /čh/가 이 두 調音部로 變異될 뿐 아니라, /s/, /s'/도 그러하며, 또 響音에 있어서 /n/와 /l/도 亦是 그러하기 때문이다.

	舌端 變異音	前舌 變異音
/č/	[ts]	[tʃ]
/č'/	[ts']	[tʃ']
/čʰ/	[tsʰ]	[tʃʰ]
/s/	[s]	[ʃ,ɕ]
/s'/	[s']	[ɕ']
/n/	[n]	[ɲ]
/l/	[l] [ɾ,r]	[ʎ]

그러나 兩唇과 舌端·前舌과 後舌과 喉頭의 位置的 差異는 音素를 分化할 수 있는 辨別的 資質로 作用한다.

/p/:/t/, /t/:/k/, /p/:/k/, /m/:/n/, /n/:/ŋ/, /m/:/ŋ/, /s/:/h/

그러므로 舌端·前舌의 位置를 앞으로는 單純히 「前舌」로 하여, 兩唇, 後舌, 喉頭와 對立시키기로 한다.

發音 方法의 資質: 크게 障碍音과 響音의 差異가 辨別的으로 作用한다. 卽 /p/:/m/, /t/:/n,l/, /k/:/ŋ/의 差異는 障碍性과 響性이다.

障碍音에 있어서는, 그 位置에 따라서 辨別的 資質이 若干의 差異를 가지게 된다.

兩唇音의

/p/:/p'/:/pʰ/

는 軟音과 硬音과 氣音으로 差別된다. 따라서 兩唇 障碍音에 있어서는 軟性과 硬性과 氣性은 辨別的 資質로서 作用한다.

前舌音의

① /t/:/t'/:/tʰ/

② /č/:/č'/:/čʰ/

에 있어서는 亦是 軟性 硬性 氣性이 辨別的으로 作用하고,

③ /s/:/s'/

에 있어서는 軟性과 硬性이 辨別的으로 作用한다. 그러나 /t/:/č/:/s/, /t'/

:/č'/:/s'/,/tʰ/:/čʰ/를 分化하는 데는 다시 第三의 辨別的 資質이 作用하게 된다.

/t/: /č/: /s/

/t'/:/č'/:/s'/

/tʰ/:/čʰ/

의 各 音素를 差別하는 것은, 그 位置的 資質도 아니고, 軟·硬·氣性의 資質도 아니다. 이것은 오직 그 發音 方法上의 差異, 即 停止性, 破擦性, 摩擦性에 依해서 分別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정지성 파찰성, 마찰성이 辨別的 資質로서 登場한다.

後舌音에 있어서의,

/k/:/k'/:/kʰ/

는, 兩唇音의 경우와 같이, 軟性 硬性 氣性으로 分別된다.

喉頭音은

/h/

하나 뿐이므로 다른 辨別的 資質을 登場시킬 必要가 없다.

響音에 있어서는

/n/:/l/

는 鼻性과 流性으로 分別되기 때문에, 이 두가지 資質은 辨別的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各 音素의 辨別的 資質은 다음과 같이 된다.

/p/ ——兩唇, 軟性, (障碍性)

/p'/——兩唇, 硬性, (〃)

/pʰ/——兩唇, 氣性, (〃)

/t/ ——前舌, 停止, 軟性, (〃)

/t'/ ——前舌, 停止, 硬性, (〃)

/tʰ/ ——前舌, 停止, 氣性 (〃)

/č/ ——前舌, 破擦, 軟性, (〃)

/č'/——前舌, 破擦, 硬性, (〃)

/$\check{c}^{h}$/——前舌, 破擦, 氣性, (障碍性)
/s/ ——前舌, 摩擦, 軟性, (〃)
/s'/ ——前舌, 摩擦, 硬性, (〃)
/k/ ——後舌, 軟性, (〃)
/k'/——後舌, 硬性, (〃)
/k^{h}/——後舌, 氣性, (〃)
/h/ ——喉頭, (〃)
/m/ ——兩脣, 鼻性, (響性)
/n/ ——前舌, 鼻性, (〃)
/ŋ/ ——後舌, 鼻性, (〃)
/l/ ——(前舌), 流性, (〃)

그런데 軟性, 硬性, 氣性, 停止性, 破擦性, 摩擦性, 喉頭性 따위 資質은, 障碍音에만 있고 響音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p/에서 /k^{h}/ 까지에 나타나는 障碍性은 辨別的 資質로서 세우지 않아도, 軟性, 硬性, 氣性 따위에 절로 포함된다. 同時에 響性도 鼻性과 流性에 절로 포함된다.

<半母音>

/j/의 辨別的 資質은, 입술의 圓平에는 相關함이 없이, 오직 혀의 最高點이 [i]의 位置와 다른 母音의 位置 사이로 이동하는 過渡에 있다. 卽 [i]의 位置에서 다른 母音의 位置에로의 過渡, 또는 그 反對로, 다른 母音의 位置에서 [i]의 位置에로의 過渡에 있다.

/w/의 辨別的 資質은, 혀의 移動에는 相關함이 없이, 圓脣에서 平脣으로의 過渡에 있다.

<母 音>

位置의 資質: 音聲學的으로는, 국어 母音의 位置는 세 部位로 나눌 수 있다. 卽 /i, e, ɛ, y, ϕ/는 前舌이고, /ï, ə, a/는 中舌이고, /u, o/는 後舌

이다.

그러나 /ï/와 /u/의 差異나, /ə/와 /o/의 差異는 位置的으로 다를뿐 아니라, 입술의 圓平의 差異를 수반한다. 한편 입술의 圓平의 差異는 前舌 母音에 있어서는 辨別的 資質로서 作用한다. 그러므로 中舌, 後舌 母音에 있어서도 圓唇과 平唇의 差異를 辨別的으로 보고, 그 位置的 差異를 이에 수반되는 剩餘的 資質로 보는 것이 좋다. 따라서 位置의 資質로서는 前舌과 後舌의 對立만을 辨別的인 것으로 보고, 中舌은 後舌에 포함시킬 수 있다.

間隙의 資質: 前舌의 /i/:/e/:/ɛ/나 後舌의 /ï/:/ə/:/a/는 모두 間隙의 差異로 分別된다. 따라서 間隙의 辨別的 資質로는 高·中·低의 세가지를 세울 수 있다.

입술의 모양: /i/://y/, /e/:/ϕ/는 오직 입술의 平:圓으로 差別되고, 中舌을 後舌에 包含시키면, /ï/:/u/, /ə/:/o/도 입술의 平:圓으로 差別된다. 다만 低母音의 /ɛ/와 /a/에 있어서는 입술의 圓平이 辨別的으로 作用하지 못한다. 卽 입술의 圓平의 辨別的 資質은, 低母音에서는 中和된다.

2) 音素의 對立 關係

어떠한 언어의 音素라도, 그들이 서로 緊密히 關聯되어서 하나의 體系를 形成하고 있음은 앞에서 이미 說明한 바인데, 국어의 이러한 音素들도 서로 對立되면서, 緊密히 關聯되어 있는 것이다.

音素의 關聯性은 두 方面으로 考察될 수 있다. 하나는 對立 關係이요, 하나는 統(結)合 關係인데, 本節에서는 對立 關係를, 다음 節에서는 統合 關係를 說明하기로 한다.

(1) 音素의 對立

各 音素는 適切한 條件 下에서는 서로 交替될 수 있고, 그 交替는 말의

뜻을 分化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서로 對立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各 音素의 모든 對立은 等質的인 것은 아니다.

이제 국어 音素의 對立 關係를 몇가지 種類로 나누어 說明하기로 한다.

對立 關係는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1)

兩面 對立과 多面 對立,

比例 對立과 孤立 對立,

有無 對立과 階段 對立과 等値 對立,

不變 對立과 中和 對立.

兩面 對立과 多面 對立: 두 音素에 共通된 辨別的 資質의 總和가 같은 言語의 다른 音素에는 적용되지 않을 때에, 이 두 音素의 對立을 兩面 對立이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를 多面 對立이라 하는데, 국어 音素의 兩面 對立은 다음에 列擧함과 같다.

/s/:/s'/——이 두 音素에 共通된 辨別的 資質의 總和는 前舌(舌端)·摩擦로서, 前舌·摩擦의 總和는 국어의 다른 音素에는 發見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두 音素는 排他的 關係에 있으며, 그 對立은 兩面 對立이다.

/n/:/l/——이 두 音素의 辨別的 資質의 總和는 前舌·響性인데, 前舌·響性의 總和는 이 두 音素에 獨占的이다.

/j/:/w/——국어의 過渡音은 이 두 音素에 局限된다.

/i/:/y/——前舌·高母音은 이 두 音素에 局限된다.

/e/:/ø/——前舌·中母音은 이 두 母音뿐이다.

/ï/:/u/——後舌·高母音은 이 두 母音에 局限된다. /ï/는, 音聲學的으로는 前舌과 後舌의 中間인 中舌 母音이나, 국어에는 中舌과 後舌의 對立은 非辨別的이다.

---

(1) 이에 관해서는,

「I,3,1) 對立 關係」(p. 76 以下)를 볼것.

/ə/:/o/——後舌·中母音은 이 두 音素뿐. /ə/의 變異音 [ʌ]는 相當히 低母音의 位置에 가까워지나, 또 다른 變異音 [ə]가 中母音보다 오히려 高母音의 位置로 끌려가는 傾向이 있기 때문에, /ə/ 音素는 中母音에 定位한다.

/ɛ/:/a/——低母音은 이 두 音素에 局限된다.

/y/:/ϕ/——이 두 音素에 共通된 辨別的 資質의 總和인 前舌·圓唇性은 이 두 音素에 獨占的이다.

/u/:/o/——이 두 音素의 共通된 辨別的 資質의 總和인, 後舌·圓唇性은 이 두 音素에 獨占的이다.

兩面 對立의 두 音素들은 매우 緊密한 關係에 있는 것으로 느껴지며, 따라서 이러한 두 音素에 共通된 辨別的 資質의 總和를 '原音素'라 하여, 이 두 音素를 하나로 뭉치려는 일이 있음은 앞에서 이미 說明한 바와 같다.[2]

以上에서 列擧한 以外의 音素들의 相互 對立은 모두 多面 對立이다. 이를테면 /p/,/t/에 共通된 辨別的 資質, 軟性(障碍性)은 /č/, /k/에도 나타난다. 따라서 이 對立은 多面的이다.

比例 對立과 孤立 對立: 두 音素의 對立과 同一한 性質이, 다른 두 音素 사이에도 成立될 때, 이 두 音素들의 對立을 比例 對立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孤立 對立이라 한다.

/p/:/p'/의 關係는 喉頭 緊張의 有無에 依해서 對立되는 것인데, 이러한 辨別的 資質의 有無로 對立되는 音素는 이 두 音素 以外에,

/t/:/t'/, /č/:/č'/, /k/:/k'/, /s/:/s'/

따위가 있다. 따라서 이 모든 音素들의 對立은 모두 比例的이다.

/p/:/pʰ/의 對立도 氣의 有無에 依해서 分別되어 있는데, 氣의 有無로 對

(2) 「Ⅰ,3,1), (2) 中和作用과 原音素」(p. 82 以下) 볼것.

立되는 音素는, 이 以外에,

/t/:/tʰ/, /č/:/čʰ/, /k/:/kʰ/

들이 있다. 그러므로 이 音素들의 對立도 모두 比例的이다.

/p'/:/pʰ/, /t'/:/tʰ/, /č'/:/čʰ/, /k'/:/kʰ/

의 各 對立의 性質도 모두 한가지로서, 硬性:氣性으로 分別된다. 그러므로 이 各 對立도 모두 比例的이다.

그리고

/p, p', pʰ/ : /m/

/t, t', tʰ/ : /n/

/k, k', kʰ/ : /ŋ/

의 各 對立도 比例的이다.

比例 對立은 이 밖에도 여러 音素사이에 나타나는데,

/p/:/t/, /p'/:/t'/, /pʰ/:/tʰ/, /m/:/n/;

/t/:/k/, /t'/:/k'/, /tʰ/:/kʰ/, /n/:/ŋ/;

/t/:/č/, /t'/:/č'/, /tʰ/:/čʰ/;

/t/:/s/, /t'/:/s'/

따위도 모두 比例的이다.

母音에 있어서는

/i/:/y/는 平脣과 圓脣의 差異인데,

/e/:/ϕ/, /ï/:/u/, /ə/:/o/들도 모두 平脣:圓脣으로 分別된다. 그러므로 이들의 對立도 모두 比例的이다.

그리고 前舌:後舌의

/i/:/ï/, /e/:/ə/, /ɛ/:/a/, /y/:/u/, /ϕ/:/o/

의 對立도 모두 比例的이며,

/i/:/e/, /ï/:/ə/, /y/:/ϕ/, /u/:/o/

는 高:中의 比例 對立이고,

/e/:/ɛ/, /ə/:/a/

는 中 : 低의 比例 對立이다.

그 밖의 對立들은 孤立的이다.

/p/:/t'/, /s/:/n/, /n/:/l/ 等等.

有無 對立: 두 音素 中의, 한편에 있는 音聲的 資質이 다른 편에는 存在하지 않는 對立을 말함이다.

/p/:/p'/, /t/:/t'/, /č/:/č'/, /k/:/k'/, /s/:/s'/

의 다섯 雙의 對立들은 喉頭 緊張의 有無에 依해서 分化되어 있고,

/p/:/pʰ/, /t/:/tʰ/, /č/:/čʰ/, /k/:/kʰ/

의 네 雙의 對立은 氣의 有無로 分化되어 있어서 모두 有無 對立이다.

母音에 있어서는,

/i/:/y/, /e/:/ϕ/, /ï/:/u/, /ə/:/o/

의 比例 對立은, 모두 圓唇性의 有無에 依해서 分化된 有無 對立이다.

階段 對立: 두 雙의 音素의 對立이 同一한 特質의 程度의 差異로 分化되이 있는 것을 階段 對立이라 하는데,

/i/:/e/

는 間隙의 差로 分化되는데,

/e/:/ɛ/

亦是 間隙의 差로 分化되어 있다. 卽 前舌 母音은

/i/ : /e/

/e/ : /ɛ/

와 같이 階段的으로 對立되어 있다.

後舌 母音에 있어서도,

/ï/ : /ə/

/ə/ : /a/

와 같이 階段的으로 對立된다.

/i/와 /ɛ/, /ï/와 /a/는 兩端項이고, /e/와 /ə/는 中間項이다.

等値 對立: 對立의 兩편이 論理的으로 同等한 價値를 가지는 것을 말함인데,

/p/:/t/

는 어떠한 音聲的 資質의 有無로 對立됨도 아니오, 어떠한 音聲的 資質의 階段的 差異로 分化되는 것도 아니며, 그 兩項의 對立的 價値는 서로 同等하다.

/t/:/k/, /s/:/h/ 等等 모두 等値的이다.

不變 對立과 **中和 對立**: 두 音素가 어떠한 位置에서든지 辨別的 機能을 發揮하는 것을 不變 對立이라 하고, 特定한 位置에서는 辨別的 機能을 喪失하는 것을 中和 對立이라 한다.

/p'/, /pʰ/

/t'/, /tʰ/, /s'/, /h/, /č/, /č'/, /čʰ/

/k'/, /kʰ/

는 모두 音節 終聲으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들과 /p/, /t/, /k/와의 對立은 이 자리에서는 各各 中和된다.

/p/:/m/, /t/:/n/, /k/:/ŋ/

의 對立은, 鼻子音 앞의 終聲으로서는 辨別的으로 機能하지 못한다.

母音에 있어서도, / m, p, p', pʰ/ 다음의

/ï/ : /u/

는 辨別的 機能을 喪失하여 中和된다. 卽「므, 브, 쁘, 프」音節과「무, 부, 뿌, 푸」音節은 辨別的으로 機能하지 못하는 것이다.

無聲 子音 다음의 軟音과 硬音의 對立도 中和된다. 卽 이 位置에서는 이 두 系列의 各音素의 對立은 辨別的으로 機能하지 못하여, 硬音인지 軟音인지 잘 分辨하기가 어려울 程度이다.

'앞강'은 /apkaŋ/인지 /apk'aŋ/인지 잘 分別되지 않으나, 硬音으로 내는 것이 一般的인듯 하다.

/n, m, ŋ , l/ 따위 響音 다음의 /s/과 /s'/도 中和된다. 即 이 位置에서는 이 두 音素는 辨別的으로 作用하지 못한다. 따라서 /s/:/s'/의 對立은 모든 子音 다음에서는 中和된다.

그리고 /č, č' čh/ 다음 위치에서는 /a, ə, o, u/와 /ja, jə, jo, ju/는 辨別되지 않는데, 이것도 中和 對立으로 볼 수 있을것이다.

以上 說明한 音素의 對立의 質的 差異에 대한 把握은, 音素의 組織을 把握하는 데 매우 重要한 役割을 하게 된다.

(2) 相關과 相關束(3)

두 音素가 有無 對立이고 同時에 比例 對立인 경우, 이 두 音素를 相關雙이라 하고, 한가지의 相關 標識에 依해서 分化되는 모든 相關雙의 總體를 相關이라 한다.

/p/:/p'/, /t/:/t'/, /č/:/č'/, /k/:/k'/, /s/:/s'/의 各 對立은 모두 有無·比例 對立이다. 따라서 이 다섯 相關雙의 總體는 相關인데, 이 相關은 그 相關 標識가 喉頭 緊張이기 때문에 「喉頭 緊張의 相關」이라 불리운다.

/p/:/ph/, /t/:/th/, /č/:/čh/, /k/:/kh/

의 네 雙의 對立도 亦是 有無·比例 對立이며, 따라서 이 네 相關雙의 總體는 相關인데, 이 경우에는 相關 標識가 氣이기 때문에 「氣의 相關」이라 불리운다.

이와 같이 相關은 반드시 並行的인 두 系列과 同一 序列에 속하는 몇 雙의 짝지어 있는 音素를 包含하게 된다. 即

喉頭 緊張의 相關:

---

(3) 「I, 3, 1), (3) 相關과 相關束」(p. 85 以下) 참조.

/p t č k s/

/p' t' č' k' s'/

氣의 相關

/p t č k/

/pʰ tʰ čʰ kʰ/

그런데, 이 두 相關은 無標 系列을 共通으로 하고 있어서, /s/, /s'/만 除外하면, 三系列 相關束을 形成한다.

/p t č k/

/p' t' č' k'/

/pʰ tʰ čʰ kʰ/

이 열두 子音과 /s/, /s'/ 들은 모두 짝 있는 音素들로서, 국어의 19 子音中 14 子音이 모두 짝 있는 音素이다.

音素의 組織은 짝 있는 音素가 많으면 많을수록 經濟的이요 安定性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한 點으로 보면 국어의 子音 音素는 꽤 整然하고 均衡 있는 組織體를 形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母音에 있어서도,

/i/:/y/, /e/:/ϕ/; /ï/:/u/, /ə/:/o/

의 네 雙의 音素 對立은, 모두 有無的·比例的이며, 따라서 이 네 相關雙은 「圓唇性의 相關」을 形成해 있다. 이 圓唇性의 相關은 前舌 系列과 後舌 系列로 區別된다.

前舌		後舌	
/i	e,	ï	ə/
/y	ϕ,	u	o/

3) 音素의 組織

우리는 앞에서 音素의 對立 關係에 對한 說明을 끝내었는데, 이러한 對

立 關係로 해서 音素는 서로 緊密히 結束된 組織을 形成하는 것이다.

(1) 母音 組織

국어 母音의 辨別的 資質은 세가지로서,

가) 혀의 最高點의 前後 位置

나) 間隙의 高·中·低

다) 입술의 圓·平

<單母音>

그 前後 位置에 依해서,

前舌		後舌
i	——	ï
e	——	ə
ɛ	——	a
y	——	u
ϕ	——	o

의 다섯 雙의 音素가 分化되고, 그 間隙에 依해서,

高	i	y	ï	u
	|	|	|	|
中	e	ϕ	ə	o
	|		|	
低	ɛ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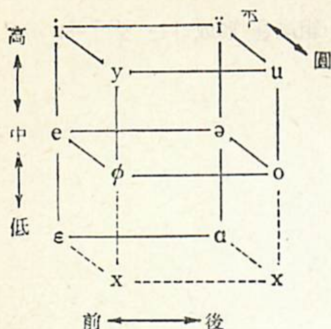
의 音素들이 分化되고, 그 입술의 圓平에 依해서,

平	i	e	ï	ə
	|	|	|	|
圓	y	ϕ	u	o

의 音素들이 分化되는데, /ɛ/와 /a/는 입술의 圓平의 資質에 관해서 中和的이다.

이러한 對立 關係를 圖示하면 다음 페지의 그림과 같이 된다.

水平線의 왼편은 前舌, 그 맞은 오른 편은 後舌이고, 斜線의 위 왼편은 平脣, 그 맞은 아래 오른 편은 圓脣, 垂直線의 위편으로 올라갈수록 間隙이 작



은 音素이고, 아래편으로 내려갈수록 間隙이 큰 音素임을 表示한다. 點線은 圓平의 對立이 中和的임을 表示한다.

斜線으로 連結된 네 雙의 音素들의 對立은 모두 有無的·比例的이며, 同時에 兩面的이다. 따라서 여기 相關이 形成된다.

水平線으로 連結된 다섯 雙의 音素들의 對立은, 모두 等値的·比例的이며, 同時에 兩面的이다.

垂直線으로 連結된 여섯 雙의 音素의 對立은 階段的·比例的이다. 그리고 線으로 連結되지 않은 音素들의 對立은, 多面的이요, 孤立的이다.

前舌과 後舌이 各各 圓平으로 對立되어 있기 때문에 四系列 組織이요, 間隙이 셋으로 分化되어 있기 때문에 三序列 組織이다. 따라서 이 母音 組織은 「三序(列) 四系(列) 四角 組織」(système vocalique quatrangulaire à trois degrés et à quatre classes)이다.

<重母音>

重母音은 二重 母音만이 쓰이며, 그 大部分은 뒤 要素에 母音點(成節音)이 있는 上昇的 重母音이다.

半母音의 /j/와 /w/는, 中·低의 네 平唇 母音에는 共通的으로 連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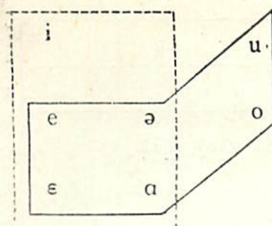
	前	後		前	後
中	je	jə	中	we	wə
低	jε	ja	低	wε	wa

半母音이 連結될 수 없는 單母音은 /y/, /ø/, /ï/의 셋이며, /i/에는 /j/가 連結될 수 없고, /o/, /u/에는 /w/가 連結될 수 없다. 그리하여

jo, ju

wi

의 세 重母音만이 더 나타난다.



(實線 안의 音素는 /j/와 連結, 點線안의 音素는 /w/와 連結).

/i/에 /j/가 連結 안 되고, /o/, /u/에 /w/가 連結되지 않는 理由는 明白하다. 卽 上昇的 重母音에 있어서의 /j/의 辨別的 資質은, 혀의 /i/ 位置에서의 移動인데 여기 /i/가 붙어서는 그 辨別的 資質이 實現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w/의 辨別的 資質은 입술의 圓→平의 移動인데, 여기 圓唇 母音이 붙어서는 입술의 圓→平의 移動이 不可能하게 되어서, 辨別的 資質이 實現될 수 없는 것이다.

下降的 重母音은 /ïj/ 하나뿐이다. 따라서 이 重母音은 다른 重母音과 孤立的이며, 그러므로 매우 不安定하다.

다른 上昇的 重母音과 同類가 되려고 이것을 上昇的으로 [ȷ̈i]로 發音하기도 하나, 그러나 安定性은 全혀 얻어지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 重母音은 消滅의 運命에 있지 않나 생각된다.

<二重 母音 一覽>

w-i	(ï-j)	j-u
j, w ＞e	j, w ＞ə	j-o
j, w ＞ɛ	j, w ＞a	

(2) 子音 組織

19 子音의 辨別的 資質에 依한 分類表를 만들면 다음과 같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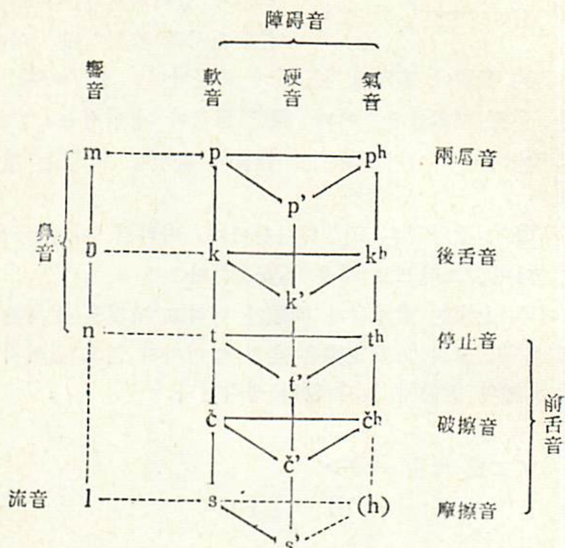
辨別的資質		兩脣性	前舌性 停止性	前舌性 破擦性	前舌性 摩擦性	後舌性	喉頭性
(障碍性)	軟性	p	t	č	s	k	
	硬性	p'	t'	č'	s'	k'	
	氣性	ph	th	čh		kh	h

(響性)	鼻 性	m	n	ŋ	
	流 性		l		

이것을 그 對立의 性質로 排列해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된다.

水平 實線으로 連結된 네 雙의 音素들의 對立은, 有無的·比例的이다. 따라서 이 네 雙의 音素들은 相關(氣의 相關)을 形成한다.

왼쪽 下降 斜線으로 連結된 다섯 雙의 音素들의 對立도, 亦是 有無的·比例的이다. 따라서 이 다섯 相關雙은 喉頭緊張의 相關을 形成한다.



/s/에 對立되는 氣音은 없다.(그러므로 /h/와의 連結은 點線으로 表示된다.) 따라서 /s/ 序列은 氣의 相關에는 關與하지 않는다. 나머지 네 序列, 卽 /p/…, /k/…, /t/…, /č/… 序列은 氣의 相關과 喉頭緊張의 相關에 다 같이 關與하기 때문에, 이 열두 音素(모두 瞬間音)들은 四序列 三系列의 相關束을 形成한다.

垂直 實線으로 連結된 여러 雙의 音素의 對立은 等値的·比例的이다.

垂直으로 排列된 音素들은 同一 系列에 속하고, 水平으로(斜線을 包含) 排列된 音素들은 同一 序列에 속한다. (但 /h/와 /l/는 除外된다.)

障碍音의 /p/, /k/, /t/ 三序列의 音素들은 모두 音節 終聲으로서는 中和

된다. 中和 位置에서는 軟音 系列만이 나타난다.

/č/와 /s/의 二 序列의 音素들은 音節 終聲으로 쓰이는 일이 없다. (다만 /s/만이 特別한 경우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形態 音素論的 變動이 일어날 때는 ── 卽 /č/와 /s/ 두 序列을 끝소리로 가진 形態素가 單獨으로 發音되거나, 또는 子音 앞에 오게 될 때는── 이 여섯 音素들은 모두 /t/로 變動한다.

音節 終聲에서 中和된 各 序列의 障碍 音素 /p, p', pʰ/, /k, k', kʰ/, /t, t', tʰ, (č, č', čʰ, s, s', h)/는 鼻音 앞에서는 各各 /m/, /ŋ/, /n/와 中和된다. 이 경우에는 鼻音 系列만이 나타나게 된다.

軟音과 硬音은 無聲 子音 뒤에서는 中和된다. 이 경우에는 어느 편이 나타나는 것인지 判斷이 困難할 정도이나, 大體로 硬音으로 내는 것이 普遍的 傾向인듯 하다.

4) 音素의 結合 關係

以上에서, 音素의 對立(記憶的) 關係와, 그 對立에서 본 音素의 組織을 說明해 왔는데, 여기에서는 그 結合 關係를 살펴보기로 한다.

音素의 結合으로 된 가장 基本的인 音素論的 單位는 音節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音節과 그리고 音素 結合에서 생겨나는 몇가지 현상──結合의 方法, 結合의 制約性──을 고찰하기로 한다.

(1) 音節

音節의 一般的 性格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論했거니와,[4] 국어의 音節의 構造는 대체로 簡單한 편이다.

<音節核>[5] 音節核은 열의 單母音과 열둘의 重母音으로 된다. 子音으로서

(4) 「I, 3, 3), (1) 音節」(p. 99 以下) 참조.
(5) 이것이 訓民正音의 「中聲」에 해당된다. 다만 中聲은 文字를 가리키는 것이나, 여기에서는 소리 自體를 가리키는 말로 使用하기로 한다. 初·終聲도 모두 한 가지다.

音節核이 되는 일은 없다. 그리고 成節音이 될 수 있는 것은 單母音 열뿐이다. 그러므로 국어에서는 成節音·非成節音의 區分은 바로 母音·子音(半母音)의 區分과 一致한다.

<音節의 경계> 中聲 사이의 子音의 數는 둘을 넘을 수는 없는데, 이 경우의 音節의 境界는 두 子音 사이에 놓인다. 卽 앞 子音은 漸弱音으로 發音되고, 뒤 子音은 漸強音으로 發音된다.

/kuk-su/(국수), /nak-si/(낚시), /in-čoŋ/(인종)

重複 子音이 中聲의 中間에 올 때는, 하나는 앞 音節의 終聲이 되고, 하나는 다음 音節의 初聲이 된다.

/mək-ko/ (먹고) [/mək-k'o/ 로 발음됨].

/pat-ta/ (받다) [/pat-t'a/로 발음됨).

/toːl-lo/ (돌로), /hïl-lə/ (흘러).

中聲 사이의 子音이 하나인 경우에는, 그 子音은 一般的으로 다음 音節의 初聲이 된다.

/a-tïl/ (아들), /i-pi/ (입이), a-pə-či(아버지), /a-ki/ (아기),

/o-si/ (옷이), /k'u-mi-ta/ (꾸미다), /a-ni-ta/(아니다),

/pəː-mi/ (범이) 等等.

/ŋ/가 中聲 사이에 介在될 때는, 앞 音節의 終聲인지 뒤 音節의 初聲인지 얼핏 決定하기 困難하다.

/kaŋi/ (강이), /tïŋïl/ (등을)

그러나 中聲 사이의 한 子音은 죄다 뒤 音節의 初聲이 되므로, 여기에서도 /ŋ/는 뒤 音節의 初聲으로 보는 것이 좋다.

/ka-ŋi/, /tï-ŋïl/ 等等.

이것도 一種의 「틀-맞추기」에 속한다.[6]

---

(6) pp. 165, 168 참조.

硬音과 氣音이 中聲 사이에 올 때는 重複音과 같은 印象을 주게 되나, 그러나 決定的으로 重複音이 되는 것은 아니다.

/kač^hi/ (가치), /ap^hïta/ (아프다), /kat^hïni/ (같으니);

/kip'ïta/ (기쁘다), /kok'al/ (고깔), /ək'ɛ/ (어깨), /pak'at/ (바깥)

等等.

이와 같이 硬音이나 氣音이 中聲 사이에 介在할 때는, 앞 音節의 終聲을 兼한듯 한 印象을 주게 되나, 이 경우에도 亦是 앞의 一般的인 틀에 맞추어서, 뒤 音節의 初聲으로만 보는 것이 좋으며, 앞 音節은 亦是 開音節로 取扱함이 좋다.

/ka-č^hi/ (가치), /a-p^hï-ta/ (아프다), /ka-t^hï-ni/ (같으니);

/ki-p'ï-ta/ (기쁘다), /ko-k'al/ (고깔), /ə-k'ɛ/ (어깨) 等等

<子音없는 中聲 연결> 中聲 사이에 子音이 하나도 없을 때는, 두가지 경우를 分別할 必要가 있다.

하나는, 뒤의 中聲이 重母音으로 된 경우인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成節音과 成節音 사이에 半母音이 介在되므로, 事情은 子音이 하나 介在된 경우와 다르지 않다. 卽 子音이 하나 介在된 경우에 있어서는, 앞 成節音은 漸弱音이 되고, 中間 子音은 漸強音이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音節의 境界가 오게 되는데,(7) 成節音 사이에 半母音이 介在될 때도, 亦是 앞 成節音은 漸弱音이 되고, 半母音은 漸強音이 되어서, 音節의 경계는 그 사이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이 漸弱音과 漸強音은 音素들의 連結에 依해서 自律的으로 決定된다. 卽 앞의 成節音은, 다음의 子音이나 半母音의 閉鎖에 對해 있기 때문에, 저절로 漸弱音(內破音)이 되고, 中間의 子音이나 半母音은, 다음의 間隙이 큰 成節音에 對해 있기 때문에, 저절로 漸強音(外破音)이 되는 것이다.

中聲 사이에 子音이 介在되지 않은 다른 한가지 경우는, 둘 다가 單母音으

(7) 이에 대해서는, 「I, 3, 3), (1) 音節」 (p. 99 以下)을 참조할것.

로서, 成節音이 바로 連結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두 成節音이 다 開放的 音素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音節의 경계를 두어서 두 音節로 發音하기 위해서는, ――앞 成節音을 漸弱音으로 發音할 自然的 條件이 없기 때문에, ――앞 成節音을 일부러 漸弱音으로 發音하지 않으면 안된다.

卽 와 같은 喉頭 緊張의 골짜기를 어느 程度 일부러 만들어서 여기 音節의 경계가 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tu-u-sa/ (투우사), /u-i-toŋ/ (우이동), /ko-an/ (고안, 考案) 等等.

그런데 일부러 앞 成節音을 漸弱音으로 發音하는 것은 神經을 써야 하는 일이며, 따라서 若干의 힘이 드는 노릇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發音은 어느 程度 避하려는 傾向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避하는 方法은:

첫째, 그 사이에 子音이나 半母音을 介在시키는 일.

사인교(四人轎)→사린교, 나ᅀᅵ>나이>냉이 等等.

둘째, 한 成節音을 半母音으로 하여 두 音節을 한 音節로 만드는 일.

그리어→그려(畵), 이어→여(戴) 等等.

세째, 한 成節音을 아주 줄이는 일.

끄어→꺼(滅), ᄃᆞ외->되-(爲) 等等.

이와 같은, 非成節音이 中間에 介在되지 않은 두 成節音의 連結을 「히아투스」(hiatus)라 한다.

<初聲> 中聲 앞의 子音(初聲)은 하나로 局限되는데, 大部分의 子音이 初聲 位置에 올 수 있으나, 그 音節이 놓이는 位置에 따라 若干의 制約이 있다.

初聲의 位置 / 初聲	語頭	語中	
		母音間	子音·母音間
/p/	poli (보리)	kapo (가보)	toŋpɛk (동백)
/p'/	p'ul (뿔)	kop'i (고삐)	namp'it (남빛)
/ph/	phul (풀)	kophïta (고프다)	kanphan (간판)

/t/	tali (다리)	atïl (아들)	toːltali (돌다리)
/t'/	t'al (딸)	kat'ïki (가뜩이)	nalt'yta (날뛰다)
/tʰ/	thuku (투구)	kathɛk (가택)	toːŋthɛ (동태)
/č/	čali (자리)	kačok (가족)	kamča (감자)
/č'/	č'ikɛ (찌개)	kaːč'a (가짜)	toŋč'ok (동쪽)
/čh/	čhaŋ (창)	pačhita (바치다)	kalčhi (갈치)
/s/	saːlam (사람)	mosi (모시)	kaːmsa (감사)
/s'/	s'al (쌀)	as'i (아씨)	tïŋs'al (등쌀)
/k/	kuli (구리)	kaku (가구)	kaːmki (감기)
/k'/	k'ul (꿀)	pak'at (바깥)	tïlk'ɛ (들깨)
/kh/	khal (칼)	pakhwi (바퀴)	aŋkhïmhata(앙큼하다)
/h/	hana (하나)	pihɛŋ (비행)	namhjaŋ (남향)
/m/	maïm (마음)	kama (가마)	kalmɛki (갈매기)
/n/	na (나)	hana (하나)	pəːmnapi (범나비)
/ŋ/	—	toŋi (동이)	—
/l/	—	tali (다리)	hïllə (흘러)

이로써 보면, 母音 사이에서는 모든 子音이 죄다 初聲으로 쓰일 수 있으나, 語頭에서는 /ŋ/와 /l/가 初聲으로 쓰일 수 없고, 子音과 母音 사이에서는 /ŋ/만이 初聲으로 쓰일 수 없다. 다만 /l/는 /l/ 以外의 다른 子音 밑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終聲> 中聲 다음의 子音(終聲)도 하나 以上은 許容되지 않는데, 終聲으로 쓰일 수 있는 子音은 다음의 일곱에 局限된다.

	<語末>	<語中>
/p/ :	pap (밥),	kapsi (값이)
/t/ :	ot (옷),	otp'ap (옷밥)
/k/ :	mok (목),	koksik (곡식)
/m/ :	mom (몸),	kaːmki(감기)
/n/ :	k'ïn (끈),	kaːnsik(간식)
/ŋ/ :	tïŋ (등),	noŋpi (농비)
/l/ :	tal (달),	čulki (줄기)

다만 語中에 있어서, 아랫 子音이 /s/인 경우에는 /s/가 終聲으로 쓰일 수

도 있다.

/mus-salam/ (뭇사람)

/mis-sïmnita/ (믿습니다)

/is-s'o/ (있소) 等等.

<構成> 우리말의 音節의 됨됨이를 公式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이 된다.

C^iVC^f (Ci=初聲 子音, V=音節核, Cf=終聲 子音)

[C^i]의 位置에는 19 子音이 다 올 수 있다. (다만 音節의 位置에 따라 若干의 制約은 있으나)

[V]의 位置에는 10 單母音과 12 重母音이 올 수 있다.

[C^f]의 位置에는 7 子音만이 올 수 있다. (다만 /s/가 特別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C^i]나 [C^f]는 하나 또는 零이다.

그러므로 音節의 構成은,

C^i=1, C^f=1 인 경우 : CVC 例 갑

C^i=1, C^f=0 인 경우 : CV 例 나

C^i=0, C^f=1 인 경우 : VC 例 알

C^i=0, C^f=0 인 경우 : V 例 이

의 네 경우가 있는데, V 型과 CV 型을 「開音節」, VC 型과 CVC 型을 「閉音節」이라 한다.

<音節의 數> 理論的으로 算出되는 音節의 總數는,

V 型이		22
VC 型이	22× 7	= 154
CV 型이	19×22	= 418
CVC 型이	19×22×7	= 2926 (+
		3520

모두 3,520 이나, 實地로 쓰이는 數는, 音素의 連結에 制約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더 적어지는 것이다.[8]

(2) 音素 結合의 制約性

모든 音素는 모든 位置에 自由롭게 설 수 없음은 앞에 보아온 바인데, 音素들은 또한 서로 自由롭게 連結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語頭 初聲과 中聲의 連結을 中心으로 하여, 語中에 있어서의 初聲과 中聲의 連結, 中聲과 終聲의 連結, 그리고 中聲 사이의 子音의 連結(終聲+初聲)의 制約性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語頭 初聲 中聲의 連結>

[兩唇音]	/p/	/p'/	/pʰ/	/m/
/i/	비	삘기	피	미술
/e/	베	(뻬)	(펜)	메뚜기
/ɛ/	배	빼다	팽이	매
/y/	—	—	—	—
/ϕ/	뵙다	—	—	뫼
/ï/	—	—	—	—
/ə/	버섯	뻐치다	펄렁	먹다
/a/	바람	빠지다	파	막다
/u/	부리	뿌리	풀	묵다
/o/	보리	뽑다	포도	목
/je/	—	—	(폐)	(메별)
/jɛ/	—	—	—	—
/jə/	벼슬	뼈	펴다	며누리
/ja/	뱌비다	뺨	퍅하다	먀강다
/ju/	—	쀼죽하다	—	—
/jo/	—	뾰족하다	표	묘기
/wi/	—	—	—	—

(8) <鄭喆 : 國語音素配列의 硏究>에는 實現 音節의 數를 1,096으로 計算하고 있다.

/we/	—	—	—	(뫼)
/wɛ/	—	—	—	—
/wə/	(붜라)	—	—	(뭘)(무엇을)
/wa/	(봐라)	—	—	—
/ïj/	—	—	—	—

이 連結表에서 얼핏 눈에 띄는 特色은, 兩唇音에는 /w/ 重母音과 그리고 /w/ 重母音에서 變化한 /y/, /ϕ/가, 特別한 몇가지 例를 除外하면, 거의 連結되지 않는다는 點인데, 그것은 /w/를 내기 위해서는 입술을 積極的으로 둥글게하고 내밀었다가 다시 平唇으로 옮아가야 되는데, 입술을 둥글게 내밀기 위해서는 입술이 둥글게 오물어 들어야 되며, 입술이 둥글게 오물어 들면 그것을 붙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ja/, /jə/, /jo/ 以外의 다른 /j/ 重母音에도 잘 連結되지 않는다. 이것은 /pje/, /pjɛ/ 따위에 있어서는 /j/ 半母音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폐」, 「몌」도 「페」, 「메」와 잘 區別되지 않는다.) 다만 /ju/에 잘 連結안되는 音聲學的 理由는 찾기 힘든다. 그러므로 이 音節은 앞으로 外來語의 영향으로 잘 쓰이게 될 것이다. ——「뮤직」(music), 「퓨즈」(fuse) 따위.

/ï/나 重母音 /ïj/에 兩唇 子音이 잘 連結되지 않는 것은 通時的으로 說明된다. 卽 兩唇 子音 뒤의 /ï/ 母音은, 兩唇의 唇音化 作用을 입어, /u/ 母音으로 變했기 때문이다.

語中에 있어서의 兩唇 初聲의 中聲과의 連結 方法도, 語頭의 경우와 대개 같은데, 다만 語中에서는 /ï/와의 連結이 許容되는 것이 特色이다.

아프다, 고프다, 예쁘다, 바쁘다

그러나 兩唇音 다음의 /ï/와 /u/의 對立은 中和的이다. 따라서 이 /ï/는 /ï/인지 /u/인지 잘 分別이 되지 않으나, 一般的으로는 /u/를 내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後舌音]	/k/	/k'/	/kʰ/
/i/	김	끼니	키

/e/	게	께끼다	켕기다
/ɛ/	개	깨	캐다
/y/	귀	뀌다(방귀)	퀴퀴하다
/ϕ/	괴물	꾀	쾨쾨하다
/ï/	긋다	끄다	크다
/ə/	걷다	꺼라	커서
/a/	가다	까다	칼
/u/	구리	꿀	쿡쿡
/o/	고리	꼬리	코
/je/	(계시다)	—	—
/jɛ/	(걔)(그아이)	—	—
/jə/	견디다	껴안다	켜다
/ja/	갸웃하다	꺄웃하다	캬캬
/ju/	귤	—	—
/jo/	교실	—	—
/wi/	(귀하다)	뀌다(꾸이다)	(퀴퀴하다)
/we/	궤	꿰다	퀭하다
/wɛ/	괘종	꽹과리	쾌
/wə/	권유	꿩	퀑퀑
/wa/	과자	꽈리	콸콸
/ïj/	—	—	—

/ïj/에 붙는 것은 없다.

/k'/, /kʰ/는 /je/, /jɛ/, /jo/, /ju/에 붙지 않는다. /k/에 /je/가 붙은 「계시다, 계집」 따위는 事實上 「게시다, 게집」으로 發音되는 일이 많으며, 「걔」는 特別한 말이다.(縮約으로 된). 그러므로 後舌 子音에는 /jə/, /ja/ 以外의 다른 /j/ 系 重母音은 잘 붙지 못함이 一般的 傾向이다.

/w/ 系 重母音이나, 이에서 由來한 /y/, /ϕ/ 母音에 /kʰ/가 붙은 말은 大部分 擬聲語에 속하는 點은, /k/나 /k'/와 다른 特色이다.

後舌 鼻音의 /ŋ/는, 語頭에는 나타나지 않고, 語中의 母音 사이에만 나타난다.

/ŋ/+/i/ (종이), +/e/ (성에), +/ε/ (성애),
+/y/ (—), +/ϕ/ (—), +/ï/ (강음),
+/ə/ (오징어), +/a/ (강아지), +/u/ (강우),
+/o/ (똥오줌), +/je/ (공예), +/jε/ (—),
+/jə/ (경영), +/ja/ (영양), +/ju/ (경유),
+/jo/ (강요), +/wi/ (경위), +/we/ (夢外),
+/wε/ (—), +/wə/ (공원), +/wa/ (—),
+/ïj/ (강의).

이 말들은 거의 다 漢字語이며, 순국어는 그리 많지 못하다.

[前舌音]	/t/	/t'/	/tʰ/	/n/
/i/	디디다	띠	티	—
/e/	데	떼	테	넷
/ε/	대	때	태	내일
/y/	뒤	뛰다	튀기다	뉘
/ϕ/	되	뙤약볕	퇴보	뇌다
/ï/	들다	뜰	틀	느끼다
/ə/	덜다	떨다	터	너
/a/	달	딸	탈	날
/u/	둘	뚫다	투구	누구
/o/	돌	똥	토막	논
/je/	—	—	—	—
/jε/	—	—	—	—
/jə/	—	—	—	—
/ja/	—	—	—	—
/ju/	—	—	—	—
/jo/	—	—	—	—
/wi/	(뒤)	(뛰다)	(튀다)	(뉘)
/we/	(뒈지다)	(뛔라)(뛰어라)	—	(눼)(누이어)
/wε/	돼지	뙈기	—	—
/wə/	둬라(두어라)	—	—	(눠)(누어)
/wa/	돠르르	똬리(또아리)	—	—
/ïj/	—	띄우다	틔(우)다	늰큼

語頭에서는 /j/ 重母音에 一切 連結되지 않고, /n/는 /i/에도 連結 안된다.

/w/ 重母音에도 特別한 말(두 形態素의 縮約에서 된 것, 擬聲語)을 除外하면, 잘 連結되지 않는다. 그리고 /y/와 /wi/는 任意로 變異되는 것이 一般的인 傾向인듯 하다.

/ïj/에도 잘 連結되지 않음이 原則인데 두 形態素의 縮約인 경우에 나타난다. 그러나 그 發音은 반드시 /t'ïj-/, /tʰïj-/가 아니고, /t'i/, /tʰi-/로 내는 것이 普通이다. 그리고 「닁」은 [nïjŋ]으로 發音되지는 않고 [niŋ]으로 發音되는데, /n/가 /i/ 앞에서 口蓋音化되지 않음을 表示하기 위하여 「늬」로 쓰게 된다.(9)

語中에 있어서는, 語頭 連結과는 현저히 다르게 나타난다. 卽 /n/가 /i/에는 勿論이고, /je, jɛ/를 除外한 /j/ 重母音에 自由롭게 連結된다.

/t/+/jə/는, 語中에서는 特別한 경우에 나타난다.——디더(踏).

前舌 流音의 /l/는 語頭에 나타나지 않고, 語中 母音 사이에 나타난다.

/l/+/i/ (다리),	+/e/ (수레).	+/ɛ/ (고래),
+/y/ (—),	+/ϕ/ (아뢰다),	+/ï/ (다르다),
+/ə/ (비렁뱅이),	+/a/ (아람),	+/u/ (벼루),
+/o/ (비로소),	+/je/ (비례),	+/jɛ/ (—),
+/jə/ (여력),	+/ja/ (가랴?)	+/ju/ (오륜),
+/jo/ (치료),	+/wi/ (—),	+/we/ (—),
+/wɛ/(—),	+/wə/ (이뤄←이루어),	+/wa/(—),
+/ïj/ (—),		

/l/는 語中에 있어서도 /w/ 重母音이나 /je, jɛ/에는 잘 連結되지 않는다. (「례」는 事實上 「레」와 그 發音의 差가 없다.)

/ïj/ 重母音에도 붙지 않는다.

語中 子音 다음에서도 나타나나,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앞 子音이 /l/인 경우에 限하는데, 이 경우에는 中聲의 連結이 더 制限된다.

---

(9) 「Ⅱ, 1, 4), (1) 複音素的 價値」 참조. (pp. 165—7)

/l-l/+/i/ (달리다), +/e/ ( ), +/ɛ/ (달래다),
+/y/ ( ), +/ϕ/ ( ), +/ï/ (몰르다),
+/ə/ (흘러), +/a/ (달라), +/u/ ( ),
+/o/ (홀로), +/je/ ( ), +/jɛ/ ( ),
+/jə/ (달력), +/ja/ (갈랴고), +/ju/ ( ),
+/jo/ ( ), +/wi/( ), +/we/( ),
+/wɛ/( ), +/wə/( ), +/wa/( ),
+/ïj/ ( ).

[前舌·破擦音]	/č/	/č'/	/čh/
/i/	짐	찜	침
/e/	제기	쩨꺽	체면
/ɛ/	재다	째마리	채롱
/y/	쥐	—	취
/ϕ/	죄송	쬐다	최고
/ï/	즉시	—	측면
/ə/	절구	쩍말없다	처녀
/a/	자리	짝	차다
/u/	주리다	쭈그리다	추녀
/o/	조기	쪽	초가
/je/	—	—	—
/jɛ/	—	—	—
/jə/	—	—	—
/jɛ/	—	—	—
/ju/	—	—	—
/jo/	—	—	—
/wi/	(쥐다)	—	(취지)
/we/	(줴박다)	—	췌장
/wɛ/	좨기	—	—
/wə/	—	—	—
/wa/	좌우	쫘르르	촬영
/ïj/	—	—	—

/j/ 重母音에 連結되지 못함은, 破擦音 自體가 一般的으로 硬口蓋音이기 때문이고, /ïj/에 연결될 수 없음은, 이 重母音이 不安定하기 때문이다.

「쯔」는 語中에서는 連結된다.——내일쯤

대체로 /wi/는 /y/와, /we/는 /ϕ/와 任意로 變動된다.

[前舌·摩擦音]	/s/	/s'/
/i/	실	씨름
/e/	셋	—
/ɛ/	새신	쌩긋이
/y/	쉬파리	—
/ϕ/	쇠	쐬다
/ï/	스님	쓰다
/ə/	서다	썩다
/a/	사다	싸다
/u/	숯	쑤시다
/o/	소	쏘다
/je/	—	—
/jɛ/	—	—
/jə/	—	—
/ja/	—	—
/ju/	—	—
/jo/	—	—
/wi/	(쉬)(쉽게)	—
/we/	(쇠잔)	쒜쒜
/wɛ/	쇄국	쐐기
/wə/	—	—
/wa/	솰솰	쏴쏴
/ïj/	—	씌우다

摩擦音도 앞의 破擦音과 그 連結 方式이 같은데, 그 理由도 앞의 경우와 같다.

語中에 있어서는, 두 形態素가 縮約될 때는 /sjə/가 나타나는 일이 있다. (하셔서, 하셔요).

[喉頭音]　/h/

/i/	힘	/u/	훈장	/wi/	휘두르다
/e/	헤치다	/o/	혹	/we/	훼방
/ɛ/	해롭다	/je/	(혜택)	/wɛ/	횃대
/y/	휘파람	/jɛ/	—	/wə/	훤하다
/φ/	회답	/jə/	혀	/wa/	환희
/ï/	흐르다	/ja/	향토	/ïj/	희락
/ə/	허리	/ju/	휴가		
/a/	하얗다	/jo/	효도		

/jɛ/ 以外의 모든 中聲에 붙는다. 그러나 /je/에 붙은 例는 /he/와 같은 소리로 내는 것이 普通이므로, 결국 /je, jɛ/에 붙지 않는 셈이 된다.

以上 19 初聲과 22 中聲의, 語頭에 있어서의 連結을 中心하여, 그 語中에 나타나는 連結도 대충 살펴 본 셈인데, 이를 總括하ㄴ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語頭 初聲 中聲 連結表]

(○는 連結 可能, ×는 不可能, 但 /ŋ/, /l/는 語中의 경우)

中＼初	p	p'	ph	m	k	k'	kh	t	t'	th	n	č	č'	čh	s	s'	h	ŋ	l
i	○	○	○	○	○	○	○	○	○	○	×	○	○	○	○	○	○	○	○
e	○	○	○	○	○	○	○	○	○	○	○	○	○	○	○	×	○	○	○
ɛ	○	○	○	○	○	○	○	○	○	○	○	○	○	○	○	○	○	○	○
y	×	×	×	×	○	○	○	○	○	○	○	○	×	○	○	×	○	×	×
φ	○	×	×	○	○	○	○	○	○	○	○	○	○	○	○	○	○	×	○
ï	×	×	×	×	○	○	○	○	○	○	○	○	×	○	○	○	○	○	○
ə	○	○	○	○	○	○	○	○	○	○	○	○	○	○	○	○	○	○	○

	p	p'	pʰ	m	k	k'	kʰ	t	t'	tʰ	n	č	č'	čʰ	s	s'	h	ŋ	l
a	○	○	○	○	○	○	○	○	○	○	○	○	○	○	○	○	○	○	○
u	○	○	○	○	○	○	○	○	○	○	○	○	○	○	○	○	○	○	○
o	○	○	○	○	○	○	○	○	○	○	○	○	○	○	○	○	○	○	○
je	×	×	○	○	○	×	×	×	×	×	×	×	×	×	×	×	○	○	○
jɛ	×	×	×	×	○	×	×	×	×	×	×	×	×	×	×	×	×	×	×
jə	○	○	○	○	○	○	○	×	×	×	×	×	×	×	×	×	○	○	○
ja	○	○	○	○	○	○	○	×	×	×	×	×	×	×	×	×	○	○	○
ju	×	○	×	×	○	×	×	×	×	×	×	×	×	×	×	×	○	○	○
jo	×	○	○	○	○	×	×	×	×	×	×	×	×	×	×	×	○	○	○
wi	×	×	×	×	○	○	○	○	○	○	○	○	×	○	○	×	○	○	×
we	×	×	×	○	○	○	○	○	○	×	○	○	×	○	○	○	○	○	×
wɛ	×	×	×	×	○	○	○	○	○	×	×	○	×	×	○	○	○	×	×
wə	○	×	×	○	○	○	○	○	×	×	○	×	×	×	×	×	○	○	○
wa	○	×	×	×	○	○	○	○	○	×	×	○	○	○	○	○	○	×	×
ïj	×	×	×	×	×	×	×	×	○	○	○	×	×	×	×	○	○	○	×

이 連結의 特色을 總括하면 :

가) 一般的으로 /je/, /jɛ/에는 잘 連結되지 않는다.

나) 前舌音(停止, 破擦, 摩擦)은 /j/ 重母音에는 앞서지 않는다. 다만 語中에 있어서는 /s/와 /t/는 連結될 수 있고, /n/는 自由롭게 連結된다.

다) /ïj/ 重母音은, 그 自體가 不安定해서, 初聲을 連結하는 일이 거의 없다.

라) /w/ 重母音에도 一般的으로 잘 連結되지 않는 傾向이 있는데, 特히 兩唇音에서 甚하다.

마) 兩唇音에 /w/ 重母音이 잘 連結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서 由來한 /y/, /ϕ/에도 잘 앞서지 않는다.

바) 兩唇音에 /ï/가 連結되지 않는다. 다만 語中에서는 連結되는데, 이 경우에는 /u/인지 /ï/인지 分別하기가 힘든다.

사) /ŋ/, /l/ 두 子音은 語頭에서는 初聲이 될 수 없고, 語中에서만 初聲이 될 수 있다.

<中聲 終聲의 連結>

22 中聲과 7 終聲의 連結에도 制約이 있다.

中 \ 終	/k/	/t/	/p/	/ŋ/	/n/	/m/	/l/
/i/	익다	믿고	입다	징	신	김	길
/e/	덱데굴	넷	멥새	넹큼	엔담	셈	멜빵
/ɛ/	객지	했다	햅쌀	생강	맨주먹	뱀	밸
/y/	휙휙	귓것	쉽다	뒹굴다	쉰	뒴	쥘손
/ф/	획기적	됫박	뵙다	굉장	된장	굄돌	욀총
/ï/	늑대	늦고	늪	등	근	금	글
/ə/	먹다	걷고	덥다	엉겅퀴	수건	주검	멀다
/a/	막다	맡고	잡다	강	간	감	갈
/u/	국	굳고	굽다	궁둥이	눈	춤	꿀
/o/	목	돋고	돕다	동녘	돈	곰	골
/je/	—	옛	곕시다	—	—	—	—
/jɛ/	—	—	—	—	걘(그아이는)	—	걜(그아이를)
/jə/	역사	엿	엷	경과	연못	염치	열다
/ja/	약속	얕보다	뱝뛰어 가다	양	얀덕	얌치	걀죽하다
/ju/	육성	윷	—	융	윤씨	—	귤
/jo/	욕	푯대	—	용	—	고욤	—
/wi/	(/y/보라)						
/we/	궥궥	—	—	웽웽	웬(일)	궴지	(윌총)
/wɛ/	꽥꽥	횃돈	—	꽹과리	괜찮다	—	—
/wə/	웍더글	구웠다	—	뭥	원고	—	월간
/wa/	왁새	왔다	—	광	완수	—	왈패
/ïj/	—	—	—	(닁큼)	—	—	(닐니리야)

이 表에 依하면,

가) /je/, /jɛ/에 붙는 終聲이 별로 없는 것은, 初聲이 이 重母音에 붙는 것이 거의 없는 데 그 理由가 있는듯.

나) /ïj/에 終聲이 거의 붙지 않는 것은, 이 重母音 自體의 不安定性에서다. (「닁큼, 늴늬리야」는 例外).

다) /p/ 終聲이 /w/ 重母音에 붙지 않는 것은, 初聲의 兩唇音이 /w/ 重母音에 붙지 않는 것과 같다.

라) /s/ 終聲을 들지 않은 것은, /t/ 終聲이 /s/위에서 절로 /s/ 化하기 때문이다.

이 表에 나타나지 않는 制約이 또 한가지 있다. 一例를 들면, /i/에는 7 終聲이 죄다 붙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19 初聲에 連結된 모든 /i/에 7 終聲이 죄다 붙는다는 뜻은 아니다. 卽 「비, 삐, 피, 미……히, 리, 이」(19 音節)에 各各 7 終聲이 죄다 連結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빅, 빋, 빕, 빙, 빈, 빔, 빌,
빅, 삗, 삡, 삥, 삔, 삠, 삘,
……………………………………
힉, 힏, 힙, 힝, 힌, 힘, 힐,
릭, 릳, 립, 링, 린, 림, 릴,
익, ……………………… 일」

따위 19×7=133의 音節이 죄다 쓰이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많은 制約이 있는 것이다.

<終聲 初聲의 連結>

語中에 있어서의 音節 끝 子音(終聲)과 그 다음 音節의 첫 子音(初聲)이 連結되는 데도 制約이 있다. 이 현상을 表로써 보이면:

終聲 / 初聲	/k/	/t/	/p/	/ŋ/	/n/	/m/	/l/
/p/	*각별	*낮보다	*압박	낭비	난봉	남비	갈비
/p'/	쑥뿌리	빳빳하다	집뼘	등불	돈벌이	남빛	돌부리
/ph/	독풀	낱푼	갑판	방파제	간판	감파르다	갈피
/m/	—	—	—	강물	간막이	남매	갈모
/k/	*독감	*돋구다	*납거미	강경	난간	감기	날개
/k'/	끽끽거리다	갓끈	곱꺾다	땅껍질	단꿈	감꽃	갈꽃
/kh/	식칼	낱켤레	접칼	땅콩	손칼	삼키다	갈퀴
/ŋ/	—	—	—	—	—	—	—
/t/	*낙담	*갓두루마기	*굽도리	광대	간단히	감독	돌다리
/t'/	각띠	낮때	앞뜰	낭떠러지	난딱	감떡	날뛰다
/th/	낙타	덧토시	밥통	통틀어	손톱	감투	달통
/n/	—	—	—	강남콩	간나위	남녀	—
/l/	—	—	—	—	—	—	갈래
/č/	*낙지	*갓장이	*납작코	낭자	간장	갑자	날장판
/č'/	약찌꺼기	짓찧다	사립짝	콩짜개	손찌검	남쪽	날짜
/čh/	독창	낮참	앞치마	강철	잔치	감초	갈치
/s/	낙성	낫살	납세	강설	간섭	남산	갈삿갓
/s'/	죽쑤다	엿쌀	좁쌀	쌍쌍	찐쌀	솜씨	날쌔다
/h/	**각하	**만형	**삽화	냉혹	간호	감행	돌합

* 初聲의 /p/, /k/, /t/, /č/는 된소리로 나는 傾向이 있다.

** 이 경우에는 하나의 音素로 縮約된다.

語中에 있어서의 7 終聲과 19 初聲의 連結은 大部分의 경우 可能하나, 그 中 不可能한 連結은;

가) /ŋ/ 初聲은 어떤 終聲에도 連結되지 않는다. 그것은 /ŋ/가 語中의 母

音 사이에서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l/ 初聲은 /l/ 以外의 다른 終聲에는 連結되지 않는다.

다) /m/, /n/ 初聲은, /k/, /t/, /p/ 終聲에 連結되지 않는다. 鼻子音 앞에서는 /k/와 /ŋ/, /t/와 /n/, /p/와 /m/는 各各 中和的이어서, /ŋ/, /n/, /m/만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n/ 初聲은 /l/ 終聲에도 連結될 수 없다.

(3) 連 接

以上에서 檢討한 바와 같이, 各 音素는 連結이 可能한 것과 不可能한 것이 있는데, 連結이 可能한 音素들이 連結되는 데 있어서도, 그 連結되는 緊密度에 差異가 있어서, 開放 連接과 緊密 連接으로 달라지는 데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說明한 바이다.[10]

"예수가마귀를……"에 있어서, 開放 連接을 「수」 다음에 두느냐, 「가」 다음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뜻이 달라지는 것이다. 말의 뜻을 分化할 수 있는 音聲的 資質은 音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開放 連接의 두는 자리도 한 音韻의 資格을 주어 생각할 수도 있다. 萬一 이러한 資質에 한 音韻의 資格을 준다면, 이것은 '音素'(segmental phoneme)로는 볼 수 없고, 特別한 種類의 '韻素'(suprasegmental ph.)로 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音素 表記에 있어서는 緊密 連接은 音素를 붙여 써서 表記하고, 開放 連接은 그 사이에 /#/를 두어 表示한다.

예수# 가마귀를# 쫓는다.

예수가# 마귀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의 開放 連接의 位置를 바꿔서,

"아버지# 가방에……"

---

(10) 「I, 3, 3), (3) 連接」 (pp. 108—9) 참조.

로 發音해서는 큰 일이다.

"나갈# 길이# 어디냐?"

는 '出口'를 묻는 말인데,

"나# 갈 길이……"

는 '出口'를 묻는 말은 안된다.

그러나 普通 速度의 말에 있어서는 이 開放 連接은 반드시 띄어서 發音되는 것은 아니다. 빠른 發音에 있어서는

"예수# 가마귀를……" 과

"예수가# 마귀를……"

은 반드시 分明히 區別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말을 分明히 하려면 開放 連接의 놓이는 자리는 一定해 있으며, 開放 連接은 이 자리에서 항상 可能한 것이다.

可能한 開放 連接 사이의, 緊密 連接으로 連結된 音素의 結合이, 國語 文法에서 말하는 「語節」이며, 한글 맞춤법에서는 原則的으로 語節은 띄어쓰도록 되어 있어서, 原則的으로 말하면 띄어쓰는 자리에 開放 連接이 놓이도록 되어있다.

3. 韻　素　論

1) 抑　揚 (intonation)

소리의 높낮이가 統辭的 對立[1]에 利用되는 것을 「월 가락」(抑揚)이라 한다.

(1) 「Ⅰ, 4, 3) 統辭的 對立으로서」 (pp. 112—3) 참조

국어의 句末 高低는 세가지가 있어서, 句節의 끄트머리는 上昇, 水平, 下降의 어느 한 편으로 發音되며, 이러한 音低는 말의 뜻을 알아 듣는 데 重要한 구실을 할 수 있을뿐 아니라, 때로는 말의 뜻(文法的 意義)을 分化하는 구실을 하는 일도 있다.

이를테면 "해↑"는 「할까?」와 같은 疑問이요, "해↓"는 「해라」와 같은 命令이다. 그리고 下降의 경우에도 그 가락을 빨리 낮추면 命令이 되고, 多少 길게 끌면서 낮추면 叙述이 된다.

밥을 먹어↑

는 疑問이요,

밥을 먹어↓

는, 빨리 낮추게 되면 命令이요. 多少 길게 끌면서 낮추게 되면 叙述이 된다. ("넌 뭘 하니?"——"밥을 먹어.")

밥을 먹어→

는 뒤에 다시 말이 이어나가는 것임이 暗示된다. (너는 밥을 먹어(서), 죽은 못 먹겠구나.)

문을 열어.

도 그 句末 高低에 따라 여러가지 뜻으로 取해진다.

↑ 疑問의 뜻. (문을 열까?)

↓ 命令의 뜻. (문을 열어라.)

↓ 叙述의 뜻. (문을 연다.)

→ 말이 이어나감을 暗示. (문을 열어(서) 본다)

下降 句末 高低는, 대체로 叙述과 命令에 쓰인다.

저는 갑니다↓

빨리 가거라↓

正書法에 있어서는 一般的으로 叙述은 「·」으로 表示되고, 命令은 「!」로 표시되는 일이 있다.

水平 句末 高低는, 대체로 말이 이어나갈 경우에 쓰인다.

밥을 먹고→ 또 죽을 먹는다↓

문을 열어→ 내다 보니→. 밖은 은세계가 되어 있었다↓

正書法에 있어서는 一般的으로 /→/은 「,」로 표시되는 일이 많다.

上昇 句末 高低는 대체로 疑問을 표시하게 된다.

밥 먹었니↑

너가 가느냐↑

오늘↑

正書法으로는 /↑/는 대개 「?」로 표시된다. 그러나 疑問은 반드시 /↑/로 끝맺어지는 것은 아니다. 卽 分明히 疑問임을 나타내는 말이 있는 월에서는 그 끄트머리는 낮아지는 것이 原則이다.

어데 가오↓

무엇을 찾습니까↓

이러한 물음은 「어데」와 「무엇」을 알고져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데」나 「무엇」을 알고 싶어하는 물음이 아니고, 「가는지」「찾는지」를 알려고 하는 물음에 있어서는,

어데 가오↑

무엇을 찾습니까↑

와 같은 上昇調로 끝맺어진다.

그리고 兩者 擇一의 물음에 있어서는, 첫 물음은 上昇調로, 끝 물음은 下降調로 發音된다.

이것이 물이냐↑술이냐↓

句末에 나타나는 이러한 文法 範疇(疑問, 命令, 叙述 따위)는 국어에서는 대개는 用言의 語尾로써 표시된다. 그러므로 語尾가 句末에서 이러한 文法 範疇를 分明히 表示하고 있을 때는 句末 高低의 重要性은 그만큼 弱化된다. 따라서 이러한 句末 高低가 重要性을 發揮하는 것은, 語尾가 이러한 範疇

를 分明히 표시하지 못할 때나, 또는 句末이 用言으로 끝나 있지 않을 때이다. 이를테면

너는 밥을 먹었느냐?

에 있어서의 上昇調는

너 밥 먹었어?

의 上昇調보다 덜 똑똑하다. 그것은 「-느냐」는 分明히 물음을 나타내는 語尾이나, 「-어」는 물음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그 사람?

오늘?

에 있어서는 上昇調는 分明하다. 그것은 疑問이 句末 高低에 依해서만 表示되어 있기 때문이다.[2]

句中에 있어서의 高低의 水平(pitch level)도 흔히 나타나는 일이 있으나, 국어에서는 高低의 水平이 뜻을 分化하는 구실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국어의 句中 高低는 대체로 平坦함이 그 特色이며, 그 高低의 差가 생겨날 때는 感情의 高調가 있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 普通이다. 따라서 感情이 高調되었을 때는 句中 高低의 差가 甚해지고, 普通 말의 경우에 있어서는 句中은 平坦하다.

따라서 筆者는, 국어의 句中에 있어서의 高低의 水平은 韻素로서의 資格을 가지지 못했음을 指摘해 두려고 한다.

2) 語彙的 對立에 利用되는 韻素

強弱은 振動體의 振幅의 大小에 依해서 決定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振動이 있는 限, 소리의 強弱이 隨伴되기 마련이다.

국어에 있어서는 대체로 語節의 첫 音節을 強하게 發音하는 것이 一般的

(2) 최현배 : 우리말본(고친 박음) p. 102.

傾向이다.

'머리(頭), '사람(人), '손님(客), '간다(行), '본다(見)

때로는 第二 音節을 強하게 發音하는 일도 있다.

시'늉(흉내), 합'법(合法)[3]

그러나 이 強弱의 差는 그리 두드러지지 않으며, 이 強弱은 말의 뜻을 分化하는 辨別的 機能을 가지지 못한다.

그런데,

'눈(雪) : 눈(眼), '발(簾) : 발(足), '밤(栗) : 밤(夜), '솔(刷子) : 솔(松),

'줄(鑢) : 줄(綱), '일(事) : 일(一, 日)

의 長母音은 短母音보다 強하게 發音되므로,[4] 強弱이 辨別的으로 機能하는 것 같이 보이나, 이 경우의 强勢는 長母音에 수반된 것으로 보아진다. 卽 長短이 辨別的 資質이요, 强弱은 그에 따르는 剩餘的 資質로 보는 것이 좋다. 그것은, 長音은 반드시 强音으로 내지 않더라도 辨別的으로 機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말에서 長音을 弱하게, 短音을 强하게 내더라도 相關 없는 것이다.

/naːtta/(낫다) : /'natta/(낮다), /əːpta/(없다) : /'əpta/(업다),

/aːnt'a/(안다) : /'ant'a/(앉다)

그러므로 국어의 强弱(stress)은 韻素로서 作用하지 못한다. 바꾸어 말하면, 국어에는, D. Jones의 用語로서의 stroneme은 存在하지 않는다. 국어는 強弱 言語(stress language)는 아니다.

音의 高低는, 振動體의 一定 時間 안의 振動의 數에 依해서 決定되는 것이므로, 振動이 있는 限 高低가 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말을 할 때에는 소리의 높낮이가 없을 수 없으나, 국어에 있어서는 소리의 높낮이는 單語의 뜻을 分化하는 作用을 하지 못한다. 卽 單語의 一定한 音節이 一定한 相對的 높

(3) 이 例들은, 李崇寧 : 國語學概說(新世界文庫) p. 161에 依함.

(4) 李熙昇 : 國語學概說 p. 129.

이로 發音되는 일이 없어서, 높이의 다름은 單語의 뜻을 分化하는 데 아무런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慶尙道의 一部 方言에서는, 한 單語의 各音節의 높이가 一定해 있는데, 그 높이는 高, 中, 低의 세가지 토님(toneme)으로 對立한다.

用言의 경우는 매우 複雜하므로, 여기에서는 體言의 경우만을 들어 說明하기로 한다.(5)

一音節語

[1]은 낮은 toneme을, [2]는 가운데 toneme을,
[3]은 높은 toneme을 表示함

/mal^{3}/ 馬	:	/mal^{2}/ 斗	:	/mal^{1}/ 語
/son^{3}/ 客	:	/son^{2}/ 手	:	/son^{1}/ 損, 孫
/pɛ^{3}/ 梨	:	/pɛ^{2}/ 船, 腹, 布	:	/pɛ^{1}/ 倍
/ki^{3}/ 旗	:	/ki^{2}/ 耳, 氣	:	/ki^{1}/ 蟹
		/pam^{2}/ 夜	:	/pam^{1}/ 栗
		/pal^{2}/ 足	:	/pal^{1}/ 膝
		/mil^{2}/ 小麥	:	/mil^{1}/ 蠟
		/nun^{2}/ 眼	:	/nun^{1}/ 雪

卽 一音節語는 그 高低에 依해서 뜻을 分化하고 있으니, 이 方言의 高低는 辨別的 資質로 보아지며, 따라서 이 方言은 세가지 toneme을 가진 聲調 言語(水平 組織)이다.

二音節語

二音節語는 다음과 같은 高低型이 있어서 各 音節의 toneme은 一定 不

(5) 이 문제에 관해서는, 許雄 : 國語 聲調 硏究(中世 國語 硏究에 收錄)를 참조 할것.

變이다.

中高(23)型 : 바람(風), 눈섭(眉), 나물(菜), 가을(秋), 다리(脚) 들.

高中(32)型 : 하늘(天), 이름(名), 어름(氷), 아들(子), 머리(頭) 들.

高高(33)型 : 피리(笛), 그물(網), 구름(雲), 가지(枝) 들.

低中(12)型 : 사람(人), 지집(女), 임자(主), 안개(霧), 서울(京) 들

三音節語

中高中(232)型 : 까마구(烏), 미나리(芹), 고사리(蕨) 들.

高中中(322)型 : 버부리(啞), 가무치(魚名), 여드레(八日) 들.

高高中(332)型 : 하래비(祖), 무지게(虹), 코기리(象) 들.

低中中(122)型 : 굼빙이(蠐), 거무리(蛭), 사마구(痣) 들.

소리의 길이는 調音 運動의 持續 時間에 依해서 決定되는데, 子音에도 소리의 길이가 있을 수 있으나, 語彙의 뜻을 分化할 수 있는 것은, 主로 母音의 長短이다.

서울을 中心으로 한 中部 地方의 말에서는, 母音에 두가지의 길이가 言衆의 意識에 分明히 把握되어서, 이 길이가 말의 뜻을 分化하는 구실을 한다.

/kam/ (行) : /kaːm/ (柿)

/kul/ (牡蠣) : /kuːl/ (窟)

/tal/ (月) : /taːl/ (풀 이름)

/mal/ (斗, 馬) : /maːl/ (語)

/multa/ (咬) : /muːlta/ (償)

/pal/ (足) : /paːl/ (簾)

/pəl/ (野) : /pəːl/ (蜂)

/son/ (手,客) /soːn/ (孫,損)

/sul/ (酒) : /suːl/ (量)

/čul/ (繩) : /čuːl/ (鑢)

/kil/ (道) : /kiːl/ (丈, 長)

/nun/ (眼) : /nuːn/ (雪)

/tol/ (돐, 도랑) : /toːl/ (石)

/mɛ/ (磨石) : /mɛː/ (鷹)

/pam/ (夜) : /paːm/ (栗)

/pɛ/ (腹,船,梨) : /pɛː/ (倍)

/pjəl/ (別) : /pjəːl/ (星)

/sol/ (松) : /soːl/ (刷子)

/santa/ (買) : /saːnta/ (住)

漢字語에서는 이러한 對立이 퍽 많다.

근:간 (近刊)——근간 (根幹)

근:친 (近親)——근친 (覲親)

고:위하다 (故違)——고위하다 (孤危)

고:원 (故園)——고원 (雇員)

구:제 (舊制)——구제 (驅除)

구:적 (舊蹟)——구적 (寇賊)

구:조 (救助)——구조 (構造)

귀:국 (貴國)——귀국 (歸國)

귀:화 (鬼火)——귀화 (歸化)

난:국 (亂國)——난국 (難局)

남:상 (濫觴)——남상 (男相)

내:방 (內房)——내방 (來訪)

노:농 (老農)——노농 (勞農)

단:식 (斷食)——단식 (單式)

단:음 (短音,斷飮)——단음 (單音)

대:상 (代償)——대상 (隊商)

도:장 (道場)——도장 (圖章)

도:취 (盜取)——도취 (陶醉)

동:기 (動機)——동기 (冬期)

만:사 (萬事)——만사 (輓詞)

맹:아 (萌芽)——맹아 (盲啞)

면:모 (面貌)——면모 (綿毛)

반:포 (反哺)——반포 (頒布)

병: (丙, 病)——병 (甁)

사:절 (使節)——사절 (謝絶)

等 等

(긴 소리는 글자 오른 편에 : 표로 나타낸다)

이와 같이, 中部 地方에 있어서는 길고 짧은 두가지의 chroneme이 있어서, 母音의 長短은 辨別的 資質로서 作用한다. 긴 크로님이 若干 強한 소리로 나는듯 하나, 어디까지나 長短이 辨別的 資質이요, 強弱은 그에 수반되는 剩餘的 資質임은 앞에서 이미 言及한 바이다.

音韻學에서 韻律的 資質을 取扱함에 있어서는, 漠然히 어떠한 소리가 길다든지, 세다든지, 높다든지 記述해서는 全혀 無意味하며, 韻律的 資質은 반드시 다음 네가지 경우를 分別하여 記述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語彙的 對立에 利用되느냐 안되느냐? 바꾸어 말하면, 單語의 語彙的 意義(lexical meaning)를 分化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分別하는 것이 音韻學에서는 第一次的인 重要性을 갖는다. (p.113 以下 참조)

둘째, 統辭的 對立에 利用되느냐 안되느냐? 바꾸어 말하면, 월이나 句節 全體의 文法的 意義(grammatical meaning)를 分化하는 데 관여하느냐 안

하느냐를 分別함이 그 다음으로 重要하다. (p.112 以下 참조)

이 두가지의 機能을 가진 韻律的 資質만이 中心的 意味로서의 音韻學의 테두리 안에 들게 되는 것이다.

세째, 纖細한 語感을 分別하는 데에만 利用되는 것이냐? 이 경우에는 中心的 意味로서의 音韻學에서는 벗어나서 phonostylistique의 所管事가 된다. (p.111 以下 참조)

네째, 말의 뜻을 나타내는 것과는 全혀 관련이 없는 것이냐? 그렇다면 이러한 韻律的 資質은 音韻學의 테두리 밖에 나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資質일지라도 音韻學에서 全혀 考慮할 必要가 없는 것은 아니다. (p.109 以下, 그리고 p.126 참조.)

그리고 辨別的 資質인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다른 어떠한 辨別的 資質에 附隨되는 剩餘的 資質이 아닌지를 細心하게 分別해야 한다. 이를테면 국어의 길이에 隨伴된 強弱의 경우와 같이.

4. 音韻의 變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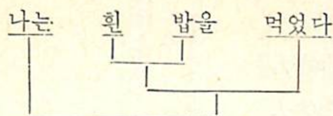
1) 變動의 意義

(1) 形態素와 變異 形態

一定한 音에 一定한 뜻이 結合하여서 된 言語 單位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을 「形態素」(morpheme)라 한다.

나는 흰 밥을 먹었다.

란 월은, 第一次的으로는, 主部 「나는」과 述部 「흰 밥을 먹었다」로 나누어지고, 다음으로 述部는 對象部 「흰 밥을」과 行動部 「먹는다」로 나누어 지고, 對象部는 다시 修飾部 「흰」과 被修飾部 「밥(을)」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나는」은 다시 代名詞 「나」와 助詞 「-는」으로 나누어지고, 「흰 밥을」은 「흰 밥」과 助詞 「-을」로 나누어지고, 「흰」은 語幹 「희-」와 語尾 「-ㄴ」으로 나누어지고, 「먹었다」는 語幹 「먹-」과 補助語幹 「-었-」과 語尾 「-다」로 나누어진다. 即

나-는 희-ㄴ 밥-을 먹-었-다

로 나누어지는데, 이렇게 나누어진 各 言語 要素는 모두 一定한 뜻이 있으며, 이 월에 있어서의 뜻을 고려하는 限, 各 要素는 이 以上 더 작은 要素로 쪼개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言語 要素들은 모두 각각 하나의 形態素이며, 이 월은 아홉의 形態素로 形成되어 있는 셈이다.

그런데 形態素와 形態素가 서로 連結될 때, 또는 特定한 位置에 놓일 때는, 그 꼴이 바뀌는 일이 있다. 이를테면 「값」(價) 이란 말은,

「값이」에 있어서는 /kaps-/,

「값도」 또는 「값없다」에 있어서는 /kap/,

「값나가다」에 있어서는 /kam-/,

「담배 값이」에 있어서는 /-k'aps-/,

「담배 값과」에 있어서는 /-k'ap/,

「담배 값만」에 있어서는 /-k'am-/

으로 發音된다. 곧 이 「값」이란 한 形態素는,

/kaps-～kap～kam-～-k'aps-～-k'ap～-k'am-/

과 같이 實現된다.

「밭」(田)도 이렇게 變動한다.

「밭을」에 있어서는 /path-/,

「밭이」에 있어서는 /pačh-/,

「밭과」 또는 「밭아래」에 있어서는 /pat/,

「밭마다」에 있어서는 /pan-/,

「텃밭을」에 있어서는 /-p'atʰ-/,

「텃밭이」에 있어서는 /-p'ačʰ-/,

「텃밭과」에 있어서는 /-pat/,

「텃밭마다」에 있어서는 /-p'an-/.

곧 「밭」이란 한 形態素는

/patʰ-∼pačʰ-∼pat∼pan-∼-p'atʰ-∼-p'ačʰ-∼-p'at∼-p'an-/

과 같이 그 꼴이 바뀐다.

또 「먹다」의 語幹 「먹-」도,

「먹다, 먹으니」에 있어서는 /mək-/,

「먹는다」에 있어서는 /məŋ-/,

「멕인다」에 있어서는 /mek-/

으로 바뀐다.

/mək-∼məŋ-∼mek-/

이와 같이 하나의 形態素는, 다른 形態素와 連結될 때, 또는 그 놓이는 자리에 따라, 여러가지 꼴로 바뀌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具體的인 말에 나타나는 꼴들, 이를테면 「값」의 /kap/, /kam-/ 따위나, 「밭」의 /patʰ-/, /pačʰ-/ 따위를 各各 「形態」(morph)라 하고, 뜻을 같이하는 여러 形態의 떼, 이를테면 /mək-/, /məŋ-/, /mek-/의 떼는 하나의 形態素가 된다. 그리고 한 形態素가 具體的인 말에서 取하는(實現되는) 形態들을, 그 形態素의 「變異 形態」(allomorph)라 한다. 한 形態素가 여러가지 다른 形態素와 連結될 때에 그 形態가 變異되었다는 뜻에서다. 形態素와 變異 形態와의 關係는 音素와 變異音과의 관계와 같다.

(2) 基本 形態

音素의 變異音 中에서도, 主變異音(principal member)과 副變異音(subsidiary member)을 分別할 必要가 있듯이, 形態素의 變異 形態 中에서도 「基

本 形態」(basic allomorph)와 「非基本 形態」(non-basic allomorph)를 決定할 必要가 있다.

基本 形態를 決定하는 데는 確固한 基準이 있는 것은 아니나, 可能하다면, 한 形態에서 다른 形態에로의 變異가 合理的으로, 簡明하게 說明되느냐 안 되냐를 基準으로 삼는 것이 便利하다.

{값} 形態素에 있어서 變異되는 音素는 세가지로서,

첫째, 끝소리 「ㅅ」이 들어가기도 하고 안들어 가기도 하며,

둘째, 세째 소리는 「ㅂ」으로 나기도 하고, 「ㅁ」으로 나기도 하며,

세째, 첫 소리는 「ㄱ」으로 나기도 하고, 「ㄲ」으로 나기도 한다.

이 경우에 : 첫째, 「ㅅ」이 없어졌다고 說明할 수도 있고, 없던 「ㅅ」이 들어갔다고 說明할 수도 있다. /s/ ⇆ zero

둘째, 「ㅂ」이 「ㅁ」으로 바뀌었다고 說明할 수도 있고, 그 反對로 說明할 수도 있다. /p/ ⇆ /m/

세째, 「ㄱ」이 「ㄲ」으로 바뀌었다고 說明할 수도 있고, 그 反對로 說明할 수도 있다. /k/ ⇆ /k'/

/s/ ⇆ zero 의 경우로 보면, /s/ → zero, 卽 /s/ 音素가 줄어진 것으로 說明하는 것이 그 反對 方向으로의 說明보다 便利한데,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s/는 말이 끝날 때나 다음에 子音으로 初聲 삼은 音節이 올 때에는 줄어지는데,

/kap#/, /kap-to/ etc.

前者의 경우는, 말의 끄트머리에 있어서는, 국어는 두 子音의 連結을 不許하기 때문에, /s/ 한 子音 音素가 줄어진 것이요, 後者의 경우에 있어서는, 音節核(中聲) 사이에는 둘 以上의 子音을 不許하기 때문에, 不得已 한 子音이 줄어지는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卽 /s/ → zero 는 合理的으로 說明이 可能하다. 그러나 /s/ ← zero 는 合理的으로 說明되지 않는다. /s/를 가진 形態

는, 뒤에 母音이 이어날 때에 나타나게 되는데, 母音이 올 때는 /p/ 한 終聲으로서는 안되고, 한 子音을 더 取해야 한다는 理由가 成立되지 않을뿐 아니라, 한 子音을 더 取하게 되는 理由가 있더라도, 왜 何必이면 다른 子音은 안되고, /s/ 이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外國 사람이 국어를 배운다고 가정한 경우에, /s/를 가진 形態를 記憶해 두면, 그 놓이는 환경에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s/가 줄어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나, 그 反對로 /s/ 없는 편을 기억해 두면, 어떤 경우에 어떤 子音이 들어가야 되는지, 하나 하나 기억해 두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s/ 있는 편을 基本 形態로 잡아 두는 것이 좋다.

/p/ ⇆ /m/ 의 경우는, 문제는 더 簡單하다. /m/를 가진 편은 鼻子音 위에서만 나타난다.

/kam-man/, /kam-nakata/

그런데 국어에서는 鼻子音 앞에서는 /p/와 /m/의 對立은 中和되며, 이 位置에서는 /m/ 만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p/ → /m/의 變異 方向을 取하게 되면, 그 變異의 理由가 合理的으로 說明된다. 그러나 /m/ → /p/의 方向을 取하면, 그 變異의 理由가 合理的으로 說明되지 않는다. 非鼻音 앞에서 /m/가 /p/로 變할 아무런 音韻學的 理由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p/ 있는 편을 基本으로 하는 것이 좋다.

다음 /k/ ⇆ / k'/ 에 있어서는, 有聲音 사이에서만 /k'/ 편이 나타난다.

/tampɛ-k'ap/ etc.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느 한편을 基本으로 해야 하는 理由가 위의 경우처럼 明白하지 않으나, /k/ → /k'/의 變異 方向을 取하는데,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k/는 有聲音 사이에 들게 되면 有聲化한다. 그러므로 그 청각상은 無聲音으로 發音하는 때보다 弱化된다. 이 弱化될 우려가 있는 청각상을 強化하기 위하여, 有聲化에 反抗하여, [k] 音을 유지하려 하는 努力에서, [k'] 音을 내게 된다. 그러나 /k'/가 無聲 子音 뒤에서나 語頭에서 /k/로 바뀔 아

무런 理由도 없는 것이다. 이 位置에서 /k'/도 自由롭게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k/ 편을 基本으로 삼는다.

이렇게 보면, {값}의 여섯 變異 形態 中, /kaps-/ 편이 基本 形態가 되며, 다른 形態들은 모두 이에서 變異된 것으로 說明될 수 있다.

/kaps-/ → /kap/ → /kam-/
↓
/-k'aps-/ → /-k'ap/ → /-k'am-/

한 音素의 變異音 中에서, 主變異音을 가려서, 그 音素를 表記할 때는, 그 主變異音을 表記하는 記號를 / / 안에 넣었는데, 形態素를 表記할 때에도, 그 基本 形態를 { } 안에 넣어 표시한다.

{kaps} —
→/kaps-/
→/kap/
→/kam-/
→/-k'aps-/
→/-k'ap/
→/-k'am-/

音素가 抽象的인 存在이듯이, 形態素도 抽象的으로만 存在하며, 具體的으로는 (變異) 形態만이 存在한다.

變異 形態의 基本과 非基本은, 위의 경우와 같이 잘 決定되는 일도 있으나, 때로는 그렇게 決定되지 않는 일도 있다. 이를테면 命令形 語尾의 「-아라」와 「-어라」는 語幹 끝 母音의 陽性과 陰性임에 따라 가려지는데, 「-아라」가 陰性 母音 밑에서 「-어라」로 바뀌었다고 說明하나, 그 反對로, 「-어라」가 陽性 母音 밑에서 「-아라」로 바뀌었다고 說明하나, 그 合理性・簡便性에 優劣이 있을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基本 形態가 決定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形態素 表記에는 그 中의 한가지를 任意로 가려서 { } 안에 넣든지, 둘을 다

써서 {아라/어라}와 같이 表記하든지 하는 것이 便利하다.

(3) 變異 形態 相互間의 關係

한 形態素의 變異 形態는 그 系統的 關係에 依해서 「同系的 變異 形態」와 「他系的 變異 形態」로 나뉘고, 그 變異되는 條件에 따라서 「音聲的 變異 形態」와 「形態的 變異 形態」로 나뉜다.

앞에서 說明한 바 있는 {값}의 여섯 變異 形態는 分明히 하나의 言語 要素가 그 놓이는 환경의 다름에 따라 自動的으로 變異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點「밭」이나 「먹-」의 變異 形態도 모두 한가지다. 이러한 變異 形態를 「同系的 變異 形態」라 한다.

이에 比해서, 한 形態素의 變異 形態 中에는, 分明히 系統을 달리하는 要素를 包含하는 일이 있다. 이를테면, 主格 助詞의 「-가」와 「-이」는 分明히 語源을 달리하는 것이나, 그러나 이것은 그 文法的 意義가 完全히 同一하고, 그 쓰이는 配置가 相補的이므로, 한 形態素로 묶이게 되는데, 「-가」와 「-이」는 系統을 달리하는 變異 形態이므로 이것을 「他系的 變異 形態」라 한다.

한 形態素가 變異되는 條件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mək-/이 /məŋ-/으로 變異되는 것은, 그 다음에 鼻子音이 온다는 音聲的 條件에 依한다. 그리고 主格 助詞의 /-ka/와 /-i/도 그 選擇은 그 앞에 오는 소리의 母音 子音의 差異에 依해서 決定된다. 이와 같이 한 形態素의 變異가 音聲的 條件에 依해서 決定될 때에, 이것을 「音聲的 變異 形態」(1)라 한다.

語尾 「-아라」, 「-어라」와 同一한 命令의 뜻을 나타내는 語尾에 「-거라」,

---

(1) "phonetic alternants" <Bloomfield: Language. p. 211>의 번역인데, 이런 뜻으로는 "phonologically defined (or conditioned) allomorph" <Nida: Morphology. p. 45, Gleason: An Introduction to descriptive Linguistics. p. 62>, 또는 "phonemically conditioned" 라기도 한다. <Hockett: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p. 281>.

「-너라」, 「-여라」가 있어서, 이들 語尾는 모두 한 형태소의 變異 形態가 되는데, 「-거라」, 「-너라」, 「-여라」는 各各 語幹「가-」(行), 「오-」(來), 「하-」(爲)에 붙는다. 그런데 이러한 語幹에 「-아라, -어라」가 連結될 수 없다는 音聲的 條件은 發見되지 않는다. 「가-」나 「하-」와 같이 /a/ 音으로 끝나는 「차-」(蹴), 「파-」(掘) 밑에서는 「-아라」가 쓰이고, (파+아라→파라), 「오-」와 같이 /o/로 끝나는 「보-」(見) 밑에도 亦是 「-아라」가 連結되는 것이다.

「-거라,-너라,-여라」가 쓰이는 條件은, 音聲的으로는 說明되지 않고, 語幹의 種類에 依해서 說明할 道理 밖에 없다. 卽 「가-」(行) 語幹 밑에는 命令의 語尾는 「-거라」가 選擇되고, 「오-」(來) 語幹 形態素 밑에는 「-너라」 變異 形態가 選擇되고, 「하-」(爲) 밑에는 「-여라」가 선택된다고, 說明할 道理 밖에 없다.

이와 같이 그 變異 形態의 用法이, 音聲的 條件으로는 說明되지 않고, 오직 그것이 連結되는 形態素 自體에 依해서만 說明되는 것을 「形態的 變異 形態」[2]라 한다.

(4) 變　動

以上 說明한 바와 같이, 變異 形態는 다음의 네가지로 나뉘게 된다.

	同　系　的	他　系　的
音　聲　的	{값}	-이, -가
形　態　的	※ 니-, 녀- -여라, -아라/어라	-너라, -거라, -여라

※ 「니-」와 「녀-」는 李朝 初期의 말로서, 다 같이 '行'의 뜻이다. 이 두 형태는 分明히 同系的이나, 그 쓰이는 條件은, 「니-」는 「-거-」 形態素에만 先行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는 「녀-」가 쓰이게 된다. 따라서 이 두 변이 형태의 관계는 形態的이다.

(2) 이것은 또한 「形態(論)的으로 說明되는 變異 形態」("Morphologically defined (or conditioned) allomorph"<Nida, Gleason>, "morphemically conditioned" <Hockett>)라기도 한다.

同系的 變異 形態에 있어서, 基本 形態에서 非基本 形態에로의 音韻의 變異를, 여기에서는 「變動」이라 부르기로 한다. 卽 {kaps}의 基本 形態/kaps-/에서 다른 다섯 變異 形態에로 變異함에 있어서의의 /s/→zero, /p/→/m/, /k/→/k'/의 音素 代置의 현상을 「變動」이라 하는 것이다. 音韻의 變動은 音素의 變動만이 아니라, 韻素의 變動도 包含한다.

한 形態素의 여러 變異 形態의 一定한 部分에서 서로 代置되는 音素의 떼, 이를테면 /s/와 zero, /p/와 /m/, /k/와 /k'/의 떼를 各各 「形態 音素」(morphophoneme)라 하는 일이 있다.[3]

한 形態素의 變異되는 현상을 硏究하는 部門은 「形態 音素(韻)論」(morphophonemics)인데, 音韻의 變動에 관한 硏究는 形態 音素論의 한 部分이다.

여기에서는, 視野를, 同系的인 變異 形態로서 그 變異의 條件이 音聲的인 것에만 局限하게 되는데, 그 理由는, 이 部分만이 音韻學과 密接하게 關聯되기 때문이다. 卽 他系的 變異는 音韻學의 關與할 餘地가 없는 部分이며, 同系的인 것에 있어서도 形態的 變異는 音韻學과 直接的으로 關與되지는 않는 것이다.

音韻의 變動은 共時的 體系內에 局限되는 일이다.

2) 音韻의 變動

音韻의 變動은, 그 變動 自體의 性質에 따라, 歸着, 同化, 縮約, 省略, 添加, 異化 따위로 나뉜다.

變異은, 一定한 條件下에서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과, 일어날 수도 있고 않

(3) Zellig S. Harris: Methods in Structural Linguistic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224.

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있는데, 前者를 「必然的 變動」이라 하고, 後者를 「任意的 變動」이라 한다. 「갚는다」의 「ㅍ」이 「ㄴ」 위에서 「ㅁ」으로 變動하는 것은 必然的이요, 「신문」의 「ㄴ」이 「ㅁ」 위에서 「ㅁ」으로 바뀌는 것은 任意的이다. 어느 程度 말하는 사람의 選擇할 수 있는 餘地가 있다는 뜻에서다. (「신문」, 「심문」 두 發音이 다 可能하다.)

또 一定한 條件 下의 一定한 音韻은, 어떠한 경우에서나, 一定한 다른 音韻으로 變異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變異 條件이, 局限된 形態素에만 適用되는 경우도 있다. 鼻子音 앞의 /k/가 /ŋ/로 바뀌는 것은 어떠한 形態素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變動을 「普遍的 變動」이라 한다. 한편 「잇-」(續)의 「ㅅ」이 母音 사이에서는 脫落하게 되는데, 그러나 모든 「ㅅ」이 母音 사이에서 脫落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몇몇 局限된 數의 形態素에 限해서 나타나는 現象이다. 卽 「웃-」의 「ㅅ」은 母音 사이에서도 脫落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것을 「個別的 變動」이라 한다.

(1) 歸　　着

우리말의 音節 끄트머리(終聲)에 올 수 있는 子音은 일곱뿐이다.
그러므로 이 일곱 子音 以外의 다른 子音 또는 子音群(consonant cluster)으로 끝난 基本形態를 가진 形態素(主로 體言이나 用言의 語幹)가 單獨으로 쓰이거나——뒤에 休息(pause)을 두거나——또는 子音으로 始作되는 助詞 또는 語尾가 그에 連結될 때는, 形態素 末의 子音 또는 子音群은, 이 일곱 子音 中의 어느 하나로 바뀌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여기에서는 「歸着」이라 하여 둔다.
(예의 왼편은 體言, 바른편은 用言).

p	밥(食)	잡-(捕)	n	잔(盞)	신-(履)
t	낟(粒)	받-(受)	ŋ	강(江)	——
k	목(喉)	먹-(食)	l	말(語)	말-(禁)
m	감(柿)	남-(餘)	s→t	옷(衣)	웃-(笑)

ss→t	—	있-(在)	ks→k	넋(魂)	—
t^h→t	밭(田)	같-(同)	ls→l	곬(方向)	—
č→t	젖(乳)	낮-(低)	lk→k,l(')	닭(鷄)	읽-(讀)
$č^h$→t	꽃(花)	좇-(從)	lm→m(')	—	젊-(少)
p^h→p	잎(葉)	높-(高)	lp→p,l(')	여덟(八)	밟-(踏)
ps→p	값(價)	없-(無)	lp^h→p	—	읊-(詠)
k^h→k	부엌(廚)	—	lt^h→l(')	—	핥-(舐)
kk→k	밖(外)	꺾-(折)	nč→n(')	—	앉-(坐)

/p/, /t/, /k/, /m/, /n/, /ŋ/, /l/의 일곱 終聲으로 끝나 있는 基本 形態를 가진 形態素가, 單獨으로 發音되거나 뒤에 子音으로 始作되는 形態素가 다시 連結되거나 할 때는, 이 일곱 終聲은 아무런 變化를 입지 않고 發音될 수 있다. (다만 子音 接變이 일어나면 다른 소리로 바뀐다.) 卽 /pap/ 이 單獨으로 發音되거나, 뒤에 /-to/, /-kwa/ 따위 助詞가 붙거나 하면 終聲의 /p/는 變하지 않는다. /čap-/ 語幹은 單獨으로 쓰일 수 없으나, 뒤에 子音 語尾(다만 子音 接變을 일으키지 않는 子音 語尾) /-ta/, /-ko/ 따위가 連結될 때는, 終聲의 /p/는 그대로 變하지 않는다. 다른 여섯 子音도 모두 한가지이며, /t/는 다음에 /s/가 올 때는 /s/로 바뀌는 點만이 特異하다.

/s/, /ss/, /t^h/, /č/, /$č^h$/ 따위 前舌(舌端) 障碍音을 끝소리로 하는 基本 形態를 가진 形態素가 위와 같은 條件下에 놓이게 되면, 이 終聲들은 모두 /t/로 바뀐다.(4)

옷, 옷과 → /ot/, /ot-kwa/
있다, 있고 → /it-ta/, /it-ko/
밭, 밭과 → /pat/, /pat-kwa/
같다, 같고 → /kat-ta/, /kat-ko/

(4) 이 實例 說明에 있어서는, 우리말의 現行 綴字法은, 大體로 基本 形態를 表示하고 있다는 點을 留意해 둘 것이다.

젖, 젖과 → /čət/, /čət-kwa/

낯다, 낯고 → /nat-ta/, /nat-ko/

꽃, 꽃과 → /k'ot/, /k'ot-kwa/

좇다, 좇고 → /čot-ta/, /čot-ko/

/pʰ/, /ps/ 終聲은 /p/로 바뀐다.

잎, 잎도 → /ip/, /ip-to/

높다, 높고 → /nop-ta/, /nop-ko/

값, 값과 → /kap/, /kap-kwa/

/kʰ/, /kk/, /ks/는 /k/로 바뀐다.

부엌, 부엌도 → /puək/, /puək-to/

밖, 밖도 → /pak/, /pak-to/

꺾다, 꺾지 → /k'ək-ta/, /k'ək-či/

넋, 넋도 → /nək/, /nək-to/

/l/를 包含한 子音群에 있어서는 그 變異되는 모습은 좀 複雜하여,

/ls/, /ltʰ/는 /l/로 바뀐다. 다만 /ltʰ/의 경우에 있어서는, 뒤에 오는 子音이 된소리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을 된소리로 바꾼다.

곬 → /kol/

핥다, 핥고 → /hal-t'a/, /hal-k'o/

/lm/는 /m/로 바뀐다. (다만 다음 子音이 된소리 될 수 있을 경우에는, 된소리로 바뀌는데, 이것은 그 다음의 [']로써 표시되어 있다.)

젊다, 젊고 → /čəm-t'a/, /čəm-k'o/

삶다, 삶고 → /saːm-t'a/, /saːm-k'o/

/lk/, /lp/, /lpʰ/의 경우에는 一般的으로 /l/가 줄어져서 /k/, /p/가 남게 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l/가 남고, 다음 소리를 된소리化하는 일도 있다.

닭, 닭도 → /tak/, /tak-to/ 또는 /tak-t'o/

읽다, 읽고 → /ik-ta/, /ik-ko/ 또는 /il-k'o/

여덟, 여덟과 → /jətəl/ 또는 /jətəp/, /jətəl-kwa/

밟다, 밟고 → /paːp-ta/, /paːp-ko/

읊다, 읊고 → /ïp-ta/, /ïp-ko/

「ㄼ」 받침을 가진 말 中 「짧-, 넓-, 얇-, 떫-」 따위는 「ㄹ」이 남고, 「ㅂ」이 줄어진다.

/nč/의 경우에는 /n/이 되고, 다음 子音을 된소리化한다.

앉다, 앉고 → /an-t'a/, /an-k'o/

終聲의 겹子音으로서 脫落되는 편은 대개는 第二 子音이다. 그러나 第一子音이 /l/이고 第二 子音이 /l/와 다른 자리에서 나는 子音일 때는 /l/가 脫落됨이 原則이다.

第二 子音 脫落의 경우:

ps→p, ks→k, ls→l, l^h→l, nč→n

/l/+[前舌 以外(兩唇·後舌)의 子音]의 경우는 第一 子音 脫落:

lk→k, lm→m, lp→p, lp^h→p

(但 /lp/의 경우에는 /l/가 남는 일이 오히려 많다)

그리고 獨立할 수 있는 낱말이 合成할 때는, 아랫말의 첫 소리가 母音일지라도 이러한 歸着 現象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두 말 사이에 休息(pause)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體言과 助詞, 用言의 語幹과 語尾와의 사이에는 이러한 休息을 둘 수 없다.)

옷안 (衣內)→ /ot-an/ [odan]

부엌안 (廚內) → /puək-an/ [puəgan]

꽃아래 (花下) → /k'ot-alɛ/ [k'odarɛ]

무릎아래 (膝下) → /mulïp-alɛ/ [murïbarɛ]

팥알 (小豆粒) → /pʰat-al/ [pʰadal]

젖어미 (乳母) → /čət-əmi/ [čədəmi]

홑옷 (單衣) → /hot-ot/ [hodot]

값없다 (無價) → /kap-əːp-ta/ [kabəːp—]

넋없다 (無魂) → /nək-əːp-ta/ [nəgəːp—]

옻오르다 (漆毒) → /ot-olï-ta/ [odorï—]

歸着은 音聲的 條件(뒤에 休息이 온다거나, 子音이 온다거나 하는 條件)에 依한 變動이며, 그리고 이것은 必然的·普遍的 性格을 띠고 있다. 卽 이 條件 下에서는 이러한 變動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며, 또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2) 同　化

子音 接變: 우리는 앞에서, 終聲과 初聲의 結合 可能 範圍를 보였는데, 이에 依하면[5],

가) 終聲 /k/, /t/, /p/는 初聲 /n/, /m/에 앞설 수 없다.

나) 初聲 /l/는 /l/ 以外의 다른 終聲에는 이어나지 못한다.

다) /l/ 終聲은 /n/ 初聲과 連結되지 못한다.

라) /ŋ/는 어떠한 終聲에도 連結 될 수 없다.

그러므로 形態素 連結에서 이러한 子音이 接觸하게 되면, 그 中의 어느 하나가 다른 소리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을 「닿소리 이어 바뀜(子音 接變)」이라 한다.[6]

「가」의 경우: 終聲 /k/, /t/, /p/가 코소리인 /n/, /m/를 닮아서(同化되어서) 各各 /ŋ/, /n/, /m/로 바뀐다.

/k-n/→/ŋ-n/: 먹는다, 익네

(5) 「Ⅱ, 2, 4), (2) 音素 結合의 制約性」 참조. (pp. 223—5)

(6) 최현배: 우리말본 (고친 판) p. 112 以下 참조.
이 현상은, 이미 周時經 先生이 꽤 상세하게 說明하고 있으며, 「子音의 接變」이란 말도 先生에게서 始作되는듯 하다. <朝鮮語文典音學, 말의 소리> 참조.

/k-m/→/ŋ-m/ : 국물, 목마르다

/t-n/→ /n-n/ : 받는다

/t-m/→ /n-m/ : 맏며느리

/p-n/→ /m-n/ : 잡는다

/p-m/→/m-m/ : 밥먹다

/k, t, p/로 歸着된 音도 이러한 同化 作用을 입게 된다.

/k/의 예 :

닦는다 → 닥는다 → 당는다 (歸着一同化)

한 몫 놓는다 → ～목놓～ → ～몽논～

흙내 → 흑내 → 흥내

/p/의 예 :

값나가다 → 갑나～ → 감나～

앞날 → 압날 → 암날

없네 → 업네 → 엄네

잎마다 → 입마다 → 임마다

/t/의 예 :

있느냐 → 읻느냐 → 인느냐

빛나다 → 빋나다 → 빈나다

옷매무시 → 옫매～ → 온매～

밭마다 → 받마다 → 반마다

몇날 → 멷날 → 면날

흩몸 → 흗몸 → 흔몸

맞먹다 → 맏먹다 → 만먹다

닿는다 → 닫는다 → 단는다

이 變動은 音聲的이요 必然的·普遍的이다.

「나」의 경우 : /l/ 初聲은 終聲 /p/, /t/, /k/, /m/, /ŋ/, /n/에 이어날

수 없는데, 이 경우에는 /n/를 除外한 다른 다섯 終聲 밑에서는 /l/ 初聲은 /n/로 바뀐다.

/m-l/→/m-n/ : 감로(甘露)→감노, 삼라(森羅)→삼나(7)

/ŋ-l/→ /ŋ-n/ : 종로(鍾路)→종노, 중력(重力)→중녁, 공로(公路)→공노

이 變動도 音聲的·必然的·普遍的이다.

/k/, /t/, /p/ 終聲 다음의 /l/ 初聲도 亦是 /n/로 바뀌나, 이 경우에는 終聲은 다시 코소리 /n/에 同化된다.

/k-l/→/k-n/→/ŋ-n/ : 백리(百里)→백니→뱅니, 백로(白露)→백노→뱅노

/t-l/→/t-n/→/n-n/ : 맏량반(맏양반)→맏냥반→만냥반, 빛량→빋냥→빈냥, 몇량→멷냥→면냥(8)

/p-l/→/p-n/→/m-n/ : 압력(壓力)→압녁→암녁

以上의 變動도, 音聲的·必然的·普遍的이다.

/n/ 終聲에 /l/ 初聲이 이어날 때는 /l/가 變動하지 않고 /n/가 /l/로 變動하는데, 이 變動도 音聲的·必然的·普遍的이다.

---

(7) 「露, 羅」 따위 漢字 形態素는 語頭에 올 때에도 「노, 나」가 된다. 그러므로 이 형태소의 基本 形態를 「노, 나」로 잡을 수도 있을것 같으나, 그렇게 되면 「ㄴ」이 母音 사이에서 「ㄹ」로 바뀌는 현상을 合理的으로 說明할 수 없다.

雨露 (우로), 綺羅 (기라)

그러므로 語頭에 /l/를 가진 漢字 形態素의 基本 形態는 /l/ 가진 便으로 定하는 것이 좋다.

(8) /l/ 頭音을 가진 形態素는 外來語 뿐이다. 그러므로 이 項에서 나오는 例들은 모두 漢字語인데, 朝鮮 漢字音에 있어서는 /t/ 終聲은 모두 /l/ 終聲으로 變한다. 따라서 /t/+/l/의 例는, 純 漢字語나 純 국어에서는 찾을 수 없고, 앞이 순 국어이요 뒤가 漢字語인 一種의 混合語(hybrid)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리고 「빛량, 몇량」은 歸着 現象이 앞서게 된다.

빛량→빋량→빋냥→빈냥

몇량→멷량→멷냥→면냥

이러한 變異 過程은, 歷史的으로 일어난 順序가 아니라, 單純히 說明의 便宜를 爲해서 定한 順位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變動 過程의 順位를 「記述的 順位」 (descriptive order)라 한다. 이에 관해서는 :

許 雄 : 言語學 槪論 p. 39. 참조.

/n-l/→/l-l/ : 만리(萬里)→말리, 천리(千里)→철리[9]

① /m/, /ŋ/ + /l/ (順行 同化)
↓
/n/

② /p/, /t/, /k/ + /l/ (順行 · 逆行 同化)
↓ ↓ ↓ ↓
/m/, /n/, /ŋ/ /n/

③ /n/ + /l/[10] (逆行 同化)
↓
/l/

「다」의 경우 : /l/+/n/의 連結이 不可能한데, 이 때에는 順行 同化가 일어나서 初聲의 /n/가 /l/로 바뀐다.[11] 이 變動도 音聲的 · 必然的 · 普遍的이다.

/l-n/→/l-l/ : 불노(不怒)→불로, 팔년(八年)→팔련, 솔나무→솔라무,

들나물→들라물, 칼날→칼랄, 달나라→달라라

「라」의 경우 : /ŋ/는 初聲으로서 어떠한 終聲 子音에도 連結될 수 없는데, 이것은 /ŋ/를 頭音으로 하는 形態素가 없기 때문이다.[12]

---

(9) 「전라도」(全羅道)도 「절라도」가 普遍的인 發音이나, 「전」의 「ㄴ」에 끌려서 「전나도」로 發音하는 일이 흔히 있다. (特히 어린 世代의 發音에서.) 이것을 「綴字式 發音」(spelling pronunciation)이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許 雄 : 言語學 槪論 p. 237. 참조.

(10) ③의 變動은 分明히 同化 作用이나, ①, ②는 同化 作用으로 보기는 좀 힘들는지 모른다. 그러나 /l/는 口腔 通路가 열렸고, 그 앞소리들은 모두 口腔 通路가 닫겨 있는 點에 留意하면, 이러한 變動도 모두 同化 作用으로 볼 수 있다. 即 口腔 通路가 열려 있는 /l/는, 그 앞에 口腔 通路가 닫겨 있는 소리가 오면, /l/의 口腔 通路가 닫겨서, 그와 가까운 前舌 響音인 /n/가 된다. (順行 同化) 다만 /n-l/의 경우에서는 同化 作用은 反對 方向으로 일어난다. (逆行 同化)

(11) 그러므로 /l/와 /n/가 接觸하게 되면, 先後의 상관 없이, /n/는 /l/에 完全同化된다.

(12) 漢字語 '魚'는 元來 /ŋ/ 頭音을 가졌던듯 하여, 다음과 같은 同化 作用이 일어나 있음을 볼 수 있다.
「白魚」: */pajk-ŋə/>*/pajŋ-ŋə/>/pɛŋə/ (뱅어)
「烏賊魚」: */o-čək-ŋə/>*/očəŋ-ŋə/>/očiŋə/ (오징어)
그러나 이 현상은 共時的 現象으로서의 「變動」의 문제로서는 登場될 수 없다. 그것은, 현대어로서는 「魚」 形態素의 基本 形態를 */ŋə/로 잡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以上에서 說明한 子音 接變은 모두 必然的인 變動으로서, 任意로 두 發音中에서 選擇할 수 없는 것이다. 卽「먹는다」는 반드시 /məŋnïnta/ 로만 發音되며, */məknïnta/ 로는 發音되지 않는다.

그런데 子音 接變 中에는 任意的인 變動도 있다.

가) 內破音으로 나는 /t/, /p/ 終聲에 外破音의 /k/, /p/ 初聲이 이어날 때는[13] 앞소리가 뒷소리에 完全 同化되는 傾向이 있다.

/t-k/→ /k-k/ : 삿갓→삭갓, 벗기다→벅기다, 받고→박고, 갖고→각고

/t-p/→ /p-p/ : 갓방→갑방, 엿보다→엽보다

/p-k/→/k-k/ : 밥그릇→박그릇

이 경우에는 이 두가지 發音이 다 可能하다.

나) 코소리 /n/, /m/에 /k/, /p/, /m/가 이어날 때는, 앞소리는 뒷소리의 調音 位置로 移動한다.[14]

/n-k/→/ŋ-k/ : 손가락→송가락, 반갑다→방갑다

/n-p/→/m-p/ : 신발→심발

/n-m/→/m-m/ : 신문→심문, 눈물→눔물

/m-k/→/ŋ-k/ : 감기→강기

이 경우에도 두가지 發音이 다 可能하다.[15]

---

(13) 두 終聲과 두 初聲의 相互 連結은 네가지 경우가 可能하나, /p/+/p/는 아무런 變動이 일어날 可能性이 없다.
그리고, /p/, /t/, /k/ 세 音素의 相互 連結에서, 前舌(舌端)의 /t/는 同化 作用을 입기만 하고 다른 소리를 同化하지는 못하고, 後舌의 /k/는 그 反對로 다른 소리를 同化하기만 하고 同化를 입는 일은 없으며, 兩脣의 /p/는 同化하기도 하고 同化되기도 한다. 이런 點으로 보면, 이 세 소리 中, 가장 强한 것은 /k/이고, 가장 弱한 것은 /t/이라고 할 수 있다.

(14) 두 終聲과 세 初聲의 可能한 結合數는 여섯이나, /m/에 /p/, /m/가 이어나는 경우는 여기서 除外된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도 前舌(舌端)音은 同化하지는 못하고 同化되기만 하고, 後舌音은 그 反對로, 同化되지는 않고 同化하기만 하고, 兩脣音은 同化하기도 하고 同化되기도 하는 點은 「가」의 경우와 같다.

(15) 그러나 敎育的으로는 본대의 發音을 추천해야 할것이다.

以上의 두가지 경우는 모두 任意的이나 普遍的이다. 卽 本 發音과 變動된 發音이 다 可能하나, 이러한 子音이 連結될 때는 一般的으로 이러한 變動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口蓋音化: 同化 作用의 한가지에 「口蓋音化」(palatalization)가 있다. 앞 形態素의 끝소리가 /t/, /tʰ/이고, 뒤 形態素의 첫소리가 /i/, /j/인 때는, 앞의 /t/, /tʰ/가 뒤의 소리의 나는 자리에 끌려 가서 /č/, /čʰ/로 變動한다.

/kut-/(固)+/-i/(接尾辭)→/kuči/

/t'ampat-/(汗受)+/-i/(接尾辭)→/t'ampači/

/hɛtot-/(日出)+/-i/(接尾辭)→/hɛtoči/

/katʰ-/(同)+/-i/(語尾)→/kačʰi/

/patʰ-/(田)+/-i/(助詞)→/pačʰi/

/haltʰ-/(舐)+/-i-/(使役)→/halčʰi-/

/tat-/(閉)+/-hi-/(被動)→/tačʰi-/

口蓋音化는 形態素 統合의 경우에는 必然的·普遍的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국어에서는 /디, 티/의 連結은 可能한 것이기 때문에 (견디다, 디디다, 느티나무) 完全히 普遍的이라고는 할 수 없다.

典型的으로 普遍的인 것은, 어떠한 音素의 結合이 국어에서는 全혀 許容이 안되기 때문에, 形態素 統合에서 그러한 連結이 나타날 대는, 그것을 다른 소리로 바꾸는 變動을 가리킴이다.

普遍的 變動과 個別的 變動은 完全히 分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는 많은 中間 段階가 存在하는 것이다. 여기 말한 口蓋音化가 그런 性格을 띠고 있는데, '形態素 統合의 경우'라는 條件을 붙인다면 完全히 普遍的 現象으로 볼 수 있다.

우믈라우트: /i/나 /j/와 같은 前舌 高母音이, 그 앞의 前舌·高母

音 아닌 母音을 前舌 母音으로 바꾸는 現象을 「우믈라우트」(Umlaut)(16)라 부른다.

국어의 母音은, 그 位置的 資質에 依해서, 前舌과 後舌로 對立되어 있고, 이 兩系列은 다시 平唇과 圓唇의 두 系列로 分化되어 있다. 그러므로 理論的으로 말하면, 後舌系 母音은 죄다 우믈라우트로 말미암아 前舌系로 바뀔 수 있다.

/a/→/ɛ/ :

/čap-/+/-hi-/ (잡히-)→/čɛphi-/

/mak-/+/-hi-/ (막히-)→/mɛk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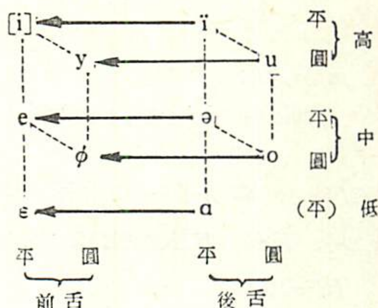
/kaːm-/+/-ki-/ (감기-)→/kɛŋki-/

/k'akk-/+/-i-/ (깎이-)→/k'ɛkki-/

/nakk-/+/-i-/ (낚이-)→/nɛkki-/

/tat-/+/-ki-/ (닫기-)→/tɛtki-/

/aːn-/+/-ki-/ (안기-)→/ɛŋki-/



〔p.204 의 母音 組織圖와 比較할것〕

/ə/→/e/ :

/mək-/+/-hi-/ (먹히-)→/mekhi-/

/mək-/+/-i/ (먹이)→/meki/

/k'əkk-/+/-i-/ (꺾이-)→/k'ekki-/

/pəs-/+/-ki-/ (벗기-)→/petki-/

---

(16) "Umlaut"란 말은, Jacob Grimm 의 新造語이다. (O. Jespersen: Language, its Nature, Development and Origin. p. 46 에 依함). 그리고 Charles F. Hockett 는, 앞 母音이 뒤에 오는 後舌 高母音 /u/의 位置로 끌려가는 현상도 Umlaut 로 보고 있다.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p. 517.)
국어에서 이러한 變異 現象을 指摘한 일은 흔히 볼 수 있었으나(최현배 : 우리말본. p.108), 여기 "Umlaut"란 이름을 갖다 붙인 분은 李崇寧氏이다. (朝鮮語 音韻論 研究, 「ㆍ」 音攷)

/o/→/ϕ/ :

/p'op-/+/-hi-/ (뽑히-)→/p'ϕphi-/

/nok-/+/-i-/ (녹이-)→/nϕki-/

/sok-/+/-i-/ (속이-)→/sϕki-/

/olm-/+/-ki-/ (옮기-)→/ϕŋki-/

/ï/→/i/ :

/t'ït-/+/-ki-/ (뜯기-)→/t'ikki-/

/u/→/y/ :

/čuk-/+/-i-/ (죽이-)→/čyki-/

/ï/ 와 /u/ 의 우믈라우트化는 서울말에서는, 다른 경우에 比하면, 드문 것 같으나, 筆者의 方言(慶尙道)으로서는,

/ï/→/i/ :

/k'ïlh-/+/-i-/ (끓이-)→/k'ili-/

/tït-/+/-ki-/ (듣기-)→/tikki-/

와 같은 變動이 나타나고, 또 /u/→/y/ 의 變動도 잘 나타나나, 이 方言에는 /y/ 가 없기 때문에 /y/ 는 다시 /i/ 로 바뀐다.

/u/→/y/→/i/ :

/nup-/+/-hi-/ (눕히-)→/nıphi-/

/sum/+/-khi-/ (숨키-)→/siŋkhi-/

/čuk-/+/-i-/ (죽이-)→/čiki-/

/ut-/+/-ki-/ (웃기-)→/ikki-/

/muk-/+/-i-/ (묵이-, 食)→/miki-/

그러나 이 作用은 普遍的 현상은 아니다.

/a/+/i/의 경우:

밟히다(踏), 알리다(知), 밝히다(明), 날리다(飛), 말리다(止), 달리다(走), 땀받이(汗受), 맞이(迎), 같이(同), 밭이(田), 꽃이(花), 옷이(衣)

/ə/+/i/의 경우:

벌리다(列), 없이(無), 멀리(遠), 걸리다(掛)

/o/+/i/의 경우:

해돋이(日出), 곧이(直), 몰잇군(驅人)

따위는 우믈라우트 作用을 입지 않는다.

우믈라우트 作用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살펴 보면, 두 母音 사이에 介在된 子音이 모두 「前舌音」(音聲學的으로는 舌端音을 包含한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前舌音이 두 母音 사이에 介在될 때는 어째서 우믈라우트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한 말을 할 때는, 그 소리들은 各各 따로따로 發音되는듯 하나, 事實은 한 덩어리의 소리는 대개는 한꺼번에 머리속에 떠오르게 되는 것이 普通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소리가 뒷소리에 영향을 주는 일도 있고, 그 反對로 뒷소리가 앞소리에 영향을 주는 일도 있는 것이다.

두 母音이 두 音節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도, 뒤 音節의 /i/의 調音을 爲한 準備는, 앞 母音을 낼 때에 미리 念頭에 두고 發音하게 된다. 그리하여 앞 母音(後舌 母音)을 낼 때에, 前舌은 이미 /i/의 位置를 取하려고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後舌 母音으로 向하려는 힘과, 前舌 母音으로 向하려는 힘이 合쳐지게 된다.

그리하여,

/a/ {(後舌) 低 平脣} +/i/ {前舌 (高) 平脣} →/ε/ {前舌 低 平}

/ə/ {(後舌) 中 平} +/i/ {前舌 (高) 平} →/e/ {前舌 中 平}

$$/o/ \left\{\begin{matrix}(\text{後舌})\\ \text{中}\\ \text{圓}\end{matrix}\right\} + /i/ \left\{\begin{matrix}\text{前舌}\\ (\text{高})\\ (\text{平})\end{matrix}\right\} \rightarrow /\phi/ \left\{\begin{matrix}\text{前舌}\\ \text{中}\\ \text{圓}\end{matrix}\right\}$$

$$/u/ \left\{\begin{matrix}(\text{後舌})\\ \text{高}\\ \text{圓}\end{matrix}\right\} + /i/ \left\{\begin{matrix}\text{前舌}\\ \text{高}\\ (\text{平})\end{matrix}\right\} \rightarrow /y/ \left\{\begin{matrix}\text{前舌}\\ \text{高}\\ \text{圓}\end{matrix}\right\}$$

$$/ï/ \left\{\begin{matrix}(\text{後舌})\\ \text{高}\\ \text{平}\end{matrix}\right\} + /i/ \left\{\begin{matrix}\text{前舌}\\ \text{高}\\ \text{平}\end{matrix}\right\} \rightarrow /i/ \left\{\begin{matrix}\text{前舌}\\ \text{高}\\ \text{平}\end{matrix}\right\}.$$

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ɛ/, /e/, /ϕ/, /y/, /i/ 는 各各 /a/, /ə/, /o/, /u/, /ï/ 와 /i/ 와의 合力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母音 사이에 前舌을 使用하는 前舌 子音이 介在하면, 事情은 좀 달라진다. 卽 [後舌 母音+非前舌 子音+/i/]의 連結에 있어서는, 앞 두 소리 (모두 非前舌系)를 내는 동안에 前舌은 比較的 自由로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 說明한 바와 같은 合力 作用이 일어날 수 있으나, 前舌 子音이 이 사이에 介在되면, 前舌은 이 子音을 내기 爲해서, 自由로운 姿勢를 取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後舌 母音을 調音하는 동안에, 前舌의 方向과의 合力 作用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前舌 子音이 그 사이에 介在되면 우믈라우트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17]

그러면 非前舌 子音이 介在되면 죄다 우믈라우트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그런것은 아니다.

가기(行), 오기(來)

따위 말들은 그러한 同化를 입지 않는다. 따라서 우믈라우트 현상은 任意的이면서도 個別的이라 할 수 있다. 卽 變動되지 않은 말과 變動된 말이 兩편이 共存하면서,[18] 그 일어나는 範圍는 特定한 語彙에 局限되는 것이다.

---

(17) 李崇寧氏도 齒音이 兩 母音 사이에 介在될 때는 우믈라우트 作用이 妨害됨을 指摘하고, 그 理由를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이 中介 子音이 兩 母音의 距離에서 오는 不調和를 二分하여 앞질러 이 音의 逆行的 同化力을 中和시키므로 우믈라우트 作用의 可能性을 相殺시키는 것이다" <朝鮮語音韻論研究.「ㆍ」音[illegible]. pp. 124-5.>

다만 李 교수의 이 說明은 通時的 變化에 關한 말이다.

(18) 教育的으로는 變動되지 않은 元 語形을 推薦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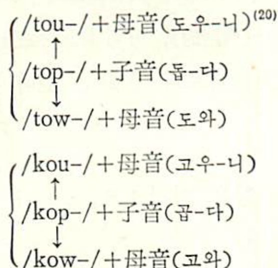
以上은 두 형태소가 連結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나, 한 형태소 內部에서도 앞뒤 소리 사이에서 이러한 우물라우트 현상이 일어나는 일이 있다.

남비—냄비, 두루마기—두루매기, 가랑이—가랭이,

가자미—가재미, 곰팡이—곰팽이, 다리미—대리미

이러한 變動도 個別的·任意的인데,[19] 이것이 元形에로의 復歸가 不可能하게 될 때는, 이 현상은 歷史的 事實에 속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變動이 아니라 「變化」가 되는 것이다. (「IV, 2」 참조.)

母音 사이 子音의 間隙 同化: ㅂ 變格 用言의 語幹 末音의 「ㅂ」은, 母音 사이에서는, 그 다음 母音이 /w/와 重母音을 이룰 수 있는 것이면 /w/로 바뀌고, 그렇지 않은 母音이 이어나면 /u/로 바뀌게 되고, /i/가 올 때는 아주 줄어지는 일도 있다. 이것은 間隙 0度의 /p/가, 間隙이 큰 母音 사이에 介在되었기 때문에, 間隙의 同化를 입어 間隙이 母音에 가까운 半母音의 /w/나, 바로 母音의 /u/로 變한 것이다. (다만 /i/ 위에서는 줄어지는 일도 있고, /w/를 그대로 지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不規則的이다.)



(「고이, 누이다」는 /w/가 /i/ 위에서 脫落된 경우이고, 「추위, 더위」는

---

(19) 變動이 任意的일 때에, 標準語 査定의 문제가 제기된다. 즉 「가랑이」들과 「가랭이」들이 任意的으로 변동될 때에, 어느쪽을 표준말로 정하느냐가 문제된다.

(20) 「도우니」 語形 變動의 記述的 順位는 다음과 같이 說明된다.

돕+으니→도우+으니→도우니

即 「돕-」에 終聲이 있으므로 語尾는 「-으니」가 붙게 된다. 그런데 「으」는 /w/와 重母音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ㅂ」은 「우」로 바뀌는데, 「ㅂ」이 「우」로 바뀌고 난즉 語尾에 「으」는 不必要하게 되어서 「도우니」가 되었다고 說明된다.

/w/가 /i/ 위에서 保有된 경우이다.)

모든 「ㅂ」이 母音 사이에서 다 이렇게 變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變動은 特定한 形態素에만 일어나는 個別的 현상이요, 이 形態素는 이 條件下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變動하기 때문에 必然的이다.

ㄷ 變格 用言의 語幹 形態素도, 그 末音의 /t/가 母音 사이에 介入하게되는 환경에서는 /l/로 變하는데, 이것도 亦是 間隙 同化를 입은 結果로 보아진다.

/tït-/+子音(듣-다, 듣-고)
↓
/tïl-/+母音(들-으니, 들-어)

/kəːt-/+子音(걷-다, 걷-고)
↓
/kəl-/+母音(걸-으니, 걸-어)

이 變動도, ㅂ 變格의 경우와 같이, 音聲的·個別的·必然的인 현상이다. 卽 母音 사이라는 音聲的 條件 下에서 일어나며(音聲的), 모든 /t/가 母音 사이에서 죄다 /l/로 바뀌지는 않으나(個別的), 이러한 特定한 形態素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變動이 일어나서 元形에로의 復歸는 全혀 不可能하다(必然的).

/t/가 母音 사이에서 /l/로 變하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n/나 /n-n/가 母音 사이에서 /l/, /l-l/로 바뀌는 일도 있다.

기념—기렴(紀念),	기능—기릉(技能),
관념—괄렴(觀念),	안녕—알령(安寧),
본능—볼릉(本能),	만년—말련(萬年). [21]

(21)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의하면, 이러한 /n-n/의 말들은 /n-n/를 原則으로 하고 /l-l/를 許容하게 되어 있고, /l-l/ 發音의 表記는 「ㄴ-ㄹ」로 하도록 되어 있다. (51 항)
그리고 「천량」(千兩)은 元來 /l-l/로 發音되는 것이나, 때로는 「천냥」으로 發音되는 일도 있다. 이것은 /n-n/→/l-l/ 變動과는 反對되는 현상인데, 「관념」~「괄렴」이 任意로 變動되는 데서 오는 類推作用의 所致로 생각된다.

이 현상은 母音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點으로 보아서 音聲的 變動이며, 母音 사이의 모든 /n/나 /n-n/가 죄다 이렇게 變動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22] 個別的이며, 變動 語形과 元形이 다 可能하기 때문에 任意的이다.[23]

同化 作用의 分類: 同化 作用은 그 影響을 주고 받는 方向에 따라 「順行 同化」와 「逆行 同化」와 「二重 同化」와 「互相 同化」로 나눌 수 있다.

順行 同化는 同化의 方向이 앞소리에서 뒤로 가는 것, 바꾸어 말하면 뒷소리가 앞소리를 닮는 것이다.

逆行 同化는, 同化의 方向이 뒤에서 앞으로 가는 것, 即 앞소리가 뒷소리를 닮는 것이다.[24]

互相 同化는, 뒷소리는 앞소리를 닮고, 앞소리는 또한 뒷소리를 닮는 것이다.

二重 同化는, 가운데 소리가 그 앞뒤의 소리를 同時에 닮는 것이다.

同化 作用은, 또한 影響을 주고 받는 소리의 相互 距離에 依해서 「隣接 同化「(또는 「直接 同化」)와 「間隔 同化」(또는 「間接 同化」)로 나뉜다.

隣接 同化(直接 同化)는, 문제의 두 소리가 直接 連結되어 있는 것.

間隔 同化(間接 同化)는, 문제의 두 소리 사이에 다른 소리가 介在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同化 作用은, 同化의 범위에 따라 「完全 同化」와 「部分 同化」로 나뉜다

---

(22) 이렇게 變動하는 것은 特殊한 말에 局限되고, 다음 말들은 이러한 變動을 일으키지 않는다.

간나위, 간난(艱難), 건너다, 난내(欄內), 논농사, 돈놀이.

(23) 「困難」은 元來 「곤난」 이나, 元 發音은 全혀 쓰이지 않고, 變한 發音만이 쓰인다 (골란). 「大怒」도 變動形인 「대로」만이 쓰인다.

(24) 최현배 님은, 順行(내리 닮음)과 逆行(치닮음)을, 여기에 설명한 것과는 反對되는 뜻으로 使用하고 있다. 즉 내리닮음은 앞소리가 뒷소리를 닮는것, 치닮음은 뒷소리가 앞소리를 닮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말본 (고친판). p. 107>

完全 同化는, 影響을 받는 소리가 영향을 주는 소리와 完全히 같아지는 것이다.

部分 同化(또는 「不完全 同化」)는, 문제의 두 소리가 가까워는져도 完全히 같은 소리로 됨은 아닌 것이다.

例를 들면;

먹+는다→멍는다 : 逆行·直接·部分

듣+으니→들으니 : 二重·直接·部分

같+이→가치 : 逆行·直接·部分

먹+이→메기 : 逆行·間接·部分

돕+으니→도우니 : 二重·直接·部分

막+{아/어}→막아 : 順行·間接·完全

달+나라→달라라 : 順行·直接·完全

십+리→심니 : 互相·直接·部分

(3) 縮　約

앞 形態素의 끝소리와, 接續되는 形態素의 첫소리가 다 母音일 때는, 이 두 母音이 重母音으로 變하거나, 또는 그 間音인 單母音으로 變하여, 두 音節이 한 音節로 바뀌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縮約」이라 한다.

〔가〕 /i/+/ə/→/jə/

그려(畵), 다녀도(步行), 꾸몄다(飾), 잡혀서(捕), 보였다(示), 맡겨라(任) (←그리+어,……, 맡기+어라)

〔나〕 /o/+/a/→/wa/

/u/+/ə/→/wə/

봐라, 와서, 쏴도 (←보+아라, 오+아서, 쏘+아도)

둬서, 미뤄도, 둬라 (←두+어서, 미루+어도, 두+어라)

〔다〕 /ï/+/i/→/ïj/

띄다(←뜨이다), 씌다(←쓰이다)

〔라〕 /ϕ/+/ə/→/wɛ/

/y/+/ə/→/we/

봬(←뵈어) 준다, 퍠라(←푀어라), 됐다(←되었다); 쉐라(←쉬어라),

줬다(←쥐었다), 뛔(←뛰어), 뛨다(→뛰었다)

〔마〕 間音으로 바뀌는 경우.

/po-i-/→/pϕ-/ 示

/ča-i-/→/čɛ-/ 使眠

이러한 경우에는, 두 形態素를 분간하기가 困難하게 된다.

이 變動들은 書寫 言語에 있어서는 多少 任意的이다. 卽 「그리어~그려, 보아라~봐라」의 어느 편으로 써도 相關이 없다. 그러나 입말에 있어서는; 「가」의 경우는 必然的이다. 元形은 쓰이지 않는다. 「나」의 경우는 各 語形이 좀 事情을 달리하여, 「와서」는 必然的이나, 다른 말들은 任意的이다. 卽 「오아서」는 쓰이지 않으나, 다른 말들에 있어서는 兩便이 任意로 쓰일 수 있다. 「다」의 「쓰이다」 「뜨이다」는 書寫에서나 입말에서나 兩便이 다 쓰일 수 있다. 「라」도 亦是 任意的이다. 「마」의 「뵈-」는 「보이-」와 任意的이나, 「재-」는 變動이 必然的이다.

또 앞 형태소의 끝소리가 /k/, /t/, /p/이고, 뒤 형태소의 첫소리가 /h/일 때는, 이 두 소리는 한 소리로 바뀐다.

/k/+/h/→/kʰ/: 먹히다, 막히다, 각하

/t/+/h/→/tʰ/: 옷하고 /otʰako/

뒤에 /i,j/가 이어날 때는 다시 口蓋音化가 일어난다.

닫히다→*/tatʰi-/→/tačʰi-/

묻히다→*/mutʰi-/→/mučʰi-/

/p/+/h/→/pʰ/: 잡히다, 입학

앞 형태소의 끝이 /h/이고, 뒤 형태소의 첫소리가 /k/, /t/, /p/, /č/인

경우에도 한가지 결과가 된다.

/h/+/k/→/kʰ/: 좋고 /čoːh-/+/-ko/→/čoːkʰo/

그 밖에 : 많고, 그렇고, 싫고, 앓고, 곯고.

/h/+/t/→/tʰ/: 좋다 /čoːh-/+/-ta/→/čoːtʰa/

그 밖에 : 많다, 그렇다, 싫다, 앓다, 곯다.

/h/+/p/→/pʰ/: 아프다 /alh-/+/-pï-/→*/alpʰï-/→/apʰï-/(25)

그 밖에 : 고프다 (←곯+브)

/h/+/č/→/čʰ/: 좋지 /čoːh-/+/-či/→/čoːčʰi/

그 밖에 : 많지, 그렇지, 싫지, 앓지, 곯지.

이 變動은 音聲的·普遍的·必然的이다. 그 變動의 條件은, 이러한 두 音素가 連結되는 데 있고(音聲的), 이런 音素의 連結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경우에나 一般的으로 이러한 變動이 일어나기 마련이고(普遍的), 이렇게 變動되면 반드시 變動形만이 쓰이고 元形은 쓰이지 않는다(必然的).

(4) 省 略 (脫 落)

형태소가 놓이는 자리에 따라서, 基本 形態의 音素가 줄어지는 일이 있다.

〔가〕 앞 形態素의 끝 母音과, 다음 形態素의 첫 母音이 같은 音素일 때는, 그 中 한 母音이 줄어진다.

/가-/行 + /-아서/→/가서/

/서-/立 + /-었다/→/섰다/

〔나〕 앞 形態素의 끝 母音이 /으/音이고, 다음 形態素의 첫 母音이 /어/音일 때는, 앞의 /으/音이 줄어진다.

/뜨-/浮 + /-어서/→/떠서/

/쓰-/書 + /-어도/→/써도/

---

(25) 「아프다」는 動詞 「앓다」의 派生 形容詞인데, 그 派生法은, 「앓-」에 接尾辭 「-브-」가 붙고, 다시 「ㄹ」은 「ㅍ」위에서 줄어진다.
이러한 說明은 共時的 變動에 대한 說明이며, 通時的 變化를 고려한 것이 아님을 留意할 것이다.

/크-/大 + /-었다/→/컸다/

/트-/坼 + /-어야/→/터야/

〔다〕 앞 形態素의 끝소리가 /에, 애/이고, 뒤 形態素의 첫소리가 /어/인 때는 뒤의 /어/가 줄어진다.

/개-/晴 + /-어서/→/개서/

/재-/尺 + /-어라/→/재라/

/캐-/採 + /-었다/→/캤다/

/베-/截 + /-어도/→/베도/

/보내-/遣 + /-어라/→/보내라/

/세-/數 + /-었다/→/셌다/

〔라〕 /l/ 音은 /n, t, č, s/ 위에서는 흔히 줄어진다.

/l-n/: 소나무, 부나비, 부넘기, 따님, 나날

/l-t/: 여닫이, 다달이, 차돌, 마되

/l-č/: 무자위, 싸전, 차조, 바느질

/l-s/: 부삽, 화살, 마소, 부손

ㄹ 變格用言의 ㄹ은 /-n-, -p-, -o, -si-/ 위에서 줄어진다.

/l-n/: 기나, 기니(長)

/l-p/: 놉니다, 놉시다(遊)

/l-o/: 가오(磨), 노오(遊)

/l-si/: 아시다(知), 노시다(遊)

〔마〕 ㅅ變格 用言의 ㅅ은, 첫소리가 母音인 語尾가 連結될 때는 ——ㅅ이 母音 사이에 介在될 때는——줄어진다.

낫다(癒)——나아, 나으니

잇다(續)——이어, 이으니

〔바〕 語幹의 끝 ㅎ이 줄어지는 일이 있다. (ㅎ 變格)

하얗다(白)——하야니, 하얀, 하야면, 하얄

커다랗다(大)——커다라니, 커다라면, 커다란, 커다라서[26]

ㅎ 變格 用言이 아닐지라도, 語幹의 끝 ㅎ은, 有聲音 사이에 介在될 때는 대개 줄어진다.

좋으니→조으니, 넣어도→너어도, 놓아서→노아서, 많은→만은,

싫은→실은, 끊어서→끈어서

〔사〕 앞 子音이 /s, č, čʰ/일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나는 /jə/의 半母音이 省略된다.

/si/+/ə/→/sjə/→/sə/: 하서서

/či/+/ə/→/čjə/→/čə/: 가저라

/čʰi/+/ə/→/čʰjə/→/čʰə/: 첬다

〔아〕 調聲 母音의 /으/는 母音 밑에서 줄어진다.

먹으니 : 보니 (「-으니」를 基本形態로 한다.)

〔자〕 助詞 {과}의 /ㄱ/은 母音 밑에서 줄어진다.

사람과 : 소와

〔차〕 앞에서 우리는 소리의 길이도 音韻으로 보았으므로, 긴 소리가 짧은 소리로 變하는 것도 亦是 一種의 音韻 省略으로 볼 수 있다.

用言의 語幹:

쉽-(易), 잇-(續), 짓-(作), 말-(止), 알-(知), 멀-(遠), 열-(開), 울-(泣),

살-(居)

들은 모두 긴 소리이다. 그런데, 이러한 語幹에, 첫소리가 母音인 語尾가 붙으면 짧은 소리로 變動한다. 곧

쉬우면, 쉬워서, 쉬웁니다

알아서, 알아라

멀어서, 멀어도

따위 活用形에 있어서는, 語幹은 짧게 發音된다.

---

(26) ㅎ 變格 形容詞의 變異 條件에 關한 詳細한 說明은,
최현배 : 우리말본 (고친판). pp. 504-5를 볼것.

그리고

알리다, 열리다, 울리다

따위에 있어서도 元語幹은 짧은 소리로 發音된다.

또 漢字의 長音도, 第一 音節에서는 긴 소리로 發音되나, 第二 音節 以下에 있어서는 짧은 소리로 發音됨이 普通이다.

세:상(世上)　　말세(末世)

고:국(故國)　　연고(緣故)

성:격(性格)　　남성(男性) 等等.

(긴 소리는 오른 편에 : 표함)

국어의 長短의 韻素는 語節의 第一 音節에서만 辨別的이고, 第二 音節 以下에서는 긴 소리는 나타나는 일은 없고, 짧은 소리만 나타나므로, 長短의 對立은 이 位置에서는 中和된다. 따라서 合成語의 第二 要素가 元來 긴 소리를 가졌던 말에 있어서는 그 긴소리는 짧게 된다.

밤 /paːm/ ——군밤 /kuːn-pam/

솔 /soːl/ ——치솔 /čhi-sol/

以上의 變異들의 性格은 各異하다.

「가」의 경우는 個別的·必然的이다. 卽 母音의 重複은 全혀 許容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27) 이 變動은 個別的이며, 兩便이 다 쓰이지 않고, 變動된 편만이 쓰이므로 必然的이다.

「나」의 경우도 個別的·必然的이다. 卽 /으/와 /어/의 連結은 다른 데서는 許容되므로(28) 이 變動은 個別的이며, 元形의 使用은 一切 許容되지 않으므로 必然的이다.

---

(27) 重複 母音의 例 :
나아가다(進行), 나아지다(癒), 사악(邪惡)
넣어라→너어라(入), 더없이, 서언(序言).

(28) /으/+/어/ : 그어(劃), 그어주다. 그러나 이러한 連結은 아주 드물기 때문에, /으/+/어/→/어/의 變動은 普遍的이라 해도 좋을 程度이다.

「다」의 경우는, 兩 母音의 連結이 다른 데서는 許容되므로,[29] 이 變動은 個別的이며, 書寫에 있어서는 任意的이나, 입말에서는 必然的이다.

「라」는, 이러한 連結이 許容되는 일이 있으므로[30] 個別的이며, 이 例들 中에는 必然的인 것과 任意的인 것이 뒤섞여 있다. 卽 「여닫이」 따위는 必然的인 變動이나, 「소나무」는 任意的이다. (솔나무)

ㄹ 變格은 個別的·必然的이다. (다만 이것은 形態的이나 편의상 여기 넣었다.)

「마」의 경우는, 「ㅅ」이 母音 사이에서 줄어지지 않는 일도 있으므로[31] 이 變動은 個別的이며, 元形 復歸는 不可能하므로 必然的이다.

「바」의 ㅎ 變格은, 대체로 /ㄴ, ㅁ, ㄹ/ 위에서 /ㅎ/이 줄어지므로 音聲的 變動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커다라-서」와 「커다랗-소」를 比較해 보면, /ㅅ/ 위에서 脫落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므로, 이 경우에는 形態的 變動이다. 따라서 ㅎ 變格의 變動은 순수히 音聲的 條件으로 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그 變動의 大部分이 音聲的으로 說明되기 때문에 여기 넣어 두었다. (「커다라서」는, 「커다랗아서→커다라아서→커다라서」로 變異된 것으로도 說明된다. 이렇게 보면 이 變動도 亦是 音聲的이다). 그리고 ㅎ 終聲을 가진 用言으로서 正格 活用도 있으므로, 이 變動은 個別的이며, 元形으로의 復歸는 不可能하므로 必然的이다.

다음으로 有聲音 사이의 /ㅎ/의 省略은, 一般的 현상이므로, 普遍的 變動이며, 元形에로의 復歸가 可能하므로 任意的이다. (좋으니~조으니). 다만 元形으로 復歸되더라도 完全한 無聲의 [h]로 나기는 어렵고, 有聲化하여 [ɦ]로 나는 것이 普通이다.

「사」의 경우는, 이러한 音素 連結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變動이 일어나므

---

(29) /애/+/어/ : 개업(開業), 대언(代言).
/에/+/어/ : 데억지다, 세업(世業).

(30) /l-n/→/l-l/ : 달나라
/l-t/ : 돌다리
/l-č/ : 갈지개
/l-s/ : 갈색

(31) 「웃-어, 웃-으니; 빼앗-아, 빼앗-으니」 따위.

로 普遍的이다. 그리고 /č, čh/의 경우에는 元形 復歸는 不可能하므로 必然的이나, /s/의 경우는 元形 復歸도 可能하므로 任意的 變動이다.

「아」와 「자」는 모두 必然的·個別的이다.

「차」의 경우는 韻素의 省略으로서 위의 경우와는 좀 다른 現象인데, 이 變動은 普遍的이며 必然的이다.

[카] 마지막 省略의 한가지로, /i, j/ 앞의 /n/, /l/의 語頭에서의 省略을 들 수 있다. 卽 基本 形態의 첫머리의 /i, j/ 앞의 /n/나 /l/는 말 첫머리에서는 省略된다.

남녀(男女)——여자(女子)

도리(桃李)——이화(李花)

위의 變動은 普遍的이요, 必然的이다.

形態素 첫머리의 다른 母音 앞의 /l/는 줄어지지 않고 /n/로 바뀐다. (이 현상은 여기에 들어갈 문제가 아니나, 便宜上 여기에서 說明을 붙여 둔다).

부로(父老)——노인(老人)

<붙임> 重子音 終聲의 歸着도 音素의 省略의 한가지다. (→歸着)

닭→닥, 값과→갑과, etc.

(5) 添　加

두 形態素 사이에, 그 어느 便에도 屬하지 않는 音韻이 添加되는 일이 있다.

〔가〕 아래 형태소의 첫소리가 /i, j/인 때는 그 사이에 /n/가 덧난다. (다만 두 형태소 사이에 休息을 둘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卽 語幹과 語尾사이나, 體言과 助詞 사이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tɛ/ + /iph/→/tɛ-nn-iph/ 댓잎(竹葉)

/arɛ/ + /i/→/arɛ-nn-i/ 아랫이(下齒)

/pekɛ/+/is/→/pekɛ-nn-is/ 베갯잇(枕衣)

/č^hɛ/+/jəl/→/č^hɛ-nn-jəl/ 챗열(鞭穗)

앞 形態素의 끝소리가 子音일 때는, 添加된 /n/와의 사이에서 子音 接變이 일어난다.

/čip/+/il/→/čip-n-il/→/čimnil/ 집일(家事)

/sol/+/ip^h/→/sol-n-ip^h/→/sollip^h/ 솔잎(松葉)

/mul/+/jak/→/mul-n-jak/→/mulljak/ 물약(水藥)

/s'al/+/jəs/→/s'al-n-jəs/→/s'alljəs/ 쌀엿(米飴)

이것은, 이러한 音素 連結의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일이 아니므로 (「꽃이름」과 「나라이름」을 비교) 個別的이며, 元形 復歸는 不可能하므로 必然的이다.

〔나〕 위의 형태소가 母音으로 끝나고, 아래 形態素의 첫소리가 /n/, /m/일 때는, 이것을 二重 子音으로 겹치는 일이 있다.

/k^ho/+/nal/→/k^ho-n-nal/ 콧날

/k^ho/+/nolɛ/→/k^ho-n-nolɛ/ 콧노래

/pɛ/+/məlmi/→/pɛ-m-məlmi/ 뱃멀미

/i/+/mom/→/i-m-mom/ 잇몸

이것도 亦是 個別的·必然的이다.

〔다〕 助詞 「-은」, 「-을」은, 母音 밑에 붙을 때는, 앞에 /ㄴ, ㄹ/이 添加된다.

사람은, -을 : 새는, -를

調聲母音을 取하는 助詞나 語尾는, /으/가 있는 편을 基本으로 한다.

그 밖에 音素의 添加로는 :

/p/나 /h/ 音이 덧나는 경우 :

/čo/ + /s'al/ → /čo-p-s'al/ 좁쌀

/hɛ/ + /s'al/ → /hɛ-p-s'al/ 햅쌀

「멥쌀, 찹쌀」 들도 同一함.

/i/ + /t'ɛ/ → /i-p-t'ɛ/ 입때

「접때」 亦是 한가지임.

이것은 歷史的으로 說明될 수 있으니, 아래 形態素가 그 첫소리로서 /p/ 音을 가지고 있었다. ——쌀, 때.

/an/ + /pakk/ → /an-h-pakk/ → /anphakk/ 안팎

/am/ + /kɛ/ → /am-h-kɛ/ → /amkhɛ/ 암캐

/su/ + /kɛ/ → /su-h-kɛ/ → /sukhɛ/ 수캐

「암탉, 수탉, 안들다, 조팝」들도 다 同一한 例인데, 이것도 歷史的으로 說明된다. 即 앞 形態素가, 李朝 初期에서는, 그 끝소리로서 /h/ 音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用言의 語幹과 語尾 사이에, /l/, /j/가 덧나는 경우:

/ha-/ + /-ə-/ → /ha-j-ə-/ 하여 (爲)

/ilï-/ + /-ə-/ → /ilï-l-ə/ 이르러 (至)

以上과 같은 變動도 있으나, 이것은 音聲的 條件으로 變動된 것이 아니기에 여기 넣지 않는다.

(6) 異　化

같은 소리나 비슷한 소리가 이어날 때에, 그 中의 한 소리를 그와 다른 소리로 바꾸거나, 다른 소리에 同化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同化되기 어려운 소리로 바꾸는 현상은 「異化」라 불리우는데, 이것은 同化에 正反對되는 현상이다.

[가] 無聲 軟子音 /k/, /t/, /p/ 밑의 軟子音은, 두 軟子音의 連結을 피하여, 뒤의 子音이 硬音으로 바뀌는 傾向이 있다.

/k→k'/ : 먹-고 → /mək-k'o/, 앞-길 → /ap-k'il/, 옷-감 → /ot-k'am/

/t→t'/ : 맞-돈 → /mat-t'on/, 막-다 → /mak-t'a/, 짚-단 → /čip-t'an/

/p→p'/ : 국-밥 → /kuk-p'ap/, 듣-보다 → /tït-p'o-/, 입-버릇 → /ip-p'əlït/

/č→č'/ : 먹-줄 → /mək-č'ul/, 밑-줄 → /mit-č'ul/, 집-주인 → /čip-č'uin/

/s→s'/ : 먹-소 → /mək-s'o/, 말-손자 → /mas-s'onča/, 밥-솥 → /pap-s'ot/

終聲 /k/, /t/, /p/로 歸着된 경우에도 모두 같은 현상이 일어남은 勿論이다.

이 變動은 모든 경우에 一般的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普遍的 性格을 띠고 있으며, 元形에로의 復歸가 可能한지 不可能한지는 사람에 따라 差異가 있는듯 하나, 된소리로 내는 것이 一般的 傾向인듯 하다.(32) 따라서 必然

(32) 筆者 自身의 發音으로는 分明히 復歸가 可能하므로, 이 變動은 任意的이다.

的 變動으로 보는 것이 좋겠으나, 任意的일 수도 있음을 容認하지 않을 수 없다.[33]

[나] 軟子音 /k/, /t/, /p/, /č/ 는 有聲音 사이에서는 有聲의 變異音으로 同化되어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有聲音만의 連續이 되는데, 이러한 비슷한 소리의 連續을 미리 避하기 위해서, 위의 子音들이 硬音으로 바뀌는 일이 있다.

/k→k'/ : 산-길 → /san-k'il/, 내-가 → /nɛ-k'a/, 검-고 → /kəːm-k'o/

/t→t'/ : 갈-대 → /kal-t'ɛ/, 코-등 → /ko-t'ïŋ/, 삼-다 → /saːm-t'a/

/p→p'/ : 산-불 → /san-p'ul/, 나루-배 → /nalu-p'ɛ/

/č→č'/ : 산-짐승 → /san-č'imsïŋ/, 바-줄 → /pa-č'ul/, 안-지 → /aːn-č'i/

/s/ 는 有聲化할 염려가 없기는 하나, 위의 된소리化에 類推되어, 亦是 된소리로 바뀐다.

/s→s'/ : 산-새 → /san-s'ɛ/, 이-새 → /i-s'ɛ/, 신-소 → /sin-s'o/

漢字語의 경우에도 이러한 現象이 나타난다.

例 : 理科, 加法, 戶數, 商科, 漢字, 卷數, 定價, 八字, 發達, 必是, 決裁 等等.

그리하여 이러한 變動의 有無에 따라서 말의 뜻이 달라지는 일이 있다. 卽 '文字'를 /mun-ča/ 로 읽을 때는, '속담 격언 또는 漢字 熟語' 따위를 가리키게 되는데, /mun-č'a/ 로 읽을 때는 '글자'란 뜻이 되는 것이다.

冠形詞形 語尾의 {을} 밑에서는 規則的으로 이러한 現象이 나타난다.

例 : 할 것, 할 수, 살 집, 팔 집 따위

다음 말들은 完全히 한 낱말로 익어버렸다.

(33) 이 位置에 있어서의 軟音과 硬音의 對立은 中和的이므로, 事實上 이 경우의 軟音과 硬音은 그 分別이 그리 똑똑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가장 正確한 表現일 것이다.

들것(擔架), 들보, 질손(把所), 길짐승(走獸), 굴대(轉軸)

「나」의 變動은, /k, t, p, č, s/를 첫소리로 하는 형태소에 普遍的으로 일어나는 現象이 아니므로, 個別的 性格을 띠고 있으며, 元形에로의 復歸는 不可能하므로 必然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變動이 音聲的으로 說明되느냐 하는 것은 좀 문제이다. 「불」이란 형태소의 「ㅂ」이 有聲音 사이에 介在될 때는 반드시 된소리가 된다면, 이 變動은 個別的이요(다른 모든 有聲音 사이의 「ㅂ」이 그렇게 變하는 것이 아니기에), 音聲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의 /p→p'/의 變異는 그렇지 못하여, 有聲音으로 끝난 形態素 中의 特定한 것이 위에 오는 경우에 局限된다.

{산-불 → /san-p'ul/ {쥐-불 → /čy-pul/
{등-불 → /tïŋ-p'ul/ {군-불 → /kuːn-pul/

그러므로 이 變動은 形態的 條件으로 說明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音聲的 條件은 形態的 條件에 先行한다. 卽 이러한 異化 作用(된소리化)이 일어나는 것은, 문제의 音素가 有聲音 間에 介在됨을 要하고, 다음으로 그 中의 特定한 形態素의 先行을 要한다. 卽 이 變動은 音聲的·形態的 두가지 條件이 겹쳐져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說明하게 되는 것이다.

3) 變動과 變格 活用

국어의 動詞와 形容詞의 變格 活用(不規則 活用)이란 것을 보면:

가) 語幹이 不規則한 것:

(ㄱ) 語幹의 끝소리가 줄어지는 것:

ㄹ 變格:— 예, 놀-다~노-니

ㅅ 變格:— 예, 잇-다~이-으니

ㅎ 變格:— 예, 하양-다~하야-니

으 變格:— 예, 쓰다~써라

우 變格:— 예, 푸다~퍼라

(ㄴ) 語幹의 끝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뀌는 것:

ㅂ 變格: — 예, 덥다~더우-니

ㄷ 變格: — 예, 듣-다~들-으니

나) 語尾가 不規則한 것:

여 變格: — 예, 하-다~하-여, 하-였다

러 變格: — 예, 이르-다~이르-러, 이르-렀다

거라 變格: — 예, 가-다~가-거라

너라 變格: — 예, 오-다~오-너라

다) 語幹과 語尾가 다 不規則한 것:

르 變格: — 예, 흐르-다~흘-러

이 變格 活用이란 것은, 모두 形態素의 變動에 關한 것인데, 「가」는, 己 變格만 除하면, 모두가 다 그 變動의 條件이 音聲的인 것이요, 「나」는 그 條件이 形態的인 것이다. 그런데 「다」는 語幹과 語尾가 다 不規則的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것은 「흘러」를 語幹 「흘-」과 語尾 「-러」로 分析했기 때문이며, 萬一 이것을 語幹 「흘ㄹ-」과 語尾 「-어」로 分析하면, 이것도 「으 變格」의 一種으로 볼 수 있다.

흐르-어 → */hïl-ə/ → /hïll-ə/

卽 /어/ 위에서 語幹 끝소리의 /으/가 줄어지는 것은 「으」 變格과 같으며, 다만 /l/가 重複되는 點이 좀 다를 뿐이다.[34] 따라서 「이르-, 치르-, 따르-, 다다르-」 따위 몇 낱말을 例外로 돌린다면, 「르」 變格도 音聲的인 變動으로 보아 둘 수 있다.

이렇게 보면, 變格 活用이란, 語尾가 不規則한 것은, 그 變異 形態의 變異 條件이 形態的인 것에 屬하고, 語幹이 不規則한 것은, 그 變異 條件이 音聲

(34) 「르」를 語幹의 끝 音節로 하는 單語들 中에, 이렇게 變動하지 않는 例外는, 「으」가 줄어지지 않고 「으-어」 사이에 「ㄹ」이 덧나는 「이르-」(至)와, 「으」가 줄어지기는 하되 /l/의 重複을 일으키지 않는, 말하자면 正常的인 「으」 變格인 「치르-」, 「따르-」, 「다다르-」의 몇 낱말 뿐이다.

的인 것에 屬한다.

그러면 語幹이 音聲的 變異 形態를 가진 것은 죄다 變格으로 보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먹다」의 語幹은 「먹-」과 「멍-」으로 變異되며, 그 變異의 條件은 音聲的이니, 이 點으로 보면, 「듣다」의 語幹이 音聲的 條件으로 「듣-」과 「들-」로 變異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먹다」는 正格(規則) 活用으로 보고, 「듣다」는 變格(不規則) 活用으로 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 문제는 국어 문법에서는 잘 說明되어 있지 않으나, 「먹-」의 變動이 音聲的이면서 普遍的인데 比해서, 「듣-」 따위의 變動은 音聲的이기는 하나 個別的인데 그 理由를 찾을 것이다. 卽 어떠한 變動이 모든 경우에 普遍的으로 일어나면, 이것은 變格으로 보지 않으나, 그러한 變動이 一部 局限된 形態素에서만 나타날 때는 變格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으」 變格을 變格으로 보지 않는 일이 있으나, 「으-어」의 連結이 可能한 限(註28보라), 이 變動은 個別的이므로, 亦是 變格으로 보는 것이 妥當하다.

또 앞의 異化에서 說明한 바와 같은,

신-다 → 신-따, 검-다 → 검-따

와 같은 語尾의 變動은, 音聲的·形態的 두가지 條件으로 說明되는 個別的 變異이기 때문에, 亦是 一種의 變格 用言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母音 調和

副詞形 語尾의 變異 形態에는 「-아」와 「-어」가 있는데, 「-아」는 語幹의 끝소리가, 그와 같은 소리인 /아/이거나, 또는 /오/일 때에 쓰이고, 「-어」는 그 밖의 母音, 卽 /이, 에, 애, 위, 외, 으, 어, 우/에 連結된다.

/아-아/ : 막-아, 잡-아, 맑-아, 얇-아

/오-아/ : 녹-아, 보-아, 쏘-아, 오-아 (→와)

/이-어/ : 길-어, 그리-어, 믿-어

/에-어/ : 떼-어, 베-어

/애-어/ : 매-어, 깨-어

/위-어/ : 쥐-어, 뛰-어

/외-어/ : 되-어, 꾀-어

/으-어/ : 그-어, 들-어, 거들-어[35]

/어-어/ : 멀-어, 열-어, 얻-어

/우-어/ : 불-어, 줄-어, 죽-어

이 현상은 /아, 오/가 같은 類가 되고, 나머지 母音은 또한 다른 類로 나뉨을 보이는 것으로서, /아, 오/ 系統의 母音 밑에는 같은 系統에 속하는 「-아」가 쓰이고, /어, 우, …/ 系統의 母音 밑에는 亦是 같은 系統에 속하는 「-어」가 쓰이게 되므로, 이러한 현상을 「母音 調和」(vowel harmony)라 한다.

/아, 오/를 「陽性 母音」(또는 「强母音」)이라 하고, 다른 母音을 「陰性 母音」(또는 「弱母音」)이라 한다.

現代 國語의 母音 調和는 이 語尾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命令形의 「-아라 ~ -어라」, 接續法의 「-아서 ~ -어서」, 「-아도 ~ -어도」에도 나타나고, 過去의 「-았- ~ -었-」에도 나타난다.[36]

알타이語에 있어서의 母音 調和에 있어서 類別된 母音에는 各各 서로 다

---

(35) 「달라 (異), 짤라(分)」와 같은 副詞形은,

다르-어 → 달-러 → 달라

짜르-어 → 짤-러 → 짤라

와 같은 記述的 順位를 세워 說明된다. 即 「다르-」의 /으/ 밑에서는 「-어」가 選擇되는데, /으/가 줄어지고 나면 바로 第一 音節의 /아/와 連結되기 때문에, 이에 調和되기 위해서 「-아」로 바뀐 것이다.

(36) 「-았-」이 둘이 連結될 때는 「-았었-」이 된다. 「갔었다, 보았었다」.
그리고 현대 국어의 모음 조화 현상은 擬聲語 擬態語에도 나타남은 周知의 事實이나, 이 현상은 形態素의 統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따로 說明하기로 한다.

른 共通的인 辨別的 資質이 있음이 普通이다. 이를테면 蒙古 文語에는 e, ö, ü, a, o, u, i의 일곱 母音이 있는데, 母音 調和에 依한 類別은, 前舌系의 e, ö, ü와 後舌系의 a, o, u로 나뉘고 i는 中性的이다. 그러나 현대 국어의 陽性類와 陰性類는 各異한 共通的 資質을 發見하기 어렵다. 그리고 調和가 일어나는 範圍도 매우 좁아서, 현대 국어에 있어서의 母音 調和의 힘은 매우 微弱하다.

母音 調和는 같은 種類의 音素가 結合되려고 하는 현상이므로, 亦是 一種의 同化 作用의 所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현상은, 두 變異 形態의 選擇이 音聲的 條件에 依해서 決定되므로, 音聲的인 것임은 勿論인데, 特定한 形態素에 局限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다른 경우에는 母音 連結에 반드시 이러한 制約을 받는 것은 아니다[37]) 個別的이요, 그리고 이 형태소에 있어서는 그 變異 形態의 使用은 그 條件에 따라 一定해 있으므로 必然的이다.[38]

以上에 說明한 母音 調和는 한 形態素가 다른 形態素와 連結되는 데에서 나타나는 變動의 現象이다.

그러나 母音 調和는 이러한 경우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한 形態素의 內部的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일도 있는데, 이것은 變動에 속하지는 못한다.

卽 二音節 以上의 擬聲語나 擬態語에 있어서는, 한 形態素 內部의 母音은, 一般的으로, 陽性이면 陽性 끼리, 陰性이면 陰性끼리만이 連續되어서 나타나며, 兩性이 混在되는 일은 없다.

---

(37) 한 單語 안에서도 陽性類와 陰性類가 混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나무, 아들, 소리, 다리, 등등.
그러므로 陽과 陽의 配合, 陰과 陰의 配合은 普遍性을 띠지 못했다.

(38) 陽性類 語幹으로서, 終聲이 있을 경우에는 「-아」와 「-어」가 어느 程度 任意로 쓰이는 傾向이 있다.
받-아 ~ 받-어, 알-아 ~ 알-어, 등.
文章體로서는 「-아」가 쓰이고, 口語體로서는 「-어」로 기울어지는 듯하다.

/아-아/ : 팔팔, 찰찰, 쌀쌀, 딸랑딸랑, 바삭바삭

/오-오/ : 솔솔, 콩콩, 졸졸

/아-오/ : 알록알록, 알송달송

/오-아/ : 므락모락, 쏙닥쏙닥, 끄박끄박

/우-우/ : 술술, 줄줄, 쿵쿵

/어-어/ : 설설, 철철

/우-어/ : 훌쩍훌쩍, 중얼중얼

/어-우/ : 얼룩얼룩

以上은 典型的인 陽性, 陰性 끼리의 調和의 例이다. 그런데 /으/, /이/는, 앞에 말한 語尾의 調和 現象에 있어서는, 陰性에 들게 되어 있는데, 의성어나 의태어에 있어서는 /아, 오/나 /우, 어/에도 서로 調和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으/ : 빙글빙글, 싱글싱글

/오-으/——/우-으/ :

보슬보슬——부슬부슬

쏘근쏘근——쑤근쑤근

/오-이/——/우-이/ :

꼼질꼼질——꿈질꿈질

몽실몽실——뭉실뭉실

/아-으/——/어-으/ :

산들산들——선들선들

반들반들——번들번들

/아-이/——/어-이/ :

남실남실——넘실넘실

이로써 보면 /으/, /이/는 中性 母音이라고도 할만 하다.

<붙임> 現行 綴字法의 基本 原則

여기에서 우리는 現行 綴字法이, 어떠한 原則에 依해서 處理되어 있는가를 考察해 보기로 한다.

現行 綴字法에 있어서 「띄어쓰기」는, 讀書 能率上 매우 重要한 일인데, 이 띄어쓰기의 基準은, '통일안'에서는 明確하게 되어 있지 않으나, 事實上 '語節'을 單位로 하여 있다. 語節은 實地의 말에서 또박 또박 띄어서 發音할 수 있는 breath group이므로, 이것을 單位로 하여 띄어 쓴다는 것은, 글 쓰는 사람이나 글 읽는 사람의 實地 呼吸에 맞는 것이라 할 수 있다.

語節 內의 各 形態素는, 앞에서 말한 그 基本 形態를 表示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통일안의 根本 精神이다. 形態素는 音聲·意義的인 最小의 單位이다. 그러므로 이 形態素의 基本 形態를, 多少 音의 變動이 있을지라도, 固定하여 둔다는 것은, 말의 뜻을 把握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통일안 7, 8, 9, 19 항에 있어서, 體言, 語幹의 '원형'을 밝혀 쓰게 하고, 따라서 그에 붙는 助詞나 語尾, 그리고 補助語幹, 接尾辭 따위의 원형도 밝혀 써지게 되어 있는데, 이 '원형'이란, 앞에서 말한 基本 形態를 말함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子音 接變이나 口蓋音化가 일어나더라도 그 基本 形態는 그대로 固守하게 되는 것이다. (제 5 항)

合成語를 形成할 때도, 勿論 音의 變動이 일어나는 일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앞에서와 같이, 그 基本 形態를 固守한다. 다만 앞에서 說明한 「添加」의 〔가〕 〔나〕나, 「異化」의 〔나〕와 같은 變動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두 말 사이에 「ㅅ」을 두어 표시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添加나 強化는 普遍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添加·異化되며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느냐는 미리

豫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現象이 일어날 때는 죄다「사이ㅅ」을 두어 표시해야 할 것이나, 통일안에서는 윗말에 받침이 있을 때——곧 앞 形態素가 子音으로 끝나 있을 때——는「ㅅ」을 省略하게 되어 있으니, 이것은 表記法의 한 缺點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用言의 語幹에 接辭「-이, -음」이 붙고, 또 名詞에「-이」가 붙어서 아주 獨立한 單語로 되어버린 것도 그 各 形態素의 基本 形態를 밝히게 되어 있는데(제 12, 14항), 接辭「-이, -음」은 勿論 하나의 形態素이므로 이 亦是 當然한 處理 方法이다.

길이(名), 높이(名), 같이(副), 얼음(名), 졸음(名), 곳곳이(副), 곰배팔이(名)

同一한 理由로 接尾辭「-하다, -이다」가 붙을 때도 그 基本 形態를 固守한다.(제 21, 23, 24항)

꾸준히, 착하다, 속하다; 번쩍이다.

때로는 接辭의 基本 形態란 것을 決定하기가 困難한 경우도 있으나, 이럴 때도 亦是 一種의 便法에 依해서 그 基本 形態를 決定한다. 이를테면「웃」(上)과 같은 말은「ㅅ」으로 나는 일은 없으나, 從來의 慣習을 따라 ㅅ을 그대로 둔 것이다. (제 6, 32항)

그리고「놓치다」,「뻗치다」의「-치-」는,「덮치다」「엎치다」와의 關聯性으로 말미암아「-치-」로 決定되었다. (제 18 항)

語幹의 끝소리가 ㅂ인 말은, 變格과 正格 두가지가 있는데, 이에는 아무런 規則이 없다. 그러므로 ㅂ 變格의 경우에 있어서 語幹의 基本 形態를 밝혀서 쓸것 같으면——이를테면「덥어」(暑)——이것을 正格으로 읽을 것인지, 變格으로 읽을 것인지 決定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發音대로 적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基本 形態를 表示해서는 發音에 支障이 있을 憂慮가 생겨날 경우에는, 發音대로 적게 되는 것이다.(제 10, 29항)

그리고 基本 形態와 變異形이 너무 相距가 멀 때에도 發音대로 적게 된다.

(제 26, 54항. 그리고 漢字音으로는 42, 43, 44항 보라.)

「마중」 따위는, 「맞-」에 「-웅」이 붙어서 名詞가 된 것이므로 둘 다 各各 獨立한 形態素임에는 틀림 없는 것이나, 「-웅」은 다른 語幹에 붙지는 않는다. 이러한 것을 「不具 形態素」[39]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亦是 發音대로 쓰게 된다. 「주검, 무덤」의 「-엄」은 한 형태소에만 붙지는 않으나, 그 範圍가 매우 局限되어 있으므로——이 경우에는 두 말뿐——이러한 것들도 亦是 發音대로 적는다. (제 13, 15항) 다음 말들도 모두 그러함.

마개, 도로, 불긋불긋, 끄락서니

不具 形態素이거나 그에 가까운 形態素일지라도, 그것이 子音으로 始作되는 것이면, 앞 形態素의 基本 形態는 밝혀진다.

꽃답다, 값지다, 끝장, 낚시

다만 「널찍하다」와 같은 말은, 萬一 이것을 「넓직하다」로 表記하면 「넙직하다」로 읽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發音대로 表記한다. cf. 넓직하다 : 널찍하다. (제 16 항)

說明할 必要도 없는 일일는지 모르나, 한 形態素 內部에 있어서는 勿論 表音的으로 表記된다. (제 3, 4항, 제 8항 붙임 2)

그리고 文法學上으로나, 또는 通時的으로 보면 分析이 되는 것일지라도, 共時 意識으로 보아서 容易하게 分析되지 않을 때는 亦是 表音的으로 表記한다. (제 20, 22, 25, 58항)

부터, 개구리, 고치다, 결코, 따위

또 共時 意識으로 全혀 分析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 分析을 一般化하기 어려울 때는, 亦是 表音 主義를 取한다.

이를테면 「미쁘다」는 「믿-브-」로 分析되나, 「나쁘다」는 「낮-브-」로 分析하기 어려운 일이며, 「바쁘다」는 더욱 分析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發音대로 적는다. (제 17 항)

---

(39) Bloomfield 의 "unique element"에 해당된다.
<Language p. 160> 참조.

또 「가망다」「미덥다」는 各各 「감-앙-」, 「믿-업-」과 같이 쉽사리 分析할 수 있으나, 「파랗다」「무겁다」 따위는 그리 쉽사리 分析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發音대로 적게 된다.(제 27 항)

以上 '통일안'을 總括하여 說明하였는데, 이러한 일은 勿論 固有한 의미의 音韻學의 테두리 밖에 屬하는 일이다. 그러나 breath group 인 語節의 問題라든지, 또 形態素의 變動에 관한 問題 따위는 音韻學의 所管이므로, 이와 密接한 聯關性이 있는 綴字法의 問題도 여기에서 言及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이 생각되어서, 이와같이 簡單하게 說明했을 따름이다.

音長이 韻素로 成立됨은 앞에서 說明한 바와 같은데, 韻素가 辭典 以外에는 표시되지 않는 것은, 우리 綴字法의 缺點의 하나로 들 수 있다.[40] 音素나 韻素를 죄다 綴字法에 反影시키는 言語는 좀처럼 없는 것 같으나, 우리의 理想으로 말하면, 音素나 韻素는 되도록이면 잘 反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40) 金桂坤: 국어 정서법에 대하여 (첫째)—「한글」 126號

Ⅲ. 西紀 15세기 國語의 音韻學

Ⅱ章에서는 現代 국어의 音韻學을 共時的으로 說明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그와 같은 方法으로, 서기 15세기 국어의 音韻學을 역시 共時的으로 說明하기로 한다. 여기 이 문제를 登場시킨 것은, 現在 우리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는 最古의 言語 狀態가 여기 있기 때문이다.

1. 文字와 그 音價

現代語의 경우와는 달라서, 過去의 言語는 文字의 記錄에 依해서만 알 수 있다. 따라서 文獻에 依存하지 않고서는 過去의 言語는 좀처럼 的確하게 알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 當時의 文獻에 나타나는 文字를 組織的으로 記述하고, 나아가서 그 文字를 通해, 그 當時의 發音 方法을 推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1) 表記法(訓民正音)의 組織

訓民正音 創製 當時의 文字의 組織은 訓民正音 解例에 매우 體系的으로 記述되어 있으므로, 그 當時의 文字 組織을 把握하기란 그리 힘드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가지 注意해 둘 일이 있다.

正音 創製 當時의 여러가지 國內外의 事情이나, 或은 그 當時 文獻의 記錄으로 미루어 보아서, 正音을 만들기에 이른 動機는 單純히 우리말만을 적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朝鮮 漢字音이나 中國音을 表記하려는 欲望도 컸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正音의 運用도 두 가지 系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니, 하나는 純 우리말을 表記하는 것이요, 하나는 漢字音의 表記이다.

우리가 文字의 組織을 考察함에 있어서도 이 두가지 系統을 分別해야 하는 것이니, 그 理由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同一한 文字가 이 두가지 경우에 따라서 그 音價를 달리하므로써이다. 이것은 두 言語의 音韻 組織의 다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當然한 現象인 것이다.

이를테면 「ㅸ」은, 中國語音을 表記할 경우에는 無聲音으로 使用된듯 하다. 그 理由는:

첫째, 字母를 淸濁으로 나눔에 있어서 「ㅸ」은 「ㄱㄷㅂㅅㅈㆆ」들과 같이 全淸에 分屬시켰고,

둘째, 여러 學者들이 「ㅸ」字로 表記된 漢字의 古代音을 無聲音으로 推定하였을 뿐 아니라, 現代 中國語音도 모두 〔f〕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말을 表記함에 있어서는, 뒤에서 說明함과 같이, 이 文字는 有聲音을 表記함에 使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中國語音 表記에 使用된 경우는 參考 程度로 하고, 主로 純 우리말 表記에 使用된 것을 中心으로 하여 正音의 組織을 考察하여 나가기로 한다.

訓民正音 創製 當時의 總字數는 28字인데, 그 中 初聲字가 17이요, 中聲字가 11이다.

初聲 17字란:

牙音의 ㄱㅋㆁ, 舌音의 ㄷㅌㄴ, 脣音의 ㅂㅍㅁ,

齒音의 ㅅㅈㅊ, 喉音의 ㆆㅎㅇ

의 15字와,

半舌의 ㄹ, 半齒의 ㅿ

이다.

中聲字는 天地人을 象形한 基本字「・ㅡㅣ」의 3字와, 天에서 나온「ㅗㅏ」, 地에서 나온「ㅜㅓ」의 4字에, 再出字「ㅛㅑㅠㅕ」의 4字를 合하여 모두 11字가 된다.

初聲字나 中聲字를 勿論하고, 두字 以上을 左右로 나란히 쓰는 것을「並書」라 하는데, 並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初聲 並書: 같은 初聲字 둘을 나란히 쓰는 것을「各自 並書」라 하고, 다른 字를 둘 以上 나란히 쓰는 것을「合用 並書」라 한다.

各自 並書에는「ㄲ, ㄸ, ㅃ, ㅉ, ㅆ, ㆅ」의 여섯과, 그리고 訓民正音 解例에서는 言及하지 않았으나, 文獻에 實際 使用된 것으로서「ㆀ, ㅥ」이 있으니, 모두 여덟 字이다.

合用 並書에는「ㅳ, ㅄ, ㅶ, ㅷ; ㅺ, ㅼ, ㅽ, ㅾ; ㅴ, ㅵ」의 열가지가 있다.

中聲 並書: 中聲에는 各自 並書는 없고, 오직 合用 並書만이 있다.

天에서 나온「ㅗㅏ」,「ㅛㅑ」가 거듭하면,「ㅘ, ㆇ」가 되고, 地에서 나온「ㅜㅓ」,「ㅠㅕ」가 거듭하여서는「ㅝ, ㆊ」가 된다.

ㅣ를 除外한 中聲字 열에, ㅣ를 거듭하여서「ㆎ, ㅢ, ㅚ, ㅐ, ㅟ, ㅔ, ㆉ, ㅒ, ㆌ, ㅖ」가 생겨나고, 또「ㅘ, ㆇ, ㅝ, ㆊ」와 같은 並書字에 다시 ㅣ를 거듭하여「ㅙ, ㆈ, ㅞ, ㆋ」가 생긴다.

以上 18字中「ㆇ, ㆊ, ㆈ, ㆋ」4字는 우리말 表記에는 使用되지 않는다.

그리고 初聲字 둘을 上下로 이어 쓰는 것을「連書」라 하는데, 連書에는 唇輕音의「ㅸ, ㅱ, ㆄ, ㅹ」과, 舌輕音의「ㅭ」이 있다. 그러나 우리말 表記에 使用된 것은 이 中「ㅸ」하나 뿐이다.

以上 말해온 바를 一括하면 다음과 같다.

<初 聲>

가. 單 字

ㄱㅋㆁ, ㄷㅌㄴ, ㅂㅍㅁ, ㅅㅈㅊ, ㆆㅎㅇ, ㄹ, ㅿ (17字)

나. 並 書

各自 並書: ㄲ, ㄸ, ㅃ, ㅉ, ㅆ, ㆅ, ㆀ, ㆀ (8字)

合用 並書: ㅳ, ㅄ, ㅶ, ㅷ; ㅺ, ㅼ, ㅽ, ㅾ; ㅴ, ㅵ (10字)

다. 連書: ㅸ

<中 聲>

가. 單 字

· ㅡ ㅣ

ㅗ ㅏ ㅜ ㅓ

ㅛ ㅑ ㅠ ㅕ (11字)

나. 合用 並書

同出 合用: ㅘ, ㅝ (2字)

單字+ㅣ: ㆎ, ㅢ, ㅚ, ㅐ, ㅟ, ㅔ, ㆉ, ㅒ, ㆌ, ㅖ (10字)

合用字+ㅣ: ㅙ, ㅞ (2字)

以上과 같은 文字 以外에 또 한가지 重要한 表記法은 所謂 「旁點」(或은 四聲點)이다. 旁點이란 글자의 왼편에 點을 찍는 方法이니, 이에는 세가지 種類가 있다.

1. 한 點을 찍는 것. (去聲)
2. 두 點을 찍는 것. (上聲)
3. 點이 없는 것. (平聲)

그 當時의 音素를 分析해내기 위해서는, 以上에 說明한 文字의 音價를 알아내는 것이 先決 問題이다.

그런데 이 文字들 中에는, 現在 全혀 쓰이지 않는 것과, 現在에도 아직 쓰이고 있는 것이 있는데, 現在 쓰이고 있는 文字 中에는, 그 소리가 옛날과 같았으리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그 소리가 지금과 달랐으리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이 文字들은 세가지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妥當하다.

1. 文字와 그 音價

現在 쓰이지 않는 文字를 흔히 「失音字」라 하고, 現在 쓰이고 있는 文字中 소리가 달랐으리라고 추측되는 것을 「變音字」라 부르는 일이있다.

(1) 現在 쓰이지 않는 글자. (失音字)

〔가〕 ㅸ

〔나〕 ㆆ

〔다〕 ㅿ

〔라〕 ·(ᄋᆞ), ㆎ(ᄋᆡ)

〔마〕 ㅳ, ㅄ, ㅶ, ㅷ

ㅺ, ㅻ, ㅼ, ㅽ

ᄡᄀ, ᄡᄃ

ㆅ, ᅇ, ᄔ, (ㄲ, ㄸ, ㅃ, ㅆ, ㅉ)

(2) 現在에도 쓰이고 있으나, 옛 音價와 現音價가 달랐으리라고 생각되는 것. (變音字)

〔가〕 ㅇ(ㆁ)[(1)]

〔나〕 ㅓ, ㅕ

〔다〕 ㅚ, ㅐ, ㅟ, ㅔ, ㅒ, ㅖ, ㅙ, ㅞ (ㆎ, ㆉ, ㆌ[(1)])

〔라〕 ㅅ, ㅈ, ㅊ

〔마〕 ㄹ[(2)]

(3) 現在도 쓰이고 있을뿐 아니라, 그 音價도 다르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는 것.

ㄱ, ㅋ, ㄷ, ㅌ, ㄴ, ㅂ, ㅍ, ㅁ, ㅎ, (ㄹ), (ㄲ, ㄸ, ㅃ, ㅆ, ㅉ)[(3)]

ㅡ, ㅣ, ㅗ, ㅏ, ㅜ, ㅛ, ㅑ, ㅠ, ㅘ, ㅝ, ㅢ, (ㅟ)

---

(1) ㆁ과 ㆎ, ㆉ, ㆌ는 事實上 「1」에 屬하는 것이나, 說明의 便宜上 「2」에 넣어둔다.

(2) ㄹ字는 그 音價가 달라졌다고는 할 수 없을는지 모르나, 그 使用法은 現代와 다르기에, 여기 넣어서 說明하기로 한다.

(3) 「ㄲ, ㄸ, ㅃ, ㅆ, ㅉ」은 그 當時나 現在에 이르러서나 쓰이고 있으나, 繼續的으로 使用되지 않고, 最近에 와서 그 使用을 復舊했기 때문에, 「1」과 「3」 兩便에 넣어 두었다.

旁點도 事實上 「1」에 속할 문제이나, 이 문제는 「4. 韻素論」에서 다루기로 한다.

以上 세가지 文字들 中, 「3」에 대해서는 音價 推定의 일은 省略되는 것이므로, 以下 「1」과 「2」의 두가지 種類의 文字에 대해서, 그 當時의 音價를 推定해 보려 한다.

古 音價의 推定이란 容易한 일은 아니다. 漠然한 推測은 禁物이며, 따라서 여기에는 科學的으로 首肯될 수 있는 方法이 提示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앞으로의 古 音價 推定의 方法의 骨骼으로서, 다음의 몇가지를 미리 들어 둔이.[4]

가) 그 當時의 語學者들의 이 文字에 對한 說明(特히 發音에 대한 說明).

나) 다른 言語의 文字와의 音譯 關係. 卽 다른 나라 말을 우리 文字로 記錄한 것과, 그 反對로 우리말을 다른 나라 文字로 記錄한 것.

다) 문제의 文字의 用法. 그 환경의 特異性에 留意할것.

라) 그 문자로 表記된 소리가, 어떤 소리로부터 變해 왔으며, 또 어떠한 소리로 變해 갔는가? 이 경우에는 여러 方言音이 많은 참고가 된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方法을 具體的으로 古 音價 推定에 使用할 것이다.

2) 音 價 推 定

(1) 失 音 字

[가] ㅸ[5]

訓民正音 制字解에,

(4) 이 문제에 대한 多少 詳細한 說明은, 許雄 : 言語學概論, pp. 237~241 참조.

(5) 「ㅸ」字의 音價 推定에 관한 論文이나 著書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최현배 : 「한글갈」 中의 「가벼운 입술소리의 상고」 (고친판 p. 533 이하)
李崇寧 : 脣音攷(서울大學校 論文集, 人文社會科學 No. 1)
南廣祐 : ㅸ ㅿ 論攷(國語學論文集)
劉昌惇 : 15세기 國語의 音韻體系 (國語學 第一集)
金永松 : 脣音小攷(釜山大學, 硏究, 第一編, 1955)

"ㅇ連書脣音之下 則爲脣輕音者 以輕音脣乍合而喉聲多也"

라 하여 이 音의 發音法을 대체로 說明하여 있다. 이것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은, 「ㅸ」은 「ㅂ」과 같은 兩唇音인데, 다만 "唇乍合"하여 "喉聲多"한 點이 다를 뿐이다.

그리고 崔世珍의 '飜譯 老乞大 朴通事 凡例'(四聲通解 附載)에는 다음과 같은 한층 具體的인 說明이 있다.

"合唇作聲 爲ㅂ而曰唇重音 爲ㅂ之時 將合勿合吹氣出聲 爲ㅸ而曰唇輕音 制字加空圈於ㅂ下者 卽虛唇出聲之義也"

卽 입술을 合치면 「ㅂ」 소리가 되는데, 「ㅂ」 소리를 낼 때에, 입술을 合칠려다가 合치지 않고 숨을 불어 내면 「ㅸ」 소리가 된다는 것이다. 이 說明法은 앞에 말한 解例의 "唇乍合"을 한층 具體的으로 說明했을 뿐, 同一한 發音法을 描寫한 것임은 勿論이다.

이러한 說明에 依하여 우리는 「ㅸ」 音의 發音法을 대체로 짐작할 수 있으니, 이 音은 兩唇音이로되, 「ㅂ」과 같이 兩唇을 完全히 閉鎖하는 것이 아니라, 그 閉鎖가 좀 不完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卽 「ㅂ」이 間隙 0度인데 對해서, 「ㅸ」은 間隙 1度 程度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와 같이, 「ㅸ」 音의 兩唇의 調音 方法은 대체로 추측할 수 있게 되나, 그 喉頭의 調音 方式은 알 수 없다. 卽 이것이 有聲音이었느냐 無聲音이었느냐는 全혀 알 道理가 없다.

「ㅸ」 字는 中國語音 表記와 우리말 表記에 두루 쓰였는데, 먼저 中國語에 使用된 경우를 若干 例示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老乞大 朴通事 諺解——城大 影印本——에서)

傅	ᄫᅮ	부	番	반	반
法	ᄫᅡᆼ	바	放	방	방
飯	ᅗᅡᆫ	반	繁	ᅗᅡᆫ	반
婦	ᅗᅮ	부	房	ᅗᅡᆼ	방

위의 두가지 音中 左側音은 申叔舟의 四聲通攷 音일 것이며, 右側音은 그

當時의 時音을 表記한 것이니[6], 右側音이 現代語音에 더 가까운 것인데, 이 漢字들의 現代語音은 各各,

fu`, fan⁻, faˇ, fang`, fan´, fan´, fu`, fang´

으로서 그 當時의 「ㅸ」으로 表記되었던 音은 現代語音에서는 모두 〔f〕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서 이 漢字들의 古音은 大體로 〔f〕로 推定되고 있으며[7], 四聲通解 字母圖에 依하면, 「ㅸ」은 全淸에 屬해 있다.

이러한 點으로 보면 「ㅸ」은 無聲音을 表記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ㅸ」이 바로 [f] 音이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은 앞의 訓民正音 制字解나. 崔世珍의 說明에 依하면, 「ㅸ」은 分明히 兩唇音이었다고 생각됨으로써이다. 中國語 表記에 있어서의 「ㅸ」이 兩唇音이요, 無聲音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ɸ〕로 밖에는 推定할 수 없는 것이니, 그 當時의 中國 本土의 發音은 〔f〕 音이었을것이나, 이 音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ɸ〕 音으로 發音하고 있었던 것이나 아니었을까 推測하는 바이다.

이와 같이 中國語를 表記한 「ㅸ」은 〔ɸ〕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말 表記에 쓰인 「ㅸ」은 有聲音이었을까 無聲音이었을까?

다음으로, 우리말에 쓰인 「ㅸ」 字의 使用例를 찾아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ㄱ〕 語幹의 끝소리 「ㅂ」이 母音(ㄹ音도 包含)과 母音 사이에서 「ㅸ」으로

(6) 四聲通解에 附錄되어 있는 「飜譯 老乞大 朴通事 凡例」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在左者即通攷所制之字 在右者今以漢音依國俗撰字之法而作字者也"
이것은 勿論 이 冊의 原刊에 해당되는 말이나, 여기에 引用한 重刊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7) 서기 15세기에 가장 가까운 時期에 나온 中國의 韻書 中, 그 當時의 發音을 가장 正確하게 反影하고 있는 것으로 「中原音韻」(元 周德淸 著, 1324 A.D. 刊行)을 들 수 있는데, 이 韻書에 있어서의, 여기 보인 漢字들의 初聲은 [f]로 환원됨이 普通이다.

傅 fu 番 fan 法 fa 放 fang 飯 fan 繁 fan 婦 fu 房 fang

<石山福治 : 攷定 中原音韻>에 依함.

變動하는 일이 있다.(ㅂ 變格 用言)[8]

어듭-(暗) : 어드ᄫᅳᆫ(용 30), 어드ᄫᅳᆯ(月印序 3)

갓갑-(近) : 갓가ᄫᅩ매, 갓가ᄫᅳᆯ(月印序 14), 갓가ᄫᅵ(月印 2 : 5)

돕-(助) : 도ᄫᆞ실씨(용 34), 도ᄫᆞ시니이다(용 96), 도ᄫᆞᆯ씨니(月印 1 : 32), 도ᄫᅡ(月印 21 : 36), 도ᄫᅩ미(蒙山 9)

눕-(臥) : 누ᄫᅳᆫ(용 84), 누ᄫᅳ며(月印 1 : 17), 누ᄫᅳ샤매(月印 2 : 26)

덥-(暑) : 더ᄫᅳᆫ(月印 1 : 18), 더ᄫᅮᆷ(月印 7 : 53), 더ᄫᅱ(釋 9 : 9)

엷-(薄) : 열ᄫᅳᆫ(용 30), 열ᄫᅳ니(訓), 열ᄫᅳᆯ씨라(月印 21 : 198)

셟-(痛) : 셜ᄫᅳᆯ씨라, 셜ᄫᅴ(月印序 10), 셜ᄫᅴ이다(月印 2 : 52), 셜ᄫᅳ시며 (月印 8 : 81), 셜ᄫᅳᆫ(釋 19 : 15)

ᄀᆞᆲ-(並) : ᄀᆞᆯᄫᅡ(訓), ᄀᆞᆯᄫᆞ며(月印 1 : 26), ᄀᆞᆯᄫᆞ리(月印 21 : 222)

ᄉᆞᆲ-(白) : ᄉᆞᆯᄫᆞ리(용 13), ᄉᆞᆯᄫᆞ니(용 22), ᄉᆞᆯᄫᅩ리니(月印 1 : 1), ᄉᆞᆯᄫᅡ시ᄂᆞᆯ (月印 2 : 23), ᄉᆞᆯᄫᅩᄃᆡ(月印序 5)[9]

〔ㄴ〕 形態素의 內部에서 (그 나타나는 音聲的 環境은 앞의 〔ㄱ〕의 경우와 同一함).

드ᄫᅴ(瓠) : 드ᄫᅴ 爲瓠(訓, 用字例)

ᄃᆞᄫᆡ-(爲) : ᄃᆞᄫᆡ니이다(용 98), 疑心ᄃᆞᄫᆡ니(月印 1 : 15)

셔ᄫᅳᆯ(京) : 셔ᄫᅳᇙ 使者(용 18), 셔ᄫᅳᇙ 긔벼를(용 35)

---

(8) 여기에서, 앞으로 자주 나오는 文獻의 略號와 그 刊行 年代를 들어 둔다.

龍飛御天歌 (1445 A.D.)	용	禪宗永嘉集諺解 (1464 A.D.)	永嘉
訓民正音 解例 (1446 A.D.)	訓	杜詩諺解 原刊 (1481 A.D.)	杜
訓民正音 諺解 (1450 A.D. 頃)	訓	同 重刊 (1632 A.D.)	杜重
蒙山和尙法語略錄(1450 A.D. 頃)	蒙山	訓蒙字會 (1527 A.D.)	字會
釋譜詳節 (1447 A.D.)	釋	捷解新語 (1676 A.D.)	捷
月印釋譜 (1459 A.D.)	月印	朴通事諺解 (1677 A.D.)	朴通
楞嚴經諺解 (1462 A.D.)	楞	老乞大諺解 (1670 A.D.)	老乞
金剛經諺解 (1464 A.D.)	金剛		

(9) 여기에서는 그 一部만을 例示하나, 다음과 같은 말들의 「ㅂ」도 모두 母音으로 첫소리 삼은 語尾가 連結될 때는 「ㅸ」으로 變動한다.
가ᄇᆡ얍-(輕), 더럽-(醜), 므겁-(重), 보ᄃᆞ랍-(柔), 쉽-(易), 아ᄅᆞᆷ답-(美), 앗갑-(惜), 어렵-(難), 어즈럽-(迷), 즐겁-(樂), 칩-(寒), 等等

사ᄫᅵ(蝦) : 사ᄫᅵ爲蝦(訓. 用字例)

ᄒᆞᄫᆞᅀᅡ(獨) : ᄒᆞᄫᆞᅀᅡ 나ᅀᅡ가샤(용 35)

이ᄫᅳᆯ-(枯) : 이ᄫᅳᆫ 남ᄀᆡ(용 84), 이ᄫᅳᆫ 나모(용 89)

비ᄫᅡᇀ-(吐) : 혀를 비ᄫᅡᄐᆞ니(蒙山 31)

〔ㄷ〕 合成語에서, 第二 要素의 첫소리「ㅂ」은, 위와 같은 音聲的 環境에서는「ㅸ」으로 바뀌는 것이 있다.

대ᄫᅥᆷ : 이 말은 龍歌 87章, '믈우흿 대ᄫᅥ믈'에 나타나는 말로서, 分明히「대」(大)와 「범」(虎)의 合成語인데,「범」의「ㅂ」이 母音 사이에서「ㅸ」으로 變한 것이다.

대ᄫᅡᇀ : 이 말은 龍歌 五卷 26帳에 나타나는데, 漢字로는 '竹田' 으로 表記되는 地名이니,「대」(竹)와「밭」(田)의 合成語이다.

그리고,

글ᄫᆞᆯ(文) : 글ᄫᆞᆯ로 말이ᅀᆞᄫᆞᆫ돌(용 26)

쇠벼ᄅᆞ=淵遷 (용 3 : 13)

말ᄫᅡᆷ(菱) : 蒺藜ᄂᆞᆫ 말ᄫᅡ미라(月印 21 : 80)

ᄀᆞᄅᆞᄫᅵ(粉雨) : 눉므리 ᄀᆞᄅᆞᄫᅵ ᄀᆞ티 ᄂᆞ리다(月印 1 : 36)

메ᄫᅡᆺ-(袒) : 올ᄒᆞᆫ 엇게 메ᄫᅡᆺ고(釋 9 : 29)

따위 만들도 合成語일시 分明하며,

갈웜=虎 (字會 上 18)

표웜=豹 (字會 上 18)

꿀왇=畲田 (杜 7 : 17)

도톨왐=橡栗 (杜 25 : 26)

따위 말들도 分明히,

갈 + 범 >*갈ᄫᅥᆷ > 갈웜

표 + 범 >*표ᄫᅥᆷ > 표웜

꿀 + 받 >*꿀ᄫᅡᆮ > 꿀왇

도톨 + 밤 >*도톨ᄫᅡᆷ > 도톨왐

과 같은 過程을 밟아 變化한 것이다.[10]

그러고 보면, 「확」(臼)의 옛말인 「호왁」(字會中 11, 杜 6:2)도 *「호박」에서 *「호ᄫᅡᆨ」을 거쳐 變한 말일 것이며[11], 「광」(庫)도 「고(庫)+방(房)」의 合成語 「고방」에서 「*고방 >*고ᄫᅡᆼ>*고왕>광」으로 變化해 내려온 것임이 分明하다.(이 말의 慶尙道 方言形은 「고방」이다)

以上 例示한, 우리말에 쓰인 「ㅸ」의 나타나는 環境은 모두 一定하여, 반드시 母音(또는 ㄹ音)과 母音과의 사이에만 쓰이게 되는 것이며, 그 以外의 位置에서는 全혀 나타나는 일이 없다.(例外 : 웅ᄫᅳ·)

〔ㄷ〕의 例로 보면 「ㅸ」은 分明히 「ㅂ」이 위와 같은 位置에서 앞 뒤 소리에 同化되어서 變化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ㄱ〕의 경우는 勿論이요, 〔ㄴ〕의 경우에 있어서도 「ㅸ」은 모두 「ㅂ」에서 變化한 것이라는 推測을 可能하게 하는 것이다. 더구나 〔ㄱ〕, 〔ㄴ〕의 말들이 一部 方言에 있어서는 아직 /ㅂ/을 保有하고 있는 것이 있음을 볼 때[12], 더욱더 그렇게 믿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ㅸ」은 「ㅂ」에서 變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ㅸ」은 다시 다음과 같이 變化한다.

[ㄱ] ᄫᅡ, ᄫᅥ > 와, 워

어드ᄫᅴ > 어드워 (杜 15 : 3)

갓가ᄫᅡ > 갓가와 (楞 2 : 87)

ᄀᆞᆯᄫᅡ > ᄀᆞᆯ와 (永嘉 下 99)

---

(10) 「도톨왐」은, 「도톨밤」이 그대로 쓰이기도 했다.
橡溪옛 도톨바ᄆᆞᆯ 주스니라=拾橡溪條(杜 24:39)

(11) 河野六郞 : 朝鮮方言學試攷 參照.

(12) ㅂ變格 用言은 慶尙道 方言에서는 /ㅂ/이 變動하지 않아서 正格으로 活用됨은 周知의 事實인데, 〔ㄴ〕의 경우에 있어서도,
드ᄫᅴ>도배기, 사ᄫᅵ>쌔비, 비ᄫᅡᇀ->패밭- 等
과 같이 /ㅂ/을 그대로 保有하고 있다.

셜ᄫᅥ > 셜워 (杜 25 : 45)

그 밖에, 말ᄫᅡᆷ>말왐, 글ᄫᅡᆯ>글왈, 메ᄫᅡᆺ->메왓-, 니르ᄫᅡᆮ->니르왇-, 等等

〔ㄴ〕 ᄫᆞ, ᄫᅩ > 오 ; ᄫᅳ, ᄫᅮ > 우

갓가ᄫᆞ니 > 갓가오니 (杜 7 : 29)

ᄀᆞᆯᄫᆞ니 > ᄀᆞᆯ오니 (杜 6 : 31)

도ᄫᅩᄆᆞᆯ > 도오ᄆᆞᆯ (杜 8 : 44)

어드ᄫᅳᆫ > 어드운 (金剛 55)

어드ᄫᅳ면 > 어드우면 (楞 2 : 28)

셜ᄫᅳᆫ > 셜운 (金강 80)

열ᄫᅮ믈 > 열우믈 (杜 7 : 18)

그 밖에, ᄒᆞᄫᆞ사>ᄒᆞ오사, 셔ᄫᅮᆯ>셔울, ᄃᆞᄫᆡ->ᄃᆞ외-, 이ᄫᅮᆯ->이울-, 等等

〔ㄷ〕 ᄫᅵ > 이

갓가ᄫᅵ > 갓가이 (杜 20 : 52)

수ᄫᅵ > 수이 (杜 15 : 5)

더러ᄫᅵ-> 더러이-(醜) : 더러이디(杜 8 : 7), 더러요ᄆᆞᆯ(金강 2)

〔ㄷ〕의 경우는 「ㅸ」이 母音에 完全 同化되어서 脫落한 것이나, 〔ㄱ〕, 〔ㄴ〕의 경우는 大體로 半母音의 ㅗ, ㅜ(w)로 變한 것이다. 이와 같이 「ㅸ」의 變化 過程은,

ㅂ > ㅸ > ㅗ, ㅜ (또는 脫落)

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말의 /ㅂ/은 母音의 中間에서는 有聲化함이 原則이다. 그러므로 「ㅸ」으로 變하기 前의 /ㅂ/은 有聲音이었던 것으로 推測되는 바이니, 「ㅸ」은 有聲音 〔b〕音이 半母音 〔w〕音으로 變하는 過渡的인 音이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有聲音에서 變한 「ㅸ」, 그리고 有聲音으로 變해 간 「ㅸ」은, 有聲音이 아니

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ㅸ」은 語頭에서는 나타나는 일이 없고, 반드시 母音(ㄹ音)과 母音과의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인데, 語頭에 有聲(破裂, 摩擦)音을 不許하는 우리말의 特性으로 보아, 「ㅸ」은 有聲音 될 可能性이 더욱 濃厚해 지는 것이다.

以上 說明해 온 바를 要約하면, 우리말에 쓰인 「ㅸ」은 「ㅂ」과 같은 兩唇音으로서, 間隙 1度의 摩擦音이며, 有聲音에 屬한다. 卽 「ㅸ」은 〔β〕 音이다.(13)

---

(13) 이 結論은 대체로 國語學界의 容認을 받고 있는 事實로서,

최현배 : 앞에 든 論文

李崇寧 : 앞에 든 論文

들에 있어서는 모두 ㅸ=〔β〕로 推定하고 있으나, 이에 對한 反對 意見도 없지는 않다.

南廣祐氏는, 앞에 든 論文의 結論에서, 「ㅸ」은 "漢字音 表記를 爲한 文字로서 國語 表記에 이용되었으나, 우리 國語에서 ㅸ 表記는 ㅂ〔b〕 介入 語形과 圓唇 母音 語形의 共存에서…… 可能했던 것으로 본다"라 하고, 그 理由로서 네가지를 들고 있으나, 그 中 세가지는, 高麗·新羅 時代의 音韻 狀態가 아니면 현대어의 狀態를 가지고 論斷한 것이기, 우리로서는 首肯하기 어려운 일이고, 그 中 한가지는 共時的 理由로서 「ᄆᆞᄫᆞᆯ～ᄆᆞ올」 따위의 混用을 들고 있으나, 이것은 元形 復歸의 任意的 變動과 같은 것이므로, 이로써 「ㅸ」의 한 音素로서의 資格을 否認하는 根據는 될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눈물～눔물」, 「밥그릇～박그릇」 따위 發音의 變異가 있다고 해서, 「ㄴ」과 「ㅁ」, 「ㅂ」과 「ㄱ」이 한 音素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論理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ㅸ」이 李明 初期의 짧은 동안에만 쓰이다가, 곧 없어지는 것을 또한가지 理由로 들기도 하나, 音韻의 變遷이란 어느 한 때를 두고 없어지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長久한 時日을 두고 망설이다가 없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劉昌惇氏도, 그의 앞에 든 論文에서, "그 音價는 有聲音 ㅂ의 異音韻이거나 또는 ㅂ>오/우 변화의 象徵的 表記에 쓰인 字母에 지나지 못하며, 따라서 이 ㅸ 字를 하나의 독립된 音韻表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라 하고 있다. 氏도 南廣祐氏처럼 ㅸ에 獨特한 音價가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모양이다. 그러나 ㅂ의 "異音韻"이란 무엇을 뜻함이며, "象徵的 表記"란, 音韻論的으로 어떠한 事實을 가리키는 것인지, 좀 理解하기 困難하다. 만일 "異音韻"이 우리가 말하는 變異音(allophone)의 뜻이라면, 여기에는 하나의 音價를 부여해야 할것인데, 그 音價가 무엇인지, 그리고 ㅸ에 어떠한 音價를 부여만 한다면, 바로 그 音價가 〔p〕나 〔b〕가 아닌 以上, 그것은 「ㅂ」의 變異音은 될수 없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ㅸ」과, 〔p〕, 〔b〕를 變異音으로 가지고 있는 「ㅂ」은 그 配置가 서로 排他的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 이 表現이, ㅸ은 바로 ㅂ과 같은 音을 表記한 것이란 뜻이라면, 우리로서는 首肯이 되지 않는다. 그 當時의 表記法의 體系로 보아서, 한 音素를 두 文字로써 그렇게 整然하게 區別 使用했다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現代語音의 /ㅂ/은 다음과 같은 音聲으로 實現된다.

1. 語頭에서는 無聲音 〔p〕——밥

2. ㄴ, ㅁ과 母音과의 사이에서는 有聲 破裂音 〔b〕——곰보

3. 母音 사이에서도 〔b〕로 發音되나, 〔β〕로 發音되는 것이 오히려 一般的이다.——부부 〔puβu〕, 우비〔uːβi〕

이와 같이 〔b〕는 母音 사이에서는 〔β〕로 變하기 쉬운 것인데, 이것은 間隙 0度의 〔b〕 音이 앞 뒤의 間隙 4度 以上 音에 同化된 結果이다. 이러한 現象은 다른 나라 말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니, 獨逸語의 aber, liebe와 같은 母音間의 b는 〔β〕로 내는 경우가 있고[14], 日本말에 있어서도 母音間의 /b/는 〔β〕로 發音되는 傾向이 있다고 한다. [15]

現代語에 있어서 〔b〕 音이 「β」 音으로 發音되기 쉬운 條件과, 「ㅂ」이 「ㅸ」으로 變하는 條件은 꼭 같은 것이니, 이러한 事實은 「ㅸ」이 〔β〕 音이었음을 한 층 더 確證해 주는 것이다.

〔나〕 ㆆ [16]

訓民正音에

"ㆆ 喉音 如挹字初發聲"

이라 했고, 「ㄱㄷㅂㅈㅅ」따위와 같이 全淸에 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音價에 關해서는 全혀 具體的인 說明이 되어 있지 않고, 오직 「ㆆ」은 「ㅇ」에 比해서 그 소리가 「厲」하고, 「ㅎ」보다 「不厲」하나, 「ㅎ」소리가 얕은 데 比해서 「ㆆ」은 깊다 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것만으로써는 何等 具體的인 音價를 把握할 수는 없고 오직 「ㆆ」은 「ㅎ」과 같이 喉頭에서 調音되었던 音이 아니었을까 하는 暗示를 얻음에 그친다.

---

(14) 佐久間鼎 : 一般音聲學 pp. 18—9.

(15) 有坂秀世 : 音韻論 p. 139.

(16) 이 문제를 다룬 論文으로는:
최현배 : '「ㆆ」자의 소리값 상고(고친 한글갈 p. 529 이하)'가 있다.

그 當時 文獻의 「ㆆ」字 使用例를 찾아 보면:

〔ㄱ〕 未來를 나타내는 用言의 冠形詞形 語尾 「-ㄹ」은 반드시 「-ㅭ」로 表記된다.

도라옳 軍士(용 25), 날 거슳 도ᄌᆞ골(용 115), 지ᄇᆡ로 도라오싫제(용 18), 니르고져 홇배(訓), 갏 길히(용 19), 펴디 몯홇 노미(訓), 避仇홇 소니 마리(용 28), 드르싫제, 건너싫제(용 50), 유무 드륧 사ᄅᆞᆷ(석 6:2), 길 녏 사ᄅᆞᆷ(석 6:4) 等等

〔ㄴ〕 '사잇소리'를 表記함에 使用됨.

先考ㆆ뜯(용12), 快ㆆ字, 那ㆆ字(訓), 하ᄂᆞᇙ 쁘디시니(용 4), 하ᄂᆞᇙ 쁘들(용 86).

「ㆆ」이 순 우리말에 쓰인 例는 위의 두가지 경우에 限하는데, 「ㄴ」의 사잇소리는 여기 無聲의 休息(過渡)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筆者는 보고 싶은데, 「ㆆ」은 이러한 無聲의 休息, 卽 絕音 現象을 表記하는 方法이었다. 그런데 여기 喉音의 「ㆆ」을 使用한 것은, 無聲의 休息은 喉頭를 閉鎖하여 내었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ㄱ」의 未來 冠形詞形 語尾도 亦是 같은 休息이 수반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無聲의 休息은 喉頭를 閉鎖하여 내었기 때문에, 그 다음 소리를 喉頭緊張의 된소리로 내는 傾向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리하여 同時代 文獻에 때로는 「ㆆ」을 使用하지 않고, 아랫 말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表記한 것이 나타 난다.(17)

「ㆆ」이 喉頭 閉鎖音이었으리라는 것은 中國語音 表記에서도 推測되는 일이다.

申叔舟의 '四聲通攷 凡例'(崔世珍의 四聲通解 下卷 末에 附載)에, 入聲의 表記

(17) 이러한 例를 몇가지 들어 보이면;
받ᄌᆞᄫᆞᆯ 쩌긔(석 6:8), 須達이 올쏠 아ᄅᆞ시고(석 6:20), 갈 쩌긔(석 6:22), 舍衛國에 올 ᄊᆞ싯 길헤(석 6:23), 그듸 가ᄃᆞᆯ 찌비(석 6:35), 精舍 이르수ᄫᆞᆯ 쩨도(석 6:37), 몯홀꺼시라(석 6:38) 等等

法에 關해서 다음과 같은 說明이 있다.

"入聲諸韻終聲 今南音傷於太白 北音流於緩弛 蒙古韻亦因北音 故不用終聲…平上去入四聲 雖有淸濁緩急之異 而其有終聲則固未嘗不同 況入聲之所以爲入聲者 以其牙舌唇之全淸爲終聲而促急也 其尤不可不用終聲也 明矣……今以ㄱㄷㅂ爲終聲 然直呼以ㄱㄷㅂ則又似所謂南音 但微用而急終之 不至太白可也 且今俗音雖不用終聲 而不至如平上去之緩弛 故俗音終聲 於諸韻用喉音全淸ㆆ……"

北方系 中國語의 入聲의 -k, -t, -p 終聲이 脫落된 것은 이미 오래 前부터로서, 李朝 初期에는 入聲 終聲이 存在하지 않았다. 그러나 처음부터 終聲이 없는 音과는 多少 다른 點이 있기 때문에──不至如平上去之緩弛──四聲通攷 俗音에는「ㆆ」을 終聲으로 붙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 現代 中國語에 있어서, 吳語의 入聲은 母音뒤에 喉頭 閉鎖音이 隨伴되며, 官話의 어떠한 入聲도 亦是 그러하다는 것이다.(18) 이러한 點으로 보면 申叔舟가 "今俗音雖不用終聲 而不至如平上去之緩弛"라 한 것은, 그 때에 있어서도 入聲 字音은 母音에 喉頭 閉鎖音이 隨伴되지 않았던가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이「ㆆ」은 分明히 喉頭 閉鎖音을 表記함에 使用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ㆆ」은 또한 다음과 같은 漢字의 國音 表記에도 使用되었다.

〔ㄱ〕 訓民正音 音價 說明에서「ㆆ」은 '挹字'의 初聲이라 하였는데, 挹母에 屬하는 漢字는 모두「ㆆ」으로 表記되어 있다.

音 흠, 於 헝, 安 한, 一 힗, 因 힌, 依 힁, 印 힌, 焉 헌, 奄 험, 邑 힙, 飮 흠, 嗚 홍, 等等

(訓民正音 諺解와 月印釋譜에서)

이 漢字音은 東國正韻의 校正音이다. 東國正韻 序에 依하면, 그 當時의 漢字音이 中國 韻書와 比較하면 어긋남이 많았기 때문에, 韻書의 音에 標準을 두

---

(18) 王力一猪俣, 金坂 共譯 : 支那言語學槪論 p. 21.

고[19] 그 當時의 時俗音을 參考로 하여, 音을 決定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當時의 實際의 漢字音과는 다른 點이 많았으니, 그 當時 漢字音에 全濁音(ㄲ, ㄸ, ㅃ 따위 된소리)이 없었는데, 이것을 살린 따위가 그 一例이다.

이 「ㆆ」 初聲도 亦是 그 當時 實際音에는 全혀 쓰이지 않던 것이었다. 그것은, 「ㆆ」 初聲字와 「ㅇ」 初聲字의 初聲은, 우리 漢字音은 勿論이요, 日本漢字音이나, 中國音에 있어서도, 何等의 差異가 없을 뿐 아니라[20], 訓民正音 自體에서도,

"初聲之ㆆ與ㅇ相似 於諺可以通用也"(合字解)

라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東國正韻의 校正音이란, 現實音과 너무 달랐었기 때문에, 結局 그 當時에 있어서도 그리 強力하게 奬勵하지는 못했던 모양이다. 그것은 世宗 實錄의 다음과 같은 記錄으로 能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頒東國正韻于諸道及成均舘四部學堂 仍敎曰 本國人民 習俗已久 不可猝變 勿強敎 使學者隨意爲之"(三十年 十月條)

〔ㄴ〕 入聲 終聲의 -t가 우리 漢字音에 있어서는 /ㄹ/로 變하였는데, 그렇게 되고 난즉 그 音은 元來 促急한 入聲의 本質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緩弛한 /ㄹ/ 音에 入聲다운 促急感을 附與하기 爲하여 "以影補來"(ㅭ)하게 된 것이다.

不 붏, 八 밣, 日 싫, 發 벓, 戌 슗, 一 힗, 節 졇, 等等

(訓民正音 諺解와 月印釋譜에서)

그런데 이것도 앞에서 말한 바 所謂 校正音이다. 그 當時의 /ㄹ/ 終聲이 오늘날의 /ㄹ/ 終聲과 달라서 特히 急히 그 聲帶 振動을 그쳐버려서 入聲답게 促急하게 發音되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ㆆ」 終聲도, 앞의 「ㆆ」 初聲과 같이, 實際音에는 全혀 存在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

(19) 여기에 標準된 韻書는, 主로 黃公紹의 '韻會'라 한다. (洪起文 : 正音發達史 p. 115 參照)

(20) 최현배 : 고친 한글갈 p. 529 參照.

漢字音 表記에 使用된 「ㆆ」은, 두가지가 다 實際音과는 距離가 먼 人爲的인 校正音이기 때문에 論外로 하고, 우리말 表記에 使用된 두가지의 경우로 본다면, 「ㆆ」은 喉頭 閉鎖音을 表記하는 一種의 符號이었던 것이다.(21)

[다] ㅿ(22)

「ㅿ」은, 訓民正音 解例에 依하면, 齒音의 不淸不濁에 所屬되어 있다. 牙舌脣齒喉의 五音은, 子音을, 그 調音되는 자리에 依하여 分類한 것이니, 「ㅿ」은 다른 齒音 「ㅅㅈㅊ」들과 같은 자리에서 나는 소리임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淸濁으로 分類하는 것은 大體로 有聲 無聲의 區別을 考慮한 것인데, 訓民正音에서는, 不淸不濁音으로, 「ㆁㄴㅁㅇㄹㅿ」의 六初聲을 들고 있다. 「ㅿ」 以外의 다른 다섯 初聲은 모두 有聲音이니, 따라서 「ㅿ」도 有聲音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다음으로 우리말에 使用된 例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ㄱ〕 體言이나 用言 語幹의 끝소리 「ㅅ」이, 母音으로 첫소리 삼은 語尾나 助詞가 連結될 때는——即 母音間에 介在될 때는——그 「ㅅ」은 「ㅿ」으로 變動하는 일이 있다.

긋-(畫): ᄯᅡ 그ᅀᅥ=畫地(永가 下 77)

깃-(茂): 茂ᄂᆞᆫ 기ᅀᅳᆯ씨라(楞 2:22)

닛-(續): 니ᅀᅥ(용 44), 니ᅀᆞ샤도(용 125)

ᄃᆞᆺ-(愛): ᄃᆞᅀᆞ실ᄊᆡ(용 80), ᄃᆞᅀᆞ샤(용 93)

븟-(注): 브ᅀᅮ려ᄒᆞ시니(용 109), 灌ᄋᆞᆫ 브ᅀᅳᆯ씨오(月印 2:64)

---

(21) 최현배 님이 「ㆆ」을 "極히 가벼운 목소리"로 본 것은 매우 타당한 結論으로 보아진다.(舊版 한글갈 p. 593)

(22) 「ㅿ」의 音價를 다룬 論文으로는:
최현배 : 「ㅿ」자의 소리값 상고(고친 한글갈 p. 524 이하)
이숭녕 : ㅿ音攷(서울大學校 論文集, 人文·社會科學, No.3)
南廣祐 : ᄫㅿ論攷(國語學論文集)
들은 참조.

우ᇫ-(笑): 우ᅀᅳ샤(月印 7:26), 우ᅀᅮᆷ우ᅀᅵ(月印 1:43)

지ᇫ-(作): 製ᄂᆞᆫ 지ᅀᅳᆯ씨니(訓), 塔ᄋᆞᆯ 지ᅀᅥ(석 13:24)[23]

ᄀᆞᇫ(邊): ᄀᆞᅀᆡᆼ 움흘(용 5), ᄀᆞᅀᅵ(용 6), ᄀᆞᇫ 업스시니(용 125), ᄀᆞᅀᆡ(金강序 8)

ᄌᆞᇫ(貌): 그 ᄌᆞᅀᅵ(月印 21:24), 골업슨 ᄌᆞᅀᆞᆯ 지ᅀᅡ(月印 7:22)

그리고 客體尊待의 「-ᅀᆞᆸ-」~「-ᅀᆞᇦ-」도 같은 현상이다.

〔ㄴ〕 形態素 內部의 母音 사이에서,

거ᅀᅴ(殆): 나ᄒᆞ싫ᄃᆞᆯ 거ᅀᅴ어늘(月印 2:27)

겨ᅀᅳᆯ(冬): 모미 겨ᅀᅳ렌 덥고(月印 1:26)

구ᅀᅲ(槽): ᄆᆞᆯ 구ᅀᅲ=馬槽(字會 中 12)

그ᅀᅳ름(炲): 그ᅀᅳ름티=炲(字會 下 35)

ᄀᆞᅀᆞᆯ(秋): ᄆᆞᆯᄀᆞᆫ ᄀᆞᅀᆞᆶ 비햇 ᄆᆞ리(蒙山 27)

나ᅀᅵ(薺): ᄃᆞ로미 나ᅀᅵ 곤도다(杜 8:18)

마ᅀᆞᆫ(四十): 마ᅀᆞᆫ 사ᄉᆞ미(용 88)

ᄆᆞᅀᆞᆯ(里): ᄆᆞᅀᆞᆯ히 盛ᄒᆞ야(月印 1:46)

ᄆᆞᅀᆞᆷ(心): 시름 ᄆᆞᅀᆞᆷ(용 102)

ᄇᆞᅀᅥᆸ(竈): ᄇᆞᅀᅥᆸ爲竈(訓, 用字例)

ᄉᆞᅀᅵ(間): ᄒᆞᆫ갓 ᄉᆞᅀᅵᆫᄃᆞᆯ(용 31)

아ᅀᆞ(弟): 아ᅀᆞ爲弟(訓, 用字例)

그ᅀᅳ-(牽): 四天王이 술위 그ᅀᅳᆸ고(月印 1:35)

가ᅀᆞ멸-(富): 가ᅀᆞ멸며 싁싁ᄒᆞ야(月印 1:23)[24]

〔ㄷ〕 合成語의 第二 要素의 첫소리 「ㅅ」이 有聲音間에 介在하게 될 경우에

(23) 이 밖에도 「나ᇫ-(進), 아ᇫ-(向), 여ᇫ-(窺), 비우ᇫ-(譏), 일버ᇫ-(竊), 주ᇫ-(拾), ᄌᆞᇫ-(紡), 헐므ᇫ-(瘡)」 따위 말이 있다.
그리고 「우ᇫ-」은 밑에 母音이 接續되지 않는 경우라도 ㅿ으로 變動하는 일이 있다. (우ᇫᄫᅳ-)
오ᄂᆞᆳ나래 내내 우ᇫᄫᅳ리 (용 16)
跋提 말이 긔 아니 우ᇫᄫᅳ니 (月印 7:1)
世尊ㅅ말ᄋᆞᆯ 우ᇫᄫᅵ 너기니 (月印 7:5)

(24) 다른 例들: 거ᅀᅱ, 겨ᅀᅳ사리, 그ᅀᅳ기, 그ᅀᅳᆨᄒᆞ-, 기ᅀᅳᆷ, ᄀᆞᅀᆡ, ᄀᆞᅀᆞ라기, ᄀᆞᅀᆞᆷ, ᄀᆞᅀᆞᆷ알-, 너ᅀᅵ, 니ᅀᅳ취-, ᄇᆞᅀᅳ왜-, 아ᅀᆞᆷ, 어버ᅀᅵ, 어ᅀᅵ, ᄌᆞᅀᆞᆷ, 처ᅀᅥᆷ 等等.

는, 「ㅿ」으로 變하는 일이 있는데, 거의 同時代의 文獻에서 本音 「ㅅ」을 維持한 語形과 「ㅿ」으로 變動한 語形이 混用되어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두ᅀᅥ : 이 말은 「둘」(二)과 「서」(<셋, 三)의 合成語이다.

두ᅀᅥ 사ᄅᆞᆷ(月印 7:16)

새ᅀᅡᆷ : 이 말은 「새」(?)와 「삼」(麻)의 合成語일 것이다.

새ᅀᅡᆷ토=菟 (字會 上 18)

프ᅀᅥ리 : 이 말은 「플」(草)과 「서리」(間)의 合成語인데, 「ㅿ」을 維持하고 있는 文獻에서 「프서리」로 表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任意 變動)

프ᅀᅥ리예셔 자시고(月印 8:93)

프서리예…(杜 7:8)

한ᅀᅡᆷ : 이 말도 「한」(大)과 「삼」(麻)의 合成語이겠는데, 「한삼」과 混用된다.(任意 變動)

한ᅀᅡᆷ 너출=葎草 (四聲通解 上 70)

한삼플=葎 (字會 上 8)

한ᅀᅮᆷ : 이 말은 分明히 「한」(大)와 「ᅀᅮᆷ」(息)의 合成語인데, 亦是 「한숨」과 混用된다.

嗚呼ᄂᆞᆫ 한ᅀᅮᆷ 디ᄐᆞᆺᄒᆞᆫ 겨치라(月印序 23)

시름ᄒᆞ야 한숨 디ᄂᆞᆫ 소리(석 19:14)

또 다음 말도 참조.

ᄒᆞᆫ갓 구틔여 아로ᄆᆞᆯ 일ᅀᅡ마=徒事强記 (楞 6:70)←사마

〔ㄹ〕 다음과 같은 말의 表記에 있어서도 「ㅿ」은 「ㅅ」과 通用된다.

아ᇫ이 모딜오도(용 103)
앗이라(석 13:2)

狐ᄂᆞᆫ 여ᇫ이니(楞 2:3)
엿이 獅子ㅣ 아니며(月印 2:76)

옷기슭 그ᇫ우믈 앗기니라(杜 20:34)
玉ᄋᆞᆯ 긋우믄…(杜 15:25)

ᄀᆞ장 비ᅀᅥ 됴ᄒᆞᆫ양ᄒᆞ고(月印 2:5)

ᄀᆞ장 비ᅀᅥ 瓔珞ᄒᆞ고(月印 7:3)

모ᄆᆞᆯ ᄇᆞᅀᅡ…(永가 上 20)

地獄ᄋᆞᆯ ᄇᆞᅀᅡᄇᆞ려(月印 21:131)

뫼해 돌히 ᄇᆞᅀᅥ디도다(杜 25:7)

머리 ᄇᆞᅀᅥ듀믈 막건마ᄅᆞᆫ(杜 20:19)

〔ㅁ〕 龍飛御天歌에서는 사잇소리 表記에 「ᅀ」을 使用하고 있는데, 이것도 「ᅀ」의 音價와 全혀 關聯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나라ᇫ 일훔(85章), 世子ᅀ位(101章), 英主ᅀ 알ᄑᆡ(16章),

바ᄅᆞᇙ 우희(83章) 等等. <「Ⅲ, 3, 6) 사잇소리」(p. 392 以下) 참조>

「ᅀ」이 齒音이란 點으로 보면, 「ㅅ」이나 「ㅈ」이나 「ㅊ」과 비슷한 소리였음을 大體로 推測할 수 있는데, 이것이 「ㅅ」과 通用되는 點으로 본다면, 「ㅅ」과 같은 摩擦音이었음을 알 수 있다. 特히 「ㄷ」의 例로 보면, 「ᅀ」은 分明히 「ㅅ」의 變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ᅀ」을 不淸不濁이라 한 點, 그리고 이것이 有聲音(主로 母音) 間에서만 나타난다는 點으로 미루어 보면[25], 「ᅀ」은 分明히 有聲音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ᅀ」은 「ㅅ」의 有聲音으로 斷定할 수 있으니, 卽 이 글자는 〔z〕 音의 表記였음을 알 수 있다.[26]

---

(25) ᅀ이, 有聲音間이 아닌 경우에, 또는 語頭에 나타나는 일이 있으나, 이러한 例는 漢字音의 表記가 아니면, 擬聲語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例外로 돌려두는 바이다.

　납염(=鑞染)ᄒᆞᆯ ᅀᅩᆨ=鋈 (字會 下 16)

　ᅀᅣᆨᄒᆞᆯ ᅀᅣᆨ=弱 (字會 下 30)

　活潑潑ᄋᆞᆫ 얼얼 흐르는 믌겨레 비췬 ᄃᆞᆯ비ᄎᆞᆯ 닐온 마리니… (蒙山 43)

그러나 다음 몇가지는 아직 그 語源을 알 수 없다.

　ᅀᅮᆺ더=撈, ᅀᅮᆺ포=箍 (字會 下 22)

　罪ᄅᆞᆯ ᅀᅭᄒᆞ샤 (月印 2 : 70)

(26) 捷解新語는 1618 A.D.에 著作되고, 1676 A.D.에 刊行된 것이므로, 이 時期에는 아마 ᅀ은 消失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著者 康遇聖은, 그 幼年 時代의 ᅀ使用法을 그대로 살렸음인지, 日語의 ザ行 音에 對해서 ᅀ을 使用하고 있으니, 이것도 ᅀ

「ㅿ」이 「ㅅ」과 매우 가까운 소리였음은 方言學에서도 證言하는 바이니, 「ㅿ」音을 가졌던 옛말 「ᄆᆞᅀᆞᆯ(里), ᄀᆞᅀᆞᆯ(秋), 겨ᅀᅳᆯ(冬), ᄀᆞᅀᅢ(剪)」따위 말은, 어떤 方言에서는 「ㅿ」이 完全히 消失되고, 어떤 方言에서는 「ㅅ」으로 殘有되어 있다.[27]

〔ᄆᆞᅀᆞᆯ〕

ᄆᆞ올系 : 마울, 말ː, 몰ː 等

ᄆᆞ술系 : ᄆᆞ술, 마슬, ᄆᆞ실, 모슬, 모실 等

〔ᄀᆞᅀᆞᆯ〕

ᄀᆞ올系 : ᄀᆞ울, 가을, 갈ː 等

ᄀᆞ술系 : ᄀᆞ실, 가실, 가슬 等

〔겨ᅀᅳᆯ〕

겨을系 : 겨을, 겨울, 결ː, 저울 等

겨슬系 : 저슬, 저슬기, 저식, 저실 等

〔ᄀᆞᅀᅢ〕

ᄀᆞ애系 : 가우, 가위, 가웨, 강에 等

ᄀᆞ새系 : ᄀᆞ새, 가새, 까새 가시개 等

받침으로 쓰인 「ㅿ」도 위의 「ㄹ」의 用例들에 있어서는 分明히 〔z〕 音으로

音價 推定에 있어서의 重要한 資料의 하나이다.

御さらは——°고ᅀᅡ라바

御され——°고ᅀᅡ레

まんしに(萬事)——만ᅀᅵ니

そんし(存)——손ᅀᅵ

せんと(先度)——션도 等等.

그리고 「ㅿ」이 「z」 音이 었으리란 推定은 거의 學界의 認定을 받고 있는 事實로서,

최현배 님의, 앞에 든 論文에서는, "ㅿ는 ㅅ의 흐린소리니 : 잉글리쉬의 z와 같은 소리이다"(고친 한글갈 p. 524)라 하였고,

李崇寧 님의 앞에 든 論文에서도, 〔z, ʒ〕의 音價를 가졌던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는 反對 意見도 있어서, 南廣祐 님은, 앞에 든 論文에서, 「ㅿ」에 對해서도 「ㅸ」에서와 꼭 같은 의견을 發表하고 있다.

(27) 小倉進平 : 朝鮮語方言の研究 上卷 참조.

發音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런데 그 當時의 表記法은, 月印千江之曲을 除外하면, 엄격하게 音節 單位로 묶이는 方法을 取하고 있다. 따라서 「아ᇫ-」, 「여ᇫ-」, 「ᄇᆞᇫ-」 따위 表記法은, [z] 音이 終聲으로 쓰일 수 있었음을 보임이니, [z] 音이 音節 末音(終聲)으로 쓰일 수 있은 點은 現代語의 終聲 組織과 다른 點이다.

[z] 音이 終聲이 될 수 있었다고 보게 되면,

오ᄂᆞᇗ나래 내내 우ᇫᄫᅳ리 (용 16)

의 「우ᇫᄫᅳ-」도 [uzßï-]로 發音되었던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이 말의 받침의 「ㅿ」이 [z] 音이었으리란 추측은, 樂學軌範 5:7에, 위의 龍歌의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웃우리」로 되어 있는 點으로 더욱 確實해진다. 「웃우리」의 「ㅅ」은 分明히 [s] 音이었을지니,(28) 「우ᇫᄫᅳ-」의 「ㅿ」도 [s]와 비슷한 [z]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다음의 例는 아직 疑問으로 남겨두는 수 밖에 없다.

치ᇫ 나래(용 12장), ᄇᆞᇫᄂᆞ니(楞 4:18),

오ᄂᆞᇗ나래 (이것은 사잇글자이니, 이에 대해서는 「Ⅲ, 3, 6) 사잇소리」 참조)

[라] ᄋᆞ, ᄋᆡ (29)

解例의 說明

訓民正音 制字解에, 七 基本 母音의 音價에 對해서, 다음과 같이 說明하

(28) 現代語 「우습다」를 對比해 볼 것.
(本 原稿가 脫稿되고 印刷에 붙여질 무렵, 李基文氏의 下記 論文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에서도 이러한 경우의 「ㅿ」은 [z]音으로 發音되었던 것으로 說明되어있다. 그리고 「ㅿ」은 「ㅅ」終聲과 別個音素가 아님을 여기 指摘하고 있다.
李基文 : 中世國語의 特殊語幹交替에 대하여<진단학보 No. 23>)

(29) 「ᄋᆞ」의 音價를 取扱한 論文으로는 다음 것들을 들 수 있다.
최현배 : 「·」자의 소리값 상고(고친 한글갈 p. 396 以下)
이숭녕 : 朝鮮語 音韻論 硏究 第一集.
최현배 : 「·」자의 소리값 상고(東方學志 第四輯).
이숭녕 : 「·」音攷 再論(學術院 論文集 第一輯)

였다.

・舌縮而聲深……ㅡ舌小縮而聲不深不淺…… ㅣ舌不縮而聲淺……ㅗ與・同而口蹙……ㅏ與・同而口張……ㅜ與ㅡ同而口蹙……ㅓ與ㅡ同而口張"

이 說明은 두 部分으로 되어 있으니, 첫 部分은 「・ㅡㅣ」의 音價 說明이요, 다음 部分은 「ㅗㅏㅜㅓ」와 「・ㅡ」와의 音價 比較이다. 그리고 첫 部分도 또한 두 方面으로 說明되어 있으니, 하나는 '舌'의 狀態에 關한 것이요, 다른 하나는 '聲'의 印象에 關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方面에서 「・」의 音價를 觀察해 보기로 한다.

舌의 狀態에서 본 「・」 音價 推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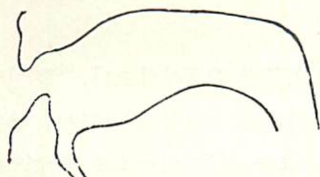
舌은 세가지 狀態를 分別하였으니, 하나는 "不縮", 하나는 "小縮", 하나는 "縮"이다.

母音 [i]의 調音에 있어서는 혀의 앞 쪽이 입천장으로 向해서 接近하기 때문에, 혀의 表面은 조금도 쪼그라지지 않고 쫙 펴진다. "ㅣ舌不縮"이라 한 것은 바로 이러한 혀의 狀態를 說明한 것이다. 한편 [ï] (ㅡ) 母音을 調音할 때는, 혀의 가운데가 입천장으로 向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혀의 앞쪽은 若干 쪼그라지는 것이다. 곧 이 경우의 혀의 狀態는, 혀끝이 아랫니 안쪽에 닿아서 若干 높고, 혀끝과 혓바닥 사이의 部分이 若干 내려가고, 혓바닥의 가운데 部分은 다시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혓바닥과 혀끝 사이의 部分은 若干 쪼그라지는 것이다. "ㅡ舌小縮"이란, 이러한 혀의 狀態를 가리킨 말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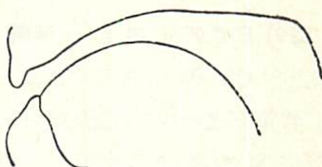
그러면 "舌縮"이란 어떤 狀態를 말함일까? 다른 母音의 경우를 觀察해 보면, 前舌 母音의 [e]도 거의 [ï]와 비슷한 程度로 "舌小縮"되는 것이며, [ɛ]도 亦是 같은 部分이 조금 더 쪼그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말의 [ㅏ]에 있어서는 [e], [ɛ]의 경우에서보다 좀 더 큰 舌面의 屈曲狀을 볼 수 있다. 이러한 屈曲狀은 [u]나 [o]의 경우에 있어서도 한가지니, 이 母音을 調音할 때는 後舌이 여린-입천장을 向해서 上昇하여, 혀의 앞 쪽이 急한 커어

브를 그리며 降下되는 것이다.

이러한 舌面의 屈曲狀을 보이기 爲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G.Noël-Armfield: General Phonetics p. 133에서 轉載하여 둔다.



[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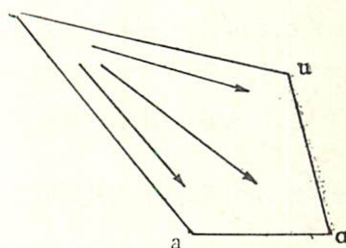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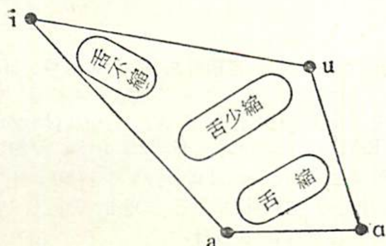
이 그림에서 보면, [i]의 경우에 있어서는 舌面이 쫙 펴져 있으나, [ɑ]에 있어서는 혀의 앞 쪽이 屈曲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o]나 [u]에 있어서도 [ɑ]와 비슷한 정도로 屈曲될 것이다.

이와 같이, [i]는 舌面이 伸張되고, [ï] [e] [ε] 따위는 혀의 앞쪽이 오그러지기는 하나 그 程度가 아직 甚하지는 않은데, [a], [ɑ]나 [u], [o]에 이르러서는 그 오그러지는 程度가 매우 甚함을 알 수 있다.

極端의 "舌不縮"과 極端의 "舌縮"의 사이에는 여러 段階의 舌縮의 程度가 分別될 수 있을터인데, 여기에서는 舌縮의 程度를 大體로 세 段階로 나누어 있다.



그런데 舌縮은 [i]에서 멀어 질 수록 그 程度가 甚해감을 볼 수 있다. 卽 後舌로 갈수록, 低母音이 될수록, 舌縮의 程度는 甚해진다.



그림에서 화살표의 方向으로 向할 수록 舌縮의 程度는 甚해지기 때문에,

"舌縮"은 [i]에서의 距離가 가장 먼 母音이 되겠고, "舌少縮"은 그보다 [i]에 接近한 母音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母音들의 차지하는 位置는 대강 앞 페지의 그림과 같았지나 않았을까 추측된다.

聲의 印象에서 본「·」音價 推定

以上은 '舌' 卽 音聲 器官으로 본「·」音價의 說明이었으나, '聲'이란 分明히 聽覺 印象에 依한 說明이다. 그들은 母音의 소리를 說明함에, 한편으로는 音聲 器官(혀)으로써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청각 인상으로 하였으니, 이로써 우리는 그들의 說明 方法이 얼마나 周到한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o〕〔u〕와 〔i〕〔e〕를 比較해 보면, 前者가 깊고 어두운 音感을 주는 데 對해서, 後者는 얕고 밝은 音感을 주는 것인데, 그 原因은 울대마개(會厭軟骨)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o, u〕와 같은 後舌 母音을 낼 때는, 혀가 뒤쪽으로 넘어짐과 同時에 울대마개도 뒤쪽으로 넘어져서, 喉頭에서 나오는 氣流에 對해서 碍障를 주게 된다. 그리하여 그 소리는 깊고 어두운 印象을 주게 되는데, 입술의 둥글음은 그 어두운 印象을 한 층 強化하는 것이다. 이에 比해서 〔i, e〕와 같은 前舌 母音을 發音할 때는, 혀가 앞쪽으로 나오므로, 울대마개는 똑바로 서서 氣流의 흐름에 對해서 아무런 障碍를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리는 얕고 밝은 印象을 준다.[30] 이것은,「아」소리를 내면서 입 앞에다 손바닥을 갖다대면 그 소리는 어둑컴컴하게 들리나, 손을 떼면 그 소리는 밝게 들리게 되는 것과 같은 現象이다.

子音에 있어서도 深淺이 區別된다.

---

(30) 新村 出 : 言語學概論 p. 16.

그리고 後舌 母音의 어두운 音感은 oral pharynx의 容積에도 관계가 있다. oral pharynx는 울대마개의 위쪽에서 코의 入口까지의, 혀뿌리와 咽頭壁 사이를 말함인데, 英語의 eat의 母音을 낼 경우는, ought의 母音을 낼 때보다 oral pharynx의 容積이 4倍半이나 된다고 한다. <R-M. S. Heffner: General Phonetics. p. 29>

卽 後舌 母音을 낼 때는 前舌 母音을 내는 데 比해 oral pharynx의 容積이 현저하게 작아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聲을 수반한 空氣의 흐름은 그만큼 障碍를 입게 된다. 따라서 어두운 音感이 여기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四聲通攷 凡例에 :

"凡齒音 齒頭則擧舌點齒 故其聲淺 整齒則 卷舌點腭 故其聲深"

이란 말이 있다. 中國語의 齒頭란 국어의「ㅅ, ㅈ, ㅊ」보다 調音部가 口腔의 前部에 나가는 것이고, 整齒는 바로 卷舌音(retroflex)이니, 국어의「ㅅ, ㅈ, ㅊ」보다 調音部는 口腔의 後部에 位置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母音의 경우와 같은 事實을 發見하게 되는데, 後舌 母音이 '聲深'의 印象을 주고, 前舌 母音이 '聲淺'의 印象을 주듯이, 調音部가 앞쪽에 있는 齒頭가 '聲淺'임에 대해서, 調音部가 그보다 뒤에 있는 整齒는 '聲深'의 印象을 주게 된다. 一般的으로 말하면 grave 한 소리는 '聲深'하고, acute 한 소리는 '聲淺'하다고 할 수 있다.(31)

'聲'의 深淺이란, 결국 이와 같은, 소리의 明暗感을 表明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聲淺'이 前舌 母音의 音感을, '聲不深不淺'이 中舌 近傍에 있는 母音의 音感을 表明한 데 對해서, '聲深'이란 결국 後舌에 가까운 母音의 音感을 表明한 것이라 생각된다.(32)

이와 같이 '舌' '聲' 兩面으로 보면「·」는 결국「ㅡ」에 比해서 後舌에 가까우면서 그 보다 多少 低舌로 내던 母音이었을 것으로 推測된다.

「ㅏ, ㅗ」와의 比較에서 본「·」音價 推定

앞에서 들어 보인 바와 같이, 訓民正音 解例에서는 "ㅏ는 ·와 같으나 입을 펴고,「ㅗ」는「·」와 같으나 입을 움츠린다"라 하여「·」를「ㅏ, ㅗ」와

(31) p. 71 참조.

(32) 최현배 님은「聲深」의 解釋을 이렇게 하지 않고, "홀소리의 차지한 자리가 모서리이거나 갓이 되어, 그 소리남이 분명한 것은「무겁고 깊은」인상을 주지 못하고, 그와는 달라, 그 자리 잡음이 가운데 또는 복판이 되어서 불분명한 성질을 띤 소리만이, 그 뒤달음(後續)으로 인하여「무겁고 깊은」인상을 주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다."라 보고 있다.(東方學志 第4輯 : "·" 자의 소리값 상고 p. 11)

소리의 印象이란 主觀的인 것이어서, 客觀 妥當性을 띤 表現法은 매우 힘드는 것이며, 따라서 남이 받은 印象의 表現을 解釋하는 方法도 이렇게 區區해짐은 오히려 當然한 일일는지 모른다. 여기 auditory phonetics의 어려운 理由가 있다.

比較해 있다. 여기에 「ㅏ」나 「ㅗ」가 「·」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이 같다는 말일까? 입술의 모양은 다음에 '口張, 口蹙'으로 分別되어 있으니, 分明히 입술의 狀態가 같다는 말은 아닐지니, 이것은 調音에 있어서 가장 主要한 구실을 하는 혀의 狀態가 같다고 解釋된다. 그리고 '口'란 「ㅏ, ㅗ」의 發音으로나, '張, 蹙' 字의 뜻으로 보나, 이것은 입술의 狀態를 說明한 것이다.[33] 그러므로 위의 音價 比較에서 推測할 수 있는 「·」音은, 그 혀의 모양이 「ㅏ」나 「ㅗ」와 같으면서 (비슷하면서), 입술의 모양은 「ㅏ」처럼 펴지도 않고 「ㅗ」처럼 오므리지도 않는, 말하자면 이 兩音의 中位쯤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혀의 位置가 「ㅏ」나 「ㅗ」와 비슷하다는 것은, 「·」音이 結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後舌 低母音 近處에 位置할 것임을 再確認하게 하는 것이라 믿어진다.

以上 우리는 解例의 說明에서 「ᄋᆞ」의 音價를 推定해 보았는데, 다음으로는 다른 方向으로 이 소리의 音價를 考察해 보기로 한다.

---

(33) 「口蹙」「口張」의 「口」를 「입술」로 보지 않고 開口度로 보려는 일이 있다. 勿論 口蹙 調音에 있어서는, 口張 調音에 比해, 自然的으로 開口度가 작아질것임은 當然한 일이다. 따라서 蹙張은 開口度에 全혀 關係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表現法에 있어서는 「口」는 「입(술)」을 가리키는 것이며, 蹙張은 입술을 오므리고 펴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른데 「口」란 말을 使用한 例를 보면, 四聲通攷 凡例에,

"如中聲ㅏㅑㅓㅕ 張口之字 則初聲所發之口不變 ㅗㅛㅜㅠ 縮口之字 則初聲所發之舌不變"

이란 말이 있다.

萬一 「口」를 開口度로 본다면, 「ㅗ」와 「ㅜ」는 같은 종류가 되지 못할 것이며, 「ㅏ」와 「ㅓ」도 같은 종류로 넣지 못할 것이다. 이 두소리들은 그 開口度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初聲所發之口」를 「初聲所發之舌」과 對立시켜 놓았는데, 「口」를 開口度로 보면, 開口度의 決定的 要素인 舌은 무엇으로 보아야 할까? 舌이야 말로 바로 開口度로 보아 좋은 것이니, 따라서 「口」는 開口度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張口」, 「縮口」의 「口」나, 「初聲所發之口」의 「口」나, 모두 「입(술)」의 뜻으로 解釋함이 가장 妥當한 것이다. 口張 口蹙은 어디까지나 입술의 모양을 그린 말이며, 여기 開口度가 關與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剩餘的 資質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ㅗㅜ」를 여기에서는 「蹙」으로 표시하지 않고 「縮」으로 表現해 있는데, 이것은 分明히 圓唇을 그린 것이지, 顎角의 닫김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音素의 變動에서

/ㆍ/ 音이 /ㅏ/와 /ㅗ/에 가까운 소리였다는 事實은, 李朝 初朝에 있어서의 音素의 變動에서도 認證된다.

〔ㄱ〕 用言의 語幹 「ᄡᅳ-(用), 크-(大), ᄠᅳ-(浮), 쓰-(書)」 따위에 名詞形 語尾 「-움」 이 連結될 때는, 語幹의 끝소리 /으/는 省略되어서 「ᄡᅮᆷ, 쿰, ᄠᅮᆷ, 쑴」이 된다.

〔ㄴ〕 同一한 語幹에 첫머리가 /어/ 音인 語尾가 接續될 때는, 亦是 語幹 末音은 省略된다. 곧

/으/+/우/

/으/+/어/

에 있어서는, 앞소리 /으/가 省略되는데, 이것은 /으/ 音이 /우, 어/와 가까운 소리이기 때문에[34], 前者가 後者에 完全 同化된 結果인 것이다.

그런데 이와 꼭 같은 變動이 /ᄋᆞ/, /오/, /아/ 三母音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ㄱ〕 用言의 語幹 「다ᄋᆞ-(盡), ᄑᆞ-(掘), 다ᄅᆞ-(異), 오ᄅᆞ-(登)」에 名詞形 語尾 「-옴」이 連結될 때는, 語幹의 끝소리 /ᄋᆞ/는 省略된다.

〔ㄴ〕 同一한 語幹에, 첫소리가 /아/ 音인 語尾가 連結될 때는, 亦是 /ᄋᆞ/ 音이 줄어진다. 곧

/ᄋᆞ/+/오/

/ᄋᆞ/+/아/

에 있어서는 /ᄋᆞ/ 音이 줄어지는 것인데, 이로써 보면 /ᄋᆞ/ : /오/의 對立 關係는 /으/ : /우/의 관계와 같고, /ᄋᆞ/ : /아/의 관계는, /으/ : /어/의 관계와 같다.

따라서 /으/와 /우, 어/가 가까운 소리이듯이, /ᄋᆞ/는 /오, 아/와 가까운 소리인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

(34) 여기에서 우리는 解例의 다음 말을 想起할 것이다.
"ㅜ與ㅡ同而口蹙 ㅓ與ㅡ同而口張"

音素의 變遷 · 變化에서

音素의 變化[35]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現象이 나타난다. 곧 中間 子音이 脫落된 結果, /ᆞ/와 /오/가 衝突하게 되면, /ᆞ/는 脫落되는 것이다.

ᄃᆞᄫᅵ->ᄃᆞ외->되-

*ᄒᆞᄫᆞ->ᄒᆞ올로>홀로

ᄒᆞᄫᆞᅀᅡ>ᄒᆞ오ᅀᅡ>호ᅀᅡ

*ᄌᆞᄫᆞᆯ-> ᄌᆞ올->졸- 等

다음으로 /ᆞ/ 音이 消失됨에 있어서 이에 代置된 母音은, 特別한 理由가 없는 경우는, 대개 /ᆞ/ 音과 가까운 音이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代置된 母音을 調査해 보면 다음과 같다.

/ᆞ/>/아/ : 大部分의 /ᆞ/는 /아/로 變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ᆞ/를 '아래 아'라 일컬어 왔던 것이다. 이것은 /ᆞ/ 音이 다른 어느 音보다도 /아/에 가장 가까운 소리였음을 證言해 주는 것이다.

ᄀᆞᄅᆞ치다(敎), ᄀᆞᇫ(邊), ᄀᆞ믈(旱), ᄀᆞᅀᆞᆯ(秋), ᄀᆞᆽ다(備), ᄀᆞᄂᆞᆯ다(細), ᄀᆞᆯ(葦), ᄀᆞᄅᆞ(麵), ᄂᆞᆷ(他人), ᄂᆞᆯ다(飛), ᄂᆞᄅᆞ(津), ᄃᆞ리(橋), ᄃᆞᆯ(月), ᄆᆞᅀᆞᆷ(心), ᄇᆞᄅᆞᆷ(風), 사ᄅᆞᆷ(人) 等等.

그리고 漢字音의 /ᆞ/도 거의 다 /아/로 變하였다.

士, 史, 四, 死, 寺, 事, 祀(ᄉᆞ); 子, 字, 自, 姉, 姿(ᄌᆞ); 刻(ᄀᆞᆨ); 脖(ᄇᆞᆯ); 蔘(ᄉᆞᆷ); 簪(ᄌᆞᆷ) 等等.

우리말은 英語와 같은 強弱의 액슨트가 그리 뚜렷하지를 못하나, 大體로 낱말의 第一 音節이 第二 音節 以下보다도 若干 分明히 發音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第一 音節의 /ᆞ/는 거의 다 /아/로 變한 것이니, 이것은 /ᆞ/가 무엇보다도 /아/에 가까운 音이었기 때문이다.

/ᆞ/>/으/ : /ᆞ/에 代置된 母音으로, /아/에 다음가는 것은 /으/ 母音

(35) 여기에서는「變化」는「變動」과 區別된다. 即 한 單語(또는 형태소)의 signifiant의 通時的 變異를 여기에서는「變化」라 부른다. 그리고 音素 體系 自體의 通時的 變異는「變遷」이라 한다.(「Ⅳ」章 以下 참조).

이다

第一 音節에서 : ᄀᆞᄂᆞᆯ(陰), ᄒᆞᆰ(土)

第二 音節에서 : ᄀᆞᄅᆞ치다(敎), ᄀᆞᄃᆞᆨᄒᆞ다(滿), ᄀᆞᅀᆞᆯ(秋), ᄀᆞᄂᆞᆯ다(細), 가ᄉᆞᆷ(胸), 다ᄅᆞ다(異), 말ᄊᆞᆷ(語), ᄯᆞᄅᆞᆷ(耳), 사ᄉᆞᆷ(鹿), 아ᄃᆞᆯ(子) 等等

助詞에서 : -ᄂᆞᆫ/는>-는, -ᄋᆞᆫ/은>-은, -ᄅᆞᆯ/를>-를, -ᄋᆞᆯ/을>-을, -ᄋᆞ로/으로>-으로

助詞의 경우에 있어서는, 母音 調和에 依해서 두가지의 變異 形態가 쓰이다가, 母音 調和 規則이 허물어지고, /ᄋᆞ/ 音이 消失됨에, 「-ᄋᆞᆫ, -ᄋᆞᆯ, -ᄅᆞᆯ」 따위가 그 變異 形態인 「-은, -을, -를」로 統一된 것이니, 이것은 文法的인 見地로 보아서 當然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ᄋᆞ/와 /으/의 近似性을 立證하는 데는 매우 弱한 힘 밖에 없다. 이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母音 調和 規則이 破壞됨에 따라, 「받아, 막아, 말아, 잡아」 따위가 「받어, 막어, 말어, 잡어」로 變化하는 傾向이 顯著하나, 그렇다고 해서, 이 事實만으로는 /아/와 /어/의 近似性은 立證되지 않음과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第二 音節에 있어서의 /ᄋᆞ/>/으/는 꽤 많으나, 여기서 한가지 留意해둘 일은, 이러한 말에 있어서는, 그 第一 音節의 母音이 대개는 /아/ 또는 /ᄋᆞ/ 音이란 點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ᄋᆞ/>/으/도 單純한 變化가 아니라, 一種의 異化作用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卽 /아/~/ᄋᆞ/에 있어서는 萬一 第二 音節이 /아/로 變하면, /아/~/아/와 같이 同一 母音 둘이 連續되기에 이르므로, 強한 第一 音節이 弱한 第二 音節을 異化하여 /으/로 바꾼 것이다. (「Ⅳ. 2, 1), (2)」의 「異化」 參照). 또 /ᄋᆞ/~/ᄋᆞ/의 경우에 있어서도, 兩音節이 /아/로 바뀌고 나면 亦是 /아/~/아/가 될 것이므로 앞의 경우와 같이 異化作用이 일어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ᄋᆞ/가 何必 /으/로 바뀐 理由는, /ᄋᆞ/와 /으/는 母音 調和에 있어서 變動되는 '形態 音素'이어서, 語中에 있어서 /ᄋᆞ/~/으/의 變動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第二 音節에 있어서 /ᄋᆞ/>/으/의 例를 가지고 이 兩者의 近似性을 立證하는 것은 危險한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ᄋᆞ/와 /으/의 近似性을 否定해서는 안된다.

/ᄋᆞ/ : /오/ : /아/ = /으/ : /우/ : /어/

의 관계가 성립된다면, /ᄋᆞ/와 /으/의 관계는, /오/ : /우/의 관계나, /아/ : /어/의 관계와 같다. /오/와 /우/, /아/와 /어/는 서로 비슷한 點이 있으니, 따라서 /ᄋᆞ/와 /으/도 서로 비슷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第一 音節에 있어서의 /ᄋᆞ/>/으/ 變化의 例는 極히 드물어서, 例外로 돌릴 수 밖에 없으니, 여기에서 特히 擧論할 바는 못된다.

/ᄫᆞ/>/오/, /ᄫᅳ/>/우/ : 다음으로 唇輕音 /ㅸ/에 連續된 /ᄋᆞ/ 音은, /ㅸ/ 消滅에 즈음하여, /ᄫᆞ/ 音節 全體가 /오/로 바뀐다.

ᄒᆞᄫᆞ사>ᄒᆞ오사, ᄃᆞᄫᅵ다>ᄃᆞ외다, ᄀᆞᄫᆞᆯ>ᄀᆞ올, 고ᄫᆞᆫ>고온, 도ᄫᆞ니>도오니, 솔ᄫᆞ며>솔오며 等等.

이와 꼭 並行되는 現象이 있으니, 그것은 /ᄫᅳ/>/우/의 變化이다.

이ᄫᅳᆯ다>이울다, 셔ᄫᅳᆯ>셔울, 더ᄫᅳᆫ>더운, 열ᄫᅳ니>열우니, 等等.

이 變化는 /ㅸ/이 消滅되면서 /으/를 唇音化하여 /우/로 바꾼 것이니, 이것은 "ㅜ與一同而口蹙"이기 때문이다.

/ᄫᆞ/>/오/도 이와 꼭 같은 理由에 말미암은 것이다. 곧 /ㅸ/이 消滅되면서 /ᄋᆞ/를 唇音化하여 /오/로 바꾼 것이니, 이것도 /오/는 /ᄋᆞ/와 같으나 입술만을 오므리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으/ : /우/와 同一한 音素的 對立의 關係를 /ᄋᆞ/ : /오/ 사이에 認定할 수 있으니, /으/와 /우/의 혀의 位置가 가까운 소리임을 認定한다면, /ᄋᆞ/와 /오/도 亦是 그 혀의 位置가 가까운 소리임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ᄋᆞ/>/어, 우, 이, 에/ : 그밖에 /ᄋᆞ/가 /어, 우, 이, 애/ 따위로 바뀐 것이 있으나, 이것들은 모두 그 例가 드물고 不規則한 變化이므로 다 例外로 돌려도 無妨할 것이라 믿는다.

中國音과의 對比에서

以上 論證한 바에 依하면, /ᄋᆞ/는 /아/, /오/와 가장 가깝고, 또 /으/와도

어느 程度 가까운 소리였음을 짐작하게 되는데, 이러한 事實은 다음의 四聲通攷 凡例의 中國語 母音의 說明으로써도 어느 程度의 證據를 잡을 수 있다.

"大抵本國之音輕而淺 中國之音重而深 今訓民正音出於本國之音 若用於漢音則必變而通之乃得無礙 如中聲ㅏㅑㅓㅕ張口之字則初聲所發之口不變 ㅗㅛㅜㅠ縮口之字則初聲所發之舌不變 故中聲 爲ㅏ之字則讀如ㅏ·之間 爲ㅑ之字則讀如ㅑ·之間 ㅓ則ㅓㅡ之間 ㅕ則ㅕㅡ之間 ㅗ則ㅗ·之間 ㅛ則ㅛ·之間 ㅜ則ㅜㅡ之間 ㅠ則ㅠㅡ之間 ·則·ㅡ之間 ㅡ則ㅡ·之間 ㅣ則ㅣㅡ之間 然後庶合中國之音矣"

이것은 中國語 母音을 表記한 訓民正音의 發音法을 說明한 것인데, 中國語를 낼 때는 국어의 發音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總體的으로 말하면, 中國語 母音의 「ㅏㅑㅓㅕ」와 같은 입이 벌어지는 소리는, 국어에서처럼 그렇게 벌리지 말고, 初聲을 낼 때의 입의 모양 ——子音은 間隙이 母音보다 작으므로 입도 따라서 덜 벌어지니까, 그 작게 벌린 입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母音을 내어야 하며, 「ㅗㅛㅜㅠ」와 같은 입을 옴츠리는 소리는, 입은 이미 옴츠러지게 되어 있으니, 初聲을 낼 때의 혀의 모양——間隙이 작은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母音을 發音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 結果는,

ㅏ는 ㅏ·의 사이소리로,
ㅗ는 ㅗ·의 사이소리로,
ㅡ는 ㅡ·의 사이소리로,
·는 ·ㅡ의 사이소리로,
ㅓ는 ㅓㅡ의 사이소리로,
ㅜ는 ㅜㅡ의 사이소리로,
ㅣ는 ㅣㅡ의 사이소리로

내어야 中國音에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사이소리란, 적이 두 소리의 特色을 共有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ㅏ·」의

사이소리란, 적이 「·」의 特質을 가지고 있는 「ㅏ」 소리란 뜻이다. 그러므로 이 두 소리는 서로 멀어서는 이러한 表現은 不可能하다. 事實上 /어/와 /으/, /우/와 /으/, /이/와 /으/는 모두 가까운 것이므로, /아/와 /ᄋᆞ/, /오/와 /ᄋᆞ/, /으/와 /ᄋᆞ/도 모두 가까운 소리임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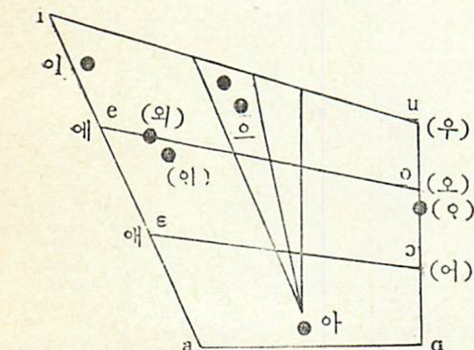
以上과 같이, 訓民正音의 說明으로 보나, 音素의 變動이나 變化로 보나, 中國 母音과의 對比로 보나, /ᄋᆞ/는 /아, 오/ 에 가장 가깝고, /으/와도 相當히 가까운 距離에 있는 소리임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方言音에서 본 「·」

그러면 「ᄋᆞ」는 具體的으로 어떠한 音이었을까? /ᄋᆞ/ 音의 具體的인 音價를 暗示해 주는 좋은 例는 濟州島 方言의 發音이다. 다른 方言에 있어서는 古 /ᄋᆞ/ 音에 對해서 特別한 자취를 保存하고 있지 않으나, 오직 濟州島 方言에 있어서는, 옛날의 「ᄋᆞ」 字로써 表記되어 있는 말에 對해서, 獨特한 音을 使用하고 있는 것이다.

小倉進平는 일찍 濟州島의 이 音에 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濟州島 方言에 나타나는 ᄋᆞ音의 特質은 朝鮮半島 어느 地點에서도 볼 수 없는 特種의 音에 屬한다. 이것을 音聲學的으로 觀察하면, 別圖의 地位에 配定할 수 있을 것 같다.



即 閉音 오(o)와 開音 어(ɔ)와의 中間에 位置하여, 日語의 オ와 類似한것 같으나 オ보다도 적이 입술 둥글음을 띠고 發音되는 音과 같이 생각된다"[36]

그 뒤 河野六郎는 이 소리에 對해서,

(36) 朝鮮語方言の硏究 下卷 p. 456.

"이 母音은 筆者의 觀察에 依하면 舌面의 높이 및 樣態는 거의 〔o〕와 같으나 입술의 모양이 〔o〕와는 조금 다르다. 〔o〕의 경우에는 입술을 안으로 오므리는데, 이 母音은 밖으로 펴는 것이다. 그러나 입술의 둥글음은 明瞭하다"[37]

라 하였으나, 두 사람 다, 이 音이 古 /ᄋᆞ/ 音價 自體라고는 斷定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극로는 이 소리에 對해서,

"그 소리를 내려면 혀는 낮출 수 있는대로 낮추고, 뒤로 밀 수 있는대로 밀며, 입술은 조금 둥글게 하여 「ㅗ」 보다도 더 많이 입을 벌리며 연구개(軟口蓋)는 위로 처들게 된다. 그런데 간단히 말하면 「ㅏ」 혀와 「ㅗ」 입술로 된 단음(單音)이다. 그래서 어떻게 들으면 「ㅗ」도 같고 또 어떻게 들으면 「ㅏ」도 같다"[38]

라 하고, 이 소리가 바로 한글을 처음 만든 그 때의 /ᄋᆞ/ 音價인 것이라 하였다.[39]

筆者가 듣기로는, 이 소리는, 거의 서울말의 「어머니」의 「어」와 비슷한 것으로 들린다.

濟州島 方言의 /ᄋᆞ/의 記述로 보면, 이 소리는 /오/에 가까우면서 그 開口度는 /아/에 가까이 커지는 것으로 생각되니, 이것은 訓民正音의 說明에 매우 가까운 音이라 할만 하다.

그리고 또 濟州島의 「ᄋᆞ」에 가까운 서울말의 開口의 [ʌ]도, 日本人이 들으면 /오/와 混同될 程度로 〔o〕 音에 가까우며[40], 이 音을 내다가 脣角만 좀 벌리면, 혀의 位置는 그다지 變動하지 않더라도, /아/를 쉽사리 낼 수 있는 것이다.

---

(37) 朝鮮方言學試攷 p. 30.
(38) 國語學論叢 p. 17.
(39) 같은 책 pp. 19—20.
(40) 小倉進平 : 國語 及 朝鮮語 發音概說 pp. 22—4.

結 論

訓民正音의 說明이나, 音素의 變動, 變化로나, 中國語音과의 對比로 해서, /ᆞ/가 /아, 오/와, 그리고 /으/와 가까움을 認定하게 되는데, 濟州島 方言의 /ᆞ/ 發音이 또한 거의 이러한 條件을 갖추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ᆞ/는 혀의 位相은 거의 /오/에 가까우나 다만 입술의 둥글음은 /오/보다 덜한 소리이다. 바꾸어 말하면 平脣의 /오/ 音, 즉 [ɤ] 乃至는 〔ʌ〕에 가까운 소리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ɤ〕는 〔o〕의, 〔ʌ〕는 〔ɔ〕의 平脣音인데, 우리말에는 〔o〕와 〔ɔ〕의 對立이 없으므로, 결국 이 두 소리는 한 音素의 變異音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論斷해 놓고 보면 이 소리는 우리가 위에서 論證한 것과 어느 程度 符合됨을 볼 수 있다. 卽 〔ɤ～ʌ〕는 조금만 입을 더 벌리면 /아/가 되는 것이며, 여기 입술 둥글음을 加하게 되면 /오/가 된다. 그리고 〔ɤ～ʌ〕는 〔ï〕와도 어느 程度의 近似性을 띠고 있다. 〔ɤ〕와 〔ï〕의 距離는 〔o〕와 〔u〕와의 距離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ï〕는 〔u〕의 平脣音인 〔ɯ〕와 거의 비슷하다) 으 : ᄋᆞ = 우 : 오

그리고 「ᄋᆡ」는 單母音이 아니라, [ɤ～ʌ]와 [j]의 重母音이었으니, 이에 관해서는 '變音字' 條에서 說明할 것이다.

〔마〕 並 書 : <붙임> ㅅ終聲

訓民正音 合字解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初聲二字三字合用並書 如諺語ᄯᅡ爲地 ᄧᅡᆨ爲隻 ᄢᅳᆷ爲隙之類 各自並書 如諺語혀爲舌而ᅘᅧ爲引 괴여爲我愛人而괴ᅇᅧ爲人愛我 소다爲覆物而쏘다爲射之之類 中聲二字三字合用 如諺語과爲琴柱 홰爲炬之類 終聲二字三字合用 如諺語ᄒᆞᆰ爲土 낛爲釣 ᄃᆞᇌᄣᅢ爲酉時之類 其合用並書 自左而右 初中終三聲皆同"

이에 依하면 並書에는 合用 並書와 各自 並書가 있는데, 各自 並書란 곧 雙書를 말함이요, 合用 並書란 다른 種類의 字母 둘 以上을 나란히 쓰는 것

인데, 이에는 初聲 中聲 終聲의 세가지 경우가 있다.

並書
- 各自 並書(初聲)——ᅇᅧ, ᅘᅧ, 쏘
- 合用 並書
  - 初聲——ᄯᅡ, ᄢᅡᆨ, ᄣᅳᆷ, ᄦᅢ
  - 中聲——과, 홰
  - 終聲——ᄒᆞᆰ, ᄃᆞᆳ

終聲의 合用 並書의 音價에 對해서는, 現代語의 경우와 다름 없었으리란 點, 의심하는 사람이 없는 모양이니, 여기에서는 問題될 것 없을 것이며, 中聲의 合用 並書에 對해서는 뒤에서(變音字)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初聲의 合用 並書와 各自 並書에 관해서 그 音價를 밝히고자 한다.

〔合用 並書〕

于先 初聲의 合用 並書의 例를 若干 들어 보이기로 한다.

〔ㅲ〕

ᄠᆞᆯ기ᄆᆡ=莓 (字會 上 12)

擿ᄋᆞᆫ ᄠᅧᆯ씨라 (月印序 9)

놀이 ᄒᆞ오사 ᄠᅱ여다=爆獨跳 (永嘉 下 41)

情은 ᄠᅳ디라 (訓)

垢ᄂᆞᆫ ᄠᅵ라 (楞 4:76)

〔ㅄ〕

이 브른…ᄡᅮᆨ글 조차 나ᄂᆞ녀=此火…爲從艾出 (楞 3:75)

用ᄋᆞᆫ ᄡᅳᆯ씨라 (訓)

掃ᄂᆞᆫ ᄡᅳᆯ씨오 (楞 5:45)

種ᄋᆞᆫ ᄡᅵ라 (月印 2:2)

제 ᄡᆞᆯ란 ᄆᆞ초고 (月印 1:45)

〔ㅶ〕

簡은 대ᄧᅡ개니 (月印 8:96)

ᄧᅡᆨ爲隻 (訓,合字解)

대ᄧᅩᄀᆞ로=竹簡(永嘉 上 17)

髻ᄂᆞᆫ ᄧᅩᆫ머리니 (月印 8:33)

더븐 버티 우희 ᄧᅧ니 (月印 2:51)

鹹ᄋᆞᆫ ᄧᆞᆯ씨라 (月印 1:23)

〔ᄩ〕

骨髓 ᄩᅥ디며 (月印 2:38)

여러가짓 ᄩᅳ며 ᄩᅵᆯ븐거시 (釋 19:20)

현번 ᄩᅱ운돌… (용 48)

彈指ᄂᆞᆫ 솑가락 ᄩᆞᆯ씨니 (月印 8:49)

손바리 어러 ᄩᅳ고=手脚凍皴 (杜 25:26)

밤 구ᄫᅳᆯ제…ᄩᅮᆨ ᄩᅥ딜씨니 (蒙山 44)

〔ᄭ〕

ᄭᅩ리예 구스리 ᄢᅦ오 (月印 1:28)

ᄢᅴ 한 도ᄌᆞᆨ… (용 19)

ᄭᅮ므로… (용 13)

굿븐 ᄭᅱ을 (용 88)

그 사ᄅᆞ미 ᄭᅮᆷ ᄭᅵ면 (月印 21:169)

〔ᄮ〕

ᄮᅡᄒᆡ 소리 갓나ᄒᆡ 소리 (釋 19:14)

ᄮᅡᄒᆡ 香 갓나ᄒᆡ 香 (釋 19:17)

〔ᄯ〕

ᄯᅡ爲地 (訓, 合字解)

열본 ᄯᅥ (月印 1:42)

ᄯᅩ (용 9)

寶玉帶 ᄯᅴ샤 (용 112)

耳ᄂᆞᆫ ᄯᆞᄅᆞ미라 ᄒᆞ논 ᄠᅳ디라 (訓)

孝道ᄒᆞᇙ ᄯᆞ리 그를… (용 96)

〔ㅄ〕

ᄡᅧ골=骨 (字會 上 28)

ᄡᅡᇰ나못 니피 (杜 21:36)

二軍鞠手ᄡᅳᆫ 깃그니이다 (용 44)

角ᄋᆞᆫ ᄡᅳ리오 (釋 13:53)

促急은 ᄡᆞᄅᆞᆯ씨라 (訓)

〔ㅴ〕

두 놀이 ᄒᆞᆫ사래 ᄢᅦ니 (용 43)

ᄢᅮ이ᄂᆞᆫ 조=貸粟 (杜 20:41)

쌋마시 ᄢᅮᆯ ᄀᆞ티 ᄃᆞᆯ오 (月印 1:42)

ᄢᅳᆷ爲隙 (訓, 合字解)

현ᄢᅦ (용 113)

〔ㅵ〕

ᄃᆞᇌᄣᅢ爲酉時 (訓, 合字解)

ᄣᅳ리포=疱 (字會 中 33)

瓶읫 믈이 ᄣᅥ며 (月印 7:6)

집 기슬글 ᄣᅦᆯ엇도다=刺簷 (杜 25:19)

ᄒᆞᆰ무저글 ᄣᅡ리니=破塊 (杜 16:66)

以上에서 열가지의 合用 並書의 例를 다 들었는데, 이 音價에 對해서는, 單純한 된소리였다고 主張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 各 合用 글자는 제 各己 제 音價를 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訓民正音 解例에 合用 並書의 音價를 論한 데가 없다. 그러나 仔細히 檢討해 보면, 이미 이 속에는 그 音價가 暗示되어 있는 것이다.

첫째 : 訓民正音에는 28字母의 音價를 各各 說明하고서, 「ㅼ, ㅶ, ㅴ, ㅵ」과 같은 合用字의 音價는 特別히 說明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合用字의 各글

자가 제 各己 제 音價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지니, 萬一 그렇지 않고, 「ㅶ」과 같이 合用되었을 경우에는, /ㅂ/과 /ㅈ/과는 다른 무슨 音을 나타냈을것 같으면, 解例의 性質上 반드시 한마디 그 音에 對한 說明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ㅂ/이나 /ㅈ/ 音이 全혀 發音되지 않는 곳에 「ㅂ」, 「ㅈ」을 使用하였을 理가 萬無한 것이다.

둘째 : 終聲의 合用 並書인 「흙」의 「ㄺ」은 各字가 제 音價를 가지고 發音되었을 것임은 의심할 餘地가 없는 일이며, 中聲의 合用 並書인 「과」의 「ㅘ」도 亦是 「ㅗ」와 「ㅏ」가 제 各己 제 音價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變音字 參照). 그러므로 初聲의 合用 並書도 마땅히 各字가 제 音價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合用 並書 中, 中聲 終聲에 있어서는 各字가 제 音價를 가지고 있으면서, 唯獨 初聲의 경우에만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할 아무런 理由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訓民正音 制字 方法에 대한 根本的인 檢討는 極히 重要한 일임을 銘心해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다른 方面으로 合用 並書의 音價를 考察하겠는데, 合用 並書는 그 初頭 字母에 따라 두가지로 나눌 수 있으니, 「ㅂ」 系統과, 「ㅅ」 系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두 系統의 音價는 一律的으로 다루기 어려운 點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各各 따로 나누어서 考察하기로 한다.

ㅂ 系 合用 並書

「ㅂ」 系統의 合用 並書에 있어서는, 그 /ㅂ/ 音의 存在가 아주 明白했던 모양이다. 그러므로 現代語에 있어서도 이 /ㅂ/ 音이 아직 保存되어 있는 例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쌀」의 옛말은, 앞의 用例에서 보인 바와 같이, 「ᄡᆞᆯ」인데, 現代語의 「쌀」에 있어서는 初頭의 /ㅂ/ 소리가 完全히 사라지고 말았으나, 合成語를 形成하였을 때는, 아직 이 /ㅂ/의 자취가 그대로 남아 있는 일이 있다.[41]——햅쌀, 입쌀, 좁쌀, 찹쌀, 멥쌀, 웹쌀, 따위.

(41) 이러한 例들에 관해서는 다음 文獻을 參照.

同一한 例는 다른 말에서도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씨」(種)의 文獻語는 앞에서 보인 바와 같이 「ᄡᅵ」인데, 合成語에 있어서는 初頭音의 /ㅂ/이 아직 保存되어 있다. ──웝씨, 볍씨, 따위.

「쓰-」(用)의 옛말은 「ᄡᅳ-」인데 (文獻 用例는 앞에 보였음), 이 「ㅂ」은 「몹쓸놈, 몹시」에서 남아 있고, 앞에서 引用해 보인 「ᄡᅳᆯ-」(>쓸-, 掃), ᄧᅡᆨ(>짝, 隻), ᄧᆞ-(>짜-, 鹹) 따위 말이 合成語의 第二 要素가 될 때도 亦是 그 初頭의 /ㅂ/이 保存되어 있는 例가 많다. ──휩쓸다; 사립짝; 짭짤하다.

이러한 例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싸-」(包), 「쓰-」(辛), 「뜨-」(開眼), 「때」(時)의 文獻語는 各各,

모매 藥 ᄡᆞᆫ 거슬=身藥裹 (杜 8:33)

ᄡᅳ며 ᄢᅳᆯ본 거시 (釋 19:20)

누늘 ᄣᅳ거나 ᄀᆞᆷ거나 ᄒᆞ야도 (月印 8:8)

에서와 같이 「ᄡᆞ-, ᄡᅳ-, ᄣᅳ-, ᄣᅢ(前出)」인데, 이 말들이 合成語를 이룰 때는 /ㅂ/을 保存하게 된다.

ᄡᆞ-: 휩싸다.

ᄡᅳ-: 씁쓸하다, 쌉쌀하다.

ᄣᅳ-: 부릅뜨다, 홉뜨다, 칩떠보다, 내립떠보다, 거듭뜨다, (거듧뜨다).

ᄣᅢ: 입때, 접때, 어늡때.

그리고 「길경이」(車前草)의 옛말은 「뵈ᄧᅡᆼ이」인데,

뵈ᄧᅡᆼ이부=芣, 뵈ᄧᅡᆼ이이=苢 (字會 上 15)

慶尙道에서 「뺍쨍이」라 하며, 「싸리」(荻)의 文獻語는 「ᄡᆞ리」인데,

荆…木名今俗呼荆條ᄡᆞ리 (四聲通解 下 47)

京畿道 忠淸道의 어떤 地方에서는 「비사리, 비소리」라 하는 일이 있다 하니, 이도 또한 옛 /ㅂ/ 소리의 자취이다.

또 「함께」의 옛말은 「ᄒᆞᆫᄢᅴ」이요, 「솜씨」의 옛말은 「손ᄡᅵ」(<*손ᄡᅴ)인데,

ᄒᆞᆫᄢᅴ 보ᄆᆞ로=同見 (楞 2:36)

최현배 : 고친 한글갈 p. 542 以下, 小倉進平 : 鄕歌及吏讀硏究 「된시옷」 等.

현현히 나라ᄒᆞᆯ 옴길 ᄉᆞᆫᄡᅵ돌 시험ᄒᆞ니=願試移國之手段(諭中外大小臣庶綸音)

「ᄒᆞᆫ, ᄉᆞᆫ」의 /ㄴ/이 /ㅁ/으로 바뀐 것은 뒤에 /ㅂ/이 接續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이러한 音節 初頭의 /ㅂ/이 分明히 發音되었을 것이란 證據로는, 다음과 같은 表記法의 混同을 들 수 있다. 卽:

ᄌᆞ갸 나라해서 거슬ᄡᅳᆫ 양ᄒᆞ논 難이어나 (釋 9:33)

거슬ᄡᅳᆫ 이리=逆 (杜 7: 25)

에 나타나는 「거슬ᄡᅳ-」의 音節 初頭의 「ㅂ」은, 때로는 앞 音節의 終聲으로 表記되기도 한다.

龍ᄋᆡ 거ᇑ수(주)미=蛟之橫 (杜 8:18)

슬프다 功名을 거ᇑ지ᄒᆞ니=惜哉功名忤 (杜 16:28)

終聲의 「ᆲ」은 分明히 兩音 다 發音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나니, 이 말의 音은 /ㄱㅓㅅㅡㄹㅂㅈㅡ/이다. 그러므로 「ᄡᅳ」의 「ㅂ」은 分明히 제 音價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또 「업스-」, 「업서-」(無)를 「어ᄡᅳ-」, 「어ᄡᅥ-」로 混記한 데가 보이고, 「들ᄢᅢ」를 「듧ᄭᅢ」, 「듧ᄢᅢ」로 表記한 일도 있으니, 이것은 어느쪽 表記法을 取하나 그 發音은 同一했기 때문이다.

날ᄀᆞ티 들리도 어ᄡᅳ새라…

어마님ᄀᆞ티 괴시리 어ᄢᅦ라 (時用鄕樂譜, 思母曲)

들ᄢᅢ曰蘇子 (字會 上 14)

듧ᄭᅢ심=荏 (字會 上 13)

今俗呼蘇子듧ᄢᅢ (四聲通解 上 40)

「ㅄ, ㅶ, ㅷ」 따위를 된소리 表記라 解釋하는 사람이 있는데, 「ᄩ」의 경우는 到底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龍歌의

紂出闕失 닌ᄎ켜시 (용 7:23)

의 「ᄎᄏ」은 ㅊ과 ㅋ의 子音 結合으로 밖에 달리 볼 道理가 없는 것이다. 「ᄎᄏ」

을 子音 結合으로 보아야 하므로, 「ㅲ」도 亦是 그렇게 보아야 하며, 따라서 「ㅄ, ㅶ, ㅳ」들도 亦是 子音 結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外國 文字로의 音譯 方法으로 보더라도 위에서 斷定한 事實을 傍證한다. 孫穆의 鷄林類事에,

"白米曰漢菩薩 粟曰田菩薩"

이라 있는데, 이 「菩薩」은, 여러 사람이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李朝 初期語의 「ᄡᆞᆯ」에 해당되는 高麗語이다. 그리고 寺島良安의 「和漢三才圖會」에 「쌀」을 「ピサル」라 했고, 雨森芳洲의 「朝鮮物語」에도 「ヒサリ」라 했다 하니, 모두 「ᄡᆞᆯ」을 表記한 것들이다.(42)

ㅅ 系 合用 並書

「ㅅ」系의 合用 並書의 音價도 「ㅂ」系의 경우와 같이, 各字가 제 音價를 가졌던 것으로 推想된다. 그 理由는,

첫째, 訓民正音 解例에 依하면, 「ㅅ」 系의 合用 並書도 「ㅂ」系와 꼭 같이 다루어져 있어서, 여기 조금도 差異를 두지 않았다.

"初聲二字三字合用並書 如諺語ᄯᅡ爲地 ᄧᅡᆨ爲隻 ᄢᅳᆷ爲隙之類" (合字解)

라 하여 「ᄯᅡ」의 「ㅼ」이나 「ᄧᅡᆨ」의 「ㅶ」이나 다 같이 合用 並書라 하여 說明하였다. 萬一 「ㅶ」은 各字의 소리가 그대로 나는 데 比해서, 「ㅼ」은 各字의 音이 그대로 나지 않았더라면, 여기 무슨 解明이 있어야 할 일인데도, 그런

---

(42) 小倉 : 前揭書(註 41) pp. 562—3 參照. 그러나 이러한 例들은 어데까지나 傍證資料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여기에서 確證을 얻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高麗時代에 「菩薩」이라 發音됐다고 해서, 그 事實이 바로, 李朝初期에도 初頭에 /ㅂ/音이 發音되었었다는 何等의 證據가 되는 것이 아니며, 日人들의 記錄은 우리 「ᄡᆞᆯ」이란 表記法을 글자 그대로——實地 發音은 들어보지도 못하고——옮겨 쓴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比較言語學的인 方法에 依해서 子音群의 音價를 推定하는 것도 重要한 方法이기는 하나, 이것도 傍證의 資料로서는 꽤 重要한 것이나, 이것만으로써는 李朝初期 音價의 確證이 되지 못함은 「菩薩」의 경우와 매한가지다. (「菩薩」의 경우보다 더 不確實하다)

解明이 全혀 없이, 이 두가지 並書를 同等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이것들이 다 같이, 各 音價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外國語音을 音譯할 경우에 st, sp와 같은 子音群을 「ㅼ, ㅽ」으로 表記하였다. 「五大眞言集」은, 唐나라의 僧 不空이 詔書를 받들어 印度의 梵字로 적힌 佛教의 眞言을 漢字로 音譯한 것을, 德宗 王妃가, 正音이 만들어진 지 約 20年 뒤에, 正音으로 音譯시킨 冊이다. 이 冊의 漢字 音譯과 한글 音譯과 그리고 梵音의 로마字 轉記를 對照하면 다음과 같다.[43]

娑多 ㅼㅏ stha

史擔 ㅼㅏㅁ stham

娑底也 ㅼㅑ stya

耨娑 노ㅽㅏ dusva

娑普哩哆 ㅽㅓ리다 sporita

瑟耻帝 ㅼㅣ뎨 sthite 等等.

五大眞言의 梵語의 音譯에 나타난 事實은, 筆者가 알기로는 최 현배님이 처음으로 지적한 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매우 重要한 事實이므로 그 音譯法을 좀더 자세히 소개하면;

「ㅅㄴ」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分明히 [sn] 發音의 表記이다. 그 61帳, 70帳, 94帳에 漢字 音譯의 「瑟抳」를 「ㅅ니」로 表示하고 있으니, 梵字의 知識을 빌리지 않더라도, [s] 發音이 初頭에 있었음은 分明한 事實이다. 더구나 같은 말을 66帳에서는 「스니」로 表記하고 있으니, 이 事實은 더욱 明白해진다.

「ㅅㅁ」도 나타난다. 「娑麼」를 87帳에서는 「ㅅ마」로 表記하였으니, 亦是 初頭에 [s] 音이 있었음이 分明하며, 더구나 같은 말을 96帳에서는 「사마」로 表記하였으니, 이 事實은 더욱 明白해진다.

「ㅅㅌ」이 보인다. 46帳, 47帳, 57帳에서 「瑟耻」를 「ㅅ티」로 表記했는데, 이것도 [st^h] 音이었을씨 分明하다.

그리고 「ㅼ, ㅺ, ㅽ」도, 그 漢字 表音과 對照해 보면, 모두 初頭에 [s]音

(43) 최현배 : 고친 한글갈 p. 558

이 發音되었음이 分明하다.

瑟鵠 ᄯᆞᆷ, 史擔 ᄯᅡᆷ, 婆多 ᄶᅡ, 翠堵 ᄯᅩ; 婆普 ᄲᅩ, 瑟破 ᄲᅡ; 塞訖哩 ᄶᅳ리

漢字 音譯의 初頭字는 分明히 [s] 音을 表記한 글자이니, 그것을 나타낸 「ᄯᅩ, ᄲᅥ, ᄶᅵ」의 「ㅅ」도 [s]를 表記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세째, 「ᄡ」가 [ps] 發音의 表記라는 것이 確認된다면, 「ᄢᅵ」이나 「ᄣ」도, 亦是 그 첫머리에 「ᄡ」을 가졌으므로, 여기에도 [ps]가 發音되었다고 보는 것이 當然한 일이다.

네째, 15세기 中期에 된 海東諸國記의 語音飜譯에는, '淸早'의 琉球語를 「ᄯᅩ믜디」라 하였는데, 이것은 「ツトメテ」(現代語로는 sutumiti 또는 sitimiti 라 한다)의 音譯이다.(44)

앞에서 말한 和漢三才圖會에 '地'를 「スタグ」라 하고, 朝鮮物語에는 '帶'를 「ステ」라 하였는데, 이것은 「ᄯᅡᇰ」「ᄯᅴ」의 音譯이다.(45)

다섯째 : 日語의 「シトギ」(粢餠)는 우리말의 「ᄯᅥᆨ」과 同源일 것이며, 「シトミ」(苫)는 「ᄡᅳᆷ」과 同源일 것이니, 이것으로 보더라도 「ᄯᅥᆨ, ᄡᅳᆷ」의 初頭音은 元來는 [s] 音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46)

여섯째 : 三國史記에 '舒發翰', '舒弗邯'이 '角干'과 同意라는 記錄이 있는데, 이로써 보면, '角'의 新羅語가 '舒發' 또는 '舒弗'임을 알 수 있으니, '角'의 初頭音은 [s] 音이었음이 分明하다. 그런데, 한편 李朝 初期語로는 角은 「ᄲᅳᆯ」이니, 이 「ㅅ」은 [s] 音이었던 것이다.(47)

일곱째 : 平北 慈城 江界 等地의 '심만이말'에 「떡」을 「시더구」라고 하는데, 이것도 李朝 初期語의 「ᄯᅥᆨ」의 初頭 ㅅ音이 「시」로 남은 것으로 생각된다.

---

(44) 伊波普猷 : 南島方言史攷 p. 75 參照.

(45) 이 資料나, 그리고 다음의 다섯째, 여섯째의 資料는 傍證으로는 重要한 것이나, 確證 資料로는 危險性을 內包하고 있음을 留意해야 할 것이다. (註 42 參照)

(46) 고친 한글갈 p. 559 (앞 註 參照),

(47) 고친 한글갈 pp. 556-7. 新羅 時代에 「角」의 初頭音이 [s] 音이었다고 해서 李朝 初期語에 있어서도 亦是 그랬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多少 危險한 일이나, 그러나 이러한 資料는 傍證 資料로서는 매우 重要한 價値를 가지는 것이다.

여덟째 : 「ᄮ」(사히)은 [sn] 以外의 다른 소리로 생각할 道理가 없다. 그러므로 [ᄯ, ᄲ, ᄭ]의 「ㅅ」도 [s] 音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以上에 列擧한 여러가지 資料로써 보면, 「ㅅ」 系統의 合用 並書도, 「ㅂ」의 경우와 같이, [s] 音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한가지 이러한 斷定을 困難하게 하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갓가~가ᄭᅡ」와 같은 混記例이다.

이러한 混記例는 꽤 많은데, 다음에 몇가지 例示한다.

갓ᄀᆞᆯ(月印 1:17), 갓ᄆᆞ니(杜 16:57)──가ᄉᆞ라(月印 7:8), 가ᄭᅡ(釋 13:20)

닷가(月印 2:25), 닷곤(月印 2:37)──다ᄉᆞ라(月印 7:14), 다ᄭᅡ(釋 13:20)

깃브다(석 13:7)──기ᄲᅳ긔ᄒᆞ고라(석 13:25)

갌도라놀(月印千江之曲 上, 其 151)──감ᄯᅩᄂᆞ니(月印 1:30)

이러한 混記例는 앞에서 말한 「거슯즌~거슬쁜」의 경우와 그 事情을 달리한다. 「ㄼ」 終聲의 「ㅂ」은 內破音이기는 하나 결국은 /ㅂ/ 音素에 屬하는 것이나, 「ㅅ」이 終聲(音節의 末音)으로 날 때는 內破音 [t'] 로 發音되는 것이니, 이것은 /ㅅ/ 音素에 屬하지 않고 /ㄷ/ 音素에 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닷가」와 「다ᄭᅡ」가 同一한 發音의 表記法이라 한다면, 「ᄭᅡ」의 「ㅅ」은 「닷」의 「ㅅ」과 같이 內破音의 [t'] 音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또 釋譜詳節 6:10에 「안ᄶᅥ」란 表記法이 보이는데, 이것은 「앉디」의 表音的 表記法이니, 「ᄶᅥ」의 初頭의 「ㅅ」이 [s] 音으로 發音되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事實로 본다면 「ᄭ」은 [t'k]로 發音되었으리라 추측되며, 「ᄲ, ᄯ」의 ㅅ도 亦是 이러한 舌端 內破音이었으리라 추측해 볼 수 밖에 없어 보인다.(48)

(48) 筆者는 이 冊의 初版에서 이러한 斷定을 내린 일이 있었다.

ㅅ 終聲

그러나 이러한 추측은, 15세기 국어의 終聲(音節의 末音)의 組織이 現代語와 같았으리란 前提下에서만 可能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 當時의 終聲 組織이 果然 오늘날과 完全히 같았을까, 한번 再檢討해 보지 않으면 안됨을 느끼게 되는데, 結果부터 말한다면, [s]와 같은 摩擦音이 音節의 終聲에 설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 理由로는:

첫째, 15세기 文獻의 表記法은, 月印千江之曲의 部分만 除外하면, 모두 거의 正確한 表音的 表記이어서, 한 音節은 항상 한덩이로 뭉쳐져 있다. 그러므로 받침은 바로 發音에 있어서의 終聲을 表示하는 것이 原則인데, 받침으로 쓰인 「ㅅ」이 分明히 [s]로 發音된 例가 많이 보인다.

닛위여(月印 2:50, 月印 8:75, 月印 10:25)

짓와괘요매(蒙山 法語 1), 붓아(月印 21:131)

엿이(月印 2:76), 앗이라(석 13:2),

긋우믄(杜 15:25), 빗어(月印 7:3),

이러한 例들의 받침 「ㅅ」은 終聲으로서의 [s] 音을 表記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 點으로는 「ㅿ」도 한가지인데(pp. 300—3 참조), 받침으로 쓰인 「ㅅ, ㅿ」이 分明히 [s, z]로 發音된 例가 많고, 받침은 바로 終聲임을 表記한 것이니, 다른 경우의 「ㅅ」 받침도 [s] 終聲으로 읽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둘째, 訓民正音 解例에 終聲을 여덟으로 定하고 있는데, 일곱은 현대어의 경우와 같으나 「ㅅ」이 하나 더 있다. 그리고 實際 表記에도 보면 「ㅅ」 받침과 「ㄷ」 받침을 쓴 자리는 잘 決定되어 있어서 좀처럼 混用되는 일이 없다. 八終聲은 發音대로 적을 경우의 終聲의 數를 말함인데, 終聲을 여덟으로 定하고, 表記法에 있어서도 「ㅅ」과 「ㄷ」의 混用이 거의 없다는 事實은, 「ㅅ」과 「ㄷ」 받침이 發音上으로도 差異가 있었음을 證明하는 것이다.

갇(笠)—갓(妻)

긷(柱)—깃(巢)

ᄀᆞᆮ(如)—ᄀᆞᆺ(邊)

몯(兄)—뭇(最)

세째, 앞에서 「ㅿ」의 音價를 論하는 자리에서, 「ㅿ」(z) 音이 終聲(이 말은 表記法의 「받침」으로가 아니라, 發音에 있어서의 音節의 末音의 뜻으로 使用된다)으로 쓰일 수 있음을 보았는데, [z]와 같은 摩擦音이 終聲이 될 수 있었다는 點으로 보면, 그와 아주 가까운 [s] 音도 終聲이 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현대어에 있어서도 「듣습니다, 듣소」의 「ㄷ」 받침은 內破音 [t'] 로 나지 않고 [s]로 나게 되는 點이 이와 비슷하나, 이것은 다음에 [s]가 와야만 한다는 局限된 條件下에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네째, 「갓나ᄒᆡ」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ᄯᅡᄒᆡ」에 接頭辭 「가-」가 連結된 것이므로 [kasna-]란 發音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갓」의 「ㅅ」 받침은 [s]로 읽혀진다. 이 말이 [kasna-]로 發音되었기 때문에, 後期 文獻에는 「가ᄉᆞ나ᄒᆡ」로 表記된 데가 나타난다.(慶尙道 方言 「가시나」와 比較할것.)

ᄯᅡᄒᆡ 소리 갓나ᄒᆡ 소리(釋 19:14)

少女ᄂᆞᆫ ᄀᆞᆺ난 가ᄉᆞ나ᄒᆡ라(七大萬法)

[女孩兒 간나ᄒᆡ(字會 上 32)]

다섯째, 「華夷譯語」는 訓民正音 創製의 半世紀 程度 以前에 만들어진 것인데,[49] 그 中의 「朝鮮館譯語」에는 우리말의 入聲 終聲의 「-k, -t, -p」는 全혀 反影되어 있지 않다.

山高	=	磨那大	(뫼놉다 ← 높-)
田	=	把	(받 ← 밭)
陽	=	別	(벋 ← 볕)
猪	=	朶	(돋 ← 돝)
鼓	=	卜	(붑 ← 붚)
筆	=	卜	(붇)

(49) 李基文 : 「李朝館譯語의 編纂年代」(서울大學校 文理大 發行, 文理大學報 第5卷 第1號)에는, 그 편찬 年代를 15 세기 初期로 보고 있다.

絹　= 去　　　(깁)

飯　= 把　　　(밥)

이것은, 그 當時의 中國語에 入聲 終聲이 없었으므로, 국어의 入聲 終聲을 거의 청취하지 못했었기 때문이라 믿어진다. 그러나 「ㅅ, ㅈ, ㅊ」 終聲은 꽤 充實히 反影시켜 놓았다.

花　= 果思　　(곳 ← 곶)

城　= 雜思　　(잣)

松子 = 雜思　　(잣)

衣　= 臥思　　(옷)

皮　= 戛尺　　(갓 ← 갗)

面　= 赧思　　(ᄂᆞᆺ ← ᄂᆞᆾ)

皮鼓 = 戛尺卜　(갓붑 ← 갗붑)

그러나 이것이 句中에 나타날 때는 제대로 表記 못한 例도 있다.

出城 = 雜那戛大

이러한 事實로 보면 「ㅅ」 終聲은, 單純한 入聲과는 달라서, 充分히 청취될만치 [s] 音으로 發音되었던듯 하다.

「思」 字가 語末의 [s] 發音을 表記했다는 事實은, 같은 華夷譯語의 韃靼館譯語에도 나타난다. 卽 中期 蒙古語의 tahus(>現代 蒙古語 tūs, 孔雀)는 「討兀思」로 表記되어 있다.(50)

---

(50) 이러한 例는 여러가지 있는 모양인데, 이 例는 金芳漢교수에게서 提供 받았다. 그리고 또 18세기에도 받침의 「ㅅ」이 [s]로 읽혀진듯한 흔적이 있다. 蒙古語의 bars(虎)는 三學譯語(1789年)에는 「밨」(1 : 6)로, 蒙語類解(1790)에는 「발ᄉᆞ」(1 : 5)로, 方言集釋(1778)에는 「밠」(1 : 6), 또는 「발ㅅ」(4 : 13)로 적혀 있다(金芳漢 : "「三學譯語」 所載 蒙古語에 關하여"——文理大學報 第十一卷 第一號——에 依함)

또 同文類解의 滿洲語 表音에도 받침의 「ㅅ」은 [s]音의 表記로 使用되어 있다.

寅 : 탓하 = tasha

左 : 핫후 = hashū

順從 : 다핫훈 = dahashūn

行虐 : 옷호돔비 = oshodombi

一條 : 어무 줏탄 = emu justan

이에 比해서 「ㄷ」 받침은 [t]를 표기한다.

脚 : 벋허 = bethe

勿論 18세기 末期까지 받침의 「ㅅ」이 [s]로 읽혀졌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나, 이것은 혹시 數世紀 동안 내려오던 慣習의 탓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그러므로 「思」를 끝에 붙였다고 해서, 반드시 이 말들이 두 音節로 發音되었다고 생각할 必要는 없다. 다만 「戞尺」는 두 音節이었을는지 모르겠다.[51]

여섯째, 訓民正音 終聲解에,

"不淸不濁之字 其聲不厲 故用於終則宜於平上去 全淸次淸全濁之字 其聲爲厲 故用於終則宜於入 所以ㆁㄴㅁㅇㄹㅿ六字爲平上去聲之終 而餘皆爲入聲之終也"

란 말이 있다. 이에 依하면 「ㅅ」도 入聲 終聲에 들게 된다. 이로써 보면 「ㅅ」 終聲은 摩擦音이 될 수 없을것 같으나, 入聲은 반드시 停止音임을 要하는 것은 아니다. 要는 母音을 빨리 끊어버리는 것이 入聲의 本質이다. 그러므로 入聲 終聲과 非入聲 終聲의 差異는, 無聲音과 有聲音에 있는 것이지, 停止와 非停止, 卽 瞬間性과 持續性에 있는 것은 아니다.

「ㅅ」 終聲이 入聲이 된다는 事實은, 이것이 無聲音임을 말하는 것은 되어도, 停止音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非入聲의 終聲은 모두 有聲音인 것이다.

이렇게 推理해 나가 보면, 그 當時에는 音節의 終聲으로서 [s-z]가 使用될 수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닷가」나 「다까」나 다 같이 [taska] 音이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終聲의 「ㅅ」 發音이, 바로 相當히 強한 摩擦을 가진 [s] 音이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筆者의 생각으로는, 「듣소」의 「ㄷ」 發音 程度의, 매

(51) 終聲의 「ㅅ」은 꽤 忠實히 表記하고 있으나, 初聲의 子音群은 全혀 反影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그들의 音素 組織으로 보아 있음직한 일이기도 하다.

地=大̊ (쌰)

水急=罒迫̊勒大 (믈 섇르다)

이러한 事情은 「ㅂ」系에서도 한가지다.

米=色二 (ᄡᆞᆯ)

摘果=刮世大̊臥那刺 (ᄠᆞ-)

우 間隙이 좁으면서도 그 摩擦은 매우 弱한 [s] 音이 아니었을가 추측된다. 「듣소」의 「ㄷ」 소리는 內破音 [t']와 區別되기 어려울 程度의 漸弱音이며 間隙이 좁은 소리이다. 그러므로 「갓나히」의 [kas'na-]가 한편으로는 [s] 소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ᄉᆞ나히」 (>가시나)로 變하기도 하나, 한편으로는 [s']가, 그 弱한 摩擦과 좁은 間隙으로 內破音 [t']로 變하여 [kat'na-] →[kanna-]로도 變한 것이다. (간나히).

以上을 要約하면;

1. 「ㅅ」系 初聲 並書의 「ㅅ」은, 摩擦이 弱하고 間隙이 좁은 [s]이다.
2. 終聲의 「ㅅ」도 亦是 이러한 소리로서 漸弱音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마찰이 매우 弱하고 間隙이 좁기 때문에 終聲의 「ㅿ」과 거의 잘 區別이 되지 않으며, 이것은 內破音 [t']에 매우 가까운 소리로서 자칫하면 [t']로 바뀔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다. 따라서 終聲의 「ㅿ」은 「ㅅ」과 다른 別個의 音素를 形成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것은 八終聲法의 規定으로도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할 것이다.

[附記] 「ㅅ」系 並書에 대해서는, 이것이 된소리를 表記한 것이란 見解가 있다.[52] 그러나 筆者의 생각으로는, 된소리를 表記하는 方法이 따로 있는데 (ㄲ, ㄸ, ㅃ, ㅉ, ㅆ——바로 뒤에 說明), 어째서 같은 소리를 두가지로 表記했을까 하는 회의가 생겨난다. 勿論 한 音素를 表記하는 方法이 꼭 한가지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나, 李朝 初期의 表記法은 꽤 整然한 表音的 表記法을 取하고 있는데도, 「ㅅ」系 並書와 雙書와의 混記例는 發見하기 힘들 형편이니, 같은 音素를 表記하는 데, 그렇게 整然하게 두가지 方法을 分別했을까가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ㅅ」系 並書와 雙書는 亦是 音

(52) 이에 대해서는 다음 論文 참조.
李崇寧 : 中世國語文法(乙酉文化社刊, 1961) p. 17.
李基文 : 語頭子音群의 生成 및 發達에 對하여(진단학보 17 호)

素的 差異를 反影한 것으로 생각하려는 것이다.

「ㅅ」系 並書가 된소리를 表記한 것이었다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梵語나 流球語의 音譯例에 대한 說明이 되지 않는다. [st, sp, sk]를 왜 된소리로 表記해야 했을까? 그것도 이러한 소리를 表記하는 方法이 全혀 없었더라면 또 몰라도, 「悉扼」를 「씨」 또는 「ᄉᆞ니」로, 「娑麽」를 「ᄭᅡ」 또는 「사마」로 表記했듯이, 「娑普」는 「ᄉᆞ보」 따위로, 된소리보다는 더 적절하게 表記할 方法은 얼마든지 있지 않았던가?

그리고 또 「ㅅ」系 並書를 된소리로 보게 되면, 그 當時에는 「ㄱ, ㄷ, ㅂ」의 된소리는 있었으나 「ㅈ」의 된소리는 없은 셈이 되니, 이것은 音素組織의 均衡으로 보더라도 있음직한 일이 아니다. (「ㅺ, ㅼ, ㅽ」은 있으나, 「ㅾ」은 없었기 때문이다)

勿論 「ㅅ」系 並書를 된소리로 볼만한 表記例는 若干 없는 바 아니다. 그것은 멀리까지 갈 必要도 없이, 앞에서 내세운 「안ᄯᅵ」 따위가 그것이다. 그러나 「ㅅ」을 된소리로 보게 되면 위에서 말한 바 根本的으로 解決되지 않는 難關이 몇가지 가로 놓여 있음을 우리는 보았다. 雙書가 된소리의 表記法이었다는 것은, 筆者로 볼 때는 의심할 餘地 없는 事實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事實을 認定한다면, 어째서, 된소리를 表記하는 文字를 의젓이 制字하고, 全濁으로서 解說까지 해놓고, 局限된 一部에서만 雙書를 使用하고, 다른 大部分의 된소리는 「ㅅ」系로 表記하면서, 解例에 이에 대한 一言半句의 解明이 없는 것일까? 解例에는 「ᄯᅡ」는 「ᄧᅡᆨ」과 같이 엄연히 合用 並書로 說明되어 있지 않은가? 어째서 된소리 表記法을 雙書로 만들어 놓고, 다시 그 된소리를 표시하는 「ㅼ」을, 分明히 子音群으로 보아지는 「ㅵ」과 같이 解說했을까? 이러한 事實들이 分明히 解明되지 않고서는 「ㅅ」系가 된소리였다는 斷定은 너무 빠른 感이 없지 않다.

우리는 몇가지의 周邊的 事實로써 一般的으로 普遍性을 띤 事實을 否認하는 態度를 取할 것이 아니다. 「ㅅ」 系를 된소리로 볼만한 몇가지 事實은, 筆者가 볼 때는, 앞에서 筆者가 提示한, 된소리로 볼 수 없는 諸般 事情에

比하면, 周邊的 事實로 밖에 認定되지 않는다.

外國語의 音譯의 경우, 雙書를 된소리의 表記 文字로써 正式으로 制字해 놓았는데도, 雙書와 「ㅅ」系 並書와의 整然한 區別 表記, 「ㅉ」은 있으면서 「ㅆ」은 없다는 音素 體系上의 문제 等은, 「안ㅉ」 外 몇가지 例에 比하면 그 比重은 더 무겁고 더 重要한 中心的 事實이다.

그러면 이러한 矛盾에 處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判定해야 할 것인가? 몇가지의 周邊的 事實이라면, 이것은 一種의 例外로 돌릴 수도 있는 문제이요, 個人的 發音의 一時的인 反影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일이요, 또는 誤記이거나 때로는 誤刻일 수도 있는 문제이다. 몇개의 例外的 事實이 때로는 重要한 경우도 있음을 否認하려는 것은 아니나, 그와 反對되는 事實이 더 強力하고 普遍性을 띠고 나타날 때는, 우리는 亦是 後者를 中心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서기 1440年代의 文獻에서도, 「ㅸ」과 半母音의 「오,우」가 任意로 變異되는 일이 있다고 해서, 「ㅸ」은 모두 半母音이라고 判斷해서는 안되는 것은, 그 當時 文獻의 表記法의 全體的인 狀況이 이것을 不許하기 때문이니, 「ㅅ」系 並書와 雙書의 경우에도 이러한 推理 方式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各自 並書]

各自 並書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ㄲ, ㄸ, ㅃ, ㅉ, ㅆ, ㆅ, ㆀ, ㅥ」의 여덟가지인데, 이 中 「ㄲ, ㄸ, ㅃ, ㅉ, ㅆ」의 다섯은 現在에도 쓰이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擧論할 必要가 없을것 같으나, 그러나 이것도 正音 制定 當時부터 繼續해서 使用되어 내려온 것이 아니라, 中間에 一旦 廢棄되었다가 最近 「통일안」에서 復古한 것이며, 어떤 분은 이러한 字形이 現代語에서 使用되는 것과 같은 된소리 表記가 아니었다고 主張하는 일도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 여덟 字의 音價를 아울러서 論하기로 한다.

各自 並書(雙書)의 音價에 對해서 訓民正音에는 다만,

"全淸並書則爲全濁 以其全淸之聲凝則爲全濁也"(制字解)

라 하였을 뿐 別다른 說明이 없다. 그러면 凝=「엉긴다」란 무슨 말인가?

筆者는, 凝이란, 된소리의 聽覺 印象을 表現한 말이었다고 생각한다. 무릇 「엉긴다」란, 液體가 濃化하는 過程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엉긴다」란 말은 語感上으로는 「되어진다」와 通한다. 「ㄲ, ㄸ, ㅉ」 따위 소리를 現在 우리가 「된소리」라 함은, 이 소리들의 청각 인상으로 말미암아 붙인 名稱이니, 이것은 李朝 初期 語學者들이 「凝」이라 한 것과 서로 비슷한 表現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筆者는 「凝」은 「된소리」의 인상을 表現한 말로 解釋하고 싶으나, 그러나 이것은 매우 主觀的인 判斷이어서, 이러한 事實만으로써 그 音價를 判斷하는 것은 매우 危險한 일이다.

그러나 다음에 列擧할 몇가지의 雙書 使用例로써, 우리는 이것이 오늘날과 같이, 된소리를 表記했던 것임을, 거의 疑心할 餘地없이 믿게 되는 것이다.

첫째, 現代語에 있어서, 웃 音節의 끝소리가 無聲 子音이고, 아래 音節의 첫 소리가 亦是 無聲 子音일 때는, 아래 音節의 첫 子音을 된소리로 내는 發音 慣習이 있다.

믿고→믿꼬, 찾지→찾찌, 맞다→맞따 等等.

이러한 경우에, 옛 文獻에서는, 아래 音節의 첫 소리를 雙書로 적은 것이 나타난다. 이러한 發音 習慣은 自然的인 傾向으로서 예나 이제나 다름 없다고 보는 것이 一般的인 常識이겠는데, 그렇다면 雙書는 된소리로 보는 것이, 이 表記法을 理解하는 方便이 된다.(53)

(53) 雙書를 된소리의 表記法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 中에는, 여기 들어 說明한 事實로써, 그 證據를 삼으려는 일이 있다. 即 無聲 子音 밑의 無聲 子音은 된소리가 되므로, 雙書가 된소리를 表記한 것이었다면, 이런 경우의 아랫 子音은 모두 雙書로 表記되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事實은, 「닙ᄼ밤 (月印 1:3), 받ᄌᆞᄫᆞ니(月印 1:3), 오ᄉᆞ란 밧고(月印 1:5), 닫다마(月印 1:7), 다ᄉᆞᆺ줄기(月印 1:10)」 들 例와 같이 아랫 子音은 軟音으로 表記되어 있으니, 이것은 雙書가 된소리 表記가 아니라는 증거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反駁은 無聲 子音 밑의 無聲 子音은, 軟音과 硬音이 中和된다는 事實을 忘却한 것이다. 即 無聲 子音 밑의 硬音과 軟音은 그 對立이 中和的이기 때문에, 事實上 이 位置에서는 그 어느편으로 發音되는지 確言하기 어려울 程度이다. 따라서 表記法에 있어서도 이러한 混記가 나타나는데 지나지 않는다.

듭ᄊᆞᆸ고 (月印 7:37) ← 듶ᄉᆞᆸ고

노ᄊᆞᆸ고 (月印 7:24) ← 놓ᄉᆞᆸ고

녀ᄊᆞᆸ고 (月印 1: 7) ← 녛ᄉᆞᆸ고

연ᄍᆞᆸ고 (月印 2:39) ← 엱ᄌᆞᆸ고

조ᄍᆞᆸ고 (月印 2:17) ← 좇ᄌᆞᆸ고

마ᄍᆞᄫᅵ (용 95) ← 맞ᄌᆞᄫᅵ

둘째, 현대어의 冠形詞形 語尾「-ㄹ」밑에서는, /ㄱ,ㄷ,ㅂ,ㅈ,ㅅ/과 같은 子音은 된소리로 發音되는 것인데, 옛날에는 그 사이에 無聲의 休息(喉頭 閉鎖)을 넣는 것이 原則이었던 듯하여 「ㆆ」을 여기 表記하게 된다.

이시ᇙ저긔(釋 9:16), 호ᇙ저긔(月印 21:159), ᄲᅳᇙ거시(釋 9:5), 가ᇙᄃᆡ(釋 9:7)等等. 그런데 無聲의 休息(喉頭 閉鎖) 다음의 子音은, 된소리로 變할 可能性이 強했으리란 것은 能히 추측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러한 경우에 아래 子音을 雙書로 表記하는 일도 있었다.

ᄒᆞ실쩌긔(釋 9:3), ᄒᆞᆯ쩌긔(釋 9:18), 여흴쩌긔(月印 21:119), 莊嚴ᄒᆞᆯ 껏과(釋 19:41) 等等. (p. 295 註 17 참조)

세째, 所謂 '사잇소리'도 無聲의 休息을 의미함이었는데, 이 경우에도 아랫 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경향이 있어, 이것이 雙書로 反影되는 일이 있다.(아래의 「3」 보라). 사잇소리의 表記法은:

1. 웃 말이 漢字語일 때는, 두 말 사이에 '사잇소리'를 둔다.

   몃 間ㄷ 지븨(용), 君ㄷ字(訓) 等等.

2. 웃 말을 正音으로 表記했을 때는, 사잇소리를 웃 말의 終聲으로 붙인다.

   나랏 小民, ᄒᆞᆫ잣 ᄉᆞ싀, 사ᄅᆞᆷ ᄠᅳ디리잇가 (以上 龍歌) 等等.

3. 아랫 말이 순 우리말인 경우에는, 그 첫 소리를 雙書로 表記하는 일이 있다.

   엄쏘리, 니쏘리, 혀쏘리 (以上 訓民正音), 두 鐵圍山 ᄊᆞ싀 (月印 1:28) 等等.

그리고,

눇ᄌᆞᅀᆡ(月印 2:41), 눇ᄌᆞᅀᆡ며(月印 1:13)

의 「눇」의 「ㅅ」도 사잇소리이니, 「ᄌᆞ」의 「ㅈ」은 된소리로 변할 可能性이 많은데, 同時代의 文獻에 雙書로 表記한 것이 나타난다.

눈ᄍᆞᅀᆞ로(楞 2:109), 눈ᄍᆞᅀᆡ(楞 3:1)

그리고 다음과 같은 例도 參照할 것.

ᄉᆞᆲ지거니와(楞 2:9), ᄉᆞᆲ지나(楞 2:10)——살ᄶᅵ여(楞 2:5)

네째, 以上 例示한, 雙書로 表記된 말이, 現代語에서 使用될 경우에는, 모두 된소리로 發音되는 것이며, 그 以外에도 옛 文獻에 雙書로 表記된 말은 現代語에서 거의 다 된소리로 내고 있다.

말ᄊᆞᆷ, ᄡᅳ다, ᄡᅡ호다, 볼쎠, 아ᅀᆞᄫᆞᆯᄭᅡ(용), 목숨미 몯 이실ᄭᅡ 너겨(月印) 等等.

以上에서 들어 말한 여러가지 言語 事實로 보아서, 各自 並書가 '된소리'를 表現했던 것임은 거의 의심할 餘地가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여덟가지 雙書中 現在에도 쓰이고 있는 「ㄲ, ㄸ, ㅃ, ㅉ, ㅆ」은 여기에서 問題되지 않고, 다만 現在 쓰이지 않는 雙書 「ᄔ, ᅇ, ㆅ」의 音價를 밝혀야 할 것이다.

[ᄔ]은 예사 /ㄴ/보다 혀끝을 잇몸에 단단하게 붙이고, /ㄴ/보다 오래 막아두는 소리이니, 發音 符號로는 [nː] 또는 [nn]로 表示할 수 있는 소리에 不過하다. 그러므로 「ᄃᆞᇂᄂᆞ니라」의 「ㅎ」音이 「ㄴ」에 同化되어서 「ㄴ」으로 變하여 「단ᄂᆞ니라」로 된것을 (cf. 놓는다→논는다) 「다ᄔᆞ니라」(訓)로 表記한다. 그리고 「슬ᄔᆞ니」(←슳ᄂᆞ니, 楞 2:9)의 「ᄔ」도 亦是 同一한 要領으로 내는 音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ᄔ」은 語頭에 올 수는 없고, 그 使用例도 極히 드물다. 뿐아니라 이러한 音은 現代語에서 얼마든지 나타나지마는 우리는 이것을 獨立한 音素로 看做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ᄔ」은 한 獨立된 音素로 볼 것이 아니

라, 單純히 /ㄴ/의 二重 子音(double consonant)으로 볼 것이라 생각된다

[ᅇ]은 그 用例로 보면 대개 [j]에 連結되어 있음이 예사이요, [i]에 連結되어 있는 것도 보인다.

使ᄂᆞᆫ 히ᅇᅧ ᄒᆞᄂᆞᆫ 마리라(訓), 生死애 ᄆᆡᅇᅮᆫ 根源 (楞 5:5)

王이 威嚴이 업서 ᄂᆞᄆᆡ 소내 쥐ᅇᅧ 이시며(月印 2:11)

解脫ᄋᆞᆫ 버서날씨니…드트릐 얽ᄆᆡᅇᅲ미 아니 ᄃᆞ욀씨라(釋 6:29)

婆稚ᄂᆞᆫ 얽ᄆᆡᅇᅧ다 ᄒᆞᆫ 마리니…帝釋손ᄃᆡ ᄆᆡᅇᅧᄂᆞ니라(釋 13:9)

長常 業報애 ᄆᆡᅇᅧ(月印序 3), 네몸 메ᅇᅲᆫ 寶車(釋 13:19)

사ᄅᆞᄆᆡ게 ᄆᆡᅇᅧᆫ 고ᄃᆞᆯ 긋 아라(蒙山 19)

「ㅇ」은 音價가 全혀 없는 것이니, 「ㅇ」의 된소리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ᅇ」은 「ㅇ」의 된소리가 아니라, [j]나 [i]의 된소리(?)라 할 만한 것이다. 곧 「ᅇᅧ, ᅇᅭ」 따위는 [jə], [jo]의 [j]를 普通 소리보다 그 間隙을 더 좁히고, 音聲 器官의 筋肉을, 된소리의 경우처럼 緊縮시켜서 내는 소리이며, 「ᅇᅵ」도 亦是 [i]의 間隙을 좁히고 筋肉을 緊張시켜서 내는 소리다. 그러므로 「ᅇ」과 같은 子音이 따로 있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j], [i]에 narrow(tense)와 wide(lax, loose)의 差異가 있었던 것으로 상각된다. 곧 「ᅇ」은 tense의 [i], [j]를 表記한 것이다.

그리고 tense의 [u]도 쓰였던듯 하여,

뮈ᅇᅯ 내야 싸호미 업스면 (月印 14 : 14)

과 같은 表記가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例는 매우 드물고, /i, j/의 lax와 tense 처럼 準同音語도 나타나는 일이 없다. ——괴여 : 괴ᅇᅧ(訓)——그러므로 tense의 [u]는 한 音素로는 成立되지 않는다.

[ᅘ]은 漢字音과 순 우리말 表記에 使用되어 있는데, 元來 우리 漢字音에는 그 當時 이미 全濁音(ㄲ, ㄸ…따위)이 없었던 것임은 申叔舟도 明白히 證言한 바이다.

"我國語音 其淸濁之辨 與中國無異 而於字音 獨無濁聲"(東國正韻序)

그러므로 漢字音의 ㆅ(뿐아니라 全濁音 全部)은 實地의 發音이 아니라, 單純한 機械的인 再構音에 不過하니, 여기에서는 漢字音의 경우는 考慮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순 우리말의 「ㆅ」 使用例를 살펴보면, 이것도 「ㆀ」의 경우와 같이 [j]에 連結되어 있다

혀 爲引(訓, 合字解), 넌즈시 치혀시니(용 87)

廻向은 도ᄅᆞ혀 向ᄒᆞᆯ씨니(月印 2:60), 光明을 두르혀(月印序 23)

法雲이 世界에 퍼면 됴ᄒᆞᆫ 삐 내혀ᄂᆞ니(月印 2:76)

그 겨지비 밥 가져다가 머기고 자바 니르혀니(月印 1:44)

拔은 빼혈씨니(月印序 10), 塵을 드리혈씨(楞 3:2)

緣을 그처 드위혀 照ᄒᆞ야=反照(永가 下 39)

特別히 두위혀 詰難ᄒᆞᅀᆞ오니라(楞 4:33)

「ㆅ」은 앞에서 말한 바, 「ㄴ」이나 「ㆀ」과 달라서, /ㅎ/의 된소리다. 그런데 /ㅎ/은 無聲音으로서 그 혀나 입술의 狀態는 後續하는 母音과 同一하다. 그러므로 「혀」의 /ㅎ/은, 혀와 입술을 [j]와 같이 하여 내는 無聲音이니, 이것은 [ç]에 해당되는 소리이며, 따라서 「ㆅ」은 「ç」의 間隙을 좁게 하여 摩擦을 되게 하는 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혀, 효」 따위의 /ㅎ/이 /ㅅ/으로 變하는 일이 있듯이,

　혀>세(舌), 혜다>세다(數), 효자>소자(孝子) 等等

「혀」의 /ㆅ/은 /ㅆ/으로 變하는 일이 있고,

　혀>써(썰물, 톱으로 쎈다 等)

或은 /ㆅ/의 間隙을 한층 더 좁히게 되면 「혀」는 「켜」로 變하는 것이다.

　혀>켜(켤물, 물을 켠다 等), 도ᄅᆞ혀>도리켜, 내혀>내켜, 니르혀>일으켜 等

[附記] 雙書를 된소리의 表記로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有聲音의 表記

로 보는 수 밖에 없게 된다. 卽

ㄲ=[g], ㅃ=[b], ㄸ=[d], ㅉ=[dz]

그 理由는, 中國語의 全濁音을 「ㄲ, ㄸ, ㅃ」로 表記했는데, 全濁은 有聲音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 音素가 다른 言語의 音素 體系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 代音作用이 일어날 수 있다는 事實을 忘却한 推論 方式이다. 萬一 이러한 推論 方式을 現代語의 경우에 적용한다면, 英語의 bus는 「뻐스」, boy는 「뽀이」이므로, b=ㅃ 의 等式 關係가 成立된다 하는 結果가 될 것이다. 全濁을 「ㄲ, ㄸ, ㅃ」로 표기한 것은, 中國語에 나타나는 (그것도 北方系에는 그 當時 이미 없어진) 語頭 有聲音의 [g], [d], [b] 따위는, 국어의 音素 組織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가장 가까운 된소리로 代音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雙書를 有聲音으로 보면 몇가지 解決되지 않는 現象이 나타나게 된다.

첫째, 「ㅆ」의 왼쪽 「ㅅ」은 된소리 表示 方法과 같으므로 이것은 된소리로 본다 하더라도, 「ㆅ」은 그러면 무슨 音인가? 이것도 /ㅎ/의 有聲音으로 보아야 할텐데, 「ㆅ」은 全濁이기는 하되 이것을 有聲音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ㆅ」은 分明히 '된소리' 的인 調音 方式으로 發音되는 音이다. 따라서 모든 雙書도 죄다 된소리로 보아야 한다.

둘째, 「맞+즙+이」가 「마쯧비」로 表記되고, 「좇+즙」이 「조쯥-」으로 表記되는데, 「ㅉ」이 有聲音이라면 無聲 子音의 終聲의 「ㅈ」이 다음의 「ㅈ」 初聲과 더불어 有聲化되었다고 說明해야 하겠는데, 그러한 說明 方法이 到底히 不可能함은, 더 길게 論議할 必要도 없는 일이 아닌가?

세째, 冠形詞形의 「-ㄹ」 다음에는 無聲의 休息이 있어서 (「Ⅲ, 3, 6) 사잇소리」 보라), 그 다음에 오는 /ㄱ, ㄷ, ㅂ, ㅈ/은 된소리가 되는 경향이 있음은 앞에서 說明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싫저긔」와 같은 表記와 「ᄒᆞ실쩌긔」와 같은 表記가 混用이 되는 것인데, 「ㅉ」이 有聲音이라면, 無聲의 休息 다음의 /ㅈ/이 有聲化한단 말인가?

네째, 音聲學的으로 보면, 15세기에도 現代語의 경우와 같이 有氣音(거센소리), 硬音(된소리), 軟音의 區別이 있었고, 軟音에는 有聲 無聲의 區別이 있었을 것이다. (雙書를 有聲音으로 보는 사람은, 대개 「ㅅ」系 並書를 된소리로 보기 때문에 된소리는 依然히 存在한다).

有聲音 사이의 軟音이 有聲音의 變異音으로 實現되었을 것도 事實이겠는데, 따라서 「도ᄌᆞ기, 자바, 남ᄀᆡ, 그ᄃᆡ, 주글」 따위 말의 第二·三音節의 初聲의 「ㄱ, ㄷ, ㅂ, ㅈ」은 有聲의 [g, d, b, dz]로 發音되었을 것임은 勿論이다. 그러므로 雙書가 有聲音이었다면, 이 경우의 有聲音은 雙書로 表記되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어디 「도ᄍᆞ끼, 자빠…」의 表記法이 보이는가?

다섯째, 雙書가 有聲音이고, 「ㅅ」系 並書가 된소리였다고 主張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表記 體系가 구상되는 셈이 된다.

[k^h] = ㅋ, [k'] = ᄭ, [k] = ㄱ, [g] = ㄲ

[t^h] = ㅌ, [t'] = ᄯ, [t] = ㄷ, [d] = ㄸ

[p^h] = ㅍ, [p'] = ᄲ, [p] = ㅂ, [b] = ㅃ

[ts^h] = ㅊ, [ts'] =(?), [ts] = ㅈ, [dz] = ㅉ

[s'] = ㅆ

……………(?)……………

……………………(?)……… [h'] = ㆅ

이렇게 되면 여기 몇가지 矛盾點을 發見하게 된다. 첫째, 有聲과 無聲은 한 音素의 變異音인데, 그것을 「ᄒᆞᆯ까, 올ᄯᆞᆯ」에서처럼 雙書로 反影시킬 수 있었다면, 왜 「도ᄌᆞ기」의 有聲音은 全혀 反影시키지 못했을까? 둘째, 「ㅆ」「ㆅ」의 경우에 濁音論이 成立될 수 있는가? 그것이 成立 안되는 것임은 明白한 일인데, 그렇다면 그 理由는 무엇일까? 세째, 「ᄶ」은 發見되지 않는데, 「ㅈ」의 된소리는 없었을까?

어쨌든 雙書 濁音論은 成立되기가 어려운 것임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雙書를 된소리로 認定하면서 「ㅅ」系 並書도 된소리였다고 주장하면,

[kʰ] = ㅋ,	[k'] = ㅺ, ㄲ	[k, g] = ㄱ
[tʰ] = ㅌ,	[t'] = ㅼ, ㄸ	[t, d] = ㄷ
[pʰ] = ㅍ,	[p'] = ㅽ, ㅃ	[p, b] = ㅂ
[tsʰ] = ㅊ,	[ts'] =( ), ㅉ	[ts, dz]= ㅈ
	[s'] = ㅆ	
	[h'] =( ), ㆅ	

과 같은 表記 體系가 成立되는 셈인데, 왜 된소리 音素를 表記하는 文字는 두가지로 정해야 했을까? 「ㅾ」은 왜 안 썼으며. 「ㅅ」이 된소리 표기의 符號라면 「ㅅㆆ」도 나타날법한 일이 아닐까? 「ㅰ」은 [sn]로 읽히면서, 「ㅼ, ㅽ, ㅺ」 따위는 된소리로 읽혀야 할 理由가 있을까? 外國語音의 「st, sk, sp」를 된소리 表記 文字로 表記할 理由는 무엇일까?

또 漢字音 表記의 雙書는 有聲音이고, 순 국어 表記의 雙書는 된소리라고 主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矛盾에 봉착하게 된다. 有聲音을 表記하는(?) 文字인 雙書를 의젓이 만들어 놓고, 순 국어 표기에 있어서는, 정작 有聲音으로 나는 「도ㅈ기」의 「ㅈ, ㄱ」 따위는 그 글자로 表記하지 않고, 엉뚱한 된소리를 그 글자로 表記하다니?

우리는, 15세기 語學者들의 制字 技巧와 說明 方法과 音聲學的 知識의 水準을, 좀더 높은 자리에다 두고 理解해야 할 것임을 筆者는 強調하고 싶다. 文字 制作의 技巧는 매우 優秀하며, 說明 方法은 매우 整然하며, 音聲學的 知識의 水準은 높게 評價되어야 한다. 따라서 表記法의 體系도 整然하고 組織的이란 點을 고려하여 音價를 論議해야 할 것이며, 되는대로의 無秩序한 表記 體系를 想定함과 같은 解釋 方法은 잘 容納되지 않음을 強調하고 싶다.

以上으로 없어진 글자의 音價를 推定해 왔는데, 다음으로는, 글자는 지금까지 쓰여내려 오고 있으나, 그 옛 音價가 現音價와 달랐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에 對해서 檢討해 나가기로 한다.

(2) 變 音 字

[가] ㅇ과 ㆁ

「ㅇ」은, 訓民正音 終聲解의 "聲淡而虛"란 說明을 기다릴 必要도 없이, 그 用例로 보아, 無音字임을 바로 알 수 있다. 그러면 왜 이러한 無音字를 만들어 내었을까?

그 當時의 韻學者들은, 漢字의 音이 대개는 初中終 三聲을 갖추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漢字의 音이란 반드시 初中終 三聲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다.

天텬, 乾건, 坤곤, 星셩, 辰신, 節졀 等等 (訓蒙字會에서)

따위의 漢字가 初中終 三聲으로 形成되어 있음을 보고, 모든 漢字音(一音節)이 그러해야 하는 것으로 斷定하고,

"有始有終以成一字之音 理之必然" (洪武正韻譯訓序)

"凡字音必有終聲" (四聲通攷 凡例)

라고 하였다. 그러나 漢字의 音 中에는, 初聲이 없는 것도 있고, 終聲이 없는 것도 있고, 또는 兩者가 다 없는 것도 許多하다.

地디, 宇우, 宙듀, 候후, 月월, 陰음, 陽양, 等等 (訓蒙字會에서)

(地宙候는 終聲이 없고, 月陰陽은 初聲이 없고, 宇는 初終聲이 다 없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들은 이러한 字音에 있어서도 初聲이나 終聲 자리에 어떠한 소리가 있는 것으로 認定하고서, 이 소리를 「ㅇ」으로써 表示했던 것인데, 그 理由는 初中終 三聲을 갖춘 漢字音의 틀에 맞추기 위해서이었다고 생각된다. (p. 165 「틀-맞추기」 참조.)

「ᅌ」은 牙音으로서 "舌根閉喉 聲氣出鼻"(訓民正音 制字解)라 하였으니, 이것은 다시 더 길게 說明할 必要도 없이, [ŋ] 音을 表記한 것이다. 「ᅌ」은 初聲으로 쓰였든지 終聲으로 쓰였든지, 반드시 [ŋ] 音價를 가지는 것이다.

러ᅌᅮᆯ/ləŋul/, 서ᅌᅦ/səŋəj/, 이ᅌᅡ/iŋa/, 바ᅌᅩᆯ/paŋol/——以上은 初聲 例.

올챙/olčʰaŋ/, 부헝/puhəŋ/, 밍ᄀᆞᆯ-/mʌjŋkʌl-/——以上 終聲 例.

뒷 時代에 내려오면서, 이 두 字體가 區別이 없이 되어서, 初聲의 「ㅇ」은 無音字이고, 終聲의 「ᅌ」은 [ŋ] 音을 나타내게 되었다.

[나] 어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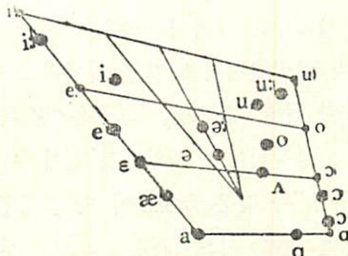
現代語의 /어/는 分明히 다른 두가지의 變異音(allophone)을 가지고 있다. (p. 187 參照). 그런데 訓民正音 創製 當時에 이미 이와 같은 다름이 있었더라면, 銳敏한 音聲 觀察者인 그 當時의 語學者들이 이에 對해서 한마디 言及하지 않았을 理가 없는 일이니, 그 當時의 /어/ 音은 單一한 音聲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勿論 嚴格한 意味로서는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이지만). 그러므로 15 世紀의 /어/는, [ə]나 「ʌ]의 한쪽과 同一했거나, 아니면 어느 것도 아닌 第三의 音聲이였을 것이다.

訓民正音 制字解에,

"ㅓ與一同而口張"

이라 하였는데, 이 說明으로 보면, 「어」는 [ʌ] 音이 될 可能性은 희박하고, [ə]에 가까운 소리였을 것이다. 그렇던 것이 長音의 「어」는 대체로 本位置를 유지해 내려왔으나, 短音의 「어」는 혀가 낮아져서 [ʌ] 비슷한 소리로 變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母音이 그 長短에 依해서 혀 位置에 變動이 생기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54]

(54) 그 一例로 英語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D. Jones에 依함)



그러나 그 當時에는 前舌·中母音은 存在했던것 같지 않다(後說). 그러므로 /ㅓ/는 中舌의 位置에서 적이 前舌의 位置로 變異되고 있지나 않았을까 추측된다.

[다] 외, 애, 위, 에, 얘, 예, 외, 위, 왜, 웨, 의

現代語音에 있어서 單母音인「애, 에, 외」는 그 字形으로 보아서 正音 創製 當時에는 單純한 單母音이 아니었지나 않을까 하는 疑問을 품게 된다. 萬一 이 글자들이 單母音이 아니었더라면, [aj], [əj], [oj]와 같은 重母音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關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檢討해 봐야 할 것은 訓民正音 解例인데, 그 中聲解에 다음과 같은 說明이 있다.

"一字中聲之與ㅣ相合者十 ㆎㅢㅚㅐㅟㅔㆉㅒㆌㅖ 是也 二字中聲之與ㅣ相合者四 ㅙㅞㆇㆊ 是也 ㅣ於深淺闔闢之聲 並能相隨者 以其舌展聲淺而便於開口也"

여기에서는 現代語音의 重母音인「위, 의」와, 單母音인「외, 애, 에」따위가 아무런 差別 없이 同一하게 說明되어 있는 點에 留意해야 할 것이니, 萬一 그 當時에,「위, 의」따위는 重母音으로 發音되면서,「외, 애, 에」따위는 單母音으로 發音되었더라면, 解例의 性質上 반드시 이러한 點에 對한 說明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說明文 中 特히 留意되는 點은 "ㅣ於深淺闔闢之聲 並能相隨…"라 한 곳이니, 이것은 여기에 나오는 모든 글자의 끝 要素가 모두 ㅣ音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或은 이러한 말은 字形을 두고 한 것이지, 音價는 그렇지 않았었는지도 모를 일이라고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李朝 初期 語學者들의 글을 읽으면, 그들은 '字'와 그 字가 표시하는 '音'을 明確하게 區別해서 생각하지는 않았던것 같이 여겨진다. "初聲凡十七字"라든지, "中聲凡十一字"와 같은 表現法이 다 그러한 感을 주는 것인데, 特히 "字必合而成音"이란 말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分明히 '字'와 '音'을 混同하

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卽 이 말은, 文字 그대로 해석해서, "글자가 合해져서 소리를 이룬다"라 생각해서는 말이 안 된다. 글자는 아무리 모여도 소리가 될 理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 '字'란 「ㄱ, ㄴ, ㅏ, ㅗ…」와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은 文字 自體를 말함과 同時에, 이러한 單字가 나타내는 音을 가리킨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말은 "ㄱ, ㄴ, ㅏ, ㅗ…와 같은 單字의 音은, 그 하나만으로는 發音되기 어려우며, 반드시 이것들이 몇이 모여야만 發音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그들의 單音에 對한 認識의 程度를 보여 주는 매우 흥미 있는 말이다. 要컨대 그들에게 있어서는 字는 곧 音이요, 音은 곧 字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ㅣ於深淺闔闢之聲 並能相隨…"란 말은, 字形을 두고 한 말인 同時에, 그 音에 關한 말로 解釋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合用 並書에 初·中·終 三聲의 경우가 있음을 말했는데, 「ㅐ, ㅔ, ㅚ」 따위는 中聲의 合用 並書이다. 그런데 初聲이나 終聲의 合用 並書는 各字가 제 音價를 가지고 있었음을 밝혔으니, 中聲의 合用 並書도 各字가 제 音價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萬一 그렇지 않고, 「ㅐ, ㅔ, ㅚ」 따위가 오늘날과 같이 [ɛ], [e], [ϕ] 音이었더라면, 무엇 때문에 이러한 單母音을 ㅏ와 ㅣ, ㅓ와 ㅣ, ㅗ와 ㅣ 두 字씩으로 表記했을 것인가?

이와 같이 우리는, 訓民正音 解例 說明文의 檢討만으로써도 能히 이러한 字形들이 重母音을 表記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나아가서는 이것들을 重母音으로 보아야 그 當時의 音韻 現象을 理解할 수 있는 일이 몇가지 있다.

1. 主格 助詞와 所謂 指定詞의 {이}는 「이, 위, 의」 音 밑에서는 반드시 줄어진다. 이것은 /i/ 音이 連發되기 때문에 한 쪽 音이 줄어진 것인데, 이러한 現象은 「애, 에, 외」 따위 母音 밑에서도 일어난다. 이것으로 보면 「애…」 따위의 끝소리도, [위, 의] 따위와 같이, /j/ 音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和修吉ᄋᆞᆫ 머리 하다 ᄒᆞ논 마리오(釋 13:7)

엄니 히오(月印 2:41)

受苦ᄅᆞᄫᆡᆫ 소리 업고(釋 9:10)

此ᄂᆞᆫ 이라(訓)

根은 불휘라(月印序 21) 等等.

ᄇᆡ 업거늘(용 20)

ᄢᅴ 하건마ᄅᆞᆫ(용 90)

밧긧 그르메 瑠璃 ᄀᆞᆮᄃᆞ시니(月印 2:17)

影은 그르메라(釋 19:37)

2. 「이, 위, 의」와 같은, 끝소리 /i, j/를 가진 體言이나 用言의 語幹에, 處所格 助詞 {에}나 語尾 {아/어}, 插入母音 {오/우}가 이어날 때는, 이것들은 모두 「-예, -야/여, -요/유-」로 變動한다. 이것은 兩母音을 分明히 分離하여, 表現을 明瞭하게 하려는 努力으로 말미암아, 兩母音 사이에 /j/를 插入한 것인데, /j/ 音은 앞 /i, j/ 音의 off glide가 單音인 gliding sound로 強化된 것이다.

ᄃᆞ리예(용 87), 귀예(釋 9:7) 等

뮈여(月印序 2), 이긔여 (月印序 9) 等

뮈유미(月印 2:21之 1), 어긔욤(金강 15), 이긔유믈(杜 7:7) 等

그런데 이렇게 /j/ 音이 插入되고 나면, 앞의 /j/와 이 /j/ 音이 重音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앞의 /j/ 音이 脫落되는 일이 있다.

뮈유미→무유미(楞 4:15) [muj-ju→mu-ju]

뮈여→무여(杜 20:20)

뷔엿고→부엿고(杜 6:10)

ᄠᅴ여→ᄠᅳ여(杜重 2:5) 等

한편 이와 같은 添加와 脫落 現象은, 「위, 의」와 같이 分明히 끝소리가 /i, j/

音이었으리라 생각되는 音에 限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問題의 「애, 에, 외, ᄋᆡ」 따위의 경우에도 亦是 일어나는 現象이다.

비예(月印 2 : 24), 그르메예(月印 7 : 23) 等

괴여(訓, 合字解), ᄃᆞ외야(月印 1 : 5), 내야(月印 2 : 31), ᄆᆡ야(杜 7 : 34) 等

뵈요미(釋 13 : 47), 혜요미(楞 3 : 24) 等

개여→가여(楞 4 : 40)(55)

ᄌᆞᆯ히야→ᄌᆞᆯᄒᆞ야(釋 13 : 46)

막대예→막다예(杜重 2 : 6)

홰예→화예(月印 2 : 33) 等

이러한 事實로 보더라도 問題의 「애, 에…」 따위 母音의 끝소리가 /j/ 音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ᄋᆡ」와 「의」의 交替에 依한 任意 變動 語形이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이것도 單母音 「ᄋᆡ」와 重母音 「의」의 交替라기보다, 「ᄋᆡ」를 重母音으로 보아서, /ᄋᆞ/ : /으/의 交替로 因한 變動 語形으로 보는 것이 順理할듯 하다. /ᄋᆞ/ : /으/의 交替는 母音 調和 現象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이다.

ᄒᆡ- : 희-(白, 龍歌)

고ᄉᆡ(字會 上 13) : 고싀(四聲通解 上 51)

모ᄀᆡ(楞 5:77) : 모긔(字會 上 22)

그리고 다음과 같은, 母音調和에 依한 交替例도 있다.

---

(55) 「개-」에 語尾 「-어」가 連結될 때는 그 사이에 自然히 〔j〕와 같은 過渡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單音으로 認識한 것이 「개여」〔kaj-jə〕이다. 이 두 〔j〕는 그 經過 方向이 反對이므로 前者를 〔j↑〕, 後者를 〔j↓〕로 表記하면, 「개여」는 더 精密하게는 〔kaj↑-j↓ə〕로 表記된다. 그런데 〔a-j↓〕사이에서는 自然히〔j↑〕가 나게 되므로 〔kaj↑-j↓ə〕에 있어서 〔j↑〕는 없더라도 그 發音에는 그리 큰 다름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kaj-jə〕(개여)～〔ka-jə〕(가여)

는 任意 變動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kaj-jə〕는 〔i〕 位置에 있어서의 持續이 多少 긴 것인데 比해서, 〔ka-jə〕는 그 持續이 거의 없는 音이므로, 이는 한 音素의 省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고ᄇᆡ(杜 6:25): 구븨(杜 21:42)

ᄆᆡᆺᄆᆡᆺᄒᆞ-(楞 2:113): 믯믯ᄒᆞ-(楞 4:28)

또 所有格 助詞의 「-ᄋᆡ」:「-의」, 處所格 助詞의 「-애」:「-에」의 交替도, 이것을 重母音으로 보아야 音韻 組織에 無理가 생기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 李朝 初期에 있어서, 母音 調和에서 交替되는 音素의 對立은,

아 : 어, 오 : 우, ᄋᆞ : 으

의 세 雙으로서, 整然한 體系를 이루어 있는데, 「ᄋᆡ : 의」, 「애 : 에」의 對立에 있어서, 이들을 重母音으로 볼 때는 앞의 音素 對立을 깨뜨리지 않으나, 單母音으로 볼 때는 그 對立의 組織을 깨뜨리고 마는 것이다. 곧 單母音으로 보게 되면, 母音 調和에 있어서의 對立되는 母音의 組織은 다음과 같이 된다.

a : ə, o : u, ʌ : ï, ɛ : e, ɛ(ᄋᆡ) : ïj

그리고 「ᄒᆞ게」 活用形이 때로는 「ᄒᆞ긔」로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이것 亦是

ke : kïj

의 交替에 因한 變動形이라기보다,

kəj : kïj

로 보면 /어/, /으/의 混同에 因한 것으로 理解되는 것이다.

以上은 그 當時의 共時的 音素 變動의 例로 보아, 「애, 에…」 따위가 重母音을 表記한 것이었음을 論하였는데, 通時的인 音素 變化의 例로 보아서도 이러한 事實을 認定하게 된다.

李朝 初期의 「괴외ᄒᆞ다」는 現代語의 「고요하다」로 變化하였는데, 萬一 「외」가 [ϕ]와 같은 單母音이었더라면, 이 [kϕ-ϕ～]는 絕對로 [ko-jo～]로 變化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괴외～」>「고요～」의 變化 過程은, 「외」를 [oj]와 같은 重母音으로 볼 때에 비로소 釋然해지는 것이다. 卽 [koj-oj]의 兩 重母音間의 過渡가 過渡音으로 強化되어 [koj-joj]로 變하고, 다시 이것이 重音 省略으로 말미암아 [ko-jo]가 된 것이다.

뿐아니라 어떤 方言에서는, 「새, 개, 게, 괴, 뫼, 외」 따위 말이 重母音 乃至는 hiatus로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56], 이것은 古音의 자취라 생각되며, 時調唱에서 '海' 따위 音을 [hɛ]로 읽지 않고, [haj]로 읽는 것도, 亦是 古音이 口傳되어 내려온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말을 外國文字로, 또는 外國語를 正音으로 音譯(轉寫)한 例들도 이러한 事實을 證言한다.

和漢三才圖會(寺島良安著, 1713 A.D. 刊)의,

山(뫼)—毛惠, 猫(괴)—古伊, 竹(대)—太伊, 鷹(매)—末伊,

坂(고개)—古加伊, 太口魚(대구)—太伊古, 船(배)—波伊

와 같은 轉寫例는 이 論斷에 有力한 證據이나, 이것만으로 確證을 얻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日人들이 한글의 字形만 보고 ——實際 發音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轉寫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며, 或은 日本語에서는 [ɛ], [ø]와 같은 母音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アイ], [オエ]와 같이 두 母音으로 表記했을 可能性도 있음으로써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中國語를 正音으로 轉寫한 例로써 볼 것 같으면, 「애, 에…」 따위가 重母音이었음을 確信하게 된다.

西紀 1517年에 刊行된 崔世珍의 四聲通解에는, 中國語의 [aj], [waj], [jaj] 따위 重母音을 「애, 왜, 얘」로써 表記하고 있는데, 萬一 「애, 왜, 얘」가 [ɛ], [wɛ], [jɛ] 音이었을것 같으면, [aj], [waj], [jaj]는 「아이, 와이, 야이」로써 容易하게 表記할 수 있는데도 不拘하고, 구태여 [ɛ], [wɛ], [jɛ] 音을 表記하는 文字로써 代置할 必要는 없었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例를 몇가지 들어보인다.

(漢　字)	(四聲通解의 正音 轉寫)	(現代 中國音)
該, 陔, 改, 蓋, 槪…	개	[kaj][57]

(56) 河野六郎：朝鮮方言學試攷 pp. 123—38. 참조.
(57) 4—5百年前의 中國語音도 이 點에 關한 限 現代語와 다르지 않았다.

開, 慨, 愾, 咳…	캐	[k'aj]
歹, 帶, 戴…	대	[taj]
胎, 台, 太, 泰…	태	[t'aj]
乃, 廼, 奈, 耐…	내	[naj]
擺, 敗, 拜…	배	[paj]
湃, 派…	패	[p'aj]
顋, 塞, 賽…	새	[saj]
海…	해	[haj]
來, 萊, 賴…	래	[laj]
乖, 拐, 怪…	괘	[kuaj]
快, 噲…	쾌	[k'uaj]
外…	왜	[ʋaj]
懷, 壞, 槐…	홰	[huaj]
睚…	애	[jaj]
涯, 崖…	얘	[jaj]

그리고 康遇聖의 捷解新語(1618 A.D. 著, 1676 A.D. 刊)에는 日語의 「エ」行 音을 「여」 또는 「예」로써 轉寫하였는데, 萬一 그 때에 「에, 애」가 現代音처럼 [e], [ɛ] 이었더라면, 日語의 エ行은 應當 「에」로써 表記하였을 것이다.(58)

フネー후녀, メテー면뎨, ミエマセンー미예마루션,

其他 ケー계, メー며, 몌, レー려, 례 等等.

(58) 日本語의 「エ」 〔e〕를 「ㅕ」나 「ㅖ」로 音譯한 事實로써, 「ㅓ」가 〔e〕音이었다고 推斷하는 일도 있을는지 모르나, 그러나 「ㅓ」가 〔e〕이었더라면 바로 「エ」=「ㅓ」로 表記할 것인데, 굳이 「ㅕ」나 「ㅖ」로써 音譯한 理由가 밝혀지지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그 當時 音素 組織으로는 完全한 前舌·中母音이 없었기 때문에, 「ㅓ」가 中舌과 前舌의 位置로 多少 變異되고 있었으리란 推測은 可能하다.

이것으로써도 그 當時에는 아직 우리말 母音에 [e]나 [ɛ] 音이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ㅔ」를 「여」로 轉寫한 理由는, 우리말에 있어서는 [e]와 [jə]가 一種의 diaphone(59)에 屬하기 때문이다.

별~벨, 병~벵, 평양~페양 等

以上 訓民正音 解例의 說明으로나, 그 當時의 여러가지 音素 變動으로나, 音素의 通時的 變化로나, 또는 外國語音의 轉寫 方法等으로 보아서, 「애, 에, 외…」 따위가 二重 母音이었음을 밝혔다.

이러한 音들이 二重 母音이었으니, 따라서 「얘, 예, 외, 왜, 웨」 따위는 各各 [jaj], [jəj], [joj], [ŏaj], [ŭəj]와 같은 三重 母音이었음은 勿論이다.

[라] ㅅ(ㅆ), ㅈ(ㅉ), ㅊ

우리들은 一般的으로, 「ㅅ, ㅈ, ㅊ」의 調音은 그 當時나 現在나 別다름 없었으리라고 推測하고 있음이 普通이다. 그러나 이렇게 斷定하기에는 몇가지 難點이 있음을 發見하게 된다.

1. 現代 우리 나라 南部 方言의 一般的인 發音으로는, /ㅅ/은 혀끝의 [s]와 센-입천장의 [ɕ] (또는 [ʃ])의 두 結合的 變異音을 가지고 있는데, /ㅈ/과 /ㅊ/은 一般的으로는 센-입천장의 [tʃ], [tʃʰ]로 發音되고, 사람에 따라 혀

---

(59) D. Jones의 phoneme의 定義 態度는 嚴格히 一個人의 一定한 말의 style에 局限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Jones에 있어서는, 한 個人의, 말의 style을 달리했을 때의 同一語의 音素 變異나, 또는 個人的인 音聲의 差異 같은 것은 이를 phoneme의 音聲的 實現으로 보지 않고, 이 소리들의 group은 diaphone이라 하여 phoneme과 區別한다. 이를테면 어떤 한 個人이 말을 注意해서 할 때에는 어떤 말의 母音을 [ej]로 發音하는데, 말을 빨리 할 때에는 이것을 [iː]라고 發音한다든지, 或은 어떠한 個人이 [ej]로 發音하는 말을, 다른 個人은 [iː]라고 發音한다면, [ej]와 [iː]는 同一한 diaphone에 屬하게 되는 것이다. 뿐아니라, 方言과 方言과의 사이의 이러한 音素의 變異도 diaphone이라 한다. 우리말에 있어서 [sɛː] (鳥)는 어떤 方言에서는 [saj]라 하므로, [ɛː]와 [aj]는 同一한 diaphone에 屬하게 된다. <The Phoneme p. 195>

그리고 <Pike : Phonemics p. 236>도 참조.

끝의 [ts], [tsʰ]가 任意的 變異音으로 나타나는 일도 있으나, 南部 一帶의 一般的 發音으로는, /ㅈ/, /ㅊ/은 혀끝 變異音을 가지지 않음이 普通이다. /ㅅ/의 主變異音(norm, principal member)은 [s]이다. 그러므로 /ㅅ/의 主變異音의 자리에 /ㅈ/, /ㅊ/은 一般的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되는 셈이다.

音素 / 變異音	/ㅅ/	/ㅈ/	/ㅊ/
혀 끝	[s] (主變異音)	[ts] (任意的變異)	[tsh] (任意的變異)
센-입천장	[ɕ] (ʃ) (結合的變異)	[tʃ] (主變異音)	[tʃh] (主變異音)

元來 韻學에서 이르는 五音이란, 同一한 位置에서 調音되는 同一한 序列(ordre)의 子音(初聲)에 대한 名稱이다. 그런데 現代語에서는 이 齒音 序列에 위와 같은 그 位置的 不均衡——/ㅅ/의 主變異音은 혀끝-소리인데, /ㅈ/, /ㅊ/의 主變異音은 센-입천장-소리이고, /ㅅ/의 變異는 結合的인데, /ㅈ/, /ㅊ/의 變異는 任意的이란 點——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이 세 音素의 音價가 現代와 訓民正音 創製 當時와는 좀 달랐었지나 않을까 추측될 수 있다.

2. 現代語에서는 齒音에 /j/ 重母音이 連結되는 일은 없다. (/s/에 若干 例外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ㅈ/, /ㅊ/의 發音이 센-입천장과 前舌에서 나기 때문에, 혀의 姿勢는 /j/와 비슷하여서, /ㅈ/, /ㅊ/과 母音과의 사이에서 나는 /j/는 잘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ㅈ/, /ㅊ/ 다음 位置에서는, /ㅏ/ : /ㅑ/, /ㅓ/ : /ㅕ/, /ㅗ/ : /ㅛ/, /ㅜ/ : /ㅠ/ 따위의 對立은 辨別的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여 中和된다.

그러나 15세기에 있어서는, 이러한 中聲(音節核)들의 對立은 /ㅅ/ 다음에는 勿論이요, /ㅈ/, /ㅊ/ 다음에서도 辨別的으로 機能한다. 卽

「·소」(潭) : 「·쇼」(牛)

「·섬」(階) : 「·셤」(十斗)

「:세다」(强) : 「:셰다」(使立)

「저」(彼) : 「·져」(箸) (이 경우에는 旁點의 差가 있으나)

와 같은 準同音語가 나타나고, 또 다음 말들에서 이 兩系 母音의 表記法은 一絲不亂하여 混同됨이 없다.

中聲 / 初聲	/-V/	jV/
/ㅅ/	사ᄉᆞᆷ(鹿), 사ᄋᆞᆯ(三日), 삼(麻), 서르(相), 서리(霜)…	샤공(뱃사공), 샤옹(夫), 샹투(상투), 션ᄇᆡ(儒), 쇼경(盲)…
/ㅈ/	자(尺), 잔(盃), 잣(海松), 절(拜), 좁-(狹), 줄기(莖)…	쟈랑(자랑), 쟝긔(장기), 졎(乳), 죵(僕), 쥭(粥)……
/ㅊ/	차(茶), 차반, 처엄(初), 초(醋), 춤(唾, 舞)……	챵포(菖蒲), 쳔량(錢), 쵸롱(초롱), 쵸마, 츄마(치마)……

萬一 /ㅈ, ㅊ/이 現代의 發音과 같았더라면, 그 다음 位置의 /ㅏ/ : /ㅑ/…는 辨別的으로 作用하기 어려웠을 터인데, 이렇게 이 兩系 音節이 잘 分別되어 있음을 보면, /ㅈ, ㅊ/의 發音이 現代와 달랐지나 않았을까 하는 推理가 可能하게 된다.

/ㅅ/, /ㅈ/, /ㅊ/ 齒音을 現代語의 發音으로 생각하면 위와 같은 難點이 있음을 免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두가지 難點을 解消시키는 가장 合理的인 方法은, /ㅈ/, /ㅊ/의 主變異音을 各各 [ts], [tsh]의 位置로 끌어올리는 方法이다. 그렇게 되면 變異音에 있어서 /ㅅ/과 均衡이 잡힐뿐 아니라, [ts], [tsh]와 같은 혀끝-소리 다음에서는 [j]가 두드러지게 發音되어서, /ㅏ/ : /ㅑ/……의 對立이 分明히 辨別力을 發揮할 수 있게 된다.[60] 卽,

(60) /ㅈ, ㅊ/이 [tʃ], [tʃʰ]로 發音되더라도, 그 다음의 /j/를 좀 길게 느리게 發音하면, /ㅏ/ : /ㅑ/…의 分別이 不可能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分別은 若干 느리게 操心性 있게 發音할 때만 可能하다. /ㅈ/, /ㅊ/ 다음의 /ㅏ/ : /ㅑ/…의 對立은, 뒤에서 말하겠지만, 數世紀 동안 辨別的으로 機能해 내려오는데, 이러한 操心性을 要하는 發音이 그렇게 長久한 時日을 두고 그대로 維持되어 내려왔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또 /ㅈ/, /ㅊ/을 [tʃ], [tʃh]로 보면, 그 變異音에 있어서는 如前히 /ㅅ/과 均衡이 잡히지 못하는 不合理性이 存在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두가지 難點을 解決하는 方法은, 亦是 /ㅈ/, /ㅊ/의 主變異音을 [ts], [tʃʰ]로 보는 것이 가장 좋다.

사… [sa…] : 샤… [sja…]

자… [tsa…] : 쟈… [tsja…]

차… [tsʰa] : 챠… [tsʰja…]

平安道 方言에서는, /ㅈ/, /ㅊ/이 一般的으로 [ts], [tsʰ]로 發音되는듯 한데, 그것은 이 方言이 一般的으로 口蓋音化에 가장 強力하게 抵抗해 온 結果이다. 卽 平安道 方言에서는 /ㄷ/, /ㅌ/의 口蓋音化에 抵抗한 것처럼 [ts], [tsʰ]의 口蓋音化에도 抵抗해 내려온 것이다.

/ㄷ/+/ㅅ/→/ㄷ/+/ㅈ/, /ㄴ/+/ㅿ/>/ㄴ/+/ㅈ/

과 같은 音素의 變動이나 變化가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이 현상도 /ㅈ/을 [ts]로 보아야 쉽게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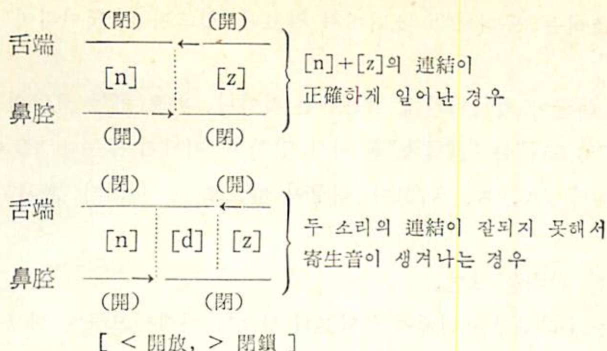
客體 尊待를 나타내는 형태소 {숩}의 첫소리는, 舌端 內破音 [t'] 다음에서는 /ㅈ/으로 變動하는데, 이것은 바로 /t/+/s/→/ts/ (ㅈ)의 變異이다. /ㅈ/을 舌端音으로 보아야 이 變異의 理由가 쉽사리 解明된다.

그리고 15 세기 文獻에 보이는 「손소」가 後期 文獻에는 「손조」로 나타나는데,

손소 神靈을 셤기샤 (月印 21:213)

손조 밥지어 먹으라 (老乞大 諺解 上 61)

이러한 變化도 /ㅈ/이 혀끝-소리의 [ts]와 [dz]의 變異音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하면 쉽사리 解明되는 일이다. 卽 [t]+[s]→[ts]의 경우를 생각하면, [n]+[z]>[n]+[dz]의 과정도 쉽사리 理解된다. [n]와 [z]의 連結이 正確하게 되기 위해서는, [n]의 舌端 開放과 同時에 鼻腔 通路를 막아야 한다. 그러나 [z]를 내기 위한 鼻腔 閉鎖가 舌端 開放보다 一瞬間만 앞서게 되면, 여기 寄生音(son parasite) [d]가 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손조」 [sondzo]이다.



[< 開放, > 閉鎖]

/ㄴ/ 다음의 /ㅿ/이 /ㅈ/으로 變하는 현상은, /ㅈ/을 혀끝-소리로 보았을 때 가장 分明하게 解明될 수 있는 것이다.

以上의 論據에 依해서, 「ㅅ, ㅈ, ㅊ」은 혀끝-소리 [s], [ts], [tsʰ]의 音價를 가졌던 것으로 推定한다. 따라서 「ㅿ」도 혀끝-소리의 [z]로, 「ㅉ」도 亦是 혀끝-소리의 [ts'] 이었으리라 推定된다.

이러한 모든 齒音(혀끝-소리)이, 그 /j/ 앞에서의 變異音으로서 各各 [ɕ](ʃ), [ʑ](ʒ), [tʃ], [tʃʰ], [tʃ']를 가졌던 것이었는지 與否는 斷定하기 힘드는 일이나, 다음에 說明하는 바에 依해서, 이 센-입천장 變異音은 그 當時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推測된다.

中國語의 齒音에는 齒頭와 整齒가 있어서, 齒頭는 「ᄼ, ᅎ, ᅔ」로 表記하고, 整齒는 「ᄾ, ᅐ, ᅕ」로 表記하고 있는데, 그 音價에 대해서는, 四聲通攷 凡例에,

齒頭: 齒頭則擧舌點齒 故其聲淺

整齒: 整齒則卷舌點腭 故其聲深

이라 하였다. 이로써 보면 齒頭는 現代 中國語의 "ㄗ[ts], ㄘ[tsʰ]"에 해당되며, 整齒는 바로 卷舌音의 "ㄓ[tʂ], ㄔ[tʂʰ]"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데 訓民正音 諺解의 說明을 보면,

齒頭 : "이 소리는 우리나랏 소리예셔 열ᄫᅳ니 혓그티 웃닛머리예 다ᄔᆞ니라"

라 하고 있다. 혀끝이 윗니머리에 닿는다는 것이니, 바로 通攷 凡例의 說明과 符合하며, "열ᄫᅳ니"는 "其聲淺"을 바꿔 말한 데 지나지 않는다. 卽 이 소리는 우리 나라의 /ㅅ, ㅈ, ㅊ/보다 혀끝이 앞으로 더 나가서 調音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整齒의 說明을 보면,

"이 소리는 우리나랏 소리예셔 두터ᄫᅳ니 혓그티 아랫닛므유메 다ᄔᆞ니라"

라 하였다. 혀끝이 아랫 잇몸에 닿는다는 것인데, 이 說明은 卷舌音의 調音方法을 말한 것은 못되고, 바로 [tʃ, dʒ] 따위 센-입천장~앞-혓바닥-소리의 調音을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된 理由는, 通攷 作者는 中國語의 卷舌音을 바로 파악했으나, 訓民正音 諺解 作者는 卷舌音을 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청각上 그와 비슷한 [tʃ, tʃh] 音으로 파악했던 탓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國語의 「ㅅ, ㅈ, ㅊ」을 이 소리보다 "엷다" 한 것으로 보면, 「ㅅ, ㅈ, ㅊ」은 바로 [ʃ, tʃ, tʃh]는 아니고, 그보다 좀 앞쪽에서 調音되던 소리가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ㅅ, ㅈ, ㅊ」은 齒裏音(齒頭)과 硬口蓋音(諺解의 整齒)의 中間, 卽 齒槽音이었으리라 推想하는 것이 가장 近理한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모든 齒音 「ㅅ, ㅈ, ㅊ, ㅿ, ㅆ, ㅉ」은, 아직 硬口蓋音化된 變異音을 가지지 않은, 齒槽音의 [s, ts, tsh, z, s', ts'] 이었으리라 推定된다.

다만 /ㅈ/은 有聲 [dz]과 無聲 [ts]의 두 變異音을 가졌던 點은 지금과 한 가지였을 것이다.

[마] ㄹ 使用法

ㄹ의 音價는 現在와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나, 다만 그 변이음인 [l]와 [r]의 表示 方法에 다름이 있었던 모양이므로, 여기에서는 그 點에 對해서 簡單히 記述하려 한다.

1. 文字와 그 音價

우리말의 /ㄹ/ 音素는 音節의 末音으로서는 [l]로 實現되고, 音節의 頭音으로서는 [ɾ]로 實現되는데, 다만 앞 音節의 끝소리가 [l]인 때는 다음 音節의 첫소리는 [ɾ]는 連結되지 못하고 [l]가 連結된다.

그러므로 萬一 우리[illegible] 發音 나는대로 表記하면, 「ㄹ」은 위에서 말한 [illegible]와 같[illegible] 따라서 [l] 또는 [ɾ]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illegible]흘러 간다」를 發音대로 적으면 「말근 무리 흘러 간다」와 같이 되[illegible] 경우에 「말」「흘」의 音節 末의 「ㄹ」은 [l] 音이 되고, 「리」의 初頭의 「ㄹ」은 [ɾ]이고, 「러」의 初頭의 「ㄹ」은 앞에 [l] 音이 있기 때문에 [l] 音이 되는 것이다.

한편 李朝 初期의 表記法을 考察하면, 月印釋譜 中의 月印千江之曲의 部分을 除外하면, 모두[illegible] 한 音節을 한 묶음으로 한 嚴格한 發音대로의 表記法으로 되어 있는 것이[illegible][61], 그 當時 表記法에 있어서의 「ㄹ」字는 音節에 있어서의 그 位置에 依해[illegible] 두 變異音을 區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놀애」(歌), 「일우-」(成), 「[illegible]아」(異), 「올이-」(登) 따위에 있어서의 終聲(音節 末音)의 ㄹ은 모두 [l] 音의 表記인 것이다.[62]

訓民正音 解例에는

"半舌有輕重二音 然韻書字母唯一 且國語雖不分輕重 皆得成音 若欲備用 則依脣輕例 ○連書ㄹ下 爲半舌輕音 舌乍附上腭" (合字解)

---

(61) 이에 관해서는,

許雄 : 李朝初期 文獻의 表記法에 나타난 文法 意識 (國語國文學 第三集)

許雄 : 龍飛御天歌 pp. 23—4, 月印千江之曲 註解 pp. 10—16

을 參照하기 바람.

(62) 이에 관해서는,

許雄 : 龍飛御天歌 pp. 87—9

를 參照하기 바라며, 여기에서는 더 길게 說明하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다른 분의 所見에 대해서는,

최현배 : "달아"의 읽기에 대하여——한양 조선 초기의 ㄹ의 소리값 상고—(학술원 논문집 제 1 집)

李崇寧 : 李朝初期의 l, r 音 表記 問題.(白樂濬博士 還甲紀念 國學論叢)

들을 참조하기 바람

라 하여, 半舌輕音은 「ᄛ」로 表記하고 半舌重音은 그냥 「ㄹ」로 表記하는 方法을 提起하고 있으나 實際에는 이러한 區別은 하지 않았다.

半舌輕音은 "舌乍附上腭"한다 하였으니, 이는 分明히 [ɾ] 音의 描寫이다. 母音間의 /ㄹ/은 두들김-소리의 [ɾ]로 내는 것이니, 이것은 "舌乍附上腭"에 꼭 맞는 소리이다.

그러나 "且國語雖不分輕重 皆得成音"이라 한 것은, /ㄹ/이 位置的으로 變異되어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初聲 終聲으로 區別하여 적으면 能히 그 變異音을 區別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다른 두 글자를 만들 必要가 없다는 뜻이다. 半舌重音의 ㄹ[l]과 半舌輕音의 ᄛ[ɾ]이 한 音素의 變異音이었기 때문이다.

3) 各文字의 音價

以上 說明해온 各 文字의 音價를 總括的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이 된다.

〔i〕 失 音 字

[가] ㅸ=[β]

[나] ㆆ=[ʔ]

[다] ㅿ=[z]

[라] ㆍ=[ʌ]~[ɤ]

[마] ㅲ=[pt], ㅄ=[ps], ㅶ=[pč], ㅳ=[pth], ㅺ=[sk], ㅼ=[sn], ㅼ=[st], ㅽ=[sp], ㅴ=[psk], ㅵ=[pst]:
ㄲ=[k'], ㄸ=[t'], ㅃ=[p'], ㅆ=[s'], ㅉ[ts'], ㆅ=[ç'],
ㆀ=(/j, i, u/ 의 tense 임을 표기 함), ㅥ=[nn].

〔ii〕 變 音 字

[가] ㅇ=zero, ㆁ=[ŋ]

[나] ㅓ=[ə](前舌로 若干 기울어지는 일이 있음. 엄격하게는 [ə˞]

로 表記될 듯), ㅕ=[jə˧]

[다] ㅚ=[oj], ㅐ=[aj], ㅟ=[uj] ㅔ=[əj], ㅒ=[jaj], ㅖ=[jəj],

ㆉ=[joj], ㆌ=[juj], ㅙ=[ŏaj], ㅞ=[ŭəj], ㆎ=[ʌj]

[라] ㅅ=[s], ㅈ=[ts, dz], ㅊ=[ts^h]

[마] ㄹ=[l, ɾ]

(iii) **現在와 같은 音價**

ㄱ=[k, k', g], ㅋ=[k^h], ㄷ=[t, t', d], ㅌ=[t^h], ㄴ=[n],

ㅂ=[p, p', b], ㅍ=[p^h], ㅁ=[m], ㅎ=[h]

ㅡ=[ï], ㅣ=[i], ㅗ=[o], ㅏ=[a], ㅜ=[u], ㅛ=[jo], ㅑ=[ja],

ㅠ=[ju], ㅘ=[ŏa], ㅝ=[ŭə], ㅢ=[ïj]

以上의 여러 音聲들을 分類 配列하면 :

＜子 音＞

[單純]

p	p'	t	t'	ts	k	k'	
b		d		dz	g		
p'		t'		ts'	k'		ʔ
p^h		t^h		ts^h	k^h		
				s			h
				s'			ç'
ß				z			
m		n			ŋ		
		l					
		ɾ					

[複合]

pt, ps, pč, pt^h

sk,　　sn,　　st,　　sp

psk,　　pst.

<母 音>

[單母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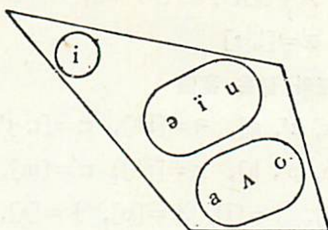
i　　u

ï

ə　　o

ʌ

a



이 母音들의 母音 四角圖 上의 位置는 대강 다음과 같이 定位시킬 수 있을 것으로 推定한다.

一點으로 表示하지 않고 區域으로 表示한 것은, 그 變異를 考慮한 것이다. 그리고 [ə], [ï], [u]; [a], [ʌ], [o]를 各各 한 區域안에 넣은 것은, 이 소리들은 혀의 位置보다도 입술의 圓平의 差가 더 辨別的이었던 듯이 說明한, 訓民正音 解例 作者들의 記述을 反影시켜 본 것이나, 仔細한 說明은 뒤로 미룬다.

[二重 母音]

上昇的 : jo,　ja,　ju,　jə

ŏa,　ŭə

下降的 : ʌj,　ïj,　oj,　aj,　uj,　əj

[三重 母音]

joj,　jaj,　juj,　jəj

ŏaj,　ŭəj

[緊張 (半)母音]

j̣,　ị,　ụ

2. 音素 體系

1) 音素의 數

前節 末에 보인 音聲들을 音素로 分析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 現代語의 경우를 참조하여, 別 問題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說明을 省略하기로 하고, 문제가 될만한 것에 限하여 說明을 붙이기로 한다.

(1) 子 音

〔가〕 單純 子音

〔軟 音〕

[p], [p'], [b]──→/p/ (ㅂ)

이 세 變異音의 配置는 現代語의 경우와 같았으리라 생각되므로, 여기 說明을 省略하고, 한 音素로 묶어 둔다. 訓民正音으로는 「ㅂ」으로 表記된다.(1) 初·終聲으로 쓰임.

[t], [t'], [d]──→/t/ (ㄷ)

위의 /p/의 경우와 같음. 正音으로는 「ㄷ」으로 表記된다. 初·終聲으로 쓰임.

[ts], [dz]──→/č/ (ㅈ)

初聲(音節 頭音)으로만 쓰이며, 有聲 無聲의 配置는 다른 音素에서와 같음. 正音으로는 「ㅈ」으로 表記된다.

[k], [k'], [g]──→/k/ (ㄱ)

위의 /p/, /t/의 경우와 같이, 初·終聲으로 쓰이며 正音으로는 「ㄱ」으

(1) 語源 意識이 作用할 때는, 終聲으로서는 「ㅍ」으로 表記되기도 한다.

로 表記된다.

[s]──→/s/ (ㅅ)

거의 變異되지 않는 音素. 正音으로는 「ㅅ」으로 表記된다. 初聲으로도 쓰이고, 終聲으로도 쓰임.

[h]──→/h/ (ㅎ)

뒤에 오는 母音의 無聲音으로서 [ḁ], [u̥], [ə̥] 따위로 變異되었으리라 추측된다. 初聲으로만 쓰임.

[β]──→/β/ (ㅸ)

거의 變異되지 않았으리라 추측된다. 正音으로는 「ㅸ」로 表記되며, 初聲으로만 쓰임.

이 音素는 初聲으로만 쓰이되, /s/, /h/, /č/ 따위와는 달라서, 그 配置가 極히 局限된다. 卽 母音과 母音 사이나, 또는 /ㄹ/과 母音 사이에 局限되어 나타나며, 非成節音의 [ŏ]나 [ŭ]와 任意로 變動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2] 獨立된 音素가 아니라고 主張하는 일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몇가지 理由로써 이 소리를 하나의 音素로 認定하려는 것이다.

1. 正音 創製 當時의 表記法은, 그 當時 發音의 꽤 整然한 反影이다. 語源 意識이 그리 많이 介入되었던 흔적이 없고, 前時代의 表記法에 拘碍되는 일도 없었다. 그런데 「ㅸ」의 表記法은 거의 一絲不亂의 狀態이다. 이러한 一貫된 表記法은 그것이 어떠한 獨特한 소리의 反影이 아니고서는 不可能한 일이다.
2. 따라서 이 「ㅸ」은 /ㅂ/이나 「와」「워」의 半母音化한 [ㅜ], [ㅗ]와도 다른 어떤 소리를 表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ㅸ」의 配置가 局限되어 있기는 하나, 이 配置는 /ㅂ/이나 半母音의

(2) {常不輕 업시ᄫᅩᆯ수ᄫᅡ (月印 17 : 77, 其 316)
常不輕 比丘 업시ᄫᅮᆷ 업스실씨 (月印 17 : 76, 其 313)}
{깂가ᄫᆞᆫ디 (月印 14 : 80)
가ᄫᆞᆫ디 (月印 13 : 24)}

[ㅗ, ㅜ]의 어느 편과도 相補的(排他的)은 아니다. 「ㅸ」이 母音과 母音, 또는 /ㄹ/과 母音 사이에만 나타나나, /ㅂ/이나 半母音의 [ㅗ, ㅜ]도 亦是 이 자리에 나타나게 된다.

그렇다고 /ㅂ/, [ㅗ, ㅜ]와 任意로 變異되는 것도 아니다. 半母音의 [ㅗ, ㅜ]와 任意로 變異되는 일이 있기는 하되, 大部分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로 交替될 수 없는 限界가 決定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ㅸ」을 유지하고 있는 文獻에 있어서도, 「일워」(成), 「믈와」(水)에 있어서의 半母音의 [ㅗ, ㅜ]는 絕對로 「ㅸ」으로 表記되는 일은 없으며,(3) 「ㅸ」을 유지하고 있는 文獻에서는 「-ᄉᆞᄫᅡ, -ᄌᆞᄫᆞ니, -ᅀᆞᄫᆞ매」 따위에 있어서의 「ㅸ」은 半母音의 「오, 우」로 表記되는 일은 좀처럼 없다.

3. 「ㅸ」의 音價가 半母音의 [ㅗ, ㅜ]와 같았다고 主張하는 일도 있으나, 그렇다면

ᄫᅡ=와, ᄫᅥ=워

까지는 좋을는지 모르나,

「ᄫᅩ, ᄫᆞ, 오」

는 그 發音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ᄫᅩ」=[wo], 「ᄫᆞ」=[wʌ] 란 音價를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또

「ᄫᅮ, ᄫᅳ, 우」

의 세 音節은 어떤 發音의 差가 있었을까?

4. 「ㅸ」은 一定한 音價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그와 가장 가까운 소리로 認定되는 /ㅂ/이나 半母音의 [ㅗ, ㅜ]와 비슷한 位置에서 나타날 수 있어서 그 任意的 變異는 極히 드물다면, 이들 소리는 各各 別個의 音素가 되는 것이다. 極히 少數의 單語에서 「ㅸ」과 半母音의

---

(3) 語源的으로는 이러한 半母音의 [ㅗ, ㅜ]가 亦是 /ㅂ/ 乃至 [ㅸ]이었는지 모른다는 理由를 내세울는지 모르나, 15세기의 共時的 音韻 體系를 論議하는 이 자리에서는 이러한 理由는 成立되지 않는다. 그리고 「믈와」의 「오」는 「ㅂ」에서 由來된 것이 아님은 勿論이다.

[ㅗ, ㅜ]가 任意로 變異되는 일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이것이 同一한 音價를 가졌다고 斷定할 수 없는 것은, 「때문」을 「따문」이라 하고, 「단추」를 「댄추」라 한다고 해서 /애/와 /아/가 같은 音素라고 할 수 없음과 한가지다.

5. 半舌音에 輕重 두 소리를 分別하여, 半舌重音은 「ㄹ」로 表記하고, 半舌輕音은 「ᄛ」로 表記할 수도 있다는 것은 訓民正音의 說明이다(「ㄹ」音價 條 參照). 그러나 이 두 소리는 한 音素의 變異音이기 때문에 實地 表記에는 둘을 區別하지 않았다.

萬一 「ㅸ」이 어느 다른 音素의 變異音이었더라면, 이도 亦是 「ㄹ」의 例를 따라 實地 表記에는 使用되지 않았을 터인데, 如前히 使用하고 있는 것을 보면, 「ㅸ」이 獨立된 音素이기 때문이다.

6. 「ㅸ」의 쓰인 期間이 매우 짧다는 것을 理由로, 「ㅸ」에 音素로서의 資格을 주지 않으려는 일이 있으나, 한 音素의 消滅은 어느 한 時期를 그어서 일어날 수도 있다. 서기 1450—1460年 頃은 이 音素가 消變된 時期이기에, 그 以後의 文獻에는 「ㅸ」은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이것이 「ㅸ」 否認의 理由는 못된다.

[z]⟶/z/ (ㅿ)

變異되는 일이 별로 없은듯 하며, 主로 初聲으로만 나타나되, 반드시 有聲音 사이에서만 쓰인다. 正音으로는 「ㅿ」으로 表記된다. (終聲의 「ㅿ」는 「ㅅ」 終聲과 別個 音素는 아니었던듯 하다.) 이 소리도 音素로 認定하지 않으려는 일이 있으나, 다음 理由로 우리는 이 소리를 獨立된 音素로 認定한다.

1. 表記法의 體系로 보아, 이 文字는 獨特한 音價를 가진 것으로 斷定된다. /ㅅ/과의 變異(任意的)가 나타나나, 이로써 /ㅅ/의 한 變異音으로 볼 수 없음은, 「ㅸ」의 경우와 한가지다.

2. 「ㅿ」은 局限된 位置에만 나타나기는 하되, /ㅅ/과 相補的(排他的) 配置는 아니다. /ㅅ/도 有聲音 사이에서 自由로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굳이 準同音語를 求해 볼 必要를 느끼지 않는다.)

〔硬　音〕(된소리)

[p']⟶/p'/ (ㅃ)

[t']⟶/t'/ (ㄸ)

[ts']⟶/č'/ (ㅉ)

[k']⟶/k'/ (ㄲ)

[s']⟶/s'/ (ㅆ)

[ç']⟶/h'/ (ㆅ)

「ㅃ, ㄸ, ㅉ, ㄲ, ㅆ, ㆅ」 따위가 된소리를 表記했던 것이란 데 대해서는 앞에서 論證한 바이나, 그렇다고 이것들이 獨立한 音素의 資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證明되지는 않았다.

李朝 初期 言語에 있어서의 된소리를 한 音素로 보느냐 하는 것은 한 問題이다. 왜냐하면 「ㄲ, ㄸ, ㅉ……」 따위는 大體로 漢字音(그것도 그 當時의 實際音이 아니라, 古代 全濁音의 再構音의 表記이다)을 表記하는 데 使用되었고, 순 우리말을 表記하는 데는 그리 잘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곧 「ㅆ, ㆅ」이 語頭에 若干 使用되었을 뿐, 「ㄲ, ㄸ, ㅃ, ㅉ」은 語頭에서는 全혀 나타나지 않고, 語中에 若干 使用되어 있을 뿐이다.

이제 그 使用例를 若干 들어 보면:

〔ㄲ〕 漢字音: 虯뀽, 件껀, 窮꿍

순 우리말: 오실 낄ᄒᆞ로(月印 7), 莊嚴ᄒᆞᆯ 껏과(釋 19), 아수볼까(용),

목수미 몯 이실까 너겨(月印 21)

〔ㄸ〕 漢字音: 覃땀, 同똥, 地띵, 大땡

순 우리말: 갈떠 업서(釋 6), 수물떠 업서(月印 7), 올똘 아ᄅᆞ시고(釋 6),

둘띠(月印 2), 업술뗀댄(楞 2)

〔ㅃ〕 漢字音: 步뽕, 並뼝, 佛뿛

순 우리말: 아디 몯홀 빼라(法華經 1 : 135), 尊홀 빼라(法 1 : 205)

〔ㅉ〕 漢字音: 慈ᄍᆞᆼ, 字ᄍᆞᆼ, 情쪙

순 우리말: 여듧번짜히사(月印 1), 온뉘짜히(月印 2), 마쫍고(楞 1), 마ᄍᆞ

뷩(용), 눈ᄶᆞᅀᅮ(楞 2), 볼쩌귄(楞 2), 命終ᄒᆞᆯ쩨(月印 21)

〔ㅆ〕 漢字音: 邪썅, 十씹, 唇쓘

순 우리말 { 語頭: 쓰-(書), 쏘-(射), 싸호-(爭), ᄊᆞ-(築)
語中: 말ᄊᆞᆷ(語), 다쐐(五日), ᄇᆞᆯ써(旣), ᄒᆞᆯ씨, 저ᄊᆞᄫᅡ, 혀쏘리, 엄쏘리(訓)

〔ㆅ〕 漢字音: 洪ᅘᅩᇰ, 下ᅘᅣᇰ, 合ᅘᅡᆸ

순 우리말 { 語頭: ᅘᅧ(引)
語中: ᄢᅘᅧ(拔), 두르ᅘᅧ(廻), 도ᄅᆞᅘᅧ[4]

이와 같이 「ㅆ, ㆅ」이 語頭에 若干 나타날뿐, 다른 雙書들은 語頭에는 全혀 나타나는 일이 없고, 語中에 若干 나타날 뿐이다. 뿐아니라 語中에 나타나는 경우도 仔細히 살펴보면, 「ㅆ, ㆅ」의 경우와, 다른 雙書의 경우와는 서로 다른 點이 있음을 알게 된다. 卽 「ㅆ, ㆅ」은 形態素의 中間에도 나타나는 데 比하여, 다른 雙書들은 形態素의 첫머리의 /ㄱ, ㄷ, ㅂ, ㅈ/ 따위가, 다른 形態素에 連結될 때에, [ㄲ, ㄸ, ㅃ, ㅉ]으로 變動된 경우에 나타날 뿐이다. 그리하여 [ㅅ]:[ㅆ], [ㅎ]:[ㆅ]의 對立은 말의 뜻을 分化하는 구실을 하게 되는 데 比해서, [ㄱ]:[ㄲ], [ㅂ]:[ㅃ]…… 따위는 그러한 機能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여기의 語頭 語中의 '語'는 '語節'을 가리킴)

"各自並書 如諺語 ·혀爲舌而·ᅘᅧ爲引 괴·여爲我愛人而괴·ᅇᅧ爲人愛我 소·다爲覆物而 쏘·다爲射之之類"[5](訓民正音 合字解)

그러므로 /ㅆ/, /ㆅ/을 獨立한 音素로 보는 데는 何等의 異議가 없을 것이나,[6] [ㄲ, ㄸ……]을 獨立한 音素로 보는 데는 여러가지의 異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4) 雙書의 使用例에 대해서는, 최현배 : 고친 한글갈, pp. 569—74 참조.

(5) 여기 提示된 準同音語는, 그 旁點法이 꼭 같으니, 그들의 對比의 周到性을 짐작할 수 있다.

(6) 「ㆅ」의 用法이 多少 動搖한다는 理由로, 이것을 한 音素로 보기를 주저하는 傾向이 있으나, 여기 보인 [·혀]:[·ᅘᅧ]의 準同音語는 이러한 회의를 둘 餘地를 없게 한다.

[ㄲ, ㄸ……]은 軟音 /ㄱ, ㄷ……/과의 對立으로 말미암아 말의 뜻을 相互 差別하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機能的인 觀點으로 볼것 같으면, 이러한 된소리는 獨立한 音素가 아니라, /k/, /t/ 따위 音素의 한 변이음으로 볼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된소리는, /k/, /t/ 따위의 한 변이음인 [g], [d] 따위와 같이, 有聲音 사이에 나타나므로, [k'], [t']는 [g], [d]와는 다른 音素에 屬한다. 그리고 그 當時의 言衆들의 意識으로도 이러한 된소리가 分明히 普通 '全淸音'과 分別되어 있었지나 않았을까 추측하게 하는 事實이 있다. 그것은 申叔舟의 東國正韻 序文 中의,

"我國語音 其淸濁之辨 與中國無異 而於字音 獨無濁聲"

이란 말로써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即 여기의 '濁聲'이란, 中國古代音은 무엇이었든 間에, 그 當時에 있어서는 '된소리'를 그렇게 불렀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心理的 觀點에서 볼 때도, 된소리 [ㄲ, ㄸ, ㅃ, ㅉ]은 獨立한 音素로 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ʔ]──→/ʔ/ (ㆆ)

「ㆆ」은, 앞에서 論證한 바와 같이(pp. 294-8), 喉頭 閉鎖를 수반한 無聲의 休息을 표시했던 것인데, 이것을 한 音素로 볼것인지에 대해서는 若干의 주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休息이 나타나는 자리를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 勿論 形態論的 條件에 어느 程度는 左右되는듯 하나──ㄹ 冠形詞形, 合成語의 경우──그러나 合成語의 한계가 多少 모호하고, 모든 合成語에 다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다. 그러므로 이 無聲의 休息은 亦是 한 音素의 資格을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은 普通의 音素와는 그 性格이 多少 다르므로, 여기에서는 于先 '組織外的 音素'로 보아두려 한다.

「ㆆ」은 單純한 된소리의 符號로 보는 일이 많으나(筆者도 이 冊의 初版에서 그렇게 보았다), 筆者는 이것을 된소리의 한 音聲的 資質로 보지 않고, '無聲의 休息'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即 「ㆆ」을 단순한 된소리의 表記로 보게 되면, 이것은 된소리 自體에 包含된 한가지의 音聲的 資質로 보게 되는 것이나, 筆者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된소리와는 獨立된 한 資質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다음의 軟音은, 無聲의 休息 때문에, 된소리로 變動하는 傾向이 濃厚한 것만은 事實이나, 그렇다고 이 無聲의 休息은 된소리의 한 內包된 資質로는 보아지지는 않는다.

李男德氏는 1962. 5. 10에 있었던 '東洋學 심포지움' (東亞文化硏究所)에서, 「ㆆ」을 한 音素로 보기를 주장하고, 사잇소리에 「ㄱ, ㄷ, ㅂ, ㆆ」들이 使用된 것은, 그 변이음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主張하였는데, 筆者는 이에 全的으로 同感이다. (이 速記錄은 「진단학보」 23호, p. 186에 있음)

그리고 「ㆆ」은 硬音의 한 資質이 아니나, 便宜上 '硬音' 안에서 附說하여 둔다.

〔氣 音〕

[pʰ]──→/pʰ/ (ㅍ)

[tʰ]──→/tʰ/ (ㅌ)

[tʃʰ]──→/čʰ/ (ㅊ)

[kʰ]──→/kʰ/ (ㅋ)

氣音이 한 音素가 된다는 點은, 의심할 餘地가 없는 事實이다. 氣音은 죄다 初聲으로만 쓰인다. (다만 表記法에 있어서, 語源 意識이 作用될 때는, 「ㅍ, ㅊ」 따위가 받침으로 쓰이는 일은 있으나, 그렇다고 이것은 /pʰ/, /čʰ/ 音素의 表記는 아니다.)

〔響 音〕

[m]──→/m/ (ㅁ)

[n]──→/n/ (ㄴ)

[ŋ]──→/ŋ/ (ㆁ)

[l], [ɾ]──→/l/ (ㄹ)

여기 네 音素에 대해서는 문제될 일이 없을 것이다.

〔나〕 複合 子音

複合 子音(consonant cluster) 열도 그대로 複合 音素로 成立된다.

(2) 母 音

〔가〕 單母音

單母音은 일곱 音素이다.

[i]——→/i/ (이)

[ï]——→/ï/ (으)

[u]——→/u/ (우)

[ə┤]——→/ə/ (어)

[ɤ～ʌ]——→/ʌ/ (ᄋᆞ)

[o]——→/o/ (오)

[a]——→/a/ (아)

〔나〕 二重 母音

[jo]——→/jo/ (요)

[ja]——→/ja/ (야)

[ju]——→/ju/ (유)

[jə┤]——→/jə/ (여)

넷의 上昇的 二重 母音도 그대로 音素(音節核, 中聲)로 成立된다.

[ŏa]——→/wa/ (와)

[ŭɛ┤]——→/wə/ (워)

「와, 워」의 成節音은 「아」, 「어」이니, 「오, 우」는 各各 非 成節音 卽 半母音인데, 이 두 소리는 그 配置가 排他的이다. /a/ 위에서는 [ŏ]만이 나타나고, /ə/ 위에서는 [ŭ]만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서로 비슷하면서 配置가 排他的인 이 두 소리는 한 音素로 묶이게 된다.

[ʌj]——→/ʌj/ (ᄋᆡ)

[ïj]——→/ïj/ (의)

[oj]——→/oj/ (외)

[aj]——→/aj/ (애)

[uj]──→/uj/ (위)

[əj]──→/əj/ (에)

下降的 二重 母音도 모두 그대로 音節核 音素로 成立된다.

〔다〕 三重 母音

[joj]──→/joj/ (외)

[jaj]──→/jaj/ (얘)

[juj]──→/juj/ (위)

[jəj]──→/jəj/ (예)

네 三重 母音은 그대로 音節核 音素로 성립된다.

[ŏaj]──→/waj/ (왜)

[ŭəj]──→/wəj] (웨)

[ŏ]와 [ŭ]가 한 音素가 되는 데 대해서는 앞에 이미 밝혔다.

〔라〕 緊張 (半)母音

[j̣]──→/j̣/ (혀, 얬, 等)

[ị]──→/ị/ (얘)

緊張 母音이 緩弛 母音과 辨別的으로 對立됨은, 訓民正音 解例의

[괴·여]:[괴·여]

로 보아 斷定되는 事實이다.

[ụ]도 있기는 했으나, 한 音素가 되지 못함은 p.337에서 말한 바이다.

× × ×

以上을 要約하면, 그 當時의 國語 音素는 다음과 같이 된다

<子 音>

〔單 純〕

/p β p' pʰ m/

/t t' tʰ n l/

/č č' čʰ/

/s z s'/

/k k' k^h ŋ/

/h' h/

/ʔ/

〔複 合〕

ㅂ系: /pt, ps, pč, pt^h/

ㅅ系: /sk, sn, st, sp/

ㅄ系: /psk, pst/

<母 音>

〔單母音〕

/i ị ï u/

/ə ʌ o/

/a/

〔半母音〕

/j, j̣, w/

〔二重 母音〕

/j/系 {上昇的: /jo, ja, ju, jə/
下降的: /ʌj, ïj, oj, aj, uj, əj/}

/w/系(上昇的): /wa, wə/

〔三重 母音〕

/j/系: /joj, jaj, juj, jəj/

/w/系: /waj, wəj/

2) 音素의 對立 關係

(1) 音素의 對立

子音 音素의 對立은 現代語의 경우와 大差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母音 音

素의 對立에 對해서 說明하기로 한다.

/ï/ : /u/—이 두 母音은 혀의 位置로 辨別되었다기 보다, '口蹙'(圓唇) 有無에 依해서 辨別된 것으로 보아진다.[7] 따라서 이 對立은 有無 對立이다. 標識는 口蹙, /ï/는 無標項, /u/는 有標項.

/ʌ/ : /o/—이 亦是 위에 두 母音의 對立과 같이 '口蹙'의 有無 對立이다. /ʌ/는 無標項, /o/는 有標項. 따라서,

/ï/ : /u/, /ʌ/ : /o/

는 比例 對立이다.

/ï/ : /ə/—이 두 母音은 '口張'의 有無로 對立되어 있는 것으로, 訓民正音 解例에는 說明되어 있다. 이 說明을 이대로 좇는다면, 이것은 亦是 有無 對立이다. 標識는 口張, /ï/는 無標項, /ə/는 有標項.

/ʌ/ : /a/—이것도 亦是 위에 경우와 같은 有無 對立이다. 標識는 口張, /ʌ/는 無標項, /a/는 有標項. 그러므로

/ï/ : /ə/, /ʌ/ : /a/

는 比例 對立이다

/u/ : /o/—口蹙 資質을 獨占的으로 共有한 兩面 對立이다.

/ï/ : /ʌ/—口蹙과 口張의 資質이 中和된 音素는 이 두 母音뿐이다. 따라서 亦是 兩面 對立이다.

/ə/ : /a/—口張 資質을 獨占的으로 共有한 兩面 對立.

/u/:/o/, /ï/:/ʌ/, /ə/:/a/

는 各各 혀의 高低로 分化된 對立이다. 따라서 이 對立들은 모두 比例的이다.

(2) 相關과 相關束

現代語의 경우와 같이, 子音에는 喉頭緊張의 相關과 氣의 相關이 成立되

(7) 여기 音素 對立의 資質에 관한 說明은, 訓民正音의 解說을 그대로 좇은 것이나, 現代 音韻學的 觀點으로 보면 若干의 無理가 없지 않다. 이에 대한 修正은, 뒤에 [音素의 組織](p. 373 이하)에서 提起하기로 한다.

는데, 喉頭 緊張의 相關에는 /h/:/h'/의 雙이 더 있었다.

<喉頭緊張의 相關>/p/:/p'/, /t/:/t'/, /č/:/č'/, /s/:/s'/, /k/:/k'/, /h/:/h'/

<氣의 相關> /p/:/p^h/, /t/:/t^h/, /č/:/$č^h$/, /k/:/k^h/

/s/:/s'/, /h/:/h'/의 雙을 除外하면,

p t č k

p' t' č' k'

p^h t^h $č^h$ k^h

의 相關束이 形成되는 點, 現代語의 경우와 同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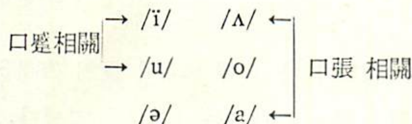
母音에 있어서는

/ï/ : /u/, /ʌ/ : /o/

는 各各 有無 對立이며(標識는 口蹙) 比例的이기 때문에 「口蹙의 相關」을 形成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ï/ : /ə/, /ʌ/ : /a/

도 同一한 理由로 「口張의 相關」을 形成한다. 따라서 이 두 相關은 相關束을 形成하게 된다.



/ï/:/ʌ/, /u/:/o/. /ə/:/a/ 도 比例 對立이기 때문에, 相關으로 보려는 일도 있으나, 이 對立들은 有無的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對立은 相關을 形成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3) 音素의 組織

(1) 母音의 組織

15세기 국어 母音의 辨別的 資質은, 訓民正音 解例 作者의 說明에 依하

면, 두가지로서,

가) 혀의 伸縮의 程度

나) 입술의 蹙張의 程度

<單母音>

'혀의 伸縮'은 "不縮—少縮—縮"의 세 段階로 辨別되어 있는데, "不縮"은 前舌·高(前高) 母音의 혀의 狀態를 表現한 것이고, "縮"은 그와 正反對 方向인 後舌·低(後低) 母音의 혀의 狀態를 表現한 것이고, "少縮"은 그 中間 段階를 表現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點은, 앞에서 이미 說明한 事實이다.

'입술의 蹙張'은 "蹙—(中位)—張"의 세 段階로 辨別되어 있는데, '蹙'은 圓唇 母音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나, 圓唇性은 後舌性에 隨伴되어 나타나는 것이 普遍的인 傾向이다. 그러므로 '前舌+圓唇'이나 '後舌+平唇'의 母音은 그리 흔하게 나타나지 않고, 一般的으로는 '前舌+平唇'과 '後舌+圓唇'의 母音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口蹙을 圓唇으로 解釋하는 同時에 여기 非辨別的 資質로서 多少의 後舌性이 加味되어 있었던 것으로 解釋하는 것이 妥當하리라 생각된다.

'口張'은,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位置가 다 口蹙 母音의 反對 方向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平唇이요 혀는 若干 앞으로 나가는 소리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두가지의 辨別的 資質이 세 段階로 辨別되므로, 理論的으로는 아홉의 母音이 可能하나, "舌不縮"에 있어서는 口의 蹙張 資質은 中和되므로(辨別的으로 作用 못하므로) 결국 일곱의 母音이 나타나게 된다.

舌 \ 口	張	(中位)	蹙
不縮		ㅣ	
少縮	ㅓ	ㅡ	ㅜ
縮	ㅏ	ㆍ	ㅗ

그런데 우리들의 現代 音韻學的 知識으로서는, 입술의 圓平이 세 段階로서 辨別的으로 作用하는 일은 생각하기 困難하다. 그러므로 'ㅁ'는 蹙張의 두 段階로만 辨別하는 것이 妥當하겠는데, /으/:/어/, /ㅇ/:/아/가 蹙張으로 辨別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어/, /아/는 張이나, /으/, /ㅇ/를 蹙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母音中, /우/, /오/만이 圓唇이므로, /우/:/으/와 /오/:/ㅇ/를 蹙張의 對立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들 母音과 /어/, /아/와의 對立은 어떠한 資質로 辨別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가 남은 문제이다.

앞에서도 잠깐 말한 바와 같이, 蹙은 間隙이 작아지며 後舌性을 수반하는 一般的인 傾向이 있고, 그 反對로 張은 間隙이 커지며 前舌性을 수반하는 傾向이 있다. 따라서 ㅁ張의 /아/, /어/와 다른 母音들과의 對立을, 혀의 前後·低高 位置에 依해서 辨別된 것으로 보는 것이 妥當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音韻學的 解釋 方法에 土臺를 두고 7 母音의 辨別的 資質을 再調整 排列하면(/이/는 'ㅁ'의 資質에 關해서 中和的이므로 여기에서 除外한다),

辨別的資質	前(低)舌	後(高)舌	
		平 唇	圓 唇
高 (前) 舌	ə (ㅓ)	ï (ㅡ)	u (ㅜ)
低 (後) 舌	a (ㅏ)	ʌ (·)	o (ㅗ)

/ㅓ/:/ㅏ/, /ㅡ/:/·/, /ㅜ/:/ㅗ/는 高低性으로 對立되는데, 前後性이 이에 수반된다.(/ㅏ, ·, ㅗ/는 /ㅓ, ㅡ, ㅜ/ 보다 /이/에서 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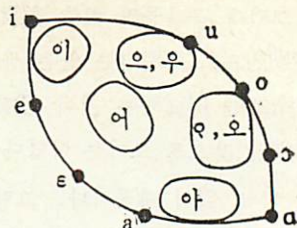
/ㅓ/와 /ㅡ, ㅜ/, /ㅏ/와 /·, ㅗ/의 對立은 혀의 前後性으로 對立되는데, 低高性도 이에 수반된다.('張'은 低·前의 方向을 取한다.)

이러한 關係는 좀더 正確한 母音圖(다음 페지)로 보면, 理解되는 일이다.[8]

여기에서 우리는, /어/:/아/, /으, 우/:/ㅇ, 오/의 高低性에 수반되는 前

(8) 이 타원의 元形은 D. Jones: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p. 36에 依함인데, 여기 국어 모음을 定位시켜 보았다.

後性을 剩餘的 資質로 보고, 同時에 /어/:/으, 우/, /아/:/ᄋᆞ, 오/의 前後性에 수반되는 低高性을 剩餘的 資質로 보면, 그 辨別的 資質은 다음과 같이 된다.



辨別的資質	前舌	後舌	
		平脣	圓脣
高舌	ə (ㅓ)	ï (ㅡ)	u (ㅜ)
低舌	a (ㅏ)	ʌ (·)	o (ㅗ)

附說 1. 勿論 여기에 말하는 高·低, 前·後는, 이 여섯 母音에만 限한 相對的 意味로 取해져야 한다. 卽 高舌은 低舌보다 높다는 뜻이지, 閉母音을 의미함은 아니며, 前舌도 後舌보다 앞쪽이란 뜻이지, 바로 前舌母音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附說 2. 母音의 辨別的 資質을 이렇게 해석하고 나면, /ï/:/u/, /ʌ/:/o/는 如前히 「圓脣性(口蓋)의 相關」을 形成하는 것이나, /ï/:/ə/, /ʌ/:/a/는 이제는 有無 對立이 되지 못하므로 相關을 形成하지 못하며, 따라서 母音의 相關束도 形成되지 않는다.

/ə/:/a/, /ï/:/ʌ/, /u/:/o/는 如前히 相關을 形成하지 못한다. 혀의 高低에 依한 對立은 有無的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時期의 母音은 세 系列(série)로 되었으며, /i/를 여기 넣어 보면 序列(ordre)도 亦是 셋이 된다. 따라서 이 母音 組織은 「三序 三系 組織」(système vocalique à trois degrés et à trois classes) 이다.(9)

(9) 母音 組織에 대한, 이와 다른 見解에 대해서는, 金完鎭 : 國語母音體系의 新考察 (진단학보, 24호) 참조.

緊張 母音의 /i̤/(여)는 이 組織안에 잘 定位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音素는 不安定하다.

<重母音>

/w/ 半母音은 /a/, /ə/에만 先行할 수 있고, /j/, /j̤/ 半母音은 /a/, /ə/와 /u/, /o/에 先行할 수 있다.

/j/ } + /a/, /ə/, /o/, /u/,
/j̤/ }

/w/+/a/, /ə/ — —

이 二重 母音들은 모두 **上昇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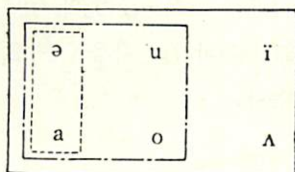
/i/를 除外한 다른 여섯 單母音에 半母音 /j/가 後續하여 여섯의 **下降的** 二重 母音을 形成한다.

/ʌ/, /ï/, /o/, /u/, /a/, /ə/ + /j/

그리고 上昇的 二重 母音에 다시 /j/가 後行하여 **三重 母音**이 된다.

/ja, jə, jo, ju/ } +/j/
/wa, jə/ }

二重母音 { 上昇的……6 (그 밖에 緊張 重母音 4)
　　　　 { 下降的……6
三重母音………………6



……/w/(先行) 區域 (2) } 上昇的 二重母音 (6)
-·-·/j/ (先行) 區域 (4) }

——/j/ (後行) 區域 (6)…下降的 二重母音 (6)

上昇的 二重母音+/j/…三重母音(6)

緊張 半母音 /j/의 先行 區域도 緩弛의 /j/와 一致한다. 다만 이 二重 母音에는 /j/가 다시 後行하여 三重 母音을 만들 수는 없다.

(2) 子音의 組織

22 子音의 辨別的 資質에 依한 分類表를 만들면 다음과 같이 된다.

(/ʔ/는 除外)

辨別的 資質		兩唇性		舌端性				後舌性	喉頭性
		停止	摩擦	停止	破擦	摩擦 無聲	摩擦 有聲		
障碍性	軟	p	β	t	č	s	z	k	
	硬	p'		t'	č'	s'		k'	h'
	氣	p^h		t^h	$č^h$			k^h	h
響性	鼻	m		n				ŋ	
	流			l					

(/h'/는 喉頭에서 나는 일은 없으나 /h/와의 關聯으로 여기 넣어 두었다.)

이 22 音素는 現代語의 19 子音 音素에 /β/, /z/, /h'/의 세 音素가 더 있는 것인데, 그 짜임새는 대체로 현대어의 경우와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以上의 說明을 省略한다.(10)

複合 子音은 「ㅼ」을 除外하면, 모두 障碍音 끼리로써 形成되어 있음이 特色이요, 그 中에도 「ㅳ」를 除外하면, 모두 軟音만으로 形成됨이 그 特色이라 할만하다.

또 그 連結의 調音 位置的 特色을 보면, 「兩唇—舌端—後舌」의 順序에서 한 位置를 뛰어 넘어 連結되는 일은 없다. 卽 兩唇의 /p/ 다음에는 舌端音만이 直結될 수 있고, 後舌音은 直結되지 않는다.

兩唇—舌端 : /pt, pč, ps/, /pt^h/

兩唇—舌端—舌端 : /pst/

兩唇—舌端—後舌 : /psk/

「ㅅ」系에 있어서도,

舌端—兩唇 : /sp/

---

(10) 「Ⅱ, 2, 3), (2) 子音 組織」(pp. 205—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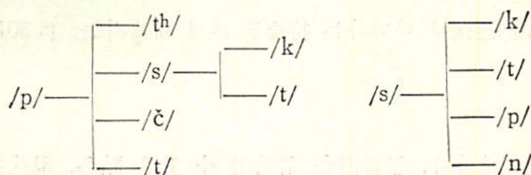
舌端—舌端 : /st/, /sn/

舌端—後舌 : /sk/

軟音 中, 直接的으로나 間接的으로, /p/에 連結될 수 없는 子音은 /β/, /z/ 둘 뿐인데, 이 두 音素는 母音이나 響音 사이에서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軟音 中, /s/에 달아날 수 없는 音素는, 위의 /β/, /z/ 以外에, 同類의 齒音인 /č/ 뿐이다. 「ㅆ」은 15세기에는 나타남이 없다.

複合 音素의 連結表: (/th/, /n/ 以外는 모두 軟音)



4) 音 節

한 音節은 中聲(音節核)만으로 形成되는 것도 있고, 初聲과 中聲으로 되는 것, 中聲과 終聲으로 되는것, 初聲과 中聲과 終聲으로 되는 것도 있음은 現代語의 경우와 한가지다.

<初聲>

初聲이 될 수 있는 子音은; 單子音 22, 複合 子音 10, 모두 32 子音 音素인데, 이 中에서 語頭에 나타날 수 없는 것은,

1. /β/, /z/

2. /h'/, /s'/를 除外한 모든 硬音 /p', t', č', k'/

3. 響音의 /l/, /ŋ/이다.

附記 1. /l/는, 表記法으로는,

러울爲獺 (訓民正音 用字例)

내 롱담ᄒᆞ다라 (釋 6 : 24)

驢는 라귀라 (月印 21 : 75)

와 같이 初聲으로 쓰인 데가 있기는 하나, 이런 例는 極히 드물고,

鐵 나귀와… (月印 21 : 45)

에서처럼, 오히려 /l/ 音素가 發音되는 자리에서도 「ㄴ」을 쓰고 있음을 보면, 語頭의 「ㄹ」은 語源 意識의 所致로 돌릴 수 있을 줄로 생각된다.

附記 2. /z/가 語頭에 나타나는 特殊한 例에 대해서는, p. 301 註 25 참조.

初聲과 그리고 語頭에까지, 子音群을 許容할 수 있은 點은, 現代語와 매우 다른 特色이다.

<中 聲>

中聲이 될 수 있는 母音 音素는:

1. 單母音…8 (緊張 母音 「ᅇᅥ」를 合하여)

2. 重母音
   - 二重母音
     - 上昇的
       - 緩弛…6
       - 緊張…4
     - 下降的 ……… 6
   - 三重母音…………………… 6

모두 30이 된다.

이 中에, 初聲과 連結될 수도 없고, 語頭에 설 수도 없는 것은, 緊張(半)母音 「ᅇᅧ, ᅇᅣ, ᅇᅧ, ᅇᅭ, ᅇᅲ」이다.

<終 聲>

訓民正音 終聲解에,

"ㄱㆁㄷㄴㅂㅁㅅㄹ 八字可足用"

이란 말이 있다. 現代語의 終聲은 一般的으로는 일곱을 헤아리며, 「ㄷ」 終聲 다음에 /ㅅ/이 달아날 때에 限해서 /ㅅ/이 終聲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8 終聲은 현대어의 終聲과 合致되는것 같으나, 그 當時의 「ㅅ」 終聲의 用法은, 반드시 현대어에서 /ㅅ/ 終聲이 쓰이는 자리에만 나타나지 않고, 다음에 다른 子音이 올 경우에도 쓰이고 있다.

엇뎨, 옷과, 뒷더니, 니엣고 等等

이러한 用例의 終聲 「ㅅ」은 현대어로서는 /t/ 音素가 나타나는 位置인데, 이런 말에서는 「ㄷ」은 쓰이는 일이 없고, 「ㄷ」 終聲은,

받줍고, 듣고, 걷다니 等等

따위에 쓰이는데, 여기 「ㅅ」을 쓰는 일은 없다.

이로 보면, 현대어의 內破音의 [t']가 나타나는 자리에, 「ㄷ」과 「ㅅ」이 째 整然하게 分別 使用되어 있으니, 이러한 表記法은 單純한 語源的 意識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일이며, 어떠한 音聲的 差異를 바로 反影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ㅅ」系 並書의 音價를 論하는 자리——pp.327~30——에서 說明하였음.) 따라서 終聲은 여덟이다.

현대어에서는, 終聲에 子音群을 許容하는 일은 없어서, 「ㄻ, ㄺ, ㄼ」 따위 둘 받침은, 終聲으로는 ——發音에 있어서는 ——한 소리만이 나타나게 되는데, 15세기의 表記法을 보면, 이러한 몇몇 子音群은 바로 그대로 終聲으로 發音되지나 않았을가 추측된다.

「ㄺ」: 흙, 둙

「ㄻ」: 옮디, 옮겨, 옮ᄂᆞᆫ뇨미

「ㄼ」: 볿디, 볿뎟

<初·中聲의 連結>

初·中聲의 連結로서, 現代語에 있어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15세기에는 나타날 수 있었던 것들 中 두드러진 것을 들어 보면,

1. /p/, /p^h/, /m/와 같은 兩唇音에 /ï/가 連結될 수 있어서, 이 자리에서 /ï/와 /u/는 中和되지 않는다.

   블(火), 플(草), 믈(水), 쁠(角). cf. 불다(吹), 품(懷), 무릅(膝), 뿐(만)

2. 舌端音 /t, t^h/에 /j/ 重母音이 連結될 수 있다.

   댱가(婚), 댱샹(長常), 댱ᄉᆞ(商), 뎡바기(頂), 뎌러ᄒᆞ-, 뎌(彼), 둏-(好), 듐(「디-」의 名詞形), 텨(「티-」(打)의 副詞形), 튬(「티-」의 名詞形).

3. 舌端音 /s, č, $č^h$/에 /j/ 重母音이 自由롭게 連結될 수 있어서, 이 자리에서 /a, ə, o, u/와 /ja, jə, jo, ju/가 辨別的으로 機能한다.

   (이 例는 앞에서 이미 들어보였다.——p. 353 참조)

4. /ïj/ 重母音은 不安定하지 않아서, 여러 子音에 連結될 수 있다.

   긔별(消息), 듸(所), 띄(帶), 믜-(憎), 싀-(酸), 츼-(偏), 킈(身長), 희-(白)

5. 語頭에서 /i, j/ 앞에 /n/가 連結될 수 있었다.

3. 音素 變動[1]

現代語의 경우에서와 같이,[2] 그 變異의 條件이 音聲的인 同系的 變異形態의 音素 變動에 관한 事實을 說明하기로 한다.

1) 歸　着

한 形態素의 끝 子音은, 子音 앞이나, 休息 앞에서는, 8終聲의 어느 하나

(1) 韻素의 變動은, 다음 章「韻素論」에서 說明되겠기로, 여기에서는 오로지 音素의 變動에 局限해서 說明하기로 한다.

(2)「Ⅱ, 4. 音韻의 變動」(p. 234 以下) 참조.

로 歸着되는데, 現代語와 다른 點은; 첫째, 歸着될 子音의 數가 하나 많다는 것과, 둘째, 複合 終聲이 正規的으로 容認된다는 點이다.

/ks/ →	/k/
셕슬(纓, 용 58)	ᄆᆞᆯ셕 잡고(杜 8 : 27)
낙ᄉᆞᆯ(釣, 永가下 77)	낛주를(杜 6 : 31)
/ps/ →	/p/
갑ᄉᆞ로(價, 月印 2 : 63)	내 값과(月印 8 : 94)
업스샤ᄃᆡ(無, 용 80)	업거늘(용 20)
/pʰ/ →	/p/
니페ᄂᆞᆫ(葉, 杜 15 : 7)	닙괘(釋 13 : 47)
이푸믈(吟, 永가 下 106)	닙던(杜 6 : 34)
/tʰ/ →	/t/
바ᄐᆞᆯ(田, 석 9 : 19)	받 두들근(杜 15 : 6)
山 미틔(底, 용 58)	믿과(석 13 : 14)
/č/ →	/s/
고ᄌᆞ란(花, 月印 1 : 9)	곳과ᄅᆞᆯ(月印 1 : 37)
고잿ᄂᆞ니(挿, 杜 8 : 35)	곳고(月印 10 : 119)
/čʰ/ →	/s/(3)
그츠며(絕, 석 9 : 16)	긋디(석 13 : 57)
미츠리라(及, 석 13 : 43)	밋과라(杜 15 : 43)
/sk/ →	/s/
밧기라(外, 月印 1 : 1)	城밧 甘蔗園(月印 1 : 6)
깃그시니(喜, 용 27)	깃ᄉᆞᄫᆞ니(용 41)
/st/ →	/s/
맛ᄃᆞ시릴ᄊᆡ(용 6)	부텨 이ᄅᆞᆯ 맛ᄂᆞ니(楞 8 : 28)

(3) 「좇-」(從)의 終聲은 /t/로 歸着하여, 다음의 /č/를 된소리로 바꾸는 일도 있다.
졷ᄌᆞᄫᅡ (석 13 : 45), 조ᄍᆞᄫᅡ (月印 7 : 5)

/nč/ → /n/(s)

안ᄌᆞ니(坐, 용 7) 안써나(석 19 : 5)

안ᄯᅥ(釋 6 : 10), 앉고(月印 7 : 20)

2) 同 化

子音 接變: 현대어와 달랐으리라고 추측될만한 事實을 發見하지 못했다. {ᅀᆞᆸ}의 /s/가 終聲 /t/에 連結될 때는 /č/로 바뀌는데, 이것은 /t/+/s/→[ts]/č/가 되기 때문이다.(4)

받ᄌᆞᄫᆞ니라(捧, 용 6?) ᄌᆞᆾᄌᆞᆸ거늘(용 36, 註 3 참조)

듣ᄌᆞᆸ게(석 13 : 17), 몯ᄌᆞᆸ더니(용 66), 얻ᄌᆞ바(용 27), 等等.

有聲音 間에서 有聲化: /s/가 有聲音 間에서 有聲化하여 /z/로 變動하는 事實에 대해서는 이미 詳細히 說明한 바이다.(5)

/ㄷ, ㅂ/의 間隙 同化: 「ㄷ」變格 用言의 語幹 末音 /ㄷ/이 母音 사이에서 /ㄹ/로 바뀜은 현대어의 경우와 같고, 「ㅂ」變格 用言의 語幹 末音의 /ㅂ/이, 母音(또는 /ㄹ/)과 母音 사이에서, /ㅸ/으로 變하는 事實은 앞에서 說明한 바이다.(6)

3) 縮 約

「그리-」+「-어」→「그려」, 「오-」+「-아」→「와」 따위 縮約은 현대어의 경우와 같다.(7)

---

(4) {ᅀᆞᆸ}의 變動에 對해서는, 許雄 : 國語尊待法 硏究(中世國語硏究) 참조.

(5) 「Ⅱ, 1, 2), (1) 失音字」의 「ᅀ」 條 참조.(p. 298 以下)

(6) 「Ⅲ, 1, 2), (1) 失音字」의 「ㅸ」 條 참조.(p. 286 以下)

그리고 「ㅂ~ㅸ」의 變動은 /p/→/β/로 보고 說明하였으나, 엄격하게 記述言語學的인 觀點으로 말하면, /β/→/p/로 說明하는 것이 便利하다. 왜그러냐 하면, /p/→/β/로 說明하려면, 모든 語幹末의 /p/는 죄다 母音 위에서 /β/로 變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變異는 個別的인 (形態的인) 變動으로 說明해야 하나, /β/→/p/로 說明하게 되면, /β/는 子音 앞에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이 變動은 一般的인 것으로 說明된다. 個別的 變動은 不規則이어서 說明을 複雜하게 하나, 一般的 變動은 規則的이므로 說明이 簡明해진다.

(7) 許雄 : 龍飛御天歌(註解) p. 115 참조.

3. 音素 變動

母音으로 끝나는 體言 밑에 助詞 「-이」가 붙으면, 한 音節로 縮約된다.(8) (指定詞의 경우도 한가지다).

나(我)+이→내(용 94), 부텨+이→부톄(석 9:1),

쇼(牛)+이→쇠(月印 1:24), 거우루+이→거우뤼(杜 21:35);

아뫼어나(月印 1:13), 풍뤼라(月印 2:17), 양지라(月印 8:21),

부톄시니라(석序 1)

體言이 漢字語일 경우에는 이러한 縮約 현상을 표시하기 위해서 「ㅣ」를 따로 적는다.

聖化ㅣ(용 9), 變化ㅣ(용 60), 聲教ㅣ(용 56);

濟渡ㅣ라(月印 1:11), 怨讐ㅣ라(月印 1:6)

用言의 副詞形에 「-잇-」(-이시-)이 連結되면 縮約 현상이 일어난다.(9)

수머(隱)+잇-→수멧던(용 86)

나가(出)+잇-→나갯더시니(용 49)

펴(開, ←프+어)+잇-→펫더니(月印 1:21)

안자(坐)+잇-→안잿더시니(月印 1:2)

ᄆᆞ독ᄒᆞ야+잇-→ᄆᆞ독ᄒᆡᆺ다가(月印 1:42)

이것은 縮約 안된 元形에로의 復歸가 可能한 任意的 變動이었던듯 하여, 元形도 쓰인 데가 있다.

안자잇더시니(月印 1:6), 두퍼잇고(月印 1:34),

現ᄒᆞ야잇ᄂᆞᆫ(석 13:50), 위두ᄒᆞ야잇ᄂᆞ니라(月印 1:31)

使役이나 被動 또는 副詞 만드는 {i} 形態素도 開音節 밑에서는 그와 縮約된다.

「보-」(見)+「-이-」→뵈니(용 36), 뵈요리라(석 13:49)

「셔-」(立)+「-이-」→셰시니(용 11), 셰요ᄃᆡ(月印 21:29)

「나-」(出)+「-이-」→내시니이다(용 8), 내면(석 19:20)

(8) 같은 책, pp. 9—13 참조.
(9) 같은 책, p. 209 참조.

「하-」(多)+「-이」→해(月印 21 : 4)

「오라-」(久)+「-이」→오래(月印 1 : 8)

「ᄌᆞ라-」(足)+「-이」→ᄌᆞ래(月印 7 : 25)[10]

/k, t, p/는 /h/와 接觸되면, 氣音으로 縮約된다.

「넙-」(廣)+「-히-」→너피실씨(月印 7 : 59)

「닙-」(被)+「-히-」→니피수ᄫᆞ니(용 29)

「안ㅎ-」(內)+「밧ㄱ-」(外)→안팟기(석 9 : 4)

4) 省略(脫落)

「가-」(行), 「셔-」(立)와 같이 /a/나 /ə/로 끝나는 語幹에, 副詞形 語尾 {아/어}가 連結되면 그 中의 한 母音이 省略된다. 그런데 이것은 元形에로의 復歸가 可能한 任意的 變動이다.[11]

山行 가이셔(용 125)

風이 나(楞 4 : 18)

人間애 나아(석 9 : 12)

ᄂᆞ려가아(月印 2 : 10)

「ㄹ」變格 用言의 末音 /ㄹ/은 現代語와 같이 特定한 音 위에서 줄어지는데, /t/, /s/, /z/ 위에서 規則的으로 줄어지는 點이 現代語와 다르다.

「놀-」(遊): 노더니(月印 21 : 206), 노더니이다(月印 21 : 190)

「울-」(泣): 우ᅀᆞᆸᄂᆞ니(용 56)

語幹의 끝소리가 /ᆞ/나 /으/인 用言은, 그 다음에 母音이 連結되면, 그 끝소리는 줄어진다. (이것은 現代語의 「으」, 「르」 變格과 같으므로, 여기에서는 몇가지 例만을 들어 둔다.)

「ᄐᆞ-」(乘)+「-아」→虛空 타(月印 9 : 36 下)

---

(10) 같은 책, p. 78 참조.

(11) 같은 책, p. 117 참조.

「ᄡᅳ-」(辛)+「-어」→ᄡᅥ 몯 좌시며(月印 2 : 25)[12]

「모ᄅᆞ-」(不知)+「-아」→몰라(용 60)

「다ᄅᆞ-」(異)+「-아」→달아(訓正)[13]

「비ᅀᅳ-」(飾)+「-우-」→빗우믈(永가 下 137)

「ᄇᆞᄅᆞ-」(塗)+「-오-」→ᄇᆞᆯ로매(永가 下 18)[14]

「ᄲᆞᄅᆞ-」(急)+「-이」→ᄲᆞᆯ리(月印序 10)

「오ᄅᆞ-」(登)+「-이-」→ᄆᆞᄅᆞᆯ 올이샤(용 48)

語幹의 끝소리가 「ᄅᆞ/르」인 말에 있어서는, 「ᄋᆞ/으」가 줄고 남은 「ㄹ」은 [l] 音으로 發音된듯 하여, 「ㄹ」을 받침으로 쓰는 것이 原則인데, [l] 音을 표기하기 위한 또 한가지 方法은 「ㄹㄹ」 [ll]을 使用하는 것이었다.

體言의 경우에도, 母音으로 始作되는 助詞가 붙을 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15]

「노ᄅᆞ」(獐)+「-이」→놀이(용 43)

「ᄒᆞᄅᆞ」(一日)+「-ᄋᆞᆫ」→ᄒᆞᆯᄅᆞᆫ(月印 1 : 51)

「ᄒᆞᄅᆞ」+「-이어나」→ᄒᆞᆯ리어나(석 9 : 31)

「ᄀᆞᄅᆞ」(粉)+「-이」→ᄀᆞᆯ리(月印 1 : 29)

「아ᅀᆞ」(弟)+「-이」→아ᅀᅵ(용 103)

「여ᅀᅳ」(狐)+「-이」→엿이(月印 2 : 76)

이 경우에 體言의 끝이 「ᅀᆞ/ᅀᅳ」, 「ᄅᆞ/르」인 말에 있어서는, 남은 「ㅿ」과 「ㄹ」은 받침으로 남게 되는데, 이것은 이 소리가 終聲으로 發音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우리는, /ㅿ/이 終聲으로 發音될 수 있었음과, 이 경우의 「ㄹ」은 終聲의 [l]로 發音되었던 것으로 추측한다. [l]이 「ㄹㄹ」로 表記되는 일이 있었음도 用言의 경우와 한가지인데, 「ㄹㅇ」과 「ㄹㄹ」의 表記는 대체로 낱말에 따라 一定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ᄋᆞ/으」를 끝소리로 하는 體言中에는, 이 끝소리가 위와 같은 條件下에

(12) 같은 책, p. 114 참조.
(13) 같은 책, pp. 114—5 참조.
(14) 許雄 : 「人稱・對象 活用」(中世國語硏究) 참조.
(15) 龍歌 註解 pp. 11, 13, 16 참조.

서도 줄지않는 낱말이 있다.

눉ᄌᆞᅀᅵ 감ᄑᆞᄅᆞ며(月印 2 : 41)

양ᄌᆡ 셩가시더니 (月印 1 : 42)

「ㅎ」을 끝소리로 가진 體言은, 그 다음에 母音 助詞나 /ㄱ, ㄷ, ㅂ/ 따위로 비롯하는 助詞가 오지 않으면 줄어진다.(16)

자爲尺(訓解)←자ㅎ-, 긼 ᄀᆞᅀᆡᆺ(용57)←길ㅎ(道)

合成語의 경우, 아랫말의 첫소리가 氣音으로 될 수 있는 軟音일 때는, 그 軟音이 氣音으로 變한다.

안ㅎ-+밧ㄱ- → 안팟ㄱ-

下降的 二重 母音이나, 三重 母音으로 끝난 用言의 語幹에 {아/어}, {오/우} 형태소가 붙을 때는, 이 형태소가 「-야/여」, 「-요/유-」로 變하는데, 이 경우에 때로는 語幹의 끝 /j/ 半母音이 줄어지는 일이 있다. 이것도 元形에로의 復歸가 可能한 任意的 變動이다.(17)

「ᄀᆞᆯᄒᆡ-」(選)+「-아」→ᄀᆞᆯᄒᆡ야→ᄀᆞᆯᄒᆞ야(석 13 : 46)

「뮈-」(動)+「-어」→뮈여→무여(杜 20 : 20)

「ᄀᆞᆯᄒᆡ-」(選)+「-오-」→ᄀᆞᆯᄒᆡ요-→ᄀᆞᆯᄒᆞ요ᄃᆡ(석 19 : 16)

「메-」(負)+「-오-」→메요-→머요매(杜 16 : 66)

같은 條件의 體言에 處所格 助詞 {에}가 붙을 때도 이것이 「-예」로 바뀌는데, 亦是 體言의 끝 /j/ 소리가 줄어지는 일이 있다.(18)

홰(綂)+에→홰예→화예(月印 2 : 33)

막대(杖)+에→막대예→막다예(杜重 2 : 6)

(杜詩諺解 重刊의 例는 여기 적합하지 않으나, 15세기 中期에도 이러한 變動이 있었으리란 것은 充分히 추측할 수 있는 일이다).

調聲 母音의 「ᄋᆞ/으」는 母音 밑에서는 줄어진다.(19) (이것은 현대어의 경우와

---

(16) 같은 책, p. 27 以下, 特히 p. 31 참조.

(17) 같은 책, pp. 102, 117 참조.
그리고, 「Ⅲ, 1, 2), (2) 變音字」의 「애, 에, ᄋᆡ……」條 참조.(pp. 346—7)

(18) 龍歌 註解 p. 21 참조.

(19) 調聲 母音을 取하는 語尾나 助詞는, 兩形中(取함과 取하지 않음) 調聲 母音을 取

갈기로 說明은 省略한다.)

助詞 {과}는 母音과 /ㄹ/ 밑에서는 /ㄱ/이 脫落하여 「-와」로 變異된다. (이것도 거의 현대어와 같으나, 다만 /ㄹ/ 밑에서도 줄어지는 點이 다를 뿐이다).

입시울와 혀와 엄과…(석 19 : 7)

語尾 {거}, {게}, {고} 따위는, /ㄹ/이나 /j/나, 또는 指定詞의 {이}, 未來의 {리} 밑에서는 /ㄱ/이 脫落한다.[20]

「ᄀᆞᆯ외-」(並)+「-거늘」→ᄀᆞᆯ외어늘(용 4)

「알-」(知)+「-고져」→알오져(석 13 : 33)

「밍ᄀᆞᆯ-」(造)+「-고」→밍ᄀᆞᆯ오(석 9 21)

「어딜-」(賢)+「-게」→어딜에(月印 1 : 19)

「-이-」(指定詞)+「-거늘」→하ᄂᆞᆯ히어늘(용 120)

「ᄣᅥ러디리-」(落)+「-거늘」→ᄣᅥ러디리어늘(月印 21 : 104)

/i, j/를 끝소리로 한 體言에서는, 主格 助詞나 指定詞의 {이}는 줄어진다.[21]

엄니 ᄒᆡ오(月印 2 : 41)

ᄇᆡ 업거늘(용 20)

狗ᄂᆞᆫ 가히라(月印 21 : 42)

根은 불휘라(月印序 21)

그런데 이 경우에, 體言의 끝 音節이 平聲일 때는, 그 主格形(指定詞 連結形)은 上聲이 된다.[22]

ᄃᆞ리(平平, 橋) — ᄃᆞ:리(杜 25 : 8, 主格形), ᄃᆞ:리라(月印 21 : 77)

ᄆᆞᄃᆡ(平平, 節) — ᄆᆞ:ᄃᆡ(月印 2 : 56, 主格形), ᄆᆞ:ᄃᆡ며(석 9 : 8)

한 편을 基本 形態로 삼는다. 萬一 取하지 않은 편을 基本으로 삼으면, 어떠한 것이 이것을 取하게 되고, 어떠한 것이 取하지 않는지 一般的으로 說明하기 困難하나, 取한 편을 基本으로 삼으면, 「ᄋᆞ/으」를 첫머리에 가진 形態素는 母音 밑에서는 一律的으로 「ᄋᆞ/으」가 줄어진다고 說明될 수 있다.

(20) 龍歌 註解 pp. 40—1 참조. 이에 대한 자세한 說明은 「Ⅳ, 2, 1), (1)」의 「同化」條 보라.(p. 470—5)

(21) 같은 책. pp. 12, 13 참조.

(22) 許雄 : 旁點硏究(中世國語硏究, p. 273) 참조.

이 現象은, 體言 自體의 韻素 變動이, 다음에 오는 形態素의 ㅣ無形의 變異 形態」[23]의 存在를 暗示해 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 形態素의 無形의 變異 形態의 存在가, 그와 隣接해 있는 다른 형태소의 變異로써 認知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變異 形態의 이웃 돕기」라 하여 둔다.[24]

人稱 活用의 {오/우} 형태소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卽 /아, 어, 오, 우/ 다음에서는 {오/우}는 無形의 變異 形態로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이엄(楞 4 : 21), ᄇᆞ라ᄆᆞᆯ(杜 7 : 7)

cf. 이어오미(楞 4 : 18), 일우오ᄆᆞᆯ(月印 8 : 61)

그 中에도 特定한 語幹에 연결될 때는 그 語幹이 韻素 變動을 일으켜 {오/우} 형태소의 存在를 암시해 준다. 「가-」(行), 「오-」(來), 「주-」(與) 따위 語幹은 平聲이나 去聲인데, {오/우}의 無形의 變異 形態가 연결될 때는 上聲으로 變動한다.[25]

:가·미(석 9 : 21), :녀·미(석 9 : 21), :나·ᄆᆞᆯ(석 9 : 16),

:두·미(月印序 22), :주·ᄃᆡ(석 19 : 3), :하·ᄃᆡ(용 13)

語幹의 韻素 變動이 그 이웃 形態素의 存在를 暗示해준 것이다.

「나모」(木), 「구무」(穴), 「녀느」(他人) 따위 말은, 母音 助詞(母音으로 첫소리 삼은 助詞)가 붙으면, 各各 「낡-, 굶-, 년ㄱ-」으로 變動한다.(調聲 母音을 取하는 助詞는, 그 取한 편을 基本으로 삼기 때문에, 이러한 助詞도 모두 母音 助詞에 든다).

나모 : 나못 일후미오(月印 1 : 24), 나모 바ᄀᆞᆫ(杜 15 : 1), 나모와(용 86)

낡- : 남기(용 84), 남ᄀᆞᆫ(용 86), 남ᄀᆡ(용 84), 남ᄀᆡ셔(楞 3 : 25)

---

(23) 許雄 : 言語學槪論 p. 178 참조.

(24) 이 현상은 變異音의 差異가, 그 이웃의 音素의 存在를 두드러지게 해주는 것과 비슷하다.
'變異音의 이웃 돕기'에 대해서는, pp. 126, 165, 170을 참조할 것.

(25) 「Ⅲ, 4, 3) 聲調型」 (p. 410) 참조.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다음 論文을 참조할 것.
許雄 : 人稱·對象 活用 (「中世國語硏究」 p. 130), 旁點硏究 (同書 p. 332)

例外 : 나모는(杜 6 : 41)

(「나모와」는 母音 위에 「나모」形이 쓰인것 같으나, 「-와」의 基本 形態는 「-과」이 다.)

구무: 구무돋해(月印 8 : 26), 구무마다(月印 21 : 5), 구무공=孔(字會 下 18)

굼-: 굼기(月印 2 : 51), 굼기라(月印 7 : 27), 굼글(杜 20 : 24), 굼긔(釋 13 : 10)

녀느: 녀느 아니라(楞 4 : 23), 녀느 夫人(月印 2 : 4)

녀ㄱ-: 녀기(용 48), 녀글(용 20)

불무: 불무질(杜 8 : 65), 불무야=冶(字會 下 16)

붊ㄱ-: 붊기라(金剛經三家解 2 : 28), 붊긔(杜 24 : 59), 붊글(杜重 2 : 47)

例外 : 불무를(杜 6 : 24)

그런데 이 兩形 中, 어느 쪽을 基本으로 하더라도, 다른 편으로의 變動이 合理的으로 잘 說明되지 않는다. 卽 「나모」→「낡」의 變動 方向을 取한다면, /ㅗ/의 脫落과 /ㄱ/의 添加가 合理的으로 說明되지 않으며, 그 反對로 「낡」→「나모」의 方向을 取하더라도, /ㄱ/의 脫落과 /ㅗ/의 添加가 合理的으로 說明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말이 單獨으로 쓰일 때는 「나모」 形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基本으로 定함이 좋다.

그러나 多少라도 그 基本 形態를 合理的으로 定하려면, 基本 形態를 「*나목, *구묵, *녀늑」으로 假定해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母音 위에서는 그 끝 音節의 母音이 줄어지고, 子音 위에서는 그 끝 子音이 줄어진다고 說明이 되어, 앞의 경우보다는 簡明한 解說이 可能하다. 이와 같이, 實地로는 存在하지 않으나, 그 變異 形態의 出現을 便利하게 說明하기 위해서 假想的으로 定한 基本 形態를 「假想的 基本 形態」(26)라 한다.

「시므-」(植)도, {오/우}, {아/어} 위에서는 「심ㄱ-」으로 變動하므로, 그 기본 형태를 *「시묵-」으로 假想할 수 있다. (「ᄌᆞᄆᆞ-」~「ᄌᆞᆷㄱ-」도 한가지다.)

시므- : 시므는(月印 21 : 39), 시므디(靈驗 5), 시므고(釋 19 : 33)

심ㄱ- : 심거(月印序 24), 심군(月印 21 : 147), 심고문(月印 10 : 4)

---

(26) 假想的 基本 形態는 「理論的 基本 形態」 (theoretical base form)라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Charles F. Hockett: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pp. 282—3.

5) 添　加

/i, j/ 다음에 오는 {아/어}, {오/우}, {에} 형태소(語尾, 助詞)는 各各 「-야/여」, 「-요/유-」, 「-예」로 變動하는데, 이것은 /i, j/와 다음 母音과의 사이에 나타나는 [j↓] 過渡가 한 單音으로 認知 強化된 結果이다.(27)

「뮈-」+「-어」→뮈여(月印序 2)

「ᄃᆞ외-」+「-아」→ᄃᆞ외야(月印 1 : 5) (28)

「비취-」+「-오-」→비취요미(月印 1 : 1)

「ᄀᆞᆯᄒᆡ-」+「-오-」→ᄀᆞᆯᄒᆡ요미(석 9 : 11)

「ᄉᆞᅀᅵ」+「-에」→ᄉᆞᅀᅵ예(月印 7 : 2)

「서리」+「-에」→서리예(용 4)

助詞 {ᄋᆞᆯ/을}, {ᄋᆞᆫ/은}은, 앞에 母音이 올 때에는 各各 /ㄹ/, /ㄴ/이 添加되어 「-ᄅᆞᆯ/를」, 「-ᄂᆞᆫ/는」이 된다. (이러한 현상도 현대어와 한가지이므로 說明을 省略한다).

「나모, 구무, 녀느」 따위 體言은, 그 다음에 母音 助詞가 올 때는,(29) 끝의 母音이 줄어지는 同時에 /ㄱ/이 添加된다. 이것은 省略과 添加가 同時에 일어난 현상이다.(30)

6) 사잇소리

有聲音 사이의 소리가 弱化함을 防止하기 위하여, 그 소리를 強化하여 된

---

(27) 龍歌 註解 pp. 20, 102, 116 等 참조. 그리고 또 이에 대한 자세한 說明은 「Ⅳ, 2, 1), (2)」의 「添加」條 참조. (p. 501—2)

(28) /j/로 끝나는 語幹 밑에서 {아/어}가 「-야/여」로 變하지 않은듯한 語形이 보인다.

ᄃᆞ외아지이다(月印 1 : 9)——cf. 들아지이다 (月印 7 : 4)

그러나 이 「-아」는 {가}의 /ㄱ/ 脫落形이지, {아/어} 형태소의 변이 형태는 아니다

(29) 調聲母音을 取하는 助詞도, 그 取한 편을 基本 形態로 삼았기 때문에, 母音 助詞에 들게 된다.

(30) pp. 390—1 참조. 그리고 龍歌 註解 pp. 14—5 참조.

소리로 내는 것은 현대어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는데, 15세기 국어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반드시 아랫소리가 된소리로 되지는 않고, 그 사이에 無聲의 休息(사잇소리)을 둔듯 하여, 여기 所謂 「사잇글자」를 넣어 表記한다. 이 사잇소리(無聲의 休息)는 입안의 여러군데를 막으면서 聲을 停止시켰던듯 하니, 龍歌에서는 사잇글자로서 「ㄱ, ㄷ, ㅂ, ㆆ, ㅅ, ㅿ」의 六字가 使用된다.[31]

[ㄱ] 讓兄ㄱ 뜯(용 99), 遮陽ㄱ 세쥐(용 88), 平生ㄱ 뜯(용 12),
兄ㄱ 쁘디(용 8)

[ㄷ] 몃間ㄷ 지븨(용 110), 君ㄷ字, 呑ㄷ字(訓)

[ㅂ] 사룸 쁘디리잇가(용 15), 侵ㅂ字, 覃ㅂ字(訓)

[ㆆ] 先考ㆆ 뜯(용 12), 快ㆆ字, 那ㆆ字(訓), 하눓 쁘디시니(용 4),
하눓 쁘들(용 86)

이 네 사잇글자의 用法을 보면, 그 위의 소리와 같은 序列에 속하는 軟音字를 使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이런 表記法으로 보면, 위의 소리의 나는 자리를 閉鎖하여 그 다음 소리와의 사이에 無聲의 休息 卽 사잇소리를 둔듯한데, 「ㅼ」과 같은 子音群 앞에도 사잇소리가 나타남을 보면, 사잇글자는 반드시 아랫소리를 된소리化한 것을 表記한 方便이었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더구나, 「몷빼」(訓民正音, 合字解) 로 보면 그런 추측은 한층 確實性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여러군데서 나는 無聲의 休息은, 舌端을 가볍게 잇몸으로 向하여 接近시키면서 休息을 取하게 되는 경향이 있은듯 하여(決定的으로 [s]소리를 냈다거나, 또는 決定的으로 [t']소리를 냈거나 하는 일은 없은듯 하다), 舌端音인 「ㅅ, ㅿ」이 龍歌에서부터 混用되기 始作하고, 그 뒤의 文獻에서는 「ㅅ」으로 統一되어 가는 傾向을 볼 수 있는데, 그 理由는 舌端이 諸 音聲 器官(能動部) 中에서 가장 敏捷하기 때문이었으리라 생각된다.

---

(31) 같은 책, pp. 36—9 참조.

野人ㅅ 서리, 狄人ㅅ서리, 님긊德, 하ᄂᆞᆳ벼리, 아바ᄂᆞᇝ뒤, ᄀᆞᄅᆞᇝᄀᆞᅀᆡ, 나랈일훔, 世子ㅿ位, 英主ㅿ알ᄑᆡ, 天子ㅿᄆᆞᅀᆞ믈, 우흻龍, 눉므를(龍歌에서)

萬里ㅅ外, 世尊ㅅ말, 善慧ㅅ德, 善慧ㅅ쁟, ᄌᆞ걋오ᄉᆞ란, 精舍ㅅ겨ᄐᆞ로, 西ㅅ녀근, 菩薩ㅅ고해(以上 月印釋譜 卷一에서)

(後期 文獻의 사잇소리 表記로 使用된 「ㅅ」은 決定的인 [s]音은 아니었을 것이며, 어떤 자리를 꼭 決定하지 않은 無聲의 休息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잇글자가 반드시 다음 소리를 된소리化하는 記號가 아니었음은, 母音 앞에서도 쓰임을 보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 사잇소리는 無聲의 休息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소리를 된소리로 바꾸기 쉬웠을 것은 勿論이다. 따라서 때로는 이러한 경우에 그 다음 소리를 雙書(된소리)로 表記한 데도 나타나 보인다.

니쏘리(訓), 혀쏘리(訓), 눈ᄍᆞᅀᆞ(楞 3 : 1)

冠形詞形 語尾의 「-ㅭ」의 경우도 한가지인데, 다만 이 경우에는 아랫 소리를 된소리로 내는 傾向이 더 強했던 듯하여, 아랫 소리를 雙書로 表記한 例가 더 많이 나타난다.[32]

7) 母音 調和[33]

現代語의 母音 調和는 기껏해야,

막아, 막아서, 막았다; 먹어, 먹어서, 먹었다

와 같은 語尾의 /아/~/어/ 變動으로 나타나고, 若干의 象徵語, 이를테면, 「팔락팔락~펄럭펄럭, 솔솔~술술」 따위에서 찾아볼 수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32) p. 335, p. 295 註 17 참조.

(33) 母音 調和에 대한 論文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李崇寧 : 母音調和研究 (진단학보 16호)

小倉進平 : 母音調和(「鄕歌及吏讀研究」 附論)

그러나 李朝 初期에 있어서는 各 形態素는 거의 例外 없이 同一 序列의 母音으로 成立되어 있으며, 助詞나 語尾의 첫머리의 變動되는 母音도, 現代語의 形態 音素인 /아/~/어/에만 局限되는 것이 아니라, /오/~/우/, /ᄋᆞ/~/으/의 形態 音素를 더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李朝 初期 言語를 理解하려면, 이 母音 調和 規則에 對한 知識이 必要하게 된다.

李朝 初期 文獻에 依하면, 그 當時의 單母音 일곱은,

陽性母音 아 ᄋᆞ 오

陰性母音 어 으 우

中性母音 이

의 세 序列로 나뉘는데, 陽性에 屬하는 母音이나, 陰性에 屬하는 母音이나, 그 나는 혀의 자리가 비슷한 點이 注目되나니,[34] 母音 調和란 결국 一種의 同化 作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重母音에 있어서는:

1. 陽性+陽性→陽性 ㅘ
2. 陰性+陰性→陰性 ㅝ
3. 陽性+中性→陽性 ㅐ, ㅚ 等
4. 陰性+中性→陰性 ㅔ, ㅟ 等

이 되는 것이다. 陽性과 陰性이 合해져서 重母音을 이룬 것은 없는데, 이것은 母音 調和의 性質上 當然한 歸結이다.

이리하여 한 形態素 內部에 있어서는 陰性母音과 陽性母音의 混在는 許容되지 않으며——中性母音은 兩便에 두루 調和된다——助詞나 語尾와 같은 形態部(意味部에 對한)[35]의 첫머리에 變動되는 母音이 있을 때는, 그 위의 母音이

(34) ㅗ與ㆍ同而口蹙 ㅏ與ㆍ同而口張
ㅜ與ㅡ同而口蹙 ㅓ與ㅡ同而口張(訓民正音 解例)
그리고 p. 376 母音圖 참조할 것.

(35) "morpheme"이란 말은 두가지 뜻으로 使用된다. 하나는 最小의 言語形式(linguistic form)이란 뜻으로 쓰이는 것이요, 하나는 意味部(sémantème)에 對한 文法的 關係를 表示하는 要素란 뜻으로 쓰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陽性일 때는 陽性系의 母音이 쓰이고, 그 위의 母音이 陰性일 때는 陰性系의 母音이 이에 交替되는 것이다.

〔形態素 內部에 있어서의 母音調和〕

(이것은 變動에 속하지 않는 문제이나, 便宜上 여기에서 說明해 둔다).

陽性母音끼리: ᄀᆞᄅᆞᆷ, ᄀᆞᄆᆞᆯ, 나라ㅎ, 나모, 도ᄌᆞᆨ, 다ᄉᆞᆺ, 마ᅀᆞᆫ, 노ᄅᆞᆺ, 말ᄊᆞᆷ, 다ᄅᆞ-, ᄇᆞ라-, 놀애, ᄀᆞᆯᄒᆡ-, 가마괴 等

陰性母音끼리: 굴헝, 구룸, 드르ㅎ, 스믈, 허믈, 브르-, 어듭-, 겨를, 여름, 여슷, 긔별, 번게 等

陽性과 中性: 가지, 가치, 기ᄅᆞ마, ᄃᆞ리, ᄉᆞᅀᅵ, 할미, 아비, 고티-, ᄇᆞ리- 等

陰性과 中性: 닐굽, 닐흔, 님금, 일훔, 머리, 므지게, 서리, 그리-, 구티-, 기드리-, 너기-, 비취- 等

中性母音끼리: 미리, 이기- 等

例外: 몬져, 져재, ᄒᆞ물며, 션ᄇᆡ, 어마님, 즁ᄉᆡᆼ, 목숨, 글ᄫᆞᆯ(36)

(여기에 보인 例는, 거의 다 龍飛御天歌에 나오는 말들인데, 龍歌에 局限한 理由는, 龍歌의 調和 現象이 가장 規則的이고, 그 뒷 時代의 文獻에서는 調和 現象이 破壞되기 始作하기 때문이다).

〔形態部 첫머리의 母音 變動에 나타나는 母音 調和〕

〔아～어〕: ① 몰라, 싸호아, ᄂᆞ라, 바사, 보내야, 아ᅀᆞᄫᅡ, 나ᅀᅡ오던댄～

前者의 경우에는 「形態素」, 後者의 뜻으로는 「形態部」라 하여, 兩者를 區別하기로 한다.

"곶이 븕다"

에 있어서, 「곶,-이,븕-,-다」는 各各 하나씩의 形態素이나, 이들 中 「-이,-다」만이 形態部이다.

(36) 事實上 끝의 세 말은 例外에 들지 않는다. 「즁ᄉᆡᆼ」은 漢字語 '衆生'에서 온 말일지니, 이것은 「즁」과 「ᄉᆡᆼ」 두 形態素의 合成이며, 「목숨」「글ᄫᆞᆯ」 亦是 두 形態素의 合成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두 形態素 사이에서는, 다음에 說明할 交替 母音의 경우가 아니고는 母音 調和 現象은 作用하지 않는 것이다.

例: 날믈, 새별, ᄉᆞᄀᆞᄫᆞᆯ, 죽사리 等.

므러, 드러, 주거, 둘어, 버서, 머러, 구더, 믈러가던덴~ᄂᆞ려, 뎌, 그려, 니어 例外: 업사(용 110)

② ᄇᆞᄅᆞ매, ᄀᆞᄆᆞ래, ᄇᆞᄅᆞ래, ᄀᆞᅀᅢ, 첫나래, 갈해, ᄀᆞᄅᆞ매, 六合애도~뒤헤, 굴허에, 드르헤, 革命에, 行宮에, 東征에, 後宮에, 雙城에도~이페, 길헤, 日에

[ᄋᆞ~으]: ① ᄂᆞᄅᆞ샤, 사ᄅᆞ샤, 올ᄆᆞ샴, 맛ᄃᆞ시릴ᄊᆡ, 안ᄌᆞ니, 모ᄃᆞ니, 모ᄃᆞ나, 마ᄀᆞ리잇가, 듣ᄌᆞᄫᆞᆫ~그츨ᄊᆡ, 여르시니, 주그니, 드르싫제, 블근, 구든, 어드ᄫᅳᆫ, 열ᄫᅳᆫ~니ᄌᆞ시리잇가, 니ᄌᆞ실ᄊᆡ, 기프샤, 미드며, 깃그니이다, 기픈

例外: 연ᄌᆞ니(용 7)

② 남ᄀᆞᆫ, ᄂᆞᄆᆞᆫ, 앉ᄋᆞᆫ~므른

③ (i) 나라ᄒᆞᆯ, 말ᄊᆞᄆᆞᆯ, ᄆᆞᅀᆞᄆᆞᆯ, 바ᄅᆞᄅᆞᆯ, 王ᄋᆞᆯ, 聖孫ᄋᆞᆯ, 龍ᄋᆞᆯ~그를, 년글, 님그믈, 天命을, 五年을~黎民을.

(ii) ᄢᅴᄅᆞᆯ, 놀애ᄅᆞᆯ, 天下ᄅᆞᆯ, 帝祜ᄅᆞᆯ, 天子ᄅᆞᆯ, 世子ᄅᆞᆯ~번게를, 氣를~할미ᄅᆞᆯ, 하나비ᄅᆞᆯ

④ 자ᄒᆞ로, ᄒᆞᆫ소ᄂᆞ로, 行幸ᄋᆞ로, 垂象ᄋᆞ로~ᅀᅮ므로, 武德으로, 請으로~지ᄇᆞ로, 赤心ᄋᆞ로

⑤ (i) 알ᄑᆡ, 東ᄋᆡ, 남ᄀᆡ, 나ᄌᆡ, 바ᄆᆡ~우희, 겨ᄐᆡ~지븨, 미틔

例外: 밧긔(용 89)

(ii) 宮監ᄋᆡ, 소ᄂᆡ, 도ᄌᆞᄀᆡ, 사ᄉᆞᄆᆡ~열희, 員의, 닐흐늬~官吏의.

[오~우]: 내요리라, 뵈요리라, 아ᅀᆞ보ᄃᆡ, 알외요리라, 救호ᄃᆡ~ᄲᅮ메~맛됴리라, 구튜리라, 주규려커늘

以上과 같이 母音 調和는 두가지 種類로 나누어 보아야 하는데, 앞 音節의 母音의 種類는 그 다음 音節의 母音의 種類를 規定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第二 音節 以下에 있어서는,

/아/:/어/, /오/:/우/, /ᄋᆞ/:/으/

의 各對立은 中和된다고 할 수 있다. 卽, 第二 音節 以下에 있어서는, 위의

母音의 各對立은 辨別的 機能을 發揮할 수 없다. 15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助詞나 語尾에 있어서의 母音 調和의 甚한 混同은 이로써 理解된다. 卽, 이 자리에서는 이 母音들의 對立은 辨別的으로 機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느 편의 發音인지 分別이 잘 안되었기 때문이다.

/아/와 /어/는 前舌性(/ᄋᆞ/, /으/에 대한 相對的 의미로서)을 獨占的으로 가지므로, 그 對立은 兩面的이며, /오/와 /우/는 後舌·圓唇性을 獨占的으로 가진 兩面 對立이고, /ᄋᆞ/와 /으/는 後舌(/아/, /어/에 대한 相對的 意味로서)·平唇性을 獨占的으로 가지므로, 그 對立은 兩面的이다.

따라서, '原音素'說을 여기 導入하면, /아/와 /어/, /오/와 /우/, /ᄋᆞ/와 /으/의 세雙의 母音은 所謂 原音素를 形成하며, 形態素의 第二 音節 以下의 位置에 있어서의 이 여섯 母音은, 이 세 原音素 中의 어느 하나의 實現(représentant)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나모」의 第二 音節의 /오/는 原音素 /오, 우/의 實現이다.

4. 韻 素 論

1) 旁 點[1]

諺語平上去入 如활爲弓而其聲平 :돌爲石而其聲上 ·갈爲刀而其聲去 븓爲筆而其聲入之類 凡字之左 加一點爲去聲 二點爲上聲 無點爲平聲 而文之入聲 與去聲相似 諺之入聲無定 或似平聲 如긷爲柱 녑爲脅 或似上聲 如:낟爲穀 :깁爲繒 或似去聲 如·몯爲釘·입爲口之類 其加點則平上去同 平聲安而和……上聲和而擧……去聲擧而壯……入聲促而塞……"(訓民正音 合字解)

---

(1) 旁點에 관한 仔細한 說明은,
許雄 : 旁點硏究(東方學志 第二輯)——「中世國語硏究」에 收錄.
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그 骨子만 추려 說明하기로 한다.

여기 引用한 訓民正音의 說明과 같이, 그 當時의 文獻에는 各字의 왼쪽에 반드시 無點, 一點, 二點을 찍었는데, 이것을 「四聲點」 또는 「旁點」이라 불렀다. 그런데 訓民正音 解例에는 이 旁點의 本質에 對해서는, 위에서 보인 바 "安而和," "和而擧"와 같은 漠然한 說明이 있을뿐, 아무런 具體的인 說明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訓民正音 諺解에는,

"左加一點則去聲 二則上聲 無則平聲 入聲加點同而促急"

이라 하였고,(2) 그 註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去聲은 뭇노픈 소리라.

上聲은 처서미 ᄂᆞᆺ갑고 乃終이 노픈 소리라.

平聲은 뭇ᄂᆞᆺ가ᄫᆞᆫ 소리라.

入聲은 ᄲᆞᆯ리 긋ᄃᆞᆫᄂᆞᆫ 소리라.

이 說明으로써 보면, 點 하나 찍힌 去聲은 높은 소리요, 둘 찍힌 上聲은 높아가는 소리요, 點 없는 平聲은 낮은 소리라는 것이나, 入聲은 높낮이에 관한 說明이 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말의 入聲(即 ㄱ, ㄷ, ㅂ 받침을 가진 音節)이란, 漢字音의 경우와는 달라, 그 音調가 一定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上聲과 같고, 어떤 것은 平聲과 같고, 어떤 것은 去聲과 같아서, 入聲 音節에 共通된 音調가 없었던 때문이니(註 2 참조), 이러한 點으로 볼 때는 入聲이란 獨立한 一類의 「聲」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旁點法에는 결국 세가지가 있었으니,

1. 一點 (去聲)…높은 소리
2. 二點 (上聲)…높아가는 소리

(2) 이것은, 入聲의 說明으로 보아, 中國語나 우리 漢字音의 四聲 說明이 아니라, 순 우리말의 四聲——其實은 三聲——을 說明한 것이다 그 理由는, "入聲加點同"이란 말은, 解例의 說明으로 보면, 우리말의 ㄱ, ㄷ, ㅂ과 같은 終聲을 가진 音節은, 어떤 것은 上聲과 같고, 어떤 것은 平聲과 같고, 어떤 것은 去聲과 같으니, 이런 경우에는 그 加點法을 平, 上, 去와 같이 하라는 것인데, 그 當時의 中國語의 入聲은 없어졌으며 우리 漢字音의 入聲은 모두 一定한 音調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3. 無點 (平聲)…낮은 소리
가 되는 것이다.

그 當時 正音 文獻에는 各字에 반드시 위의 세가지 旁點이 찍혀 있는 것이니, 各 音節은 이러한 音調(高低)로 發音되었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述語上의 회의를 提起하지 않으면 안된다. 卽 그 때에 使用한 "노푼", "ᄂᆞ가ᄫᆞᆫ"이 果然 오늘날 우리가 音樂이나 音聲學에서 使用하는 '高音', '低音'을 表示하는 말이었을까?

우리는 그 當時의 高低에 관한 用語가 오늘날의 경우와 同一하였음을 斷定하는 바이니,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첫째, 中國語가 高低의 音調를 가진 言語임은 다시 說明할 必要조차 없는 事實인데, 中國語의 音調를 表示하는 四聲의 述語를 그대로 우리말에 使用했다는 것은, 우리말이 中國語의 高低와 비슷한 音調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으리라고 推測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崔世珍은 그 四聲通解 附錄인 「飜譯 朴通事老乞大 凡例」의 「旁點」條에서, 그 當時 中國語의 四聲과 우리말의 四聲(三聲)을 다음과 같이 比較해서 說明한 일이 있다.

"漢音去聲之呼 與國音去聲相同……漢音平聲 全淸次淸……其呼與國音去聲相似……漢音上聲……其呼勢同國音平聲之呼……漢音平聲 全濁及不淸不濁之音……其聲勢同國音上聲之呼"

이것은, 그 當時의 中國語의 四聲과 우리말의 所謂 四聲이란 것이, 그 名稱과 內容이 서로 一致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相互 對照한 말이다. 이에 依하면, 中國語의 去聲이란 것은 우리말의 去聲이란 것과 비슷했으나, 中國語의 上聲은 우리말의 平聲이란 것과 비슷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中國語의 平聲에는 두가지의 다른 音調가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말의 去聲과 비슷하였고, 다른 하나는 우리말의 上聲과 비슷했다는 것이다.

漢音		國音
平聲	全淸 次淸	去聲
	全濁 不淸不濁	上聲

上 聲……………………………………平 聲

去 聲……………………………………去 聲

이러한 兩言語의 聲調의 相互 對照는, 국어가 漢語와 같이 聲調를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到底히 不可能한 일이다.

세째, 四聲通解나 四聲通攷 凡例, 洪武正韻譯訓序 等에 依하면, 崔世珍 時代의 中國語의 音韻 狀態는 대략 現代와 비슷했던 모양이니; 첫째 全濁 初聲이 없어진 點, /m/ 終聲이 /n/ 終聲으로 變한 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으며, 둘째, 平聲의 分化와 入聲의 他聲으로의 分入 狀態가 서로 合致되기 때문이다.

崔世珍에 依하면, 平聲은 그 初聲이 有聲(全濁, 不淸不濁)이냐 無聲(全淸, 次淸)이냐에 따라서 二分되었다는 것인데, 現代 北京 官話의 第一聲(上平, 淸平, 陰平) 第二聲(下平, 濁平, 陽平)이, 亦是 그 初聲에 依해서, 平聲에서 分化된 것이다.

그리고 四聲通解 凡例에,

"或以入聲而讀如平上去聲者 必加平上去一字爲標"

라 하였고, 老朴凡例 旁點條에는,

"漢音入聲有二音 通攷則皆一點 而反譯則 其聲直而高 呼如去聲者一點 先低後厲而促急 少似平聲濁音之呼者二點"

이라 하였으니, 그 當時에 이미 入聲이 없어지고 平上去 三聲으로 分入되었는데, 그 中에도 特히 去聲과 平聲 濁音(下平)으로 많이 分入되어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 便, 後藤朝太郞氏의 入聲字 949字의 現代 北京 官話에 있어서의 分入 統計를 보면;

去聲으로 462

下平으로 248

上平으로 105

上聲으로 89

로 되어 있다.[3]

그러므로 우리는, 그 當時의 中國語 聲調가 대체로 現代 北京 官話의 四聲과 大差 없었던 것으로 推測할 수 있으니, 앞에서 引用한 崔世珍의 말에 依해서, 그 當時 우리말의 平上去聲의 特色을 대개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 現代 北京 官話의 四聲의 高低 關係와, 앞의 對照表와를 比較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現代 北京 官話의 四聲[4]	그 當時의 漢音 四聲	그와 비슷한 國音 聲調	訓民正音 說明
上平	平聲(清音)	去 聲	높 음
下平	平聲(濁音)	上 聲	높아감
上聲	上聲	平 聲	낮 음
去聲	去聲	去 聲	높 음

이것으로써 보면 訓民正音의 높낮이에 관한 用語는 現代 우리들이 使用하는 高低와 그 內容이 대체로 一致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우리는 여기에서 거의 의심할 餘地 없이, 그 當時의 우리말의 音節은 다음 세 가지 가락으로써 發音되었던 것(即 세 toneme을 가졌던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1. 낮은 가락(平聲)…無點
2. 높은 가락(去聲)…一點
3. 높아가는 가락(上聲)…二點

---

(3) 文字の研究. pp. 747—8.

(4) 四聲 高低表는; Yuen Ren Chao: Mandarin Primer (Cambridge, 1961) p. 85에 依함.

旁點의 本質을 이렇게 把握함으로 해서, 우리는 當時 文獻의 旁點의 變動例에 對한 理由를 바로 理解할 수 있는 것이다.

旁點의 變動 例:

그·를=其(釋序 6), 그頁(杜 15:13)∼:긔(主格形,용 39), :긔·오(釋 13:36)

몬져=先(용114), 몬져·롤(杜6:37)∼몬:졔·오(月印序5), 몬:졔시·니(용7)

부텨·를=佛(月印 1:13), 부텨·는(月印 1:50)∼부:톄(釋 9:1),

부:톄시·니·라(釋序 1)

비=梨(字會 上 11), 비·는(杜 6:28)∼:비(主格形, 杜 20:9)

드리=橋 (용 34), 드리·예(용 87)∼드:리(主格形, 杜 25:7), 드:리·라(月印 21:77)

누의:님·내=妹(月印 2:6)∼누:의·라(月印 21:95)

고래=鯨(字會 上 20), 고래·의(杜 6:10)∼고:래(主格形, 杜 25:53) 等等

이러한 變動은, 主格 助詞나 所謂 指定詞의 {이}가 대개는 去聲임을 생각하면, 곧 그 理由를 理解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卽 體言의 끝 開音節이 낮은 平聲인 경우에, 높은 去聲인 {이}가 이와 縮約되어서 낮다가 높아가는 上聲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體言의 끝 開音節이 높은 去聲이나, 或은 끄트머리가 높은 上聲인 경우에는 이러한 變動은 일어나지 않는다

·혀·에=舌(月印 2:15)∼·혜(月印 2:41), ·혜·라(訓)

·니=齒(字會 上 26)∼·니·라(訓)

소·리·와=聲(月印 2:15)∼소·리·라(訓) 等等

:새=鳥(字會 上 17)∼:새·라(月印 2:27)

:뉘·롤=代(月印 21:195)∼:뉘·라(月印 2:21之1)

:녜·와=昔(용 51) ∼:녜·라(月印序 10)

두 音節이 한 音節로 縮約되면서 變調를 일으키는 現象은 낱말의 通時的인 變化에 있어서도 볼 수 있다.

〔平聲+去聲>上聲〕

막다·히(月印 7:6)>막:대(杜 6:42)

주·으린(月印 1:46), 주·으·려(月印 21:45)>주·우린(杜 20:24), 주·우리·고(杜 25:53), :주·렛눈(杜 7:2), :주려(杜 15:37)

杜詩諺解(原刊)에 「주·우-」와 「:주-」가 混用되어 있음을 볼 때, 이것은 事實上 비슷한 發音을 달리 表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둘」(二)은 初期 文獻에,

:둘히·라(訓), :둘·흘(杜 6:37)

과 같이 上聲으로 表記되어 있으나, 呂氏鄕約에는,

두·을재·난(第六幅)

과 같이 平去의 두 音節로 表記되어 있다. 이것은 「:둘>두·을」과 같이 變化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비슷한 發音의 다른 表記法(表記法上의 變動)으로 보아야 한다.

「술」(酒)의 變化 過程은;

酥孛(鷄林類事)>수으·를(釋 9:37)>수울(呂氏鄕約 26)>수·를(杜 15:1)

과 같은데, 이것은 낮은 平聲 두 音節은 縮約되어도 結局 낮은 소리 밖에 되지 않음을 보임이다.

以上, 訓民正音의 說明과 中國語 四聲과의 比較, 音韻의 變動 變化의 實例들로 보아서, 傍點이 高低의 聲調를 表記한 것이었음을 알았는데, 나아가서는 이 傍點法이 앞에서 말한(pp. 231—2) 慶尙道 方言의 聲調와 密接한 關聯性이 있음을 發見할 때, 위의 結論을 한층 確信하게 되는 것이다.

筆者는 일찍 李朝 初期 文獻에 나타나는 옛말 1,006 語(中 體言이 667, 用言이 339)에, 對해서 그 傍點法과 慶尙道 方言의 聲調를 比較해 보았는 바, 거의 大部分이 一定한 對應의 關係를 가지고 있음을 發見했는데, 그 中 몇가지 例만 들어 보이기로 한다.

一音節 體言에는 去聲, 平聲, 上聲의 세가지가 있는데, 去聲의 말은 거의 다 方言의 '中調'이고, 平聲의 말은 '高調'이고, 上聲은 '低調'이다.

〔가〕 去聲=中調의 例 :

갈ㅎ(刀, 칼), 값(價), 고ㅎ(鼻, 코), 글(文), 길ㅎ(道, 질), 낟(鎌, 낫),

날(日), 논(畓) 等.

〔나〕 平聲=高調의 例 :

곶(花, 꽃), ᄭᅯᇰ(雉, 꿩), 목(喉), ᄆᆞᆯ(馬, 말), 손(客), 집(家), ᄂᆾ(面, 낯)

밭(田) 等.

〔다〕 上聲=低調의 例 :

내ㅎ(川), 눈(雪), 돌ㅎ(石), 말(語), 셤(島, 섬), 일(事), 새(鳥),

외(瓜, 에), 감(柿) 等.

二音節 體言에서도 거의 完全히 對應의 關係가 成立되는데, 이것은 꽤 複雜하므로 그 中 몇 例만을 들어 보인다.

가) 平去型은 大體로 方言의 高中調와 一致된다.

하ᄂᆞᆯㅎ(天, 하늘), 일훔(名, 이름), 어름(氷), 아ᄃᆞᆯ(子, 아들), 나라ㅎ(國)

비ᄂᆞᆯ(鱗), 소리(聲), 불휘(根, 뿌리), 머리(頭), 고기(魚, 게기) 等.

나) 平平型은 方言의 中高調와 一致된다.

ᄇᆞᄅᆞᆷ(風, 바람), 보션(襪, 버선), 도ᄌᆞᆨ(賊, 도둑), 눈섭(眉), 이삭(穗), 고래

(鯨), 보리(麥), 고쵸(椒, 꼬치) 等.

다) 去平~去去型(同一語가 어떤 경우에는 去平으로, 어떤 경우에는 去去로 나타나는 것)은 대개 高高調이다.

지지(枝), 구룸(雲), 그믈(網, 그물), 번게(電), ᄉᆞ매(袂, 소매), 피리(芋),

차반(饌), 할미(婦, 할매) 等.

라) 上平~上去型은 대개 低中調와 一致된다.

사ᄅᆞᆷ(人, 사람), 말ᄊᆞᆷ(語, 말씀), 겨집(女, 지집), 거즛(僞, 거짓), 님자ㅎ

(主, 임자), 안개(霧) 等.

用言도 亦是 이러한 對應의 關係가 成立되는 것이나, 너무 길어지므로 여기에서는 이만 줄이기로 한다.

2) 聲調 組織

以上 論한 바로써, 그 當時의 言語는, 現代語와는 달리, 聲調 言語이었음이 밝혀졌는데, 그러면 그 聲調 組織은 어떤 것이었을까?

上聲은 낮다가 높아가는 것이므로, 낮은 平聲과 높은 去聲으로 환원될 可能性이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上聲의 첫머리와 끄트머리가 各各 平聲과 去聲의 높이와 같아야 한다. 그런데, 音素 縮約에 따르는 韻素의 變異로 보면 (平+去→上), 이러한 斷定은 充分히 可能하다.[5]

上聲을 平聲+去聲으로 환원하면, 韻素의 數가 하나 줄어져서 그만큼 言語 記述에 便宜를 提供하는 셈이 될 것이나, 그러나 그렇다고 그 當時의 表記法과 그 當時 사람들의 解釋 方法을 無視하고서까지 上聲을 없앨 必要를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平+去→上」의 變動이나 變化가 있다고 해서, 上聲의 첫머리와 끄트머리가 平聲, 去聲과 完全히 같았다고 斷定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筆者는 그 當時 言語는 亦是 세 토님(toneme)을 가졌던 「屈曲調를 가진 水平 組織 言語」(Register tone language with contour overlap)로 보아 두려는 것이다.

3) 聲 調 型

위에서, 旁點이란 音의 高低를 表記한 것이었음을 밝혔는데, 그렇다면 各 單語는 어떠한 高低型(聲調型)을 가지고 있었을까가 問題된다. 以下 體言과 用言의 聲調型에 對해서 簡單하게 說明하기로 한다.[6]

〔體 言〕

一音節 體言에는, 높은 가락(去聲), 낮은 가락(平聲), 높아가는 가락(上聲)의 세가지가 있다.

---

(5) 이에 대해서는, <鄭然粲 : 15세기 國語의 tone에 對한 研究(國語研究 第8號)>를 참조할 것.

(6) 註 1 참조.

〔가〕 去聲(一點):

"갈ㅎ(刀), 값(價), 글(文), 고ㅎ(鼻), 길ㅎ(道), 낟(鎌), 날(日)"

따위 말들은 모두 높은 가락인데, 이러한 말들 中에는 助詞 {애/에}가 붙으면 平聲으로 變動하는 것이 있다.

갈·해, 고·해, 귀·예, 길·헤, 모·매·셔, 싸·해·셔 等

그러나 이것은 죄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수·메, ·그·레, ·므·레"들은 {애/에}가 붙더라도 높은 가락을 그대로 維持한다.(7)

〔나〕 平聲(無點):

"곶(花), 쉥(雉), 목(喉), 손(客), 몰(馬), 집(家), 비(梨)"

따위 말들이 모두 낮은 가락인데, 이러한 말이 開音節일것 같으면, 그 主格形(指定詞 連結形)은 上聲(低高)으로 變動한다.

:긔, :긔·오, :비 等

〔다〕 上聲(二點):

"내ㅎ(川), 눈(雪), 돌ㅎ(石), 말(語), 셤(島), 새(鳥)"

따위 말들은 上聲인데, 이 型은 그 聲調가 變動되는 일이 없다.

一音節 體言中 「나, 너, 누, 저」와 같은 代名詞와 「쇼」(牛)와 같은 名詞는 그 聲調가 不規則하다.

「나」——·나·는, ·내(主格), ·내·라(指定詞)~:날, :나·룰~내(所有格)

「너」——네(所有格)~:네(主格)

「누」——:눌, :뉘(所有格)~·뉘(主格), ·누·고

「저」——제(所有格)~:제(主格), :제·라(指定詞)

「쇼」——·쇠(主, 指)~:쇠(所有格)

主格과 所有格은, 그 音素는 同一한데 韻素에 依해서 分化되는 點은 매우 興味 있는 일이다.

(7) 「·갈」(去聲)~「갈」(平聲)의 두 형태는 韻素의 變動에 依한 變異 形態인데, 그 變異 條件은 形態的이다.

二音節 體言은 크게 네가지로 나뉜다.

〔가〕 第一類는 '平去聲'인데,

"하ᄂᆞᆶ(天), 일훔(名), 어름(氷), 나라ㅎ(國)"

따위 말들이 이에 屬한다. 二音節 體言 中에는 이 型에 屬하는 말이 가장 많다.

〔나〕 第二類는 다시 두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平平聲'이며, 다른 하나는, 亦是 平平聲이나, 特定한 助詞가 붙을 때는 平聲의 一音節 體言으로 變動하는 것이다. 前者를 A型, 後者를 B型이라 불러둔다.

A型에는:

"ᄆᆞᅀᆞᆷ(心). ᄇᆞᄅᆞᆷ(風), ᄆᆞᅀᆞᆶ(里), 부텨(佛)"

따위가 있는데, 「부텨」와 같은 開音節의 말은, 그 主格形(指定詞 連結形)은 平上聲으로 變動한다. (이것은 一音節 體言 平聲의 경우와 同一하다).

부:톄, 고:래, 그:듸, 몬:제·오, 누:의·라 等

B型에는:

"ᄒᆞᄅᆞ(一日), 아ᅀᆞ(弟), 구무(穴), ᄀᆞᄅᆞ(粉)"

따위가 있는데, 助詞 「-이, -ᄋᆞᆫ, -ᄋᆞᆯ, -ᄋᆞ로」 따위가 붙을 때는 末音節의 母音이 줄어진다.——ᄒᆞᆯ·ᄅᆞᆫ, 앐·ᄋᆞᆫ, 굼·글, ᄀᆞᆯ·ᄋᆞ·로 等

〔다〕 第三類는 第二 音節이 平聲~去聲으로 不規則하게 變動하는 것을 말함인데, 그 第一 音節의 音調에 依해서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A型은 第一 音節이 去聲인 것:

·차바·ᄂᆞᆯ~·차·바ᄂᆞ·로

·구루·미~·구·루미·라

·비얌·과~·비·야미·오

B型은 第一 音節이 上聲인 것:

:사ᄅᆞ·ᄆᆞᆯ~:사·ᄅᆞ미·라

:말ᄊᆞ·ᄆᆞᆯ~:말·ᄊᆞᄆᆞ·로

:져비~:져·비

〔라〕 第四類는 第二 音節이 上聲인 것인데, 그 第一 音節의 音調에 依해서 세 가지로 나뉜다.

A型 (第一 音節이 平聲인 것):

목:숨, 여:쉰, 갈:웜

B型 (第一 音節이 去聲인 것):

·뿟:돌ㅎ, ·통:발, ·한:숨

C型 (第一 音節이 上聲인 것):

:새:별, :볍:새, :시:내

第四類에 屬하는 말들은 모두 合成語인 點이 注目된다.

三音節 體言은 그 例가 적어서, 모든 聲調型을 歸納하기 困難하나,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자주 나타난다.

平平去聲:

例: 가마귀, 개야미, 곳고리, 막다히, 미나리 等

平平平聲:

例: 가락지, 숖가락, 골와라 等

끝 音節이 開音節일 경우에는, 그 主格形(指定詞 「-이-」 連結形)은 平平上聲으로 變動한다.

골와:래·니, 골와:래·오

平去平聲~平去去聲(끝 音節이 平~去로 變動하는 것):

버·워·리~버·워리·와

아·ㅎ·래어·나~아·ㅎ래·룰

去去平聲~去平去聲:

·뎡바·기예~·뎡·바기·예

·돗가·비~·돗·가비·니

其他 上平去, 去平平, 去去平, 去去上 따위가 있으나 그 例가 매우 稀少하다.

〔用 言〕

用言의 語幹이 一音節인 것에는, 去聲, 平聲, 上聲으로 固定되어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고, 「平~去~上」聲으로 變動하는 것, 「上~平」聲으로 變動하는 것이 있어서, 모두 다섯가지의 聲調型이 있다.

〔가〕 去聲으로 固定되어 있는 것에는:

"숨-(隱), 들-(入), 크-(大), 쓰-(書), 쁘-(用)"

따위 말들이 있다.

〔나〕 平聲으로 固定되어 있는 것에는:

"굳-(固), 닐-(起), 잡-(捕), 앉-(坐), 듣-(聞)"

따위가 있다.

〔다〕 上聲으로 固定되어 있는 것에는:

"곱-(姸), 굵-(太), 둏-(好), 젹-(少)"

따위가 있다.

〔라〕 「平~去~上」聲으로 變動하는 것에는:

"가-(行), 사-(買), 자-(宿), 오-(來), 보-(見)"

따위가 있는데, 語尾 「-아, -거늘, -쇼셔, -ᄂᆞ다, -ᄂᆞᆫ다, -ᄂᆞᆫ, -ᄂᆞ니, -ᄂᆞᆺ다, 논가, -다가」나, 所謂 補助語幹 {시}, {숩} 따위가 붙을 때는 語幹은 去聲이고, 插入母音 {오/우}를 取한 語尾 「-{오/우}라, -{오/우}ㅁ, -{오/우}뎌」 따위가 붙을 때는, 插入母音이 줄건 안 줄건 語幹은 上聲으로 變動한다. 그리고 그밖의 語尾가 붙을 때는 語幹은 平聲이 된다.[8]

가·면~·가이·셔~:가·뎌

자·디~·자거·늘~:자·매

오·라(命令)~·오나·놀~:옴, :오·라(一人稱 叙述)

보·고~·보·아~:보·몰 等

〔「오·라」는 命令, 「:오·라」는 叙述이다.〕

---

(8) 變動의 條件은, 亦是 形態的이다.

〔마〕「上～平」聲으로 變動하는 것에는,

"울-(泣), 열-(開), 묻-(問), 웃-(笑)"

따위가 있는데, 이러한 語幹에 {아/어}, {ᄋᆞ/으}, {오/우}, {이}가 連結될 때는, 平聲으로 變動한다.[9]

:울·며, :우·는～우·루·믈

:열·며, :여·니～여·러

:묻노·라～무·러

:웃·고～우·숨우·시

二音節 語幹의 用言은, 크게 여섯가지 聲調型으로 나뉜다.

〔가〕第一類는, 語幹이 「平去」聲으로 固定되어 있는 것인데:

"프르-(靑), ᄇᆡ호-(學), 뵈아-(促)"

따위 말이 이에 屬한다.

〔나〕第二類는, 語幹이 「平平」聲으로 固定되어 있는 것인데:

"흐리-(濁), 그울-(轉), 일ᄏᆞᆮ-(稱)"

따위 말이 이에 屬한다.

〔다〕第三類는, 語幹의 第二 音節이 「上～平」聲으로 變動하는 것인데(變動하는 條件은, 一音節 語幹의 「上～平」 變動의 경우와 同一함), 이것은 다시 第一音節의 音調에 依해서 두가지로 나뉜다.

A型은, 第一 音節이 平聲인 것인데, 두어 例를 들어 보기로 한다.

갓:갑더·라, 갓:갑거·나～갓가·보·매, 갓가·ᄫᅵ

ᄂᆞᆺ:갑·고, ᄂᆞᆺ:갑·도～ᄂᆞᆺ가·ᄫᆞᆫ, ᄂᆞᆺ가·ᄫᆞ·니

두:텁·디～두터·ᄫᅳ·니

B型은, 第一 音節이 去聲인 것:

·ᄠᅳᆮ:듣ᄂᆞ·니～·ᄠᅳᆮ드를

·깃:깃던～·깃기·서

(9) 韻素의 變動은 音聲的이다.

〔라〕 第四類는, 第二 音節이 「平~去~上」聲으로 變動하는 것인데(變動하는 條件은 一音節 語幹의 경우와 同一함), 이것은 그 第一 音節의 音調에 依해서 세가지의 聲調型으로 나뉜다.

A型은, 第一 音節이 平聲인 것:

맛나·며~맛·나·아~맛:나·몰

B型은, 第一 音節이 去聲인 것:

·빗나·고~·빗·나도·다~·빗:나미

C型은, 第一 音節이 上聲인 것:

:걷나·고~:걷·나·아~:걷:나·더

〔마〕 第五類는, 變格 用言인데, 이에도 두가지 種類가 있다.

A型은, 原 語幹이 「平平」聲인 것인데, 變格 活用으로 第二 音節의 母音이 줄게 되어도, 그 語幹은 亦是 平聲인 것.

오ᄅᆞ·리잇·가~올·아

다ᄅᆞ·리잇·가~달·아

B型은, 原 語幹이 「平去」聲인데, 變格 活用의 一音節 語幹이 上聲으로 變動하는 것.

모·ᄅᆞ·샤~:몰·라

누·르·논~:눌·렛도 다

〔바〕 第六類는, 第二 音節이 「平~去」聲으로 不規則하게 變動하는 것인데, 이것도 第一 音節의 音調에 依해서 두가지 聲調型으로 나뉜다.

A型은, 第一 音節이 去聲인 것.

·즐거·본, ·즐겁·도~·즐·거본, ·즐·겁더·니

·ᄇᆞ라·니, ·ᄇᆞ라·몰~·ᄇᆞ·라노·니, ·ᄇᆞ·라ᅀᆞ·ᄫᆞ·니

B型은, 第一 音節이 上聲인 것.

:더러·ᄫᅳ·믈~:더·러ᄫᅳ·며, :겨시·고~:겨·시니·라[10]

---

(10) 여기 引用한 例들의 出處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省略하였는데, 必要할 때는, 拙稿 「旁點硏究」를 참조하기 바람.

三音節 語幹의 用言은, 例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聲調型을 歸納할 수가 없다.

附記 1. 15세기 言語의 抑揚(intonation)에 對해서는, 全혀 說明해 볼 材料가 없으나, 句末 高低(terminal contour)가, 聲調 言語의 特質上, 現代 中部 地方말의 경우와 달랐지나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것은, 亦是 聲調 言語인 慶尙道 方言이, 疑問文에 있어서도 句末을 올리지 않음을 보아, 추측되는 일이다.

니 가나→, 밥 묵울래→ (모두 疑問文)

附記 2. 여기 說明한 聲調型들은 辭典에 記載되어야 할 것이다.

Ⅳ. 國 語 音 韻 史

以上 우리는 現代와 15세기 國語의 音韻에 關한 여러 現象을 共時的으로 記述해 왔는데, 本章에 있어서는 音韻의 通時的인 現象을 考察하려는 바이다.

通時 言語學에는——따라서 音韻史에 있어서도——두 가지의 方法이 있다.

文獻이 殘存한 最古의 時期에서 始作하여 때의 흐름에 따라서 變遷하는 言語 現象을 硏究하는 展望的 方法과, 文獻이 殘存한 時期의 言語를 土臺로 하여 文獻이 殘存하지 않은 時期의 言語를 推定하는 回顧的 方法이 그것이다.(1)

우리 國語의 言語 狀態를 살펴 볼 수 있는 文獻은 新羅 時代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新羅 時代의 文獻이란, 所謂 鄕歌 25首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이것마저 11首는 高麗 初에 된 것이다——그 當時에는 우리 固有한 文字가 없었기 때문에, 漢字를 빌어서 表記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現在 이 少量의 文獻을 土臺로 하여 推定해 본 新羅 時代의 言語란 極히 的確性이 缺乏한 것이며, 더구나 音韻에 이르러서는, 아직 그 的確한 狀態를 알아낼 程度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高麗 時代에 내려와 보아도, 言語史 硏究의 條件은 新羅 時代보다 별로 有利한 것이 없다. 이 時期의 文獻으로는, 宋 나라 孫穆이 지은 鷄林類事가 있는데, 이것도 漢字로써 三百餘 語彙를 收錄해 있을 뿐이다. '華夷譯語' 中의 '朝鮮館譯語'는 六百餘의 語彙를 包含하고 있어서, 中國語 音韻과의 對照로 그 當時의 音韻을 把握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는 하나, 아직 高麗 時代의 音

(1) Saussur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 291.

韻의 全般的인 狀態를 파악하기는 困難하다.

高麗 時代의 歌謠라 하여 지금까지 傳해 내려오는 것이 있으나, 이것는 李朝에 들어와서 文獻으로 定着된 것이니, 高麗 時代의 言語를 어느 程度 正確히 傳해 있느냐가 問題인데다가, 定着 當時의 文字로써 表記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써는 高麗 時代 音韻 狀態는 全혀 엿볼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러한 形便이기 때문에, 羅·麗 時代의 音韻 狀態는, 比較 言語學이나 方言學의 回顧的인 方法에 依하지 않고서는, 알아낼 수 없는 것인데, 아직까지 그 全般을 파악할 정도의 硏究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現在 우리가 具體的으로 알아 낼 수 있는 最古의 言語 狀態는 訓民正音 創製 以後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訓民正音 創製 以後의 音韻의 變遷을 展望的으로 考察하기로 한다.

그런데 音韻에 關한 通時的인 事實은, 크게 이것을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語彙論的인 事實이요, 하나는 體系的인 事實이다.

語彙論的인 事實이란, 言語記號의 시니피앙(signifiant)으로서의 音韻의 變異를 말함이다. 이를테면 「뷔다」(空)가 「비다」로 變했다든지, 「거우루」(鏡)가 「거울」로 變했다든지, 「슴겁다」(淡)가 「싱겁다」로 變한 것과 같은 事實은 語彙論的인 音韻 變異에 屬하는 일이다.

한편, **體系的인 事實**이란, 音韻 體系 自體의 變遷을 말함이다. 이를테면 音韻의 消滅·發生에 관한 事實이나, 音節의 形成法의 變異나, 音素 連結 方法의 變遷에 관한 事實들은 이에 屬한다.

앞에서(Ⅱ.4) 말한 바와 같이, 形態素를 連結할 때에 일어나는 音韻의 共時的인 交替에 關한 事實을 「變動」이라 하고, 音韻에 關한 通時的인 事實中, 語彙論的 事實을 「變化」, 體系的 事實을 「變遷」이라 하여, 筆者는 이 세가지를 區別하기로 한다.

本章에서는, 近世 五百年間의 音韻 體系의 變遷과, 語彙의 變化에 관한 事實을 展望的으로 考察하기로 하는 바이다.

1. 音韻의 變遷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音韻의 變遷이란, 音韻 體系의 變遷을 뜻함인데, 各 音韻(音素와 韻素)은 서로 緊密히 關聯性을 맺고 있는 하나의 構造이기 때문에[(2)], 하나의 變異는 반드시 體系 全體에 影響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個個 音韻의 變遷은 音韻 體系의 變遷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音韻 相互間의 관련으로서 說明되지 않으면 안된다. 한 소리의 變異는 言語 體系에 있어서의 그 구실로 說明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方法에 依한 音韻 體系 變遷史를 「通時 音韻學」(diachronic phonemics)이라 하는 일이 있다.[(3)]

"現代 言語學은 이러한 機能的·構造的 觀點을 發展시킨 것이니, 오늘의 通時 音韻論이란, 音聲 變化를, 外的 要素뿐 아니라, 內的 要素를 가지고 說明한다는 點에서 歷史 音聲學과 區別되는 것이다."[(4)]

音韻 體系의 變遷은 두 方向으로 考察된다. 하나는 音韻 相互間의 聯合的(對立的) 關係의 變異이요, 하나는 音韻의 連結(統合的) 關係의 變異이다.

1) 15세기와 현대와의 音韻 體系의 差異點

李朝 五百年 동안의 音韻 體系의 變遷을 考察하기 위해서는, 먼저 15세기

---

(2) '構造'에 관해서는:
許 雄: 言語學槪論. p.155. 참조.
(3) 같은 책. p. 273.
(4) 崔碩圭: 音聲變化와 通時音韻論 (延世大學校 文科大學 發行, '人文科學' 第7集) p. 118.

국어와 현대 국어와의 音韻 體系의 差異點을 指摘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子音 體系의 差異

[가] 15세기의 22子音 音素 中, /β/(ㅸ), /z/(ㅿ), /h'/(ㆅ)의 세 音素가 현대어에서는 없어지고, 19 音素만이 남았다.

[나] 複合 子音 音素의 大多數는 된소리로 變하여, 15세기에는 語頭에 나타날 수 있었던 子音群이, 현대에는 없어지고, 語頭에 나타날 수 없었던 硬音이 語頭에도 나타날 수 있게 되어, 音素로서의 確固한 資格을 가지게 된다

母音 體系의 差異

[가] 單母音의 /ʌ/(ㆍ), /i̤/(ㆉ)가 현대어에는 없다.

[나] 緊張 半母音은 없어진다.

[다] 下降的 二重 母音 中 /aj, əj, oj, uj/는 各各 /ɛ, e, ϕ, y/로 單母音化하여, 현대어에는 이 네 單母音이 새로이 생겨난다.

[라] 下降的 二重 母音 中 /ʌj/는 /ʌ/가 없어짐과 同時에 없어지고, /aj/와 더불어 /ɛ/로 變한다.

[마] 三重 母音 中 /jaj, jəj/, /waj, wəj/의 넷은, /aj, əj/의 單母音化에 따라, /jɛ, je/, /wɛ, we/의 二重 母音이 되었다.

[바] 下降的 二重 母音 中 /ïj/는 그대로 남아 있기는 하나 매우 不安定하다.

[사] 三重 母音 中 /joj, juj/의 둘은 없어진다.

音素 連結 方式의 差異

[가] 15세기에서는 兩唇 子音 다음에 /ï/(ㅡ)가 自由로이 連結될 수 있어서, 이 자리에서 /ï/는 /u/와 中和되지 않는 點, 현대어와 다르다.

[나] 15세기에 있어서는 /t, tʰ/가 /j/ 重母音에 自由로이 連結될 수 있었는데, /i, j/ 앞의 /t, tʰ/가 口蓋音化하여, 현대어에서는 이 音素의 連結이 매우 不自由스럽게 되었다.

[다] 齒音 다음에, /아, 어, 오, 우/는 勿論, /야, 여, 요, 유/도 自由로이 連結

될 수 있어서, 이 두 가지의 母音들은 이 자리에서 辨別的으로 機能할 수 있었다.(현대어에서는 中和된다.)

[라] 語頭에서도 /n/에 /i, j/가 連結될 수 있었는데, 현대어에서는 이러한 자리의 /n/는 脫落해 버리고 만다. (그리하여 /n/+/i, j/는 語頭에서는 不可能하게 되었다.)

[마] 15세기에는 /ïj/ 重母音이 安定되어 있어서, 그 앞에 여러 子音 音素(群)가 올 수 있었는데, 현대어에서는 /ïj/ 重母音 自體가 不安定하여, 이러한 連結은 極히 制限된다.

[바] 8 終聲이 7 終聲으로 變한다.

[사] 母音 調和가 거의 허물어졌다.

韻素의 差異

聲調(toneme)가 없어지고, 그 代身 音長(chroneme)이 생겨났다.

2) 變遷의 時期

以上에 말한 差異點은 近世 500年 동안에 일어난 變遷의 總和인데, 다음으로 이 變遷의 하나하나가 언제 일어난 것인가를 說明하기로 한다.

(1) 子音 體系의 變遷

[가] /β/(ㅸ), /h'/(ㆅ), /z/(△)의 消滅

이 세 音素의 消滅 時期는 各各 다르기 때문에 別途로 說明한다.

/β/(ㅸ): /ㅸ/은, /ㅂ/이 間隙이 큰 앞뒤의 소리에 同化되어서 變한 音이다. 그러므로 순 우리말에 있어서는 /ㅸ/은 語頭에 나타나는 일이 없다.(5)

(5) 「Ⅲ, 1, 2), (1) 失音字」의 ㅸ 條(p. 286 以下) 참조.

그런데 이 同化 作用이 한걸음 더 나아가면 /ㅸ/의 間隙이 한층 더 커져서, 完全히 母音에 가까운 間隙을 가지게 되는데 (ㅂ>ㅸ>ㅗ, ㅜ), 이 變化는 /ㅸ/을 包含한 모든 말에 普遍的으로 일어났다. 이리하여 /ㅸ/은 우리말의 音素로는 完全히 없어지고 만 것이다.

「ㅸ」은, 龍歌, 訓民正音, 月印千江之曲, 釋譜詳節과 같은, 正音 創製 當時의 文獻에는 使用되어 있으나,[6] 西紀 1460年代 世祖朝의 佛經 諺解類에서는 이 글자는 나타나지 않고, 完全히 脫落되거나 또는 [ㅗ, ㅜ]로 變한다.

갓가ᇦ-: 갓가와(楞 2:87), 갓가이(楞 2:107)[7]

어드ᇦ-: 어드우면(楞 2:28), 어드운 靜(金剛 55)

더ᇦ-: 더운 므레(靈驗略抄 14)

엷-: 열운 어름(永嘉 下 112)

ᄉᆞᆲ-: ᄉᆞᆯ오샤ᄃᆡ(楞 5:81), ᄉᆞᆯ오ᄃᆡ(金剛 6) 等等

이러한 點으로 보면, 이 音素는 이미 1440年代에 동요하기 始作하여 西紀 1450~1460年 사이에 없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ㅸ/의 消滅 年代는 比較的 的確히 지적할 수 있다. 그것은, 이 文字를 使

---

(6) 서기 1459年에 나온 月印釋譜에도 「ㅸ」은 쓰이고 있으나, 月印釋譜는 月印千江之曲과 釋譜詳節의 合冊이므로, 이 두 文獻의 元 表記法을 어느 程度 保存하고 있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月印釋譜의 例로써 1459年까지 아직 「ㅸ」이 쓰이고 있은 것으로 斷定할 수는 없다.

그리고 李基文氏가 지적한 바와 같이, 佛說阿彌陀經 諺解(1464年)에도,

일ᄏᆞᄌᆞᄫᅡ, 셜ᄫᅳᆫ, 어려ᄫᅳᆫ

과 같이 「ㅸ」이 쓰여 있으나(「16세기 國語의 硏究」, 高麗大學校 文理科大學 「文理論集」 第四輯), 이 文獻은 月印釋譜의 卷七의 後半部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內容도 그리 다르지 않음으로 보아서, 阿彌陀經 諺解는 바로 月印釋譜를 거의 그대로 옮긴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러한 間歇的인 「ㅸ」 表記로는 楞嚴經의 例도 들 수 있다.

親捧持ᄒᆞᅀᆞᄫᅡ=親히 받ᄌᆞ와(楞 7:3)

無上悲誨ᄒᆞᅀᆞᄫᅡ=……닙ᄉᆞ와(楞 7:7)

디샛 저벽 (楞 5:72)

그러나 이러한 間歇的인 例로써, 이 時期까지 아직 /ㅸ/ 音素가 維持되어 있었으리라고 推測할 수는 없다.

(7) 이 말들의 「ㅸ」을 維持한 用例는, p. 289 참조.

用하고 있는 文獻과 使用하지 않은 文獻이 年代的으로 거의 分明히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무릇 變化한 音을 表記할 수 있는 文字가 이미 存在하고 있는 때는, 그 變化의, 文書에의 反影은 分明히 되기 쉽다. 그러나 變化한 소리를 表記할 수 있는 文字가 따로 없을 때는, 그 變化의 反影은 늦게 나타나거나, 全혀 나타나지 않고 마는 일이 많다.

이러한 事實은 音韻 變遷의 時期를 考慮함에 항상 念頭에 두어야 할 일이다.

/h'/(ᅘ): 다음 /ᅘ/은, 앞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ç]의 된소리인데, 이 音은 꽤 發音하기 힘드는 것이므로 때로는 단순한 /ㅎ/ 소리로 내어버리기도 하고 (도ᄅᆞᅘᅧ>도로혀), 때로는 /ㅆ/으로 바뀌기도 하고 (ᅘᅧ->써-),(8) 때로는 [ç]의 通路가 아주 좁혀져서 /ㅋ/으로 變하기도 하였다. (ᅘᅧ->켜-)

그런데 「ᅘ」은, 龍歌, 月印釋譜 等에서는 勿論 쓰였고, 그리고 世祖朝의 佛經 諺解類에도 나타나는데, 1481 A.D.에 刊行된 杜詩諺解 以後의 文獻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ᅘᅧ->혀-](9)

引導ᄂᆞᆫ ᅘᅧ아 길 알욀씨라(釋 9:8)

손 드리우샨 이ᄅᆞᆯ ᅘᅧ샤=引垂手之事(楞 2:20)

ᅘᅧ내ᄂᆞᆫ=引出(永嘉 上 76)

楞嚴經, 永嘉集의 어떤 곳에는, 「혀」로 表記한 것이 나타난다.

…滅ᄒᆞᄂᆞ다 ᄒᆞ몰 혀ᄂᆞᆫ다=引…滅(楞 2:10)

---

(8) "톱으로 썬다." "썰물" 따위.
그리고 이 變化에 對한 理由는, /h/>/s/의 경우를 생각하면 쉽사리 理解될 것이다.

(9) 여기의 例는, 「Ⅲ, 1, 2), (1) 失音字」의 「並書」 條에 들어 보이지 않은 것을 들어 보인다.

아로ᄆᆞᆯ 혀고=引知(永嘉 上 69)

杜詩諺解에는 「ᅘᅧ」는 나타나지 않는다.

므를 혀다가=引溜(杜 7:36)

활시우를 혀놋다(杜 20:20)

삿기ᄅᆞᆯ 혀=引子(杜 7:8) 等

[도ᄅᆞᅘᅧ>도ᄅᆞ혀]

이ᄂᆞᆫ 도ᄅᆞᅘᅧ 알ᄑᆞᆯ 牒ᄒᆞ시니라=此還牒前 (永嘉 上 12)

도ᄅᆞ혀…ᄉᆞ랑코=却憶(杜 15:2)

도ᄅᆞ혀 疑心호ᄃᆡ(杜 15:7)

[ᄡᅡᅘᅧ->ᄡᅡ혀-]

苦惱ᄅᆞᆯ ᄡᅡᅘᅧ며(楞 5:63)

불휘ᄅᆞᆯ ᄡᅡ혀샤(楞 2:21)

ᄀᆞᆯ ᄡᅡ혀(杜 25:29)

[드위ᅘᅧ>드위혀]

드위ᅘᅧ 니ᄅᆞ샤ᄆᆞᆫ(楞 3:97)

소ᄂᆞᆯ 두위혀(杜 25:56)

그러므로 /ㆅ/은 大體로 西紀 1460年頃에는 이미 動搖가 甚하여, 1480年頃에는 完全히 消滅된 것으로 보아 틀림 없을 것이다.

/ㆅ/의 消滅도, 그 變한 소리를 表記하는 文字가 이미 存在하고 있었으므로, 그 변천의, 文獻에의 反影은 빨리 나타나는 것이다.

/z/(ㅿ): /ㅿ/도 /ㅸ/과 같이, /ㅅ/이 有聲音 사이에서 有聲化한 것이므로, 순 우리말에서는 語頭에 나타나는 일은 없다. 그런데 同化 作用이 한걸음 더 나아가서, 앞뒤의 間隙이 큰 有聲音에 完全히 同化되면, /ㅿ/은 脫落되고 마는 것인데, 이 同化 作用은 /ㅿ/을 包含한 모든 말에 普遍的으로 일어났다. 그리하여 /ㅿ/은 우리 音韻 體系에서 完全이 消滅되고 만 것이다.

「ㅿ」은 訓民正音 創製 當時에는 勿論이요, 杜詩諺解(1481 A.D.)나, 더 내려가서 訓蒙字會(1527 A.D.)에 쓰여 있음은, 이미 「Ⅲ, 1, 2),(1) 失音字」의 「ㅿ」 條에서 例示한 바 있었으나 (p.298 以下), 더 내려가서 西紀 1569 年에 된 七大萬法에 있어서도, 가끔 「ㅿ」을 「ㅅ」으로 表記한,

「ᄉᆞ시예, ᄀᆞ술히, 겨스레, 어버시」

와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나, 大多數의 「ㅿ」은 거의 正確하게 保有되어 있는 것이다.

ᄆᆞᅀᆞᄆᆞᆯ, 나ᅀᅩ혀, ᄉᆞᅀᅵ예, 기드려ᅀᅡ, ᄀᆞᅀᅵ, ᄀᆞᅀᆡ, ᄀᆞᅀᆞᆳᄇᆞᄅᆞᄆᆞᆫ, ᄀᆞᅀᆞᆯ히라,
겨ᅀᆞᆳᄇᆞᄅᆞᄆᆞᆫ, ᄀᆞ자ᅀᅡ, ᄀᆞᅀᆞᆷ알며, ᄌᆞᅀᆞ메, ᄌᆞᅀᆞᆷ업시, 지ᅀᅮᆷ, 어버ᅀᅵ

그리고 16 세기의 後半期에 나온 것으로 생각되는 禪家龜鑑[10]에 있어서도, 「ㅿ」은 대체로 維持되어 있으나,

ᄆᆞᅀᆞᆷ, ᄒᆞ야ᅀᅡ, 혜뎌ᅀᅡ, (그리고 {ᅀᆞᆸ}의 ㅿ도 잘 유지되어 있음)

어떠한 말은 「ㅿ」이 「ㅅ」으로 표기된 것도 있고,

滅의 나사 가ᄂᆞ니ᄂᆞᆫ=趣滅 (38) (←나ᅀᅡ)

기슴을 ᄆᆡ오매 (39) (←기ᅀᅳᆷ)

西 그슴으로=畫西 (59) (←그ᅀᅳᆷ)

地獄 ᄌᆞ싀ㅣ라 ᄒᆞ며=或地獄滓ㅣ라 ᄒᆞ며(52) (←ᄌᆞᅀᅴ)

어떤 말은 「ㅿ」이 完全히 脫落한 形態로 表記된 것도 있다.

처엄 (13) (<처ᅀᅥᆷ)

또 退溪(1501~1570 A.D.)의 陶山六曲에도 「ㅿ」은 유지되어 있다.

이로써 보면, 16 세기 後半期에 있어서는 「ㅿ」의 音價가 動搖하기 始作하기는 했으나, 아직 完全히 消滅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壬辰亂中에 쓴 宣祖의 편지에는, "ᄀᆞ올히"와 같은 「ㅿ」 消失形이 나타나고,[11] 1,608年에 나온 諺解 胎產集要에는 「ㅿ」은 나타나지 않고, 그

(10) 禪家龜鑑의 諺解된 時期는 的確히 알기 困難하나, 서기 1564 年 以後에 된 것만은 확실하다. (최현배 : 한글갈, 小倉進平 : 增訂 朝鮮語學史 참조)

(11) 金一根 編註 : 「이조어필언간집」에 依함.

리고, 西紀 1632年에 된 杜詩諺解 重刊에 이르러서는, 原刊의 「ㅿ」이 모조리 「ㅇ」으로 代置되고 말았다는 事實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이며, 그 以後에 刊行되어 나온 捷解新語(1676 A.D.刊)나 朴通事 諺解(1677 A.D.刊), 老乞大諺解(1670 A.D.刊) 따위에서는 「ㅿ」은 나타나지 않는다. (實例는 一一히 들어보일 必要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ㅿ/은 16세기 後半期에 동요되기 始作하여 壬辰(1592) 以前에는 이미 消滅된 것으로 생각된다.

/ㅿ/도 그 消失形의 表記法은 쉽사리 求할 수 있는 형편에 있었으므로, 그 消失의, 文獻에의 反影은 빨랐으며, 文字의 保守性을 理由로, 그 消滅期를 15세기 末葉까지 가져갈 必要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다.)

한 音素의 消變은, 반드시 一時에 普遍的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方言에 따라 다름은 말할 必要도 없는 일이며, 同一 方言에 있어서도, 사람에 따라, 낱말에 따라 그 消變의 時期는 어느 程度의 幅이 있음을 認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한 音素가 없어졌다고 判定하기 爲해서는, 그 命脈을 保有하고 있던 마지막 낱말에까지 消滅이 實現되어야 한다. 한 音素는 몇개의 낱말에서도 命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ㅿ/이 동요되기 始作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미 없어진 것처럼 判定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複合 子音 音素의 消滅, 된소리의 發達

以上에서 論述한 여러 音素들은, 그 使用되어 있는 文獻과 그렇지 않은 것이 年代的으로 劃然히 區分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消滅의 年代를 比較的 容易하게 決定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할 複合 子音 音素 卽「ㅳ, ㅄ」 따위는 그렇지 못하여서 ——이를테면 ㅅ系는 勿論이요, ㅄ 따위도 最近世까지 그대로 使用되어 내려왔다—— 그 消滅의 時期를 決定하는 것은 多少 困難한 問

題의 하나이다.

複合 子音 音素는 거의 다 最終 子音에 同化되어서, 드디어 最終 子音의 된소리로 變하는 것인데——ㅄ, ㅳ은 除外—— 그 된소리化의 時期는 ㅅ系와 ㅂ系가 各各 달랐으리라고 推測되므로, 여기에서는 이 두 系統의 並書를 別途로 觀察하기로 한다.

ㅅ系 : ㅅ系 並書의 初頭의 /ㅅ/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間隙이 매우 좁고 마찰이 매우 弱해서 舌端 內破音의 [t']에 가까운 소리였다. 그러므로 「ㅽ, ㅺ, ㅼ」은 된소리 될만한 充分한 條件을 具備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15세기 末葉에서부터 된소리化가 進行된듯 하여, ㅅ系를 된소리로 보아야 할만한 表記例들이 16세기 文獻에서는 相當數 登場된다.(12)

筆者의 調査한 바로써 보면, 17세기 文獻에서는 ㅅ系를 된소리 表記로 보아야 하는 例가 豊富히 登場하게 된다.

앞 音節의 終聲이 無聲 內破音일 때나, 所謂 사잇소리의 경우나, 또는 冠形詞形 語尾의 「-ㄹ」 밑에서는, 그 다음 音節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變動할 可能性이 많기 때문에, 李朝 初期 訓民正音 創製 當時에 있어서는, 그 다음 音節의 첫소리를 雙書로 表記하는 일도 있었다. (p. 335—6, p. 295 註 17 參照)

그런데 老乞大 諺解(1670 A.D.)나 朴通事 諺解(1677 A.D.)에는 이러한 경우에 雙書 代身에 ㅅ系의 合用 並書를 使用하고 있다.

머글ᄭᅥᆺ(老上 50), 등잔ᄲᅳᆯ(51), 밤ᄶᅮᆼ(51), 홀ᄭᅥ시니 (50, 59), 七八里ᄭᅵᆯ(54), 바들ᄶᅡ(59), 五里ㅅᄭᅵᆯ히(59), 흐터딜ᄭᅥ시니(朴上 7), 톨ᄭᅥ시(11), 노눈ᄯᅩ다 (18), 紅橋ᄭᆞ에(38), 믈ᄭᅡ온ᄃᆡ(60), 믈ᄭᆞ(62)

捷解新語(1676 A.D.)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雙書와 ㅅ系 合用 並書가 混用되어 있다.

〔雙書 使用例〕

(12) 李基文: 前記論文 p. 36-8 참조.

병드르실ᄯᅵ라도(1:29), 보올ᄭᅡ(2:5), 됴화ᄯᅡᄒᆞ니(2:17), 니젓ᄯᅡ소이다(3:3), 편ᄒᆞᆯᄭᅡ 祝願ᄒᆞᄂᆡᆼ이다(6:14), 너길ᄭᅥ시니(7:6), 됴ᄒᆞᆯᄭᅡ 시프외(7:11)

〔ㅅ系 並書의 使用例〕

안ᄡᅡ다히(1:9), 머글ᄶᅥᆺ도(1:28), ᄒᆞ올써시니(2:5), 술왓ᄉᆞᆸ쎠니(3:9), 될싸 너기ᄋᆞᆸᄂᆡ(2:22), ᄒᆞᆯᄶᅧ라도(4:13), ᄀᆞᆯ흴싸(4:14), 섭섭ᄒᆞᆯᄯᅳᆺᄒᆞ오니(7:11), 엇더ᄒᆞᆯ쑈(7:20), 어렵ᄉᆞᆸ써니와(8:5), ᄒᆞᄋᆞᆸ씨ᄂᆞᆫ(8:5), 사흘ᄶᅵᆯ흘(8:5), 쉽써니와(8:11), ᄉᆞᄉᆞ써시(8:21) 等等

이러한 表記法은 ㅅ系 並書가 이 때에 이미 完全히 된소리로 變해 있었음을 알려 준다. 그러나 이것으로써도 그 變遷의 正確한 時期는 測定하기 困難하나, 여기에서는 우선 ㅅ系 並書의 된소리化는 서기 16세기에 있었던 일로 보아 두려한다.(13)

그리고 17세기 文獻에 나타나는 새로운 한가지의 事實은 (더 調査하면, 그 앞 時期의 文獻에도 나타날는지 모르나), 「ᄶ」의 登場이다.

모릐ᄶᅳᆷ (捷解新語 4:7)

이것은 分明히 된소리의 表記인데, ㅅ系가 된소리 表記였더라면, 15세기 文獻에서도 「ㅉ」이 쓰인 자리에 「ᄶ」이 使用되었을법한 일이다.

ㅂ系 : ㅅ系 並書가 된소리로 되었음이 決定的인 時期에 있어서도 ㅂ系는 그 語頭의 /ㅂ/이 그대로 維持되었던듯 하다. 이제 年代順으로 17세기 文獻부터 檢討해 보기로 한다.

---

(13) 筆者는 이 冊의 舊版에서, 이 時期를 서기 1600年 前後 四五十年 동안으로 잡았으나 그 때는 不幸하게도 16세기의 文獻을 잘 入手하지 못했을 때이었기에 이러한 推斷을 하였던 것인데, 16세기 文獻이 어느 정도 검토된 오늘에 와서도 그 正確한 時期는 完全히 잡혀지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서 確言할 수 있는 것은, 17세기에 와서는 ㅅ系는 完全히 된소리化했다는 事實과, 그 된소리化는 이에 훨씬 앞선 時期에 일어나 있었으리란 事實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막연히 그 時期를 16세기로 잡아 두었다.

諺解 胎產集要(1608年)에서 여기 關聯 있는 말을 몇가지 가려보면,

ᄠᅥ니, ᄢᅧ, ᄡᅮᆨ, ᄎᆞᄡᆞᆯ, ᄎᆞᄧᆞᆫ믈, ᄡᅳ미, ᄧᆞᆫ거슬, ᄠᅳᆮ드러, ᄡᅳ고,
ᄢᅮ츠면, ᄣᅴ워

따위 거의 ㅂ系는 正確히 舊態를 유지하고 있다.

東國新續三綱行實圖 (1615年):

ᄠᅳ데, 거슬ᄧᆞᆫ, ᄠᅳ돌, ᄢᅧ나디아니ᄒᆞ고, ᄡᆞᆺ거놀, ᄡᅥᆫ거술, ᄡᅳ샤, ᄣᅴ우고,
ᄡᅳ레질

亦是 그대로 유지된다.

老乞大, 朴通事, 捷解新語 따위에 있어서도,

쑥(<ᄡᅮᆨ, 朴 上 35), ᄯᅴ노ᄂᆞᆫ(<ᄣᅱ-, 捷 6:8)

과 같은 若干의 例外가 있기는 하나, 거의 大多數의 ㅂ系 合用 並書는 依然히 「ㅂ」이 維持되어 있다.

〔老, 上〕 ᄢᅧ난다(1), ᄢᅧ뎌(1), 대ᄢᅩᆨ(3), ᄡᅳᄂᆞᆫ(5), ᄡᅳ고(11), 조ᄡᆞᆯ(8), ᄡᆞᆯ(35),
ᄠᅳᆮ(10, 37), ᄠᅡ(19), ᄡᅳᆷ(59), ᄣᆞᆯ라(62) 等

〔朴, 上〕 ᄡᅳ리라(1), ᄡᅳ리로다(29), 좁ᄡᆞᆯ(37), ᄡᆞᆯ(17), 뵈ᄧᆞᆼ이(17), ᄠᅳᆮ(24),
ᄢᅵ(31), 애ᄢᅵ오ᄂᆞ니라(32), ᄡᅮᆨ(35), ᄣᅱ노ᄂᆞᆫ(38) 等

〔捷〕 ᄠᅳᆮ(1:4, 7), 힘ᄡᅥ(1: 32), ᄣᆞᆯ듸(4: 19), ᄣᅴ워(5: 13), ᄢᅧ나셔(8: 1), 일로ᄡᅥ(8, 27) 等

그리고 元來 ㅅ系인 「쏘-(射), 쓰-(書)」가 間或 「ᄡᅩ-」 (이 表記例는 그 由來가 오라다), 「ᄡᅳ-」(이것은 아마 '用'에 類推된 듯)로 表記된 것이 나타나기는 하나, 거의 大多數의 ㅅ系와 ㅂ系는 混用됨이 없다.

譯語類解(1690年)에서도,

니ᄡᆞᆯ, ᄡᅮᆨ, 비단 ᄡᅳᄂᆞᆫ 잉아, ᄡᅳᄂᆞᆫ, ᄢᅧ나다, ᄡᅳᄂᆞᆫ, ᄣᅴ워, 門ᄧᅡᆨ, 고티ᄡᅳ다,
블ᄢᅧ다

와 같이 混用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事實로 미루어 부면, 文獻 上으로는 서기 17세기 末까지도 ㅂ系는 아직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다.

그러던 것이 西紀 1748年에 刊行된 同文類解에서는,

ᄡᅵ=種子 (下 1)

ᄡᅵᄆᆡ티다=結子(下 6)

과실ᄡᅵ=果核子(下 6)

ᄡᅵᄇᆞᄅᆞ다=去核子(下 6)

일로ᄡᅧ=以此(下 50)

의 몇가지 ㅂ系의 並書를 찾아볼 수 있을 뿐, 다른 모든 ㅂ系 並書는 죄다 「ㅅ」으로 代置되어 있다.

ᄊᆞ눈=米雪(上 2)

ᄯᅳ다=浮(上 8)

세쓰는사ᄅᆞᆷ=矜勢人(上 13)

쓸게=肚子膽(上 17)

주근ᄭᆡ=雀瘢(上 19)

ᄯᅱ다=跳過(上 26)

뒤ᄯᅧ디다=後落(上 26)

힘쓰다=用力(上 31)

ᄭᅳᆫ드이 너기지아니타=不嫌(上 33)

ᄯᅳᆯ=庭子(上 36)

ᄶᅡᆨ짓다=結配耦(上 52)

샹토ᄶᆞ다=綰頭髮(上 54)

바ᄂᆞᆯ귀 ᄭᅦ다=紉針(上 56)

ᄶᅵᆫ밥=蒸飯(上 58)

ᄶᅬ야 ᄆᆞᆯ뢰오다=烤烘(上 60)

ᄶᆞ다=醎(上 62)

ᄯᆞ다=摘了(下 2)

老米ᄊᆞᆯ=老米(下 2)

조ᄊᆞᆯ=小米(下 2) 等等

이러한 傾向은 이와 거의 同時期의 文獻인 御製常訓諺解(1745年)와 御製訓書諺解(1756年)에서도 나타난다.

쎠르며(常 18), 쎠러디논ᄃᆞᆺ(常 23), 힘쓰며(訓 40), 그ᄯᅳᆮ은(訓), 씨(訓)

그러나 「ㅂ」을 유지하고 있는 例도 보인다.

才로ᄡᅧ(常 4), ᄠᅳᆮ에(常 6), 힘ᄡᅳ며(訓 16)

「ㅂ」 保有는 舊狀態에 어긋나며, 元來 /ㅂ/이 없었던 자리에도 「ㅂ」을 쓴 例가 보인다.

法祖 아래 ᄡᅧ=書…(常 16)

그리하여 18세기 後半期의 文獻에서는 이러한 傾向은 普遍的이다.

一例로 字恤典則(1783 A.D.)을 보면,

「ᄡᅳ-」와 「쓰-」 (書)

「ᄊᆞᆯ」과 「ᄡᆞᆯ」 (米)

이 混用되고, 또 語源的으로 ㅂ系인 것이, 「ᄯᅳᆺ」(意)과 같이 ㅅ으로 表記되기도 하는 反面,

어질인ᄶᆞ(字)

와 같이, 元來 /ㅂ/ 音이 없은 말에 ㅂ系 並書가 使用되어 있는 것이다.

以上 論述한 바로써 우리는, ㅂ系의 된소리化는 西紀 17세기 末에서 18세기 初에 걸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니, 1740年 頃에는 이미 그 된소리化는 完成되었다.

ㅄ 系: 17세기 文獻에서는 「ㅴ, ㅵ」이 完全히 유지되어 있음이 드물고, 「ㅂ」이 省略된 語形과 「ㅅ」이 省略된 語形의 두 갈래가 나타난다.

「ㅂ」 脫落 : ᄭᅮᆯ(蜜, 胎產集要), ᄒᆞᆷᄭᅴ(同), ᄭᅳᆷ(杜重 14:9), ᄒᆞᆫᄭᅴ(杜重 3:65), ᄭᅮᆯ(杜重 21:6), ᄭᅳ면(朴通 中 18), ᄯᆞ이되(朴通 上 31), ᄢᅦ여(朴通 中 34), ᄭᅱ엿더니(朴 上 31), ᄯᆞ되(朴 上 54), 어ᄂᆡᄭᅴ(捷 5:3)

「ㅅ」 脫落 : 뎌쁴(杜重 1:4), 어느쁴(杜重 3:37), 뿔(杜重 14:9), 뽀이디(杜重 3:53), 빠리논(杜重 4:15), 뻘어(杜重 15:6), 빼(老乞大 上 39), 빼(朴上 17), 따예(朴上 32), 뼈러뎌(朴上 37), 어ᄂ쁴(捷 1:26), 그쁴(同 25), 빼예(同 4:5), ᄒᆞᆫ빼(同 6:6), 아므쁴(同 6:12).

本形 유지 : ᄢᅧ디여(胎產), ᄢᅢ(同), ᄢᅢ(杜重 18:1), ᄢᅥᆯ어(同 6:47), ᄣᅥ러디고(杜重 9:8).

이로써 보면 ㅂ系보다 ㅄ系가 더 빨리 된소리로 變하지 않았던가 추측된다.

以上 說明한 바, 複合 子音 音素의 된소리化는 :

ㅅ 系는 그 時期를 잡기 힘드나, 대체로 서기 16세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진다.

ㅂ 系는 17세기 末로 부터 18세기 初期에 動搖하기 始作하여 1740年頃에는 그 변천은 完成되었다.(14)

ㅄ 系는 16세기부터 동요하기 始作하여, 17세기에는 된소리로 變한 것도 있고, ㅂ系와 合流한 것도 있어서, 결국은 ㅂ系와 運命을 같이 하였다.

이리하여 李朝 初期 訓民正音을 만들던 그 當時에 있어서는, 된소리 /ㄲ, ㄸ, ㅃ, ㅉ/은 獨立한 音素로서 그리 分明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던 것인데, 이러한 變遷으로 말미암아, 된소리는 우리 音韻 體系 안에서, 確固不動한 獨立 音素의 資格을 確保하게 되었다.

國語 音韻史上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된소리의 發達은, 軟音의 된소리化로 말미암아 一層 더 促進되어 내려온 것이다.

---

(14) 된소리의 두갈래 큰 源泉 中에서, ㅅ系의 表記 方法이 後期에 와서 된소리 表記 方法으로 쓰이게 된 것은, 이와 같이 ㅅ系 複合 子音이 ㅂ系보다 100年 以上이나 먼저 된소리로 되었기 때문이다.

곶>꽃, 불휘>뿌리, 가치>까치, 겄다>꺾다, 긑>끝 等等

(2) 母音 體系의 변천

〔가〕 /i̤/(ᅇᅧ), /ʌ/(ᄋᆞ)의 消滅

〔나〕 /j̤/(ᅇᅣ, ᅇᅧ, ᅇᅭ, ᅇᅲ)의 消滅

먼저, 緊張 (半)母音의 消滅의 時期부터 說明하기로 한다.

「ᅇ」은, 이미 論斷한 바와 같이, 後續하는 母音(半母音) [i] [j]의 tense 임을 表記한 것인데, 이것은 lax 의 [i] [j]와 聽覺上으로 그리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이 소리는 쉽사리 lax vowel로 變하는 것인데, 그 使用되어 있는 文獻은 「ᅘ」과 거의 同一하다.

〔ᄒᆡᅇᅧ>ᄒᆡ여〕

使ᄂᆞᆫ ᄒᆡᅇᅧ ᄒᆞᄂᆞᆫ 마리라 (訓)

해 魔ᄋᆡ 惑ᄒᆡᅇᅭᆷ 니브릴ᄊᆡ (楞 6:87)

ᄒᆞ마 ᄒᆡ여 뼈며 스저 (杜 16: 34)

能히 ᄒᆡ여곰(杜 6:45)

〔얽ᄆᆡᅇᅧ->얽ᄆᆡ이-〕

얽ᄆᆡᅇᅧ다(釋 13:9), 얽ᄆᆡᅇᅲᆷ미 (釋 6:29)

百姓이 지즈로 얽ᄆᆡ이니라 (杜 20:5)

〔ᄆᆡᅇᅧ->ᄆᆡ이-〕

ᄆᆡᅇᅧᄂᆞ니라(釋 13:9), ᄆᆡᅇᅩᆫ(楞 5:5), ᄆᆡᅇᅩᆷ(楞 8:37)

그러나 同時期의 文獻에 「ᄆᆡ이-」가 使用되어 있으니, 일찍부터 tense vowel은 lax vowel과 任意로 變異되는 일이 있었던 모양이다.

如來 ᄂᆞ외야 煩惱애 ᄆᆡ이디 아니ᄒᆞ실ᄊᆡ 自在ᄒᆞ시고 (月印 7:49)

性空ᄋᆞᆯ 아라 ᄆᆡ이디 아니ᄒᆞ면 (永嘉 上 108)

〔믜ᅇᅧ->믜이-〕

믜옌 고ᄃᆞᆯ (蒙山 19)

그러나 같은 蒙山法語에 「믜이-」로도 表記되어 있다.

사ᄅᆞ미게 믜이샨 고ᄃᆞᆯ (蒙山 61)

이러한 點으로 보면, 緊張(半)母音은 이미 15세기 中葉부터 動搖하고 있었으나, 이것이 決定的으로 없어진 것은, 「ㆅ」과 같이, 1480年 頃으로 推定된다.

/ʌ/(ㆍ)의 消滅: 17세기 以後의 文獻에서, /ㆍ/의 表記에 對한 事實을 年代順으로 나열해 보면:

諺解 胎産集要(1608): 이 文獻의 「ㆍ」의 表記로 보면, /ʌ/(ㆍ)가 消滅된듯한 흔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第二 音節 以下에서의 動搖는 일찍부터 있은 事實이니, /ㆍ/의 消滅을 알려주는 것은, 第一 音節의 /ㆍ/가 다른 字로 表記되거나, 또는 /ㆍ/ 以外의 母音을 「ㆍ」로 表記하거나 한 事實이다.)

朴通事, 老乞大, 捷解新語에도 /ㆍ/의 消滅의 徵兆는 보이지 않는다.

譯語類解(1690)에는 "겨올, ᄀᆞ음아는, ᄇᆞ람, ᄀᆞᄆᆞ다, 언지"와 같이, 第二 音節에서는 꽤 甚한 동요를 보이고 있으나, 第一 音節의 混記는 잘 보이지 않는다.

女四書諺解(1736)에서도 대체로 舊狀態를 유지하고 있다.

御製常訓諺解(1745)에는 대체로 混記가 잘 나타나지 않은듯 하나, 御製訓書諺解(1756)에는 "우러ᄅᆞ 보옴일서"(5)와 같은 混記例가 보인다.

戒酒綸音(1757)이나 御製諭耽羅民人書(1781)까지도 그 用法은 舊態를 유지한다.

그러나 諭咸鏡道南關北關大小士民綸音(1783)에는 "남의 ᄯᅡ"(<ᄂᆞᆷ)와 같은 말이 보이고, 諭濟州民人綸音(1784)에는 "니러안ᄌᆞ"(<안자), 御製諭濟州大靜旌義等邑父老民人書(1793)에는 "ᄆᆞ리"(마리), 綸音(1793)에는 "싼ᄯᅡ"(<ᄡᅡᆷ), "ᄉᆞ름사리"(<사롬사리), 養老務農綸音(1797)에는 "졈어실셕"

(<ᄢᆡ) 따위 混記例가 보이다가, 喩中外大小民人等斥邪綸音(1839)에서는 "나리오시믜 (<ᄂᆞ리오시매), ᄯᅡ름(<ᄯᆞ롬), ᄂᆡ시믜(<내시매)" 따위 그 混記는 매우 甚하다.

이로써 보면 /ㆍ/는 18세기 中葉에 그 동요가 꽤 甚하게 일어나서 末期에 이르러서는 거의 消滅되고 만 것으로 推定된다.

이러한 事實은 다음 文獻의 證言으로도 나타나는 일이다.

申景濬의 訓民正音韻解(1750 A.D.)에 다음과 같은 말이 보인다.

"中聲亦象唇舌而制字 ㆍ呼時舌微動唇微啓 而其聲至輕其氣至短 ㆍㆍ並ㆍ者也 其聲比ㆍ差重 其氣比ㆍ差長 蓋ㆍㆍㆍ聲之始生者也 其形微未及成畫 故華音無以ㆍㆍㆍ作中聲用者 唯兒二等字 以ㅇㆍㄹ呼之而亦是譌也 我東字音 以ㆍ作中聲者頗多 而ㆍㆍ則全無 惟方言八曰ᅇᅧ덟 此一節而已"

우리 漢字音은 「ㆍ」로 中聲 삼은 字가 매우 많다 하였으니, 그 때에까지 아직 /ㆍ/ 音이 分明히 存在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或은 이것은 文字를 두고 한 말이지 實地의 發音은 모를 일이라고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中國語의 '兒, 二' 等字는 「ᅀᆞᆯ」로 부르나, 이는 바른 /ㆍ/ 音이 아니고, 우리 漢字音은 /ㆍ/ 音이 많이 쓰인다고 하였으니, 이는 單純히 文字上의 問題가 아니라, 實地에 /ㆍ/ 音이 發音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ㆍ/에 [j] 音이 先行한 「ᆢ」音이 方言에 쓰이고 있다고 하였음에랴. 그러므로 筆者는 申景濬 時代(1712 A.D.—1781 A.D.)에는 아직 /ㆍ/ 音이 分明히 使用되고 있었다고 斷定하는 바이다.

그러나 西紀 1824年에 된 柳僖의 諺文誌에는,

"東俗不明於ㆍ 多混於ㅏ<如兒事等字從ㆍ 今俗誤呼如阿些> 亦或混ㅡ<如ᄒᆞᆰ土今讀흙土>"

라 하였으니, 이 때에는 이미 /ㆍ/ 音이 完全히 消滅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柳僖는 西紀 1773年에 나서 1837年에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가 母語를 習得했을 무렵, 곧 1780年 頃에는 아마 /ㆍ/ 音은 完全히 없어지고 말았던 것으로 믿어진다. 1780年 頃은 申景濬의 末年에 해당되니 /ㆍ/는 申景濬의

晩年에 消滅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인데, 이는 최현배님의 舊版 한글갈의 論斷과 大體로 合致된다.(15)

〔다〕 /aj, əj, oj, uj/의 單母音化

〔라〕 /ʌj/의 運命

다음, /aj/, /əj/ 따위 重母音의 單母音化의 時期에 關해서, 이 숭녕님은, 「十五世紀의 母音體系와 二重母音의 Kontraktion的 發達에 對하여 (東方學志 第一輯)」에서, 18世紀가 二重 母音이 單母音으로 變異되기 始作한, 또는 變異가 끝난 것이 아닐까 라고 하였는데, 이 單母音化의 時期 決定은 앞의 /ㆍ/ 消失의 시기 결정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ㆍ」는 다른 母音字와 混記되다가 드디어 없어졌지만, 「ㅐ, ㅔ」들은 다른 字와 混記된 일도 없고, 지금까지도 의연히 그냥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變한 音을 表記할만한 文字가 따로 存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變한 모습이 文獻에 反影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또 「ㆍ」의 경우에는 申景濬이나 柳僖의 記錄이 있었지마는, 「ㅐ, ㅔ」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記錄도 찾아볼 수 없는 形便이다. 그러므로 筆者는 다른 方面으로 그 時期를 推定해 보려 한다.

捷解新語(1676 A.D.)에, 日語의 「エ」音을 表記하는 데 困難을 느꼈음을 보고, 그 때에 아직 「ㅔ」가 [e]音이 되지 않았음을 말하였으며(p.350), 그보다 훨씬 後期인 1748年에 된 同文類解에는 淸語를 우리글로 音譯하였는데, 여기에서는 淸語의 /aj/, /ej/ 따위를, 하나 例外 없이, 「애」 「에」로 音譯해 놓았다. 萬一 「애」 「에」가 그 때 이미 /ɛ/, /e/였더라면, /aj/, /ej/는 應當 「아이」, 「어이」로써 表記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애」, 「에」로써 한 것은 바로

/aj/=애, /ej/=에

---

(15) 한글갈 p. 582에는 英正時代에 이르러서는 全然히 그 소리값을 잃어 버렸다고 하였는데, 고친 한글갈 p. 521에서는, 17세기에 완전 소멸되었다고 하였다

이었기 때문이었으리라 믿어진다. 一例를 들어 보이면:

大後日<글픠> 재초로(上 3)=jai coro

翌日<이튼날> 재이넝기(上 5)=jai inenggi

寒冷<칩다> 베권(上 5)=bei kuwen

已 메허(上 6)=meihe

歪水<믈쓰다> 무커 왜담비(上 8)=muke waidambi

水面 무케 외로(上 8)= mukei oilo

當家的<지아비> 에건(上 10)= eigen

賢人 새사(上 12)=saisa

士<션비> 빋헤 냘마(上 12)=bithei niyalma

獵戶<산장이> 붇해 냘마(上 13)=buthai niyalma

花娘<화냥이> 배쿠(上 14)=baikū

眉毛<눈섭> 배탄(上 15)=faitan

肩膀<엇게> 메런(上 15)=meiren

그리고 우리말의 助詞「-의」에 해당되는 말은 [-i]로서,

'말의 떼'는 morin-i adun

'山의 기슭'은 alin-i dade

'羊의 고기'는 bonin-i yali

와 같이 되는데, 同書에 보면, '水'는

무커(上 8)=muke

인데, '물의'의 뜻인 [muke-i]는

水源 무케 서천(上 8)

水沫子 무케 오봉기(上 8)

水面 무케 외로(上 8)

水派 무케 갈간(上 8)

水泡 무케 호볻(上 8)

水底 무케 벋러(上 8)

와 같이 "무케"로 表記해 놓았다. 이것으로 보면 "무케"는 바로 [muke-i]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omolo'는 '孫'의 뜻인데, '孫의 孫'인 玄孫은 "오모뢰 오모로"로 되어 있으니, 이것은 'omoloi omolo'의 音譯이다.

눈(眼)은 'yasa'인데, '眼淚'는 「야새 무커」(上 15)=yasa-i muke이요,

손(手)은 'gala'인데, '手掌'은 「가래 바랑구」(上 16)=gala-i falanggu 이며,

「다리」(脚)는 'bethe' 인데, '脚掌'은 「버헤바탄」(上16)=bethe-i fatan 으로 되어 있다.[16]

그리고 西紀 1741年에 되고, 1790年에 補刊되었다고 하는 蒙語老乞大에도 蒙古語의 /aj/, /ej/는 亦是 「애」, 「에」로 表記되어 있다.

아바개(1 : 1)=abaGai

새(1 : 1)=sai

텐쿠(1 : 2)=tèin hu

새한(1 : 2)=saiHan

보래(1 : 6)=bolai

엔쿠(1 : 7)=èin hu

에무(1 : 10)=èimu

샌(1 : 11)=sain

테무(1 : 13)=tèimu[17]

---

(16) 여기에 로마字化한 滿語는,
羽田亨編: 滿和辭典
에 依함.

(17) 여기의 蒙古語의 로마字化는,
韓㐰精阿 等著인 「蒙和辭典」에 依함.
그리고 金芳漢님에 依하면, 蒙語老乞大의 蒙古語는 若干의 口語가 混入되기는 하였으나 대체로는 蒙古 文語의 反影이며, 文語에 있어서의 이런 말들의 發音은, 分明히 二重 母音으로 한다고 하니, 여기의 論證은 信憑性을 두어도 상관 없을줄 안다.

이들보다 뒤에 나온 八歲兒(1777 A.D.)에도 亦是 同一한 方法으로 音譯하였다.

샌 =sain

무케 이한=muke-i ihan

슈새 =šusai

애나하=ainaha

웨러 =weile

배비 =baibi

애 =ai 等

以上 記述한 事實로 미루어 보면, 西紀 1780年 頃까지는 「애」, 「에」 따위는 明白히 [aj] [əj]로 發音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뒤에 언제 이것들이 單母音이 되었는지를 決定할 수 있는 證據는 찾아낼 수 없다.[18]

그러나 「ᄋᆡ」가 「애」와 같이 /ɛ/로 變한 事實로써 미루어 보면, /ᄋᆞ/가 /아/로 變하고 난 뒤에 「애」가 /ɛ/로 變했으리라 추측된다. 萬一 그렇지 않고, /ᄋᆞ/가 /아/로 變하기 前에 「애」가 /ɛ/로 變했다면, 「애」[aj]와 다른 「ᄋᆡ」 [ʌj]는 /ɛ/와는 다른 어떤 單母音으로 變했을 可能性이 많기 때문이다. 卽

/ʌj/ > /ɛ/

/aj/ > /ɛ/

變化의 可能性보다,

$$\left.\begin{array}{l}/\text{ʌj}/ > /\text{aj}/ \\ /\text{aj}/ - /\text{aj}/\end{array}\right\} > /\text{ɛ}/$$

---

(18) 筆者는 일찍, 拙稿 「"에, 애, 외, ᄋᆡ"의 音價」 (國語國文學 第一輯)에서, 이 重母音들의 單母音化를 大體로 西紀 17世紀末로 보고, 그 理由로 洪啓禧의 三韻聲彙 凡例의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 보인 일이 있었다.

"如橫色等字 本中聲外 又得ㅣ中聲而成字 與侵中聲ㅣ不同 故又附於下日重中聲"

그러나 「색, 횡」의 따니 ㅣ가 「침」의 ㅣ와 다르단 말은, 그 音價가 다르단 뜻으로만 解釋되는 것이 아니라, 그 使用 方法이, 하나는 所謂 「本中聲」에 붙는데, 하나는 初聲에 붙는 點이 다르다란 뜻으로도 解釋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써는 「ㅐ, ㅔ」가 單母音이었다는 證據가 되지 못한다.

로 變化되었을 可能性이 많다. /ᆞ/의 消滅을 1780年 頃으로 본다면,

/ʌj/ > /aj/

의 變化도 亦是 同時期였을 것이니, 다음 段階인

/aj/ > /ɛ/

의 變化는 西紀 1800年 以後의 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卽 /aj/ > /ɛ/, /əj/ > /e/의 변천은 서기 19세기에 일어난 일이다.

/aj/, /əj/의 單母音化에 比하면, /uj/, /oj/의 單母音化는 더 늦은 것으로서, 이 두 소리는 現代語에 있어서도 아직 重母音을 유지한 發音이 남아 있고, 特히 /uj/는 重母音으로 發音되는 일이 오히려 많다.

다만 現代語의 이 重母音은 /wi/, /we/로 發音되어서 上昇的 二重 母音이 되는데, 下降的 重母音 /uj/, /oj/가 언제 上昇的 重母音이 되었느냐도 한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는 뒤에서 다시 論하겠기로 여기에서는 길게 說明하기를 피하겠거니와, '下降>上昇'의 변천은, 국어의 다른 下降的 重母音이 죄다 없어지고, 上昇的 重母音만이 남게 된 結果일 것이니, 亦是 19세기에 일어난 일로 생각된다.

좀더 詳細히 말하면, /uj/는 19세기에 上昇的이 되어 /wi/가 되고, /wi/는 그 發音이 [ɥi]로 實現되는데, [ɥi]는 圓唇을 끝까지 유지하면 [y]가 된다. 이 單母音化는 現在 進行中이다.

/oj/는 兩要素의 互相 同化로 /ø/로 變하는데, 한편에 있어서는 /j/가 /o/에 間隙 同化되어서 /e/가 되고 [oe]는 上昇的 重母音으로 變하여 /we/가 되기도 하여 元來부터 있던 /we/와 合流한다.

[마] /jaj, jəj/ > /jɛ, je/

/waj, wəj/ > /wɛ, we/

/aj, əj/의 單母音化는 곧 위의 三重 母音의 二重 母音化를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그 時期도 서기 19세기로 推定된다.

[바] /ïj/의 不安定

元來 /ïj/는 下降的 二重 母音이었다. 그런데, 下降的 二重 母音이 많았던 15—18세기에 있어서는, 이 소리도 그와 더불어 安定性을 유지하게 되었는데, 下降的 二重 母音 中 /aj, əj/가 單母音化하고, /uj, oj/도 單母音化 乃至는 上昇的 二重 母音化하고, /ʌj/는 없어지고, 그 위에 三重 母音이 上昇的 二重 母音으로 變하고 나니, /ïj/는 下降的 重母音으로 孤立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이것마저 上昇的으로 [ĭi]로 發音해 보기도 하나, 그 혀 移動의 距離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重音母的인 性格이 잘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重母音은 不安定하며 앞으로 消滅의 運命에 놓여 있는데, 이렇게 不安定하게 된 것은, /aj, əj, oj, uj/가 單母音이 되고, 三重 母音이 上昇的 二重 母音이 된 19세기부터라고 생각된다.

[사] /joj, juj/의 消滅

「쇠」, 「쉬」는 대개는 語末에서 主格形 또는 指定詞로 나타난다. 따라서 끝의 「ㅣ」는 대개는 主格 助詞 혹은 指定詞이다.

원통ᄒᆞ믈 푸문 뉘 업스며(御製諭耽羅民人書, 1781年)

도롤 닷글ᄉᆞᆯ 니론 쾨라(御製訓書諺解, 1756年)

그러나 그밖의 경우가 全혀 없는 것은 아니다.

양취 ᄀᆞᆺ고(諭耽羅民人書)

主格 助詞의 「-가」가 本格的으로 文獻에 登場하는 것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인데, 이에 따라 위와 같은 三重 母音은 危機에 놓이게 된다. 뿐아니라 三重 母音이 二重 母音으로 變하는 全體的인 경향에 따라 이것도 二重 母音으로 變할 處地에 놓여 있었는데, 이 三重 母音은 二重 母音이 되기 무척 어려운 音聲的 條件을 지니고 있다.

/juj/의 /uj/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wi/로 바뀌거나 /y/로 變하는데, /wi/에는 다시 /j/가 앞설 수 없다. 그리고 /uj/가 單母音의 /y/로 날 때도 /j/는 여기 連結될 수 없는데, 그 理由는, /j/의 辨別的 資質은 [i]에서

의 혀의 移動인데, /y/는 그 移動을 不可能하게 하기 때문이다. /juj/는, 三重 母音으로 남을 수도 없고 二重 母音化할 道理도 없어서, 없어지고 말았다.

/joj/의 /oj/는 /ϕ/ 또는 /we/가 되는데, /we/에 /j/가 앞설 수 없음은 앞의 경우와 한가지다. /ϕ/에는, 音聲學的으로는, /j/가 앞설 수 있으나 [ϕ] 自體의 性格이 安定性이 없으므로 이것이 다시 重母音을 形成한다는 것은 不可能한 處地이다.

이렇게 하여 이 두 三重 母音은 消滅되고 말았는데, 그 時期는 「-가」 助詞가 本格的으로 登場되고, 重母音들의 大移動이 일어난 19세기의 일로 推定된다.

(3) 音素 連結 方式의 變遷

[가] 兩唇 子音 + /ï/(으)

/ㅁ, ㅂ, ㅍ/에 /으/가 連結되는 것은 15세기에는 自由롭다. 그러나 이 자리의 /으/는 /우/로 變化했기 때문에, 현대어에서는 이 자리에서 /ï/와 /u/는 中和되는데, 이 자리에서의 /ï/ > /u/의 時期는 언제일까?

17세기 中葉에 나온 老乞大 諺解나 朴通事 諺解에는 대체로 「므, 브, 프」는 舊形을 保有하여 混記가 없으나, 老乞大에는,

ᄒᆞ나 머무러=留一箇(上 30) (<머므러)

와 같은 混記가 나타나고, 杜詩諺解 重刊에도,

엇제 머물리오(11 : 18)

와 같은 混記가 보이기는 하나, 이 時期의 文獻에는 대체로 舊形이 유지되어 있다.

譯語類解(1960年)에도 그 混記는 거의 보이지 않은듯 하다.

므지게(上 1), 믈(上 2), 븟ᄃᆞᆺ(上 2), 믈위(上 3), 믈러나다(上 9), 믄허디다(上 14), 블ᄣᅵ다(上 5), 믈 혀다(上 7)

cf. ᄒᆞᆰ무디(上 8), 유무(上 12)

그러나, 御製常訓諺解(1745)에는,

民을 부료ᄃᆡ=使民(29) (<브료ᄃᆡ)

感懷를 픔엇더니(4) (<품엇더니)

와 같은 混記가 보이며, 御製訓書諺解(1756)에도,

…로부터(21) (<브터)

븟그럽도소니(性 6) (<붓그럽-)[19]

와 같은 混記, 또

불상히~블상히(11)

와 같이, 한장 안에 두가지 語形의 混用도 나타난다.

戒酒綸音(1757)에는,

후로부터, 더부러(<더브러), 북관(北關)

따위 混記가 나타나고,

綸音(1793)에는: 북풍(北風), 몰의 므리(群)

養老務農綸音(1797)에는: 더부러, ᄡᅥ부터, 무룻(<믈읫)

따위 混記가 甚하다.

이로써 보면, /ㅁ, ㅂ, ㅍ/ 다음의 /ï/가 /u/로 變한 것은, 대체로 서기 17세기 末期에서 18세기 初期에 걸쳐 完成된듯 하다.

[나] /ㄷ, ㅌ/의 口蓋音化

/t, tʰ/의 /i, j/ 앞에서의 口蓋音化는; 17세기 中期 文獻인 老乞大 諺解나 朴通事 諺解에는,

---

(19) 杜詩諺解 重刊(1632年)에도,

븟그리ᄋᆞ오라(3:7), 븟그럽디(3:50)

와 같은 混記가 보이나, 이것은, 그 當時의 다른 文獻과의 對比로 알 수 있듯이, 그 當時의 中部地方 言語의 反影은 아닐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木板이 精密하지 못한 것이 原因이거나, 아니면 이 板本이 嶺南地方에서 이루어진 탓으로, 그 方言形이 混入되었거나, 둘 中의 한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杜詩諺解 重刊에 方言形이 混入되어 있는 흔적에 대해서는 다음 論文을 참조.

安秉禧: 重刊 杜詩諺解에 나타난 t口蓋音化에 對하여 (一石 李熙昇先生 頌壽記念論叢)

진짓 도ᄌᆞᆨ=正賊(老 上 25)

진짓 善知識=眞善知識(朴 上 66)

과 같이, 「진딧」이 口蓋音化된 語形이 보이는데, 이 語形은 이미 오래 前부터 나타나기 始作하여 杜諺 原刊에도 나타나 보인다.

진짓 氣運=眞氣(8 : 56)

그리고 또 「디다」(負)는,

先生이 ᄯᅩ 디거다(朴通 下 22)

와 같이 舊形이 나타나기도 하나,

내 지면…(朴通 中 50)

지며 이긔믈…(朴通 上 22)

과 같이 口蓋音化한 語形이 나타난다. 그러나 大部分의 /t, tʰ/+/i, j/는 舊形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20]

譯語類解(1690)에도 舊形이 대체로 유지되어 있는듯 하다.

훗터디다, 댱마비, 디난히, 밤듕, ᄒᆞᆰ무디, 딩검ᄃᆞ리, 믄허디다 等等

常訓諺解(1745)에도, 그 口蓋音化의 흔적은 잘 찾아볼 수 없으나,

맛디디 말고 맛져란(35)

과 같은 例가 보인다.

그러나 女四書諺解(1736)에는,

큰지라, 다ᄉᆞ지못홈이, 重치아니ᄒᆞ냐, 엇지 等等

와 같이 口蓋音化形이 나타나며(以上은 序文에 나오는 것이며 本文에는 舊形이 쓰여 있다),

訓書諺解(1756)에도,

밧드지 몯ᄒᆞ야(2) (<받드디)

듯지 몯ᄒᆞ괘라(9) (<듣디)

---

(20) 杜詩諺解 重刊에는 口蓋音化한 ᄒᆞᆫ적이 많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例들은, 앞 註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方言形의 混入된 것으로 추측된다. (安秉禧님의 앞의 論文 參照).

엇지 (9. 11) (<엇디)

따위 例가 보이고, 또 元來「ㅈ,ㅊ」이 쓰이던 자리에 「ㄷ, ㅌ」이 나타나는 일이 있다.

가져오면~가뎌오기(20)

디엇다(23) (<지엇다)

몬뎌(25) (<몬져)

常訓 짓기논…이 훈셔 딧기논(27)

이 程度가 되면, 여기 口蓋音化의 完成을 斷定해도 좋을 것이다.

그 以後 文獻을 하나만 더 들면, 戒酒綸音(1757)에,

셩실치 못홈애, 엇지, 굿치, 마지아니ᄒᆞ면, 밋지아니ᄒᆞ니, 니ᄅᆞ지말라

等等 그 混記는 매우 甚해진다.

그러므로 이 口蓋音化 現象은, 서기 18세기 中期에는 이미 完成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지며, 늦어도 서기 18세기 初期에는 完成된 것으로 추측된다.[21]

[다] 齒音+/j/ 重母音

/ㅅ, ㅈ, ㅊ/ 齒音에 이어나는 /j/ 重母音은, /ㅅ/ 다음에서만 若干의 命脈을 유지하고, 다른 경우에는 죄다 單母音으로 變하여, 이 자리에서는 單母音과 /j/ 重母音과는 辨別的으로 機能할 수 없게 되는데, 이 變遷의 時期는 언제일까?

이 兩類의 分別은, 15세기에서 16세기 17세기의 文獻에서는 매우 整然하게 되어 있어서, 이러한 變化는 이 時期까지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이 分明해진다.

---

(21) 金亨奎님은, 그 時期를 正祖 中期에 와서는 아주 完成되었다고 하였는데 <「口蓋音化의 研究」(서울大學校 論文集, 人文社會科學편 No.9)>, 이렇게 되면 18세기 末期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 提示한 資料로 보면, 그렇게까지 늦어질 수는 없다.

더 내려가서 18세기의 文獻에서도 그런 흔적은 찾기 어렵다. 이를테면 常訓諺解(1745)나 訓書諺解(1756)에서는,

술, 사기거나, ᄀᆞᄎᆞ, 이제, 사ᄅᆞᆷ

따위는 「샤, 쟈, 챠」系로 表記됨이 없고,

셔울, 빅셩, 쟝ᄎᆞᆺ, 죵, 몬져, 셤곰, 죠희

따위는 「사, 자, 차」系로 表記됨이 나타나지 않는다.

戒酒綸音(1757)에도 그 區別은 잘 지켜져 있고,

諭耽羅民人書(1781)에도 亦是 그러하며,

諭咸鏡道南關北關大小士民綸音(1783)이나, 諭濟州民人綸音(1784), 諭濟州大靜旌義等邑父老民人書(1793)에도 그 分別이 잘 되어 있다.

養老務農綸音(1797)에도 대체로 그 區別이 되어 있으나,

섬기ᄂᆞᆫ듸(<셤기-)

이서(<이셔)

따위 混記가 若干 보이며, 斥邪綸音(1839)에서는,

쥬시단말이라(<주시단-)

쳐음(<처엄)

이졔(<이제)

셔로(<서르)

셰번(<세-)

과 같은 混亂이 甚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兩系音의 區別이 잘 되어 있지 않았던 결과일지니, 이러한 事實로써 보면, 齒音 다음의 /j/ 重母音의 單母音化는, 대체로 서기 18세기 末期에서 19세기 初期에 걸쳐 일어난 事實로 보아지는데, 이 變化는 齒音의 主 變異音이 혀끝-소리인 [s, ts, tsh]에서 센-입천장-소리인 [ɕ, tʃ, tʃh]로 變했음을 의미한다. (센-입천장-소리가 되었기에 /j/가 잘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라] 語頭의 /n/+/i, j/

語頭에 있어서의, /i, j/ 앞의 /n/ 音素는 脫落하게 되는데, 그 時期도 表記法의 混記에서 求해 보는 方法 밖에 없다. 表記法의 混記가 소리의 變遷을 잘 反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말에서는 最近까지 表記法의 傳統이 세워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말의 경우에 있어서는, 表記法의 混亂은 대개는 音素 自體의 변천으로 보아 그리 틀림없을 것으로 믿는다.

語頭의 「니, 냐…」가 「이, 야…」와 잘 區別되어 있기는, 15세기, 16세기, 17세기를 거쳐 18세기 末期의 文獻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이다.

諭咸鏡道南關北關大小士民綸音(1783)에는,

니(利), 녀름(夏), 니르지(云), 니즈리오(忘), 니른후…

따위와 같이, 「이, 여…」로 混記됨이 보이지 않으며,

養老務農綸音(1797)에도,

뉴(類), 녯(舊), 님군(君), 닛고(忘), 니러나(起), 년치(年齒), 뉵경(六經)

따위 「이, 야…」로 混記되지 않는다.

그러나 斥邪綸音(憲宗 5年, 1839)의 "일으되(云)"를 爲始하여 그 以後에는 混亂이 甚해간다. 그러므로 /i, j/ 앞의 語頭 /n/의 脫落은 18세기 末期에서 19세기 初期에 일어난 事實로 보아진다.

[마] 子音+/ïj/

/ïj/는 不安定하여, 單獨으로도 잘 쓰이지 않을뿐 아니라, /ㅎ/ 以外의 子音 다음에서는 대개 /i/로 變해 버린다. 그러나 元來는 子音 다음에서도 /i/와 /ïj/는 辨別的으로 機能하였다.

키(「크-」의 派生 副詞) : 킈(「크-」의 派生 名詞, 身長)

기리(副詞) : 기릐(名詞)

기피(副詞) : 기픠(名詞)

現代語에서는 이 副詞와 名詞가 모두 같은 꼴이 되어 버렸다. 그 時期는, /ïj/ 重母音이 不安定하게 된 19세기 以後의 事實로 추측되는데, 이 현

상은 적어도 /t, tʰ/의 /i, j/ 앞에서의 口蓋音化가 일어난 時期보다는 뒤에 일어났다는 것은 確實하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萬一 그 以前에 /ïj/가 /i/로 變했더라면, 「듸, 틔」 音節도 아울러 口蓋音化를 입었을텐데, 이 音節은 口蓋音化가 일어나던 때에는 아직 「디, 티」로 變해 있지 않했었기 때문에 口蓋音化를 免하여, 아직까지 「디, 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卽,

견듸- > 견디-(忍), 드듸- > 디디-(踏), 어듸 > 어디(何處),

띄 > 띠(帶), 드틀 > 틧글 > 티끌(塵)

따위 말에 있어서의 「디, 티」가 口蓋音化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ïj/ >/i/의 변천이 口蓋音化 時期보다 뒤에 있었기 때문이다.

```
/ti/ > /či/—/či/
  |      |     |
/tïj/—/tïj/>/ti/
      (十八世紀初)  (?)
```

孟子栗谷諺解(1749) 따위 文獻에서는 漢字音의 「飢긔, 器긔——其기, 棄기 岐기」 따위는 混亂됨이 없다.

그러나 이 時期를 決定함에는 좀더 상세한 調査가 있어야 할 것이나, 여기에서는 우선, 19세기에 일어난 일로 추측하여 둔다.

[바] /s/ 終聲이 없어짐

15세기 국어에 있어서는 /s/ 終聲(音節 末音)이 유지되어 있었으나 현대어에서는 이것이 /t/ 終聲으로 바뀌고 말았다.

그 時期는, 的確히 斷定하기 困難하나, 어느 정도의 推定은 可能한듯 하다.

杜詩諺解의 原刊(1481 A.D.) 과 重刊(1632 A.D) 사이에는 「ㄷ」과 「ㅅ」 終聲 表記에 다음과 같은 變動이 있음을 發見하게 된다.(左편은 原刊, 右편은 重刊)

듣곡(15 : 4) —듯고, 곧디아니ᄒᆞ니(15 : 5) —곳디, 곧ᄒᆞᆫ(15 : 7) —곳ᄒᆞᆫ,

받디아니ᄒᆞᄂᆞ니(15 : 9) —밧디, 듣고(16 : 44)—듯고, 듣노라(16 : 72)—듯노라, ᄀᆞᆮ도다(6 : 2)—ᄀᆞᆺ도다, ᄀᆞᆮᄒᆞ니(6 : 7)—ᄀᆞᆺᄒᆞ니, 묻노라(6 : 14) —뭇노라, 곶미틔셔=花底(6 : 15)—곧미틔셔, 얻고져(7 : 4)—엇고져, 얻ᄂᆞ니(7 : 31) —엇ᄂᆞ니

이로써 보면, 原刊에는 15세기 中期의 표기법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데, 重刊에서는 混亂을 보이고 있다. 이것만으로 보더라도 重刊 時期에는 이미 終聲의 「ㄷ」과 「ㅅ」의 差異가 없어졌던 것으로 推定된다.

이러한 현상은 17세기의 文獻에는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老乞大> 곳 功을다가(上 4), cf. 곧 ᄀᆡ니(上 1), 못올가(上 1),
다ᄃᆞᆺ디 못ᄒᆞ고(上 9), 듯보니(上 49), ᄆᆞᆺ아자비(下 3),
ᄀᆞᆺ디아니ᄒᆞ니(下 7)

<朴通事> 눈ᄀᆞᆺ티(上 29), 아디 못ᄒᆞ니(上 9), ᄆᆡ기ᄅᆞᆯ 긋이ᄒᆞ고(上 10),
밧고(上 11), ᄀᆞᆺ디 못ᄒᆞ니라(上 13)

<捷解新語> ᄀᆞᆺᄌᆞ올거시니(1 : 4), 뭇디 아니ᄒᆞ여도(1 : 9), 듯보와(1 : 13),
듯ᄌᆞ올쏜가(1 : 19), 못ᄒᆞ거든(1 : 29), cf 몯ᄒᆞ니(1 : 14), 뼈뎓ᄉᆞᆸᄂᆞᆫ고
(1 : 11)—뼈뎟ᄉᆞ오니(1 : 13)

/t/ 終聲이 쓰이던 자리에 「ㅅ」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리고 「ㄷ」과 「ㅅ」이 混同되는 일이 있는 點으로 보면, 17세기에는 完全히 /s/ 終聲이 /t/로 合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訓蒙字會에는 그 區別이 꽤 엄연히 지켜진다.

갇=笠(中 15), 帽(中 22)——갓=物(下 2), 皮(下 8)

낟=鎌(中 16), 穀(下 3)——낫=晝(上 1)

돋=豕(上 19)——돗=席(中 11)

맏=場, 圃(上 7)——맛=味(下 13)

몯=釘(下 16)——못=池(中 8), 淵(上 4)

믿=肛(上 29)——밋=舵(中 25)

받=田(上 7)——밧=外(下 34), 表(上 35)

빋=債(下 22)——빗=光(下 1)

엳=今(下 2)——엿=飴, 餹(中 21)

그러나 若干의 混同이 全혀 없지는 않다.

곧갈=帢(中 22)——곳갈=冠, 巾, 幘, 冕(中 22)

믿=肛, 臀(上 27)——밋구무=屁(上 30)

벋=伴, 朋, 友, 侶(中 3)——벗=儕(下 24)

訓蒙字會의 表記로 보면, 이 時期에 이미 어느 정도 동요가 있은 것은 事實이겠으나, /s/ 終聲의 全的인 變化로는 볼 수 없을듯 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s/ 終聲의 消滅은 16세기 中期 以後에 完遂된 것으로 보려한다.

[사] 母音 調和의 破壞

母音 調和 現象은, 1445 A.D.에 刊行된 龍歌에서 가장 規則的이고, 그 後期의 文獻에서부터는 이 規則이 破壞되기 始作함을 볼 수 있으니, 西紀 1459年에 된 月印釋譜에 다음과 같은, 規則에 어긋난 使用例가 보인다.

여ᄅᆞ시며(序 7), 글워룰(序 12), 頌쑹은(序 13), 崇쑹ᄋᆞᆫ(序 13), 奉뽕은(序 13), 仰앙은(序 16), 句롤(序 20), 무루물(序 20), 불휘룰(序 21), 비취요미(序 23), 술위룰(序 24), 德本을(序 24), 업소매(同), 펴아시놀(1:4), 겨ᄃᆞ로(1:4) 等等

그러나 여기에서는 形態部(助詞, 語尾)의 첫머리의 母音 交替에 나타나는 調和 現象이 破壞되기 始作한 것인데, 이러한 破壞 作用은 後期에 이를수록 더욱 甚하여져서, 내중에는 '나모>나무'와 같이, 形態素 內部의 調和 作用마저 破壞되기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 破壞 作用은 어느 한 時期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李朝 五百年 동안을 通해서 徐徐히 일어난 것으로서, 現代에 있어서도 이 調和 現象이 一部分 남아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4) 聲調의 消滅과 音長의 發生

15세기에 있어서는 낱낱의 말은 그 高低가 一定해 있었는데, 이 聲調는 이미 杜詩諺解(1481 A.D.)에서 多少 變化하기 始作했던 것이다. 이를테면 去聲의 一音節 體言에 一音節의 助詞가 붙으면, 이 語節은 거의 例外 없이 「去去聲」이었었는데, 杜諺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去平聲」으로 變하는 傾向이 顯著하게 나타난다.

•나리(20 : 11), •니피(6 : 27), •부든(6 : 5), •프른(6 : 33), •대와(20 : 6) 等

上聲의 경우에도 同一한 現象이 나타난다.

:돌히(6 : 51), :버디(6 : 36), :이롤(20 : 40), :버미(6 : 41), :버른(15 : 56)等

그리고 平去聲 二音節 體言에 一音節 助詞가 붙으면 平去去聲의 語節이 되는데, 杜諺에서는 平去平聲으로 變하는 傾向이 보인다.

어•르미(7 : 28), 수•프리(7 : 16), 아•드리(20 : 28), 기•르믈(16 : 55)等等[22]

이리하여 높은 가락이 漸次 낮아지게 된 結果,

1. 平聲과 去聲의 差가 없어지고,

2. 낮다가 높아가는 上聲은 平坦하게 되었다.

그런데 上聲은 낮다가 높아가는 複合 聲調이었던 까닭에, 平聲이나 去聲보다는 多少 길게 發音되었을 것은 自然的인 傾向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高低가 平坦하게 되면서 去聲과 平聲은 짧은 소리로 合流했으나, 上聲만은, 非辨別的 資質이 辨別的 資質로 變하여, 긴소리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古聲調의 上聲은 거의 다 現代語에서는 長音으로 發音되고 있다.

눈(雪), 돌ㅎ(石), 말(語), 새(鳥), 일(事), 等等

한편 최 현배님에 依하면, 古文獻에 있어서의 四聲點 치기는 世宗朝에서 中宗朝 末까지는 一般的으로 施行되고, 明宗朝부터는 얼마 解弛되어 宣祖朝

(22) 이에 관해서는:
許 雄: '旁點硏究' (中世國語硏究) 참고.

壬辰까지는 部分的으로 遵行되었고, 그 以後는 全然히 廢止된 것이라 한다.[23]

四聲點 치기와 聲調 消滅 與否와의 관계는 다음 세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1. 旁點이 찍혀진 時期에 있어서도 聲調는 이미 消滅되었는데, 從來의 慣習上 旁點 表記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2. 旁點 表記와 聲調의 運命은 完全히 同時이었다.

3. 聲調는 유지되어 있었으나, 그 分析이 잘 되지 않아서, 旁點을 表示하지 못했다.

이러한 세가지 경우가 다 可能한데, 「1, 3」의 경우보다 「2」의 경우가 더 蓋然性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우리는 特別한 資料를 發見하기 前에는, 「2」로 推定해 두려 한다. 卽 聲調는 壬辰(1592) 前後에 消滅되었다.

3) 變　遷　史

以上에서 우리는, 個個의 音韻 變遷에 對해서, 그 變한 時期를 推定해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總體的으로 變遷을 通觀하면서, 그 변천의 原因을 究明해 보기로 한다.

앞에서도 言及한 일이 있었지만, **변전의 原因은 音韻의 構造 內部에서 求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먼저 앞에서 說明한 個個의 事實을 時期別로 羅列해 보기로 하자. (年代는 西紀).

1450—60 頃: /β/(ㅸ) 消滅

1460—80 頃: /h'/(ㆅ) 消滅

(23) 최현배: 한글갈 p. 465. (고친판 p. 373)

緊張 (半)母音 消滅

母音調和 허물어지기 始作

16세기: ㅅ系 子音群의 된소리化

/s/ 終聲의 消滅

16세기 末期: /z/(△) 消滅

1600年 前後: 聲調 消變, 音長 發生

17세기: ㅄ系 子音群의 變異(ㅂ系 또는 된소리로)

17세기 末期에서 18세기 初期: ㅂ系 子音群의 된소리化

兩唇 子音 다음의 /ï/>/u/

18세기 初期: /t, tʰ/ 口蓋音化

1780 頃: /ʌ/(ㆍ) 消滅

/ʌj/(ㆎ)>/aj/

18세기 末—19세기 初: 齒音 다음의 /j/ 脫落

語頭의 /i, j/ 앞의 /n/ 脫落

19세기: /aj/, /əj/>/ɛ/, /e/

/jaj/, /jəj/>/jɛ/, /je/

/waj/, /wəj/>/wɛ/, /we/

/oj/, /uj/>/ϕ, we/, /y, wi/

/ïj/ 不安定

子音+/ïj/의 회피

/joj/, /juj/ 消滅

(1) /β/(ㅸ)의 消滅

서기 1440年代에 訓民正音이 創造된 直後, 아니 그 當時부터 動搖되기 始作하여, 1460年까지에는 完全히 消滅되고 말았다.

/β/는 그 配置가 極히 局限되어, 母音 사이나, /l/와 母音과의 사이에만 나타난다. 뿐 아니라 /β/는, 發生的으로는, /p/가 위와 같은 位置에서 間隙

의 同化를 입어 弱化되어 가는 過程에서 나타나는 音이었다. 調音 方法으로 보면, "將合勿合 吹氣出聲"(崔世珍의 說明) 하는 소리이었기 때문에 매우 不安定하다. 사람의 上下唇은 꼭 平行하지 않고 아래턱이 웃턱보다 若干 안으로 물러들어가 있기 때문에, 兩唇 摩擦音은 唇齒音의 [f] [v]로 變하는 傾向이 있는데, /β/는 그렇게 變할만큼 強한 청취 효과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消滅되고 말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組織 上으로 보더라도, 다른 兩唇音들에 있어서는 停止와 摩擦의 對立이 없는데, 軟音 系列에만 이러한 對立이 나타나기 때문에 孤立된 存在이었다. 組織 上으로 다른 音素와 孤立된 音素는 쉬이 消滅되거나, 다른 音素로 바뀔 可能性이 많은 것이다.

	軟音	硬音	氣音
停止	/p/	/p'/	/p^h/
摩擦	/β/	—	—

(2) /h'/(ㆅ)의 **消滅**

/β/가 없어질 무렵부터 動搖되기 始作하여 1480年頃에는 完全히 消滅되고 만다.

/h'/는 母音과의 連結이 아주 局限되어 있다. 卽 /jə/ 重母音 以外에는 連結되는 일이 없는 것 같다. (勿論 校正 漢字音에는 다른 母音 앞에서도 나타나나, 이것은 그 當時의 現實音이 아니다). 이러한 配置 上의 局限性은 이 子音을 다른 音素와 孤立시키는 原動力이 된다.

그리고 다른 硬音은 모두 軟音에 喉頭緊張이 加味된 것인데, 이것은 氣音과 對立되어 있는 點으로도 孤立的 存在다.

軟音	/p	t	č	s	k /	
	|	|	|	|	|	
硬音	/p'	t'	č'	s'	k'	h'/
						|
氣音						/h/

이러한 事實은 그 當時의 語學者들도 認識하고 있었던 일이다.

"全淸並書則爲全濁 以其全淸之聲凝則爲全濁也 唯喉音次淸爲全濁者 蓋ㆆ聲深不爲之凝 ㅎ比ㆆ聲淺 故凝而爲全濁也"(訓民正音 制字解)

그 當時의 訓民正音 字母의 分類는,

五音 / 淸濁	牙	舌	脣	齒	喉
全 淸	ㄱ	ㄷ	ㅂ	ㅅ, ㅈ	ㆆ
全 濁	ㄲ	ㄸ	ㅃ	ㅆ, ㅉ	ㆅ
次 淸	ㅋ	ㅌ	ㅍ	ㅊ	ㅎ
不 淸 不 濁	ㆁ	ㄴ, ㄹ	ㅁ	ㅿ	ㅇ

위와 같이 되어 있는데, 다른 全濁(硬音) 字母는 모두 全淸(軟音) 字母를 雙書하였는데, 喉音만은 次淸의 「ㅎ」을 雙書하고 있다.

이러한 配置上의 局限性과 組織上의 不均衡性은 /h'/를 다른 音素들과 孤立시키게 되므로 이것은 쉬이 消滅되고 만다.

正音 創製 當時의 22 子音 組織은, 서기 1480年까지에는 두 子音을 잃고, 20 子音 組織으로 變하는데, 이 組織은 현대어의 19 子音 組織에 매우 가까워졌다.

(3) 緊張 (半)母音의 消滅

緊張 (半)母音은 /h'/와 거의 같은 時期에 消滅되고 말았는데, 그것도 이 音素가 組織上으로 孤立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卽 單母音으로서는 오직 前舌 高母音에만 緊張과 緩弛의 對立이 있었고, 半母音에 있어서도 [j↓](24)에만 두가지 對立이 나타나지, 다른 半母音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事實은, 이 音素를 組織上으로 孤立시키게 되며, 따라서 이 音素

(24) [i] 位置에서 다른 位置로 이동하는, 母音 앞의 半母音을 表記하는 記號로 使用한다. [j↑]는 [i] 位置에로의 이동을 표시한다.

를 消滅시키는 原動力이 되었다.

配置上으로는, 이 母音들은 子音에 連結되지 않는다. 組織上으로나 配置上으로나 孤立된 音素는 다른 音素와의 連絡이 잘 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音素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組織은 不安定한 것이 된다. 不安定한 組織은 되도록이면 安定된 組織으로 向하기 위해서, 孤立된 音素를 消滅시키려는 傾向이 強하게 作用하는 것이다.

(4) ㅅ系 子音群의 된소리化

언제부터인지 明確하게 言明하기는 힘드는 일이나, ㅅ系 子音群은 16세기에는 된소리로 化한듯 한데, 이 변천은 音聲學的 條件에 依해 說明될 수 있다. 初頭의 [s]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매우 間隙이 좁고, 마찰은 弱한 音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그 다음의 外破 子音 /t, p, k/에 比해 문제가 안될 정도로 弱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앞소리가 뒷소리에 同化되어 重複 子音이 되고, 이것은 곧 元來부터 있었던 된소리로 변한다.

된소리는 元來 그 配置가 極히 局限되어 있어서 /ㅆ/, /ㆅ/ 以外에는 語頭에 나타날 수 없었기 때문에, 配置上 不安定한 音素 系列이었다. 그러므로 이것이 消滅된다면, 軟音 系列로 變할 可能性이 가장 많은데, 有聲音 사이에 있어서의 軟音과의 差異가 너무 두드러진 것이었으므로 軟音으로 變하기도 困難하였다. 그러므로 된소리에 가까워진, ㅅ 子音群에서 온 重複 子音을 된소리로 끌어들여서, 여기에 된소리는 組織上으로나, 配置上으로나 完全한 安定性을 獲得하게 되었던 것이다.

(5) /s/ 終聲의 消滅

/s/ 終聲은 그 音價가 明確한 마찰이 잘 나타나지 않는 內破音이었다. 이 點으로는 語頭 子音群의 「ㅅ」과 그 性格이 비슷하였다. 따라서 語頭 子音群의 ㅅ系가 된소리로 化함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s/ 終聲도 消滅된 ——/t/로 合流한—— 것으로 생각된다.

(6) /z/(△)의 消滅

15세기 末에, /β/, /h'/가 消滅되고, 16세기에 들어서어서 ㅅ系 子音群이 된소리가 되고 난 뒤로는, 20子音 音素 中, 語頭에 설수 없는 것은 /z/, /l/, /ŋ/의 셋 뿐이었다.

그 中에도 /z/는, 語中에서, 子音 앞에서도 나타날 수 없다는 點으로 해서 /l/, /ŋ/와도 分離된다.(/l/, /ŋ/는, 語中에서, 母音 사이나 子音 앞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리하여 配置 上으로, /z, l, ŋ/가 다른 子音과 分離되는데, /z/는 다시 /l, ŋ/와도 分離된 存在이었다.

組織 上으로, /z/는 /s/와 有聲 無聲으로 對立되는데, 聲의 辨別的 資質은 다른 데는 存在하지 않고, 오직 이 두 音素를 分別하는 데에만 限해서 機能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로도 /s/:/z/ 두 音素의 對立은 다른 音素들의 對立과는 孤立되어 있었다.

音聲의 性格으로 보면, /z/는 /s/가 有聲音 사이에서 有聲化한 것이어서 그 청취 효과도 그리 똑똑하지 못했다.

이러한 音聲的 性格과, 組織上·配置上의 孤立性으로 말미암아 /z/는 16세기 末期에는 完全히 消滅되고 말았다.

15세기 中期의 22 子音 組織 中, 그 安定性을 위협하는 /β/, /h'/, /z/가 16세기까지에는 消滅되고 난 뒤, 現代語의 19子音 組織은 여기 完成된다.

(7) 聲調와 長短의 交替

聲調의 平坦化의 原因에 대해서, 일찍 筆者는 旁點研究[25]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일이 있다.

---

(25) 「東方學志」(延世大學校 東方學研究所 發行) 第二集. 이 論文은 또 「中世國語研究」에도 실려있는데, 이 말은 그 pp. 359-61에 있음.

李朝 初期의 旁點法이 整然함을 보면, 그 當時의 高低의 音程은 현대 경상도 방언의 音程보다 더 컸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매우 거칠은 音感을 주었을 것이다. 中部 地方 사람들이 경상도 방언을 들으면 흡사 싸움이나 하는듯 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高低가 甚하면 거칠은 感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칠은 말은 都市의 社交 生活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都市의 君子 淑女들은 말을 조용하게 하는 버릇으로, 그 高低를 되도록이면 억제하게 된다. 高低의 平坦化가 漢城 같은 都市를 中心으로 하여 먼저 일어났으리란 추측은 그 根據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平坦化는 16세기 末期에는 꽤 進行되어 있었는데, 여기 直接的으로 마지막 打擊을 준 事件은 壬辰 以後의 社會的인 恐怖 不安 狀態다. 社會的 不安 狀態는 말의 變化에 크게 作用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平聲과 去聲은 短音으로, 上聲은 長音으로 變하여, 여기 長短이 聲調에 代置되는데, 現代語의 韻素 組織은 여기 完成된다.

(8) 語頭 子音群의 消滅

/ㅴ, ㅵ/의 三子音群은, 17세기에 이르러 ㅂ系로 되거나 完全히 ㅅ系처럼 된소리가 되어 버렸으니, 이 때 三子音群은 없어지고 만다. 그 原因은 순수히 音聲學的으로 說明된다. 卽 앞의 弱한 內破音이 뒤의 強한 外破音에 完全 同化되어 된소리가 되거나, 初頭의 /ㅂ/만이 그대로 남아서 ㅂ系 子音群에 合流한다.

語頭 子音群 中 그 命脈을 가장 오래 維持한 것은 ㅂ系이다. 16세기에 ㅅ系가 된소리로 變하고, 이어 17세기에는 ㅄ系가 된소리 또는 ㅂ系로 變하고, 나머지 ㅂ系 마저 17세기 末期에는 된소리로 變하여 語頭에는 子音群이 올 수 없게 되었다.

그 原因은, 音聲學的으로는 앞에 說明한 바와 같거니와, 配置上으로는, 語頭에 설 수 있는 子音群의 連結이 極히 局限되어 있었다는 데도 原因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卽 15세기부터 語頭 子音群의 첫머리는 /ㅅ/과 /ㅂ/만이 설 수 있었다는 것이 이미 配置上의 局限性을 의미하거니와, 이에 뒤따를 수 있는 音素도 그리 自由롭지 못했었는데, ㅅ系 마저 된소리로 變하고 나니, 첫머리의 子音은 /ㅂ/만이 남게 되고, 따라서 子音群을 形成할 수 있는 子音은 그 範圍가 한층 좁아졌다. (ㅂ-ㄷ, ㅂ-ㅅ, ㅂ-ㅈ, ㅂ-ㄱ)

이렇게 되면 이들 두 子音은 한 單位처럼 作用하게 되는 傾向이 더욱 強해진다. 서로 다른 音素들과 널리 連結될 수 있으면, 그 따로서는 힘이 強해지는데, 語頭의 /ㅂ/처럼, 不過 넷의 子音과 連結될 수 밖에 없고, 그리고 語頭 子音으로서 다른 子音에 앞설 수 있는 것은 /ㅂ/ 뿐이고 보면, 이들 子音의 結合은 하나의 單位처럼 緊密히 結束된다.

이러한 配置上의 局限性이 있는데다가 音聲學的인 條件이 加重해 있다. 이것이 ㅂ系 子音群이 된소리로 變한 原因이다. 17세기 末期에서 18세기 初期에 일어난 일이다.

15세기의 22子音 組織에서, 16세기에는 19子音 組織이 完成되고, 17세기 末期에는 마지막 語頭 子音群마저 된소리가 되어, 子音群은 語頭에는 나타날 수 없게 되었으니, 現代 子音 組織은 여기에서 完成되었다.

(9) 兩唇音 다음의 /ï/:/u/

ㅂ系 子音群의 된소리化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兩唇 子音 다음의 /ï/가 /u/로 變하여, 이 位置에서는 /ï/:/u/의 對立은 中和되는데, 그 原因은 音聲學的으로 說明되는 수 밖에 없다.

卽 /u/는, /ï/와 혀의 모습은 거의 같으나, 입술을 오므리는 소리다. 따라서 /ï/에 입술 오므림을 보태게 되면 /u/가 되는데, 이러한 作用은 그 앞의 兩唇音이 맡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一種의 同化 作用이다.

(10) 口蓋音化의 傾向

現代語에서는 혀끝과 센-입천장의 位置的 差異는 辨別的으로 作用하지 못한다. 그러나 15세기에는 센-입천장-소리는 없고, 혀끝-소리만이 나타난다.

그러던 것이 18세기 初期에는 /t, tʰ/가 /i, j/앞에서 口蓋音化하여 /č, čʰ/로 變하고, 18세기 末期에서 19세기 初期에 걸쳐서는 /č, čʰ/의 主 變異音이 센-입천장으로 옮아지게 되었다,

(18세기 초) (18세기 末—19세기 初)

/ta/[26] [ta] — /ta/ [ta] — /ta/ [ta] — /ta/ [ta]

/ti/ [ti] > /či/ [tsi] } > /či/ [tʃi] — /či/ [tʃi]

/či/ [tsi] — /či/ [tsi] }

/ča/ [tsa] — /ča/ [tsa] — /ča/ [tsa] > /ča/ [tʃa]

그 結果 /j/系 重母音은, /t, tʰ/에도 連結되지 못하고, /č, čʰ/에도 連結되지 못하게 되었다.(/s/에도 거의 잘 連結되지 못한다.)

이러한 口蓋音化의 一般的 傾向은, 같은 혀끝-소리이던 /n/에도 作用된다. /i, j/ 앞의 /n/는 口蓋音化를 입어 [ɲ]가 되고, 語頭에 있어서의 [ɲ]는 뒤의 소리에 間隙의 同化를 입어서 드디어 脫落된다. 여기에서부터 語頭에서 /n/는 /i, j/에 앞설 수 없게 된다. /č/의 口蓋音化와 같이, 18세기 末期에서 19세기 初期의 일이다.

(11) 母音 組織의 大 變遷

/ʌ/(ᄋᆞ) 消滅 : 15세기의 母音 體系는 前舌 母音이 적고, 全體的으로 後舌로 치우친 均衡 잡히지 못한 組織이었다. 여기에 /ᄋᆞ/ 消滅의 理由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後舌 區域에는 여러 母音이 서로 密集해 있어서 그「中立 地帶」[27]는 매우 좁다. 그러나 /a/와 /o/는 口張 口蹙의 兩

(26) /ti/는 '/t/+/i,j/'를 의미하고, /ta/는 '/t/+그밖의 母音'을 의미한다

域에 存在하여 그 地位는 安定하다. 그러므로 이 近處의 母音 中, 한 母音이 없어진다면 /ʌ/(ㆍ) 밖에 없다. 1780年頃의 일이다.

이리하여 7母音 組織은 6母音 組織으로 되어, 後舌 區域의 中立 地帶는 어느 정도 넓혀지고, 따라서 安定感은 確立되는듯 하나, 前舌 母音과의 均衡은 아직 잡히지 않는다.

前舌 母音의 發達: 後舌로 치우친 組織은 /ʌ/의 消滅로 中立 地帶가 넓어져서 어느 程度의 安定度은 얻을 수 있었으나 前舌系와 後舌系와의 不均衡은 如前히 存在하였다.

이 틈에 侵入한 것이, /aj/, /əj/의 互相 同化로 나타나게 된 /ɛ/, /e/이다. 19세기의 일이다.

이리하여 單母音은 8母音 組織으로서,

	前舌	後舌 平唇	後舌 圓唇
高	i	ï	u
中	e	ə	o
低	ɛ	a	

와 같은, 꽤 整然한 均衡이 잡히게 되었다.

三重 母音의 運命: 이에 휩쓸려 변친을 입은 것이 /aj, əj/를 가진 三重母音이다.

/jaj, jəj/ > /jɛ, je/
/waj, wəj/ >/wɛ, we/

---

(27) 어떠한 母音의 變異音으로도 占領되어 있지 않는 母音圖上의 區域을「中立地帶」라 부른다. A. Martinet의 "Marge de sécurité"에 해당된다.
<Économie des changements phonétiques. pp. 47-8>참조.

/aj, əj/의 下降的 二重 母音이 單母音으로 變하고, 그 前에 /ʌj/는 /aj/로 變하여 그와 運命을 같이 하고, 三重 母音 中의 /jaj, jəj, waj, wəj/가 上昇的 二重 母音으로 變하고 나니, 二重 母音은 上昇的인 것이 下降的인 것보다 優勢하게 되었다. 이러한 重母音 組織上의 特徵은 남은 下降的 二重 母音의 運命에 決定的인 영향을 주게 된다.

남은 下降的 二重 母音: 남은 下降的 二重母音이란 /oj, uj, ïj/의 셋인데, /oj/, /uj/는 上昇的 二重 母音에 끌려 上昇的인 /we/, /wi/로 變한다. 그러나 /ïj/는 그러한 安定된 上昇的 二重 母音으로 變할 道理가 없어 不安定한 狀態에서 來日의 運命을 기다리고 있다.

/oj, uj/는, 한편으로는 重母音의 單母音化 傾向에 끌려서 單母音으로 變하는데, 이러한 傾向을 促進하는 힘은, 母音의 組織上의 均衡이다. 卽 後舌母音에는 平唇과 圓唇의 對立이 있었으나, 前舌에는 그러한 對立이 생겨나지 않았다. 이러한 빈틈에 침입한 것이 /oj, uj/의 /ϕ, y/ 單母音化다.

남은 三重 母音의 運命: 남은 三重 母音은 /joj, juj/의 둘인데, /oj, uj/가 二重 母音으로 남거나, 單母音이 되거나, /j/는 여기 先行할 수 없는 音聲的 條件이 있고, 그리고 形態論的 變遷은 이 三重 母音을 不必要로 하게 되어, 이것은 消滅되고 만다.

이리하여 현대어의 10 單母音과 12 重母音 組織은 完成되는데, 이러한 母音 組織의 一大 變革은, 서기 18 세기 末期에서 19 세기에 걸쳐 일어나게 된 事實이다.

以上에서 說明한 事實을 表로 보이면 다음과 같이 된다.

年代	子音		母音		連結	韻素
	單	複	單	重		
15 세기 中期의 特色	22子音 組織	ㅂ系 4 ㅅ系 4 } 10 ㅄ系 2	7 母音 組織＋ 緊張母音 /ɨ/	<二重> 下降的: 6 上昇的: 완이 {j 系 4, w系 2} 긴장: j 系 4 <三重> 6	兩唇子音 ＋/ï/ /t,tʰ/＋/i,j/ 齒音＋/j/ 子音＋/ïj/ 語頭/n/ ＋/i,j/ 8 終聲 母音調和	聲調 3 토닙
1450—60	/β/ 消滅					
1460—80	/h'/ 消滅		/ɨ/ 消滅	緊張二重母音 消滅	母音調和허물어지기始作	
16 세기		ㅅ系 된소리化 된소리 發達			7終聲完成	
16 세기 末	/z/ 消滅 19子音 組織完成					聲調消滅 音長發生
17 세기		ㅄ系 ↗된소리 ↘ㅂ系				
17 세기末— 18 세기初		ㅂ系 된소리化 現代化完成			兩唇子音다음의 /ï/>/u/ /i, j/앞의 /t, tʰ/口蓋音化	
18 세기 初						
1780			/ʌ/ 消滅 6母音 組織	/ʌj/>/aj/		
18 세기末					齒音다음의 /j/ 脫落, 語頭의 /i,j/ 앞의 /n/ 脫落	
19 세기			/ɛ,e/ 發生 前舌系 發達 /y,ϕ/ 發生 10母音 組織完成	/aj,əj/ 單母音化 /jaj/>/jɛ/ /jəj/>/je/ /waj/>/wɛ/ /wəj/>/we/ 上昇的二重母音 發達 /oj, uj/ 上昇的重母音化, 또는單母音化, /juj, joj/消滅, /ïj/ 不安定	子音＋/ïj/의 회피 現代化 完成	

現代 音韻體系의 特色	19子音 組織	語頭子音群 不許	10母音 組織	二重母音 上昇的 {j 系 6, w系 5} 下降的 1	15세기 中期의 特色으로들어 보인連結을避함. 7終聲法. 母音調和는흔적만	音長 體系

2. 音韻의 變化

言語 記號의 시니피앙으로서의 音韻의 變異를 '變化'라 부르기로 하였는데, 本章에서는 主로 近世 五百年 동안의 文獻에 나타나 보이는 '變化' 事實을 分類 說明하려 하는 바이다.

變化 事實은, 그 原因으로 보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音素들의 結合的인 條件, 바꾸어 말하면, 여러 音素가 結合되는 경우, 그 앞뒤 소리와의 관련으로, 또는 한 말을 形成하는 音素 全體의 性格으로 일어나는 變化.

둘째, 다른 낱말(형태소)과의 관계로 일어나는 變化.

1) 結合的 條件으로 일어나는 變化

한 낱말 안의 音素의 結合的 條件으로 變化하는 것도, 그 中에 세 가지를 區別할 수 있다.

첫째, 發音을 쉽게 하여, 調音 作用에 必要한 努力을 적게 들이려는, 말하자면 '努力 經濟'에서 오는 變化.

둘째, 그와 反對되는 현상으로서, 努力은 若干 희생을 하더라도, 말의 生命을 유지하고 表現을 強하게 하려는 데서 일어나는 變化.

세째, 努力 經濟나 表現力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서, 無意識的으로 일어나는 變化.

(1) 努力 經濟에서 일어나는 變化

이에도 세 가지가 있는데 :

한 音素를 그 앞뒤의 다른 소리와 같거나 또는 비슷하게 하는 **同化**,

두 소리를 한 소리 또는 한 音節로 줄이는 **縮約**,

한 소리를 아주 줄여 버리는 **省略**.

[가] **同化** (assimilation)

한 音素가, 同一 語內의 다른 音素의 影響으로 말미암아, (이 두 音素는 隣接해 있을 경우도 있고, 或은 隔離되어 있는 일도 있다), 그와 같은 소리로 變하거나, 或은 그와 비슷하게 되는 것을 「同化」라 하는데, 이것은 말의 速度를 빨리하고 音聲 器官의 努力을 經濟하려는 데서 일어나는 現象이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한 音素 한 音素가 따로따로 分立되어서 發音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빨리하려면 그럴수록 한 말의 音素 全體가 한 묶음이 되어서 머리에 떠오르게 된다. 그러므로 때로는 이미 發音한 音素의 映像이 뒤의 音素를 發音할 때까지 남아있는 일도 있으며,——이 경우에는 「順行 同化」(progressive assimilation)가 일어난다——때로는 將次 發音할 音素의 映像이, 앞의 音素를 發音하고 있을 때에 미리 머리속에 떠오르는 일도 있으며,——이 경우에는 「逆行 同化」(regressive assim.)가 일어난다——때로는 한 音素를 發音할 때에, 앞소리 映像의 保留와, 뒷소리 映像의 豫期가 同時에 일어 나는 일도 있으며,——이 경우에는 앞뒤 소리를 同時에 닮게 되는 「二重 同化」(f. assimilation double)가 일어난다——때로는 앞 音素를 發音할 때는 뒤 音素가 豫期되고, 뒤 音素를 發音할 때는 앞 音素가 保留되어서 그 結果 앞뒤 音素가 서로 닮는 일도 있다.——「互相 同化」(reciprocal assim.)

그리고 영향을 주고 받는 두 소리가 이웃해 있는 것은 「直接 同化」라 하고,

다른 소리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은「間接 同化」라 한다.[1]

또 同化 作用은,「完全 同化」와「部分 同化」로 나누어진다. 前者는 영향을 주고 받는 소리가 完全히 같아지는 것이고, 後者는 서로 비슷해짐에 그치는 것이다.

[順行 同化]

齒音 /ㅅ, ㅈ, ㅊ/에 /으/ 音이 달아나게 될 때는 /으/ 音이 前舌的인 齒音에 끌려서 /이/ 音이 된다.

스ᄀᆞᆯ>스굴>시골

스ᄀᆞᇙ 軍馬(용 35)

스굴향=鄕(字會 中 8)

즛->짓-

즈ᅀᅳᆯ폐=吠(字會 下 8)

ᄧᅳᆺ->ᄧᅵᆺ-

활기 ᄧᅳᅀᅳᆯ쩨=支解時 (金강 79)

아ᄎᆞᆷ>아츰>아침

아ᄎᆞᄆᆡ (月印 2:26)

아ᄎᆞᆷ 힛비치 (杜重 14:3)

漢字音도 이렇게 變하는 일이 많다.

금실(琴瑟), 질책(叱責), 편집(編輯), 법칙(法則), 친의(襯衣)[2]

脣音 /ㅁ, ㅂ, ㅍ/에 /으/ 音이 달아날 때는, 거의 /우/ 音으로 變하는데, 이것은, /우/ 音은 /으/와 비슷하나 다만 입술을 오므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으/ 音이 입술-소리의 영향으로 입술이 오므라져서 /우/ 音이 된 것이다.[3]

---

(1) 이것은 또한「隣接 同化」(contiguous assimilation),「間隔 同化」(distant assim.)라 하기도 한다. <許雄 : 言語學概論 p. 251 참조>

(2)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 37 항 參照.

(3) ㅜ與一同而口蹙 (訓民正音 制字解).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Ⅳ, 1, 2) (3)」 pp. 439-40 참조.

믈>물(水), 블>불(火), 플>풀(草), 므르->무르-(弱, 退), 므겁->무겁-(重), 믈읫>무릇(凡), 므지게>무지개(虹), 브리->부리-(使), ᄲᅳᆯ>뿔(角), 브ᅀᅥᆸ>부엌(厨), 븕->붉-(赤), 프르->푸르-(靑) 等等

客體 尊待[4]의 {ᄉᆞᆸ}이 「ㄷ(ㅈ, ㅌ, ㅊ)」 밑에서는 「-ᄌᆞᆸ-」으로 實現되는데, 이것은 間隙 1度의 /ㅅ/이 0度의 /ㄷ/을 닮아서 0度의 破擦音인 /ㅈ/으로 바뀐 것이다. (/t/+/s/→/ts/(ㅈ)로 설명함이 더 事實에 가깝다.)

듣ᄌᆞᆸ고(용 59), 좇ᄌᆞᆸ거늘(용 36), 연ᄍᆞᆸ고(月印 2:39), 等等

그리고 「손ᅀᅩ>손조」의 變化 方式도 이와 꼭 같으니, 間隙 1度의 /ㅿ/이, '혀끝 間隙' 0度의 /ㄴ/을 닮아서, 0度의 /ㅈ/으로 바뀐 것이다. /n/+/z/>/n/+/d/(寄生音)+/z/→/n/+/dz/(ㅈ) (p. 354 참조.)

손ᅀᅩ 일워 (月印 21:104)
손조 분지반내 믈…=手奉溷器 (續三綱, 孝 5)

以上은 모두 隣接音 間에서 일어난 同化이나, 隔音 間에도 同化 作用이 일어나는 일이 있다.

第二 音節에서 나는 /ᆞ/ 音은 대개 /으/ 音으로 變하는데, (ᄆᆞᅀᆞᆷ>마음, ᄀᆞᅀᆞᆯ>가을, ᄆᆞᅀᆞᆯ>마을, 다ᄅᆞ->다르-, 모ᄅᆞ->모르- 等), 「사ᄅᆞᆷ」과 「도ᄅᆞ혀(a)」의 경우에는 「사롬」, 「도로혀(b)」로 變하였으니, 이것은 第二 音節의 母音이 第一 音節의 母音에 同化된 것이다.[5]

(a) 도ᄅᆞ혀 疑心ᄒᆞ더 (杜 15:7)
도ᄅᆞ혀 서르 ᄀᆞᆮᄒᆞ나 (杜 7:17)
(b) 도로혀…(杜重 15:7)
도로혀…(杜重 7:17)

「모로-(a) (<모ᄅᆞ-)」, 「고로-(b) (<고ᄅᆞ-)」와 같은 語形이 文獻에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이것도 亦是 同化에 因한 것이다.

(a) 甚히 아ᄃᆞ기 모로놋다=甚昧 (杜重 25:13)

(4) {ᄉᆞᆸ}의 變遷에 對해서는
許雄 : 尊待法史 (成均學報 第一集), 尊待法 研究 (中世國語研究) 참조.
(5) 李崇寧 : 朝鮮語音韻論研究 p. 156, p. 196

그를 모ᄅᆞ디=未嘗知書 (續三綱, 孝1)

(b) 뼈와 ᄉᆞᆯ쾌 고ᄅᆞ도다=骨肉勻 (杜重 11:17)

「모기」(蚊)의 古形은 「모ᄀᆡ(a), 모긔(b)」이었는데, 때로는 「모괴(c)」와 같이 表記된 곳도 보이니, 이것도 同化에 因한 것일까?

(a) 모ᄀᆡ 벌에며 (釋 9:9)

(b) 모긔문=蚊 (字會 上 22)

(c) 모괴, 모괴댱 (朴通 中 58)

「여듧>여덟」의 變化도 同化에 因한 것이다.

二十八ᄋᆞᆫ 스믈 여듧비라 (訓)

「집」의 옛말에는 「집(a)」과 「짓(b)」의 두 말이 쓰인다.

(a) 지ᄇᆞ로(용 18), 지븨 가샤(용 28), 이 지븨(용 102), 집 우흿(용 100)

(b) 그짓 ᄯᆞᆯ님 죠ᄒᆞᆯ 맛나니 (月印 8:98)

이웃짓 브른 (杜 7:6, 重刊 同)

아뫼짓 門 (杜 8:32, 重刊 同)

녜짓 어딘 듣욤과…(杜 20:21, 重刊 同)

뉘짓 아ᄃᆞᆯ오 (杜重 4:24, 33)

우리짓 碑 (杜重 2:14)

술 ᄑᆞᄂᆞᆫ 짓 壚 (杜重 2:18)

뉘짓 窂子 (朴通 中 52), 쥬인짓 거ᄉᆞ란…(老乞 上 52)

以上 「짓」이 나타나는 경우를 보면, 반드시 받침의 /ㅂ/이 內破音으로 날 때에 限해 있으니——*「지시, 지슬, 지싀」와 같은 語形은 나타나지 않는다,——이것은 內破音 /ㅂ/이 外破音 /ㅈ/에 同化된 결과이다. (內破音은 外破音보다 그 聽取 効果가 弱하므로, 內破 外破 사이에 同化가 일어날 때는 대개는 內破音이 外破音에 同化된다.)

[逆行 同化]

現代語 「함께」의 李朝 初期 語形은 「ᄒᆞᆫᄢᅴ(a)」인데, 「ᄒᆞᆫ」의 /ㄴ/이 뒷소리 /ㅂ/에 同化되어서 /ㅁ/으로 바뀌어 「ᄒᆞᆷᄢᅴ(b)」가 되고, 다시 子音群의 된소리化에 따라 「ᄒᆞᆷ씌(c)」로 變하고, 이 말이 다시 「함께」로 變한 것이다.

(a) ᄒᆞᆫᄢᅴ 보ᄆᆞ로=同見 (楞 2:36)

어스르메 ᄒᆞᆫᄢᅴ 도라가고져 ᄒᆞ리오=薄暮欲俱還 (杜 15:6)

(b) ᄒᆞᆷᄢᅴ 가면=同歸 (杜重 17:12)

(c) ᄒᆞᆷᄭᅴ 發行ᄒᆞ져 ᄒᆞᄂᆞ다=俱發 (杜重 1:8)

ᄒᆞᆷᄢᅴ 가쟈 (朴通 上 9)(6)

그리고 「솜씨」도 元來 「손」(手)과 「ᄡᅳ-」의 派生 名詞인 「*ᄡᅴ」와의 合成語 「*손ᄡᅴ」가 「손ᄡᅵ」로 變化하고, 이것이 다시 「솜ᄡᅵ」로 變化한 것이니, 이는 「함께」와 同一한 逆行 同化의 例이다.

헌헌히 나라ᄒᆞᆯ 옮길 손ᄡᅵ를 시험ᄒᆞ니=願試移國之手段 (諭中外大小臣庶綸音)

또 「ᄉᆞᆷ겁-」이 「싱겁-」으로 바뀐 것도 /ㅁ/이 /ㄱ/에 逆行 同化된 例이다.

ᄉᆞᆷ거울담=淡(字會 下 14)

ᄉᆞᆷ거옴=淡(老乞 上 20)

「깃브-(喜), 것그니(折), 곳고리(鶯), 덥갈나모(櫟)」 따위 말의 第一 音節 末의 /ㅅ, ㅂ/은 內破音 (implosives)으로 내고, 第二 音節의 頭音 /ㅂ, ㄱ/ 따위는 外破音 (explosives)으로 내는 것이 우리 말의 버릇이다. 그런데 內破音은 外破音에 比해서 그 聽覺에 達하는 힘이 弱하다.(7) 그러므로 '-ㅅ+ㅂ-' ㅅ+ㄱ-, -ㅂ+ㄱ-'과 같은 結合에 있어서는 앞소리가 뒷소리를 닮아서 「기ᄲᅳ-, 꺾으니, 꾀꼬리, 떡갈나무」와 같이 變했다.

덥갈나모록=櫟 (字會 上 10

그리고 보면 「ᄡᅳ-(用), ᄠᅳᆮ(意), ᄢᅢ(時), ᄠᅳ-(浮), ᄢᅮᆯ(蜜), ᄢᅳ-(滅)」 따위 말의 語頭 複合 音素가 最終 子音의 된소리로 變한 것도 亦是 逆行 同化로 말미암은 것이라 생각된다.

訓蒙字會에 곡식(穀)을 「곳식」이라 한 데가 보이는데, 이것도 앞 音節의

---

(6) "ᄒᆞᆷᄢᅴ"와 "ᄒᆞᆷᄭᅴ"는 事實上 發音의 差가 別로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杜詩諺解 重刊에는 이 두 語形이 混用된다.

(7) J. Vendryes: Le Langage p. 71
Il y a une différence entre l'élément implosif et l'élément explosif des occlusives; le premier est moins sensible à l'audition, partant moins solide que le second. Cette différence expose l'implosion à des accidents variés.

/ㄱ/이 /ㅅ/에 逆行 同化된 것이다.

俗呼割田 바팃 곳식 뷔다 (下 5, '割' 註)[8]

「미티(a)>미치(底), ᄒᆡ도디(b)>해도지(日出), 구듸(c)>구지(固)」와 같은 /ㄷ, ㅌ/의 口蓋音化도 逆行 同化임은 勿論이다.

(a) 本은 미티라 (月印序 14)
(b) 四月八日 ᄒᆡ도디예 (月印 2:35)
(c) 구듸 ᄎᆞ모샤 (釋 19:35)

그리고 /ㅎ/도 口蓋音化되는 일이 많으니, 「혀(a)」가 「서캐」로, 「힘힘ᄒᆞ-(b)」가 「심심하-」로, 「햐쳐(c)」가 「사처」로 變한 따위가 그것이다. (「혀->세-, 힘줄>심줄, 휴지>수지」도 다 같음)

(a) 혀긔=蟣 (字會 上 23)
(b) 힘힘ᄒᆞᆫ 사ᄅᆞᆷ=閑人 (朴通 上 32)
(c) 햐쳐의 가셔=到下處 (老乞 上 52)

또 「뷔-(a)>븨-(b)>비-(空, 刈), 뷔(c)>븨(d)>비(箒)」와 같은 變化는, 圓唇의 /우/가 平唇의 /이/를 닮아서, 平唇의 /으/로 바뀐 것이다.

(a) 뷔어ᅀᅡ (空, 용 67)
    뷔여든 (刈, 月印 1:45)
(b) 븨뫼 (空山, 杜重 11:48)
    븨면 (刈, 朴通 上 48)
(c) 箒는 뷔라 (楞 5:45)
(d) 짓븨 (羽箒, 朴通 上 40)

以上 隣接音 間의 逆行 同化를 살펴 보았는데, 隔音間에도 逆行 同化가 일어나는 일이 있다.

돌팡이>달팽이, 올창이>올챙이, 삿기>새끼, 굼벙이>굼벵이, 둗거비>두께비, 귀더기>구데기, 본도기>본되기>본데기, 모밀>뫼밀>메밀

위에 보인 바와 같이, /아, 어, 오/가, 그 다음 音節의 /이/音으로 말미

(8) 方鍾鉉님의 「訓蒙字會攷」(東方學志 第一輯)에 依하면, 原刊本으로 推測되는 李秉岐님 所藏 古本에는 「곡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現代語音 「곡식」은 漢字語源으로 말미암아 元語로 復歸된 것이다. (곡식>곳식>곡식)

암아, /이/의 發音 位置로 끌려가서, /애, 에, 외/로 變하는 現象을 Umlaut 라 하는데, 이것은 隔音間에 일어난 逆行 同化이다.(9)

李崇寧님에 依하면 Umlaut가 일어나는 것은, 두 母音 사이에 /ㅂ, ㅁ, ㆁ, ㄱ, ㄲ/ 等 主로 唇音, 軟口蓋音이 介在되어 있을 때에 限하며,

마리, 다리; 가시, 사시; 가지, 바지; 마치, 까치; 가마니, 아니

와 같이, 兩音間에 /ㄹ, ㅅ, ㅈ, ㅊ, ㄴ/等의 혀끝-소리가 介在될 때는, 이러한 介在 子音이 "兩母音의 距離에서 오는 不調和를 二分하여 앞질러 이 音의 逆行的 同化力을 中和시키므로" Umlaut 現象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였다.(10)

그리고 李님은 「볼셔>벌셔>벌써」와 같은 變化도 第一 音節의 /ᄋᆞ/ 音이 第二 音節의 /어/ 音에 同化된 것으로 보았다.(11)

〔二重 同化〕

위에서 말한 順行·逆行 同化가 同一 音素에 同時에 作用하는 일도 있다.

訓民正音 創製 當時 文獻의 /ㅸ/은, 앞에서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間隙 0度의 /ㅂ/이 앞뒤의 間隙 3度 以上의 有聲音에 同化되어서, 間隙 1度의 有聲音으로 變한 것이니, 이것은 順行 同化와 逆行 同化가 同時에 作用한 것이다.(12

---

(9) 李崇寧: 朝鮮語 音韻論 硏究 pp. 236—9, 254.

(10) 같은 책 pp. 245—7.

「우믈라우트」 현상은 音素의 變動으로도 說明되고(pp. 252-7 참조), 여기에서는 變化로도 說明되어 있는데, 共時的 體系 內部에 있어서의 變異 形態의 同時的 用法으로서는 變動으로 說明되고, 이러한 原因으로 일어난 變異를 歷史的인 先後 關係에 놓고 볼 때는 變化로 說明되는 것이다. 即 現代語에서 「먹-」+「-이」의 두 형태소가 연결될 때에, 「먹-」이 「멕-」으로 變異하는 현상은 變動에 속하는 사실이고, 「굼벙이」가 어느 歷史 時期에 「굼벵이」로 變한 事實을 취급하게 되면 變化에 들게 된다.

(11) 같은 책, p. 151.

(12) 이것은 Latin의 'saponem'이 佛語의 'savon'으로 變化한 것과 同一한 過程인데, 이에 對해서 O. Jespersen은 다음과 같이 說明하였다.

"If Lat. saponem yields Fr. savon, this is the result of a whole series of assimilations: first 〔p〕 becomes 〔b〕, because the vocal vibrations continue from the vowel before to the vowel after the consonant, the opening of the glottis being thus saved; then the transition of 〔b〕 to 〔v〕 between vowels may be consided a partial assimilation to the open lip position of vowels;" (Language p. 265)

〔p〕>〔b〕>〔β〕

이 二重 同化 作用이 한층 더 나아가게 되면, /ㅸ/은 대개 半母音 /w/로 變하게 됨은 이미 周知의 事實이다.(13)

亦是 앞에서 이미 論及한 바와 같이, /ㅿ/은 /ㅅ/이 有聲音 사이에서 有聲化한 것이므로, /ㅂ/>/ㅸ/의 경우와 같이, 逆行 順行의 二重 作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ㅅ/의 /ㅿ/化는 {ᄉᆞᆸ}의 變化 過程에 있어서도 찾아 볼 수 있다.

李朝 初期의 客體 尊待의 形態素「-ᄉᆞᆸ-,- ᅀᆞᆸ-, -ᄌᆞᆸ-, -ᄉᆞᄫᆞ-, -ᅀᆞᄫᆞ-, -ᄌᆞᄫᆞ-」은 語幹 {ᄉᆞᆲ}(白)에서 變化된 것임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런데「-ᅀᆞᆸ-, -ᅀᆞᄫᆞ은 語幹의 끝소리가 有聲音인 경우에 連結되는 것이니,(14) {ᄉᆞᆸ}의 /ㅅ/이 有

---

(13) ㅸ에 關한 整理는;

李崇寧 : 脣音攷 (서울大學校 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第一輯 所載)를 參照할 것.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本著에 자세히 說明되어 있다.

/ㅂ/—/ㅸ/의 관계는 變動으로도 說明 되었고(p. 384 참조), 여기에서는 다시 變化로 說明되는데, 그것은 그 觀點의 差에 基因하는 것이다.

「돕-」(助)의 各 變異 形態의 變化 過程은 다음과 같이 추측할 수 있다.

A時期		B時期		C時期		D時期
* 돕다	>	돕다	>	돕다	>	돕다
* 도바	>	도ᄫᅡ	>	도와	>	도와
* 도ᄇᆞ니	>	도ᄫᆞ니	>	도오니	>	도우니

이 경우, B時期에 있어서의 두 가지 變異 形態인「돕-」과「도ᄫᆞ-」의 관계를 說明하는 일은 變動에 속하고, A時期의 *「도바」가 B時期에서「도ᄫᅡ」로 變한 歷史的 事實에 對한 說明은 變化에 속하는 일이다.

이러한 事實은 곧 다음에 나오는「ㅿ」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닛-」(續)의 變化 過程은;

A時期		B時期		C時期
* 닛다	>	닛다	>	잇다
* 니서	>	니ᅀᅥ	>	이어

와 같을 것으로 推測되는데, B時期에 있어서의 「닛-」과「니ᅀ-」두 變異 形態의 關係에 대한 事實은 變動에 속하는 문제이요, A時期의 *「니서」가 B時期의「니ᅀᅥ」로 變한 歷史的 事實에 대한 說明은 變化의 문제이다.

(14) p. 464, 註 4 보라.

聲音 사이(語幹末의 有聲音과 {숩}의 /ㆍ/ 音과의 사이)에서 有聲化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ㅿ/은 /ㅅ/이 앞뒤 有聲音의 順行·逆行 同化의 二重 作用에 因해서 變化된 音인데, 이 同化 作用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드디어 完全 同化되어서 脫落되고 마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助詞 「-과」는 母音과 /ㄹ/ 밑에서는 「-와」로 나타난다.

> 입시울와 혀와 엄과 니왜 다 됴ᄒᆞ며 (釋 19:7)
> 果實와 믈와 좌시고 (月印 1:5)

그러나 周知한 바와 같이, 吏讀로는 이러한 區別이 없이 一切 「果」 한 字만이 쓰인다.

> 祖父母果 外孫果 妻之父母果 女婿果 孫子矣妻果 父矣兄弟果 兄弟矣妻果 有罪爲去等 互相容隱齊 (大明律直解 1:37~38)

이러한 事實로 보면, 元來는 母音 밑이나 子音 밑에 모두 「果」(과)만이 쓰이던 것이, 母音과 /ㄹ/ 밑에서는――더 正確하게 말하면 間隙 3度 以上의 有聲音 사이에서는――/ㄱ/이 脫落된 것으로 추측된다.

	A 時期	B 時期
/ㄹ/以外의 다른 子音 밑	* -과	-과
母音과 /ㄹ/ 밑	* -과	-와

同一한 條件下에서 /ㄱ/이 脫落하는 助詞에는 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強勢의 助詞 「-곳」 : 「-옷」

> 生곳 이시면 (月印 2:22의 1)
> 威神곳 아니면 (月印 21:25)
> 이 일옷 니르면 (釋 13:44)
> 내 말옷 아니 드르면 (月印 2:5)
> 우리옷 계우면 (月印 2:72)
> 如來옷 아니 겨시면 (月印 7:49)

○ '씩'의 뜻을 가진 助詞 「-곰」 : 「-옴」

> 銀돈 ᄒᆞᆫ낟곰 받ᄌᆞᄫᆞ니라 (月印 1:9)

ᄒᆞᆫ 나라해 ᄒᆞᆫ 須彌山곰 이쇼ᄃᆡ (月印 1:22)

四方이 各各 變ᄒᆞ야 十方곰 ᄃᆞ외면 四十方이 일오 (釋 19:12)

八千里象ᄋᆞᆫ ᄒᆞᄅᆞ 八千里옴 녀는 象이라 (月印 7:52)

우ᇝ므를 ᄒᆞᄅᆞ 五百ᄃᆡ위옴 길이더시니 (月印 8:91)

三世四方이 열둘 ᄃᆞ외요ᄆᆞᆫ 四方애 各各 三世옴 혜욘 數ㅣ라 (釋 19:11)

이러한 助詞들도, 「-과」의 경우와 같이, 元來는 /ㄱ/을 가졌던 것인데, 母音과 /ㄹ/ 밑에서는──間隙 3度 以上의 音 사이에서는──이 /ㄱ/이 脫落되고 만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ㄱ/ 脫落 現象은, 「-거늘, -거나, -거뇨, -거니, -거든, -건마ᄅᆞᆫ, 거ᅀᅡ」와 같은 {거}를 앞세운 語尾나, 「-고, -고도, -고라, -과라, -관ᄃᆡ, -고져, -곡, -곤, -과뎌」 및 「-게, -긔」와 같은 語尾에 있어서도 多少 다른 條件下에 나타난다.

이 現象은 이미 前間恭作가 龍歌古語箋에서 言及한 바 있어(그 책의 pp. 19, 20) 河野六郎는 이것을 'Maema's law'라고 하고 있는데,(15) 그는 이 脫落 條件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鮮初의 語法으로서는 로爾波(筆者 註; 「-과/와」「-곳/옷」 따위), 助動詞(筆者註: {거} 따위)를 通해서 ㄱ音이 ㄹ이나 ㅣ의 밑에 올 때는 音便으로 그 ㄱ을 떼어버리는 것이 一般의 定則이다"(前間 : 같은 책, p. 20)

그러나 「-과」나 「-곳」과 같은 助詞의 ㄱ은, ㄹ과 ㅣ音 以外의 다른 母音 밑에서도 脫落되는 것임은 앞에서 이미 指摘한 바이며, 그리고 {거}와 같은 그의 所謂 助動詞도, 이 條件에 어긋남이 많은 것이니, 그가 이미 例外로 指摘한 「즐기거늘, ᄒᆞ시고, ᄒᆞ시고져」(같은 책, p. 20, 28) 따위 以外에,

티거늘 (釋 13:22), 즐기고 (月印 2:11), 기리고 (釋 9:15), 어리게(永嘉 下 4), 디니거나(月印 8:57), 주기거나(月印 21:39), 그리거나(月印 21:85); 가

(15) On the intensive stem of Middle Korean(言語硏究, 16號)
그리하여 그는 이 法則을 다음과 같이 要約하였다.
"The initial g of suffixes and endings normally disappeared after r and i of roots and stems."

ᄌᆞᆯ비고(月印 1:37), 가ᄌᆞᆯ비건댄(月印 21:15), 혜아리건댄(月印 21:138), 머기거늘(月印 2:12), 어즈리거늘(月印 2:74), ᄆᆞᆫ지거늘(月印 1:36), ᄢᅳ리고(月印 8:98), ᄇᆞ리고(杜 15:4), ᄡᅳ리고(月印 8:102), ᄫᅮᆯ이고(杜 6:28)

따위 實로 다 例擧할 수 없을 程度로 많은 例外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語尾 첫머리의 /ㄱ/이 脫落하는 條件을 再檢討하지 않으면 안된다.

筆者의 調査한 바에 依하면, 語尾 첫머리의 /ㄱ/은 다음과 같은 말 밑에서 脫落한다. (例는 「-거늘」 하나만으로 보인다.)

1. 語幹의 끝소리가 /ㄹ/인 경우.

일어늘(용 41), 할어늘(용 104), 머믈어늘(月印 1:4), 어딜어늘(月印 2:5) 等

2. 語幹의 끝소리가 /j/인 경우(「애, 에, 위, 의」 따위)

ᄀᆞᆯ외어늘(용 4), ᄃᆞ외어늘(月印 2:7), 뷔어시늘(용 101), 보내어시ᄂᆞᆯ(용 26) 等

3. 所謂 指定詞의 「-이다, 아니다」에 連結될 때.

하ᄂᆞᆯ히어늘(용 120), 바오리어늘(용 44), 아니어늘ᅀᅡ(楞 3:34) 等

4. 未來 時相을 表示하는 {리}에 連結될 때.

이시리어늘(楞 3:25), 업스리어늘(楞 2:24), ᄠᅥ러디리어늘(月印 21:104) 等

이리하여 다른 /i/ 音 밑에서는, 위에서 들어보인 바와 같이, 脫落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도 例外가 바이 없지는 아니하다.

1. 語幹의 끝소리가 /리/인 경우에 限해서 때로는 脫落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未來 時相의 {리}에 類推된 結果인듯 생각된다.

ᄂᆞ리어시ᄂᆞᆯ (용 8)

ᄡᅳ리어늘 (月印 7:23)

cf. 어즈리거늘 (月印 2:74)

2. 「디다」(落)는 自動詞와 他動詞로 두루 쓰이는데 (이 때는 그 旁點法이 달라진다), 自動詞의 경우에는 밑에 連結되는 語尾의 /ㄱ/이 脫落되지 않으나, 他動詞의 경우에는 /ㄱ/이 脫落된다.

(自) 디고(용 86), 디고져ᄒᆞᄂᆞᆫ(杜 7:23), 디거든(杜 15:35)

(他) 果實을 디오(杜 15:14), 고좀 들워 므레 디어놀(杜重 17:16),

ᄇᆞᄅᆞ미 돌ᄒᆞᆯ 디오(杜重 14:22)

이와 같이 語尾 첫머리의 /ㄱ/은, 助詞의 경우와 그 脫落 條件이 다르나, 이러한 語尾도, 助詞의 경우와 같이, 元來는 모두 /ㄱ/을 가졌던 것인데, 위에 들어 보인 소리 밑에서——正確하게 말한다면, /ㄱ/ 앞의 /ㅣ, ㄹ/과, 그 뒤의 母音과의 사이에서——脫落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合成語를 構成함에 있어서도 /ㄱ/이 脫落되는 일을 흔히 볼 수 있다.

죨애山=照浦 (용 6:37) < 개

ᄇᆡ애=梨浦 (용 3:13) < 개

몰애오개=沙峴 (용 9:49) < 고개

ᄀᆞ래올=楸洞 (용 10:19) < 골

들으믈=罟 (四聲通解 下 60) < 그믈

제오도리=鑁撲頭(老乞 下 29) < 고도리

가지아짓내 (七大萬法 10) < 가지가짓마시 (七大萬法 17)

ᄀᆞᆯ아마괴=鴟 (四聲通解 上 29), 鴉 (同 下 31) < ᄀᆞᆯ가마괴 (字會 上 16)

ᄒᆞᆫᄀᆞᆯᄋᆞ티 (楞 2:13, 永가 下 62, 杜 7:10) < ᄒᆞᆫᄀᆞᆯᄀᆞ티

이런 例는 分明히 元來 /ㄱ/을 지니고 있던 것이 脫落된 것이다.

以上 /ㄱ/이 脫落하는 경우를 세가지로 나누어서 考察해 왔는데, 全體的으로 /ㄱ/이 脫落하는 條件을 살펴보면, 間隙 3度 以上의 有聲音[16] 사이의 /ㄱ/은 一般的으로 脫落하는 傾向이 있음을 看取할 수 있다.

音韻의 變化는, 그 일어나는 範圍의 넓고 좁음에 따라, 「普遍的 變化」와 「個別的 變化」의 두 典型을 세울 수 있는데, 普遍的 變化란, 一定한 條件 下의 一定한 音韻은 모두 同一한 方向으로 變하는 것을 말함이요,[17] 이에 對해서

(16) 間隙 3度 以上의 有聲音이란,앞에서도 여러번 써 왔는데,ㄹ과 母音을 가리킴이다.

(17) 이를테면 /aj/ 重母音을 가졌던 모든 말이 죄다 同時에 /ε/ 母音을 가지게 되었다 든지, 또는 /△/을 가졌던 모든 말이 一齊히 /△/을 잃어 버린 따위의 變化 方式은 普遍的 變化이다. (普遍的 變動과 比較해 볼 것)

어떠한 特殊한 極少數의 말에 限해서만 일어나는 變化를 個別的 變化라 한다.[18] 그런데 이 /ㄱ/ 脫落 現象은 매우 넓은 範圍에 걸쳐 일어나는 現象이므로 普遍的 變化에 가까운 變化인데, 普遍的 變化에 있어서는 一時에 飛躍的인 變化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普通이다. "普遍的 音韻 變化에 際해서는 그 原因되는 것이 當時의 社會 全體에 나타나는 發音 運動의 一般的 傾向이며, 그 一般的 傾向이란 當然히 그 原音韻의 平均的 實現 範圍 안에 나타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普遍的 音韻 變化의 形式으로 일어나는 跳躍의 程度는 自然히 原音韻의 實現 範圍에 依해서 制限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跳躍은 매우 큰 것일 수는 없다. 이와는 反對로 個別的 音韻 變化는 元來 個人이 一時的 遇然的으로 잘못 들었거나 或은 잘못 記憶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므로 跳躍의 程度에 對해서는 위와 같은 制限이 없다. ……잘못 듣는 原因이 되는 不完全한 發音'으로 말하면 平均的 實現 範圍를 훨씬 지난 程度의 것이라도 (所謂 '잘못 말한 것'이라도) 個別的 音韻 變化의 原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結果로서 나타나는 個別的 音韻 變化는 때로는 꽤 大膽한 大跳躍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19]

그러므로 우리는 /ㄱ/이 一時的 飛躍的으로 完全히 脫落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이니, 그 變化의 過程을 한 段階 한 段階 說明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現象은 앞에서 말한 /ㅸ/의 경우와 꼭 같은 것이니, 첫째 〔k〕가 有聲音 사이에서 有聲音化해서 〔g〕가 되고, 間隙 0度의 〔g〕는 앞뒤 間隙 3度 以上 音에 同化되어서 間隙 1度의 有聲 軟口蓋 摩擦音인 〔γ〕로 變했는데, 이 音은 "一時的인 不安定한 特質"을 가졌기 때문에[20] 곧 脫落되고 만 것

(18) 「닻」이 「탓」으로 變하였는데, 語頭의 ㄷ>ㅌ 變化는 局限된 말에 限해서 일어났을 따름이므로 이러한 變化는 個別的 變化이다. 그리고 「맛ᄃᆞ니, 맛다>맡으니, 맡아」에 있어서의 「ㅅㄷ>ㅌ」의 變化方式이나, 또는 「밍ᄀᆞᆯ다>만들다」에 있어서의 「ㆁㄱ>ㄴㄷ」과 같은 變化도, 이 말들에 局限된 現象이므로, 亦是 個別的 變化에 屬한다. 그러나 이 두 變化方式(普遍과 個別)은 그 限界線이 劃然하지 않다. (個別的 變動과 比較)

(19) 有坂秀世 : 音韻論 pp. 168—9

(20) J. Vendryes—小林英夫 : 音韻法則の省察 (言語學方法論攷 pp. 377—8)

이다. 그리하여

〔k〕 > 〔g〕 > 〔ɣ〕 > 脫落 (完全 同化)

의 變化 過程은, 처음에서 끝까지 앞뒤 소리의 順行 逆行 兩同化의 二重 作用에 因한 것으로 說明된다.

「들으니」(聞) 따위 ㄷ 變格 用言을 平安道에서 「드드니」라 하는 것으로 보면, ㄷ 變格도 元來는 正格 活用이던 것이, 母音間에 介在하게 되는 語幹 끝소리 /ㄷ/이 /ㄹ/로 바뀐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變化도 順行 逆行 兩同化의 二重 作用으로 볼 수 있으니, 첫째 /t/ 音素가 앞뒤 有聲音에 同化되어서 〔d〕 音이 되고, 다음으로 間隙 0度의 〔d〕 音은 앞뒤의 間隙 4度 以上音(母音)에 同化되어서 間隙 3度의 /ㄹ/로 變한 것이다.[21]

〔t〕 > 〔d〕 > 〔r〕

時相 補助語幹 「-더-」가, 所謂 指定詞와 未來를 表示하는 {리} 밑에서, 「-러-」로 變하는 것도 위와 같이 說明된다.

編戶ㅣ러니 (용 56)

罪 ᄒᆞ마 일리러니 (용 123)

이러트시 고텨 ᄃᆞ외샤미 몯 니ᄅᆞ헤리러라 (月印 1:21)

以上 말해 온, /ㅸ/音의 變化나, /ㅿ/의 變化나, 또 /ㄱ/脫落 現象이나, ㄷ 變格이나, 모두 꼭 같은 變化 方式에 屬하는 것이니, 첫째 有聲音間에

---

(21) /ㄱ/ 脫落이나, ㄷ 變格의 문제나 모두 變動에서도 說明된 일이다.

A時期 B時期 / A時期 B時期

-과 > { -과 | -와 }　　듣- > { 듣- | 들- }

B時期에 있어서의 「-과」~「-와」의 관계나, 「듣-」~「들-」의 관계는 共時的 變異 形態이므로, 이것은 變動으로 다루어지나, A時期에서 B時期에로의 歷史的 變異, 即 「-과」가 그 놓이는 환경에 따라 「-와」 變異 形態를 하나 더 가지게 되었다는 事實은 變化에 속하는 문제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共時的 事實은, 歷史的 變化의 結果임을 알게 된다. 여기 共時 言語學과 通時 言語學의 接觸點이 있는 것이다.

서 無聲音이 有聲化하고, 다음으로는 앞뒤 소리의 間隙에 同化되어서, 그 間隙이 커져서, 어떤 것은 드디어 完全 同化된 結果, 脫落하기에 이른 것이다.

p > b > β > w 또는 脫落

k > g > γ > 脫落

t > d > r

s > z > 脫落

〔互相 同化〕

앞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애, 에, 외, ᄋᆡ」와 같은 合用字는, 李朝 初期에 있어서는 〔aj, əj, oj, ʌj〕와 같은 重母音이었는데, 이 重母音의 兩要素의 發音 位置가 너무 멀기 때문에, 앞 要素는 뒤 〔j〕音의 位置에 가까워지고, 〔j〕音은 앞 要素의 位置에 끌려가서, 兩者가 그 中間 位置에서 合致된 結果, 드디어 單母音의 〔ɛ, e, ϕ〕로 變한 것이니, 이것은 勿論 發音의 努力을 經濟하려는 傾向의 所致이다. 그리고 이 變化는, 그 過程으로 보면 互相 同化이나, 그 結果로 보면 두 소리가 한 소리로 '縮約' 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은 勿論이다.

〔나〕 縮約 (contraction)

連續된 두 母音을, 特히 分離해서 發音할 必要를 느끼지 않을 때에, 말의 速度를 빨리하고, 努力을 輕減하기 爲해서, 한 音節로 줄이거나, 또는 그 間音으로 發音하는 일을 縮約이라 한다.

「가히(a)>개(犬), 가히-(b)>개-, 자히-(c)>재-, 버히-(d)>베-」따위 變化는, 처음에 /ㅎ/이 母音 사이에서 脫落되고, 다음 두 音節이 한 音節의 重母音으로 縮約되고, 다시 重母音이 그 間音으로 縮約된 것이다.

(a) 가히ᄂᆞᆫ 佛性이 잇ᄂᆞ니잇가=狗子還有佛性也 (蒙山法語 11)

(b) 빈혀 고조미 드므니 ᄒᆡᆫ 곳가리 모나게 가혓도다=簪稀白帽稜(杜 20:24)

가헌딕를 다려 平케ᄒᆞ야=熨帖平 (杜 25:50)

(c) 越ㅅ羅와 蜀ㅅ錦을 金粟 자ᄒᆞ로 자히놋다=越羅蜀錦金粟尺 (杜 25:50)

(d) 너추렛 여르미 나니 버혀든 뿔 ᄀᆞᄐᆞᆫ 지니 나니라 (月印 1:43)

/əj/가 /e/로 縮約되는 것과 같이, /jə/도 /e/로 變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事實이다.

며느리>메누리, 며주>메주, 별>벨(星) 等 等.

「쇠야기 (a)> 쐐기, 가야미 或은 개야미 (b)>개미, ᄇᆡ얌 或은 비얌 (c)>뱀, 머유기 或은 메유기 (d)>메기」와 같은 變化도 亦是 두 音節이 한 音節로 縮約된 것이다.

(a) 쇠야기=楔, 韇 (字會 中 18, 26)

(b) 개야미는 (杜 15:56), 개야밀 (同 7:18)

가야미의 =蟻 (字會 上 23), 가야믜 굼글 (杜 20:24)

(c) ᄇᆡ얌爲蛇 (訓 用字例)

蛇는 ᄇᆡ야미오 (月印 21:42)

(d) 머유기=鮎 (四聲通解 下 82)

메유기졈=鮎 (字會 上 21)

「개야미>개미, 메유기>메기」와 같은 變化의 兩形만 比較할 때는 中間 音節의 省略 같기도 하나, '개', '메' 따위 音節이 긴 소리로 나는 것으로 보면 縮約으로 說明하는 것이 좋을까 한다.

「주으리-(a)>주리-(b)」도, 이러한 表記로만 보면, /으/ 音節의 省略 같이 생각되나, 그 傍點法으로써 考察하면 亦是 縮約으로 보아야 한다. 곧 「주으」는 平聲+去聲이니 低音+高音이다. 그러므로 이 두 音節이 縮約되어서 低高의 上聲으로 變한 것이다(:주). 그리고 보면 「주·우리-(c)」와 같은 表記法은 事實上 「:주리-」와 다른 音이 아니었던 것이다.

(a) 餓鬼는 주·으린 귓거시라 (月印 1:46)

(b) :주려 주거 (杜 15:37)

:주·렛는 (杜 7:2)

(c) 주·우린 ᄂᆞ라민 (杜 20:24)

「입시울」이 「입술」로 縮約되어서, 다시 「입술」로 變한 것임은 이미 다

알고 있는 事實이다.

脣은 입시우리라 (訓)

體言의 끝 音節이 開音節인 경우에, 主格 助詞나 指定詞의 {이} 가 連結되면, 이 두 音節은 반드시 한 音節로 縮約된다. 이 경우에, 體言의 끝 音節이 낮은 平聲일 때는, 縮約된 音節은 上聲으로 變한다. (p. 403 참조)

低(平聲)+高 (去聲)→低高 (上聲)

그——:긔 (용 39), :긔·오 (釋 13:36)

부텨——부:톄 (釋 9:1), 부:톄시·니·라 (釋序 1)

cf. ·혀——·혜 (月印 2:41), ·혜·라 (訓)

體言의 끝소리가 〔i〕일 때는 主格 助詞나 指定詞는 줄어진것 같이 보이지마는, 그 體言의 末 音節이 平聲인 것은, 이 助詞가 連結될 때는 上聲으로 變하는 것이니, 亦是 省略이 아니라 縮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니 (齒)——·니·라 (訓)

·히 (年, 日)——·히·니 (月印序 25), ·히·오 (月印 2:76)

:새 (鳥)——:새·라 (月印 1:27)

그러나,

ᄃᆞ리 (橋)——ᄃᆞ : 리 (主格形; 杜 25:7),

ᄃᆞ : 리 · 라 (月印 21:77)

ᄆᆞᄃᆡ (節)——ᄆᆞ : ᄃᆡ (主格形; 月印 2:56),

ᄆᆞ : ᄃᆡ · 며 (釋 9:8)

〔다〕 省 略

말의 速度를 빨리하고, 努力을 輕減하기 爲해서, 그 말의 特色을 드러내는 데 그다지 重要하지 않은 音素를 아주 줄여 버리는 일이 있다. 그런데, 語形을 維持하는 데 있어서는, 母音보다 子音이 더 큰 役割을 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母音은 子音보다 變動이 甚한 것이다.

까지 : 꺼지, 같다 : 겉다, 하다 : 허다, 나머지 : 나마지, 벌써 : 발써, 버리다 : 바리다, 아버지 : 아바지 : 아부지, 데리다 : 다리다 : 더리다, 갑절 : 곱절, 바구니 : 보구니, 손가락 : 손고락 : 손구락, 대가리 : 대구리, 아들 : 아달, 스스로 : 스사로, 가재 : 가제, 담배 : 담베, 아래 : 아레, 나그네 : 나그내, 자네 : 자내, 부추 : 부채 等等

또 Semitic Languages에 있어서는, 子音은 말의 몸(body)이요, 母音은 그 精神(soul)이라 하여, 母音은 表記하지 않고, 子音만 表記하여도 能히 그 뜻을 알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이 言語가 子音 셋으로써 意味部 (sémantème)를 表示하고, 그 사이에 揷入하는 母音으로써 形態部(morphème)를 나타낸다는 特色이 있었기 때문이기는 하나, 亦是 子音이 語形을 維持하는 데에 母音보다 큰 役割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Semitic Languages에 있어서 子音 셋이 意味部를 나타내고, 母音이 形態部的인 役割을 한다는 事實 自體가 子音의 比重이 큰 것임을 立證해 주는 일이 아닐까)[22]

語形 維持에 있어서는 子音의 比重이 크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縮約이나 여기에서 말할 터인 省略에 있어서, 줄어지는 소리는 대개 母音이 많은 것이다. 곧 縮約은 子音의 경우는 有氣音 以外에는 생각할 수 없으며, 省略에 있어서도, 同一한 音이 둘이 連續해 있어서, 한 소리를 줄여도 청각 효과에 그리 큰 變動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이거나, 或은 同化의 결과로 말미암은 경우와 같은 特別한 例를 除하고는 子音 省略은 잘 보기 어렵다. 이에 比해서, 母音의 省略은 매우 자주 일어나는 것이다.

다음, 省略이 일어나는 경우를, 다시 그 原因에 依해서 몇가지로 나누어서 考察하기로 한다.

〔1〕 한 語節內에 同一한 音素가 隣接되어 있거나, 또는 다른 音素를 隔해 있을 때에, 同一한 調音을 두번 되푸리하지 않고, 한번만 해서, 한 音素를

---

(22) Saussure: Cours p. 65
F. Bodmer: The Loom of Language p. 57. 참조.

省略해 버리는 일이 있다.

隣接音 間의 子音 省略으로는:

「간난ᄒᆞ-(a)>가난ᄒᆞ-(b), ᄃᆞᆮ니-(c)>ᄃᆞ니-(d)>다니-, 녹각>노각(e), 출렴(出斂)>추렴, 목과(木瓜)>모과」 따위가 있고,

(a) 艱간難난코 (釋 13:56)
艱간難난ᄒᆞ니 가ᄉᆞ며니=貧富 (金강 5)
(b) 사ᄅᆞ미 가난ᄒᆞ야=人貧 (杜 25:40)
가난ᄒᆞᆯ빈=貧 (字會 下 26)
(c) 攻戰에 ᄃᆞᆮ니샤 (용 113)
ᄃᆞᆮ니ᄂᆞᆫ 길히 (杜 20:1)
(d) 前生에 ᄃᆞ니다가 (月印 1:45)
(e) 노각 고도리=鹿角樸頭 (老乞 下 29)

隣接音 間의 半母音 省略으로는,

무유미 (<뮈유미, 楞 4:15)
무옛도다 (<뮈옛도다, 杜重 3:17)
부엿고 (<뷔엿고, 杜 6:10)
주여이다 (<쥐여이다, 樂章歌詞, 雙花店)
가여 (<개여, 楞 4:40)
어여러거져 (<에여, 樂學軌範, 處容歌)
ᄯᅳ여 (<ᄯᅴ여, 杜重 2:5)
곧ᄒᆞ야 (<곧히야, 釋 19:7)
곧ᄒᆞ요ᄃᆡ (<곧히요ᄃᆡ, 釋 19:16)
화예 (<홰예, 月印 2:33)
막다예 (<막대예, 杜重 2:6)
빠예 (<빼예, 朴通 上 32)
벼가예 (<벼개예, 杜重 22:40)[23]

---

(23) 이 경우에, 「애, 에, 외, 이」 따위 合用字는 重母音이었음을 留意할 것.

들 無數한 例를 들 수 있으며, 또 隔音間의 子音 省略의 例는 別로 찾을 수 없으나, 「회로리ᄇᆞᄅᆞᆷ>회오리바람」은 그 例이다.

飄風은 회로리ᄇᆞᄅᆞ미라 (金강 11)
회로리ᄇᆞᄅᆞ미……=廻風 (杜 16:62)

그리고 隔音間의 半母音 省略으로는 「괴외ᄒᆞ->고요하-」를 들 수 있다. 「괴외ᄒᆞ-(a)」의 發音은 〔koj-oj-hʌ-〕이었는데, hiatus로 因해서 〔koj-joj-hʌ-〕로 變한 結果 /j/音이 셋이 連發되기에 이르렀으므로 同音 省略이 일어나, 〔ko-jo-ha-〕로 變한 것이다. 그런데 杜詩諺解 重刊本에는 元語形 外에 「괴뫼ᄒᆞ-(b), 괴오ᄒᆞ-(c), 괴요ᄒᆞ-(d), 고요ᄒᆞ-(e)」等 여러가지 表記法이 나타나는데, 이 中 「괴뫼ᄒᆞ-」는 過渡的인 語形을 表記한 것이겠고, 나머지는 모두 「고요ᄒᆞ-」의 表記法 上의 動搖로 볼 수 있으니, 이 時期에(1632 A.D.) 이미 「고요ᄒᆞ-」로 變한 것이라 생각된다.

(a) 寥는 괴외ᄒᆞᆯ씨라 (月印序 1)
(b) 이 사ᄅᆞ미 ᄒᆞ마 괴뫼ᄒᆞ도다=斯人己寂寥 (杜重 24:55)——或作「괴외-」
(c) 괴오ᄒᆞ도다 (杜重 1:2)
　　괴오ᄒᆞ고 (杜重 24:19)
(d) 괴요히 (杜重 1:47)
(e) 고요ᄒᆞ고 (杜重 2:16)

그리고 또 「새배-(a)」를 「새바-(b)」 또는 「사배-(c)」로 表記한 곳이 보이며, 「울월-(d)」을 「울얼-(e), 우럴-(f)」로 表記한 것이 나타나는데, 이들도 모두 隔音間의 同音 省略에 因한 變化形이다.

(a) 새뱃 비치 (杜 15:4)
　　새배신=晨 (字會 上 1)
(b) 새밧비치=曉色 (杜重 11:51)
(c) 사뱃사ᄅᆞᆯ=曉箭 (杜重 6:4)
　　사뱃吹角ㅅ소리 (杜重 8:44)
　　(原刊에는 모두 「새배」이다)
(d) 仰은 울월씨라 (月印序 19)
(e) 울어러보니 (杜重 2:60)
(f) 우러러보고 (杜重 1:26)——現代語形

「다와기(a)>ᄯᅡ오기」나 「골와라(b)>골오래(c)>고라(d)」의 變化도 同音 省略에 因한 것이다.

(a) 다와기목=鵞(字會 上 15)
(b) 螺ᄂᆞᆫ 골와래오 (釋 13:26)
골와랏 소리 (釋 19:14)
(c) 蠃 : ……吹以節樂者曰洗蠃 골오래 (四聲通解 下 27)
(d) 고라 불고=吹螺 (朴通 下 42)

이와 같이, 同音 省略은 두번의 調音을 한번만 하게 되는 것이니, 努力의 輕減임은 勿論이다.

〔2〕 母音間의 子音이 脫落한 결과, 두 母音이 衝突하게 되었을 때 (hiatus), 이 母音 衝突을 避하기 爲하여, 두 母音中 한 母音을 줄이는 일이 있다.

「ᄃᆞᄫᆡ-(a)>ᄃᆞ외-(b)>되-, ᄆᆞᄫᆞᆯ-(c)>ᄆᆞᅀᆞᆯ-(d)>골[24]」 따위 말은, 元來 兩母音 사이에 子音이 介在되어 있었음이 分明한 것이고,

(a) 軍馬ㅣ ᄃᆞᄫᆡ니이다 (용 98)
(b) 爲ᄂᆞᆫ ᄃᆞ욀씨라 (訓)
(c) 조ᄏᆞᄫᆞᆯ=粟村(용 2:22), ᄉᆞᄆᆞᄫᆞᆯ (용 35)
(d) ᄆᆞᅀᆞᆯ히어나 나라히어나 (釋 9:40)

「ᄆᆞ외(a)」도, 雞林類事에 「珂背」라 한 것으로 보면, *「ᄆᆞᄫᆡ」의 變化形이겠는데, 이 말이 語源 俗解로 말미암아 「고의(b)」(袴衣)로 變하면서 (後說), 한편으로는 /ᄋᆞ/音 脫落으로 말미암아 「괴」[25]가 되었다. (이 말은 現在 「괴춤」

---

(24) 杜詩諺解 重刊에는 「ᄆᆞᅀᆞᆯ」 外에 「고ᅀᆞᆯ a」, 「고ᅀᆞᆯ b」等形이 나타나고, 訓蒙字會에는 「고ᄋᆞᆯ c」이 되어 있으니, 「ᄆᆞᅀᆞᆯ>골:」의 變化는 이미 訓蒙字會 (1527 A.D.) 時代에 完成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表記法은 結局 「골:」의 表記上의 動搖일 것이므로)
(a) 고ᅀᆞᆯ (杜重 1 : 52, 4 : 2, 2 : 37 etc.)
(b) 고ᅀᆞᆯ히 (杜重 19 : 29)
(c) 州, 郡, 縣, 邑 (字會 中 8)

(25) 杜詩諺解 重刊本에 「고외」로 表記한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 때 이미 /koj/로 變했던 것인듯.
옷고외 (杜重 11 : 17)

에 남아 있다.)

*ᄀᆞᄫᅵ>ᄀᆞ외 /kʌ-oj/>괴 /koj/>괴 /kø:/

(a) 블근 ᄀᆞ외=紅裙 (杜 15:30), 옷ᄀᆞ외=衣裳 (杜 7:5)

(b) 이미 訓蒙字會에 이 語形으로 表記되어 있다.

褌, 袴 (中 23)

젹삼 고의=衫児袴児 (朴通 上 25)

그리고 「술」(酒) 「둘」(二)도 雞林類事의 「酥孛, 途孛」로 보면,

*수ᄫᅳᆯ>수을 (a)>술

*두ᄫᅳᆯ>둘 (b)[26]

과 같이 한 母音이 脫落하여 된 말이다.

(a) 수으를 즐기거나 (釋 9:37)

수으리 (杜 8:27)

(b) 二는 :둘히·라 (訓)

「그울-(a), ᄌᆞ올-(b), 드위잊-(c), ᄒᆞ올로 (d), ᄒᆞ옺 (ᄒᆞ옷)(e)」과 같은 말들도, 慶尙道 方言의 「구불-, 자불-, 디비-, 호불 (애비)」들과 比較해볼 때, 元來는 母音 사이에 /ㅸ/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인데, /ㅸ/이 脫落하여 母音 衝突을 일으키게 되자, 한 母音이 脫落하기에 이른 것이다.(위의 各語의 現代語形은, 「굴- (구르-), 졸-, 뒤- (뒤지-, 뒤집-), 홀로, 홑」이다.)[27]

---

(26) 後期 文獻에 「수울[a], 두을[b], 두울[c]」과 같은 語形이 보이는데, 이것은 各各 「술」「둘」의 表記法 上의 動搖이다.

(a) 수울 먹고 (杜重 8 : 28)

(b) 두을재는 (呂氏鄕約 6)

(c) 두울재는 (七大萬法 2)

(27) 이 말들도 現代語形으로 變한 것은 이미 오래 前부터인듯, 다음과 같은 表記例가 많이 나타난다.

[그울-] 구으러 (朴通 下 9)

돌홀 구우려 (杜重 2 : 4)

[ᄌᆞ올-] 조오로몰 (杜 6 : 36)

조오롬면=眠(字會 上 30)

[드위잊-] ᄀᆞᄅᆞ미 두위이즈며=江飜(杜 6 : 41)

ᄉᆞ매 두위잇고=袖飜(杜 15 : 2)

[ᄒᆞ올로] 호올로…(杜重 6 : 1), 호올로…(杜重 3 : 58)

(a) 轉은 그울씨오 (月印 1:19)
그 술위 절로 그우러 (月印 1:26)
(b) ᄌᆞ옮저기라도 (釋 9:20)
잇브면 ᄌᆞ올오=勞倦則眠 (楞 3:14)
(c) 梅花ㅣ ᄒᆞ마 ᄂᆞ라 드위잇ᄂᆞ다=梅花己飛翻 (杜 8:7)
이리 드위이저=事反覆 (杜 16:18)
(d) ᄒᆞ올로 닛디 몯호라=獨不承 (杜 20:22)
몸하 ᄒᆞ올로 녈셔 (樂學軌範, 動動)
(e) ᄒᆞ옷妄=單妄 (永가 下 99)
衣와 裳괘 ᄒᆞ오지러라 (杜重 1:53)
옷ᄀᆞ의 ᄒᆞ오치로다 (杜重 4:9)

그리고 또 「ᄂᆞ외야(a)」, 「오ᄋᆞ로(b)」와 같은 말은 子音이 脫落된듯 한 흔적은 찾아볼 수는 없으나, 亦是 母音 衝突을 일으켜 있었으므로, 「뇌야(c)」, 「오로(d)」로 變한다.[28]

(a) 이제사 이 모ᄃᆞᆫ 사ᄅᆞ미 ᄂᆞ외야 가지와 닙괘 업고 (釋 13:47)
(b) 專主는 오ᄋᆞ로 爲主ᄒᆞᆯ씨라 (釋 19:30)
(c) 견졸ᄃᆡ 뇌야 업ᄂᆡ (蘆溪集, 獨樂堂)
(d) 그 어미 오로 信을 내디 몯ᄒᆞ더니 (月印 21:20)

〔3〕 語形이 多少 길다고 느껴지는 말에 있어서, 액슨트의 弱한 音節의 母音을 줄여서 語形을 단출하게 하여, 努力을 덜고, 말의 速度를 빨리하는 일이 있다.

우리말에 있어서는, 英語와 같이 強弱의 액슨트가 뚜렷하지 않으나, 大體로 第一 音節이 強하고 第二 音節 以下가 弱하기 때문에[29] 우리말의 이러한 母音 省略은 大體로 第二 音節 以下에서 일어난다.

그 例는 퍽 많으니; 「기ᄅᆞ마(a)>길마, 드르ㅎ(b)>들, 거우루(c)>거울, 그

---

(28) 다음과 같은 表記는 그 過渡形이다.
놀애ᄅᆞᆯ 노외야 슬플업시 브ᄅᆞᄂᆞ니 (杜重 25 : 53)――原刊 같음.
그리고 「오ᄋᆞ로」는 이미 오래 前부터 「오로」로 變했음을 알 수 있다.
(29) 李崇寧 : 朝鮮語音韻論研究 pp. 150, 159.

르메(d)>글메(e), 시므-(f)>심-, 주머귀(g)>주먹, 가마괴(h)>가막(가치)(i)」 따위 말의 變化나, 「가지->갖-, 브르지지-(j)>부르짖-」, 그리고 또 「서의여ᄒᆞ-(k) : 서의ᄒᆞ-(l)」의 關係도 이렇게 理解될 것이며, 「하야ᄒᆞ-(m)>하얗-, 거머ᄒᆞ-(n)>거멓-, 파라ᄒᆞ-(o)>파랗-, 누러ᄒᆞ-(p)>누렇-」 따위 다 이러한 例이다. 그리고 「바늘질>반질(그릇, 고리)」와 같은 말도 亦是 그 例에 지나지 않는다.

(a) 기ᄅᆞ말 밧기시니 (용 58)
(b) 드르헤 龍이 싸호아 (용 69)
(c) 몱곤 거우루 ᄀᆞᆮᄒᆞ야 (月印 1:34)
거우루경=鏡 (字會 中 14)
(d) 世尊ㅅ그르메예 (月印 7:23)
(e) 저즌 글메오=濕影 (杜重 12:28)
(f) 두어낫 대를 시므노라 (杜 6:52)
(g) 주머귀로 디르고 (月印 7:8)
주머귀권=拳 (字會 上 25)
(h) 다ᄉᆞᆺ 가마괴 디고 (용 86)
(i) 가막가치 (杜重 5:11, 12:3)
(j) 즐거우믈 取ᄒᆞ야 브르지져셔=取樂喧呼 (杜 15:44)
버믈 티며 ᄀᆞ장 브르지지고=撲虎大呼 (續三綱, 孝 15)
(k) 치위옛 이리 이제 서의여ᄒᆞ니=寒事今牢落 (杜 16:73)
서의여히 ᄃᆞᆫ뇨매 하ᄂᆞᆯ콰 싸히 크고=牢落乾坤大 (杜 21:2)
生涯ㅣ ᄒᆞ마 서의여ᄒᆞ니=生涯已寥落 (杜 20:7)
이제 와 내 ᄒᆞ오아 서의여호라=於今獨蕭索 (杜重 9:2)
(l) 새려 블브튼 棧道ᄂᆞᆫ 서의ᄒᆞ얫고=牢落新燒棧 (杜重 5:12)
서의ᄒᆞᆫ 漢水ㅣ ᄆᆞᆯᄀᆞ니=蕭索漢水淸 (杜重 22:32)
關塞이 서의ᄒᆞ니=關塞蕭條 (杜 6:15)
(m) 物이 하야ᄒᆞ야=物白 (杜 8:53)
(n) ᄂᆞ출 마조 보와셔 거머호ᄆᆞᆯ 슬코=會面嗟黧黑 (杜 20:27)
(o) 죨우미 파라ᄒᆞ도다=蘆笋綠 (杜 6:51)
(p) ᄀᆞᄅᆞᇝ맷 雲霧ㅣ 누러ᄒᆞ도다=江霧黃 (杜重 10:45)

第一 音節에 일어나는 母音 省略도 바이없지는 않다.

「짜히(a)」는 元來 「손(b)」과 「아히」의 合成語이므로 *「손아히」이었겠는데,

「ᄊᆞᆫ」이 잘 쓰이지 않게 되어, 그 意義의 重點이 「아ᄒᆡ」로 옮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第一 音節이 弱化하여 「싸ᄒᆡ」로 變한 것이다. 그러나 「ᄊᆞᆫ」과 같은 重子音이 語頭에서 自由롭게 쓰이지 못하게 된 後期에 와서는 도로 「ᄉᆞ나ᄒᆡ(c)」로 表記된다.

(a) 싸ᄒᆡ 소리 갓나ᄒᆡ 소리 (釋 19:14)
싸ᄒᆡ 香 갓나ᄒᆡ 香 (釋 19:17)
(b) ᄉᆞᆫ뎡=丁 (字會 中 2)
(「ᄉᆞᆫ」이 單獨으로 쓰인 例는 다른 데서는 찾지 못함)
(c) 俗呼兒孩兒 ᄉᆞ나ᄒᆡ (字會 上 32)
ᄉᆞ나ᄒᆡ ᄒᆞ마 甲 닙고=男兒旣介胄 (杜重 4:9)

〔4〕 李朝 初期에는 現代語보다 重母音이 많았었다. 그런데 重母音은 單母音보다 自然的으로 길게 發音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빨리 發音하여 努力을 經濟하려 하여, 重母音이, 互相 同化로 因하여, 單母音으로 縮約되는 일은 앞에서 說明하였는데, 때로는 重母音의 한 要素를 아주 줄여버리는 일이 흔히 있다.

「귀더기(a)>구더기, 그력(b)>그려기(c)>긔려기(d)>기러기, 스싀로(e)>스스로」[30]와 같은 變化나, 또 「엾-(f)>없-, 녛-(g)>넣-」와 같은 變化는 모두 重母音의 한 要素를 줄인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 줄어지는 要素는, 그 主要素(成節音)가 아니라 副要素(半母音)임에 對해서는 다시 說明할 必要조차 없는 일이다.

(a) 귀더기져=蛆 (字會 上 24)
(b) 그력爲雁 (訓 用字例)
(c) 그려기 울히ᄂᆞᆫ (杜 7:9)
(d) 긔려기안=雁 (字會 上 15)
(e) 스싀로 자랑ᄒᆞ고져 ᄒᆞᄂᆞ다 (杜 20:23)

---

(30) 「스스로」는 「스싀로」와, 같은 時期의 文獻에 나타난다.
一物이 스스로 皇天ㅅ恩慈ᄅᆞᆯ 니벳노라=一物自荷皇天慈 (杜 15 : 2)
스스로ᄌᆞ=自 (字會 下 24)

(f) 즘겟가재 연ᄌᆞ니 (용 7)
(g) 楯애 녀ᇫ고 (月印 1:7)
가마솥해 사ᄅᆞᆯ 녀허두고 (月印 7:13)

그리고 「귀향(a)」을 「구향(b)」으로, 「귀밑(c)」을 「구밑(d)」으로, 「녜(e)」를 「녀(f)」로, 「반되(g)」를 「반도(h)」로, 「뮈우-(i)」를 「무우-(j)」로, 「뒷고마리(k)」를 「돗고마리(l)」로, 「뫼호-(m)」를 「모호-(n)」로, 「귓것(o)」을 「굿것(p)」으로 表記한 데가 보이는데, 이런 것들도 모두 單純한 記寫法의 過誤가 아니라, 이와 같은 發音上의 動搖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a) 귀향 왯ᄂᆞᆫ 仙人 (杜 16:5)
(b) 구향 왯ᄂᆞᆫ 仙人 (同上 重刊)
(c) 구룸 ᄀᆞᄐᆞᆫ 귀미ᄐᆞᆫ (杜 15:29)
(d) 구믿 니르리 (月印 2:41)[31]
다ᄫᆞᆺ ᄌᆞᆫ 구미티로다 (杜 7:14)
(e) 녜와 다ᄅᆞ샤 (용 51)
(f) 녓버디 ᄃᆞ외놋다＝成故 (杜重 12:19)
(g) 반되爲螢 (訓 用字例)
(h) 반도형＝螢 (字會 上 21)
(i) ᄆᆞᅀᆞᄆᆞᆯ 뮈우시니 (용 102)
(j) 元良ᄋᆞᆯ 무우리라 (용 71)[32]
(k) 卷耳ᄂᆞᆫ 卽 蒼耳니 뒷고마리라 (杜 16:71)
(l) 돗고마리시＝菜 (字會 上 8)
(m) 몸앳 필 뫼화 (月印 1:2)
(n) ᄒᆞᆫᄃᆡ 모호고져 (朴通 上 36)
(o) 餓鬼ᄂᆞᆫ 주으린 귓거시라 (月印 1:46)
(p) 새 굿거시 하도다＝多新鬼 (杜重 12:39)

用言의 副詞形에 「잇-」이 連結되면, 語尾의 {아/어}와 「잇-」이 縮約되어서

---

(31) 「구믿」이 더 앞 時期의 文獻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구밑>귀밑」과 같은 變化로 볼 수 있을 것 같으나, 그 語源으로 생각하면 (耳本), 「귀밑」이 「구밑」에 앞선 語形이었으리라 생각된다.

(32) 「무우리라」는, 여기에서는 「뮈우-」의 變動形으로 보고 說明하였으나, 「무으-」의 活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六師ㅣ 무리 閻浮提에 ᄀᆞᄃᆞᆨᄒᆞ야도 내 바랫 터리ᄅᆞᆯ 몯 무으리니 (釋 6:27)

한 音節이 됨은 앞에서 說明한 바인데 (p. 385 참조), 이 重母音도 위와 같은 理由로 半母音 /j/ 가 省略된다.

ᄒᆞ야잇->ᄒᆞ앳->ᄒᆞ얏->하였-

主守ᄒᆞ얏ᄂᆞᆫ (杜 7:37)
버혓거ᄂᆞᆯ (杜 6:38)

그리고 「앒(a)>앞, 알ᄑᆞ-(b)>아프-, 골ᄑᆞ-(c)>고프-, 숣->-숩-」과 같은 變化나, 「믌결(d)>믓결(e), 믌돍(f)>믓돍(g), *믌올히(h)>믓올히(i), 밠바당(j)>밧바당(k), 밠등(l)>밧등(m), 바ᄅᆞᇌ(n)>바ᄅᆞᆺ(o), 븘(p)>븟(q)」과 같은 發音上의 動搖나 「*섨ᄃᆞᆯ>섯ᄃᆞᆯ(r)(섣달), 뭀(s)>뭇(t)(뭍)」과 같은 變化도 便宜上 여기에 넣어 둔다.(33)

(a) 앒픠ᄂᆞᆫ (용 30)
(b) 苦ᄂᆞᆫ 몸 알ᄑᆞᆯ씨오 (月印 2:22之1)
(c) ᄇᆡ 골ᄑᆞ며 (月印 21:55)
(d) 믌결 소리 (釋 13:9)
(e) 믓결파=波 (字會 上 4)
(f) ᄒᆞᆫ雙ㅅ 믌돌ᄀᆞᆫ (杜 7:2)
(g) 믓돍계=灘 (字會 上 17)
(h) 例 못찾음
(i) 믓올히부=鳧 (字會 上 16)
(j) 밠바당이 (月印 2:40)
(k) 脚板 밧바당 (字會 上 29, "脚" 註)
(l) 밠드ᇰ 노ᄑᆞ시며 (月印 2:40)
(m) 밧등부=跗 (字會 上 29)
(n) 바ᄅᆞᇌ ᄆᆞᄅᆞᆯ (釋 13:9)
(o) 바ᄅᆞᆺ ᄆᆞᄅᆞᆯ (杜 6:50)
바ᄅᆞᆺ 가온ᄃᆡ=海中 (楞 2:84)

---

(33) 「믌, 밠, 바ᄅᆞᇌ 븘, 섨, 뭀」 따위의 ㅅ은 모두 「사잇ㅅ」이다.
사잇소리는, 앞에서 (「Ⅲ, 3, 6) 사잇소리) 말한 바와 같이, 無聲의 休息이었는데, 이 休息은 舌端을 잇몸에 接近시키면서 聲을 정지시키는 傾向이 있어, 이것이 「ㅅ」으로 表記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l] 다음에 이러한 소리가 오게 되면 舌側을 빨리 막아야 하므로 [l]은 매우 짧게 되고, 따라서 청취되지 않을 정도가 되어 버린다.

(p) 숤벼로기 일오=成𩈼 (楞 4:18)
(q) 봇벼록쟈=炸 (字會 下 35)
(r) 섯ᄃᆞ래=臘月 (杜重 10:45)
(s) 뭀小人=群小 (杜 6:37)
(t) 뭇 묏부리=群峯 (杜重 13:4)

〔5〕 마지막으로 省略의 재미 있는 方式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한 音素가 그 청각 효과가 비슷한 다른 音素에 吸收되어서 脫落되고 마는 일이다.

'소'(牛)의 옛말 「쇼」의 音素 觀念은 /sjo/ 이었을 것이나, 實現된 發音은 〔ɕjo〕 이었다. 그런데 〔ɕ〕 와 〔j〕 는 그 調音 方法이 비슷하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의 〔j〕 는 事實上 청취에 困難하여 〔ɕo〕 와 〔ɕjo〕 는 별 差가 없다. 그러므로 새로 말을 배우는 兒童들은, 어른들의 /sjo/ 音素의 實現인 〔ɕjo〕 를 〔ɕo〕 로 들었다. 그런데 우리 音素로서는 〔s〕 와 〔ɕ〕 는 別個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兒童들은 그들이 청취한 〔ɕo〕 를 /so/ 의 實現인 것처럼 생각하여, 다음에는 發音까지 〔so〕 라 하기에 이른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 音韻史上의 普遍的 變化의 하나인 「샤, 셔, 쇼, 슈」 따위의 「사, 서, 소, 수」 化는 이러하여 일어난 것이다.[34]

쇼爲牛 (訓 用字例)

(어른의 音素觀念)	(實現된 音聲)	(兒童의 音素觀念)
/sjo/	{〔ɕjo〕 〔ɕo〕	/so/

但 이 變化는 /ㅅ,ㅈ,ㅊ/이 硬口蓋의 變異音을 가지게 된 서기 18세기 末期 以後의 일이다.(p.443 참조)

---

(34) 이에 關해서, 英語 "children"의 發音과 比較해 보면, 興味 있다.
"The word 'children' must be particularly noticed. As [ʃ] by its sound and articulation possesses some affinity with [i], there is here some tendency to let the [i] be absorbed into [ʃ] or rather to reduce it to the minimum required for a rapid transition from the [ʃ]-position to the [l]-position. <O. Jespersen : Modern English Grammar Ⅰ. p. 409>

「니」(齒), 「녀즈」(女子)의 變化 過程도 이와 비슷한 點이 있다.

齒는 니라(訓)

「니, 녀즈」의 音素 觀念은 /ni/, /njə-čʌ/ 이었다. 그러나 그 實現된 發音은, [n]의 口蓋音化로 [ɲi], [ɲjə-dʒʌ]로, 그리고 發音이 한층 疎忽히 되면 母音이 鼻子音에 同化되어서 鼻母音으로 變하여 [ɲĩ,], [ɲjə̃-dʒʌ]로 나타났다. 그런데 [ɲ]와 [j, i]는 그 發音 位置가 매우 가까우므로, [ɲ]와 [ĩ,j]는 事實上 分別하기 힘드는 것이기 때문에 [ɲĩ]는 或은 [ĩ]로 들리게 된다. 이 發音을 들은, 새로 말을 배우는 兒童들은, 이 말이 /i/의 實現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여 다음으로는 [i]로 發音하고 만 것이다.

(어른의 音素觀念)	(實現된 發音)	(兒童의 音素觀念)
/ni/	[ɲi] [ɲ̩ĩ] [ĩ]	/i/

이와 같은 變化는 그 過程으로 보면 同化(互相同化)이나, 그 結果로 보면 省略(脫落)이다. 써 同化와 省略이 同一한 心的 作用의 所致임을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양양(襄陽)>야양, 평양(平壤)>펴양,

통영(統營)>토영, 공양(供養)>고양,

동양(東洋)>도양

과 같은 變化는 同音 省略으로 볼 수도 있으나[35] 慶南 金海郡의 '長有'를 「자유」라 함과 같이, 重音이 아닐 경우라도 /ㆁ/소리가 省略되는 일이 있는 것으로 보면, 單純히 同音 省略만으로 說明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省略되는 /ㆁ/소리는 [j]소리 앞에 나는 것이니, 이런 位置에 놓여 있는 [ŋ]는, /ㄱ/이 /ㅈ/으로 口蓋音化하듯이, 亦是 口蓋音化한다. 그리하여 [ŋ]는 [ɲ]와 매우 가까운 소리가 되는 것이다.[36]

(35) 李崇寧 : 朝鮮語 異化作用에 對하여 (震檀學報 第 11 號)

(36) 慶南 蔚山郡의 「兵營」을 「베녕」이라 하는 것을 흔히 들을 수 있다.
[pjə-ŋjəŋ]~[pe-ɲjəŋ]

[ko-ŋjaŋ]~[ko-ɲjaŋ]

이리하여 이 發音이 한층 더 소홀히 되면, 母音이 鼻子音에 同化되어서 [kõ-jãŋ]이 되고, 이것이 「녀ㅈ>여자」의 경우와 같이 [ko-jaŋ]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變化도, 그 變化 過程으로 보면 同化이나, 그 結果로 보면 省略이다.

'목욕'(沐浴)을 「모욕」이라 表記한 데가 있는데, 이것도 同音 省略으로 볼 수 있으나, 반드시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모욕욕=浴(字會 下 11)

쓸는 기름에 모욕ᄒᆞ고(朴通 下 20)

/mok-jok/의 實現은 [mo-gjok]으로 나타나는데, [g]는 앞뒤 소리에 同化되어서 [ɣ]가 된다.(앞에 說明한 ㄱ 脫落의 條를 參照). [ɣ]는 다시 [j]에 同化되어서 혀의 位置가 앞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니, 이렇게 되면 [ɣ]는 [j]에 매우 가까운 소리가 된다. 이리하여 [mo-ɣjok]은 결국 [mo-jok]이 되는 것이니, 이것도 그 過程으로 보면 同化이나, 그 結果로 보면 省略이다. 앞에서 말한 바, /ㄱ, ㅿ/의 脫落도, 그 變化 過程으로 보면 同化이나, 그 結果로 보면 省略이다. 써 同化와 省略이 同一한 心的 作用——努力 輕減의 欲望——의 所致임을 알 수 있다.

(2) 表現을 명료하게 하려는 데서 일어나는 變化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最少의 努力을 들이려는 自然的인 傾向이 있다. 그리하여 말 뜻의 理解에 그리 重要하지 않은 音素는 疎忽히 發音되고 마는 일이 많다. 그러나 이 疎忽한 發音은 아무런 制限 없이 許容되는 것은 아니다. 疎忽한 發音으로 말미암아 들을이(hearer)가 말할이(speaker)의 意思를 理解하지 못할것 같으면, 말할이는 自己의 뜻을 바로 들을이에게 理解시키기 爲해서 더 똑똑하게 한번 더 되푸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뿐아니라, 사람이란, 그 뜻이 아무렇게나 傳達만 되면 거기에 滿足해 버

되는 것이 아니다. 뜻을 傳達함에 있어서도 되도록이면 自己의 美的 欲望에 滿足을 주기 爲해서 平凡한 發音을 避하는 일이 있다.

여기에 努力 經濟와는 反對되는 方向, 卽 힘을 더 들이더라도, 말을 한층 똑똑하게 하고, 한층 아름답게 하려는 努力이 또한 必要하게 되는 것이니, 그 結果는 努力 경제에서 오는 同化, 縮約, 省略과는 反對되는 變化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 異化(dissimilation)

한 낱말 안에, 같은 或은 비슷한 音素 둘 以上이 隣接해 있거나 或은 다른 音素를 隔해 있을 때에, 發音의 單調를 깨뜨리고, 말에 表現力과 生命力과 生新한 맛을 더하기 爲하여, 그 中 한 音素를 다른 소리로 바꾸는 일이 있다. 이것을 異化라 하는데, 앞에서 말한 努力의 輕減에서 오는 同化 作用에 反對되는 現象이다.

우리 말의 異化 作用에 對해서는 이미 李崇寧님의 硏究가 있어서,(37) 「붑(鼓), 거붑(龜), 브섭(厨)」과 같은 말의 /ㅂ～ㅂ/ 두 音素 中, 그 印象이 弱한 內破音의 /ㅂ/이 /ㄱ/으로 바뀌어 「북, 거북, 부억」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周知의 事實이므로 여기에서는 더 仔細히 言及하지 않겠다. 그런데, /ㅂ/이 何必 /ㄱ/으로 變한데 對해서 氏는 /우/ 音의 影響이라 하였으니,(38) 여기에서 우리는 「붑(붚)>북」의 變化는, 異化 作用과 同化 作用의 두 傾向이 偶然으로 演出한 協力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39)

同化 作用과 異化 作用의 協力으로는 또한 「고봄(a)」의 變化를 들 수 있다. 有聲音 間의 /ㅂ/이 有聲化하는 일은 周知의 事實이니, 「고봄」의 /ㅂ/은 弱한 音素이다. 뿐아니라 /ㅂ/은 앞뒤에 圓唇音 /오/가 있고, 또 그 뒤에는

(37) 朝鮮語 異化作用에 對하여 (震檀學報 第11號)
(38) 같은 論文, p. 19
(39) J. Vendryes—小林英夫 : 音韻法則の省察 (言語學方法論攷) p. 381 참조.

같은 脣音인 /ㅁ/이 있다. 그러므로 이 말은 脣音과 脣音에 가까운 소리의 連續이니, 單調함을 免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發音의 單調를 깨뜨리기 爲하여 그 印象이 弱한 /ㅂ/을[40] /ㄱ/으로 바꾸었는데, /ㄱ/이 選擇된 것은, 앞뒤의 後舌音인 /오/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ㄱ/에 同化된 結果이다(고곰[b]). 그런데 이 두 音節은 同一한 母音이다. 그리하여 다시 第二 音節의 /오/ 音이 異化로 말미암아 /으/ 音으로 바뀐 것이다(고금). 第二音節은 第一 音節보다 弱하므로.

고봄>고곰>고금

(a) 나ᄅᆞᆯ 隔ᄒᆞᆫ 고봄=隔日瘧(楞 5:2)

(b) 고곰학=瘧(字會 中 34)

「고곰>고금」과 같은 異化 作用은, 「고고리[a]>고그리[b], 소곰[c]>소금[d]」과 같은 變化에도 볼 수 있다.

(a) ᄇᆡᄂᆞᆫ 불휘와 고고리 업고(杜 16:19)

(b) 고그리톄=蔕(字會 下 4)

(c) 소곰과 사ᄆᆞᆯ…(杜 6:47)

(d) 쟝과 소금과…(朴通 中 6)

「처ᅀᅥᆷ[a]>처엄[b]>처음[c]」의 變化도 異化의 所致일지며, 「ᄆᆞᅀᆞᆷ(心), ᄀᆞᅀᆞᆯ(秋), ᄆᆞᅀᆞᆯ(村)」 따위 말의 /ᄋᆞ/ 音이 第一 音節에서는 /아/로 바뀌면서, 第二 音節에서는 /으/ 音으로 바뀌는 것도 다 異化 作用임이 分明하다.

(a) 嚴威로 처ᅀᅥᆷ 보샤(용 78)

(b) 처엄 듣고(杜重 3:24)

(c) 처음은…=爲頭兒(朴通 上 21)

「아ᅀᆞ[a]」는 /ㅿ/ 消失로 말미암아 「아ᄋᆞ[b]」로 變하였는데, 이 두 母音은 같은 序列(陽性母音)에 屬하는 것이므로, 쉽사리 縮約될 可能性이 많은, 個別性이 缺乏한 不安定한 語形이다. 그리하여 /ᄋᆞ/ 音에, /아/와 序列을 달리하는

(40) 異化에 있어서 變하는 것은 대체로 그 印象이 弱한 音이니, 이에 對해서 Grammont 은 "le phonème le plus fort dissimile le plus faible"라 하였다 (Vendryes: Le Langage p. 76)

/으/ 音을 代置하여 多少라도 語形을 強化하려 하였고(아으(c)),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으/를 /우/로 代置하기에 이른 것이다.(아우)

(a) 아ᅀᆞ爲弟(訓 用字例)
(b) 아ᄋᆞ와 누의왜…(杜重 3 : 36)
(c) 오라 아으야(朴通 上 23)

아ᅀᆞ>아ᄋᆞ>아으>아우

와 같은 變化는,「아ᄋᆞ」의 두 母音이 同化되어서 縮約되는 것을 막기 爲하여 異化 作用이 일어난 것이다. 앞으로 있을 同化 作用의 語形 破壞 作用을 미리 막기 위해서 異化 作用이 일어난 것이다.

「여ᅀᅳ(a), 여ᅀᆞ(b)>여으(c), 여ᄋᆞ(d)>여우; 눉ᄌᆞᅀᆞ(e), 눈ᄍᆞᅀᆞ(f)>눉ᄌᆞᄋᆞ(g), 눈ᄌᆞᄋᆡ(h)>눈자위」와 같은 말의 變化도 위의 「아우」의 變化와 同一하게 說明된다.

(a) 여ᅀᅳ호=狐(字會 上 19)
(b) 狐 : 여ᅀᆞ(四聲通解 上 41)
(c) 여으와 듯기(杜重 5 : 50)
(d) 여ᄋᆞ와 술골(杜重 2 : 27)
(e) 눉ᄌᆞᅀᆡ 감ᄯᆞᄅᆞ며(月印 2 : 41)
(f) 눈ᄍᆞᅀᆞ를 뮈우디 아니ᄒᆞ야(楞 2 : 109)
(g) 두 눉ᄌᆞᄋᆞᆫ…(杜重 16 : 40)
(h) 金빈혀로 눈ᄌᆞᄋᆡ예 ᄀᆞ리쪈거슬 거더ᄇᆞ리면(杜重 9 : 19)

「서르(a)>서로(b), 그릏(c)>그루, 시르(d)>시루, ᄂᆞᄅᆞ(e)>나루, ᄀᆞᄅᆞ(f)>가루」 따위 變化도, 모두 異化 作用의 所致이다.

(a) 文字와로 서르 ᄉᆞᄆᆞᆺ디 아니ᄒᆞᆯᄊᆡ(訓)
(b) 서로 ᄆᆞᆫᄒᆞ니(杜重 7 : 17)——原刊에는「서르」
(c) 그 粳米 거플도 나며 이운 그르히 잇거늘(月印 1 : 45)
(d) 시르증=甑(字會 中 10)
(e) ᄂᆞᄅᆞ진=津(字會 上 5)
(f) ᄀᆞᄅᆞ면=麵(字會 中 22)

「존자리(a)」의 子音 넷은 모두 舌端音이다. 그러므로 그 中 /ㄴ/을 /ㅁ/으로 바꾸었고(>잠자리),「순지(b)」도 亦是 子音 셋이 모두 혀끝-소리이므로,

그 中 /ㅈ/을 /ㄱ/으로 바꾸고, 이어서 /ㄴ/이 /ㄱ/에 同化되어서 /ㆁ/으로 變하였다.(>상기)

(a) 數업슨 존자리=無數蜻蜓(杜 7:2)

(b) 손지 高聲으로 닐오듸…(釋 19:31)

그리고 「가모티, 가마오디, 가온딗, 감토, 나모」와 같은 母音 調和는 亦是 一種의 同化 作用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이 말들이 調和를 깨뜨려서 印象이 弱한 第二 音節 以下의 母音이 陰性 母音으로 바뀌어 「가무치, 가마우지, 가운데, 감투, 나무」로 變한 것은 異化 作用의 所致로 말미암은 것이다.

앞에서 말한 同音 省略를 異化 作用의 한가지로 보는 學者가 많은데,(41) 同音 省略은 分明히 努力의 輕減이나, 異化는 반드시 그런것이 아니므로, 여기에서는 各各 달리 다루었다.

[마] 添加(addition)

“우리는 오늘날, 短小語의 缺點은, 一面 그 個別性이 모자람에 있고, 다른 一面에는, 그 結果 쉽사리 同音 衝突과 癒着을 일으키는 데 있음을 알고 있다. 한 낱말이 말로서의 구실을 다하기 爲해서는 明確한 聽覺像을 形成하여 一事物 또는 一觀念을 喚起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爲해서는 自己와 비슷한 聽覺像으로부터 自己의 청각상을 區別할 수 있을만한 特徵 있는 音群을 가질 必要가 있다. 한 말은 소리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길어지고 個別化되어서, 他語와 混同될 念慮가 적어지는 것이다.”(42)

이 말은, 添加나 다음에 말할 強化를 다루어 감에 있어서 항상 머리에 떠오르는 Dauzat의 名言이다.(43)

---

(41) Vendryes : Le Langage p. 75
Gray : Foundations of Language p. 71
李崇寧 : 上揭論文 等

(42) Dauzat : La géographie linguistique p. 89 (松原秀治譯 : 言語地理學 pp. 100-1)

(43) 이것은 絕對로 과장이나, 추상적인 理論만이 아니라, 우리가 쉽사리 實證할 수 있는 事實이다.

「ᄒᆞᄫᆞᅀᅡ(a)」의 變化 過程은 우리에게 매우 興味 있는 일의 하나이다. 곧 이 말은 西紀 1450~60年頃 /ㅸ/이 消失되면서, 「ᄒᆞ오ᅀᅡ(b)」로 變하고, 16世紀 頃에 /ㅿ/이 消失되면서 「ᄒᆞ오아(c)」로 機械的으로 變한 것처럼 文獻에 나타난다.

(a) ᄒᆞᄫᆞᅀᅡ 나ᅀᅡ가샤(용 35)
ᄒᆞᄫᆞᅀᅡ 믈리조치샤(同)
(b) 獨ᄋᆞᆫ ᄒᆞ오ᅀᅢ오(月印序 1)
ᄒᆞ오ᅀᅡ 셔셔(杜 15 : 2)
(c) ᄒᆞ오아 자니(杜重 6 : 15)
ᄒᆞ오아 셔셔(杜重 3 : 27)

그러나 이 最後의 語形은 세 母音이 衝突되어 있는 매우 不安定한 것이다. 여기에 이르러 多少라도 이 말의 生命을 더 維持해 보려는 努力에선지, /오/와 /아/ 사이에 [w] 或은 [j] 音을 插入한 「ᄒᆞ오와(a)」「호오야(b)」와 같은 語形이 「ᄒᆞ오아」와 同一한 文獻에 混用되어 있다.

(a) ᄒᆞ오와 셔셔(杜重 7 : 4)

筆者는 일찍 李允宰님의 「표준 조선말 사전」(總枚數 903面中 ㄱ에서 ㅇ까지 611面)에 나타난 一音節 體言을 調査하여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

音素數 / 初聲	1	2	3	4	計
ㄱ→ㅅ	0	51	204	23	278
ㅇ	4	25	5	0	34
計	4	76	209	23	312

(注意) (가) 이것은 순 우리말의 名詞만 뽑되, 표준말 아닌것은 除外하였다. 이를테면 "게"(糠, 표준말 : 겨)나, "갈"(秋, 가을) 따위는 여기 넣어 세지 않았다.

(나) 둘 받침이나, ㅑ, ㅕ, ㅟ 따위도 모두 두 音韻으로 잡았다.

(다) ㅇ部에서 그친 것은, 1, 2 音素를 가진 말이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날 것이므로써이다. 만일 끝까지 계속한다면, 3, 4 音素를 가진 말의 比가 더 커질 것이다.

初頭音에 二重 子音을 不許하는 우리말 音節 構成法의 特性으로 보면, 二重母音을 가진 말이나, 또는 둘 받침을 가진, 얼마 안되는 말을 除外하면, 一音節 體言이 가질 수 있는 最大限의 音素數는 셋이다. 그러므로 위의 表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結論에 到達한다.

"짧은 말은 그 말이 가질 수 있는 最大限의 音素를 가지려고 한다"

ᄒᆞ오와 내 왯도다(杜重 7:9)

ᄒᆞ오와 안잣ᄂᆞᆫ 새(杜重 2:12)

(b) 호오야 셔셔(杜重 16:50)

그러나 우리는 杜詩諺解 重刊本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語形을, 그대로 實際의 言語로 誤認해서는 안된다. 杜詩諺解 重刊本이란, 그 當時(1632 A.D.)의 言語의 實際를 그대로 表記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原刊의 原形을 되도록이면 充實하게 保存하려는 努力이 分明히 나타나 보이므로써이다. (44)

---

(44) 이 點은 여러 곳에서 지적할 수 있으나, 特히 여기에 關聯이 있는 事實을 몇例만 들어 보이기로 한다.

/ㅿ/이 原刊과의 사이에서 消失되었기 때문에, 「ㅿ」은 一齊히 아주 機械的으로 「ㅇ」으로 고쳤는데, 이것은 대개는 그대로 通用될 수 있었겠으나, 때로는 아주 異常한 結果가 되고 마는 일이 있다.

「ᄃᆞᆺ-(a)」(ㅅ變格, 愛)의 派生 形容詞 「ᄃᆞᇫ오-(b)」는 때로는 「ᄃᆞᆺ오-(c)」로 表記되어 있는데, 杜詩諺解 重刊에서는 대개는 「ᄃᆞᆺ오-(d)」로 表記하면서, 어떤 곳에서는 「ᄃᆞᆼ오-(e)」와 같이 表記하였다. 이것은 絕對로 發音의 實際를 그대로 表記한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a) 션비ᄅᆞᆯ ᄃᆞᅀᆞ실ᄊᆡ (용 80)

(b) ᄆᆡ며 ᄃᆞᇫ오ᄆᆞᆯ 간대로 니ᄅᆞ와다=妄起憎愛(金강 9)

ᄃᆞᇫ오며 아니 ᄃᆞᇫ옴 (楞 4:16)

(c) 愛心은 ᄃᆞᆺ온 ᄆᆞᅀᆞ미오 (月印 2:22 之 1)

可히 ᄃᆞᆺ온 아홉 ᄆᆞ리=可憐九馬(杜 16:39)

(d) 可히 ᄃᆞᆺ오도다=可憐(杜重 21:45)——原刊에도 同一함

또 어루 ᄃᆞᆺ오도다=更可憐(杜重 18:7)——原刊 같음

(e) 可히 ᄃᆞᆼ오도다=可憐(杜重 11:13)

또 「그ᅀᅳ-(a)」의 名詞形, 副詞形은 各各 「그ᇫ움(b)」 「*그ᇫ어(c)」 이었는데, 重刊本에는 대개 「긋움(d)」, 「긋어(e)」로 表記하면서, 때로는 「ㅿ」을 아주 機械的으로 「ㅇ」으로 代置하여 「긍움(f)」, 「긍어(g)」와 같이 表記되어 있는 곳이 보이는데, 이것도 發音의 實際로 믿기는 어렵다.

(a) 四天王이 술위 그ᅀᅳᅀᆞᆸ고(月印 2:35)

뉘 서르 자바 그ᅀᅳᄂᆞᆫ고=誰相拽(杜 21:40)

(b) 옷기슭 그ᇫ우믈 앗기니라=惜曳裾(杜 20:34)

(c) 例를 찾지 못함.

(d) 玉ᄋᆞᆯ 긋우믄=拖玉(杜重 15:25, 原刊同)

(e) ᄃᆞ래 긋어=曳月(杜重 11:24)

(f) 옷기슭 긍우믈(杜重 20:34)

(g) 天河ᄅᆞᆯ 긍어다가=挽天河(杜重 4:19)

옷기슬글 긍어=曳裾(杜重 14:11)

여기에 나타난 「ᄒᆞ오와, 호오야」도 「ᄒᆞ오ᅀᅡ」에서 그대로 繼承된 語形이 아니라 多分히 人工的인 色彩가 濃厚한 表記法이다. 왜냐하면 「ᄒᆞ오ᅀᅡ」의 第一, 第二 音節의 母音 衝突은 文獻에서는 /ㅸ/ 消失後 杜詩諺解 重刊까지, 1世紀半 동안이나 나타나는데, 이러한 不安定한 母音 衝突이 이렇게 長久한 時期에 걸쳐 保存 繼承되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으므로써이다. 事實은 「ᄒᆞ오ᅀᅡ」는 이미 /ㅿ/ 消失 前에 「호ᅀᅡ(a)」로 變했는데(/ㆍ/音 省略, p.482 참조), /ㅿ/의 聽覺像은 그리 똑똑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母音과 /ㅿ/ 사이에 /ㄴ/을 添加하여 「ᄒᆞ온ᅀᅡ」(b)가 생겨나고, /ㄴ/+/ㅿ/은 그 사이에 寄生音 [d]를 發達시켜 「혼자(ᄒᆞ온자)」(c)가 나타나게 된다. (cf. 손ᅀᅩ>손조)

ᄒᆞᄫᅀᅡ>ᄒᆞ오ᅀᅡ(ᄒᆞ온ᅀᅡ)>호ᅀᅡ(*혼ᅀᅡ)>혼자

「호ᅀᅡ」는 /ㅿ/ 消失後의 文獻에 反影될 때는 「호자(d)」로 나타나는 일이 있다. 그리고 杜詩諺解 重刊 時期에는 이미 이 現代語形으로의 變化가 完成된 모양으로, 原刊에 「ᄒᆞ오ᅀᅡ」로 表記된 곳에는, 機械的으로 「ᄒᆞ오아, 호오야, ᄒᆞ오와」로 代置한 以外에, 때로는 「ᄒᆞ온쟈(e), 호온차(f)」가 나타난다.

(a) 有文이 호ᅀᅡ 거상을 禮로 ᄀᆞ장 삼가ᄒᆞ더니(續三綱, 孝子圖, 有文服喪)——南廣祐：古語辭典

(b) /ㄴ/의 添加는 일찍부터 있은 일로서, 日本 蓬左文庫에 있는 「內訓」에는 「ᄒᆞ오ᅀᅡ」(1：86)가 쓰인 동시에 「ᄒᆞ온ᅀᅡ」(2下：17)도 보인다.

(c) ᄉᆔ합이 혼자셔 시병ᄒᆞ며(續三綱, 孝 22)
내 혼자 ᄡᅩ아도 이긔리로다(朴通 上 49)

(d) 閑中眞味를 알니업시 호재로다(丁克仁：賞春曲)(45)

그리고 또 向의 뜻의 *「앗-」(ㅅ變格)은 原刊 時代까지는 아직 쓰이어, 「아ᅀᅡ가-(a)」와 같은 말이 나타나는데, 重刊에는 이 말이 쓰이지 않게 되었는듯 하여, 同一한 곳에 「나아가-(b)」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ㅿ」을 그대로 「ㅇ」으로 代置하여 「아아(c)」로 表記하였는데, 이 한 例만 가지고 重刊 時期까지 이 말이 쓰이고 있었다고 速斷해서는 안된다.

(a) 길흘 아ᅀᅡ가ᄂᆞ니=首途(杜 8：53)

(b) 길흘 나아가ᄂᆞ니(杜重 8：53)

(c) 길흘 아아=首路 <注>首는 向也ㅣ라(杜重 19：29)

(45) 丁克仁은 1401～1481 A.D. 사이의 사람인데, 그의 文集인 不憂軒集은, 그의 沒後 三百餘年 後인 1786 A.D.에 그의 後孫 丁孝穆에 依해서 印行된 것이다.

微吟緩步ᄒᆞ야 시냇ᄀᆞ싀 호자 안자(同上)

(e) 이 ᄀᆞ올히 ᄒᆞ온쟈 오ᄋᆞ라 이쇼ᄆᆞᆯ 보니라=此州獨見全(杜重 25 : 40)—原刊에는「ᄒᆞ오ᅀᅡ」

(f) 호온차 가ᄂᆞᆫ 客이로다=獨歸客(杜重 4 : 33)

「나ᅀᅵ(a)」는 /ᅀ/ 消失後 「나이(b)」가 되었는데, 이것은 한 音節로 縮約되어서 語形이 너무나 짧아질 危機에 處해 있었다. 그러므로 두 音節을 그대로 保存하기 爲해서 그 사이에 /ㆁ/을 添加하여 「낭이(c)」(>냉이)가 나타났다.

죠ᄒᆡ(d)>*죠ᄋᆡ>죵ᄒᆡ(e)>종이

버워리(f)>벙어리

우훔(g)>움쿰

과 같은 變化도 同一한 添加이며, 그리고 「사인교」(四人轎)를 「사린교」라 하고, 「거울」을 咸南 地方에서 「겅울」이라 하는 따위도 모두 同一한 變化이다.

(a) 나ᅀᅵ계=薺(字會 上 14)

(b) 나이 ᄂᆞᆯ도다(杜重 8 : 18)

(c) 낭이=薺菜(朴通 中 34)

(d) 죠ᄒᆡ爲紙(訓 用字例)

(e) 죵ᄒᆡ를(朴通 中 58)

(f) 百年萬世예 버워리 아니 ᄃᆞ외며(釋 19 : 6)

(g) 남기 ᄒᆞ마 ᄒᆞᆫ 우후미 ᄃᆞ외니=木已拱(杜 16 : 48)

한 音節로 縮約되거나 한 音이 줄어져서 語形이 너무나 짧아질 우려가 있을 때에, 이것을 미리 막기 위하여 그 가운데 한 音을 添加하게 된 것이니, 이것은, 同化를 미리 막기 위하여 異化가 일어남과 같은 현상이다.

'催促하다'의 옛말에 「뵈아-(a)」가 있는데, 第一, 二音節의 母音이 衝突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縮約될 可能性이 많다. 이리하여 이 말은, 이 두 音節을 分明히 分離시켜 두려는 欲望에서, 두 音節 사이에 /j/ 音을 添加하여 「뵈야-(b)」로 變한다.

(a) ᄯᆞ므로 뵈아ᄂᆞ니(용 13)

b) 술 비주물 뵈야고(杜重 3 : 25)
後엣 命으로 뵈야놋다(杜重 23 : 30)
새배 비출 뵈야고(杜重 15 : 45)
남지니……다ᄅᆞ니 어ᄅᆞ라 뵈야거늘(續三綱, 烈女 1)

以上 보인 變化는 모두 語形이 너무 짧아지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 그것을 適當한 길이로 維持하기 爲하여 語中에 다른 音素를 添加한 것으로, 이것은 所謂 「語中音 添加」(epenthesis)인데, 이와 꼭 같은 動機로 語末에 다른 音素를 添加하는 일도 있다. (「語末音 添加」 epithesis or paragoge).

「우ㅎ(a)」(上)는 元來 「ㅎ」받침을 가졌던 말인데, 이것이 脫落하여, 단 한 音素가 되었다. 그리하여 그 청각상이 매우 모호하게 되었으므로 좀 더 길게 해보려는 努力으로 「위」가 생겨나게 되었다.

「ᄯᅡㅎ(b)>ᄯᅡ>땅, 니마ㅎ(c)>니마>이망, ᄌᆞ모(d)>ᄌᆞ못(e)」 따위 變化는 「우」의 경우와 같이 그렇게 짧은 語形은 아니나, 亦是 말의 청각상을 한층 더 分明하게 하려는 動機에서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a) 城 우희(용 40)
우흘 結ᄒᆞ샨 마리니=結上之辭(永가 下 6)
(b) ᄯᅡ爲地(訓, 合字解)
하ᄂᆞᆯ콰 ᄯᅡ쾌=乾坤(杜 20 : 14)
(c) 니마히 넙고(月印 2 : 55)
니마해 ᄇᆞᄅᆞᆫ 香(月印 7 : 7)
(d) ᄌᆞ모 衆生이……듣ᄌᆞᆸ고(金강 32)
ᄌᆞ모 아노라=頗覺(杜 7 : 39)
(e) ᄌᆞ못 기도다=何長(杜重 7 : 6)——原刊에는 「ᄌᆞ모」
ᄌᆞ못 自若ᄒᆞ더니라=何自若(杜重 3 : 65)

語形을 適當한 길이로 維持하려는 이와 같은 努力은 文法 要素에도 나타난다. 「ᄃᆞ리」(橋)와 같은 名詞에 處所格 助詞 「-에」가 붙을 때나, 「뮈-」(動)와 같은 用言에 副詞形 語尾 「-어」 또는 名詞形 語尾 「-움」 따위가 붙을 때는,

이러한 形態部는 意味部와 縮約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것을 미리 막아서 文法 要素의 形態를 分明히 維持하려는 欲望에서, 이 사이에 /j/ 音을 添加한다.

處所格 助詞「-에」:

ᄃᆞ리예(용 87), 웃닛머리예(訓), 나못 가지예(杜 15 : 4),

귀예(釋 9 : 7), 댓불휘예(杜 25 : 17), ᄇᆡ예(月印 2 : 24),

그르메예(月印 7 : 23)

副詞形 語尾「-어/아」:

뮈여(月印 7 : 59), 뷔여(同序 1), 이긔여(同序 9), 괴여(訓, 合字解),

ᄃᆞ외야(月印 1 : 5), 내야(月印 2 : 31), ᄆᆡ야(杜 7 : 34)

名詞形의「-옴/움」:

뮈유미(月印 2 : 21之1), 어긔욤(金강 15), 이긔유믈(杜 7 : 7), 뵈요미(釋 13 : 7), ᄢᅵ요ᄆᆞᆯ(杜 7 : 13), ᄆᆡ요미로소이다(釋 9 : 8), 혜요미(杜 7 : 13)

(다른 語尾가 붙을 때라도, 그것이 {오/우}를 取하는 경우는 모두 같음)(46)

위의 /j/ 音을 添加하는 例는, 語幹의 끝소리가 /이/ 音일 때에 限해서 일어나는 現象이다. 그런데「ᄒᆞ다」의 副詞形「ᄒᆞ야」는 例外인데, 이것은 아마 規則的인 語形「ᄒᆞ+아」→「하」가 너무 짧기 때문에, 위에 든「뮈여」따위 副詞形의 類推로써「ᄒᆞ야」가 생겨난 것이 아닐가 생각된다. 그리고 名詞形 따위는 대체로「홈(a)」으로 나타나는데, 때로는「ᄒᆞ욤(b)」으로 나타나는 일이 있으니, 이것도 亦是「ᄒᆞ야」와 同一한 理由에 말미암은 것이라 생각된다.

(a) 天人濟渡호ᄆᆞᆯ ᄡᅥᆯ비 아니호미(月印 1 : 17)

(b) 行ᄒᆞ요ᄆᆞᆫ(釋 19 : 25)

行ᄒᆞ욤과……動作ᄒᆞ욤과(釋 19 : 24)

---

(46) 이 現象은 嚴格하게 따지면 變動에 屬하는 事實이나,

* ᄃᆞ리에>ᄃᆞ리예, * 뮈어>뮈여, * 뵈옴>뵈욤

等等의 현상이 歷史的으로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서 說明하는 바이다

以上 들어보인 「더리예, 뮈여」 따위 말에 있어서의 /j/ 音 添加는, 體言 要素와 助詞 要素, 또는 語幹 要素와 語尾 要素를 各各 分明히 分離하여, 各要素의 뜻을 明瞭하게 하려는 慾望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現象임은 앞에서도 指摘한 바이나, 때로는, 어떠한 文法 要素(形態部)의 存在가 分明히 認識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경우, 그 文法 要素를 다시 하나 덧붙여서, 그 要素가 가진 바 機能을 한층 더 分明히 表現하려는 일이 있다.

「셔-(a)」(立)의 使役形은 「셰-(b)」/sjəj/인데, 「ㅖ」가 /jəj/와 같은 三重 母音인 옛말에 있어서는, 끝의 /j/ 音으로 使役의 뜻을 分明히 表示할 수 있었다.

/sjə-/ : /sjəj-/

그러나 /əj/의 單母音化로 말미암아 /sjəj-/가 /sje-/로 變하고, 이것이 다시 /se-/로 變하고 난 뒤로는(sjəj>sje>se), 使役의 뜻이 그리 똑똑하게 表現되지 못할 憂慮가 있다. 여기에 이르러 使役의 뜻을 한층 더 分明히 表現하려는 慾望으로 /우/를 添加하기에 이른 것이다. ──「셰우다(c)」>「세우다」

(a) 아바닚 뒤헤 셔샤(용 28)
(b) 中興主를 셰시니(용 11)
　　鼎峙之業을 셰시니이다(용 80)
(c) 이 집셰 내는 글월을 셰워=立此賃房文字(朴通 中 39)

「불리-」(被呼)를 「불리우-」라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며, 「눌리-」(被壓)를 「눌리우-(a)」라 하며, 「휩쓸리-」를 「휩쓸리우-(b)」라 하는 일도 있는데, 이러한 變化도 모두 被動의 뜻을 分明히 表現하려는 慾望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a) 나는 없는 자와 눌리운 자와 억울한 자의 편에 들려는 사람이다.(朴啓周 : 久遠의 情火, 경향신문, '54. 5. 21)
(b)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태연 교수는 박은미가 결혼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절벽 같은 절망감에 휩쓸리우면서 회호리 같은 질투를 아니 느낄 수가 없었다.(鄭飛石 : 自由夫人, 서울신문, '54. 6. 5.)

이러한 일은 主格 助詞의 變遷에서도 볼 수 있다.

옛말의 主格 助詞는 「-이」 하나만이었는데, 體言이 開音節로 끝나 있을 때

는, 이 두 音節이 縮約된다는 事實은 앞에서 言及한 바이다. 곧 體言의 末音이 /아, 어, 오, 이/와 같은 音일 때는, 그 主格形은 各各 「～애, ～에, ～외, ～이」와 같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末音일 경우에는 이미 主格의 表示가 分明하지 못한 데다가 이들 重母音이 單母音化함에 미쳐 主格 助詞의 /i/ 音은 그 흔적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主格 語形은 그 表現이 不分明하게 되었는데, 이 表現性을 잃은 主格形을 補修하기 爲하여 「-가」를 添加하기에 이른 것이다.

내가, 네가 等等.

(앞에 든 重母音이 單母音化하기 前부터 「-가」가 쓰였을는지는 모르나, 「-가」의 運命에 決定的인 役割을 한 것은, 亦是 重母音의 單母音化이었으리라 추측된다.)

「-가」가 어데서 왔는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일이나, 要컨대 短小해지고 個別性이 없어진 主格 語形의 表現을 한층 더 分明하게 하기 爲하여 添加된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일은 目的格 助詞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다.

李朝 初期의 目的格 助詞는 「-ㄹ, -롤/를, -올/을」로 나타나는데, 「-롤/를」은 二重 目的格形이라 한다.[47] 곧 「-ㄹ」이 目的格 助詞의 本體요, 「-올/을」은 그 調聲 母音 連結形인데, 「-롤/를」은 「-ㄹ」을 겹친 꼴이란 뜻이다. 그러면 왜 「-ㄹ」을 겹칠 必要가 생겨 났느냐? 이에 관해서는 이미 河野六郎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元來 「롤」 또는 「를」은 「ㄹ」의 重複으로서, 처음에는 母音이든 子音이든 오직 「ㄹ」만으로써 되었든 것이다……吏讀에 이 助詞에 對해서 一律로 乙로써 表示하여 있음은 아마 이 事情을 反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母音 밑에 「ㄹ」을 重複한 것은 要컨대 한층 더 明晰하게 表現하는 手段에 지나지 않는다."[48]

곧 「-ㄹ」만으로써는 目的格의 表示가 똑똑하지 못하므로 /ㄹ/을 하나 더

---

(47) 梁柱東：朝鮮古歌研究. p. 218
(48) 朝鮮方言學試攷 pp. 121-2

添加한 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ㄴ, -ᄋᆞᆫ/은: -ᄂᆞᆫ/는」

에서도 볼 수 있다.(49)

文法 要素의 表現性을 明瞭하게 하려는 慾望은, 위에 말한 바와 같은, 不分明한 語形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미 明晰한 語形에도 미치는 일이 있다. 이리하여 그 表現性은 한층 더 明瞭해지고 強해지는 것이다.

ᄒᆞ고：ᄒᆞ곡, ᄒᆞ야：ᄒᆞ약

너와 다ᄆᆞᆺ하야 山林에 사로ᄆᆞᆯ 서르 일티 마락 모매 藥ᄡᅡᆫ거슬 갓가이 ᄒᆞ곡 수를 댱샹 가쥬리라＝與汝林居未相失 近身藥裹酒長携(杜 8：33—4)

이와 같은, 이미 그 聽覺像이 分明한 語形일지라도 한층 더 明晰하게 하려는 慾望은, 「머추-(a)」를 「멈추-」로, 「더디-(b)」를 「던지-」로, 「너출(c)」을 「넌출」로 바꾸고, 그리고 한 때는 「가치(d)」를 「간치(e)」로 바꾼 일도 있었다.

(a) 兵馬를 머추어시니(용 54)
(b) 보시고 더디시나(용 27)
(c) 너추렛 여르미 나니(月印 1：43)
(d) 가칠 므러(용 7)
(e) 門의 간치ᄂᆞᆫ＝門鵲(杜重 14：21)

---

(49) 이것도 變動의 添加로써 說明되었으나, 變化로서의 觀點은 다르다. 即 앞에서도 여러번 말한 바와 같이, 「-ᄋᆞᆯ/ᄅᆞᆯ, -을/를」을 共時的 變異形態의 用法에 관한 현상으로 볼 때는 變動이 되나, 目的格 助詞의 變化 過程을,

	A時期		B時期
母音밑	-ㄹ	＞	-ㄹ -ᄅᆞᆯ/를(←「-ㄹ」+「-ᄋᆞᆯ/을」)
子音밑	-ᄋᆞᆯ/을	＞	-ᄋᆞᆯ/을

以上과 같이 推想하고서, A時期의 「-ㄹ」에서 B時期의 「-ᄅᆞᆯ/를」이 생겨난 過程을 說明할 때는 變化的 事實에 들게 된다.

그런데 變化的 說明과 變動的 說明에 있어서는, 그 添加된다는 點은 한가지인 것 같으나, 添加된 音은 같은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變動의 說明으로서는, 「-ᄋᆞᆯ/을」이 基本 形態이고, 위에 母音이 올 때는 母音이 충돌되므로 그 사이에 /ㄹ/이 添加된 것으로 說明된다. 即 이 경우에 添加된 /ㄹ/은 「-를」 助詞의 첫 /ㄹ/이다. 그러나 歷史的으로 보면, 첫 /ㄹ/이 助詞의 本體인데, 그에 「-을」이 添加된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共時的 說明과 通時的 說明 方法 사이의 差異를 發見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許 雄：言語學槪論 pp. 34-9> 참조.

이리하여 낱말의 分化도 일어난다.

「ᄀᆞ초-(a)」는 元來 '藏,備' 두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조금 後期 文獻에는 「ᄀᆞ초-(b)」(>갖추-)와 「ᄀᆞᆷ초-(c)」(>감추-)가 分化된다.

(a) 藏 : 언ᄌᆞᄫᅡ ᄀᆞ초ᅀᆞᄫᅡ(용 27)
瓶ㄱ 소배 ᄀᆞ초아 뒷더시니(月印 1 : 10)
備 : 되 征伐호ᄆᆞᆯ ᄀᆞ초아ᄒᆞᄂᆞ다=備征狄(杜 7 : 25)
(b) 모ᄆᆞᆯ ᄀᆞ마니ᄒᆞ야 行列에 ᄀᆞ초아 이슈니=潛身備行列(杜重 5 : 29)
각각 ᄒᆞᆫ 안ᄒᆞᆯ ᄀᆞ초와=各具壹裏(朴通 下 11)
(c) 새 우러 제 모ᄆᆞᆯ ᄀᆞᆷ초ᄂᆞ니=鳥呼藏其身(杜重 7 : 24)——原刊에는「ᄀᆞ초-」
몸을 ᄀᆞᆷ초와=藏身(朴通下 19)

語形을 한층 더 分明히 하고 強化하려는 努力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그르메(a)>그림제(b), 비두리(c)>비둘기(d)>(비들기), 머리(e)>멀리」 따위나, 또「겨집(f)>계집(g), 져비(h)>졔비(i), 겨시-(j)>계시-(k), 녀-(l)>녜-(m) 곳고리(n)>굇고리(o)>(꾀꼬리), ᄡᅡᆸ(p)>ᄡᅣᆸ(q)」 따위도 亦是 同一한 慾求의 所致로 생각된다

(a) 밧긧 그르메(月印 2 : 17)
(b) ᄃᆞᆳ 그림제(月印 2 : 55)
(c) 새 비두리(月印 21 : 65)
(d) 비둘기 알=鵓子彈(朴通 上 5)
(e) 머리 ᄂᆞ라가디 말라=勿遠奮飛(杜 15 : 5)
(f) 女子ᄂᆞᆫ 겨지비라(月印 1 : 8)
(g) 楚ㅅ 계지비(杜重 21 : 29)——原刊에는「겨지비」
(h) 져비爲燕(訓 用字例)
(i) 삿기 치ᄂᆞᆫ 졔비=乳燕(杜 6 : 13)
(j) 겨신ᄃᆞᆯ 무러(용 62)
(k) 天子ᄂᆞᆫ 오히려 戎衣ᄅᆞᆯ 니버 계시도다(杜重 10 : 36)
(l) 길녏 사ᄅᆞ미어나(月印 21 : 119)
(m) 더위자바 녜매(杜重 20 : 2)——原刊에는「녀매」
(n) 곳고리 새여(樂學軌範, 動動)
(o) 굇고리 우ᄂᆞᆫ 皇州(杜重 6 : 5)——原刊에는「곳고리」

(p) ᄇᆡ 사ᄅᆞᄆᆡ ᄡᅡ미라와 더으고(杜 20 : 9)

(q) 네 더 ᄡᅣᆷ에 므슴 瘡고(杜通 上 13)

「ᄇᆞ얌(a)>ᄇᆡ얌(b), 가야미(c)>개야미(d), 다야(e)>대야(f)」와 같은 現象은, 앞에서 말한 同音 省略과는 反對되는 現象으로, 或은 우믈라우트로 볼는지 모르나, 이것은 우믈라우트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믈라우트는 一種의 同化作用인데, 이 現象은, 뒤 音節의 /j/의 出發點에 있어서의 持續을 길게 한 것이므로, 一種의 添加(語中音)로 볼 수 있으므로써이다.[50]

(a) ᄇᆞ얌爲蛇(訓 用字例)

(b) 蛇ᄂᆞᆫ ᄇᆡ야미오(月印 21 : 42)

(c) 가야믜 굼글(杜 20 : 24)——重刊 같음

(d) 굼것 개야밋(杜 7 : 18)——重刊 같음

(e) 다야爲匜(訓 用字例)

(f) 대야치=匜(字會 中 12)

그리고 「잎-(a)>닢-(b)>닢-(c)」의 /ㄹ/ 添入도 同一한 變化 方式임은 다시 말할 必要도 없을듯.

(a) 나비 ᄆᆞ람 기리 이푸믈…(永嘉 下 109)

(b) 白華篇을 읍ᄂᆞ니(杜重 8 : 20)——原刊에는 「입ᄂᆞ니」

(c) 詩句를 읇프며(朴通 中 44)

그리고 元來의 짧은 語形은 쓰이지 않게 되고, 거기에 接辭가 붙은 말이 이에 代置되는 現象도 語形 強化 欲求의 所致이다.

녑(a)>녑구레(b)>(옆구리), 결(c)>겨드랑이,

긷(d)>기동(e) 잇(f)>잇기(g),

---

(50) 이것도 같은 時期에 두 語形이 나타나므로 任意的 變動으로 說明되는 것이나 여기의 觀點은,

A時期 B時期

* ᄇᆞ얌 > { ᄇᆞ얌 / ᄇᆡ얌 }

과 같은 變化 過程을 推想하고, A時期의 「*ᄇᆞ얌」 /pʌjam/이 B時期의 「ᄇᆡ얌」 /pajjam/으로 變한 過程을 說明하는 것이다.

B時期에 있어서의 「ᄇᆞ얌」~「ᄇᆡ얌」의 관계는 變動이다.

납(h)>짓납(i)>(잔나비)

(a) 넙爲脅(訓 合字解)
(b) 녑구레협=脇(字會 上 25)
(c) 겯 아래 쫌 나며(月印 2:13)
(d) 긷爲柱(訓 合字解)
(e) 기동듀=柱(字會 中 6)
(f) 이시 퍼러ᄒᆞ도다=莓苔靑(杜 6:17)
(g) 푸른 잇기 나놋다=綠苔生(百聯抄解)
(h) 납爲猿(訓 用字例)
(i) 짓나븨 소리(杜重 5:36)
孫行者는 이 진납이라(朴通 下 20)

語形의 길이를 적당하게 유지하려는 欲望에서가 아니라, 音素의(結合的)組織의 變遷으로 말미암아 添加되는 일도 있다. 15세기의 「ᄡᆞᄒᆡ(a)」는 /snahʌj/이었으리라 추측되는데, 둘 以上의 子音群이 語頭에서 許容되었던 當時에 있어서는 이러한 音素 連結이 語頭에 올 수 있었으나, ㅅ系 並書가 된소리로 變하고 난 뒤로는 「ㅅ」은 語頭 子音群의 初頭에 올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sn/는 다른 소리(된소리)로 바뀔 可能性도 없으므로, 이 두 子音 사이에 母音을 發達시켜 「ᄉᆞ나ᄒᆡ(b)」가 생겨난다.

(a) ᄡᆞᄒᆡ 소리(釋 19:14)
(b) 俗呼 児孩児 ᄉᆞ나ᄒᆡ(字會 上 32)

添加 현상은, 꼭 앞뒤 소리와의 관련으로 說明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一例를 들면, 「더디-」>「던지-」에 있어서의 /ㄴ/의 添加는 그 앞뒤 소리의 結合的 事實로써는 說明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添加는, 語形 全體에 있어서의 音素의 結合的 條件(短小하다거나 하는 따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임에는 틀림 없다. 그러므로 添加도, 音素의 結合的 關係에서 나타나는 同化, 縮約, 省略, 異化와 같은 部類에 넣어 說明한다.

[바] 強化

낡은 語形을 補修하기 爲하여, 또는 한 말의 청각상을 한층 더 明晰하게 하기 爲하여, 語頭나 語中이나 語末의 音素를 그보다 청각효과가 明白한 音素로 代置하는 일이 있으니, 이것을 「強化」라 불러 두고져 한다. 強化는 添加와 같은 欲望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變化이나, 添加는 지금까지 全혀 그 말에 없던 音素를 새로 添入하는 것임에 比해서, 여기의 強化는 소리의 代置이다.

앞에서 「손ᅀᅩ>손조」는 同化 作用으로 보았는데, 이 變化에는 同時에 強化도 作用하고 있다. 이리하여 「손ᅀᅩ」는 或은 「손수」로 強化되기도 한다. 「몸ᅀᅩ[a]」가 /ᅀ/ 消失에 際하여 「몸소[b]」로 變한 것도 一種의 強化이다.

(a) 몸ᅀᅩ 밭 가다가＝躬耕(杜 6 : 34)
(b) 몸소 (同上 重刊)

그리고 「-ᅀᆞᆸ-, -ᅀᆞᄫ-」은 語幹의 끝소리가 有聲音(母音, ㄴㅁㄹ)일 때는 「-ᅀᆞᆸ-, -ᅀᆞᄫ-」으로 變하는데, /ᅀ/ 消失에 際해서는, /ㄴ, ㅁ/ 밑에서는 脫落하지 않고, /ㅅ/으로 復歸되는 것도 「몸소, 손수」의 경우와 同一한 強化로 보아진다.

四天王이 하ᄂᆞᇗ기ᄫᅳ로 안ᅀᆞᄫᅡ(月印 2 : 39)
維那를 삼ᅀᆞᄫᅩ리라(月印 8 : 79)
이를 禮예 삼ᄉᆞ오리잇가(捷解新語 3 : 8)
삼ᄉᆞᆸ새(同 3 : 9)
삼ᄉᆞ올ᄭᅬ(同 9 : 12)

「가치>까치(鵲), 곶>꽃(花), 곳고리>ᄭᅬᄭᅩ리(鶯), 버국새[a]>ᄲᅥ꾹새, 불휘[b]>뿌리」와 같이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거나, 「닷[c]>탓, 갈ㅎ[d]>칼, 고ㅎ[e]>코, ᄇᆞᆯㅎ[f]>팔, 불무[g]>풀무[h], 녁[i]>녘[j], 곶>꽃, 시기-[k]>시키-」와 같이 예사소리가 거센소리로 變한 따위도 모두 強化의 所致이다.

(a) 버국새 궤＝鵖(字會 上 17)
(b) 불휘 기픈 남ᄀᆞᆫ(용 2)
(c) 官吏의 다시언마ᄅᆞᆫ(용 17)
(d) 갈爲刀(訓 合字解)

(e) 고해 됴ᄒᆞᆫ 내 맏고져 ᄒᆞ며(月印 1:32)

(f) ᄇᆞᆯ爲臂(訓 用字例)

(g) 큰 불무를…(杜 6:24)

(h) ᄑᆞᆯ무=爐子(朴通 下 29)

(i) 右는 올ᄒᆞᆫ 녀기라(訓)

(j) 그 陽녀킨, 그 陰녀킨…(杜重 6:2)——原刊에는「녀긘」

(k) 命은 시기논 마리라(月印序 11)

그리고「내ᅘᅧ-(a)>내키-, 바회(b)>바퀴, 할하(c)>핧아」와 같은 變化도 強化로 보아진다.

(a) 모딘 ᄠᅳ들 내ᅘᅧ(月印 2:63)

(b) 輪은 바회라(月印 2:38)

(c) 혀로 입시우를 할하=以舌舐吻(楞 3:9)

最近,「가오」를「가우」,「하고」를「허구」,「오이」를「우이」와 같이, /오/를 /우/로 내는 傾向이 있는데, 이것은 /오/의 입술을 한층 더 둥글게 하여, 소리를 強化한 것이다.

[사] 不正回歸(false regression, f. fausse régression)

이런 逸話가 있다.

어떤 慶尚道 사람이 서울에 처음 왔는데, 가장 困難한 것은 말이 잘 通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意識的으로 서울말을 배우려고 하여 注意해서 그 말을 觀察하니, 慶尚道 말에서 /오/라 하는 것이 서울 말에서는 /아/로 내는 것이 퍽 많았다. (팔~폴, 파리~포리, 팔~폴). 그리하여 그는 慶尚道 말의 /오/ 音에 해당되는 자리에는 /아/ 音을 代置해서 서울말 흉내를 내었는데, 내중에는「콩」(豆)까지「캉」으로 바꾸어서 웃음을 샀다는 것이다.

「포리」를「파리」로 고친 것은, 서울말에 바로 돌아갔으니, 바른 回歸[51]이나,「콩」을「캉」으로 돌이킨 것은 잘못된 것이니 不正回歸이다.[52]

(51) Dauzat : La géographie linguistique p. 60 以下(松原秀治譯 : 言語地理學 p. 65 以下)

(52) 이것을 或은, hypercorrect pronunciation(Jespersen : Language pp. 293-4), 또는 hyperurbanisme (Vendryes : Le Langage p. 59)라 하기도 한다.

이러한 不正回歸는 逸話에만 그치는 일이 아니다. 「짐승」의 옛말은 「즘ᄉᆡᆼ(a)」이니, 「짐-」이라 發音하는 것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바른 發音이다. 그런데, 卑俗語나 方言에서는 흔히 「기」를 「지」로 口蓋音化하여 發音하기 때문에, 이러한 俗된 말, 或은 사투리를 避하기 爲하여, 말을 高尙하게 하려는 紳士 淑女들은, 「지」를 되도록이면 쓰지 않으려고 한다. 이리하여 「짐승」까지도 「김생」이라 하는 것을 흔히 듣는다. 「김생」은 아직 표준말의 榮光스러운 자리에 登用되지 못했으나, 이리하여 變한 말이 때로는 표준말의 자리를 차지하고, 元來 쓰이던 말을 사투리의 地位로 떨어뜨리는 일도 있다.

「길쌈」(紡績)의 옛말은 「질삼(b)」이다. 그런데 「질쌈」은 사투리의 地位로 떨어지고, 不正回歸로 因하여 생겨난 「길쌈」이 표준말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a) 새와 즘ᄉᆡᆼ이=鳥獸 (杜 8:59)
(b) 브즈러니 질삼ᄒᆞ야=勤績紝 (續三綱, 烈女 1)

「깃」(羽)이 「짓(a)」을 표준말에서 몰아내고, 「키」(舵)가 「치(b)」를 물리치고 만 따위도 모두 재미 있는 不正回歸의 例이다.

(a) 블근 지ᄎᆞ로 ᄒᆞᆫ 旗=赤羽旗 (杜 6:6)
짓우=羽 (字會 下 3)
(b) 舵 : ᄇᆡᆺ타 國語又呼치 (字會 中 25)[53]

이러한 不正回歸——지나치게 高尙한 發音——는 옛날 文獻에도 나타난다.

기르마 지ᄒᆞᆫ ᄆᆞᄅᆞᆯ=鞍馬 (杜 15:1)
기ᄅᆞ마 기ᄒᆞᆫ ᄆᆞᄅᆞᆯ=鞍馬 (杜重 11:31)

/ㅎ/의 口蓋音化도 一般的으로 卑俗語 또는 사투리의 냄새가 많은 것이다. (형~성, 흉내~숭내, 힘~심, 혀~세)

이리하여 元來의 /ㅅ/까지도 /ㅎ/으로 돌이켜 버리는 일이 있다.

「서까래」(椽)의 古語는 「셔」이다.

---

(53) 但 '箕'의 뜻의 「키」는 옛날부터 쓰여 오는 말이다.
키爲箕(訓 用字例)

열아홉낫 셰로다=八九椽 (杜 20:9)
집읫 셔를=屋椽 (杜 16:28)
긴 셰로다=修椽 (杜重 3:64)
셔연=椽 (字會 中 6)

그런데 조금 後期 文獻에는 「혀」로 나타난다.

혀=椽 (朴通 下 12)
혓가래=椽子 (同 下 46)
혓가레 기나 쟈르나 기동이 기우나 트나…(靑丘永言, 珍)

不幸히(?) 이렇게 하여 回歸된 「혓가래」가 표준말의 地位는 차지하지 못하였으나, 오늘날까지 如前히 쓰여 내려온다.

「고삐」(轡)의 옛말에 「혁(a)」이 있는데, 이 말도 「셗(b)」에서, 不正回歸로 말미암아, 變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a) 다ᄒᆞᆫ혁=編繮, 혁=接絡 (老乞 下 27)
　　몰이 놀나거놀 혁 잡고 굽어보니 (城大, 靑丘永言)
(b) 셕슬 치자ᄇᆞ시니 (용 58)
　　몰 셕슬 ᄀᆞᄌᆞ기ᄒᆞ며=齊轡 (杜 20:17)
　　셕비=轡 (字會 中 27)

이와 같이 不正回歸는, 發音 努力을 輕減하려는 自然的인 傾向에 抗拒(?)하여, 努力을 희생해 가면서라도 말을 高尙하게 하려는 데서 일어나는 現象이다.

(3) 無意識的인 過誤로 일어나는 變化

위에서 說明한, 同化, 縮約, 省略은 사람의 發音의 努力을 經濟하려는 自然的인 傾向에서 오는 變化이고, 異化, 添加, 強化, 不正回歸 따위는 表現欲을 滿足시키기 위하여, 努力 經濟의 自然的 傾向에 抗拒하는 데서 오는 變化이다.

그런데 다음에 말할 터인 變化들은, 이러한 人間의 意欲과는 關係 없이, 오직 말을 잘못 들었거나, 錯覺을 일으키거나 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다.

〔아〕 轉位(metathesis, transposition)

남의 말을 잘못 들음으로 말미암아, 한 말 안의 音素의 位置를 바꾸는 일을「轉位」라 한다.

빗복>빗곱>배꼽, 하야로비>해야로비>해오라비,

아야로시>애야로시>애오라지, 시혹>혹시

따위 變化가 모두 轉位임은 이미 李 崇寧님이 指摘한 바이다.[54]

所謂 補助語幹「-더-」와「-시-」의 連結은 옛말에서는「-더시-」이었는데, 이것이「-시더-」로 바뀐것, 그리고 같은 現象으로「-거시ᄂᆞᆯ>-시거늘, -거신마ᄅᆞᆫ>-시건마는, -거시니와>-시거니와」따위 變化도 모두 轉位의 좋은 例이다.

「딸꾹질」(딸깍질, 딸꼭질)을 慶尙道에서는「깔딱질」이라 하는데, 이것도「ㄸ-ㄲ」이 그 자리를 바꾼 것이다.

옛말에는 名詞가, zero modification 으로, 바로 動詞의 語幹으로 쓰이는 일이 흔히 있다.

너출-(a) : 너출(b), ᄀᆞ믈-(c) : ᄀᆞ믈(d)

(a) 藤蘿ᄂᆞᆫ 다 너추는 거시라 (永가 下 113)
(b) 너추렛 여르미 나니 (月印 1:43)
(c) 여러히 닛위여 ᄀᆞᄆᆞ니 (月印 2:50)
(d) ᄀᆞᄆᆞ래 아니 그츨씨 (용 2)

또「신 : 신-, 되 : 되-, ᄠᅴ : ᄠᅴ-」等.

그러므로 名詞의「낛(a)」과 動詞의「나ᇧ-(b)」도,「ㄱㅅ」의 轉位로 말미암아 分化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a) 낙술 ᄂᆞᆯ라=驚鉤 (永가 下 77)
(b) 고기 낫ᄀᆞᆯ 낙술 밍ᄀᆞᄂᆞ다=作釣鉤 (杜 7:4)

그리고「侵透轉位」에 대해서는, <許雄 : 言語學概論 p. 265> 참조.

---

(54) 音韻轉位 現象에 對하여 (한글 7卷 4號)

〔자〕 相 通

남의 말을 잘못 듣거나, 또는 記憶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소리를 그와 비슷한 소리로 바꾸는 現象을 「相通」이라 하여 둔다.

/ㄴ/과 /ㅁ/이 서로 通用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現象이다.

泥匠 (朴通 下 5)>미장이

'우박'을 「누̊리」 또는 「무̊리」라 함.

보ᄆᆡ (襪, 杜 20:9)>보ᄂᆡ(同 重刊)>보늬

/ㄴ/~/ㄹ/ 相通

아놈 (杜 18:12, 20)>아ᄅᆞᆷ (杜重 18:20)>아람, 아름(抱)

/ㅁ/~/ㅂ/의 相通

멎>벚>(벚꽃, 벚나무)

니근 머지 곳답도다=熟棕香 (杜 15:23)
멋내=棕 (字會 上 11)
니근 버지 (杜重 15:23)

ᄆᆞᆫ동기- : ᄇᆞᆫ동기-

緣올 ᄆᆞᆫ동기야…(月印序 3)
ᄇᆞᆫ동기논 緣 (楞 3:114)

ᄆᆞᆺ : ᄇᆞᆺ

이ᄀᆞᄐᆞᆫ 福利 ᄆᆞᆺ 不思議라 (月印 21:143)
녯 因ᄇᆞᆺ 아니면 (臺山御牒)

/ㅁ/~/ㅇ/의 相通

이럼 (畦, 杜 6:50 etc.)>이랑 (字會 上 7), 이렁 (正俗 24)

/ㄱ/~/ㄷ/도 흔히 通用된다.

더품 (楞 2:19)>거품 (字會 上 30)
규화 (葵, 字會 上 7)>듀화 (七大萬法 9)
디새>기와 (瓦)

된소리 또는 無聲 軟音과 거센소리도 흔히 通用된다.(ㅆ>(ㅅㅌ)>ㅌ 따위)

맛다, 맛ᄃᆞ니>마타, 마ᄐᆞ니(任)

맛ᄃᆞ시릴ᄊᆡ (용 6)
ᄂᆞᆷ대되 근심을 제혼자 맛다이셔 (松江歌辭—正音文庫本)

솏돕 : 손톱(爪)

게 손토비…(月印 1:29)
손토보뢰어나…(釋 13:52)
솏돕相 (楞 3:43)
솏돕조=爪 (字會 上 26)

ᄉᆞᆷ끼다>삼키다 (呑)

도로 ᄉᆞᇝ기노라 (杜 8:7)

ᄒᆞᆫ필(老乞 上 13), 두필 (老乞 上 12-13) : 엿빌, 닷빌 (老乞 上 13)

녑발지 (肋, 字會 上 25)>녑팔지 (老乞 上 19)

위의 두가지 相通 (ㄱ～ㄷ, 된소리～거센소리)을 생각하면 「ᄭ～ㅌ」의 相通도 쉽사리 理解할 수 있다.

ᄣᅳᆷ>ᄠᅳᆷ>틈

ᄠᅳᆷ爲隙 (訓 合字解)
넉시 ᄆᆞ릐 ᄠᅳᆷ 디나감 ᄀᆞᄐᆞ니 (杜重 14:9)

드틀 : 듣글

塵ᄋᆞᆫ 드트리라 (月印 2:15)
ᄠᅳᆫ 듣글 (楞 2:105)

두텁>둗거비

두텁爲蟾蜍 (訓 用字例)
蟾蜍 둗거비 (四聲通解 上 32)

두텁->둗겁-

우리 나랏 소리에셔 두터ᄫᅳ니 (訓)
ᄌᆞ모 둗겁도다 (杜 7:33)

닷홉 (五合)>닷곱

셔홉밥 닷홉 粥에…(蘆溪集)
닷곱 (字恤典則)

以上의 相通 變化는, 순수한 音素의 結合的 條件의 所致로 보기는 어려운 일이나, 한 낱말을 형성하는 音素 全體의 성격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므로, 다른 結合的 變化와 비슷한 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 넣어 설명한다.

2) 낱말의 互相 關係로 일어나는 變化

以上 말해온 여러가지 變化는, 그 낱말 自體內에서의 變化로서, 다른 말의 영향은 미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言語 記號는 제각기 分離되어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속에 기억되어 있을 때는, 어떠한 共通性을 가진 말들끼리 聯合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낱말의 互相 關係로 말미암아, 言語 記號는 다른 말의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니, 이리하여 그 소리까지도 變하게 되는 일이 있다.

〔차〕 類推(analogy)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言語 記號는 孤立되어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속에 記憶되어 있을 때는, 어떠한 말들끼리 떼(群)를 形成하려는 傾向이 濃厚하다. 이리하여 그 떼 안에 있어서는 各 言語 記號들은 그 外形조차 가까워지려는 傾向이 있다.

'말 떼' 가운데, 가장 緊密히 結束되어 있는 것은, 同一 用言의 여러 活用形이다. 그러므로 이 活用形들은 어떤 共通된 部分(語幹 要素)을 不變하게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먹-다, 먹-고, 먹-네, 먹-어, 먹-으니
그러므로 萬一 이 結束을 깨뜨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면, 各 要素의 結束된 힘은 強力히 이에 反抗하는 것이다.

「덥다」(暑)와 같은 ㅂ 變格 用言의 語幹 末音의 /ㅂ/은 母音 사이에 介在될 때는, 李朝 初期에는 /ㅸ/으로 變動된다. 그런데 /ㅸ/은 /ㅂ/에서 變

化한 것이지, 그 反對 方向의 變化는 不可能하다. 그러므로 李朝 初期의 「더ᄫᅳ니, 더ᄫᅥ」 따위는 「*더브니, *더버」에서 變化한 것으로 생각된다.

```
*덥다>   덥다
 |        |
*더브니> 더ᄫᅳ니
 |        |
*더버>   더ᄫᅥ
```

*「덥다—더브니—더버」에 있어서는 그 活用形은 잘 結束되어 있었다. 그리고 母音間의 /ㅂ/이 /ㅸ/으로 바뀌고 난 뒤로도, 多少 이 結束은 위협을 받을 危險은 있었으나, /ㅂ/~/ㅸ/의 關係가 매우 緊密하므로, 李朝 初期 語形 「덥다—더ᄫᅳ니—디ᄫᅥ」는 아직 그 結束이 維持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 時期에서,

```
덥다>   덥다
 |        |
더ᄫᅳ니> 더우니
 |        |
더ᄫᅥ>   더워
```

와 같이 變하고 나서는, 이 結束은 커다란 危機에 直面하게 된다. 이리하여 各 活用形의 結束하려는 힘은, 「덥다, 덥고」 따위 옛날부터 變化하지 않은 語形을, 「더우니, 더워」에 步調를 맞추기 爲하여, 「더웁다, 더웁고」로 고치려 한다. (아직 完全히 成功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러한 語形은 매우 頻繁히 나타난다.)

「냅다>내웁다, 겹다>겨웁다, 뜨겁다>뜨거웁다, 맵다>매웁다, 반갑다>반가웁다, 사납다>사나웁다, 고맙다>고마웁다, 쉽다>쉬웁다」 따위 語形의 出現은 모두 이와 같이 하여 說明되는 것이다.

ㄷ 變格 用言도 元來는,

*「듣다—듣고—드드니—드더」

와 같은 正格 活用을 한 말이었으리라는 것은 앞에서(同化) 指摘한 바이다. 그런데 母音間의 /ㄷ/만이 /ㄹ/로 바뀌고 난 뒤로는 이 結束은 弱化된다.

듣다—듣고—들으니—들어

그리하여 咸鏡道 方言에 있어서는, 옛날부터 變하지 않은 語形 「듣다, 듣고」

를,「들으니, 들어」에 발맞추기 爲하여,「들다, 들고」로 바꾸게 된 것이리라 생각된다.(55)

「몰르다 (不知), 달르다 (異)」따위 말들은, 文獻語로는 나타나지 않고, 모두「모ᄅᆞ다, 다ᄅᆞ다」이다.「모ᄅᆞ-」(모르-) 따위가「몰르-」로 바뀐 것은, 그 副詞形「몰라」에 발맞추기 爲함이리라 생각된다.

/molï-/——/mo:lla/
　↓　　　　↓
/mollï-/——/mo:lla/

文法的 機能이 同一한 語形도 亦是 結束하려는 傾向이 強하다. 그리하여 同一한 文法形은 그 外形도 統一되려고 하는 것이다.(類推 作用은 文法形 統一의 原動力이다.)

用言의 語幹에 {오/우}(호, 후)를 接尾하여 副詞를 만드는 派生法은 옛말에서는 이제말보다 生產的이었다.

詮ᄋᆞᆫ ᄆᆞ초 니ᄅᆞᆯ씨라 (月印序 21)
부톄 ᄌᆞ조 이 ᄯᅡᇂ ᄀᆞᅀᅢ 와 說法ᄒᆞ실씨 (月印 7:72)
닐굽 ᄒᆡ 너무 오라다 (月印 7:2)
法다ᄫᅵ ᄒᆞ야ᅀᅡ 비르ᅀᅩ 올ᄒᆞ리라 (蒙山法語 33)
衆生ᄋᆞᆯ ᄀᆞᆯ오 어엿비 너기더니 (月印 21:214)

그런데「바ᄅᆞ-(a)」에서 派生된 副詞는, 語幹을 그대로 써서,「바ᄅᆞ(b)」로 나타낸다. (zero modification)

(a) 直ᄋᆞᆫ 바ᄅᆞᆯ씨라 (月印 序 18)
(b) 바ᄅᆞ 自性을 ᄉᆞᄆᆞᆺ 아ᄅᆞ샤 (月印序 18)
　바ᄅᆞ 北녁 關山앤…(杜 6:8)
　므른 바ᄅᆞ 누리흐르ᄂᆞ니 (七大萬法 10)

이리하여「바ᄅᆞ」는「ᄆᆞ초, 너무, ᄌᆞ조, 비르ᅀᅩ, ᄀᆞᆯ오」따위와의 結束이 弱하다. 그러므로 이에 발맞추기 爲하여「바로」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바로 나지야…(杜重 1:42)
有無ᄂᆞᆫ 言年歲久遠ᄒᆞ야 바로 모ᄅᆞᆯ시라 (杜重 2:7)

---

(55) 或은 이 말은 *「듣-」이 原形이고, 이에서 子音 앞의 /ㄹ/이 /ㄷ/으로 變한 것일는지 모르겠으나, 이에 대한 確證은 現在로는 서지 않는다.

네 뎌 노호로다가 담 우희 견조기를 바로 ᄒᆞ라 (朴通 下 5)

「서르>서로」의 變化도, 이렇게 說明할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은 異化와 強化와 類推의 세가지 作用의 協力이 演出한 結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數詞도 서로 한 떼를 形成해 있음은 쉽사리 理解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數字的으로 가까운 말은 亦是 外形이 統一되려는 傾向이 나타난다.

鷄林類事에,

七曰一急

八曰逸答

九曰鴉好

라 하였는데, 여기에 한가지 異常한 것은 '七, 八'은 그 末音이 分明히 表記되어 있으면서, '九'는 그 末音이 表記되어 있지 않은 事實이다. 그러므로 그 當時에 있어서는 七, 八은 「닐굽(a)」, 「여듧(b)」과 別 다름 없는 말이었으나, 九는 「아홉(c)」이 아니라, *「아호」이었지나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56]

(a) 숤바ᄋᆞᆯ 닐굽과…(용 89)
(b) 二十八ᄋᆞᆫ ᄉᆞ믈 여듧비라 (訓)
(c) 九는 아호비라 (月印 1:33)

萬一 이 推測이 바르다고 할것 같으면, 「*아호>아홉」과 같은 /ㅂ/의 添入은, 「닐굽, 여듧」의 末音 /ㅂ/의 類推에 말미암은 것이라 생각된다.

反對語(antonym)도 말 떼를 形成하는 힘이 있다. 그리하여 그 語形까지도 비슷하게 되는 일이 있다.

「하나비(a)」가 「하라비(b)」로 變한 것은, 「한」(大)의 語源이 不分明하게 된 것도 原因의 하나이겠으나, 그보다도 더 큰 原因은, 이 말의 反對語 「할미(c)」에 類推된 結果이라 생각된다.

(a) 센 하나비롤…(용 19)

---

(56) 鷄林類事의 終聲 表記法은 반드시 正確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추측은 맞지 않을는지 모른다.

(b) 도ᄎᆡ를 가졋ᄂᆞᆫ 하라비=持斧翁 (杜重 7:26)

——原刊에는「하나비」, 또 重刊本에도 어떤 것은「한아비」로 된 데도 있다.

(c) 셴 할미 (용 19)

그리고 慶尙道 方言에서 「얕다」(淺)를 「야푸다」라 하는데, 이것은 그 反對語인 「지푸다」(深)에 발을 맞춘 語形이다.

「그르다」(誤)를 흔히 「긇다」라 하는데, 이것도 그 反對語 「옳다」에 類推되어서 생겨난 것이다. ——옳다 긇다.

單語가 자주 連結되어서 나타날 때는 그 文法形이 같아지는 경향이 있다.

오너라 가너라 해서 귀찮다.(바른 말은, "오라 가라…" 또는 "오너라 가거라…" 이어야 할것)

들락 날락 한다. (이것은 "들락 나락 한다"가 맞다)

「ᄑᆞᆯ(a)>파리, 낛>낙시(b), 굼벙(c)>굼벙이, 벌>버리(d)」와 같이, 우리말에는 /이/音이 名詞에 接尾하여 말이 길어지는 일이 흔히 있는데, 이것은 「ᄑᆞ리(主格形), ᄑᆞ리라(指定詞 連結形)」와 같은 統合이 자주 나타나는 結果, 새로 말을 배우는 兒童들은 이것을 「ᄑᆞᆯ-이, ᄑᆞᆯ-이라」와 같이 分析하여 듣지 않고, 「다리(主格形), 다리+라」形에 類推하여, 「ᄑᆞ리(主格 助詞 縮約, ᄑᆞ리+이 →ᄑᆞ리), ᄑᆞ리-라」와 같이 잘못 分析한 탓일지니, 이러한 現象을 「잘못 分析」(metanalysis)(57)이라 한다.

(a) ᄑᆞᆯ爲蠅 (訓 用字例)

(b) 낙시ᄅᆞᆯ…=鉤 (朴通 下 51)

(c) 굼벙爲蜣螬 (訓 用字例)

---

(57) metanalysis에 關해서 Jespersen은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by which (metanalysis) I mean that words or word-groups are by a new generation analysed differently from the analysis of a former age. Each child has to find out for himself, in hearing the connected speech of other people, where one word ends and the next one begins, or what belongs to the kernel and what to the ending of a word, etc. In most cases he will arrive at the same analysis as the former generation, but now and then he will put the bounderies in another place than formerly, and the new analysis may become general"(Language p. 173)

(d) 버리와 나뵈왜…=蜂蝶 (杜 25:18)——重刊도 같음.

「ᄲᅡᅘᅧ-(a)」의 副詞形 「ᄲᅡᅘᅧ(b)」는 잘못하면 「버혀」(「버히-」의 副詞形)에 類推되어 「ᄲᅡ히+어」로 分析되기 쉽다. 이리하여 「ᄲᅡ히-, ᄲᅢ히-(c)」가 쓰이게 되고, 이 말에서 變化하여(縮約) 現代語의 「빼-」(拔)가 생겨난 것이다.

(a) 拔ᄋᆞᆫ ᄲᅡᅘᅧᆯ씨니 (月印序 10)
비늘ᄒᆞᆯ ᄲᅡᅘᅧ며 (月印 21:43)
(b) 罪苦衆生ᄋᆞᆯ 救ᄒᆞ야 ᄲᅡᅘᅧ 내야 (月印 21:119)
(c) 그 듕에 ᄒᆞ나ᄒᆞᆯ ᄲᅢ혀 ᄲᅢ히니 뉘고 ᄒᆞ야 (老乞 上 4)

「내ᅘᅧ->내킈-」도 亦是 이렇게 하여 變化한 것이다.

法雲이 世界예 펴면 됴ᄒᆞᆫ ᄢᅴ 내ᅘᅧᄂᆞ니 (月印 2:76)
모딘 ᄠᅳ들 내ᅘᅧ…(月印 2:63)

「풀>ᄑᆞ리」와 같은 것은 癒着(agglutination)이며, 「ᄲᅡᅘᅧ->ᄲᅡ히-」와 같은 것은 切斷(déglutination)이니,[58] 癒着의 경우에는 말이 길어지며, 切斷의 경우에는 말이 짧아진다.

「ᄀᆞᆮ다」(如)의 活用形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일이 있다.

ᄀᆞᆮᄒᆞ야 (月印 21:29)
ᄀᆞᆮᄒᆞ다 (楞 2:23)
ᄀᆞᆮᄒᆞ도소니 (永가 下 106)

이 語尾들은 調聲 母音을 取하지 않는 것이니, 이 말의 語幹은 「ᄀᆞᆮᄒᆞ-」이었던 모양이다.[59]

그러나 調聲 母音을 取하는 語尾가 붙은 活用形,

ᄀᆞᆮᄒᆞ니 (용 6), ᄀᆞᄐᆞ실ᄊᆡ (용 76)
ᄀᆞᄐᆞ니라 (訓), ᄀᆞᆮᄒᆞᆯᄊᆡ (釋 13:63)

等에서는, 그 語幹이 「ᄀᆞᆮᄒᆞ- (ᄀᆞᄐᆞ-)」인지 「ᄀᆞᇀ-(ᄀᆞᆮᄒᆞ-)」인지 決定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語幹의 끝소리였던 /ᆞ/를 調聲 母音으로 誤認하여 이것을 語

(58) Dauzat : 前揭書 p. 80 (日譯本, p. 91)
(59) 梁柱東님은, 이 말과 「많다. 슳다」 따위 말들은 모두 「만-, ᄉᆞᆯ-, ᄀᆞᆮ-」에 「-ᄒᆞ-」(爲)가 添尾된 것이라 하였고(古歌研究 p. 114), 前間恭作도 龍歌 123章의 「만ᄒᆞ야」에 對해서, 이 말은 「만」에 「ᄒᆞ」를 붙인 것이라 하였다. (龍歌古語箋 pp. 142-3)

幹에서 切斷하게 되었으니, 李朝 初期 文獻에도 다음과 같은 活用形이 나타난다.

ᄆᆞᆯ도소이다 (月印 7:12), ᄆᆞᆯ고 (月印 1:6), ᄆᆞᆯ가지이다 (月印 2:9),
이 ᄆᆞᆯ다 (金강 77) 等等

「만ᄒᆞ야」(용 123, 月印 1:16), 「슬ᄒᆞ야」(釋 13:18, 金강 21)와 같은 活用形으로 미루어 보면, 이 말들도 「만ᄒᆞ->많-, 슬ᄒᆞ->싫-」과 같이, 切斷으로 말미암아 變한 것으로 推測된다.

15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놀애(歌), 몰애(砂)

따위나,

달아(異), 달애-(誘)

따위의 /ㄹ/은 音節 終聲으로서 〔l〕音이었음은 이미 說明한 일이 있었는데, 成節音(中聲) 사이의 하나의 子音은 다음 音節의 初聲이 되는 것이 우리말의 一般的 傾向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一般的 傾向에 類推되어 「놀애」의 單子音 /ㄹ/은 다음 音節의 初聲이 되거나, 그렇지 않고 /ㄹ/이 終聲으로서 그대로 유지되려면 다시 다른 初聲을 發達시키거나 해야 한다. 이리하여, 「놀애」, 「몰애」는 /ㄹ/이 初聲으로 이동하여, 따라서 〔r〕音이 되고, 「달아, 달애-」에 있어서는, 初聲을 하나 더 發達시켜 「달라, 달래-」로 變하였다.

/nol-aj/ [nol-aj]>/no-laj/ [no-raj]

/tal-a/ [tal-a]>/tal-la/[tal-la]

成節音 사이의 單 子音이 다음 音節의 初聲으로 移轉해 가는 현상은, 一種의 '틀-맞추기'에 속한다. 많은 다른 경우의 '틀'에 맞추기 위한 變化이다.

〔카〕 民間 語源 (folk etymology)

옛날 어떤 사람 둘이 소(牛) 한마리를 끌고 가다가 벼란간 구름이 몰려 오므로, 비가 오겠느냐, 아니 오겠느냐 하는 것을, 소를 걸어 놓고 '내기' 를 한 일이 있었다. 그리하여 '별안간 오는 비'를 「소내기」라 하게 되었다 하는 말이 있다.

또 慶尙道 方言의 「나락」이란 말은, 漢字語 '羅祿'에서 온 말이니, 新羅 時代에는 俸祿을 벼로 주었기 때문이라 하는 語源說도 있다.[60]

이와 같이 言衆은, 비록 語源學者가 아닐지라도, 自己가 쓰고 있는 말에 對해서, 그 要素가 가진 뜻을, 自己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로써 解釋하려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 解釋法이 널리 알려지고 믿어지기에 이르면, 그 말의 소리까지도 그렇게 바꾸어 버리게 되는 일이 흔히 있다.

그 재미 있는 例의 하나는 「행주치마」에 關한 이야기다. 壬辰 倭亂中 幸州에서 對戰할 때에, 女子들이 이 치마에 돌을 싸다 날라서, 크게 勝戰하였으므로, 그 뒤로는 이 치마를 「행주치마」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逸話이다. 그러나 이 말은 그 때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以前, 崔世珍의 訓蒙字會나 四聲通解에 「행주」는 「힝ᄌᆞ」, 「행주치마」는 「힝ᄌᆞ쵸마」로 나타나 보인다.

俗呼 힝ᄌᆞ曰抹布 (字會 下 20, '抹' 註)

힝ᄌᆞ쵸마호=帍(字會 中 13)

帍 : 今俗呼帷裙曰帍巾 힝ᄌᆞ쵸마(四聲通解 上 41)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힝ᄌᆞ」와 「幸州」의 音이 偶然히 비슷하므로——事實 語末 母音 한 音만의 差다——言衆은 이 두 말을 같은 말로 생각한 결과 생겨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 言衆은 그 語源을 알지 못하게 된 「힝ᄌᆞ」를, 이미 그들이 잘 알고 있는 地名 「幸州」에 갖다 붙이므로써, 그 소리까지도 完全히 「幸州」와 같게 해버렸다. 이리하여 「힝쥬」는 새로운 生命力을 가지게 된 것이다.

---

(60) 李熙昇 : 朝鮮語學論攷 pp. 263-4 에서.

Dauzat는 "이 現象은 聯想 作用이 惹起한 單純한 機械的 事實에 不過하며 意識的으로 하는 語源 探求와는 아무런 關係가 없는 것이라" 하여 「民間 語源」이란 말을 排除하고 「同音 牽引」(attraction homonymique)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이에 對해서 다음과 같은 매우 興味 있는 說明을 하고 있다.

"이 現象은 事實 정말 引力 作用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空間에 던져진 物體가 自己 自身이 받고, 또한 다른 物體에 미치는 引力에 꼭 비슷한 것이다. 두 放射 物體의 軌道가 서로 接近할 때에 引力 作用에 依해서 무거운 物體가 가벼운 物體를 牽引하는 正確한 瞬間을 算出할 수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이 言語 心理學의 領域에 있어서도 '센말'이 引力을 行使한다. 여기에서 '센말'이라 하는 것은, 가장 使用 頻度가 많고, 包含 語彙數가 많은 語彙族에 依해서 支持되어 있는 말을 말함이다. 그리하여 '센 말'이 '弱한 말'을 牽引하는 것은 音韻 推移의 途中에 兩語의 軌道가 充分히 가까워진 時期, 곧 一般的으로 말한다면, 二辭의 相違가 단 一音의 差異에 지나지 않게 되었을 때이다."(61)

「까치설날, 까치설빔」이란 말이 있다. 왜 설날의 하로 앞날을 「까치설날」이라 할까?

옛말에는 「까치설날」을 「아촌설(a)」이라 하였는데, 「아촌」은 '작은'의 뜻이다. 그리하여 '조카'를 「아촌아ᄃᆞᆯ(b)」, '조카딸'을 「아촌ᄯᆞᆯ(c)」이라 했던 것이다.

(a) 아촌설나래=除夕 (二倫行實)(62)
아촌설=暮歲 (譯語類解 上 4)
아촌설밤=除夜 (同上)
(b) 우리 아촌아ᄃᆞᆯ 李潮=吾甥 (杜 16:15)
(c) 아촌ᄯᆞᆯ=姪女 (老乞 下 31)

그리고 보면 「까치설」은 「아촌설」에서 變한 것이리라 생각되는데, 어째서 「아촌」이 「까치」로 變했을까? 筆者의 생각으로는, 「아촌」의 本 뜻이 分明

---

(61) Dauzat : 앞든 책 pp. 72-3 (日譯本 pp. 81-2)
(62) 梁柱東 : 朝鮮古歌研究 p. 105 에서 再引用했음.

히 認識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發音이 不分明해진 결과 *「아ᄎᆞ, 아ᄎᆖ, 아치」와 같은 發音이 흔히 나타나게 되었는데, *「아치」와 같은 發音은, 七月七夕의 傳說로나, 좋은 消息을 傳한다고 하여 우리에게 매우 親近한 「까치」와 그 音이 매우 가까워졌으므로——/ㄱ/의 脫落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으므로 (同化에 보라)——드디어 이에 牽引되어 同一語化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童謠까지 생겨난 것이다.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곱고 고운 당기도 내가 드리고,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고의」는 現在로는 모두 漢字語로만 생각하고 있는데(袴衣), 이 말의 古形은 「ᄆᆞ외」(<雞林類事 : 珂背)로서, 순 우리말이다. 「ᄆᆞ외」가 「고의」로 變한 것은 語源 俗解로 말미암은 것이라 생각되나니, 「ᄆᆞ외」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ᄋᆞ/音 省略으로 * /koj/ 로 變하였는데, * /koj/ 는 漢字의 '袴衣'와 그 音이 매우 비슷하므로, 同音 牽引으로 말미암아 「고의」로 바뀌게 되었으니, 「고의」는 이미 訓蒙字會 (1527 A.D.)에 나타나 보임은 앞에서 이미 말한 바이다. (p. 483 보라)

以上은 모두 그 解釋이 語形 全體에 미친 것이나, 때로는 그 解釋이 語形의 一部에만 미치고, 나머지는 그대로 버려두는 일도 있다.

「여우」를 「여호」라 하는 것은 第二 音節만 漢字語 '狐'에 牽引되고, 第一 音節은 그대로 둔 結果이며, 「기와」가 「ᄃᆡ새」에서 變한 것도 亦是 同一한 現象으로 생각된다. 곧 「ᄃᆡ새」의 第一 音節은 앞에서 말한 相通으로 「기」로 바뀔 可能性이 充分하나, 第二 音節의 「새」는 도모지 「와」로 바뀔 可能性이 없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렇게 바뀐 것은, 「새」가 漢字音 '瓦'에 牽引된 것이다.

ᄃᆡ새며 ᄒᆞᆯᄀᆞ로…(釋 13:51)
ᄃᆡ새와=瓦 (字會 中 18)

「닛므윰」이 「잇몸」으로 變한 것도 「므윰」이 「몸」(身)에 牽引된 結果이다.

혓그티 아랫 닛므유메 다ᄔ니라 (訓)

닛믜임혼=齗 (字會 上 26)

檀君 神話도, 神을 뜻하는 말이, 熊의 뜻인 '곰'에 接近한 結果, 드디어 牽引되어서 생겨난 傳說이리라.

〔타〕 混態 (blending)

우리가 日常 使用하는 말 가운데는, 뜻이 꼭 같은 말, 또는 뜻이 비슷한 말이 꽤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려고 할 때는, 이러한 말들 가운데에서 그 選擇을 躊躇하는 일이 있다. 이리하여 두 말을 合쳐서 한 말을 만들어 내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混態」라 한다.

이를테면 '改嫁'를 「후살이」라고도 하는데, 이 두 말이 合쳐져서 「개살이」란 말을 만들어 낸 것은 混態이다.

「거렁이, 거렁뱅이, 걸뱅이」와 같은 말도 아마 「거러지, 거지」와 「비렁이, 비렁뱅이」가 混態된 것으로 생각된다.

거러지, 거지×비렁이=거렁이

거러지, 거지×비렁뱅이=거렁뱅이, 걸뱅이

그리고 다음 말들도 모두 混態의 例들이다.

껄끄럽다×뜨끔거리다=껄끔거리다

잎담배×葉草=입초

막걸리×탁배기=막배기

× × ×

以上, 近世의 文獻을 中心으로 하여, 때로는 方言이나 日常의 誤用된 말씨도 考慮해 가면서, 말의 소리의 變化되는 모습을 考察해 왔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注意해둘 일은, 이렇게 變化하여서 된 語形이, 반드시

랑그(langue)로서의 正當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點, 그것이다.

여기에 들어보인 變化 語形은, 通時的으로 完全히 固定되어서 우리 言語의 語彙 體系의 一員으로서 榮光스러운 (?) 자리를 차지한 것도 勿論 있지마는,

(이를테면 아ᄋᆞ>아우, 쇼>소, 니>이, ᄒᆞᄫᆞᅀᅡ>ᄒᆞ오ᅀᅡ>호ᅀᅡ>혼자 等 等)

그 中에는 一時的인 流行語 (?)도 있다.

(이를테면 가치>간치, 집>짓, 그르메>글메, 덥다>더웁다 等 等)

그러므로 여기에 들어보인 語形 變化의 例들 가운데는 來日의 運命을 모르는 薄命한 무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變化이든지, 그것이 一旦 流行되고, 또는 거기에까지 미치지 못하더라도 一旦 그것이 우리의 입에 오르게 된 것일것 같으면, 그것은 正當한 랑그의 王座에 오를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렇게 變化한, 또는 誤用된 語形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原因을 推究하지 않으면 안된다.

붙임. 音聲 象徵

言語 記號의 시니피앙(signifiant)과 시니피에(signifié)와의 關係는 恣意的이다. 곧 어떠한 槪念에 對해서, 어떠한 音이 相應하는 데는, 何等 必然的인 關係가 있는 것이 아니다.[1] 가장 實物에 가깝다고 하는 擬聲語 같은 것도, 各言語에 따라서 各各 다른 音으로 表現되는 것이니, 이는 擬聲語라 할지라도 實物 그대로의 再現이 아님을 實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言語學者는 言語의 모든 記號는 一切 恣意的이라고 主張한다.

그러나 우리가 닭의 울음 소리를 '꼬끼오'라고 表現할 때는, 亦是 이것은 울음 소리 그대로의 再現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뿐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言語 記號란 그 言語를 使用하는 言衆에게 있어서는, 槪念과 音이 不可分離의 關係로 連結되어 있기 때문에, 그 音만 들으면 直覺的으로 그 뜻을 把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記號에 關聯된 快 不快, 好 不好, 美 不美의 感情까지 얽혀져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가 '범'이라고 하면 거의 反射的으로 무서운 感情을 일으키게 되며, '구렁이'란 말만 들으면 징그러운 感情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범'은 /pəm/ 以外의 다른 소리로써는 表現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구렁이'는 亦是 /kuləŋi/ 아니고는 表現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言語를 使用하는 사람들의 共時 意識으로는, 그 言語에서 成立된 시니피앙·시니피에의 關聯은 매우 緊密하여, 任意로 바꿀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으로 모든 言語 記號는 '象徵'이라고 主張하는 學者도 있다.[2]

---

(1) Saussure : Cours, p. 100 以下 (小林英夫譯 : 言語學原論 p. 92 以下).
(2) 言語 表現이 必然的이냐 恣意的이냐에 對한 論爭은, 이미 希臘 時代부터 있어 왔는데——phúsei (by nature) 論과 thései(by convention) 論의 對立——最近에 와서도 이 論爭은 아직 그치지 않는다. 最近의 이러한 面의 論爭에 關해서

그러나 象徵을 이와 같이 極端的으로 解釋하지 않더라도, 言語 記號의 一部는 그 音이 實物과 直接的으로 結合되어 있어서 그 音이 그 實物을 表現하는데 다른 音으로써 하는 것보다 더 適切한 것으로 느껴지는 일이 있음은 亦是 否定하지 못할 事實이다.

이와 같이, 소리와 그 뜻과의 關係가 必然的인 것으로 느껴지는 言語 表現을 「音聲 象徵」(sound symbolism)이라 한다.

우리말에서는 이러한 象徵的인 表現이 다른 言語에서보다 特히 豐富하기 때문에 여기 한 章을 象徵論에 分割하는 바이다.

言語 表現에 있어서 가장 實物에 가까운 것은, 動物이나 自然界의 音響을 그대로 나타내려고 한, 所謂 擬聲語이다.

꼬끼오, 뚤뚤, 짹짹, 땡땡,……

하하, 허허, 아,……

졸졸, 출렁출렁, 팔랑팔랑, 솔솔, 찰싹, 소곤소곤,……

이러한 '소리 흉내말'은, 그대로 또는 다른 소리를 덧붙여서, 그 소리를 내는 物件이나 動物의 名稱으로 쓰이게 되는 일이 있다.

꽹과리, 날라리, 북,……

꼬끼오(닭의 兒童語), 기러기, 개구리, 꾀꼬리, 귀뚜라미, 딱다구리, 매미, 뻐꾸기.……

이러한 表現처럼 그렇게 直接的인 것은 아니나, 동물의 몸짓 또는 自然物의 움직임을 如實히 表現하려고 하는, 所謂 「몸짓 흉내말」(擬態語)이 있다.

는 다음 論文을 參照.

<Benveniste—小林英夫 : 言語記號の 性質>
<Lerch—小林 : 記號の 本質について, 記號か 象徵か>
<Buyssens—小林 : 言語記號の 性質>
以上 三 論文은 모두
<小林英夫 編 : 言語硏究・現代の 問題>
에 收錄되어 있다.

빙긋빙긋, 실룩실룩, 곰실곰실, 구물구물, 달삭달삭, 머뭇머뭇, 헐렁헐렁,

엉큼엉큼, 훨훨, 살살, 삐죽삐죽, 동동, 둥둥, 꼼짝꼼짝,……

擬聲語에서 物件의 名稱이 생겨나듯이 擬態語에서도 名稱이 생겨난다.

깍두기, 누더기, 더더기, 떠버리, 더퍼리, 살사리, 삐쭈기, 얼루기……

소리를 길게 하여 그 程度가 높은 것을 表現하려고 하는 일이 있다.

기:다랗다, 깊숙:하다, 커:다랗다, 벌:써, 멀:다,……

子音을 길게 하여 뜻을 強調하는 일도 있으니, '절매로'를 強調하기 爲해서 /ㄸ/ 소리를 길게 하는 따위이다.

그리고 動作이 느린 것을 表現하기 爲해서, 말을 늘여서 길게 하는 일이 있다.

구물구물 : 구무럭구무럭

에 있어서는 音節을 하나 더 붙여서 動作의 느림이 甚함을 表現하려 한다.

굼적굼적 : 굼지럭굼지럭

고물고물 : 고무락고무락

곰작곰작 : 곰지락곰지락

흔들거리다 : 흔드렁거리다

근들거리다 : 근드렁거리다

이와 비슷한 心理 作用으로, 反覆 繼續되는 動作을 表現하기 爲해서, 같은 말을 되푸리한다.

갉작갉작하다, 긁적긁적하다, 뜯적뜯적하다, 활짝활짝하다, 따짝따짝하다,

간드랑간드랑, 데굴데굴, 덱데굴덱데굴, 흔들흔들, 빙긋빙긋, 빵실빵실,

반짝반짝, 꿈틀꿈틀, 들석들석,……

이와 같은 것은 '時間的인 反覆'이지마는, '空間的인 反覆'의 경우에도 이러한 手法을 使用한다.

곳곳이, 살살이, 집집이, 낱낱이, 몫몫이, 앞앞이, 그릇그릇이,

얽죽얽죽하다, 앍죽앍죽하다,……

色彩의 多樣性, 變異性을 表現하기 爲해서도 亦是 同一한 表現法을 使用한다.

불긋불긋, 아롱아롱, 알롱알롱, 알로록알로록, 거뭇거뭇, 푸릇푸릇

變化感을 더 如實히 表現하기 爲해서, 反復되는 音을 變異한다.

울긋불긋, 아롱다롱, 알락달락

이러한 擬聲語나 擬態語는 우리말에 퍽 豐富하게 發達되어 있어서, 이것이 文學的 表現에 잘 利用된다.

수수께끼에,

"따끔이 속에 빤빤이, 빤빤이 속에 털털이, 털털이 속에 오드득이가 뭐냐?"

하는 말이 있다. 이것은 '밤'을 表現한 것인데, 그 얼마나 象徵語의 능란한 驅使이냐?

우리의 古典 作品에는 이러한 表現法이 잘 利用된다.

"遠山은 疊疊, 泰山은 주춤하야 奇岩은 層層 長松은 落落……狂風에 興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層岩 絕壁上에 瀑布水는 콸콸, 水晶簾 드리운 듯, 이골 물이 주루루룩, 저골 물이 솰솰, 열에 열골 물이 한데 合水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코라지고 펑퍼저 넌출지고 방울저, 저 건너 屛風石으로 으르렁 콸콸 흐르는 물결이 銀玉 같이 흩어지니, 巢父 許由 問答하던 箕山 潁水가 이 아니냐?"——遊山歌에서

흡사 우리는 壯嚴한 景概 속에서 우렁찬 瀑布 소리를 듣는것 같지 아니한가?

쓰르니 서되
밥을 하니 세사발 가웃
먹으니 불룩
나리니 훌쭉
똥을 누니 자배가 가웃이라.

——金素雲 : 朝鮮口傳民謠集 p. 4

봄바람을 등진 초록빛 바다
쏟아질듯 쏟아질듯 위트롭다

잔 주름 치마폭의 두둥실거리는 물결은
오스라질듯 한껏 輕快롭다.

마스트 끝에 붉은 旗ㅅ발이
女人의 머리칼처럼 나부낀다.

이 생생한 風景을 앞세우며 뒤세우며
외―ㄴ 하로 거닐고 싶다.

――우중충한 五月 하늘 아래로
――바닷빛 포기포기에 繡 놓은 언덕으로

――尹東柱：風景

以上에서 말한 象徵語들은, 어떠한 '音의 結合'으로써 表現 效果를 거두려고 한 것이나, 때로는 '單獨 音聲'에 어떠한 獨特한 語感이 具有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다.

이미 희랍 時代의 哲學者들은, 하나 하나의 文字(音)에, 各己 一定한 性質을 模倣하고 或은 表現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依해서 名稱(시니피앙)과 事物(시니피에)과의 一致를 說明하려고 努力하였다. 一例를 들면, 그들은, [r]은 運動의 表現이요, [l]은 부드러운 것, 미끄러운 것을 表現하는 것이라 하고, 이러한 생각 밑에서, 여러 單語의 뜻을 說明하려고 했던 것이다.[3]

이러한 音 自體에 對한 特殊한 感覺은 決코 古代人에 限한 것이 아니다.

(3) Thomsen—泉井久之助：言語學史, p. 18.

現代의 어떤 言語學者도, "M音類에 對해서는 어떤 부드러운 것, 둥근 것을 느끼며, K音類에 對해서는 무슨 단단한 것 모난 것을, L 또는 R 音類에 對해서는 무슨 미끄러운 것, 流動하는 것을 느낀다. 곧 M K L(R)과 이러한 여러가지 感覺과의 사이에는 必然的인 對應이나 連結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였다.(4)

母音의 音色에서 오는 感覺은 詩人 아닌 言語學者에게도 決코 輕視할 것이 못된다.

〔i〕가, 그 얕은 音感에 依해서, 작은 것 가까운 것 따위를 表現하는 데 適切한 것임에 比해서, 〔a〕, 〔u〕 따위가 그 넓고 깊은 音感에 依해서, 큰 것 먼 것 따위를 잘 表現함은, 여러 言語에 그 例가 흔한 바이다.(5)

詩의 押韻은 그 뜻보다 音響感을 어루만지는 것이며, intonation은 우리의 感情과 直結되기 때문에, 各言語에 共通性이 많은 것이다.

우리는 象徵論을 外國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다. 놀라운 우리의 五百年前 語學者들도 이미 이에 敏感했었다.

訓民正音 解例에 "人之有聲 本於五行"이라 하고, 牙舌唇齒喉 五音에 木火土金水 五行을 맞붙였다. 喉音은 水에 맞붙이고, 그 理由를 "(喉音)聲虛而通 如水之虛明而流通也"라 하였다. 喉音 ㅎㅇㆆ 따위는 꼭 물의 性質이 虛明流通하듯이, 虛而通한 性質이 있다는 것이다. 虛而通이라 함은 調音의 面과 청각의 面을 分別 없이 表現한 말일지니, 이것이 象徵論이 아니고 무엇이랴?

다음 牙音(ㆁ, ㄱ, ㅋ, ㄲ)은 그 소리가 "似喉而實"하므로 木에 맞붙이고, 舌音(ㄹ, ㄷ, ㅌ, ㄸ)은, 그 소리의 "轉而颺"함이, 火의 "轉展而揚揚"함과 같다고 하였다. 齒音은 그 소리가 "屑而滯"하여, "屑瑣而鍛成"하는 金과 같다 하고, 唇音은 土의 "含蓄萬物"함과 같다고 하였다. 뿐이랴? "ㄱ木之成質 ㅋ木之盛長 ㄲ木之老壯"이라고도 하였다.

---

(4) 小林英夫 : 言語學方法論攷, p. 90.
(5) Jespersen : Language, p. 402.

木火土金水 各 物質에 各各 獨特한 特質이 있듯이, 여러 音에도 各各 特有한 特色이 있는 것으로 說明하였으니, 이것은 훌륭한 象徵論인 것이다.

그들의 象徵論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中聲의 「·一ㅣ」를 各各 天地人에 맞붙인 事實만 하여도 多分히 象徵論的인 色彩가 있는데, 「·ㅗㅏ」는 天에서 나서 '陽'이요, 「一ㅜㅓ」는 地에서 나서 '陰'이라 한 것은, 單純한 陰陽五行說의 觀念論이라 하여 一笑에 붙일 것이 못된다. 「ㅏㅗ」는 오늘날 우리의 感覺으로도 分明히 '陽性的'이요, 「一ㅓㅜ」는 亦是 '陰性的'인 感覺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陰陽의 區別은 音의 象徵性을 明確하게 把握한 結果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리의 象徵性은 否定하지 못할 事實이나, 그렇다고 해서, 그 限界를 잊어서는 안된다.

〔i〕가 '작은', '가까운' 뜻을 表現하기에 適切하다고 하나, 이것은 絕對로 一般性이 있는 事實은 아니다. 英語의 thin은 果然 '작은' 뜻을 가졌으나, thick는 그 反對이다. 우리말에도 그 反證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길다', '깊다'는 오히려 그 反對 現象이며, '밀다', '밉다', '일' 따위는 무슨 ,작은' 것과 關聯이 있는가?

M音類가 부드럽고 둥글다고? '메마른' 땅이 부드러우며, '모'(方)가 둥근 것인가? '맹수'! 아이고 '무서워'! 'ㅏ, ㅗ'라 다 밝을까? '밤'은 어둡기만 한 것, '곰'은 미련하고, '소'는 遲鈍하고.

絕對 多數의 言語 記號는 亦是 恣意的인 것이다. 그러므로 音聲象徵의 一般論을 세우려 한다면 當場에서 失敗할 것은 明若觀火한 일이다. 그러나 擬聲語 擬態語 따위 象徵的인 言語 記號의 存在는 否定하지 못할 嚴然한 것이며, 또 하나 하나의 音聲에도 어느 範圍 안에 있어서는, 亦是 象徵的인 色彩가 아주 濃厚한 것이 많음도 否定하지 못할 事實이다. 그러므로 一定한 限界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各個 音聲의 象徵性에 對해서 꽤 整然한 體系를 세우기란 그리 어려운 問題가 아니다.

特히 우리말에 있어서는, 子音이나 母音에, 다른 나라 말에서는 보기 어려운 象徵的인 體系가 形成되어 있다.

音韻의 交替, 變異는 말의 뜻을 分化하는 것이었는데, 어떠한 母音의 變異가 根本的인 意義를 바꾸지 않고, 다만 그 語感만을 다르게 하는 일이 우리말에는 흔히 있다. 이것을 「母音 相對 法則」이라 한다.(6)

/ㅏ/ : /ㅓ/

가뭇가뭇—거뭇거뭇, 까맣다—꺼멓다, 가짓말—거짓말, 간간하다—건건하다, 감실감실—검실검실, 나불나불—너불너불, 낙낙하다—넉넉하다, 다닥다닥—더덕더덕, 다박머리—더벅머리, 바짝—버쩍, 빨갛다—뻘겋다, 방글방글—벙글벙글, 싸느랗다—써느렇다, 산들산들—선들선들, 팔팔—펄펄, 파랗다—퍼렇다,……

/ㅐ/ : /ㅔ/

깨죽거리다—께죽거리다, 깩깩—껙껙, 대구르르—데구르르, 대굴대굴—데굴데굴, 때각거리다—떼각거리다, 댕그랑—뎅그랑, 애고—에구.

/ㅑ/ : /ㅕ/

야리다—여리다, 야무지다—여무지다, 야위다—여위다, 얇다—엷다, 얌치—염치, 얕다—옅다.

/ㅘ/ : /ㅝ/

꽐꽐—꿜꿜, 꽝꽝—꿩꿩, 솰솰—쉴쉴, 좔좔—줠줠, 콸콸—퀄퀄, 쾅쾅—퀑퀑, 환하다—훤하다, 활짝—훨쩍, 활활—훨훨

/ㅙ/ : /ㅞ/

꽥—꿱, 왱왱—웽웽, 왱그랑—웽그랑, 횅하다—휑하다, 횅댕그렁—휑뎅그렁.

/ㅗ/ : /ㅜ/

(6) 이에 관한 詳細한 記述은, 다음 論文을 參照.
鄭寅承 : 語感 表現上 朝鮮語의 特徵인 母音 相對 法則과 子音 加勢 法則 (한글 第六卷 第九號)

꼬물꼬물—꾸물꾸물, 꼬불꼬불—꾸불꾸불, 꼴딱—꿀떡, 꼼실꼼실—꿈실꿈실, 노랗다—누렇다, 동그랗다—둥그렇다, 똥똥하다—뚱뚱하다, 동실동실—둥실둥실, 몰랑몰랑—물렁물렁, 보글보글—부글부글, 보얗다—부옇다, 소곤소곤—수군수군, 솔솔—술술, 졸졸—줄줄, 오목하다—우묵하다, 통통하다—퉁퉁하다, 포삭포삭—푸석푸석

注意 「몰랑 : 물렁, 보얗다 : 부옇다」 따위는 /ㅗ/ : /ㅜ/의 對立과 /ㅏ/ : /ㅓ/의 對立이 겹쳐져 있는 點 留意해둘 일이다. 이러한 現象은 여기에 限한 일이 아니다.

/ㅚ/ : /ㅟ/

되롱되롱—뒤룽뒤룽, 쾨쾨하다—퀴퀴하다, 회초리—휘초리, 회회감다—휘휘감다.

/ㅛ/ : /ㅠ/

뾰주룩—쀼주룩, 뾰죽이—쀼죽이

/ㅏ/ : /ㅡ/

가득하다—그득하다, 깔깔하다—끌끌하다, 갉작거리다—긁적거리다, 따끔거리다—뜨끔거리다, 다문다문—드문드문, 살갑다—슬겁다, 살그머니—슬그머니, 살며시—슬며시, 살살—슬슬, 하늘하늘—흐늘흐늘

/ㅐ/ : /ㅢ/

해끄무레—희끄무레, 해끔하다—희끔하다, 해뜩해뜩—희뜩희뜩, 해말갛다—희멀겋다.

/ㅏ/ : /ㅣ/

자글자글—지글지글, 짜푸리다—찌푸리다, 잘잘—질질, 짱그리다—찡그리다.

/ㅑ/ : /ㅣ/

갸름하다—기름하다, 갸우뚱하다—기우뚱하다, 갸웃갸웃—기웃기웃, 야들야들—이들이들, 뺘드득—삐드득

/ㅐ/ : /ㅣ/

깨끗하다—끼끗하다, 매끄럽다—미끄럽다, 매끈하다—미끈하다, 매지근하다—미지근하다, 배배꼬다—비비꼬다, 새빨갛다—시뻘겋다, 새카맣다—시커멓다, 생글생글—싱글싱글, 뱅뱅—빙빙, 팽팽—핑핑

以上의 母音 對立을 一覽하면:

ㅏ	ㅐ	ㅑ	ㅘ	ㅙ	ㅗ	ㅚ	ㅛ	ㅏ	ㅐ	ㅏ	ㅑ	ㅐ
:	:	:	:	:	:	:	:	:	:	:	:	:
ㅓ	ㅔ	ㅕ	ㅝ	ㅞ	ㅜ	ㅟ	ㅠ	ㅡ	ㅢ	ㅣ	ㅣ	ㅣ

로 對立되어 있는데, 위의 序列은 모두 陽性 母音이요, 아래 序列은 모두 陰性 母音이다.

注意 ㅐ, ㅚ 따위는 現代語에서는 陰性 母音에 屬하나, 李朝 初期에 있어서는 이것들은 重母音으로서 陽性 母音에 屬하였던 것이다.

그 語感의 差는, 陰性系가 '暗, 重, 大, 鈍, 厚, 遲……'인데 對하여, 陽性系는 '明, 輕, 小, 銳, 薄, 速……'인 點이 各對立에 共通的이라 할만 하다. 그러므로 陰性系를 「普通말」이라 하는 데 대해서, 陽性系는 그에 對한 「얄잡음말」이라 흔히 불리운다.

「이것—요것, 그것—고것, 저것—조것」

도 亦是 꼭 같은 語感의 差를 表現한다.

이러한 語感의 差異는 母音으로만 表現되는 것이 아니라, 子音의 경우에도 있다. 軟音의 /ㄱ, ㄷ, ㅂ, ㅈ, ㅅ/ 따위에 對해서 된소리 /ㄲ, ㄸ, ㅃ, ㅉ, ㅆ/이나, 거센소리 /ㅋ, ㅌ, ㅍ, ㅊ/ 따위는 센(强한) 語感을 表現하게 되나니, 이러한 現象을 「子音 加勢 法則」이라 한다.

/ㄱ/:/ㄲ/:/ㅋ/

가맣다—까맣다, 가물가물—까물까물, 검다—껌다, 깜깜하다—캄캄하다, 꽝꽝—쾅쾅, 고들고들—꼬들꼬들, 구물구물—꾸물꾸물, 굼실굼실—꿈실꿈실, 구불구불—꾸불꾸불, 달곰하다—달콤하다, 달금하다—달큼하다, 달각달각—달깍달깍—달칵달칵, 새금하다—새큼하다, 웅그리다—웅크리다, 할금할금—할끔할끔,……

/ㄷ/ : /ㄸ/ : /ㅌ/

당당—땅땅—탕탕, 댕댕—땡땡—탱탱, 덩덩—떵떵—텅텅, 달각거리다—딸각거리다, 덥석—텁석, 덱데굴—떽데굴, 들석들석—뜰석뜰석, ……

/ㅂ/ : /ㅃ/ : ㅍ/

반드르르—빤드르르, 반작거리다—빤짝거리다, 벙긋벙긋—뻥긋뻥긋, 빙글빙글—삥글삥글, 벌렁벌렁—펄렁펄렁, 벌떡—펄떡, 보얗다—뽀얗다, 불긋불긋—뿔긋뿔긋, 빙빙돌다—삥삥돌다—핑핑돌다, 나불나불—나풀나풀.

/ㅅ/ : /ㅆ/

사느랗다—싸느랗다, 싱글싱글—씽글씽글, 수군수군—쑤군쑤군—숙덕숙덕—쑥떡쑥떡, 와삭와삭—와싹와싹

/ㅈ/ : ㅉ/ㅊ/

잘록잘록—짤록짤록, 졸졸—쫄쫄, 질금거리다—찔끔거리다, 절벅절벅—철벅철벅.

/ㄹ/ : /ㄹㄹ/

아른아른—알른알른, 아롱아롱—알롱알롱, 어룽어룽—얼룽얼룽.

이러한 된소리 거센소리의 말을 「센말」이라 한다.

이러한 소리의 交替는, 낱말의 '智的 意義'를 分化하지는 않고, 오직 그 感情的 色彩를 表現하는 데 利用되어 있다. 이러한 硏究 分野가, Trubetzkoy의 이른 phonostylistique이다. (pp. 111—2 참조)

<索 引>

[ㄱ]

가락지 여린뼈 17
假想的 基本形態 391
價値 75
各自 並書 283,284,316, 317,333,336
間隔 同化 259
間際 27, 39, 43,44,45, 90, 91, 92,96,97, 99, 103, 104,287, 337,338,375,419, 424
間際 度數 91
間際 同化 384,457
間際의 資質 195
間音 261
間接 同化 259, 463
間接的 對立 89
갈이-소리 24,26,32,33, 34,36,96
甲狀軟骨 17
强母音 274
强弱 109,110,111,120, 121,229,233,234
强弱 言語 121,230
强勢 125,230
强化 507,511
開口度 86,315
開母音 28,86
開放 22,101
開放 連接 109,225,226
個別的 變動 243, 252, 474
個別的 變化 473,474
開音節 212,385
客觀的 方法 124
客體尊待 464,469
去聲 284,399,402,404, 405,406,455
거센소리 340,536
結合 關係 195,207
結合 變異音 140, 142, 143,144,151,351
結合的 變異 351
겹친 音素 122
硬口蓋 29
硬口蓋音 31,38,356
硬口蓋音化 38,163,171, 356
硬口蓋音化한 소리 38
硬口蓋音化한 子音 38
慶尙道 方言 117
慶尙道 方言의 聲調 404
硬音 23,32,33, 35, 84, 340,365,380,451, 452
階段 對立 80,199
系列 81,85,86, 87, 90, 91,92,206,376
高高調 405
孤立 對立 76,79,197
高母音 91
高母音 序列 92
固有한 辨別的 資質 122
固有한 資質 125
古音價의 推定 286
高低 109,111,120,230, 400
高低 段階 118,119
高低의 水平 112, 113, 229
固定部 30, 31, 39, 40, 60,94
高調 404,405
高中 母音 91
高中調 405
곡대기 100
골짜기 100
空洞 마찰 19,35,183
共通 資質 77,78
過渡 23, 45, 135, 295, 347,348
過渡音 44,45,348
冠形詞形 339
冠形詞形 語尾 295,335, 394
校正音 296,297
交替可能한 音聲 131
交替될수 없는 音聲 49
交替될수 있는 音聲 49
交替 不可能한 音聲 131,140
口腔의 最狹部 70
口蓋音化 38, 84, 252, 261,277,354,417, 440,445,457,467, 490
口蓋音化한 혀옆-소리 ㄹ 35
句末 高低 112,227,228, 413
口張 308,372, 374, 457
口張의 相關 373
構造 75,127,449
構造的 壓力 118
句中 高低 229
口蹙 308,372,373,374, 457
口蹙의 相關 373
국어 모음 표기 45
國際 音聲符號 14
國際 音聲學會 14
屈曲調 118,119
屈曲調를 가진 水平組織 言語 119,406
屈曲 組織 118

屈曲 토님　117
권설-소리(音)　31, 34, 307,355, 356
卷舌(音)化　38, 43
卷舌音化한 소리　38
歸着　243,382
氣　23,32,33,86,88,168
機能　50,61,127
機能 負擔量　89
基本母音　40
基本字　283
基本 形態　237,239,277, 389,391,504
寄生音　354
記述的 順位　249, 257, 274
記憶上의 關係　74
記憶的 關係　98
氣音　34, 84, 368, 386, 388,451
氣의 相關　87,206,372, 373
緊密 連接　109,225,226
긴소리　113
緊張　104
緊張度　44
緊張 母音　44,360,370, 377,380,452
緊張 半母音　452
緊張 重母音　377
길이　113,232,234

[ㄴ]

날숨 목소리　16
날숨 부아소리　16
날숨 소리　16
날숨 입안소리　16,17
內破音　22, 23, 32, 33, 36,84,101,102, 154, 155, 209, 326, 331, 424, 465,466
努力 經濟　462
높이　117
能動部　30, 31, 39, 40, 42, 43, 60, 90, 94

[ㄷ]

多面 對立　76,77,79,80, 196
單系列 組織　91
短母音　116
單母音　40, 43, 44,107, 316, 344, 347, 360, 369, 371, 374,380,436
單母音化　417,433,437, 438,459,502, 503
單子音　379
單純 音素的 對立　63
單純 子音　361,370
短音　455
單音 文字　107
單音素的 價値　160,168
單音의 도막　60
닿소리 이어바뀜　247
對立　69
對立 關係　73,74,76,98, 195,371
對立的　49
對立的 關係　416
對語　74
大音素　64,65
代音作用　339
代置目錄　120
代置項　120
떨음-소리　25,26,34,36
獨占的 關係　76,85,141 156
同系的 變異形態　240, 382
同時 調音　37
同音 牽引　523
同音 省略　481,482,490 506
同質的 多面對立　78
同出 合用　284
同化　384,462,492,511
同化 作用　419,421,456 494
된소리　18, 19, 23,169, 335, 336, 338, 340, 341, 365, 367,394,423 424,429,536
된소리化　425,453
두들김-소리　26,34
두입술-소리　31,32
뒤-여린-입천장　36
뒤-혓바닥　29
들숨 목소리　16,17
들숨 부아소리　16
들숨소리　16
들숨 입안소리　16,17
들음이　491
等値 對立　80,81,200
띄어쓰기　277

[ㄹ]

ㄹ變格 用言　386
랑그　72,526
렌뜨겐　124

[ㅁ]

摩擦音 24,96,293,301, 327
막음 26
말소리 13
말할이 491
名詞形 501
名詞形 語尾 309
母音 27,39,70,100,360 369,371
母音 交替 44.
母音 四角圖 42,360
母音 相對 法則 534
母音의 辨別的 資質 90,373
母音의 相關 94
母音의 序列 91
母音의 長短 233
母音點 103,204
母音 助詞 388,392
母音 組織 90,457
母音 調和 274,275,311, 347,348,394, 418,447
母音 衝突 498
목소리 15,16
目的格 助詞 503,504
목젖 갈이-소리 41
목청 17
목청-소리 31,36
목청-터짐-소리 18
몸짓 흉내말 528
無氣 79
無聲 32,33,34, 35, 36, 47,79
無聲 母音 27,169
無聲性 68
無聲音 19,20,48,99
無聲의 休息 295, 335, 339, 367, 393, 394
無標 系列 87,202
無標項 80,372
無形의 變異形態 390
文法的 單位 125
文法的 意義 112, 113, 227, 233
民間 語源 521

[ㅂ]

ㅂ系 合用並書 320,426
ㅂ變格 用言 289
ㅄ系 428
빠롤 72
바른 回歸 509
半開母音 28,86
反對語 518
半母音 45,107,292,362 363, 369, 371, 377,486,488
半母音化 362
半舌 282
半舌輕音 358,364
半舌音 364
半舌重音 358,364
半齒 282
半閉母音 28,86
發動部 15
發聲部 15,17
發音方法의 資質 192
發音部 15,21,28,94,96
發音의 意圖 56
旁點 284,398,399
旁點法 455,477
방패 여린뼈 17
配置 48,56,59,71
排他性 59,71
排他的 關係 76,82,84, 85,141,156
排他的 配置 140
버금 基本母音 41,42
버금 調音 37
變格 活用 271
變動 242,289,309,310, 348,351,354,362, 366,382,390,403, 415,501,506
辨別 位置 81,83,84
辨別的 49,61,67
辨別的 關係 48
辨別的 機能 71,81,83, 85,105,113,117, 230,352,398
辨別的 音聲資質 67
辨別的 音素的 單位 62
辨別的 資質 67,68,69, 70,71,77,82,84,85, 87,90,91,92,94,96, 105, 110, 115, 120, 121, 122, 124, 125, 126, 155, 169, 191, 205, 230, 231, 233, 234, 275, 374, 375, 376, 438, 448
變音字 285,317,358
變異音 51,71,83,89,97 116, 140, 239, 316, 340, 343, 352, 354, 355, 356, 358, 361, 364, 367, 390, 489
變異音의 이웃돕기 126,165, 170,390
變異 크론 116
變異形態 236,239,311, 469
變異形態의 이웃돕기 390
變遷 310,415,416,449
變化 310,348,351,354,

403,415,461
並書　283,284,316,317,331,424
普遍的 變動　243, 252, 473
普遍的 變化　473,474
複式 相補配置　83,158
複音素的 價値　160
複合 音素　368,379
複合 音素的 對立　63
複合 子音　368,378,379 417
複合 子音音素　423,424
複合 終聲　383
副變異音　149,236
部分同化　259,260,463
副詞形　487
副詞形 語尾　386,501
부아소리　15,16
否定的 資質　78,79
不正回歸　509,511
分節 音素　122
分布　48
不具 形態素　279
不變 對立　81,200
不完全 同化　260
不淸不濁　298,301,401, 452
鼻腔 開放　24
鼻腔 閉鎖　354
比較의 土臺　77,78
非基本 形態　237,242
比例 對立　76,79,80,86, 97,197,372
非辨別的　49,67
非辨別的 關係　48
非辨別的 資質　67,109, 170,374,448
非鼻性　76
非成節 母音　101
非成節音　100,101.104, 105,106,107, 362,369
非成節的 母音　107
鼻音　25,107
鼻音化　43,50
非入聲 終聲　330
빈간　97,98,161
빈자리　98

[ㅅ]

ㅅ系 並書　331,332,333, 340,341,424
ㅅ系 子音群　453
ㅅ系 合用並書　323
ㅅ終聲　327,445,453
四角 組織　92
四系列 組織　92,204
四系列 相關束　88
四序列　91
四序列 組織　91
四聲　107,118,400,402
四聲點　284,399,448
사이소리　313
사잇글자　393
사잇소리　295,335,392
四項的 相關束　88
插入母音　346
三角組織　92
三系列 相關束　88,202
三系列 組織　92
三序列　91
三序(列)四系(列)四角組織 204
三序列 組職　91,204
三重母音　360,370,371, 377,380,388,417, 437,438,439,458
三次元 組織　93
三項的 相關束　88
相關　85,86,87, 94, 97. 201,372
相關雙　86, 87, 94, 97. 98,201
相關束　84, 85, 88,206, 372,373,376
相關 標識　86,87,88,94, 201
相補性　59
相補的　83,363
相補的 配置　48,50,140 364
雙書　331,332,333,334, 335,336,338,339, 340,341,366,394, 424,452
雙書 濁音論　340
上聲　284,399,402,404, 405,406,455
上昇 句末高低　228
上昇的 二重母音　130, 377,437,438, 459
上昇的 重母音　204,205 437
上昇調　120
象徵　527
象徵論　528,532,533
象徵語　530,531
相通　513
上平　401
省略　347,386,462,477, 478,490,492,511
生理 音聲學　14
서로 排他的인 分布　48
序列　86,87,90, 91, 96, 97,155, 206, 352, 376,395,493
序列的 類　64
線條　75
線條上의 關係　75

旋回鏡　124
舌　304
舌輕音　283
舌根　29
舌端　29
舌端開放　354
舌端 內破音　326,354
舌端音　378,382
舌音　282
舌尖　30
舌側 開放　24
舌側音　25
聲　17,19,47,88,306
聲帶　17
聲帶 聲門　17
聲帶 振動　47
聲帶 破裂音　18,20
聲母　107
聲門　17,18
聲門音　31
聲의 相關　97
成節 强勢　104,105
成節音　100, 101, 103, 104, 105, 106, 107, 204, 486
成節 子音　101
聲調　117,120,406,418, 448,454,455
聲調 言語　117,119,231 406,413
聲調型　406
세기　120
센말　537
센-입천장　29
센-입천장-소리　31,34, 38
소곤소곤　20
消極的 資質　79
쏘노리티　98,99,100
소리　13
소리의 變異　58
소리 흉내말　528
所有格 助詞　348
小音素　64
隨意 變異　131
水平 句末高低　228
水平調　118,119
水平調를 가진 屈曲組織 言語　119
水平組織　117,118,119, 231
水平 토님　117,118
瞬間音　26,96,206
脣硬口蓋音化　171
脣輕音　283
脣軟口蓋音化　38, 163, 169
脣軟口蓋音化한 소리　39
脣音　38,282
脣音化　38,84
脣音化한 소리　38
脣齒音　31
順行 同化　259,462,463
슈音　69
시니피앙　415,527,531
시니피에　527,531
時相 補助語幹　475
失音字　285,286,358
實在論者　66
實驗 音聲學　124
心理 音聲學　53
心理的 對等　52,53,55

[ㅇ]

牙音　282
押韻　532
앞-혓바닥　29
액슨트　484
弱母音　274
兩端項　81,200
兩面 對立　76,77,79,80, 82,84,86,97, 196,372
兩分 對立說　69
陽性母音　274,395,493
兩唇性　76
兩唇音　31,288,293
兩者 擇一의 물음　228
陽平　401
얕잡음 말　536
語頭 子音群　455
語末音 添加　500
語源 俗解　482
語節　226,277
語中音 添加　500
語彙的 對立　112, 113, 115, 233
語彙的 意義　112,233
抑揚　98,226,413
言語 記號　515,527
言語 音聲　52,53
言語 意識　55
言語 形式　395
여린-입천장　29
여린-입천장-소리　31,35, 38
逆行 同化　259,462.465
連結 關係　74,416
軟骨 聲門　17
軟口蓋　29
軟口蓋音　31,38
軟口蓋音化　38
軟口蓋音化한 소리　38
連書　283,284
軟音　23,77,84,340,361 367,378,379,388, 451,452,536
連接　61,108,109,225
聯合 關係　73,74,76, 416
五序列　91

오씰로그래프　124
五音　298,452
緩弛 母音　44,370
完全 同化　259,260,309, 463,476
外破　154
外破音　22,101,102,155 209,465,466
우믈라우트　252, 253, 468
韻頭　107
韻母　107
韻尾　107
韻腹　107
韻素　121,122,146,147, 151,225,280,390, 406,416,418
韻素論　121,122
韻素의 變動　242
韻素 組織　455
韻律 音素　122
韻律的 辨別的 資質　122
韻律的 資質　109, 110, 111, 112, 114, 121, 122, 125, 233
울대-마개　20,306
웃잇몸　29
圓唇　71
圓唇 母音　39,40,42
圓唇 系列　92
圓唇 相關　94
圓唇性의 相關　202,376
圓唇 前舌母音　40
圓唇 後舌母音　41
原音素　82, 83, 84,85, 155,157,398
原音素의 實現　82, 83, 84, 85, 155
원형　277
윌 가락　226
位置　90,91,92,95
位置의 資質　191,194
類　91
琉球語　325
有氣音　23,36,340
有無 對立　80, 86, 199, 372,373
有無的　97
類似語　74
有聲　32, 33, 34,35,36, 47
有聲音　19,20,99,339
有聲化　421
流音　26,70,107
癒着　520
類推　501,515
有標 系列　87
有標項　372
六序列　91
輪狀 軟骨　17
으뜸 基本母音　40
으뜸 調音　37
音聲　46, 47, 51,59,99, 116
陰性系　536
音聲 器官　14,29
陰性 母音　274,395
音聲 符號　14
音聲 象徵　527,528,533
音聲的 變異形態　240
音聲的 音節　105
音聲的 資質　47,49,50, 66,80,86,87,120, 125,126,191
音聲的 諸資質　128
音聲學　14, 47, 48,123, 124,126,127,128
音素　46, 51, 52,56,57, 59, 61, 62,63,64, 65, 66, 68,71,73, 75,84,89,116,121 122,147,225,416
音素 觀念　489,490
音素論　121,122
音素의 價値　127
音素의 對立　76
音素의 變動　242
音素의 組織體　73
音素的 關係　64
音素的 單位　62,63
音素的 對立　61,62,112
音素的 音節　105,106
音素 組織　88
音素 組織의 均衡　332
音素 體系　73,75,339
音譯　323,324,333,349
音韻　122,124,126,127, 416
音韻의 變動　242
音韻的 對立　112
音韻學　47,110,111,122 123, 124, 125, 126
音的 對立　61,111
音長　280,418,448
音長 言語　115
音節　98, 99, 103, 106, 119
音節 文字　107
音節의 境界　101, 114, 208
音節核　106, 107, 108, 117, 157, 207, 352, 369, 370, 379
音節型　103,105,106
音調　399,400
音質　99
陰平　401
音響 스펙트로그래프　124

音響 音聲學 14
凝 334
意味部 395,479,501
擬聲語 274, 275, 301, 524, 528, 529, 530, 533
의심스런 짝 173
의심없는 짝 173
擬態語 274, 275, 528, 529, 530, 533
二系列 組織 92
理論的 基本形態 391
二類 組織 92
二序列 91
二序列 組織 91
二聲 401
이-입술-소리 31,32
二重 同化 259,462,468
二重母音 204,351,360, 369,371,377, 380,459
二重母音化 437,439
二重 目的格形 503
二重子音 268,337
二重的 差異 174
二重調音 37
異質的 多面對立 78
二次元 組織 93
異化 269,492,511
人工口蓋 124
咽頭壁 29
인두-소리 31,36
咽頭音化 39
隣接 同化 259
인후-소리 31
一聲 401
一類 組織 91
一次元 組織 91,93
任意 變動 300,347
任意 變異 131
任意 變異音 132, 136, 148,149
任意的 變動 243, 385, 386, 388,506
任意的 變異 363
任意的 變異音 352
入聲 296,297,399
入聲 終聲 329,330
입술 39
입술-소리 31,38
입안-소리 15,16
잇몸-소리 33
잇사이-소리 31,33,95
잇소리 31,33
剩餘的 資質 92,96,110 126, 170,189, 230,233, 234, 376

[ㅈ]

字 344
子音 26,30,36,70,100, 359,361,370
子音 加勢 法則 536
子音 結合 323
子音群 417
子音의 辨別的 資質 377
子音의 組織 94
子音的 77
子音接變 247,268,277, 384
恣意的 527,533
짝없는 音素 87
짝있는 音素 87,202
잘못 分析 519
長短 111,454,455
長短의 韻素 265
長母音 114,116
障碍 26
障碍音 26, 95, 96, 97, 154,378
長音 455
長子音 114
再出字 283
低母音 91
低母音 序列 92
低調 404,405
低中 母音 91
低中調 405
展望的 方法 414
前舌 29,39
前舌 系列 92
前舌 母音 39,40,81,86, 90
轉位 512
顫音 25
全淸 282,367,401,452
全濁 297,332,337,338, 339,365,401,452
切斷 520
絕音 現象 295
接頭辭 328
漸强音 102,103,114
漸弱音 102, 103, 114, 209,210,331
停止 77
停止音 22,96
整齒 307,355,356
第二次 基本母音 41
第二次 調音 37
第一次 基本母音 40
第一次 調音 37
濟州島 方言 314
調聲母音 388,392,503, 520
調音部 28,29,30,39,94
組織外的 音素 160,367
終聲 154,303,317,326. 327,331,335,342, 343,362,379,381, 418,445
主格 助詞 345,389,403,

438, 502
主格形 389, 438, 503
主觀的 方法 124
主變異音 149, 150, 236, 239, 352, 353, 443
準同音語 49, 89, 115, 119, 173, 174, 337, 353, 364, 366
準準同音語 174
中間項 81, 200
中高調 405
中國語 聲調 402
中立 地帶 457, 458
重母音 44, 46, 107, 204, 316, 344, 347, 348, 349, 377, 380, 382, 433, 486, 503
中母音 91
重複 母音 114, 118
重複音 113, 115
重複 子音 114
中舌 母音 40
中聲 207, 282, 283, 284, 317, 369, 379, 380
中性 母音 395
中聲 並書 283
중얼거림 20
重音 省略 348
重子音 486
中調 404, 405
中和 84, 85, 206, 372, 375, 397, 418, 456
中和 對立 81, 82, 83, 155 157, 200
中和 位置 81, 83, 84, 85, 155, 207
中和 作用 82, 84, 155
持續音 22, 26, 96
知的 意義 61, 111
指定詞 345, 389, 403, 438
直接 同化 259, 462
振幅 109, 120

[ㅊ]

次末 音節 113
次淸 401, 452
處所格 助詞 346, 348, 388, 501
綴字式 發音 250
添加 267, 346, 391, 392, 495, 511
청취 音聲學 14
淸濁 282, 298, 452
淸平 401
初聲 154, 282, 283, 294, 317, 342, 361, 362, 364, 379
初聲 並書 283
總體的 音響資質 67
總體的 資質 127
最少 對立語 49, 89
最少的 差異 173
最少差異 49
最少差異 對立語 49
縮約 260, 384, 403, 462 476, 479, 492, 511
齒間音 31
齒頭 307, 355, 356
齒裏音 356
齒音 282, 298, 301, 352, 355
齒槽音 29, 31, 356
侵透 轉位 512

[ㅋ]

카이모그래프 124
코소리 25, 26, 32, 33, 34 36, 96
코울림 90
코울림 相關 94
크로님 116, 117, 233
크론 116, 117

[ㅌ]

他系的 變異形態 240
濁聲 367
濁平 401
彈舌音 26
脫落 346, 386, 391, 419, 490
터짐-소리 21, 22, 26, 32, 33, 34, 96
테두리 120
토님 117, 120, 231, 406
토박이 55
톤 117
通口性 76
統辭的 對立 112, 113, 226, 233
通時 音韻學 416
통일안 333
統合 關係 74, 75, 98, 195 416
特定 共時的 75
틀-마추기 165, 208, 342

[ㅍ]

破裂音 22
破擦音 23, 34, 35
八母音 組織 458

八終聲 327, 331, 381, 382
平聲 284, 399, 401, 402, 404, 405, 406, 455
平脣 71
平脣 系列 92
平脣 母音 39, 40
平脣音 42, 316
平安道 方言 354
閉母音 28, 86
閉鎖 22, 101
閉音節 212
포르만트 70
表音的 表記法 327, 331
標識 80, 86, 87, 373
表現的 資質 125, 126
披裂 軟骨 17
必然的 變動 243

[ㅎ]

下降 句末高低 227
下降的 二重母音 130, 377, 388, 417, 438, 459
下降的 重母音 205
下降調 118, 120
下平 401
合成語 290, 299, 300, 321, 388, 473, 485
合用 並書 283, 284, 316, 317, 319, 320 323, 345
鄕歌 414
響音 26, 96, 106, 107, 379, 380
헤침-여린삐 17
혀끝 29
혀끝-소리 95
혀뿌리 29
혀옆-소리 25, 26, 34, 35
혀의 最高點 41, 42, 90
形狀的 資質 125, 126
形式論者 66
形態 236
形態(論)的으로 說明되는 變異形態 241
形態部 395, 396, 447, 479, 501, 502
形態素 114, 234, 236, 289, 299, 366, 382, 385, 395, 396
形態音素 242, 311, 395
形態音素(韻)論 242
形態的 變異形態 240, 241
呼氣音 16
互相 同化 259, 462, 476, 486, 490
混態 525
混合語 249
回顧的 方法 414
會厭 20
會厭軟骨 306
喉頭蓋 20
喉頭鏡 124
喉頭 曲線 102, 114
喉頭 緊張 49, 88, 114, 159, 169, 451
喉頭 緊張의 相關 201, 206, 372, 373
喉頭 筋肉의 緊縮 47
喉頭音化 39
喉頭 閉鎖 335, 367
喉頭 閉鎖音 295, 296, 298
後舌 29, 39
後舌 系列 92
後舌 母音 39, 40, 86, 90, 92
後舌音 378
後軟口蓋 摩擦音 41
喉音 282
休息 98, 154, 243, 246
흐름-소리 26, 96
吸氣音 16

<INDEX>

acute 71, 307
acoustic phonetics 14
addition 495
affricate 23
agglutination(f.) 520
allochrone 116
allomorph 236
allophone 51, 116, 140, 313
alveolar 31
analogy 515
antonym 74, 518
aperture(f.) 57, 90
apical 31
archiphonème(f.) 82
articulator 30
artificial palate 124
arytenoid cartilage 17
aspirate 23
aspiration 23, 168
aspirée(f.) 84
assimilation 462
assimilation double(f.) 462
Association phonétique internationale(f.) 14
associative auxiliaire(f.) 126
attraction homonymique(f.) 523
auditory phonetics 14
auxiliär-soziative(D.) 126

back vowel 39
base de comparaison(f.) 77
basic allomorph 237
bilabial 31
binary opposition 69
blending 525
breath group 98, 277
bryante(f.) 25

cardinal vowel 40
carrying power 99
cartilage glottis 17
case vide(f.) 98, 160
catastase(f.) 22
cavity friction 19, 24, 35, 183
central vowel 40
centre de syllabe(f.) 107
checked 71
chest pulse 105
chord glottis 17
chrone 116
— language 115
chroneme 116, 121, 122, 146, 233, 418
chuintement(f.) 69
classe(f.) 91
close juncture 109
— vowel 28
coarticulation 37
compact 70
complementary distribution 48, 140
complementation 83
configurational feature 125
configurative feature 125
consonant 26
— cluster 243, 368
consonantal 70
consonantic 77
consonnes doubles(f.) 114
— géminées(f.) 114
— longues(f.) 114
contact 22
contiguous assimilation 463
continuant 26, 70
contour-tone longuage with register system 119
contraction 476
contrastive 49
corrélation(f.) 86
cricoid cartilage 17

déglutination(f.) 520
degrés d'aperture(f.) 91
dental 31
descriptive order 249
diachronic phonemics 416
diaphone 351
diffuse 70
diphthong 130
discontinuous 70
dissimilation 492
distant assimilation 463
distinctive 49, 67
distinctive feature 115, 121
double articulation 37
— consonant 337
douce(f.) 84
duple distinction 174
duration 113
durative(f.) 26

emphatics 125
epenthesis 500

epiglottis 20
epithesis 500
experimental phonetics 124
explosif(f.) 101, 154
explosion 22
explosive 22, 466
expressive feature 125
extrasystematic phoneme 160

faisceau à quatre séries(f.) 88
— à quatre termes(f.) 88
— à trois séries(f.) 88
— à trois termes(f.) 88
— de corrélation(f.) 88
falling diphthong 130
false regression 509
faucal 31
fausse régression 509
fermeture(f.) 101
flapped 26
flat 71
folk etymology 521
fonction(f.) 61
formaliste(f.) 66
formant 70
forte(f.) 84
fortis 23
free fluctuation 131
— variation 131
fricative 24
frictionless 24
front vowel 39
functional load 89

gemination 113
gingival 34
glide 23, 45, 135
gliding pitch contour system 118
— sound 44, 346
— toneme 117
glottal 31
— explosive 18
gllottalic 15
glottis 17
grammatical meaning 112, 233
grave 71, 307
gross acoustic feature 67

half-close vowel 28
—-open vowel 28
— voice 20
hearer 491
hiatus 482
hold 22
hole in the pattern 98
hybrid 249

idiolect 152
idiosynchronique(f.) 75
implosion 22
implosive 22, 466
implosif(f.) 101
inherent distinctive feature 122
initiator 15
inner closure 15
intention phonique(f.) 56
interdental 31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14
International phonetic association 14
interrupted 70
intonation 98, 112, 226, 413, 532
— group 98
I.P.A. 14

juncture 61, 109

kymograph 124

labial 31
labialization 38
labialized sound 38
labiodental 31
labiovelarization 38
labiovelarized sound 39
langue(f.) 72, 111, 112, 526
laryngalization 39
laryngoscope 124
lateral 25
— release 24
lax 70, 337
— vowel 44, 430
length 113
lenis 23
level-pitch register system 117
level toneme 117
lexical meaning 112, 233
linguistic form 395
liquid 26, 70
local friction 24, 27
localisation(f.) 90
loose 337

macro-phoneme 64
marge de sécurité(f.) 458
marque(f.) 80, 86

marque de corrélation 86
mediovelar 31, 148
mediopalatal 31
mellow 71
metanalysis 519
métastase(f.) 22
metathesis 512
micro-phoneme 64
minimal distinction 49, 173
— pair 49, 89
momentanée(f.) 26
morph 236
morpheme 114, 234, 395
morphème(f.) 479
morphemically conditioned (allomorph) 241
morphologically conditioned allomorph 241
— defined allomorph 241
morphophoneme 242
morphophonemics 242
multiple complementation 83, 158

narrow 337
nasal 25, 70
— release 24
nasalization 43
nasalized 70
native speaker 55
neutralisation(f.) 82
non-basic allomorph 237
non-consonantal 70
non-distinctive 49, 67
non-nasalized 70
nontonal language 120
nonsuspicious pair of sounds 173
non-syllabic sound 100
non-syllabic vowel 101
nonvocalic 70
norm 149, 352

objective method 124
obstruent 26, 95
occlusion 22
off glide 45, 346
on glide 45
one-dimentional system 91, 93
open juncture 109
— vowel 28
opposition 69
— bilatérale(f.) 76, 86
— constante(f.) 81
— équipollente(f.) 81
— graduelle(f.) 80
— indirectement distinctive(f.) 89
— — phonologique(f.) 89
— isolée(f.) 79
— lexicale(f.) 112
— multilatérale(f.) 77
— — hétérogène(f.) 78
— — homogène(f.) 78
— neutralisable(f.) 82
— phonique(f.) 61
— phonologique(f.) 61, 62, 112
— — complexe (f.) 63
— — simple(f.) 63
— privative(f.) 80, 86
— proportionelle(f.) 79, 86
— syatactique(f.) 112
oral 70
ordered class 64
ordre(f.) 86, 90, 352, 376
organs of speech 14
oscillograph 124
outer closure 15
ouverture(f.) 101

paire corrélative(f.) 86
palatal 31, 38
palatalization 38, 71, 252
palatalized 38
— consonant 38
paradigmatic relation 74
paragoge 500
parole(f.) 72
pattern congruity 165
pause 98, 154, 243, 246
peak 100
penultimate 113
pharyngal 31
pharyngalization 39
phone 46, 51, 116
phonematics 122
phonématique(f.) 122
phoneme 51, 66, 116, 122, 351
phonème(f.) 62
— croissant(f.) 102
— décroissant(f.) 102
— apparié(f.) 87
— non-apparié(f.) 87
phonemic syllable 105, 106
phonemically conditioned (allomorph) 240
phonetic alternants 240
— syllable 105
— symbol 14
phonetics 14

phonologically conditioned allomorph 240
— defined allomorph 240
phonologie(f.) 111, 122
phonology 122
phonostylistique 112, 114, 234, 537
physiological phonetics 14
physiophonétique(f.) 53
pitch 117
— level 112, 229
plain 71
plosive 22
point d'articulation(f.) 28
point of articulation 30
point vocalique(f.) 103
position de neutralisation (f.) 81
— de pertinence(f.) 81
— of articulation 28
postpalatal 31, 34
postvelar 31
prepalatal 31, 34, 35
prevelar 31, 148
primary articulation 37
— cardinal vowel 40
principal member 149, 236, 352
privative(f.) 97
progressive assimilation 462
prominence 99, 105
prosodeme 122
prosodème(f.) 122
prosodic distinctive feature 122
prosodic feature 109, 121
— phoneme 122
prosodie(f.) 122
prosody 122
psychological equivalent 53
psychophonétique(f.) 53
pulmonic 15

quality 99
quasi-homonyme(f.) 49, 89

rapport exclusif(f.) 76, 82, 84
rapports associatifs(f.) 74
— discursifs(f.) 75
— mémoriels(f.) 74
— syntagmatiques(f.) 74
réaliste(f.) 66
reciprocal assimilation 462
redundant feature 92, 110, 126
register 118
— -tone language with contour overlap 119, 406
regressive assimilation 462
relative sonority 99
release 22
rendement fonctionnel(f.) 89
représentant de l'archiphonème(f.) 82, 85, 398
retention 22
retroflex 31, 307
retroflexion 38, 43
rising diphthong 130
rolled 25
rounded vowel 39

schwa 42
secondary articulation 37
— cardinal vowel 41
segment 60
segmental phoneme 147, 225
sémantème(f.) 395, 479
semi-vowel 45
série(f.) 85, 90, 91, 376
— marquée(f.) 87
— non-marquée(f.) 87
sharp 71
signifiant(f.) 415, 527
significations intellectuelles (f.) 61, 111
signifié(f.) 111, 527
son parasite(f.) 354
sonante(f.) 26
sonorant 26, 106
sonority 98, 99
sons impermutables(f.) 49, 131, 140
— permutables(f.) 49, 131
sound 46, 59
— spectrograph 124
— symbolism 528
speaker 491
speech-sound 51
spelling pronunciation 250
spirant 24
stop 22
stress 120, 230
— language 121 230
strident 71

stroboscope 124
stroneme 121, 122, 230
structural pressure 118
structure 75, 127
subjective method 124
subsidiary member 149, 236
substitution frame 120
— item 120
— list 120
suprasegmental phoneme 122, 147, 225
suspicious pair 173
syllabe phonétique(f.) 104
— phonologique(f.) 103
syllabic consonant 101
— sound 100
— stress 105
syllable nucleus 107
synonym 74
syntagmatic relation 74
système vocalique à deux classes(f.) 92
système vocalique à deux degrés(f.) 91
système vocalique à quatre classes(f.) 92
système vocalique à quatre degrés(f.) 91
système vocalique à trois classes(f.) 92
système vocalique à trois degrés(f.) 91
système vocalique à une classe(f.) 91
système vocalique quatrangulaire(f.) 92
système vocalique triangulaire(f.) 92

tense 70, 337, 430
— vowel 44
tension 104, 114, 115
tenue(f.) 22
terme extrême(f.) 81
— marqué(f.) 80
— moyen(f.) 81
— non marqué(f.) 80
terminal contour 112, 413
theoretical base form 391
three-dimensional system 93
thyroid cartilage 17
tone 117
— language 117
toneme 117, 120, 122, 231, 402, 406, 418
traits pertinents(f.) 68, 82
transposition 512
trill 25
two-dimensional system 93

Umlaut(D.) 253, 468
unchecked 71
unique element 279
unité phonologique(f.) 63
— — distinctive (f.) 62
unrounded vowel 39
utterance 61
uvular 31
— fricative 41

valeur(f.) 75
— monophonématique (f.) 160
— polyphonématique (f.) 160
variante(f.) 140
— combinatoire(f.) 140
— facultative(f.) 132
— libre(f.) 122
variation of sound 58
variphone 132
velar 31
velarization 38
velaric 17
velarized 38
— sound 38
vocal chords 17
— murmur 20
vocalic 70
voice 19
voiced 70
— sound 19
voiceless 70
— sound 19
vowel 27
— harmony 274

whispher 20
wide 337
word-pitch system 120

zero modification 517

〈저자 약력〉

서울 출생. 성균관 대학교·연세 대학교 교수 역임. 현재 서울 대학교 교수. 재단 법인 한글학회 이사장.

저서 : 『중세 국어 연구』, 『국어 음운론』, 『언어학 개론』, 『개고 국어 음운학』, 『우리 옛말본』 외 논문 다수.

國語音韻學〈改稿新版〉 값 6,500원

1965年 10月 5日 初版發行
1983年 3月 30日 重版發行



著作者 허 웅
發行者 崔 東 植
印刷所 南海文化社

서울特別市中區忠武路 5街22-5
發行 正 音 社(倫)
〈登錄·1950. 11. 1. No.2-3〉
對替 522458／電話 ㉖ 9580～1